



Investment Guide of the Russian Far East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사업단

발간사

2012년 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정부는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영도하의 러시아정부에 ‘극동개발부’와 ‘극동개발펀드’가 새로 설치되었고, 금년 초에는 총 10조 5천억 루블(약 3,300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포함하는 2025년까지의 장기극동개발프로그램이 국가계획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러시아정부는 2012년 여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톡 일원의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정부의 장기극동개발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는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 전역에서 교통·운송인프라의 정비, 주택·학교 등 사회인프라의 확충, 에너지자원의 생산, 가공설비의 신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금까지의 낙후한 변방지역에서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개발 중심지 중 하나로 환골탈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정부에 의한 대규모 극동지역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기업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지역의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투자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평가해보고, 이 지역에 대한 진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러 정상간의 회동이 있었던 데 이어, 조만간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 및 러시아 극동지역 관련 경제협력 정책을 과거보다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주재한 우리 총영사관에서 러시아 현지의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최신 자료와 정보를 정리한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원고를 완성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극동지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이 책을 광범위하게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연구원의 발간물로 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공동발행자인 블라디보스톡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사업단 측에서 까다로운 원고의 작성과 번역 및 감수를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일형

발간사

이 책은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정보를 갖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기반하여 학술서적이 아닌, 기업을 위한 실용적 내용을 담기 위해 내용구성 과정에서 저자들과의 정기적 토론, 러시아 극동 9개 지방정부와의 자료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과 관련있는 국내외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러시아 및 한국 전문가 세미나 등 입체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다음 측면에서 기존의 책과는 차별화됩니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정책, 투자환경, 유망투자분야, 성공·실패사례, 투자자 준수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니스트영, EBRD, 로펌, 회계법인, 경제전문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가급적 살아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려 하였습니다. 넷째, 정치·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이해와 소양이 투자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인문학적 가치도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동일한 주제에 대해 한국 측 전문가들도 집필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성공·실패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 책이 러시아정부 측에는 투자환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정책,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정부 측에는 극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극동진출 전략과 정책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투자자에게는 극동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극동 진출

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한·러 극동간 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도 이 책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은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진행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용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책 집필을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 극동 양측에서 많은 기관들과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해준 것이 금번 책자 발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극동개발부, 극동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부, 연해주 주정부를 비롯해 9개 극동 주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총영사관에도 감사드립니다. 10명 이상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라트킨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국제비즈니스경제연구소장, 예로힌 어니스트영 극동지부장, 르이시엔코 러시아 베키 로뎀 대표, 랍스키 무어스티브스 대표, 라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장, 스페틀로프 극동연료·에너지단지 전략연구센터장, 노보셀초프 NIMF 부소장, 테르스키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 및 세계문제연구소장, 파크롭스키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 교수, 크리빌레비치 극동연방대학 교수, 쥐론키나 월간경제지 극동캐피탈 편집장, 사비노프 러시아 중소기업중앙협회 연해주지부 지부장, 쿠쉬나료프 러시아 중소기업중앙협회 연해주지부 자문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정여천 KIEP 선임연구위원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러 극동관계의 새로운 20년이 시작되고, 러시아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우리 신정부의 유라시아 중심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책자가 발간되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책이 한국의 극동진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
이양구

발간사

러시아 극동개발이 한·러 간 주요 의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 전입니다. 2001년 당시 푸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나훛카 공단 건설 및 수산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TSR-TKR 연결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이라는 매우 전형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함으로써 자원과 철도 등 향후 정부의 한·러 협력의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매우 의미있는 선언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어떤 프로젝트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ABM 보존·강화 합의에 대한 한·미 관계의 부정적 여파로 이 합의는 이미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극동개발 협력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 2005년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나 마찬가지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2008년 9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으로써 새로운转机(轉機)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소위 3대 신실크로드(철도, 에너지, 농업) 실현,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P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으나, 결국은 정부간 의제 반복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부간 극동 개발 의제의 반복은 양국 관계의 피로감을 증폭시켰으며, 극동개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양국간에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푸틴의 '신동방정책'과 '신극동정책' 간의 접점을 찾음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한·러 경제협력의 공감

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점에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극동개발인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의 한·러 협력에 관한 많은 의제들이 실현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물론 북한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장애요인은 러시아 극동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러시아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법제 및 투자환경을 가진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제껏 러시아 극동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법제, 지방별·산업별 투자환경, 투자사례 등 투자 결정을 위한 정보들이 러시아 극동의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문헌 정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1차자료 수집,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투자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론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서적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에 결정적 공헌을 하신 이양구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이일형 KIEP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체 발간과정을 함께 해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의 동료 교수들과, 방대한 양의 러시아어 원고 번역을 지휘하고 감수해준 티엘코리아 대표 유승만 박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엄구호

차례

발간사	ii
서론	1
제1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5
1. 러시아 극동지방의 일반적 특징	5
2. 극동에 대한 연방 및 지역 개발계획	9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 및 지역 활동	17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25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제	25
1) 투자제도 및 투자에 대한 보장	25
2) 외국인투자의 제한	26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7
2. 극동에서의 회사 설립 및 사업 수행	28
1)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	28
2) 현대 러시아의 시장동향	29
3)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금융수단: 대표적 대안	30
4) 직접투자에 따른 금융서비스, 보험, 감사, 평가 및 기타 서비스	34
5) 외환관리	36
6) 법적 기반	39
7) 추진 및 관리	58
8) 위험성 및 전형적인 실수: 변호사, 감사, 금융전문가의 조언	97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105
1. 거시경제적 분석	105
1) 2004~11년 극동지역 발전의 거시적 분석	106

2. 투자 및 투자환경: 최근 동향	112
1) 투자유치의 주요 동향	112
2) 극동지역별 투자환경	115
3. 극동 연방 관구 내 투자 위험성	133
1) 사하(아쿠티야)공화국 투자 위험성	133
2)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134
3) 연해주 투자 위험성	135
4)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135
5)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136
6)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137
7)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138
8)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139
9)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139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기업 관점	140
5.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특징	146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망투자 대상	157
1. 에너지	157
1) 전기에너지	157
2) 석유와 가스 생산	164
3) 광물자원	184
4)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219
2. 농업	223
1) 개요	223
2) 발전 전망	228
3)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도전과제들	230
4) 문제점 해결방안	231
3. 어업	233
1) 일반적 특성 및 혁신적 유망 프로젝트	233
2) 투자자들의 당면 문제점 및 도전과제들	238
4. 임업	240
1) 일반적 특성	240

2) 우선투자 프로젝트	241
3) 임산물 수출동향	244
4)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 시 문제와 전망	246
5. 운송과 물류	247
1) 해상 운송	248
2) 내륙 수운	254
3) 철도 수송	256
4) 항공 운송	260
5) 도로 및 육로 수송	263
6) 관로 수송	266
6. 인프라 및 건축업	268
1) 2018년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된 건축사업	268
2) 설계 시공회사 개요	275
3) 건축자재 시장	275
4) 건축공사 및 수행절차	276
7. 서비스 분야	280
8. IT 및 통신 부문	288
9. 중공업 부문	289
10. 은행 부문	295
11. 금융 부문	304
12. 의료 부문	335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자의 교훈 및 경험	343
1. 칼루가 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성공사	343
2. 성공사례: ‘하바롭스크공항’ 사(社)와 ‘인천국제공항’ 사(社)의 협력	356
부록	365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진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365
1)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여기에 투자처가 있다	365
2) 21세기 초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방향과 극동 투자자들의 고려사항	375
3) 극동 러시아 진출방안	386
2. 러시아 극동지역 정보	397

1) 연해주 지방	397
2) 하바롭스크 지방	403
3) 사할린 주	419
4) 마가단 주	422
5) 캄차카 주	426
6) 아무르 주	448
7) 유대인 자치구	454
8) 추코트카 자치구	458
3.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459
1) 연해주	459
2) 하바롭스크 주	467
3) 사할린 주	480
4) 마가단 주	484
5) 캄차카 지방	492
6) 아무르 주	500
7) 유대인 자치구	502
8) 추코트카 자치구	502
9) 연방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트	502
4. 외국 및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20
1) 서문	520
2) 외국인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521
필자소개	555
참고자료	557

서론

극동지역은 소련 및 러시아의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에서 항상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천연자원과 부동항의 존재, 그리고 중국, 북한, 한국, 미국, 베트남 및 다른 환태평양 국가들에 근접한 경제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극동지역에 중앙집중화된 계획에 기반한 시장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이 지역에는 어업, 기계건설업, 임업, 광업, 화학, 운송 및 과학·교육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자금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었다. 이 지역에는 교통·운송, 원자재, 대외경제 및 기타 범정부적인 기능들이 할당되었고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왔다. 이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인구나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가 세입 측면에서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1987년에 승인된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장기 국가프로젝트에 따라 2000년도까지 이 지역에 인구를 1,000만 명까지 유입·유지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및 운송 분야에 전문화된 고효율의 국민경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시장개혁의 틀 안에서 민영화와 함께 극동지역 기업에 대한 정부 발주와 기업 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이 삭감되면서 원 프로젝트의 목적달성은 요원해졌다. 게다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는 어업, 임업, 광업 및 기타 다양한 산업부문의 주요 기반이 노후화됨으로써 사회주의 시대에 축적되었던 생산, 산업기술 및 지적 잠재력마저 저하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극동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일본, 한국, 중국 산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러시아 서쪽지역 또는 유럽으로의

역이주가 발생함으로써 이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극동지역 총인구는 시장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24%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역내 소비시장이 감소하고 역내 투자 유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으로써 현재 이 지역 인구는 620만 명에 머무르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시장경제정책 1단계에서 극동지역에 실행되었던 ‘나훗카’, ‘사할린’, ‘에바’, ‘마가단’과 같은 경제자유지역의 선정뿐 아니라 ‘두만강’ 국제 프로젝트의 실행,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 진행됐던 한국과의 공동 산업단지 조성은 높은 투자효과에 대한 애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2000년이 되어서야 극동 경제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외국인투자 규모는 16.5배 증가하여 2011년 현재 9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유치 자금의 70% 정도는 사할린 주 에너지 자원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극동 인구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는 러시아 투자 유치 평균 규모의 1/3 수준으로, 이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푸틴 현 대통령은 극동에서의 위기상황 극복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극동지역과 바이칼호 동부지역에 대한 2025년까지의 새로운 발전전략과 러시아정부의 다른 개발 프로그램 속에 정의 되었고, 여기에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수립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존 기업들을 현대화함으로써 극동에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추산에 따르면,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얼마 전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효과적인 사업 및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별·부문별 우선적 투자자들에게는 명확한 투자 청사진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러시아의 외국 파트너들에게 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책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준비되었으며, 이 책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여러 저자들

의 발의 및 재정적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다. 기고 저자로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극동연방대학,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태평양수산업 과학연구센터, 극동합대 과학연구소의 여러 학자들을 포함하여 러시아 중소기업 중앙협회인 'OPORA Russia'의 대표, 그리고 여러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제1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1. 러시아 극동지방의 일반적 특징

620만 km²(러시아 연방 전체 면적의 35.4%)에 이르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캄차카 지방, 연해주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구 및 추코트카 자치구를 포함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은 러시아 제국 시대에 정부 정책상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904년에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건설에 엄청난 재정적·인적 자원이 투입된 바 있다.

1930~40년 사이의 산업 군사화 시기에 이르러 극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모델이 복원되었다. 개발자원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투자되었고, 교통비, 인건비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해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극동에 광업 및 방위산업 부문에서 강력한 산업경제가 형성되었다. 정유, 조선, 선박 수리, 시멘트 생산공장 및 발전소가 빠르게 건설되었고 광범위한 지질탐사도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전체 자본투자 대비 극동 경제에 대한 자본투자 비중이 6%까지 증가하였다. 산업 총생산액은 6배로 성장했는데, 이 규모는 지역 생산의 80%에 이르는 것이었다. 정치범과 망명객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이주민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극동 경제는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치화되었다. 우선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이 발전하면서, 국방에 쓰이는 유용광물(텅스텐, 몰리브덴, 석유 등)의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이 지역의 발전은 우선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유일한 경제형태는 국내시장뿐이었다.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자율적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중앙정부 기관들의 자원 재분배정책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투자기금들이 정부의 여타 일반기금으로 이탈되기도 했다.

종전 후 소련 국가정책의 모든 자원은 러시아 유럽 지역의 회복에 집중되었다.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었고, 중국에는 우호적인 공산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극동지역의 발전은 최우선과제가 될 수 없었다. 극동의 발전속도는 둔화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자본투자 비중은 하락했다. 스탈린 사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원료를 수출함으로써 극동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1960년대에는 보상계약의 형태로 일본 자금의 유치가 시작되었으며, 국가간 무역도 재개되었다. 그러나 합작기업 및 국가간 무역은 정부 계획의 틀 안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수익은 모아져서 중앙정부에 의해 배분되었다.

1965~75년 동안 소련방에서는 공공생산이 대폭 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포괄적 성장 모델은 새로운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의 보고인 극동지역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소련방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극동에서는 강화된 군사그룹을 만들고 후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67년 소련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방 장관 위원회는 극동 경제구역 개발에 관한 법령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색광물, 어업, 임업, 펄프 및 제지, 목재가공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채굴, 화학, 경공업, 식품업, 방위산업 등이 지원분야로 발전되었다. 지질탐사에 대규모 재정이 배당되었고, 에너지 개발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생겨났다. 사회분야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민자를 위한 특혜가 다시 적용되었다. 그 이후 극동지역은 수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1975년부터 성장속도가 러시아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시절보다 둔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값싼 원자재가 고갈되고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소연방 경제는 전체적으로 투자가 부족하였다.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상당한 금액이 식료품 수입과 군비 경쟁으로 지출되었다. 1976~91년 사이 그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되었다. 그 결과 임업, 펄프 및 제지, 목재가공 분야에서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소연방 경제에서 극동지역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채굴분야가 극동지역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임산물 및 수산물 가공 공업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타의 모든 지역 물품은 소연방 국내시장에서 소비되었다.

정권을 잡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선언했고, 그 결과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견지에서 1987년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연방 장관 위원회는 2000년까지 극동 경제지구, 부랴트, 치첸스카야 주에서 종합적인 생산력 개발에 관한 장기 정부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의 전제는 대규모 자원, 과학, 생산 기반을 지닌, 발전된 사회분야와 유기적으로 국내외 분업이 이루어진 극동지역에 고효율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향후에 극동은 내부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했다.

비록 수년 동안 극동 발전센터의 투자는 2배로 증가되었지만, 1987년 해당 프로그램은 소비에트 정치·경제 모델의 총체적인 위기와 맞물려 실행되지 못하였다. 1990년에 처음으로 극동지역 경제침체가 기록되었고(2%), 생산, 기술의 단절로 인해 지역의 전 분야에서 생산의 침체가 악화되었다. 부정과 오류 속에서 재산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기대했던 지역 생산효율 증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Dalryba’, ‘Dalpolimetall’ 등의 기존 대형 생산연합체들이 물질·기술적·경제적으로 빈약한 소규모 기업으로 해체되면서, 경제적 수익의 감소뿐 아니라 주요 자금의 실제적·도덕적 해이와 파산을 가져왔다.

정부의 군수물자 주문과 수산업 및 농업 콤플렉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발달된 지역인 연해주에서는 공업이 차지하는 총내수 및 노동력 비중이 하락하였으며(65%에서 15%까지), 이에 따라 무역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

였다. 극동지역 전체 경제구조에서 자원분야의 비중은 25%, 운송 13%, 건설 8%이며, 가공부문은 극도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0년 「전 러시아 총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극동지역 상주 인구는 도시민이 우세한 가운데 629만 1,900명에 이르고 있다(러연방 총인구 수의 7.8%). 인구밀도는 1km²당 1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극동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탄화수소, 헬륨, 석탄, 금, 동, 다이아몬드의 최대 매장지이며 유색 광물, 희귀 금속, 우라늄 인광석, 주석, 형석 광석, 그리고 기타 유용한 광물·비광물의 대규모 산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자원 잠재력은 이리저리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 이유들로 인해 완전하게 이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극동경제를 구성하는 노동생산력은 일본에 비해 4배, 미국에 비해 6배, 한국에 비해 2.5배, 오스트리아에 비해서는 5배 낮으며, 명시된 극동지역의 노동생산성은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도 낮다. 극동에서 지역 총생산량 대비 주요 에너지 소비량 비율은 러시아 평균보다 2.5배 높인데, 그중 전기에너지는 1.8배, 석유에너지는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지역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미미한 편이나 특정 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아연의 100%, 98% 이상의 다이아몬드, 67.5%의 금이 채굴되며, 65%의 수산물이 획득된다.

극동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통계는 고용, 평균 소득, 지역생산량, 투자 등에서 러시아의 평균적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러시아 평균 수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주(州)의 경제지역에는 임금과 가격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수익과 지출은 극한의 생존조건을 지닌 지역에서 발생하며(마가단), 가장 비용이 낮은 지역은 침체지역이다(유대인 자치구, 아무르 주).

극동지역의 교통망은 러시아 중심부에 대해 덜 발달되어 있다. 이용 가능한 철도 길이는 러시아 전체의 13.8%이며, 포장된 자동차 도로는(일반 도로와 행정도로) 9.5%, 수로는 28.7%이다.

주요 교통로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이다. 현재 시

베리아횡단철도의 수출 및 환승 운송 통행량은 연간 100만 톤에 이른다.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운송 가능량은 연 1,250만 톤이며, 이 중 280km 정도 구간은 수송 여력이 없다. 철도 운송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60%에 이른다.

항공운송은 이 지역에서 장거리 여객수송 및 소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접근하기 어려운 북극지역과 쿠릴열도 지역은 연중 지속적인 운송의 제한을 받는다.

극동지역의 항구들은 러시아 해양항구 적재량의 총 17.7%를 담당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나홋카, 바닌스크 교통망은 극동 연안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파이프라인 수송 분야는 러시아의 통합 파이프라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극동의 에너지 자원개발은 러시아의 통합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통합시스템과의 기술적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극동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 에너지시스템과 다수의 소형 에너지센터 및 구역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한편, 중앙에서 소비자나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은 지역까지 전력망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에너지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다른 지역 에너지 시스템보다 더 많은 발전량이 비축되어야 한다.

극동지역은 대외 경제관계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이 지역 상품교역량의 총 75% 이상이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왔다.

2. 극동에 대한 연방 및 지역 개발계획

극동지역의 자원구조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시장을 급속도로 재편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극동지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6년 연방목적프로그램 「극동 및 트랜스·바

이칼 지역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이 승인되었으며, 이는 수정을 통해 2010년까지, 그리고 다시 2013년까지 연장되었다.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의 시장경제 적응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경제의 심각한 재정 및 예산 불균형 속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수차례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2000년대 중반은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기간이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이 기간 동안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큰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외채를 미미한 수준까지 줄였기 때문이다.

소련시대에 유일한 투자자원이 소비에트의 예산이었다면, 현재의 개발 프로그램은 정부보조금, 자유경제구역 설정, 정부의 직접조달, 거주민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반독점 규제, 투자자에 대한 정부 보증,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러시아는 조직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다. 프로그램의 주요 가치는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조정 경험 축적과 더불어 극동지역과의 관계에서 정부정책의 특정 목적을 어느 정도 형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00년이 되자 과제와 실제 결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행 메커니즘 사이에 모순들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5년 정부는 계획했던 예산의 10%만을 투자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은 극동지역 개발의 종합적인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 비록 지역생산은 2000년부터 꾸준히 성장하였지만, 그 속도는 러시아 국내 총생산의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2006년 12월 20일 러시아연방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무엇보다도 극동지역의 장기 개발전략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이 위원회에 의해 의결되었다. 그러한 결정은 2013년까지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발전을 위한 연방 계획 프로그램의 전문에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경제는 대체로 외부시장과의 연계가 약하며, 자원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것이 특징이다. 1999년 극동과 트랜스·바이칼 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일반적인 지역과 비교할 때 성장속도가 앞서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이러한 장점이 사라졌다. 이는 생산부문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역

총생산의 추이는 공산물 생산속도의 저하와 함께 소매유통과 서비스의 증가로 특징지어진다. 2006년 극동지역 총생산규모는 러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당시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용 광물의 채굴이었다(44.8%).

1990년대에 기계, 장비 및 운송수단 부문이 이 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자재, 금속, 비가공 목재가 주요 수출품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과 트랜스·바이칼 지역은 아태국가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외국 인투자는 극동지역 중 사할린 주에만 집중되었다.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입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 러시아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이 모든 것은 지역 내에 만연한 부정적인 추세 때문이었다.

또한 러시아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것이었다. 쿠릴열도 문제의 첨예화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사회경제지표상 상당한 차이가 생겼고,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역사적인 상호 의심과 의혹 관계가 지속되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극동에서 러시아의 국가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 영구 거주자의 지속적인 영주
- 중앙정부에 대한 영구 거주자들의 정치적인 충성도
- 영구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필수품 공급의 자율성
- 외부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지역 행위를 반영하는 영구 거주자들의 능력
-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 유지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러시아 연방정부가 내린 이후의 결정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얼마 후 극동지역, 부랴트 공화국, 트랜스·바이칼 주, 이르쿠츠크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위원회는 상기한 전략들이 모든 해당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러연방 지방개발부에서는 2025년까지 극동지역 및 트랜스·바이

칼 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로 연장된 연방목적프로그램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수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모스크바에 중앙운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지방개발전략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독립 학문·실용 조직인 지역발전 국제센터가 해당 업무의 이행자로 선정되었다.

지역발전 국제센터의 전략 수립은 주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역의 부문별 연구소와 프로젝트 기관들이 담당하였다. 기초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들이 협력하였으며, 정부 각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전략 수립가들은 지역의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 외무부, 연방안보부, 연방이민부, 대외정보부들이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이는 경제문제와 함께 안보문제가 전략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역발전 국제센터 프로젝트는 러연방 정부에서 추진했으며, 적용범위 내의 전 지역에서 공청회를 거쳤다. 해당 전략은 러연방 지역발전부의 수정을 거쳐 2009년 12월 28일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전략은 교통, 에너지, 기타 인프라에서 지역의 미래 요구를 결정하고, 경제성장지역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전략시나리오는 2020년까지 러연방 사회·경제 장기 개발콘셉트와도 관련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경쟁력 있는 특혜 및 지역의 천연자원, 교통잠재력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 경쟁력 있는 제품 수출 확대, 교통인프라의 현대화에 입각하고 있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의 전략적 목적으로는 발전된 경제와 안락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수를 유지하는 지정학적 과제의 실현이 선정되었다. 결국 군대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과제의 실현을 통해 자주권과 영토 보존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 입장에서 해당 전략은 성장플러스이론과 무리접근법(Frame-Cluster Approach)에 기초하고 있다.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 개발전략 문서의 광범위하고도 의미 있는 개정이 2008~1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중에는 사회·경제 장기개발 콘셉트, 국가안보전략, 극지방에서의 정부전략 기초, 해양 독트린, 운송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건의 모든 이념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니다. 예를 들어 러연방 대외정책 콘셉트에서 아태지역의 지리적 우선순위는 목록에서 대개 4~5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몇몇 문서들, 예를 들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 관계 콘셉트 등은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21세기 초 극동지역은 다수의 러연방 부문별 정부 프로그램들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은 지역화에 관련된 두 가지 프로그램이다.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개발」 프로그램은 2007년에 대폭 수정되어 2013년까지 연장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아태지역의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 시의 개발」이라는 하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7년이 되어서야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전체 프로그램에 19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 중 약 50억 달러가 블라디보스톡 개발을 위해 책정되었다. 대부분의 연방 예산이 운송(58%)과 에너지(28%)에 투입되었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개발을 위한 하부 프로그램들이 수차례 확장되었다. APEC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건설 관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연방특별법이 승인되었고, 이로 인해 블라디보스톡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들과 기관들도 해당 하부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예를 들면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부설).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정학적 이익과 러연방 안보 확보를 고려하여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경제의 우선부문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과제로는 일자리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 수를 보전하고, 지역수준에서 경제발전을 막는 구조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기술인프라 및 사회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이다.

2006년 러연방정부에 의해 확정된 「2007~15년 쿠릴열도의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은 주민생존 및 기업 활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에 위치한 공항, 북쿠릴 지역의 헬기 착륙장, 몇몇 항만 구역, 항구와 공항에서 주거지를 연결하는 자동차도로, 양식장, 에너지 공급시스템, 수로, 사회시설(병원, 학교, 유치원) 건설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다. 일본 열도의 정치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시스템도 도입하였다.

세계 경제위기는 극동지역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을 위축시켰다. 「2011년 연방 예산 및 2012~13년 예산 계획」에 관한 법안에 따라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지원금액이 62%까지 감소하였다. 러연방 정부는 2018년까지 이 금액을 해당 지역에 돌려줄 예정이다. 부문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감축하였다. 유일하게 블라디보스톡 개발에서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톡 개발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러연방 감사원(Account Chamber of Russia)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APEC 정상회담 개최 후 5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전용이 있었으며, 정상회담 초기에는 시설물의 1/3만이 이용 가능했다. 러연방 검찰청은 APEC 정상회담에 책정된 금액 중 300만 달러를 착복한 것으로 전(前) 지역개발부 차관인 로만 파노프를 기소하여 구속시켰다.

2013년에는 2018년까지의 연방 프로그램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개정 확정이 이루어지는데, 1) 이는 교통, 에너지, 정보·커뮤니케이션, 사회인프라의 빠른 성장, 2) 개발의 기저가 되는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프로젝트 실현, 3) 공업, 농업, 어업, 건설 구역, 중소기업 사업, 관광 구역의 개발, 4) 지역 에너지 공급의 최적화, 5) 낮은 주거지 문제 해결, 6) 환경보존, 7) 안락한 생활조건과 고용을 위한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민의 유입을 장려하고 유출을 막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러연방정부는 예산 부족에서 벗어날 것이며, 이는 지역 발전프로젝트에 보다 실질적인 예산 책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1세기 초 러시아연방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극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자유경제구역 조성에 관한 러연방 경제개발부의 논의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극동지역에서 소베츠키야가반 시(市)에 항만지역 조성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가 났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극동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개발전략 실행계획에는 중국과의 양자 경제지역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러시아 정치지도자들 사이에는 해당 아이디어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연방 재정부는 정부의 일반적인 과세제도에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21세기 초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교통시스템과 관련되었다. 소비에트 시절에는 치타에서 하바롭스크에 이르는 길이 2,100km의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졌다. 야쿠츠크에서 마가단을 잇는 고속도로 역시 형식적으로나마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일부 구역은 아직도 이동이 위험한 실정이다. 최근 20년간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로의 건설은 아무르·야쿠츠크 간선인데, 이는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극동지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의미가 큰 사업으로는 부레이스크 수력 발전소,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배관 부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동부 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부설에도 희망이 있다. 배관망을 보수하고 목표 송출용량을 달성한다면, 극동지역 에너지 요금을 상당량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 역시 교통분야에서와 유사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정부기관과 기업 간의 의견 불일치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프로젝트의 수행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만 했다.

2007년 러연방 대통령은 우주비행선, 운송선, 우주정거장 모듈 준비와 발사를 위한 과학·사회·경제적 목적과 상업적 목적을 모두 지닌 우주선 기지를 아무르 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우주선 발사장 ‘보스토치니’의 건설은 연방 우주 프로그램과 로켓·우주 산업개발전략 차원에서 2015년까지 실행될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 이후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주요 투자가 우주기지 건설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6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인구통계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과거 연방 및 공화국(CIS 국가)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구사 동족인들을 러시아로 끌어들이므로써 주민 수 감소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발적인 이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주 및 서류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 이주 준비와 동시에 수당 지급, 노동활동을 통한 수입이 없는 경우 월별 수당 지원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약 4만 명의 이주민 유치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프로그램 진행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수백 명의 자국민이

주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이주에 책정한 재정과 일자리는 유능한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을 가져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좀더 현실적인 과제는 기존 주민들의 유출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며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해당 프로그램은 보여주었다.

러시아 정권은 극동 거주민들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일상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극동지역과 중앙지역 간의 높은 교통비에 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2009년부터 러연방정부는 23세 미만 60세 이상의 주민에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행 항공권 가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항공권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여름 성수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전략 실행계획에 따른 세금 부담의 최적화와 요금 조정안은 극동지역과 러시아 유럽 지역 간 항공 운임 하락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극동지역에 외국인의 영향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중고차 수입과 관련된 싸움이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 수입한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들이 극동 자동차 시장의 80~90%를 차지했다. 연방정부는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운행상 위험성이 높은 오른쪽 핸들 자동차 유입을 억제하며, 러시아가 자동차 폐기물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수입을 제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결국 2009년 초 금지적 관세율 시행과 2012년 오른쪽 핸들 자동차의 등록 금지를 통해 이러한 싸움은 종료되었다. 중국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소위 '민간무역'이라 불리는 상품들이 러시아로 유입될 경우, 이들과 러시아 연방 세관부서 사이에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러연방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원목 수출에 대해서도 보호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러시아 경제상황의 안정은 해결되지 못한 지방 발전과제로 눈을 돌리게 하였다. 2012년 극동지역 개발에 관해 새로운 제도적 방안들이 받아들여졌다. 극동지역 소재 러연방 대통령 전권 대리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러연방 극동지역 개발부가 설립되었다. 해당 부서는 극동지역에서 정부프로그램과 연방목적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지역 내 연방의 재산을 운영하며, 러연방의 전권을 부여받은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한다. 하바롭스크 주 전(前)

주지사인 빅토르 이샤예프가 이끄는 당 정부기관(부서)은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재정 마련을 위해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에 직접투자를 위한 펀드 설립도 시작되었다. 러연방정부에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국영기업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도 검토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 및 지역 활동

외자금액 증가와 유치의 효율성 확대를 목표로 2010년 러시아정부는 외국투자자들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방 투자 전권 대표 연구소를 창설하였으며, 2011년에는 특별 펀드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의 시급한 과제는 이 펀드와 다양한 공동투자자들이 투자한 국제경제 현대화 부분에서 최대한의 자본부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는 5,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배당금은 50%를 넘지 않고 있다. 펀드 자금은 첫 해 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12~16년 사이 약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펀드의 성공적인 업무활동 보장을 위해 국제감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한국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사장 양복진(400억US\$), 중국 국부펀드 사장(4,100억US\$), 쿠웨이트 국부펀드 사장(2,900억US\$)과 같은 전 세계 투자단체 대표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수출신용 및 투자금 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업무활동형태가 변화되었다.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준비를 위해, 투자업분야별로 9개의 상설업무활동그룹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극동과 시베리아에서의 기술 기준 정립 및 행정장벽 제거, 러시아 관세법 개선, 투자프로세스 개발과 같은 주요 과제를 담당한다.

2011년 5월 마침내 러시아에 전략개발부가 설립되어 사업환경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표준이 마련되었다. 해당 표준은 지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업무활동을 결정한다.

- ① 우호적인 투자환경 확보를 위한 지역 전략 수립
- ② 정보 및 모든 필수 승인서 수령 시 지역 내 본인들의 투자자들에게 「단일창구 규정」 확보를 위한 서비스 목록 정의
- ③ 지역 내 투자자들의 제조 및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조 설립
- ④ 핵심 문제에 대한 심의 시 투자자들의 참여 및 필수 정보 허용, 지역 책임자와 직접 면담 가능성 보장 등과 같이 지역수준 내에서 투자자들에게 법 기준 제공 등

접수된 표준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고려하고 있다: 수익성과 지역에서 사업·프로젝트 진행 시 투자금 회수기간, 계획한 결과 수령 시 발생 가능한 위험성들.

2011년 8월 3일부로 연방정부의 우선투자프로젝트 구현 경향 규정과 조정에 관한 법률이 러시아연방정부에 의해 발효되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금액은 자금의 원천에 관계없이 5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신규 사회경제발전센터(지역경제성장의 관점) 및 지역 제조 및 관광 클러스터 망 구축이 우선 투자프로젝트의 편성과 실행의 주요 목적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들의 경향에 대한 조정기능도 러시아연방 지역발전부에 위임되었다.

2012년 말 러시아연방 극동 발전부는 극동 및 바이칼 지역 발전에 대한 펀드기구들을 활용하여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우선순위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준비하였다. 해당 목록은 심사를 위해 외국 무역 및 투자 은행 브네쉐코눔뱅크로 보내졌다. 이 펀드는 해당 은행의 자회사에 해당되고, 그 목록에는 9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러시아 극동에 3조 3,000억 루블, 2018년까지는 9조 루블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9일 러시아 대통령은 국무 상임회의에서 극동과 트랜스·바이칼 지역의 발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지역들을 러시아의 경제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대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외국투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보유한 천연자원 채굴과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

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극동과 트랜스·바이칼 지역에서 사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닌 특별한 조건들이 마련 되어 한다는 점에 동의가 이루어졌다.

- ① 투자금액이 5억 루블 이상이며, 신규 제조업 활동 시작 후 처음 10년 동안의 수익에 대한 연방 차원의 세금을 '0'으로 설정
- ② 투자금액 5억 루블 이상의 고체 유용광물 채굴에 대한 세금 면제
- ③ 소득세를 기존 특혜 4.5% 낮추는 대신 지방 권력기관들에 0% 조건 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④ 국영·민영 합작하에 투자프로젝트 지원 시 극동과 트랜스·바이칼 지 역 개발펀드의 공인자본 감자(減資)를 150억 루블까지, 해당 펀드의 순차적인 증가로 효과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경우 1,000억 루블까 지 제공

프로젝트의 절반(43개)이 극동, 즉 야쿠티아와 하바롭스크 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두 지역은 이전 몇 년 동안 거대 투자금이 요구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편성된 곳이었다(특히 야쿠티아 남부 통합 개발프로젝트).

5개의 프로젝트는 지역간 사업에 해당한다. 바이칼·아무르 철도 간선, 시베리아횡단철도 일부의 현대화와 복원 사업,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망 연결사업, 육지와 사할린 섬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 극동 공항 개발산업이 이에 포함된다. 러연방 대통령으로부터 극동지역의 전권을 부여받은 빅토르 이샤에프는 극동의 철도망 개발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미 수년 동안 운송프로젝트 관련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지역별로 의의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야쿠티아에서는 몇몇 철도망 건설과 지역 항공 운송 발전, 북해로(海路) 개발을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츠키 지역에 항만 허브 건설, 연해주 보스토치니 항 주변에 연간 1200만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연안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센터 건립, 하바롭스크 주에 대형 창고가 있는 곡물 터미널 건설, 소베츠키야가반(Sovetskaya Gavan)에 냉장 터미널을 갖춘 생선가공공장과 철광석 집적 터미널 건설, 하바롭스크에서 세 번째로 재정지원을 받는 하바롭스크 아무르 강을 지나는 다리의 복원사업이다. 아

무르 주에서는 대로변 자동차 도로 건설을 포함한 쉬마노프스카야(Shimanovskaya) -가르(Gar)를 잇는 철도망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마가단과 남사할린에서는 공항 개발, 유대인 자치구에서는 아무르 강을 지나 니즈네레닌스크 마을로 이어지는 철도 다리 건설에 각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프로젝트들에는 에너지, 기술, 사회 인프라 설비의 개발 및 지역 제조 산업 발전에 대한 제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연해주의 그룹 ‘숨마(Summa)’의 곡물항 건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그룹의 사장은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대표인 지야부딘 마고메도프(Ziyavudin Magomedov)다.

운송인프라설비 역시 주요 프로젝트에 속한다. 저개발된 운송시스템은 극동에서 주요 경쟁우위인 천연자원의 전반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까지 모든 운송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8조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그밖의 북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요구에 뒤쳐진 극동의 전기 에너지 유통망 개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5년부터 연방 예산 책정 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고려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 재정부 및 경제발전부는 극동에서 세금 혜택 도입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였다. 이 제안은 채굴산업분야가 아닌 신규 첨단기술분야 사업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극동지역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정부는 무엇보다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극동에서 진행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고 결과 또한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정부 책임자가 지역 발전의 핵심을 자원원료 개발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극동 개발의 우선권은 국영·민영 합작사업과 대규모 산업프로젝트에 부여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지역 관리라는 보호모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혹은 소유주가 정부 책임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충성도를 입증한 민영기업이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들을 이행한다. 극동에서 ‘가스프롬’, ‘트란스네프티’, ‘로스네프

티’, ‘러시아철도청’, ‘합병조선사’,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 ‘연방 네트워크사’, ‘극동 에너지 관리회사’, ‘페트로파블롭스크’, ‘숨마’와 같은 회사들이 주요 투자사들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러시아철도청’은 2015년까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인프라 개발을 위해 4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충분한 예산이 우주산업에 할당되었고, 이 예산으로 2009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업계에 등기 자본금, 신용에 따른 이율 금리 보조금, 국가보증 등의 형태로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아무르 지역 우주선 발사장 ‘보스토치니’ 건설 초기 단계에서 8억 달러가 할당되었다.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이후 극동에서의 주요 국가투자금은 발사장 건설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지역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들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들에 비해 그 금액이 상당히 적다. 보통 이 프로젝트들은 어떠한 인프라 시설이나 관세의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서 거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 극동의 전통적인 투자환경의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력 부족, 판매시장 협소, 부정부패와 느슨한 법 집행. 또는 스파이 및 국경지역 불법 횡단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경지역의 독특한 생활방식이 활발한 사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육지뿐 아니라 극권(極圈) 너머 해상의 경계에 인근한 다수 지역에서 이주 및 개인소유지 보유에 관한 법을 축소시키고 있다.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극동지역 행정부서

- 사하공화국(야쿠티아): <http://sakha.gov.ru/node/4610>
- 연해주 지방: <http://www.primorsky.ru/authorities/executive-agencies/ departments/economics/>
- 캄차카 지방: <http://invest.kamchatka.gov.ru/>
- 하바롭스크 지방: <http://gov.khabkrai.ru/invest2.nsf/pages/ru/>

invest. htm

- 아무르 주: <http://www.amurobl.ru/wps/portal/Main/ekonomy>
- 마가단 주: http://www.magadan.ru/ru/government/Economy/invest_policy.html
- 사할린 주: <http://mininvest.admsakhalin.ru/>
- 유대인 자치구: <http://eao.ru/?p=158>
- 추코트카 자치구: http://chukotka.org/power/investment_projects/invest_coal/

각각의 지역 행정당국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은 유용 광물, 그 중에서도 석탄, 광석, 석유 및 천연가스, 그리고 기본 화학공정 처리, 운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해주는 석유화학 및 가스 산업, 화력발전, 레크리에이션 산업, 농공업 단지 개발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캄차카 지방은 레크리에이션 분야, 목재가공, 미래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바롭스크 지방은 항만 경제특구 ‘소베츠키야가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스터빈 생산 및 하바롭스크 공항의 현대화, 펄프 콤비나트 건설, 지역 광산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무르 주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니즈네-부레이스카야 수력발전소 건설이다. 또한 유용 광물 채굴 및 가공 산업, 시멘트 및 유리 생산산업, 농업 및 식품산업(특히 콩 재배 및 가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가단 주는 광석 및 갈탄 채굴, 그리고 우스췌스레드네칸스카야 수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할린 주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임산가공업, 석탄 채굴, 가스화학, 해양 바이오테크노파크 및 의학센터 건립, 스포츠·관광 단지 ‘고르니 보즈두흐(Gorny Vozduh)’ 개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대인 자치구는 지역 철광석 매장지에서 생산되는 김카노·수타르스크(Kimkano-Sutarsk) 광석 콤비나트 건설에 대해 각별한 희망을 품고 있

다. 콤비나트 건설에서 중국 측 아무르 강을 통과하는 철도 다리 건설프로젝트가 실현단계에 있다. 콩기름 정련, 흑연과 철광석 처리에 대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는 석탄, 주석, 그리고 아나디르(Anadyr) 지방에 있는 정유공장 건설, 순록과 바다 포유동물(녹용, 가죽, 수지) 가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기업 수준의 지역프로젝트 상당 부분은 2009년 최고 수뇌부들이 체결한 「극동, 동시베리아, 그리고 중국의 북동 지역간의 협력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실행은 매우 지지부진하여, 아직까지도 극동 경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투자 주도에 대한 베이징 측의 확실한 거부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측의 동의만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북동지방이 해당 프로그램 개발의 주요 투자처가 되었는데, 이 지방은 무엇보다도 사업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무역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은 러시아와 중국 어떤 측에서도 지역발전의 우선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단계로 들어간 과제들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을 통해 관철되고 있다. 중국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들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않으며, 중국 측 소유의 후보급로는 러시아 국경을 지나지 않는다(예를 들어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망은 드잘린다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아무르 강을 지나는 철도 다리는 니즈 네레닌스크 마을에 위치해 있다).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제

1) 투자제도 및 투자에 대한 보장

외국자본 유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업 수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

- 동산 및 부동산, 재산권(저당, 임대 등)
- 회사 및 기업의 지분, 주식 및 기타 형태로의 참여
- 금전채권, 유가증권
-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 법 또는 계약에 기반하여 상업활동(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생산 포함)을 행할 권리

러시아에서는 외국인투자 자체와 투자 수익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연방법에서 예외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이 러시아 투자자를 위해 제정된 규정보다 덜 호혜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오직 연방법에 의해서만, 그리고 헌정질서의 기반, 도덕성, 건전성, 타인의 권리와 이익, 국방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해질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은 연방법 제160-F3호 「러시아 연방에서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1999년 7월 9일)이다.

러시아연방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보편적인 투자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특이할 만하다.

-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여러 가지 투자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안정화 조항(러시아연방 법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부터의 보장)
- 투자 관련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 소득, 이익 및 기타 적법하게 취득한 금전의 러시아연방 내 사용 및 해외로의 송금 보장
- 외국인투자자가 토지, 기타 천연자원, 건물, 시설물,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현행 제한사항에 관해서는 다음의 '부동산' 부분을 참고)
-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있는 영리조직 재산의 국유화 및 압류 시 보상받을 권리

위에 열거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유가증권의 취득, 권리와 의무의 이전, 법적 보호, 사유화 참여에 대한 권리의 보장 등).

2)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제, 특히 독점 금지와 불공정경쟁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러시아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의 활동이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특별 규제가 존재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특별 규제가 적용된다.

- 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취급(우라늄광 탐사, 채취,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생산, 사용, 재처리, 운송, 보관 등)
- 무기, 군사장비, 항공장비의 개발, 생산, 수리
- 우주활동

-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민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지역 내에서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 러시아연방 차원의 중요도를 갖는 매장지에서의 지질학적 연구 및(또는) 유용광물의 탐사 및 채취
- 해양생물자원의 채취(어획)

상기와 유사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연방법 제57-F3호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있어 전략적 의미를 갖는 영리조합으로의 외국인투자 절차에 관한 법」(2008년 4월 29일)에 규정되어 있다.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사업체에 대해 외국인투자자가 관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은 유관 국가 기관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광물자원의 개발 및 채취에 대해서는 특수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본인의 활동에서 현지 자원을 반드시 일정량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몇몇 대규모 외국회사는 러시아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자체 프로젝트의 공사 및 운영 시 반드시 러시아산 자재와 용역(러시아 콘텐츠)을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회사들은 사업파트너들에게도 프로젝트 참여 시 러시아 콘텐츠 유지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 대러시아 투자 외국인 회사의 수익자, 주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과세, 외환관리, 소득세 및 부과의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그러한 조항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러시아 회사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러시아 회사는 배당금에서 세금부분을 산정 및 공제하여 러시아정부에 납세해야 하는 납세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러시아연방 세법 제284조 3.3항에 따라 배당금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로 정해져 있다.

몇몇 국가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키프로스와는 협정에 의해 5% 또는 10%가 정해졌다).

이런 경우 러시아 법인의 외국인투자자는 본인의 출신국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는 공증(아포스티유)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회사가 러시아 영토 내에 지사를 설립한 경우 지사에서 본사로의 자금송금은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배당금 형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사는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20%) 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세 납부 이후에는 수익을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2. 극동에서의 회사 설립 및 사업 수행

1)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

지난 2012년에는 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어 GDP 규모가 위기 전 수치를 넘어섰다. 유럽에서의 경기후퇴와 세계 경제대국 대부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4%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12년 러시아 경제안정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로는 고유가(연평균 110달러 이상)와 예산지출의 대규모 증가(21% 증대 계획안)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경제로의 투자 증가(약 8.3%)를 가능케 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석유 가스부문이 국가적 규모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s) 증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수출지향 원료부문의 안정에 의해서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내수성장과 국가의 수입 대체정책에 힘입어 내수생산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공산업에서의 생산은 부러워할 만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말까지의 생산은 2010년 초 대비하여 20% 증가했다. 2009년 위기 때와 비교해 기계, 설비, 운송수단의 제조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이웃 부문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부문이 가장 눈에 띈다.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설자재 및 비료의 팔목할 만한 생산증대는 향후 수년간 건설산업 및 농업 부문의 성장을 불러올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소비자 금융의

급속한 성장 또한 경제유지를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2012년 내수는 러시아 경제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연간 총수출량의 증대율은 한 자릿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업은 물론 농업 부문의 수입대체가 증가되면서 수입증가는 멈춘 상태이다. 따라서 대외무역량이 최고조에 달했던 수년 전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했겠지만, 현재는 러시아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이 최대한 투자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전망으로 보면 러시아 극동 경제는 러시아정부가 해당 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적극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얼마 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보여졌듯이 극동에는 아태지역과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의 성장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 향후 극동의 경제성장은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더 큰 시장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2) 현대 러시아의 시장동향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는 러시아도 비껴가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미쳤던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의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 판매로 생긴 소득이 연방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유가는 러시아 경제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지난 25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는 현저한 유가하락에 따른 세 차례의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향후 2~3년간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물론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 석유에 대한 의존이 경제에 문젯거리가 될 소지는 있지만, 중단기적 전망으로 볼 때 석유는 러시아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러시아정부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Skolkovo', 'Rosnano' 및 '직접투자를 위한 러시아기금' 등 혁신사업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으며, 향후

경제 다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2013년 러시아 경제 전망은 몇몇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연평균 2~4%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속도는 2008년 위기 전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위기의 심각한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많은 시장들에 비하면 충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금융수단: 대표적 대안

현재 러시아 시장에는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 유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많은 투자수단들이 있다. 주요 투자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식- 주식회사가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고 발행한 지분증권, 주식은 주식회사 자본(정관자본)에 주식 소유주가 납입한 지분을 증명해준다. 주식은 그 소유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권리,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 주식회사 청산 시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권리 등을 부여해준다.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은 고객에게 브로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이 (주)MICEX/RTS(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거래소/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다.

- 증권 '발행시장' 부문(주식, 국채, 회사채, 지방채, 연방 하위 자치단 위채)
- 러시아 증권거래소 선물옵션시장(선물계약)
- 장외시장(ADR(미국주식예탁증서), GDR(해외주식예탁증서), 기업 유로채권, 외국채 등)

이외에도 대형 은행들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상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얻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Repo)의 장외거래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보편화된 인터넷거래시스템은 QUIK 또는 'FOCUS IVonline'로 불리는 시스템이다.

뮤추얼펀드- 투자자의 자금을 여러 운용회사(운용사)의 관리하로 통합

할 수 있는 집단투자상품이다. 운용사는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한다.

뮤추얼펀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증권시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 자산관리사가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
- 법규정에 준거한 정기적인 정보 공개.
- 소액투자로도 온전한 투자포트폴리오가 가능.
- 시장에서 최소 투자금액은 1만 5,000루블이고 추가 투자 최소액은 1,500루블.
- 뮤추얼펀드는 러시아 전 지역에서 거래가 가능.

은행 예금- 은행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조건으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액. 예금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투자수단이다. 예금이 인기있는 것은 예금주가 투자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적절한 은행과 예금형태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수탁관리- 개인용 자금운용의 형태로 투자자는 자금 및 증권을 운용사에 전달해 이익을 얻게 된다.

투자대상으로는 러시아 회사의 주식과 러시아 발행인의 채권(국채, 연방 하위 자치단위채, 회사채) 등이 있다.

귀금속에 대한 투자- 이 투자수단은 귀금속, 특히 금이 투자자에게 있어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귀금속 투자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금괴(minted bar) 구입
- 은행에 귀금속계좌 개설

리스- 일시적 유희 또는 차용 자금을 활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투자방식으로써, 임대인(소유주)과 임차인 간 특정 소유물에 대한 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일정 사용료를 받고 해당 소유물을 임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러시아 금융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 대상물이 존재하고 있다.

- ① 운송 및 특수 장비
- ② 항공기
- ③ 철도차량

- ④ 선박
- ⑤ 부동산

종합 투자수단으로는 투자용자가 있다. 상업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투자용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① 투자사업으로의 중장기 용자
- ② 인수합병(M&A) 용자
- ③ 리스거래 용자
- ④ 대출채권 발행
- ⑤ 용자프로젝트 범위 내에서의 은행보증 제공
- ⑥ 수출신용기관의 보증에 기반한 수출금융 범위 내 대출

외국인투자자들은 러시아의 경제규모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2012년 말 러시아 주식시장의 자본화 지수는 싱가포르나 대만을 상회했다.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부문 중 최소 지수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 기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소득과 기업의 인수가격을 비교하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금융시장은 놀랍게 성장하여 상품 및 용역의 어음결제, 채무스와프, 거래소 상장, 저당, 사업지분의 매매 등 어떠한 금융거래도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러시아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는 금융선물, 스톡옵션, 주식예탁증서 등이 있다.

MICEX(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 거래소)와 RTS(러시아 증권거래소)가 합병해 탄생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주식 선물거래량에 있어 한국이나 호주의 거래소들을 앞지르고 있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량으로도 러시아 시장은 아태지역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의 거래장이 그 규모 면에서는 물론 거래 활성화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해당 금융상품에 일시적으로 넣어두어도 된다.

그 밖에도 러시아 장에서는 통화, 석유, 석유제품, 귀금속, 공업용 금속, 이자율, 기타 기초자산 등에 대한 선물과 옵션도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 증권시장법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에 속하며, 러시아 장은 기존 다른 아시아 장에서보다 거래하기가 훨씬 좋은 편이다.

러시아에서 증권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꺼려 하는 투자자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설립용 금융상품도 있다. 이는 바로 기명식 무증서증권인 러시아 예탁증서(Russian Depository Receipts)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명목가치를 갖지 않는다.
- 일정 수의 외국 발행 주식이나 채권(제시된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준다.
- 러시아 예탁증서의 소유주가 그에 상응하는 수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줄 것을 예탁증서 발행인에게 요구할 권리와 해당 유가증권에서 비롯된 권리 행사와 관련된 용역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준다.

그러므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100%를, 가령 한국이나 일본 장에 내놓고 러시아에서는 적당한 수의 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는 본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편리한 점이 있으며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러시아 회사를 소유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도 루블화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예탁증서의 발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러시아 예탁증서 발행(러시아 예탁증서 안내서(prospectus))에 대한 국가 등록은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또한 투자자는 ‘거래소 채권(exchange-traded bond)’ 같은 러시아 시장의 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이 특별한 유가증권은 그 금융상품 내용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어음(commercial paper)’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금융시장에는 투자금액의 전체(또는 일부)를 방어한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화 금융상품(structured financial products)이 널리 퍼진 바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상품은 세심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 면에서 보면 거래장 내의 거래행위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보증인 자격으로 나서고 있고,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든 투자자 본인이 공포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4) 직접투자에 따른 금융서비스, 보험, 감사, 평가 및 기타 서비스

투자자가 높은 수준의 금융전문가집단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러시아에서 사업 진행 시 가끔은 러시아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계사- 상장회사(공개주식회사)의 정규 회계보고 인증 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재산을 통한 신규 설립 회사의 정관자본 납입 시, 재산을 회사의 정관자본으로 포함시킬 때, 기업의 연차보고서 관련 서류 준비 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보험사- 대부분의 기업활동에는 개인책임보험과 기타 위험담보보험의 부보를 요한다. 회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의무가입 개인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대출, 화물운송, 통관 등의 몇몇 경우에도 보험이 요구된다.

금융상담사- '증권안내서'(prospectus, 자유판매주식의 발행 전 작성하는 서류) 준비 시 딜러 또는 브로커 활동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브로커- 거래소에서의 여하의 거래 시 브로커 활동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러시아연방에서 사업체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시 투자자는 세무당국의 관리 외에도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기관에 의한 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로스인포름모니터링(러시아 정보모니터링)은 「범죄수법으로 얻은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에 의거하여 범죄 수법으로 얻은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연방 집행기관이다. 이 기관은 의무적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즉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연방의 법령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를 조사한다.

은행, 금융사, 보험사에서는 자체 감사활동이 행해진다. 즉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행해지는 의무적 감시대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범죄수법으로 얻은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는 자금 또는 기타 재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거래를 행하는 조직의 활동을 통제한다.

자금 또는 기타 재산 거래를 행하는 조직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고객’, 그리고 자금 또는 기타 재산 거래 시 대행계약, 위임계약, 커미션계약, 신탁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수혜자’도 관리대상이 된다.

관리의 첫 단계는 신원 확인으로,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 그 대리인,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원본서류 및 공증사본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한 후 데이터(정보)를 서면 또는 다른 기록매체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투자자가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조직간 현금결제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금결제가 가능한 한도는 3,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 상당하는 루블화이다. 러시아에서 외환 현금결제는 불가하다.

또 중요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행해지는 어떠한 대규모 결제라도 필요한 경우, 거래 양 당사자간 해당 거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금전지급이 발생하는 거래가 탈세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감시기관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자금이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선금/차용/대행 계약 등 상품의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기타 모든 계약이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벌금이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의 활동과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관리는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FFMS: 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ed organization), 소액금융회사(microfinance company), 연금기금 및 보험기관의 활동을 관리한다.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은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면허,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자격,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집단의 집행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의 전문 경력에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기관은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발행인이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최초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에 대한 승인절차를 수립 및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구조를 고안할 시 투자자는 본인의 계획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에 문의할 수 있다.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은 당해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그 유형을 규정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 외환관리

러시아연방 내에서 행해지는 통화관계는 정부에 의해 규정되고 관리된다. 외화 환전을 위해서는 일련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외환에 대한 법률관계는 국가가 정하고 관리한다. 외국환 결제를 위해서는 일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외환관리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되는 법률은 연방법 제173-F3호 「외환 규제 및 외환관리에 관한 법」(2003년 12월 10일 발효)이다.

외환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외환 규제 및 외환관리 목적상 거주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 ① 러시아연방의 국민인 자연인(단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상주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러시아연방 국민은 예외로 한다.)
- ②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영주권에 근거하여 러시아연방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 ③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 ④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는 지사, 대표사무소 및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거주자-법인의 기타 하위조직
- ⑤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외교대표부, 영사업무기구 및 기타 공식 러시아 대표기구, 국가간 또는 정부간 기구 내에 상설된 러시아연방의 대표기구

⑥ 러시아연방, 연방주체, 연방법 제173-F3호 및 당해 법에 따라 채택된 기타 법규정에서 정한 관계에 해당되는 지자체

외국환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인플레이션 억제, 자국 통화의 안정성 유지 및 금/외환보유액 증대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일련의 규제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환에 의한 결제는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권한 있는 은행이라 함은 러시아 은행,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국환 거래 면허를 소지하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의 지사를 말한다.

나) 외국에서의 계좌 개설은 세무감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거주자는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에 대해 본인의 관할 세무기관에 통지할 의무를 갖는다.

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외환 현금결제는 불가하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통화는 루블화이다. 거래시 외환 현금결제는 금지되어 있다.

라) 개인의 외화 반입 및 반출은 신고대상이 된다

자연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러시아연방으로 한 번에 1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러시아 통화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자연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러시아연방으로부터 한 번에 3,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러시아 통화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마) 거주자는 외환거래 결과(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외 무역활동 시 거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비거주자에게 인도된 상품(근로, 용역) 대금이 권한 있는 은행에 개설된 거주자 본인의 계좌에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통화로 수령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러시아연방 관세구역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상품(미수취 용역, 근로)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대금이 러시아연방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의 거래상대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외무역을 위한 협상 및 계약서 작성 시 거래에 따른 환차익 상환을 위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을 계약조건으로 언급 또는 명시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시에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적기에 연장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외무역 계약에 따른 외환거래 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는 거래허가서(deal pass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거래허가서의 일련번호 및 작성일자
 - ② 거주자 및 그의 외국인 거래상대에 관한 정보
 - ③ 대외무역거래에 관한 일반 정보, 총거래금액 및 거래 통화, 거래에 따른 의무이행 종료일
 - ④ 거래허가서가 작성되고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가 개설된 권한 있는 은행에 관한 정보
 - ⑤ 거래허가서 재작성에 관한 정보 및 거래허가서의 마감 근거
- 계약 총액이 계약체결일(또는 계약 최종 수정일) 기준 루블화 대비 러시아 중앙은행 공시환율로 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거래허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바) 환차익을 입금받을 시 거주자는 권한 있는 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환거래 명세서(forex transaction statement)
- 외환거래의 근거가 되는 서류

대외경제활동에서 외국환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을 정하는 것은 외환관리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루블화의 안정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 중앙은행에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주요 외국환에 대한 루블화 공시 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정해진 환율은 대외경제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루블화의 시장환율 및 공시환율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수출업자나 투자자의 행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법적 기반

외국인 참여의 형태와 종류

러시아에서 가장 보편화된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미 설립되었거나 새로 설립되는 영리단체의 정관자본에서 지분(주식)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자가 인수하는 형태

② 외국인 회사의 지사 인가(설립)

최근 자동차 생산부문에서는 러시아인과 외국인 간 또는 외국인들끼리만 공동설립자로 구성된 합작회사의 등록이 외국인투자 활동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토요타 자동차 생산을 위해 미쯔이 상사(Mitsui & Co., Ltd.)와 자동차 조립분야에서 러시아 내 선두주자인 (주)솔레르스(Sollers, JSC)가 동일한 지분(50:50)으로 출자한 합작회사가 등록되었으며, 또한 푸조 자동차와 씨트로엥 자동차 생산을 위해 P.S.A. 푸조·씨트로엥(PSA Peugeot Citroën)과 미쯔비시 자동차(Mitsubishi Motors Corporation)가 공동출자(30:70)한 합작회사도 등록된 바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법적 형태

러시아연방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개인이 기업주가 되는 개인사업활동과 법인 설립을 통한 영리활동이 그것이다.

러시아에는 몇 가지 영리법인형태가 존재하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이다. 러시아연방 민법은 합명회사(un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추가책임회사(additional responsibility society) 등의 형태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러시아에서 외국인투자 방법으로 거주자 회사를 등록하는 것 외에도 외국법인의 지사를 개설하여 러시아 내 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모든 개인은 러시아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기업활동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등록은 관할 세무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등록 목적은 개인기업활동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등록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사업자의 신청서에 기초하여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개인사업자는 고유의 도장을 가질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활동은 보통 소규모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선택되어 지나 중기업체도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개인사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유한책임회사(LLC)

이러한 유형의 법인은 주식회사에 비해 등록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흔한 편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정관자본의 지분배당 등록은 연방관세청(Federal Tax Service)이 보관하는 ‘국가 통합 법인등기부(Unifie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 상에서만 이루어진다.

러시아에서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은 ‘참여자’로 불린다. 회사에 대한 참여자의 책임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크기 만큼으로만 제한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참여자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가 국가통합 법인등기부에 담겨 있는 관계로 여하의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또는 개인 참여자를 50인 미만까지 둘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 또는 주주가 1인인 다른 법인을 단일 참여자 자격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참여자가 본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법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보유 정관자본액은 1만 루블(약 300달러)이다.

주식회사(공개, 비공개)

이러한 형태의 법인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 규모의 사업을 목적으로 이용된다. 러시아에는 공개주식회사와 비공개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비공개주식회사의 주주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주식회사의 주주 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비공개주식회사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특정 집단 또는 조직 간에서만 주식의 배당이 가능하다. 공개주식회사는 누구에게라도 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식 발행은 국가등록을 거쳐야 한다. 주식의 등록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연방금융시장관리청(Federal Financial-Markets Service)이다.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주주가 50인 미만인 회사는 주주명부를 독자적으로 기록유지할 수 있으나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등기사가 주주명부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 이름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공개주식회사는 연차결산보고서, 결산재무제표,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비공개주식회사의 최소 보유 정관자본액 역시 1만 루블(약 300달러)이며 공개주식회사의 최소 보유 정관자본액은 10만 루블(약 3,000달러)이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법적으로 그 형태가 규정되어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드물게 이용되는 사업형태이다. 러시아 법이 정하고 있는 파트너십에는 합명회사

(unlimited partnership)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동업자간 설립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각각의 동업자는 회사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합자회사가 합명회사와 다른 점은 두 종류의 조합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합명회사에서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대등한 조합원(equal partner), 그리고 합자회사의 자산에 물적 또는 금전적 출자를 하여 회사의 의무에 대해 출자금액만큼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이 그것이다. 유한책임조합원은 회사의 기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 결정 채택 시에도 참여할 수 없다.

추가책임회사(additional responsibility society)

이러한 형태의 법인은 러시아에서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다. 추가책임회사의 특징은 조합원이 회사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정관자본에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 뿐만 아니라(회사가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조합원이 회사에서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는 만큼의 재산으로만 그 책임을 진다.

알아보기 쉽도록 가장 보편적인 사업체 형태(유한책임회사,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의 특징을 [표 2-1]에 정리하였다.

표 2-1 유한책임회사,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의 특징 비교

구분	유한책임회사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정관자본의 배당 형태	지분	주식	
조합원 수	1~50명	1~50명	제한없음
조합원 구성	설립자 또는 기준에 정해진 자들		공개모집에 의해 모인 주주
등록일 기준 최소 보유 정관자본액	1만 루블	월최저임금지수 × 100 = 1만 루블	월최저임금지수 × 1,000 = 10만 루블

표 2-1 계속

구분	유한책임회사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의결 참여	모든 조합원(정관자본지분에 비례하는 의결권)	보통주 소유주(주식 매수자)/우선주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회사의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정관자본상 지분액 한도 내에서 손실위험 부담	회사의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보유한 주식이 한도 내에서 손실위험 부담	
조합원(주주)명부 기록유지 관리	해당 유한책임회사	해당 비공개주식회사	등기사(전문회사)
설립 시 정관자본 납입	등록일에 50%, 잔금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납입	등록 당일 기준 주식 100%가 주주에게 배당되어야 하며, 50%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이 전액이 납입되어야 함.	
비화폐성 자산에 의한 정관자본 납입 가능 여부	가능·납입액의 감정은 설립자들에 의해 합의됨. 납입액이 2만 루블 이상인 경우 외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가능·납입액의 감정은 설립자들에 의해 합의됨. 납입액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외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	
예비금 조성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함.	정관자본액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함(순이익에서 공제).	
정기 총회	결산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연 1회 이상 개최	결산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연 1회 이상 개최	

표 2-1 계속

구분	유한책임회사	비공개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
정기 총회	결산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연 1회 이상 개최	결산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연 1회 이상 개최	
감사위원회 선출	조합원이 15인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적 회계감사 (연간) 필요 여부	없음		필요
결산보고서의 공개 (지분증권이 없는 경우)	의무사항 아님.		
기타		주식, 채권, 기타 지분증권의 발행 가능	공개주식회사의 주식 30% 이상 인수 시 특별 기준에 따름.

자료: 저자 작성

외국기업의 지점

러시아에서 지사는 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위조직이다. 외국인회사의 지사는 모스크바에 소재한 국가등록청의 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등록청의 인가 외에도 지사는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과 사회보험 기금, 의료보험기금, 연금기금 등의 국가기금관리처에 등록되어야 한다. 러시아에서 외국인회사의 기업활동은 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러시아의 과세대상이 된다.

회사 설립절차

러시아에서 법인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그 절차는 러시

아연방법 제129-F3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록」(2001년 8월 8일, 개정판)에 정해져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비슷하며, 주요한 차이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시 등록을 해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에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등록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은 연방 관세청으로 회사의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 국가통합 법인 등기부(Unified State Register of Legal Entities)는 공식 문서로, 등기부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단 개인의 여권정보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은행계좌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상기 정보는 서면신청 후 수수료 200루블 또는 급행 수수료 400루블을 납부(6~13달러)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보통 최고경영자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등록하는데, 회사 등록의 첫 단계는 설립자들이 회사 설립에 대한 공동결의를 채택하는 것인데 설립자 총회 결의서 형태로(설립자가 한 사람인 경우 1인 설립자 결의서) 이루어진다. 또한 설립자들은 정관을 만들고(설립자가 다수인 경우) 설립약정에 서명한다. 설립약정은 회사설립서류로는 간주되지 않고, 회사의 내부서류로만 인정되나 회사가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설립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사의 명칭을 선정할 수 있다. 단 단어 중 ‘러시아’ 또는 ‘러시아연방’, 그리고 그 파생어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얼마 전 러시아연방 민법 제IV부에 규정되어 2008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또는 그 파생어의 사용은 사안에 따른 개별 정부령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도 회사주식의 75% 이상이 연방정부 소유로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신고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전략적’ 부문으로의 참여에 해당되는 몇몇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회사에 외국인 설립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절차상 외국인 납세번호 또는 특별 등록세가 요구되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시 연방 세무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등록신청서- 신청자는 설립자(설립자가 자연인인 경우) 또는 설립

자들의 대표이사(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자의 서명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또는 러시아의 재외공관 대표자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신청서상에는 회사가 향후 행하고자 하는 주요 업태와 기타 필수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② 회사 설립의지를 담은 설립자 총회 결의서(또는 1인 설립자 결의서)
- ③ 회사 정관
- ④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증 또는 기타 유사 서류(예를 들면 상업 등기부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 ⑤ 등록세(4,000루블(약 130달러)) 납부영수증

또한 세무기관은 회사가 향후 등록될 사무실의 소유주가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보증서는 해당 주소지의 사무실이 등록 후 적법하게 회사에 임대 또는 매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회사의 등록 전 주주 또는 조합원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정관 자본액의 최소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정관자본은 금전 또는 재산으로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정관자본이 2만 루블(약 660달러) 이상의 재산으로 형성된 경우, 해당 재산은 전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및 허가

러시아에서의 면허발급은 연방법 제99-F3호 「업종별 면허」(2011년 5월 4일)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법이 여러 업종의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유일한 법은 아니다. 원자력에너지 이용,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 취급, 국가기밀 보호, 증권거래소 및 기타 업종에 대한 면허절차가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과 규정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면허발급이 필요한 모든 업종은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유효한 업종별 면허를 필요로 한다. 특정 지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타 지역에서 사용할 때 해당 면허를 해당 타 지역의 인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러시아에서의 면허발급은 대상업종에 따라 각 담당 국가기관에 의해 이

루어진다. 면허발급세 금액은 러시아연방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면허발급 시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기술적 사항(필요한 건물, 장소, 시설, 설비 등의 보유 여부)
- 인적 사항(면허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 보유 여부)
- 기준에 적합한 생산관리시스템의 보유 여부
- 적합한 법인형태의 존재 여부, 충분한 정관자본 보유 여부, 제3자에 대한 채무 부존재 여부 등 면허대상업종의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면허발급조건에는 면허대상업종에 관련된 법규의 준수도 포함된다. 면허발급이 필요한 업종은 연방법 「업종별 면허」 제12조에 그 목록이 열거되어 있다.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특정 업종의 면허발급은 ‘업종별 면허’에 관한 연방법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법과 그 하위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다음 업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2-2 개별법 및 하위 시행령에 의해 면허발급이 규정되는 업종

업종	면허발급기관
원자력에너지 이용	연방 기술감독청 (Federal agency for technical supervision)
에틸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의 생산 및 취급	연방 주류시장 규제청 (Federal Service for the Regulation of the Alcohol Market)
국가기밀 보호	연방 보안부(Federal Security Service)
대부업	러시아 중앙은행
증권거래업	
증권시장 전문 서비스업	
투자펀드	
민간 연기금	
어음청산업	연방 금융시장관리청 (Federal Service for Financial Markets)
보험업	연방 보험감독청 (Federal Supervision Service for Insurance)

자료: 저자 작성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일반 절차

특정 업종의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면허의 발급에는 신청자가 면허요건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면허발급 신청서류의 심사기간은 45영업일이다. 신청자가 허위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면허발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면허발급 후 발급기관은 면허취득자의 활동을 감독하게 된다. 면허보유자가 면허조건 또는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면허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지되거나 또는 면허보유자가 국가기관에 면허대상업의 종료를 직접 통보함으로써 정지될 수 있다.

기타 관리형태

국가는 면허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러시아 내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기업활동이나 생산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관리형태는 기업의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ed organization) 가입을 통한 관리방법이다.

러시아연방법 제315-F3호 「자율규제기구」(2007년 12월 1일)에 따르면 자율규제기구는 비영리단체로 간주되며, 해당 업종의 영리단체들을 규합한다. 자율규제기구는 면허발급기관이 면허보유자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규제기구 회원의 활동을 관리한다.

러시아에서 자율규제기구 가입이 의무적인 업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건설시행업, 토목조사
- 증권시장 전문업
- 전문 감정평가 용역
- 전문 회계감사 용역
- 입찰관리 용역
- 에너지 감사
- 어음추심 용역

• 자산 관리/운용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해당 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해당 업종 수행능력과 회사가 해당 업종 수행을 위한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율규제기구 가입 시 회비가 징수된다.

보험 관련 요구사항

면허와 자율규제기구 가입 외에도 러시아에서 기업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보험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연성 또는 유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주유소, 댐 등 위험시설물 소유주는 책임보험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 노동력 유치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용주는 러시아 법에 따른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범주(비자 보유 및 무보유)에 따라 다르다.

두 가지 범주 모두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근로자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노동에 대해 개별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 시민권자를 고용할 경우 당국의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 법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 개별적 승인 안에 적시된 노동행위만을 행할 수 있다.

비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민을 고용하는 절차는 좀더 복잡하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할당량을 맞추는 일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유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역 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 담당기관이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 후 연방기관에 심의 요청을 하면 연방기관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근로허가 및 초청장 발

고용 쿼터 배정을 위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쿼터를 배정받는 절차 대신 고용주는 고용 시 쿼터가 불필요한 직종(직위) 리스트를 매년 승인받을 수 있다. 단 적용되는 직종(직위)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고용 관련 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다. 쿼터를 배정받은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력 유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지역 관할 러시아연방 이민청에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 유치 허가 취득 후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각각에 대한 근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공식 초청장을 통해 근로자가 근로비자를 발급받으면 러시아연방으로의 입국이 이루어진다.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는 덜 복잡한 편이다. 이들의 고용 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력 유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지역 관할 러시아연방 이민청에 외국인 근로자 개인에 대한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급 전문직 근로자

고급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도입된 것은 이민법상 최근의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연방법 제115-F3호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2002년 7월 25일) 제13.2조 1항에 따르면 고급 전문직 근로자라 함은 특정 분야에서의 경력, 전문성 또는 성취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에서의 근로활동을 위해 유치되는 조건으로(일반적으로) 연간 200루블(6만 5,000달러) 이상의 급여(보수)를 받게 되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보수수준이 이보다 낮은 경우가 있지만, 이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고급 전문직 근로자의 유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고급 전문직 근로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력 유치 쿼터와 초청장 발급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고급 전문직 근로자의 전문성과 자격을 고용주

본인이 직접 평가한다(근로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어떠한 공식 테스트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인 노동력 유치를 위한 연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고급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다(일반 근로허가는 최대 1년이다).
- 고급 전문직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영주권을 간소한 절차로 취득할 수 있다.
- 고급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법인소득세는 근로활동 시작일부터 13%가 그대로 유지된다(고급 전문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소득세는 연간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져 183일 이하인 경우 30%, 183일 이상인 경우 13%가 된다).

부동산 자산

소유권 취득

러시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계약서는 국가등기를 필해야 하며, 등기 이후에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 부동산 물건 매매계약상 중요시해야 할 조건은 매매대상(올바른 식별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 명시)과 금액(금액은 계약서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이다.

매매계약서의 공증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계약 체결 시 자발적인 의사나 행위능력자임의 여부와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공증을 희망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대금지급형태를 본인들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거래가 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대금지급방법은 은행이체인 반면, 개인에 의한 거래에서는 현금계산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대금지급일정 역시 계약당사자들이 정하며, 보통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고 등기절차 종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의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실질적 양도는 인수인도증 또는 쌍방이 서명한 유사 서류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는 토지 소유주와 매매계약(공매대상이 임대권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게 된다.

법적 제한

러시아에서 모든 부동산이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법 제27조는 구입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개인 또는 법인에 귀속될 수 없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면 보호구역, 자연공원, 군사시설, 핵시설 등). 이러한 구역에 대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 구역들은 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몇몇 종류의 부지는 ‘취급제한’상태에 있어, 특정인(예를 들면 국영 기업 또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특별허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보존림 또는 자연공원이 아닌 보호대상 자연지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수도 관로 부지, 귀중 문화유산 부지, 원거리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부지 등). 그 밖에 수자원법에 의해 연안선의 경계에 위치한 부지의 취득도 금지된다. 건축물 또는 건축물 내의 공간 등 기타 다른 부동산은 매매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일체 없다.

외국인(외국 개인 및 법인, 무국적자)의 토지소유권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외국 개인과 법인은 러시아연방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부지를 소유할 수 없다. 외국 개인과 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는 접경지대에 위치한 부지의 목록이 2011년 1월 9일 대통령령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부지에는 국경(육상 또는 해상)에 접해 있는 특정 지역의 행정구역 단위가 포함된다. 외국인의 부지 소유에 대한 다른 제한사항으로는 해항(海航)의 경계에 위치한 토지를 외국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해항법 제28조). 세 번째 제한은 농업용지에 관한 사항이다. 외국인, 외국법인, 50% 이상의 외국자본으로 구성된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서 농업용지를 소유할 수 없다.

권리 등록

러시아에서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등기해야 하며, 등기 이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권리 및 거래의 국가등기」에 관한 연방법은 1997년 7월 21일 채택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당시의 법에 따른 지금과는 다른 부동산 권리등기절차가 존재했다.

1997년 7월 21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위해서는 해당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원본을 등록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권리 및 거래의 국가등기」에 관한 현행법은 이러한 거래의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 등기, 지적, 지도제작청(Federal Service for State Registration, Cadastre and Cartography 또는 Rosreestr)’은 부동산 권리의 등기를 행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다.

등기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진다. 권리등기 시 거래의 양 당사자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다음의 증빙서류들이 첨부된다.

-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예: 매매계약서)
- 쌍방의 법적 지위를 증빙하는 서류
-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고 거래규모가 클 경우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같은 회사 경영기구의 결의서)
- 부동산의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토지대장)
- 등기수수료의 납입을 증빙하는 서류
- 거래 당사자 및 거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기타 서류(예: 배우자 동의서)

부동산 권리 등기의 소요기간은 20일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일 모든 서류가 완전히 제출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기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상기 기간 내에 서류상의 부족함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거부서를 발급하며 거래 양 당사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임대

러시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가 보편화되어 있다. 부동산의 매각이나 취득에 비해 임대에 대해서는 제한이 덜한 편이다. 특히 특정 부지(접경지대 또는 해항 경계선에 위치한 부지, 농업부지)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사항이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수자원 지대나 산림지대 같은 종류의 부동산도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토지, 건물, 기타 건축시설물의 임대계약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가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거래가 쉽다는 점이다. 임대계약은 문서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 임대계약서에서 중요한 요소는 임대대상물(올바른 식별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상세정보 명시)과 그 가격(토지법 제65조)이라 할 수 있다.

임대기간 또한 임대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계약은 불확정기한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본인의 재량으로 계약해지 3개월 전 상대방에게 사전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재산을 임대계약의 조건 및 등기부에 명시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계약서에 달리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재산의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임대인은 전면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

임대계약에 매수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해당 매수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의 취득가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만료 전 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일반 사항

러시아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규는 러시아연방 민법 제IV부(2006년 12월 18일 채택), 기존의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을 대체보완한 법규들과 러시아연방 특허법이다.

러시아연방 민법 제 IV조는 학술/문학/예술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적재산권 대상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재산권 또는 비(非)재산권이 될 수 있다. 주요 재산권으로 독점권(exclusive right)을 들 수 있는데, 독점권은 그 권리소유자로 하여금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의 방법으로도 지적재산권 대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독점권은 라이선스계약(비확정기한 동안 이용하기 위함)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우선독점권은 지적재산권 대상물의 원저자에게 있다.

지적재산권의 주요 비재산권으로는 저작권(literary property)이 있다. 저작권은(저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권리) 포기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저작권은 또한 무한정한 보호를 받는다. 다수의 저자가 지적재산권 대상물의 저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각 저자는 공동저자로 간주된다.

라이선스계약과 소유권이전계약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적재산권 대상물에 대한 독점권은 특정 조건하에 특정 기간 동안 이용될 수 있도록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양도되거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다(후자의 경우 이전의 권리보유자는 독점권을 상실하게 된다). 라이선스계약(license agreement)은 반드시 서면형태로 체결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국가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계약도 국가에 등록되어야 한다.

라이선스계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이선스 보유자(grantor of licence)가 동일한 라이선스 사용권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사용권을 특정 사용권자(grantee of licence)에게만 제공하는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과 다수의 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하는 통상사용권(nonexclusive license)이 그것이다. 사용권자는 라이선스 보유자의 동의하에 제3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계약(alienation agreement)은 권리소유자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매각되어 원소유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또 다른 형태의 양도방법이다.

저작권

민법 제1259조에 따라 저작권 대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문학, 음악, 회화, 시각적 예술, 건축, 사진 작품 및 지도 등의 학술/문학/예술 작품은 물론 문학작품과 동일하게 보존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일컫는다. 이러한 권리를 형성하고 행사하기 위한 특별한 형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저작권자의 이름과 함께 저작권 표시인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아니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등록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증명서가 발급된다.

법, 규정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공식 문서, 국가 상징, 구체적인 저자가 없는 민속/민중 창작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에 대한 독점권 유효기간은 저자의 사망연도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간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었던 작품은 공유(public domain)대상이 된다.

특허

민법 1345조에 따르면 특허권은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특허권은 해당 특허가 지적재산권 관련 연방집행기구인 러시아특허청(Rospatent)에 의해 발급된 경우 또는 러시아연방이 조인한 파리협약(공업소유권 보호조약)에 의거하여 효력이 있는 특허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과학 발견, 과학/수학 이론, 제품의 외형에만 국한되며 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 게임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제공만이 목적인 솔루션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발명품, 유용한 모델, 산업 샘플에 대한 독점 특허권은 연방기구인 러시아특허청이 특허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실제로 등록절차는 광범위

한 분석과 전문 감정평가를 요하는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러시아특허청이 발명자에게 특허를 발급키로 한 결정은 발명품, 유용한 모델, 산업 샘플을 해당 기관에 등록시키기 위한 근거가 된다. 특허 발급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러시아특허청에 의해 공시되어야 한다.

상표 및 상표명

상표 및 상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정부 등록사항이며 등록에 대한 인증서에 의해 승인된다. 상표명의 소유자는 오직 법민만이 될 수 있는 반면, 상표의 소유자는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될 수 있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 신청일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은 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에 10년 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속으로 3년 이상 소유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은 정지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상표의 소유자에게 있다.

다른 지적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권 역시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은 서면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며, 국가등록을 필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방어

러시아연방에서 지적재산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규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 개의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문화부는 저작권을 관리하고 러시아특허청은 대부분의 발명과 특허를 담당한다. 농업부 역시 농업활동과 관련된 발명을 관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분쟁 발생 시 분쟁 당사자는 민사상 표준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분쟁은 러시아특허청의 특허분쟁조정원(Patent Dispute Chamber)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지적재산권(특히 저작권)은 저작권과 인접권을 집단관리하는 기구(저작권보호협회)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상기 기구는 저자, 특허 생산자, 특허권 행사자가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용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 대상의 사용이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저작권보호단체는 ‘러시아 저자 협회(Russian Authors Society)’이다. 그 밖에도 ‘러시아 권리자 연맹(Russian Union of Right-holders)’, 코피루스(재창작의 경우 저작권을 집단관리하기 위한 범러시아 협회) 및 기타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다.

7) 추진 및 관리

회계보고 및 감사

회계

러시아 회계기준은 정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 회계장부 작성을 위해 규정된 코드형식과 회계보고를 위해 정해진 형식이 있다. 회계보고는 러시아 루블화 기준으로 러시아어로 작성된다. 러시아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러시아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는 재무제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규범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금부과의 목적을 위해 강조되어왔다. 회계기준은 재무보고 구성의 원칙보다 더 많은 회계보고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 회계기준을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많은 규범들이 완화되기도 하였다(예를 들면 러시아 기업들의 경우 과거에는 법에 의해 규정되었던 감가상각규정을 이제는 자유로이 선택하여 회계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완화에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국제 회계기준에 반하는 규정을 계속 적용시켜왔다.

외국기업의 소규모 지사 또는 대표부에서 선임 회계사가 자주 단독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는 우선적인 서류준비에서부터 납세보고서 및 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성을 하고, 수정 보고서 및 국제 회계기준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관리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는 회계

가 책임을 동반하는 절차이며, 회계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 여부에 재정적 안전성과 사업의 안정성이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계사가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사업 소유주 또는 경영조직의 대표들 이 저야 하는 책임을 고려할 때,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전문 감사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사에 관한 러시아 기준

소규모 사무소와 외국기업의 지사는 연례 회계감사에서 제외된다. 연례 회계감사는 다음의 기관과 기업에 적용된다.

- 공개 주식회사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소유한 기관(상장기관)
- 은행, 그 밖의 신용기관, 보험회사, 대출회사, 연금 및 투자기금, 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
- 이전 회계연도의 총매출이 4억 루블을 초과한 기업
- 이전 회계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6,000만 루블을 초과한 기업 주식회사, 보험사, 은행, 신용회사, 비정부 연기금과 정부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반드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된다.

국제 회계기준과의 주요한 차이점

러시아 기업이 국제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회계보고에서 차이점을 가지는 영역을 다음 목록으로 제시하였다(또는 러시아 기준이 국제 회계기준과 차이를 보이거나 기업이 국제 회계기준에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재무제표의 제출과 정보의 공개
- 미지급 비용
- 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자본의 평가
- 예비금에 대한 평가
- 금융 리스

- 대손과 대손충당금

회계보고와 부기(기장)

러시아연방의 세법은 외국기업의 세금보고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외국기업의 지사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회계보고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국기업의 대표부에도 적용되며, 비영리기관은 제외된다. 이 기관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영세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비공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의 모든 기업은 일반적인 형태로 과세대상이 된다.

모든 기업은 분기별, 연도별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러시아 회계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작성기한은 다음과 같다.

- 1분기 4월 15~30일.
- 2분기 7월 15~31일.
- 3분기 10월 15~31일.
- 4분기/연차 보고- 1월 15일~3월 31일.

회계보고에 관한 러시아연방법에 따르면 외국지사와 대표사무소가 세법에 맞게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회계보고서와 재무제표보고서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제도와 과세

과세: 세금목록과 세율

러시아에는 일반납세제도(General Taxation System)와 특별납세제도(Special Taxation System)가 있다. 그리고 간편납세제도(Simplified Taxation System)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일반납세제도가에서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
- 해당 기간 공급자에게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품은 수입의

0%, 식료품, 어린이용품, 의료용품은 10%, 나머지 제품은 18%이다.

- 고정자산 잔존가치의 최대 2.2%의 재산세
- 자동차세: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름.
- 토지대장가격 1.5%의 토지세
- 2012년 기준 임금 34%의 사회보장보험료
- 개인소득세는 13%, 30%, 35%로 차등 납세
- 오염세(환경세)는 개별 기업이 대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느냐와 폐수,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가를 기준으로 각 기업별로 측정되어 부과된다.

기준 세율의 경우 외국법인은 소득세(20%)와 배당세액(15%)을 납부하는데, 소득세의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소비세, 동물 및 생물 자원 이용세, 수도세, 채굴세, 도박세 등이 있다. 이러한 세금은 과세 객체로서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단일 농업세, 단일 귀속소득세 및 생산분배협정에 관한 특별세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 기업은 일반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조건이 따른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해당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 지점이 있거나 대표사무소가 있는 기업
- 전문적인 주식시장 참여기업
- 다른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회계보고상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가
- 자산의 감가상각액 현존가치가 1억 루블 초과인 기관
- 외국기관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생기업은 기업 등록 시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회계기간(납세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6,000만 루블 이상(2011년 기준)의 수익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반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아 나머지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

간편납세제도 적용의 주요한 이점

- 이 제도는 훨씬 단순한 납세제도이다. 소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세금의 지급은 단일세로 대체된다. 납세자는 소득의 6% 혹은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세율은 세법에 의거해서 결정되며, 지방정부는 기업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부가된 보험료를 단일세금 합계의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
- 간편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복잡한 문서 준비와 세금보고서 작성이 수반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하는 수입과 수입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 내 비거주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3.3항 참고).
- 훨씬 간소화된 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에 연차회계보고서와 함께 단일세금신고서를 납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간편납세제도 적용의 주요한 문제점

-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때 세율 축소를 위한 비용목록이 세금 납부자의 소득세 비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축소된다.
- ‘현금’ 방식에 따른 과세의 경우 원자재, 상품, 세금, 기본 자산 등에 대한 부채의 상각 계정에서 상품에 대한 현금 수령(선불거래 포함) 및 실제적인 현금 말소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수익과 비용이 산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세법 제2조 346.17항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다.
- 실제 공급업자에 의해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업의 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며 이는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간편납세제도상에서 원가가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상품구매자는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 간편납세제도 적용 권리를 잃게 될 경우 일반납세제도로 전환되는데, 이는 권리를 잃게 된 첫 분기부터 적용된다. 일반납세제도에 적용되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는 이미 출하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많은 경우 이 규정은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납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연방, 주 및 지방세의 구체적 적용: 목록과 세율

소득세(연방세)

소득세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의 20%이다. 소득과 비용 증인의 특징은 러시아 세법25조에 명시되어 있다. 과세를 위한 소득은 회계상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이는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과세율에서 특이한 사항은 지사로부터 얻은 대출 계약에 대한 과세율 부과 절차인데, 세법에 의해 ‘관리 가능한 부채’ 개념이 도입되었다. 만약 자산총합과 부채의 차이가 3배 이상 난다면 한계이자율(소득세 산정을 위한 지출)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배당금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특정 자산에 대해서 세제가 감면되는 점이 있는데 만약 무상으로 얻은 자산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1년 동안 제3자와 교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외국법인의 소득세 세율과 납부절차는 러시아 세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에서 외국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배당금
- ② 외국기관의 소득이나 재산을 이용하여 배당받은 수익
- ③ 모든 종류의 이자수익
- ④ 모든 특허의 사용, 상표, 도면 혹은 모델, 계획, 정보의 이용, 산업 관련, 상업 혹은 과학기술 관련 실험을 포함한 러시아연방의 지적재산권 이용에 대한 수익

- ⑤ 러시아 기업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
- ⑥ 러시아연방 영내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
- ⑦ 러시아연방 영내에서 사용되는 임대소득, 전대소득
- ⑧ 국제수송(물류)을 통한 수익
- 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벌금 혹은 과태료
- ⑩ 기타 유사한 소득

이러한 모든 소득은 이중과세방지에 의한 국제협약에 모두 적용된다. 면세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은 러시아 기업에 관련 서류를 위임해야 하고(아포스티유), 기업의 영구적인 체제를 위하여 기관대표자에 의해서 교부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기업으로부터의 수익 수령기간과 일치해야 한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1992년 11월 19일 개인 수익세와 소득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동시에 러시아 기업과 한국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관계상 수입이 감소한다면(예를 들어 대출이자에 대해 낮은 이자율 적용) 소득은 증가되어 계산되고, 높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협정문 9쪽 참고).

배당금에는 감소된 비율로 과세된다(15% 대신 10%). 설립자가 30% 이상의 등기자본금을 소유하고, 10만 달러 이상 출자했다면 세율은 5%까지 낮아진다.

러시아연방 영내의 러시아 기업으로부터의 한국기업에 대한 부채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열사 관계로 인하여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관습에 따라 양자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이자의 총합에 대해서만 과세가 면제된다.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러시아에서 과세된 배당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될 때 부과된다. 만약 외국기업(한국을 제외)이 다른 나라에 주재할 경우에는 해당 법이 존재할 경우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연방세)

사업행위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은 18%이다. 상품판매액과 결산기간(분기) 상품 공급자에 의해 납부된 상품과 용역에 대한 세액간의 차이만큼을 납부한다. 만약 공제된 금액보다 과세된 세금이 적다면 이는 예산에서 환급되거나 다음 납세 때 함께 계상된다.

또한 러시아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18%의 부가세가 부과된다(러시아 세법 148조 참고). 예를 들어 계약조에 의거하여 한국기업이 러시아 기업에 소득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면 한국기업 측은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러시아 기업은 자신의 부가가치세 계상 시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러시아 기업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세무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지역세)

연해주의 세율은 2.2%이다. 과세대상은 운용되는 고정자산이다. 외국인투자 사업활동에 대한 면세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차량세(지역세)

세율은 엔진의 성능에 따라 달라진다(1마력당 2.5루블에서 15루블). 면세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세(지방세)

토지대장에 기록된 금액의 1.5%. 면세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험료(연방세)

2011년 총임금의 34%가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2012년에는 30%까지 감소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납부금은 매달 연기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로 지급된다. 면세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소득세(연방세)

세액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이가 있다. 거주자의 기준은 러시아에서 체류기간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이면 거주 개인으로 인정되며, 전년도 자료에서 소득 중 지급된 금액의 13%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이 러시아에서 183일 이하로 머물렀다면 비거주자로 인정되며 세율은 30%에 해당된다. 러시아에서 지급된 세금은 한국에서 부과될 때 상계된다(협정문 22쪽 참고).

세무감사

세무감사는 사전심의감사(desk audit)와 현장감사(field audit) 두 가지가 있다.

사전심의감사(desk audit)는 세무신고서가 제출된 세무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세무기관에 제출된 납세자의 제출서류와 기타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된다.

사전심의감사는 납세자에 의해 세금신고서가 접수된 후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것은 세무기관 공무원의 의무이며, 이러한 업무에는 상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심의감사가 진행될 때 세무기관은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위배되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될 필요가 없다.

만약 세금환급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신고서를 통해서 적용된다. 이 경우에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납세자에게 공제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환급된다. 따라서 사전심의감사는 모든 세금신고서에 영향을 받는다.

현장감사(Field Audit)는 납세자의 경영활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세무기관 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현장감사의 범위 안에서 3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은 1년 동안의 단일 납세기관에 대해서만 감사할 권리를 가진다. 현장감사는 2달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앞서 말한 감사기간은 4달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 6달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장감사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사대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일련의 기준이 적용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부담액이 평균보다 낮은 경우
- 재무, 경제활동의 성과가 2년 혹은 2년 이상 적자인 경우
- 세무기관에 등록, 혹은 등록 취소를 반복하거나 납세자의 등록장소가 변경될 경우(세무기관 사이의 ‘이동’)
- 러시아연방 세법에 의해 특별 감사를 받도록 규정된 지표에 자주 근접하는 경우
-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이 계약자와 판매자, 혹은 중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재정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 기업의 수익이 동종산업 평균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또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 혹은 관세청, 독점방지위원회,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인 정보를 받은 기업일 경우 감사 대상이 된다. 동시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인투자를 받은 기업일 경우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관례적으로 현장감사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실시된다. 동시에 주요한 현장 감사대상은 세무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규모가 큰 대기업이다. 보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꼴 혹은 더 적게 감사가 실시된다.

관세규정: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외경제활동에 규정방법

통관절차는 러시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관세동맹 관세법에 의거하여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과 운송수단은 관세절차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관세동맹 관세법 1조 1항 26에 의거하여 통관절차는 관세동맹구역 내에서 관세부여를 목적으로 관세가 부여된 지역 또는 그 경계에서 상품의 활용 또는 유통 요청을 정의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모든 통관절차가 구체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품에 부과된 요구 조건이나 정해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류등록이 끝나고 난 상품은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고, 관세동맹의 관세 부과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요구하거나 제한사항을 거의 두지 않는 통관절차도 있다.

어떤 통관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상품을 이송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인데, 그 결정은 러시아 국경을 통해 개별 범주의 상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관서류의 준비 및 통관절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이와 더불어 상기한 개인 또는 기업의 활동범위뿐 아니라 세무기관 및 해당 상품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의 활동범위까지 규정하게 된다.

관세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된다.

- ① 수입관세
- ② 수출관세
- ③ 관세동맹지역 영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④ 관세동맹지역으로 상품이 수입될 때 추가되는 소비세
- ⑤ 관세

관세는 관세동맹지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이 징수하여 연방에 산에 귀속시키는 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관세율
- ② 특별세와 반덤핑세, 그리고 상계관세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국제협약에 의거하거나 관세동맹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관세는 수입관세 징수목적으로 현재의 관세동맹 관세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징수된다.
- ③ 효과적인 수출품 관리를 위해서 러시아정부에 의해 계절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율은 세법에 명시된 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계절세 적용기간은 1년 중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관세 국내소비세 과세기준은 상품과 수송수단에 부과된 관세액이며 이는 현재의 기본법과 국내법이 적용되어 결정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에 부과된 관세액이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세이다.

2012년에는 러시아와 관세동맹 협약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가 상승했다. 특히 2012년 9월 1일부터 원유(여기서부터 1,000kg당 달러)에 대한 수출세는 393.8달러 대신 481.9달러가 적용되었다.

액체연료, 석유, 폐 석유화학제품, 경유, 등유, 가스유, 벤젠, 메틸벤젠, 바셀린 오일에 대해서는 276.4달러가 부가되었다(이전에는 259.9달러). 부탄,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뷰타디엔 기타 액화가스는 172.5달러의 수출관세가 적용되었다(이전에는 76.2달러). 가솔린 제품과 휘발유는 377달러의 관세가 적용되었다(2012년 9월 1일부터는 354.4달러).

수입관세의 책정과 세액 계산 및 납세의 법적 측면과 더불어 면세의 정의와 적용규정은 이미 단일관세적용 합의문 및 2008년 12월 12일의 관세 특혜규정, 그리고 2009년 11월 27일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단일관세 규정」에 대한 제130조 규정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납부 면제

관세납부 면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관세특혜
- 관세면제(관세납부의무 면제)
- 세금납부에 대한 특혜
- 관세납부에 대한 특혜

특혜관세는 관세동맹국의 법이나 그들간의 협정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특혜관세의 형태 및 그 절차, 그리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들은 관세동맹 관세법 및 관세동맹국들간 국제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절차와 특혜관세형태가 결정된다.

특혜관세란 러시아와 공동으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있거나 그러한 지대를 만들 목적을 가진 합의서에 서명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를 의미하거나 관세동맹국에서의 통일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혹은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된 제

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를 의미한다.

관세 및 비관세 규정의 준수는 원산지 관세경제블록의 특정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국가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동맹국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제품의 흐름을 통제하고 대외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세와 비관세 규정이 적용된다.

원산지에 대한 규정은 국제관행에 따른다. 원산지는 제품이 완전히 조립되거나 중요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로 여겨진다. 만약 제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되었다면 중요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세무기관은 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관세 국가에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면,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증명서를 검토하거나 또는 국제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검토하고, 이의 발행에 대한 전권을 가진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관세국가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 국내법이 특혜관세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수입될 경우
- 특혜관세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지만 수입량이 제한(쿼터)되거나 대외무역규제가 있는 상품이 수입될 경우
-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 공공안녕, 국내 소비자보호, 공공질서, 국가안보 외 기타 중요한 이슈에 대한 국내법에 의해서도 규정된 상품이 수입될 경우
-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세 신고서가 없지만 세관이 상품 원산지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는 상품이 수입된 경우

각각의 상품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것인지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혜관세 증명서는 발급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세관에 문서로 제출된 증명서는 러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세관은 모국어로 번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제 운송된 상품의 수량은 증명서상 수량의 5%를 넘으면 안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소량인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5,000달러 이하에 준하는 금액일 경우). 이러한 경우 수출국 혹은 수출업자는 사업 관련 서류 혹은 다른 선적서류를 통해 원산지 국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제시된 정보에 대해 명백한 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당국은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관세쿼터는 러시아가 제3국에서 생산된 특정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품이 수입될 때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량의 상품을 수입할 때(자연적으로 혹은 합의에 의해서) 관세동맹국에 부과하는 수입세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정해진 수량(쿼터) 이상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관세 동맹국의 동일 관세율에 정해진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쿼터하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관련 상품은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러시아의 수출관리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품은 특정 기간 정해진 상품의 수량에 대해서 러시아정부가 정한 수출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해진 쿼터 이상으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러시아정부에서 정한 수출세율이 적용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업활동을 하는 러시아의 선박 또는 러시아인에 의해 임대된 선박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수출된 자원 및 기술 공급의 대상물과 장비, 연료, 식량 및 기타 자산
- ② 관세동맹국 이외의 국가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인도적 지원목적의 상품들. 이러한 상품들은 재난, 재앙, 자연재해 등의 구호나 기술적 지원(또는 협력) 목적을 포함한 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가 차원의 자선 목적을 지닌다.
- ③ 러시아연방 정부의 승인목록에 있으며, 우주 연구 및 이용, 그리고 우주선 발사를 위한 협력계약부문에 러시아와의 국제적 협력이라

는 틀 안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단 소비세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중 생산물분배협정 체결 시 만들어진 상품과 그에 따른 부속물

다음과 같은 상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러시아연방의 결정에 의해서 특혜 관세가 면세 혹은 관세율 하향조정의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 ① 러시아와의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투자협력을 위한 공급대상물 목록에 있는 상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출한 경우
- ② 러시아연방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러시아연방에 정해진 러시아연방 수요품에 대한 수출공급대상물의 범주에 드는 상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출한 경우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특징

상품이 러시아 국경으로 들어올 때 관세부과절차는 선택하는 관세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① 국내 소비용 제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되어야 한다.
- ② 재수입물품의 통관일 경우 납세자는 러시아연방 세법 및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수출로 인해 면제되거나 환급받은 부가세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③ 통관절차 중의 상품,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재수출상품, 면세점 상품, 세관 관리하에 있는 가공품, 면세구역 내에 있는 상품, 면세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정부를 위해 파괴되거나 거부된 상품, 대체물자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금되지 않는다.
- ④ 통관절차상 세관구역 내에 있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 가공품이 러시아연방 세관구역에서의 가공품 수출명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이를 다시 수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러시아 관세법에 의거하여 임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전부 또는 면제될 수 있다.

- ⑥ 가공품이 수입관세구역 밖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러시아 관세법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 ⑦ 임대에 의한 가축, 농업기술, 또는 기술공정 수행이나 이의 현대화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계가 수입될 경우,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과세는 이 상품이 임차인의 수중에 들어갈 때까지 연기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개인이 생산이나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품을 들여올 경우, 러시아 관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간소화 또는 특혜 우선절차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① 수출 통관절차를 밟거나 면세구역에서의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상품
- ② 국제상품운송서비스. 국제상품운송이란 바다나 강을 통한 해운, (바다와 강을 모두 경우하는) 혼합해운, 항공, 철도 및 차량을 이용한 상품운송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러시아연방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경우의 운송을 의미한다.
- ③ 러시아연방 영토 내의 도착지에 있는 세관으로부터 러시아연방 영토 내 출발지에 있는 세관까지 외국상품을 운송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상품의 이송 또는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서비스)
- ④ 승객과 화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러시아 영토 외부에 위치한 여객수송 혹은 화물운송 서비스
- ⑤ 우주산업분야의 상품(또는 용역 및 서비스)
- ⑥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이나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납세자가 러시아 국가귀금속기금, 러시아 귀금속기금, 중앙은행 및 은행들에 위탁한 귀금속
- ⑦ 외교사절 및 그와 동등한 지위의 대표자들이 사용하거나 그 대표단

의 행정기술요원이나 그 요원들의 가족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용역, 서비스)

- ⑧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공급품. 여기서 공급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혼용(강과 바다) 선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료 및 연소성 유탄유이다.
- ⑨ 러시아 철도운송업자에 의한 러시아연방 영토 밖으로의 수출품 이송이나 운송용역(서비스), 그리고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만들어진 가공품을 러시아 영토로부터 수출하는 용역(서비스)
- ⑩ 러시아 국제선박 등록부에 등록된 건조 선박
- ⑪ 러시아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혹은 그 대표자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용역, 서비스)

다음과 같은 수입품은 러시아 통관구역에서 비관세 수입품목으로 분류된다.

- ① 러시아연방의 무상원조(협력)로 수입되는(소비세가 붙는 상품과 소비세가 붙는 광물자원 제외) 상품
- ②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료기술(러시아연방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형외과제품- 정형외과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혹은 반제품(러시아연방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인과 장애인의 재활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한 기술장비 및 원자재(러시아연방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안경(선글라스 제외), 렌즈와 안경테(선글라스 제외)(러시아연방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또한 이들 제품생산에 이용되는 원자재 혹은 부품
- ③ 감염질환의 진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제품 조제를 위한 재료(러시아연방에 의해 승인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러시아연방에 따른 기부로 인정되는 예술품. 특히 러시아연방의 문화, 민족유산에 관련한 예술품
- ⑤ 국제도서 교류를 통해 국립 및 시립 도서관과 박물관에 들어온 모든 종류의 간행물. 그리고 특정 러시아정부기관을 통해 수입된 비상업

목적의 영화예술품

- ⑥ 국제협약에 기초해 러시아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 영토에서의 러시아 기업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해 생산된 제품
- ⑦ 기관의 정관 자본금 출자 목적으로 수입된 기술장비 및 그 부품들
- ⑧ 비가공된 다이아몬드(러시아 대외경제활동상품 코드 7102 10 000 0, 7102 21 000 0, 7102 31 000 0)
- ⑨ 외교사절 및 그와 동등한 정부인사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기술행정직원 또는 외교관과 그들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상품
- ⑩ 법적 지급수단인 러시아 통화·외국 화폐 및 은행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그리고 주식, 채권, 인증서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유가증권
- ⑪ 러시아연방의 기업(기관)에 의해 포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① 다음과 같은 식료품

- 살아 있는 가축과 조류
- 육류와 육류제품(고급제품 제외: 안심, 송아지, 혀, 소시지류- 훈제 일등품, 반훈제 일등 건조품, 육포, 일등 박제품; 훈제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송아지 고기, 가금류 고기- (절인)철갑상어고기, 토막갈비, 목살, 햄, 훈제고기, 등심살; 구운 돼지고기와 소고기; 통조림- 햄, 베이컨, 튀긴 카르보나드, 튀긴 혀요리)
- 우유 및 유제품(딸기류, 과일 및 식용얼음으로 만들어진 빙과류를 제외한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포함); 달걀, 달걀제품; 식물성 기름; 마가린; 설탕, 각설탕; 소금; 곡물, 사료, 혼합사료, 곡식 찌꺼기; 종자기름과 종자기름으로 만들어진 제품(곡물사료, 깻묵); 빵과 빵종류(밀가루, 건빵(리스크)과 도넛류); 곡물; 밀가루; 살아 있는 생선(중 번식을 위한 것은 제외: 백연어, 발틱 및 극동 연어, 철갑상어(벨루가, 베스테르, 용철갑상어, 긴코철갑상어, 쇠철갑상어), 연어, 송어(바다에서 잡힌 것 제외), 백연어, 시베리아연어, 차부이차송어, 셋줄멸류, 곱새흰연어, 오물, 시베리아와 아무르산 흰연어, 흰연어류); 냉동어류 및 다른 종류의 가공품을 포함한 해산물

혹은 어가공류, 청어, 통조림(고급제품 제외: 철갑상어 및 연어알, 흰연어, 발틱해의 연어, 철갑상어- 벨루가 베스테르, 용철갑상어, 긴코철갑상어, 쇠철갑상어; 연어; 흰연어의 등 및 배 부분 냉동훈제; 시베리아연어와 저염 왕송어, 중간간 왕송어, 시베리아연어의 등부분, 왕송어와 색줄멸과류의 냉동훈제, 시베리아연어의 배와 왕송어의 옆구리 냉동훈제, 곱새 흰연어의 등, 오물, 시베리아와 아무르스크의 흰연어, 흰연어 냉동훈제; 생선 통조림- 발틱해와 극동의 연어 조각; 계살과 익히거나 냉동된 게다리 묶음; 로너스터); 유아용품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 채소(감자 포함)

② 다음과 같은 유아용품

- 신생아와 유아를 위한 니트 제품,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니트 제품, 저학년 및 고학년을 위한 니트 제품: 니트로 된 외투, 리넨 니트로 된 제품, 양말류, 다른 니트류: 장갑, 병어리장갑, 모자류
- 신생아, 유아, 취학 전 아동, 저학년, 고학년 용 천연 양가죽 및 토끼가죽 의류, 외투(드레스 및 의류 일체 포함), 속옷, 모자류, 신생아 및 유아를 위한 의류 일체
- 신발(운동화 제외), 유아용 침대; 유아용 매트리스; 유모차; 공책; 장난감; 점토; 필통; 학생용 장부; 일기장; 스케치북; 앨범; 스케치 앨범; 공책케이스; 책커버, 다이어리, 공책, 계산 및 문자기입장; 기저귀

③ 정기간행물- 제품 광고를 위한 서적류 및 성인물 제외

④ 다음과 같은 국산 또는 외국산 의료제품

- 약, 약품- 임상실험을 포함한 생산이전단계의 약품 포함
- 의료기기

상기한 제품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환급

- 만약 공제된 부가가치세 금액이 과세된 세금 총액보다 클 경우, 감사를 받거나 차액을 과세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세법 176조를

1항에 의거한다.

이러한 경우 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과세기관의 서류감사이다. 감사 이후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7일 내에 감사기관은 환급금액에 대한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환급될 부가가치세 총액은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된다. 또한 환급될 부가가치세 총액은 미래에 발생할 부가가치세나 다른 연방세에서 공제될 수도 있다.

부가세 총액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감사가 끝난 후 12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 중앙은행이 정한 세율에 따른 이자가 부가된다.

2010년부터 많은 금액의 납세자(3년간 총납세금액이 100억 루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은행보증서를 같이 제출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한해서 서류감사가 끝나기 전에 환급받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했다(러시아 세법 176.1 참고).

국내소비세

과세대상은 러시아 세법 181조에 열거된 소비대상이 되는 상품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에틸알코올,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 주류(보드카,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 코냑, 와인, 맥주), 담배류, 승용차, 엔진이 112.5킬로와트(150마력)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차량용 벤젠, 디젤, 디젤엔진과 카뷰레터 엔진용 자동차 오일, 직류 가솔린 등이 과세대상이다. 용역과 서비스 활동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세율은 러시아 세법 1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세율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고정(특정)세율(측정단위별 절대가 적용): 예를 들어 2013년에 알코올류 제품 중(9% 이상의 에틸알코올 함유) 국내소비세가 과세되는 무수 알코올류 제품은 1리터당 400루블이다.
- 종가세율(%): 현재는 정해진 바 없다.
- 혼합세율(고정(특정)세율 및 종가세율을 혼합적용): 예를 들어 2013년

필터담배의 경우 1,000개피당 550루블+추정가의 8%가 적용되는데, 이는 최고 소매가격에 근거해 계산되며, 1000개피당 최소 730루블로 계산된다.

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의 러시아연방 외부 수출 시 소비세 감면

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통관절차를 밟고 있는 수출품에 대해 소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은행보증서(러시아 세법 74 참고)나 은행보증(러시아 세법 184.2 참고)을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주류 생산자 혹은 알코올성 제품 생산자는 소비세 예납의 면세를 받기 위해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러시아 세법 204항 8과 194 참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앞서 언급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산정된 소비세 감면과 주류 및 알코올성 제품에 대한 소비세 예입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은행보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은행보증을 제출한 알코올 함유 제품을 구입한 납세자가 은행보증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품을 처분하지 않거나 명시한 제품을 러시아 영토로부터 수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은행보증 유효기간 동안의 소비세 예입에 대한 감면권리를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러시아 세법 184조 2항 참고). 이 경우 납세자는 보증기간의 만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납세액을 재계상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기간 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류와 담배 소비를 낮추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틀 안에서 해당 소비세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특정 상품에 대해서 현저한 소비세율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 세법 19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환경등급 4~5의 차량용 벤젠과 4~5등급의 디젤연료에 대해서도 상이한 소비세율이 정해졌다.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비관세 규정

비관세조치 도입의 목적과 과제

국제무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세 부과와 더불어 각국의 정부들은 양적 조치, 잠재조치, 금융조치와 같은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관세조치와는 달리 비관세조치의 대부분은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특성 때문에 각국 정부는 대외무역분야에서의 목표달성을 위해 비관세조치를 부분적으로만 활용하거나 혼용된 비관세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관세조치와 함께 비관세조치, 특히 집중적인 양적 조치를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정부의 대외무역정책이 전반적으로 규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비관세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자유무역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 국내시장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개별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경우
- 국가안보, 국민의 안녕,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 환경, 동식물의 생육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할 경우
-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특정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해 예외적 권리를 적용할 경우
- 특별 보호, 반덤핑 및 상계 조치를 취할 경우
- 공중도덕과 공공질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 국가안보의 보장이 필요한 경우

국제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의 모든 비관세장벽은 UN 산하 유럽경제위원회에 분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직접적인 제한
- 관세 및 행정적 수속절차
- 기타 비관세장벽

직접적인 제한조치는 허가과 쿼터 제한을 통해 실행된다.

상품의 대외무역분야에서 허가를 통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해진다.

- 개별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일시적 물량 제한
- 국가안보, 국민의 안녕,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 환경, 동식물의 생육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상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 특정 상품에 대한 예외적용(예를 들어 무기 및 군사용품)
- 특정 상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해 예외적 권리를 적용
-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 이행

수출입에 대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제한된 쿼터 내에서 수출에 대한 허가증이 발급되는 상품(러시아의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수출상품)
- 특별한 특성을 가진 상품(전략적 목적이 있는 상품: 무기, 이중용도 품목, 의약 원재료 등)

다른 직접적 물량제한수단은 쿼터제이다(양적 제한).

쿼터란 정해진 기간 동안(예를 들어 1년, 반년, 분기 그리고 기타 기간) 구체적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가격 또는 물리적 양에 대한 제한이다.

개별적인 쿼터는 거의 대부분 계절적으로 적용된다. 즉 정부가 국내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기간 동안 도입된다. 주로 농산물이 수확되는 시기인 가을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쿼터 내에서 수입 및 수출 권리를 부여하는 자격을 경매에 부친다. 허가권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정부예산으로 편입된다.

관세쿼터정책은 수입품 총량에 따라 가변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 정해진 수량 내에서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쿼터 내 기본 관세율이 부과된다.
- 정해진 양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 고율의 초과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수입상품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게다가 할당관세는 일반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수량제한조치와 비교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규제로는 각 개별 국가에 적용되는 일괄할당제, 계절규제,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가 있다. 수출자율규제는 수출품에 대한 쿼터 적용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파트너 국가간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제한의 특징은 수입국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에서 적용된다는 점이다.

관세정책의 일환으로 ‘해결조항(Resolution Clause)’ 또한 폭넓게 활용된다. 국제협약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외국 수입품이 국가 생산에 해를 입힐 정도로 많아질 경우 양보조항을 취소하고 관세인하, 면세 쿼터 확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상품수입에 대해 별도의 조치로 특별 보호, 반덤핑 및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 수입쿼터
- 특별세
- 반덤핑세
- 수입국 시장에서 최저가격제를 통한 장벽 마련
- 상계관세

행정 및 통관 절차

대외무역활동에서의 비관세조치 중 통관 및 행정 절차 수행과 관련된 조치는 수입세와 수수료 부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입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수입관세와 혼동하면 안 된다).

- ①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국경세
- ② 세관에서 상품 확인과 상품의 품질 확인을 위한 서류절차에 대한 수수료
- ③ 기타 수수료(항구, 통계, 식물위생 관련 기타 수수료)

특별한 형태의 수입세로는 농업부문에서의 보호조치로 유럽연합에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슬라이딩(sliding) 수입세가 있다. 특성상 슬라이딩

수입세는 관세와 비슷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국내 및 국제 가격간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세율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관세와 차이가 있다.

수입보증금은 수입자가 외국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 관세에 대한 현금 저당금이다. 수입보증금 액수는 수입품의 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인증

여러가지 행정 및 통관 절차 중 하나는 수입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절차이다. 비관세 규제방법 중 주목해야 하는 방법은 표준 관련 사안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상품의 판매는 가능하되 외국상품의 유통은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분류, 상표표시 및 상품검수에 대한 표준을 규정한다.

이러한 표준은 종종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실행된다. 러시아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은 러시아연방에서 정해진 기술적, 병리적, 위생적, 수의학적, 환경적 표준 및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준이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증, 상표표시 또는 법률에 정해진 표식을 하지 않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사용자에게 위험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소비재는 사용이 금지된다. 인증절차는 러시아 연방 법 184조 「기술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선적 전 검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가격의 저평가를 포함한 수입상품에 대한 불공정한 허위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러시아정부는 러시아연방 내로 수입되는 개별 상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 수행증서 발급을 포함한 제반 선적 전 검사를 실행한다. 비관세규제조치 중에서 불확실성과 재고 유지비용을 증가시키는 세관에서의 행정관료적 지체사항들을 유념해야 한다.

기타 비관세조치

수출지원정책

정부의 대외무역규제조치에는 대외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포함된다. 수출에 대한 재정적 지원조치의 하나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수출신용기구가 있다.

「대외무역의 정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러시아정부와 행정기관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서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국제협약에 의거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한다.

- 대외무역 참여자에 대한 신용 부여
- 보증제도와 수출(신용)보험제도
- 무역박람회, 전문적인 심포지엄과 콘퍼런스 조직 및 참여
- 세계시장에서 러시아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을 촉진하는 기업활동 (광고 포함)

러시아 상품의 수입 및 수출 제한원칙과 운송수단

러시아의 경제적 이유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해, 러시아로 수입되거나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중 특정 상품이나 운송수단이 규제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통관절차에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수입(수출) 제한, 높은 관세 적용(반덤핑세, 상계관세, 특별 보호세, 벌칙금 등), 특정 대외무역에 대한 허가 요구, 수입(수출)되는 상품의 품질과 운송수단에 대한 특별한 조건 요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품이나 운송수단의 러시아로의 수입이나 러시아로부터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러시아 안보, 사회질서, 도덕성, 시민의 삶과 건강, 동식물의 보호, 환경보호, 러시아 및 외국의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민족유산 보호, 지적재산을 포함한 재산보호, 러시아 소비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보호 등에 대한 고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될 수도 있다.

「대외무역의 국가규제」에 관한 러시아연방법(19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국가적 이해에 기반하여 수출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유지
- 시민의 삶과 건강 보호, 동식물의 보호, 자연환경 보호
- 불법적 밀반출 및 반입, 소유권 이전으로부터의 문화유산 보호
-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천연자원 고갈 방지와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국내의 생산과 소비
- 러시아연방의 안보 확보
- 러시아연방의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와 국제수지 유지
- 러시아연방의 국제적 의무 실행

이 법에는 또한 러시아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다음과 같은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다.

- 러시아연방에 규정된 기술적, 약학적, 위생적, 수의학적, 식물위생과 환경 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 허가되지 않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법과 기타 법규범에 정해진 인증, 상품 표시 또는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품
- 위험한 소비재로서 사용이 금지된 상품
- 소비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제품

러시아연방의 「대외무역에 대한 정부 규제법」 20조에 의거하여 명시된 상품들은 러시아 상공회의소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진 법률에 의거하여 환송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관세법은 상품과 운송수단의 러시아로의 수입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출에 대한 금지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한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무역제한), 개별 국가 혹은 국가 그룹(지리적 제한),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 제한(시간적 제한).

제한조치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적용될 수도 있고 국제기구에 의해서 결정된 국제협약(국제작 제재법 등)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 양적 제한조치는 과도한 규모의 상품이나 러시아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 취해질 수 있다. 러시아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 군사기술 및 이중사용상품의 수출입 시 수출제한제도가 가동된다. 수출이 제한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목록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규제대상인 천연자원(어류, 임산물, 광물 등)의 경우 무작위적인 채취나 채굴은 멸종이나 사멸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식료품의 수출능력이 국내시장 및 국내수요 상황(국내생산 및 국내 고용포함)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수의학적, 동식물 검역 및 위생검역은 상품의 국경통과목적에 상관없이 상기한 국가통제와 관련된 모든 상품에 대해 실시된다. 러시아 연방 내로의 가축수출입법 및 수생식기류, 어류, 수산물 및 그 파생상품의 가공, 저장, 이송법(2008년 10월 6일자 러시아 농림부 명령 No. 453으로 승인되고 2008년 11월 13일 러시아 법무부에 No. 12636으로 등록되었다) 시행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의 반입, 가공, 보관 및 러시아로부터의 반출은 해당 부문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요구조건에 의거한 검수를 통과한 상품만이 허가될 수 있다.

만약 상품이 증명서와 정보 제출 없이 반입될 경우 그 반입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위생검역, 수의학적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의 제출이 안 되었거나 관세동맹지역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조건적 출하조차도 승인될 수 없다. 조건적 상품 반입의 경우, 이해당사자는 관세동맹 관세법 제200조 2항의 요구조건에 대한 제반 서류 및 정보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행 보증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품이 행정적 법률위반으로 제소되는 경우에 그 상품이 관세동맹국들의 법률에 의해서 증거로 압수되거나 몰수되지 않는다면, 그 상품에 대한 제소가 완료될 때까지 상품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러시아로 수입이 금지되는 상품

- 인간의 삶과 동물, 조류에 위협을 가하며, 각종 질병과 세균을 양산할 수 있는 화학물질
- 컬러복사장치
- 러시아 화폐; 수표와 기타 대외무역 은행권 및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통화; 유가증권; 채권; 기타 러시아연방의 복권

- 무기, 탄약, 칼, 군도, 검, 대검, 창 및 기타 유사 무기류
- 꿀, 꽃가루, 밀납, 벌집
-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중도덕, 지적재산을 포함한 재산 및 기타 시민의 이해관계와 국익에 저해되는 정보를 담은 서적, 신문, 그림, 간행물, 문서들
- 방사성 물질
- 파나소닉(Panasonic) 모델 KX-T7980, KX-T9000, KT-T9050 и KX-T90890를 제외한 무선 송수신기
- 보이지 않는 감광제품
- 보석제품 및 귀금속과 희귀광물로 만들어진 보석

러시아로의 수입이 제한되는 상품

- 저속하거나 음란한 내용이나 복제물을 포함하지 않은 서적, 신문, 잡지 및 기타 출판물은 수입이 허가된다.
- 약물과 비타민 관련 제품은 러시아 보건부의 승인하에 수입된다.
-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200개피 미만의 담배

관세동맹국 국경 통과가 금지된 상품

- 관세동맹국 영토로 수입이 금지되는 오존층 파괴물질
- 관세동맹국 내로 수입이 금지되는 유해 폐기물
- 관세동맹 영토 내로 수입과 수출이 금지되고 거래가 금지되는 인쇄물,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정보 유통지
- 2001년 5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 B에 속하는 관세동맹지역으로 수입이 금지된 식물보호제(살충제)
- 관세동맹 영토로 수출이 금지되는 목재, 재활용지, 마분지, 폐지
- 관세동맹 영토로 수입, 수출, 통관이 금지되는 공식적 무기 혹은 민간 무기와 이에 사용되는 탄환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는 물품을 사적인 용도(비상업적 목적으로)로 개인이 수출입할 경우
- 연료주유, 냉장급유, 냉방장치, 소화장비 등을 포함한 항공, 해운, 철도 수단의 정상적인 장비 운용 및 기술적 설치를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 운송수단에 탑재된 오존파괴물질을 수출입할 경우
- 광물학, 화석학 및 동물화석에 관한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동맹국에 등록된 제출자가 관세동맹국 정부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발급된 허가증을 제출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광물학, 화석학 및 동물화석에 관한 물질이 관세동맹국 법률에 따라 문화재로 간주될 경우, 기업활동의 주체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수출, 그리고 해당 수집물 및 동물화석물을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개인에 의한 수출은 그러한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서(승인서)를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세동맹국 해당 기관에서 발행할 경우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동맹국으로부터의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비상업적 목적) 사냥되거나 어획된 동식물 견본품을 1종류당 3점 이하로 수출할 때
-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식물의 견본품
- 동물원, 양묘장, 동식물원에 의해서 교환, 기부 또는 유전자 펀드 배양 목적으로 하는 견본품

동식물 수출품은 기본적으로 제시자가 등록되어 있는 관세동맹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된 허가증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노사관계와 사회보장

러시아정부는 주로 고용, 해고, 임금, 산업안전, 휴가 및 기타 노동 관련 문제들을 포함하여 노사관계의 모든 측면을 노동법을 통해서 관리한다.

노사관계

현실적으로 노사관계가 적절하게 확립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고용주는 시민 혹은 기업과 용역 제공에 대한 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선호한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의무감 때문에 휴가 혹은 다른 보증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노사관계가 성립되면 법원은 고용주가 노동법의 모든 의무와 요구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만을 따질 수도 있다.

절차

고용계약은 서면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채용명령서를 작성해야 하고, 노동수첩을 만들어야 한다. 러시아에서 노동수첩은 피고용자의 경력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근무장소, 기간, 직위, 해고사유가 기록된다. 피고용인명부는 피고용인의 고용기간 동안 고용주가 보관한다.

피고용인이 고용되었으나 피고용인과의 계약서에 서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실제적인 고용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채용 시(성별, 나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차별은 금지된다. 오직 고용주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자질만이 고용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의 종류

노동법은 단기계약(5년까지)과 종신계약이라는 두 종류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종신계약의 경우 더 많은 보증사항이 부과된다. 단기계약의 경우는 법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체결될 수 있다.

수습기간

노동법은 피고용자가 그 직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을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계약 종료 3일 전에 계약의 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직위일 경우(예를 들면 대표이사, 회계 담당자 등)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은 특정 범주에 속하는 인력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임산부, 1.5세 이하의 유아가 있는 여성 등).

급여와 세금

법에 의해서 피고용자의 보수는 급여, 수당(특정 기후조건에서의 특별 노동)과 보너스와 같은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수는 한 달에 두 차례 지급된다.

최저임금

근무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와 의무를 모두 수행한 근로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을 수 없다. 2011년 6월 1일에 최저임금은 4,611루블(약 150달러)로 책정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5,205루블(약 170달러)로 책정되었다. 지역별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다.

지역요소와 다른 할증

특별한 기후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 지역적 요소가 추가된다. 특정 기간에 일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연공수당을 받는다. 계약서상에 추가수당과 추가적 요소를 고려한 임금총액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금

러시아 세법에 따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피고용인은 고용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의 13%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개인소득세). 러시아 내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은 러시아 내 체류기간과 체류지위에 따라 책정된다(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전문가 유치에 관한 부분을 참고할 것).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임금과 세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노동법은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1주일에 40시간으로 규정한다. 단축된 근무시간은 몇몇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미성년자, 장애인 등).

파트타임근무에 관한 협의는 채용 시 혹은 이후에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특정 범주의 근로자(임산부,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들에 대해 파트타임근무를 할 수 있게 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면서 피고용인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근무시간은 2일 동안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 동안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가기간

유급휴가

기본유급휴가와 특별유급휴가의 두 종류 유급휴가가 있다. 기본유급휴가는 일반적으로 28일로 규정된다(어떤 범주에서는 조금 연장될 수 있다.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31일, 교사는 41~56일). 특별유급휴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특히 특별한 기후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휴가기간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휴가를 떠날 수 있으며(특정한 경우는 제외), 휴가는 연차로 부여된다. 휴가는 근로자와 협의하에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2년 연속으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금지된다. 휴가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또한 28일 이상의 휴가를 급여로 상계하여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해고 시 고용주는 근로자가 쓰지 않은 휴가기간을 상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

1주일에 5일 근무하면 근로자는 2일의 휴일을 갖는다(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6일 근무의 경우 1일이 휴일이다(일요일). 업무특성상 작업공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근로자 그룹별로 다른 날에 순차적으로 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러시아에는 법정 공휴일과 국경일이 있다. 만약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는 근로일의 첫날로 대체된다.

기타 휴일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가족사항과 관련된 일이나 경사와 관련되어 무급 휴가를 허용한다. 또한 병가와 임신 및 출산 휴가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게는 사회보장기금에서 금전이 제공된다.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계약 해지 근거는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하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이다.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 조건 및 결과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노동수첩을 되돌려주어야 하며 남은 마지막 급여를 정산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 1달 전까지 고용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퇴직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경우 한 달 전이며, 다른 근로자의 경우는 2주 전이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법에 명시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무단결근, 파산, 직장에서의 알코올 섭취 등). 종종 근무태도와 관련한 근거로 해고한 경우 고용주가 위반에 대한 주의절차를 지키지 않아 직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법은 근로계약 종료 후에 반경쟁적 혹은 비공개적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 또는 경쟁 금지는 러시아 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노동권 침해로 간주된다. 그리고 노동력 실현을 보장하

는 러시아 헌법 37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경쟁적 합의 계약은 합법적으로 실행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협약은 신사협정의 지위를 가지며, 오로지 자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정보 비공개에 관한 협약은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강제된다.

러시아 파트너 또는 계약자와의 사업 진행

러시아 파트너 혹은 계약자와 사업을 진행할 때 러시아 법 체계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법인 설립기준이 간단하고 초기 설립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업 시작 전 파트너와 계약자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불공정한 파트너와 리스크, 계약불이행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통합국가법인등록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고 법인 참여자와 주소, 설립시기 등을 포함한다. 통합국가법인등록부의 정보는 세무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파트너가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지 혹은 사업 관련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거래 체결 시에는 계약에 서명한 개인의 자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계약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투자자는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검증을 로펌에 의뢰할 수도 있다(주의 의무). 이 경우 투자자는 파트너의 개별적 사업행위, 평판과 함께 그의 법적 지위와 사업활동의 모든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

일반 정보 및 분쟁의 종류

사법권은 헌법, 민법, 행정 및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판사는 종신으로 임명되며 불가침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 사법제도는 해당 지방권

력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해 연방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러시아의 법원은 네 종류로 나누어진다.: 헌법재판소, 일반 재판소, 중재(상업) 재판소, 군사 재판소. 군사재판소는 특정 부분의 분쟁을 다루고 있고, 이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중재재판소는 중재(중재재판소)와 국제상업 중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재판소가 경제활동주체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각각의 재판소는 상위 법원의 특징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적 규범적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 헌법을 해석한다.

러시아 대법원: 사법체제에서 가장 상위의 법원이며 개인과 관련된 형사, 민사 및 행정적 문제를 다루고, 모든 사법을 관리하고 사법권 수행에 관련된 해석을 한다.

고등 중재(상업)재판소: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고, 중재활동을 한다. 그리고 법 집행에 관한 해석을 한다.

러시아 연방의회(러시아 의회)의 상원격인 연방위원회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 상기한 세 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 나머지 연방 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일반관할법원

일반관할법원(법원)은 형사, 행정, 가족, 민사 등 개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일반법원은 네 단계의 법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 ① 조정판사는 소속 법원에서 경범죄와 관련한 범죄를 다룬다. 5만 루블 이하의 민사소송을 다루고 행정사무와 가정문제를 다룬다.
- ② 지방법원은 조정판사에 의해 선고된 제1심 법원의 항소를 다룬다.
- ③ 연방법원은 1심 법원의 항소와 파기를 다룬다.
- ④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일반법원의 문제를 다루고 또한 1심 법원의 항소와 특별한 중요 사항을 다시 재심한다.

중재(상업)재판소

중재재판소는 경제와 관련된 개인 혹은 법인의 분쟁을 다룬다. 중재재

판소 체제는 네 단계로 나뉘어진다.

- ① 연방 주체 중재재판소는 1심으로서 경제적 분쟁을 다룬다.
- ② 중재항소재판소는 행정적·지역적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를 다룬다. 이 재판소는 아직 실효되지 않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적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재심한다.
- ③ 연방 중재재판소. 오늘날 러시아에는 10개의 연방관구가 있다. 그들은 항소사건을 다룬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합리적인 기간 내에서의 소송권 침해에 대한 보상,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의 법률집행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요청).
- ④ 고등 중재재판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다루고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을 재심사하고 중요한 사항을 재검토한다.

지적재산권 법원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원은 특별 중재재판소이며, 지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며,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의 역할을 한다. 이 법원은 러시아 사법제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지적재산권 법원은 2013년 2월 1일 이전에 설립될 예정이다.

중재(상업)재판소에서의 소송절차

원고는 법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관할권 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사건은 탄원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3개월 동안 1심 재판에 계류된다. 피고는 소송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대변하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정식 재판 전에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고, 쌍방이 화해할지 여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사전 심리일을 지정한다. 쌍방은 개정 날짜와 시간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지를 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정은 연기될 수 있다. 심리결과 내려진 결정은 판결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등 중재재판소의 결정과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잠정조치

중재재판소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개인 또는 제3자의 고소에 따라 원고의 안전이나 고소 접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잠정조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법행위 집행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경우 잠정조치는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다. 잠정조치는 사법행위의 집행이 러시아연방의 범위 밖에서 발생 하더라도 취해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막대한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피고가 소유하거나 피고 또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자산(은행 계좌로 송금되는 현금자산 포함)의 압류
- ② 피고와 다른 개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행위를 취하는 것에 대한 금지
- ③ 분쟁대상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
- ④ 분쟁대상 재산을 원고 혹은 다른 개인에게 이전
- ⑤ 원고에 의해 소송에 계류 중인 집행문서 및 기타 문서가 분명한 절차 없이 집행될 수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 정지
- ⑥ 원고가 압류해제를 요청한 경우 재산매도행위 정지

중재재판소는 이외에도 다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소송사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고의 잠정조치 요구서는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될 수도 있고 재판 중에 제출될 수도 있다. 소송요청서에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청산

법인의 다른 주체에게 권리 및 의무의 이전을 하지 않고 청산되어야 한다. 단 연방법이 정하는 예외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산될 수 있다:

- 법인 설립일과 법인 설립목적에 포함된 정관에 의해 법인 참여자 혹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청산을 결정할 경우
- 법인이 법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을 되돌릴 수 없어 법원이 청산을 결정한 경우- 파산이 인정된 경우(도산)

청산이 결정되면 법인은 즉시 통합국가법인등록부에 법인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등록하기 위해 대표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 및 청산기간을 수립해야 한다. 과세기관은 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세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감사의 최장기간은 감사가 결정된 시점부터 그 이전 3년이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자를 결정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법인 청산에 대한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의해 요구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법인의 자산과 채권자 요구, 결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중간청산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청산된 법인에 남은 현금자산이 채권자의 부채청산 요구액에 못 미친다면 청산위원회는 법원이 결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남은 자산을 공공경매에 부쳐 매각해야 한다.

채권자에 대한 모든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청산위원회는 법인 참여자들에 의해 확인된 청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경우, 청산 재무제표는 정부 해당 기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한다. 채권자들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후 남은 법인의 자산은 법인에 대한 재산권 및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설립자(참여자)들에게 귀속된다. 법인에 대한 청산이 완료되고 나면, 법인은 법인 통합등록부에 이에 대한 기록등록을 마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 청산은 마무리된다.

외국기업의 지사에 대한 청산절차는 더욱 간단하다. 지사는 허가기간의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경영활동이 중지된다. 외국기업의 지사는 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국가등록청에 관련 공지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산될 수 있다. 또한 지사는 과세기관과 통계청의 계정도 취소해야 한다.

8) 위험성 및 전형적인 실수: 변호사, 감사, 금융전문가의 조언

법적 위험과 법적 자문

국가위험

러시아에서 국가위험은 부패적인 요소, 기업활동의 방해, 법적 체계 미비, 법적 결정의 집행체계 등으로 나타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부패문제가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업영역에서 나타난다(허가보증, 건축, 경쟁, 경매 등). 비양심적인 관료들은 불법적인 뇌물을 받기 위해서 행정적 장벽을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뇌물공여 없이 사업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부패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능숙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기관에 의한 경영활동 방해수준은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정부기관에 의한 감사와 법에 의해 강력히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기관이 그들의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들의 불법행위는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관련 해당 감사를 실시하는 개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러시아 법체계 또한 문제가 없지는 않다. 특히 분쟁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긴 문제가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모든 법정이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 증거로서의 외국문서 검토 등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법 적용이 힘든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외국투자자의 참여와 관련된 자료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으로 적절하게 준비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서 내용을 정하고 외국법을 해석함에 있어 많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서 법원 결정의 집행은 많은 경우 법원 집행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집행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 집행관의 적극성은 많은 경우 그리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를 아는 채권자는 결정집행을 빠르

게 진행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이를 집행관에게 통지하기도 한다.

러시아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에,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부패, 요식행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계약자의 악의성과 기밀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법인 설립이 간단하고 납입자본금의 액수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비양심적인 파트너 혹은 계약자들과의 분쟁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은 유용하다.

- 계약자와 그의 평판, 투자대상, 러시아연방 내의 부동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을 해야 한다.
- 계약자가 의무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부채상환을 위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계약조건을 세심히 검토하고, 변호사를 고용한다.
- 기본 틀에 대한 계약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계약을 한다.
- 계약서에 적용 가능한 법과 법원을 명시한다.
- 투자자가 선지급을 해야 하는 거래는 더 많은 주의를 요하고, 의무이행에 관한 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합작투자를 할 시에는 설립에 관한 문서작성에 적극 참여하며, 투자자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외국기업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도 기업확인을 위해 자신의 내부분서를 제출하는 것에 미온적인 기업들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잠재적 파트너사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절히 피할 수 있다. 예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러시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외국투자자의 위치를 격상시켜줄 수 있다.

합법화와 문서 표기

러시아 내에서 외국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합법화하거나 러시아어로 번역해야 한다. 국제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합법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아포스티유가 적용된다. 러시아어 번역문서는 반드시 공증되어야 한다. 외국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시장진입 준비와 전문가 확보

많은 외국투자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때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기업에 일반적으로 많이 해당된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준비과정과 건설팅을 묵살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은 미래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보다 쉽고 경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는 소송과 감독기관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재무위험과 회계사의 조언

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와 의무이행 위반

러시아의 법률과 사업관행은 종종 외국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충격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몇몇 경우는 예측될 수 있다.

상품가격이 미리 정해지고, 거래목적이 미래의 가격변화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는 선물계약은 마치 러시아에서 장외거래와 옵션거래가 합법적인 것처럼 똑같이 합법적인 거래이지만, 이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만약 외국투자자가 반년 뒤에 실행되는 루블로 달러를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투자자는 원금상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 만약 달러 환율이 많이 변동되고,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의 해결-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은 은행, 정부나 지방기관의 보증이다.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투자자는 주식발행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실수가 있을 경우, 그 피해금액이 100만 루블을 초과한다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없더라도 투자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를 매수할 경우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정보공개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가증권 발행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도 그 발행자는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배당금 또는 기타 소득 수령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회계감사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회계법인이라도 정부 과세기관에 영향을 주지는 못 한다.

러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행정적 측면을 주지해야 한다.

- 모든 토지와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해외로의 자본거래는 종종 필수적으로 거래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것이 투자자 권리의 자동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업의 회계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① 러시아에서 감가상각은 소득세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감가상각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은 작아진다.
- ② 러시아의 노동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주민소득세는 13%이나 사회기금에 대한 책임분담금으로 인해 실질 노동비는 30% 가까이 상승한다. 게다가 상당 기간의 유급휴가와 야간작업이나 초과근무에 대한 특별 수당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외국인투자자는 종종 부가가치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비슷한 상황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투자자는 과세기관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연방이 국제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이 투자자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뿐 아니라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류까지 포함된다.

④ 자선행위는 일반적으로 세금우대를 동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일곱 번 재고 한 번 자르라’는 러시아 속담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경우 민간 또는 정부 기관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위험과 감사위원회

회계

회계와 관련된 문서와는 별개로 러시아에서 회계는 세금 정산과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적 자산상태를 위해서 자세한 경영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세한 회계는 국제 회계기준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소규모 사무소나 외국기업 지사의 회계담당자는 종종 단독으로 일을 수행한다. 회계담당자는 모든 기초문서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세무보고와 자산보고, 그리고 국제 회계기준과 예산에 대한 경영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는 부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무절차이고 이 회계장부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재정적 건전성과 사업의 안정성이 좌우된다. 회계사가 책임져야 하는 회계문제의 복잡성과 사업주 및 통제기관 대표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자는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감사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조세위험

러시아에서 일을 하거나 일할 계획이 있는 외국 비즈니스맨들의 견해에 의하면, 투자의 실행은 조세위험, 법적 위험, 행정적 위험을 항상 수반한다. 조세위험은 어떤 산업의 어떤 기업, 또는 조직이든시간에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러시아에서의 조세위험으로는 조세법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해석, 불공정한 과세, 공정하지 않은 조세법 적용, 조세 감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법원의 결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증세가 고려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WTO 가입이다. 왜냐하면 수입세 감소 때문에 러시아정부예산이 감소되고 있어, 연방 세금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 가입에 따른 예산감소분을 납세자들을 통해서 보충하게 될 것이다.

세율은 정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대신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최근 러시아 국세청장이 직원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직원들에게 ‘수행된 세무조사의 숫자’보다는 ‘조사의 결과 거두어들인 총세금액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세무조사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에 감사는 일반적인 기업활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와 사업 단체는 그들의 나라에서 세무조사가 행해지는 이유가 심각한 부정적 혐의가 있거나 조세법을 어겨서라고 믿는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외국투자자들은 아무런 부정혐의 없이 이루어지는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실제적인 세무감사의 결과로 외국 지사와 사무소에 큰 추가적인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없었다.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소유주와 경영자는 높은 수준의 규율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다.

- 회계와 법률적 지원을 위해 고비용의 전문가 또는 전문회사를 이용한다.

결국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존재하는 과세위험은 세금문제에 책임감을 가진 외국인투자자가 있을 때 최소화될 수 있다.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적 분석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은 가장 “젊은” 지역이다. 러시아연방 내에서도 그렇고 동해에 근접한 이웃 지역들 중에서도 그렇다. 이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된 부문별 구조도 적고 생산량도 적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드문드문한 인구정착도와 주요 투자펀드의 낮은 공간적 집중도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36%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km³당 1인의 인구밀도에 고정자본 25달러, 그리고 1달러 미만의 연간 지역경제성장(현재 가치 GRP)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9개 주요 도시는 평균 1,000킬로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의 39%, 고정자산의 59%가 이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도시의 집적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원개발의 매력도가 높지 못하다. 그래서 극동지역 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직접투자는 5% 미만이고, 이 중 82%가 광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소규모 혹은 중간규모의 기업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연관 상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2012년에 극동지역으로 돌아온 소규모 기업은 42.2%로 집계되었고, 소매업은 65.7%, 퍼블릭 케이터링 86.3%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소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총투자규모에서 소규모 기업의 투자는 1% 미만이고, 2011년 동안 지역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미만이었다.

1) 2004~11년 극동지역 발전의 거시적 분석

가) 극동지역은 특징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다

2009~12년 극동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점진적이었고 러시아 경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는 러시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국내총생산은 2008년 대비 113.5%, 산업생산은 123%, 고정자산 투자는 127%를 기록했다.

2008~09년 금융위기간 동안 이 지역의 경제는 다른 러시아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1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역총생산은 80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지역경제주체의 활동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러시아 경제에 편입할 때 극동을 통해야 하고, 러시아 경제는 '가속적이고 보수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2012년 하반기에 경제성장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광산 및 제조업 부분의 성장세가 하락되고, 비교역재부문의 국내시장에서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바람에 성장이 둔화되었다.

나) 러시아 전체의 지역경제 성장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코카서스 지역 다음으로 8번째를 기록하였다

2000~08년 높은 경제성장의 조건에서 극동지역의 기반시설 단절은 이 지역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내 총생산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다. 2000~04년 동안 러시아의 지역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37%에서 2004년 4.86%로 줄어들었다. 2004~08년 동안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졌고,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낮아졌다.

이러한 둔화추세는 사할린 대륙붕, 마가단과 아무르 지역, 사하공화국에서의 철 매장지, 비철, 희귀금속류 매장지에 대한 주요한 원자재 사업에서 기인했다. 또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지역에서의 에너지 및 교통기반 시설사업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하락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의 국제무역 증대에서 기인했다.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러시아 중앙지역은 국제무역 참가자들에게 재정적 지급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0~12년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회복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2012년 국제무역의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국면에서 극동지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류업 때문이었다. 이 부문이 2008~11년 동안 국내 지역생산에 기여한 부분은 5.66%에 달했다.

기반시설 관련 생산과 정부 및 개인의 투자와 관련한 높은 속도의 경제 회복이 2009~12년 극동 경제를 회복세로 끌어올렸다. 러시아 극동에서는 거의 190억 톤의 자원, 매장량 약 3,100만 톤의 액화탄화수소(석유 및 컨텐 세이트), 60조 큐빅피방미터 이상의 자원, 거의 9.5조 큐빅피방미터의 매장가스, 약 1억 톤의 석탄매장량, 약 2,300만 톤의 구리, 200만 톤의 주석, 6,500톤 이상의 금, 50만 톤 이상의 천연우라늄이 축적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의 확인 매장량 중 극동에만 석탄 69%, 철광석 18%, 구리 79%, 금 75%이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 경제지역 중 태평양지역에서만 수중생물자원의 70% 이상이 생산된다.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의 산림자원은 2위에 올라 있다. 2011년에는 산림자원이 2,073만 큐빅피방미터로 나타났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의 25%에 해당된다. 극동지역에는 7,060만 9,400헥타르의 농지가 있다. 지표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연방 내에서 두 번째에 해당된다. 극동지역에는 러시아 전체의 17.5%의 농경지가 집중되어 있다.

다) 러시아 극동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2011년 36%의 성장을 기록한 사회기반시설산업이다

2004~08년 러시아 지역성장의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 성장률의 총합은(현재가) 236억 달러 증가했다. 2004년엔 6,180만 달러, 2008년엔 2.6배가 성장했다. 극동지역의 빠른 성장률은 호의적인 시장조건에 기인했다. 이 기간 동안 원유는 3.2배, 가스 3.5배, 석탄 3.3배, 철광석 4.4배, 주석 4.4배, 주석 1.9배, 아연 2.1배, 알루미늄 1.9배, 니켈 1.4배가 상승했다.

2008~11년에도 극동지역의 지역경제성장은 계속되었다. 2011년에

8,00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의 1.3배, 2004년의 3.4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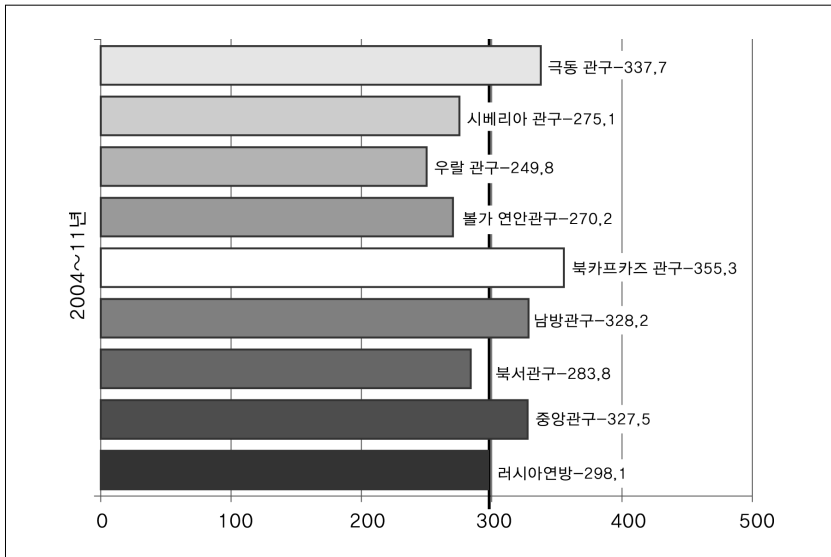
라) 2004~11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 첫 번째 기간(2004~08년)에는 이 지역의 성장이 러시아 평균인 7.7%에 미치지 못했다.
- 두 번째 기간(2008~11년)에는 지역성장률이 러시아 평균인 16.6%보다 높았다.

2004~11년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지역성장은 3.4배 증가했다(그림 3-1). 성장의 두 번째 요소는 지역적 요소이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지역은 북코카서스 지역이다. 그러나 회복세는 취약한 경제기반과 초과노동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극동의 기반시설 경제는 부담이 되었고, 러시아 내에서 가장 높은 노동력 유출이었다.

그림 3-1 2004년 대비 2011년 러시아연방 주의 GRP 성장률

(단위: %, 달러의 시장가격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마) 극동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교역재(외국으로부터 수요가 요구되는 생산제품) 부문이 31.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러시아연방 평균 15%)

원자재 산업부문에서 극동지역은 35.5%를 차지하면서 우랄지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하였다.

극동지역의 제조업은 총지역생산에서 5.6%를 차지하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3.2배 낮은 수치이다.

2004~12년의 기간 동안 극동지역의 원자재 생산 관련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은 45.5%에서 64.7%로 증가했다. 반면 러시아의 산업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2009~12년에 들어서면서 아무르, 사할린, 추코트카 지역의 경제기반시설은 광물 및 원자재 채굴과 에너지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었다. 그래서 아무르 지역에서의 채굴산업 기반시설은 25%에서 51.2%로 증가했고, 사할린 지역에서는 65.9%에서 92.7%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추코트카 지역은 41.2%에서 92.3%로 증가하였다.

2010~12년 사이 극동 경제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이 증가했다. 연간 성장률에서 원자재 제조업 부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지역의 성장률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121.4%와 118.3%). 왜냐하면 토목산업분야에서의 생산이 크게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바) 경제지표 중 중요한 요소는 1인당 GDP이다

2004년 극동지역의 1인당 GDP는 3,582달러 30센트였다. 이는 러시아 전체 평균보다 191달러 40센트 높은 수치이다. 2011년 극동지역의 1인당 GDP는 1만 2,653달러 20센트로 이는 러시아 평균보다 1.3배 높은 수치이다.

여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러시아 평균보다 높다), 높은 수준의 소비(낮은 실업률, 사회시설 증가), 인구 유출의 요소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2004~11년에는 극동지역의 1인당 GDP가 러시아 경제 전체를 이끌었다. 이러한 추세가 2015년까지 이어진다면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1만 6,200~1만 6,500달러에 달할 것이다.

2011년에는 극동의 네 지역(사하공화국(야쿠티아), 사할린,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이 총지역생산의 80.4%를 차지하였다. 2004년에는 극동에서 이 지역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2.15% 증가했다. 2011년에는 사할린 지역이 극동지역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사할린 지역은 2004~11년 동안 6.1배 성장했고, 극동지역에서 24.4%를 차지했다.

사할린의 뒤를 잇는 것은 연해주이다. 지역성장의 규모가 2004~11년 동안 3.2배 성장하였다. 2011년에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8%이다.

사) 2004~11년 러시아 경제는 불규칙하게 성장했다

5개 지역: 캄차카, 연해주, 사할린, 아무르, 추코트카 지역의 지역성장 발전비중. 세 지역(사하공화국(야쿠티아), 하바롭스크, 마가단). 유대인 자치구는 성장률 변화 없이 머무르고 있다.

극동지역 중 러시아 GR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사할린이다. 2004~11년 기간 동안 2004년 0.66%에서 2011년 2.37%로 증가했다. 이는 2.08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대규모 석유가스프로젝트가 이 지역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사할린 지역에서는 1,480만 톤의 원유가 생산되었고, 2011년에는 1,520만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생산 중 3%를 차지한다. 2011년은 2008년과 비교하여 석유 채굴이 1.58배 증가했다. 2010년 가스는 244억 큐빅피방미터가 생산되었고, 2011년에는 254억 큐빅피방미터가 생산되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생산의 3.8%를 차지한다. 2011년은 2008년과 비교하여 가스생산이 3.1배 증가했다.

두 번째는 연해주 지역이다. 2008~11년 성장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0.93%에서 2011년 1.2%로 1.2배 성장하였다. 이는 극동 러시아 투자계획의 역사(1993년 시작)와 관련이 깊다.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의 APEC 회의」에서의 국가프로젝트.

세 번째 지역은 사하공화국(야쿠티아). 2004~11년 동안 이 지역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서 1.06%로 감소하였다. 2011년 하바롭스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2%, 아무르 지역이 0.48%, 마가단스크 지역

이 0.16%, 추코트카 지역이 0.08, 에브레이스키 지역이 0.13%를 기록하였다.

아) 러시아 극동지역은 1인당 GDP를 통해서도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사할린)과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유대인 자치구)의 차이는 5.9배에 달한다.

2011년 극동 다섯 지역(사할린, 마가단, 추코트카,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캄차카)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보다 높았다. 4개 지역(하바롭스크, 연해주, 유대인 자치구)은 평균보다 낮았다.

2011년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할린 주이다. 2004~11년 동안 사할린 주의 1인당 GDP는 5,970달러 30센트에서 3만 9,000달러 30센트로 6.5배 증가했다. 2011년 사할린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3.94배, 극동지역 평균의 3.1배를 기록하였다.

2011년 1인당 GDP가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추코트카이다. 2004~11년 기간 동안 이 지역은 8만 5,181달러 60센트에서 3만 5,181달러 60센트로 4.25배 증가했다. 2011년 추코트카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전체 평균의 3.55배, 러시아 극동지역의 2.79배를 기록하였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는 2004~11년 동안 1인당 GDP가 5,599달러 10센트에서 1만 5,645달러 90센트를 기록함으로써 2.8배 증가하였다. 2011년 사하공화국(야쿠티아)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3.55배, 극동지역 평균의 1.2배를 기록하였다.

2004~11년 마가단 지역의 1인당 GDP는 4,853달러 90센트에서 1만 4,863달러 70센트로 3.06배 증가하였다. 2011년 마가단 지역은 러시아 전체 평균의 3.06배, 극동지역 평균의 1.18배 높았다.

하바롭스크 지역의 1인당 GDP는 2004~11년 동안 3,290달러 40센트에서 9,694달러 30센트로 2.95배 증가하였다. 2011년 하바롭스크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97.94%, 극동지역 평균의 76.62%를 차지하였다.

2004~11년 연해주 지역의 1인당 GDP는 2,593달러 30센트에서 8,726달

러 40센트로 3.4배 증가하였다. 2011년 연해주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88.2%, 극동지역 평균의 69%를 차지하였다.

2004~11년 아무르 지역의 1인당 GDP는 2,531.7달러에서 7,854.6달러로 3.1배 증가했다. 2011년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97.94%, 러시아 극동지역 평균의 77.34%를 차지하였다.

2004~11년 유대인 자치구에서 1인당 GDP는 2,083달러 60센트에서 6,668달러 80센트로 3.2배 증가하였다. 2011년 이 지역의 1인당 GDP는 러시아 평균의 67.38%, 극동지역 평균의 52.7%를 기록하였다.

자) 극동지역 경제의 특징은 불안정한 지역총생산의 성장이다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이 지역에서의 지역총생산은(고정가격 기준으로) 성장속도 면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요인이나 조건들이 극동 경제 발전과정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즉 러시아 경제가 부활하고 있던 2010년에 극동지역 중 3곳(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사할린 주)만이 극동 평균 지역총생산량보다 높은 성장지수를 보여주었다. 6개 지역(사하공화국, 캄차카 주, 아무르 및 마가단 지방, 유대인 자치구 및 추코트카 주)은 극동 평균보다 낮은 지역총생산 증가율을 보였다.

2. 투자 및 투자환경: 최근 동향

1) 투자유치의 주요 동향

지역 내 투자잠재력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축적된 자본금의 규모와 구조
- 자본금 투자규모와 추이
- 직접투자를 포함한 외국인투자 규모와 추이

2011년 극동지역에 축적된 자본금은(현 시가로) 2,070억 달러였다. 2004년에 비하면 자본금이 3배로 증가한 것이었다.

자본금 축적속도에서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관구 중 중앙관구와 우랄관구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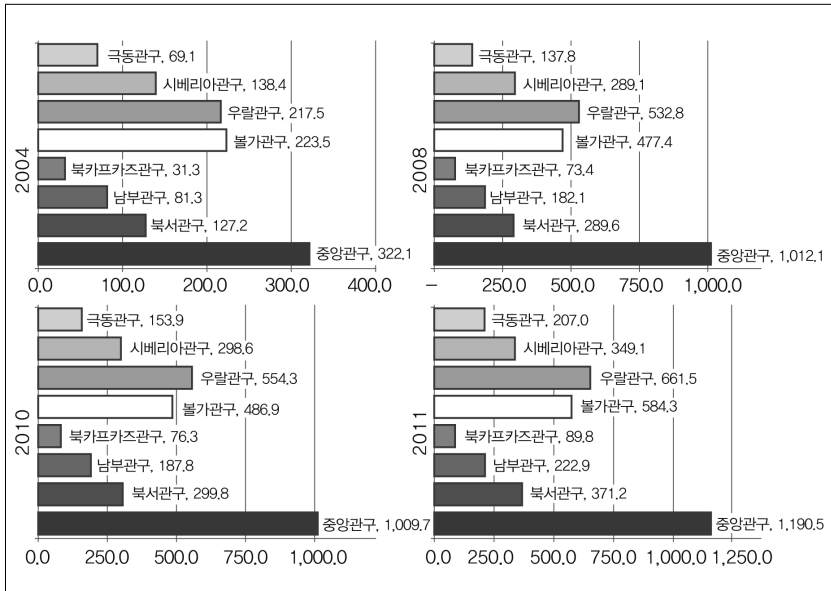
같은 기간 극동지역의 고정자본투자액은 4.6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극동 경제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2배 증가하여 2011년에는 99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투자액의 5.2%였다.

러시아 전반에 걸쳐 실제 외국인투자 규모는 4.7배 성장하였고, 그 중 중앙연방관구는 7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3-2 2004~11년 러시아연방 관구별 자본금(현 시가)

(단위: 십억 달러 기준)



자료: 저자 작성

극동지역에 대한 실제 외국인투자 규모의 성장추이는 극도로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11년간(2000~11년) 외국인투자 증가속도가 6번(2001~04년, 2006년, 2008년, 2009년)은 러시아 평균을 상회했고, 5번(2000년, 2005년, 2007년, 2010~11년)은 러시아 평균에 못 미쳤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이 사할린 주(州)의 경제에 집중되어 있고, 대륙붕의 유전가스전 개발사업비 및 교통인프라, 가공공장 건설사

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에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구조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그 양상이 달라졌다. 또한 직접투자의 감소속도는 다른 형태의 투자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2배 이상 감소하여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32.2%가 되었다.

2011년 지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94% 이상이 원료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업분야의 비율은 직접투자 총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서비스 분야는 4%대였다. 「동시베리아 연구」(『시베리아 전문가』지 2012년 34호(342)) 기사에 따르면, “오늘날은 그 어느 회사도, 러시아 최대 석유 가스회사조차도 해저대륙붕 개발, 액화천연가스 생산 및 영업, 탄화수소 처리(석유가스화학 및 헬륨 생산 포함)와 같은 고도기술의 자본집약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다. 더욱이 비교적 익숙한 조건인 내륙 광상 개발의 경우에도 혁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때면 해외업체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반코르 광상(Rosneft 사(社)) 및 베르흐네첸 광상(TNK-BP 사(社)) 개발에는 Schlumberger 사(社)의 수평시추기술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러시아 수출업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더해 러시아 원료산업의 현대적 투자환경과 조직구조가 서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 제도적 환경은 기술개발을 억제하고 불리한 자연지리조건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주요 위협요인은 러시아정부가 극동 원료자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러시아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원료사업에 대하여 통합된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현저히 국가재정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자본집약적인 대형 사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부가 정부 산하 회사(가스프롬, 로스네프티, 트란스네프티 등)를 통하여 원료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함에 따라, 독립 중소기업들의 비율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여 독점 경향이 심화되고 경쟁이

축소되고 있다.

세 번째, 전략 사업으로 지정된 자원 개발, 특히 정부의 관리 아래 들어간 해저 대륙붕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대한 외국 자본 참여가 차단되어 있다.

결국 지하자원 활용제도는 전반적으로 경매 단계의 수당 지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자원부는 기존 사업을 재평가함으로써 ‘서류 상의’ 매장량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회사들은 차후에 광상을 개발할 의도도 없이 시장 가격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전략적 광상 획득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2) 극동지역별 투자환경

가) 사하공화국(야쿠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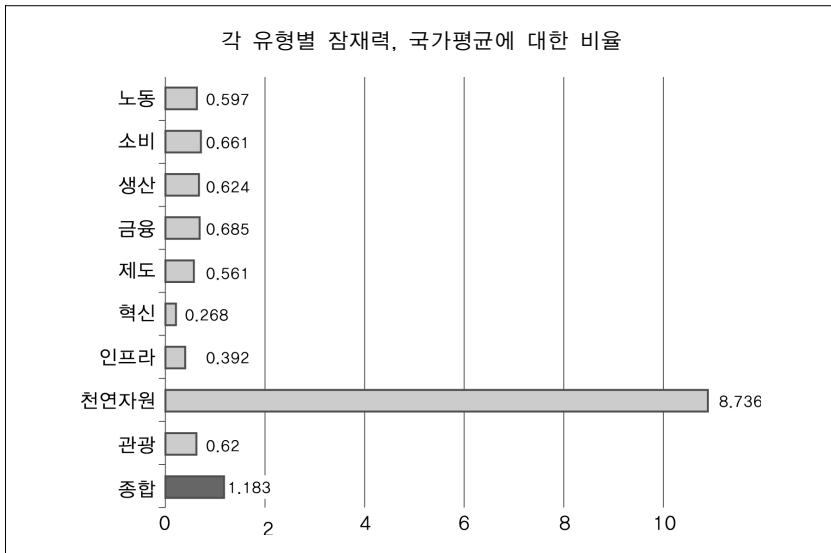
2012년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투자환경을 전문가들은 중간 위험수준의 평균 이하(3B1)로 평가했다. 투자잠재력 성장등급은 러시아연방 주체 83개 중 19위를 차지했다.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은 러시아 평균을 8.4배 상회하는 천연자원 잠재력이었다(그림 3-3). 9가지 유형의 지역잠재력 중에서 혁신잠재력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러시아 평균보다 3.7배 낮은 수치였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주요 투자잠재력은 다음의 네 경제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 ① 야쿠츠크 남부 경제구역- 석탄 채굴 및 선광, 철광석 및 우라늄광 가공, 가스화학, 화학산업, 목재가공, 화력 및 수력 산업, 비철금속 채굴
- ② 야쿠츠크 서부 경제구역- 석유가스 채굴, 석유가스가공 및 헬륨 산업, 금강석 채굴, 목재가공
- ③ 야쿠츠크 동부 경제구역- 비철 및 희토 금속 채굴
- ④ 야쿠츠크 중부 경제구역- 교통물류거점, 정보통신, 교육, 관광, 가공 산업: 보석 및 세공 산업

그림 3-3 사하공화국(아쿠티아) 2012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발전속도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과 상호 연관 사업의 복합단지가 조성되는 야쿠티아 남부이다. 팀톤, 우추르, 알단, 올레크마 강의 수력잠재력을 활용하고, 네룬그린 석탄 채굴 확대, 엘긴 광상 개발, 기존 화력발전소 용량 확대 및 가능하다면 엘긴 광상의 석탄을 사용하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야쿠츠크 남부 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사하공화국 서부의 신규 산업체 대부분은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동 시베리아-태평양’ 간 송유관 설비, 그리고 금광석 채굴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금광석 채굴산업은 미르니 시, 렌스키 시에 집중되어 있고, 우다치니 시, 뉴르바 시, 아이할 마을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또한 교대 및 파견 근무자의 거주지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올레크민스크 시는 ‘동 시베리아-태평양’ 간 송유관 건설에서 기본 거점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하니 역에서 시작하는 철도건설계획으로(2012~15년) 대규모 철광석 광상 및 산림자원 개발도 힘을 얻고 있다.

사하공화국의 동북부는 광산업 주요 중심지(바타가이, 제푸탄스키, 우

스찌-네라 등)와 주석, 텅스텐, 금, 귀금속 개발과 관련해 새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네쭈다닌스키, 아글키, 일린-타스, 부르고찬, 알리스-하야, 우스찌-쿠이가)에 발전이 집중될 것이다.

레나 강 교각과 철도 건설이 완공되면 거주지 모습이 달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기차역이 토모트 시에서 야쿠츠크 시를 잇는 간선을 따라 생겨나고, 야쿠츠크 시에 조성되는 교통물류거점은 철도, 도로, 수로, 항로(야쿠츠크 공항 기반의 교통허브)가 집중되었다가 분산되므로 지역 내뿐 아니라 지역간 및 국제무역과 물류를 담당하게 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특히 철도를 마가단 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동쪽으로 확장할 계획과 관련해보면, 더 장기적인 전망에서 한드가 마을(우스찌-네라)과 같은 곳에서 중심지와 연결된 동부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캄차카 주

2012년에 캄차카 주는 투자환경에서 러시아 지역 중 76위를 차지했다. 종합 투자잠재력은 위험요소가 크고 잠재력이 적은 등급(3C2)으로 평가되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캄차카 주는 전체 70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평균(=1.00)보다 2.33배가 더 낮다(그림 3-4).

총투자잠재력에 주로 기여하는 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이다. 러시아 평균에 비해 1.72배 더 높다. 지역잠재력 9가지 유형 중 금융 및 혁신 잠재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수치는 러시아 평균보다는 5.6배가 더 낮다.

캄차카 주의 잠재력은 다음의 네 가지 선호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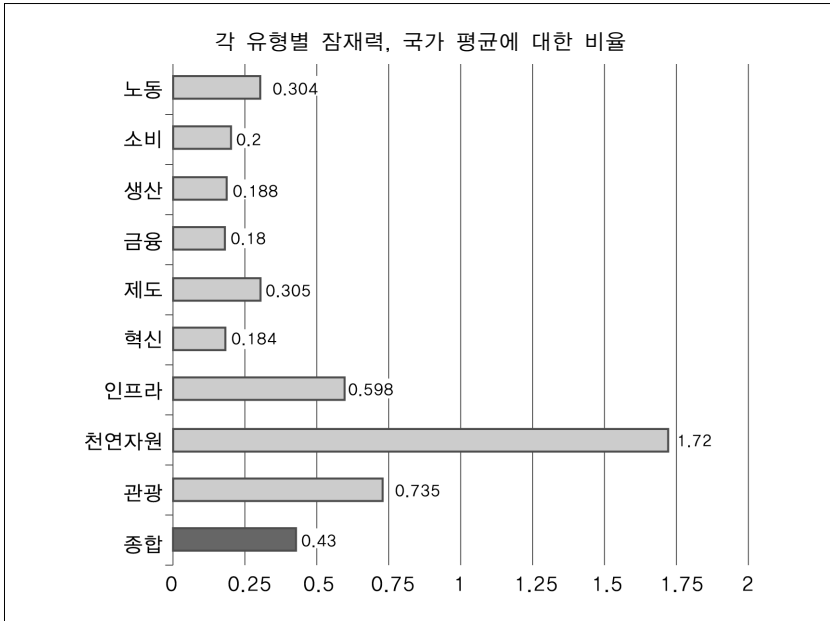
- 어업활동(어로, 항구, 교통, 선박수리, 대양의 광물자원 채굴 및 가공 및 기타 해양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활동)
- 관광(관광 클러스터- 휴양 및 요양 단지, 문화역사 관광, 크루즈 관광, 과학, 스포츠 등)
- 아바친 교통물류허브 항구
- 광물원료 단지(캄차카 서부 대륙붕 개발을 포함하여 지역 전체에서 대

규모 천연자원 개발, 코랴크 채광지구(금, 석탄, 비금속)의 채광 클러스터의 발전)

캄차카 주의 장기적인 경제사회발전 전망에 아바친 교통물류 클러스터 (북부 항로의 허브항구) 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4 캄차카 주 2012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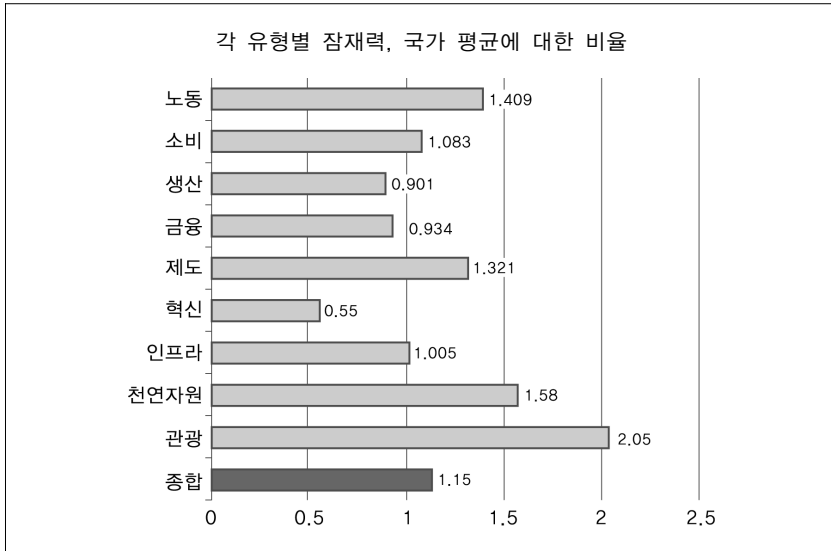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Expert RA

다) 연해주

연해주의 2012년 투자환경은 중간 위험수준의 평균 이하(3B1)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 수준은 러시아 내에서 20위를 차지했다. 그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을 0.15포인트 상회하는 것이었다(그림 3-5).



자료: Expert RA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한 주요인은 관광 및 천연자원 잠재력인데, 러시아 평균보다 각각 1.41배 및 1.32배 높았다. 연해주에 발전된 대학교육제도 및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과학연구소들이 위치해 있다해도 전문가들은 혁신잠재력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여, 러시아 평균보다 1.8배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까지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연해주에서 러시아와 아태지역 간 경제협력지대와 국제비즈니스, 교통물류, 혁신교육 및 관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략적 목표에 맞춰 6개 중점분야에서 총비용 3조 루블 이상의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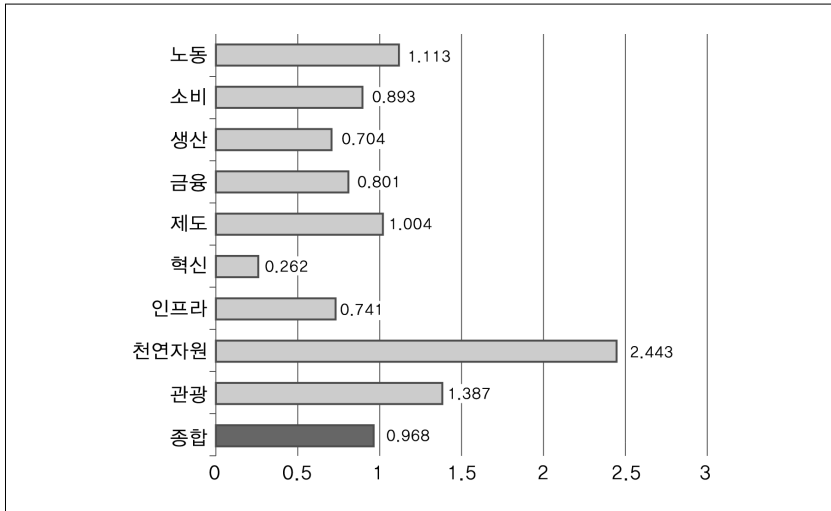
- ① **탄화수소 원료 운송 및 고도처리 클러스터:**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운송체계는 연해주의 천연가스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연해주 남부의 가스처리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공업단지에는 가스 액화 및 압축 공장, 무기질 비료공장, 가스처리공장이 포함된다. 공단의 예상위치는 하산 군이다.

- ② **에너지 생산 클러스터:** 에너지 분야의 주요 방향은 연료 최적화, 발전동력 선진화 및 확대, 네트워크 개발 및 소규모 발전분야 개발 노력의 활성화이다. 갈탄 기반의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65개 이상의 수익성 없는 소규모 중유기관을 폐쇄하고, 도시의 난방률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발전용량은 370MWh(각185MWh 2기), 열량 500Gkal/h, 가동시기는 2016년이다. 천연가스 기반의 나홀킨 화력발전소 건설은 나홀킨 군과 인근 지역 소비자들의 전기 및 열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탄화수소 원료 운송과 고도처리 클러스터에 새롭게 등장하는 공장들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다. 2001~12년간 블라디보스톡의 화력발전소 1기와 2기, 북부 중앙난방소를 천연가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연료비를 절감하여 효율을 높이고, 블라디보스톡 시의 향후 열 필요량을 보충해줄 것이다.
- ③ **조선 및 선박수리 클러스터**
- ④ **관광 휴양 클러스터**
- ⑤ **교통물류 클러스터:** 이 분야에서 극동 교통물류체계와 아태지역 교통물류체계를 통합하고 아태지역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 ⑥ **러시아와 아태지역 간 통합 국제교류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톡 광역 도시 형성**

라) 하바롭스크 주

하바롭스크 주의 2012년 투자잠재력은 **중간 위험수준의 평균 이하** (3B1)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은 러시아에서 2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보다 0.032포인트 낮을 뿐이다.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한 주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이며, 러시아 평균보다 2.4배 높다 (그림 3-6). 전문가들은 또한 관광 및 노동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는데, 러시아 평균보다 각각 1.4배와 1.1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6 하바롭스크 주 2012년 유형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자료: Expert RA

지역잠재력의 9가지 유형 중 혁신 잠재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러시아 평균보다 3.8배가 더 낮다.

하바롭스크 주의 투자잠재력은 네 군데 경제구역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바롭스크 주를 벗어나는 유관 산업 및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 유형의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첫 번째 경제구역: 하바롭스크 광역도시는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극동 경제 및 행정의 중심지이다. 이곳에서는 지역간 교통물류거점과 선진 분야의 공업 및 경제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다. 전망 있는 분야로는 석유가공, 식료품 생산, 건축자재,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및 장비 분야가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하바롭스크 광역도시는 하바롭스크 시의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여객 및 화물 터미널을 개발하여 항공 교통 허브를 조성하고, 대 우수리스크 섬의 경계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제구역: ‘콤포몰스크-아무르스크-손네치니’에 이르는 산업 중심지이다. 이곳에는 현재 하바롭스크 주 공업제품의 50%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기업 입지를 위한 좋은 자원, 인프라, 물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 경제구역: ‘바닌·소베츠크 항만 교통 공업 거점’. 이곳에는 거대 금융산업그룹인 ‘메첼’사,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 ‘바조비 엘리먼트’사, ‘페트로파블롭스크 관리회사’, ‘사하(야쿠티아) 교통 회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 회사들은 바이칼·아무르 철도지대와 연관된 종합투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으며, 유용 광물 채굴과 선광 및 가공 콤비나트 및 바닌 항, 소베츠크 항만의 수출터미널 건설을 포함한다. 이 구역의 발전과 더불어 복수지역 투자 사업인 「2020년 바이칼·아무르 철도전략 개발사업」의 확립과 실행 움직임도 뒤를 따른다. 러시아 제품을 아태지역 국가들로 공급하는 중요 물류 연결고리로서, 시베리아 횡단 국제교통로의 이 거점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통, 에너지, 공학, 공공, 사회 인프라 개발의 상호 연관 종합사업이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바닌 항의 러시아 대기업들은 항구의 처리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연간 쿠즈바스 석탄 1,200만 톤을 처리하는 석탄터미널은 2020년까지 2,400만 톤으로 처리능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메첼’사는 바닌 항을 통해 열린 광상에서 연간 2,50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할 계획이며, ‘사하(야쿠티아) 교통 회사’는 연간 3,100만 톤의 석탄, 철광석 정광, 목재를, ‘바조비 엘리먼트’사는 연간 최대 250만 톤의 곡물을 포함한 다양한 화물을 연간 310만 톤 운송할 계획이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특별 경제구역 해항 ‘소베츠크 항만’은 정부 민간 협력도구로서, 소베츠크 항만에 물류항, 선박수리, 바이오자원 및 공업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현대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항구지역이 조성될 수 있게 함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소베츠크 항만 자치 지역 내에 특별 경제구역 항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따라 이곳의 물동량은 2020년까지 연간 300만 톤, 2025년까지 연간 350만 톤에 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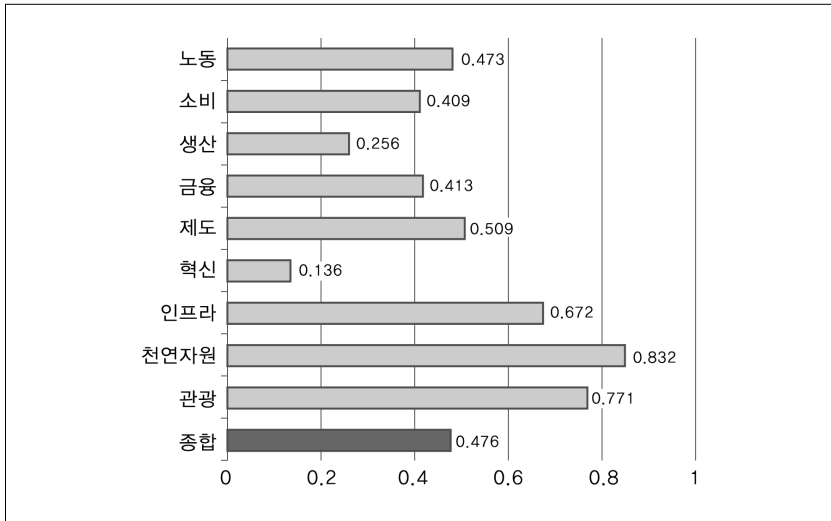
네 번째 경제구역: 베르흐네부레인스크 공업지대는 우랄 석탄 광상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곳의 핵심 투자자는 ‘SUEK’ 사이며, 우랄 광상 채굴을 진행하고 있다. 석탄 채굴량을 현재의 270만 톤에서 2019년 700만 톤까지 확장하는 사업은 우선적인 투자프로젝트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마) 아무르 주 투자잠재력

아무르 주의 2012년 투자환경은 중간 위험수준의 잠재력이 적은 등급(3B2)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7). 투자잠재력 수준에서 아무르 주는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65위를 차지했다. 그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보다 0.524포인트 더 낮았다.

그림 3-7 아무르 주 2012년 유형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이며, 러시아 평균보다 1.2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 생산 및 혁신 잠재력은 러시아 평균보다 각각 3.9배 및 7.4배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아무르 주는 지리적 형태로 인해 다음의 세 가지 경제구역으로 임의 구분된다.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천연자원 구역(아무르 서부 구역, 제이스크 구역, 셸렘진스크 구역의 3개의 하위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르 연안 농업구역(광업·제철 단지 발전 전망이 있다), 스보보드넨스크 우주구역.

아무르 서부 경제구역은 바이칼-아무르 철도와 툰다의 교통 교차점에

서 형성된다. 발전기반은 금, 티타늄 자철광, 인회석 광상 개발과 목재가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역에서는 채광단지, 목재가공단지(턴다 시) 및 교통물류단지(스코보로지노 시)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제이스크 경제구역은 턴다-제야-엘가(야쿠티아)를 잇는 교통 축을 따라 형성되며 목재가공, 에너지산업, 금을 포함한 유용 광물 채굴에 특화되어 있다.

셀렘진스크 경제구역은 계획 중인 쉬마노프스크-차고얀-가리-페브랄스크-오고자 방사형 철도와 관련하여 형성되고 있다. 이 구역의 발전 전망은 철, 금, 비철 및 희토 금속, 석탄, 비광석 유용 광물의 광상들과 목재 자원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에 위치한 공장지대에 있다. 구역 내에서 아무르 연안 광업·제철 클러스터 조성이 완성될 것이다.

아무르 연안 농업구역의 발전기반은 농업단지와 벨로그orsk 시의 공업유형 특별 경제구역 조성이다.

스보보드넨스크 경제구역은 우글레고르스크와 인접 자치 지역의 비공개 행정지리 단위 내에서 조성되고 있다. 이곳에는 우주기지 ‘보스토치니’의 건설과 가동을 위한 고도의 우주공학, 기계 및 전자 제품 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아무르 주의 2020년 사회경제 발전계획에 따라 다음의 세 군데 경제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되고 있다.

- ① **광업·제철 클러스터.** 현지 철광석 원료의 고도 처리와 관련된 제철공단 조성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철도 사이 지역의 공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부계획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이 검토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무르 연안의 지역 총생산이 2.5배 증가할 것이며, 사업 진행 10년간 모든 예산부문에서 조세액수는 463억 루블을 넘어설 것이다.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제한이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극동 및 아무르 주 유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② 극동 국립우주센터는 스보보드니 마을 지역에 있으며, 현대 기술 활용, 우주분야와 러시아 공업, 과학, 교육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극동지역의 주된 우주 클러스터가 되어서 극동의 집중적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지위 강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주기지의 건설은 현지 광물 원료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③ 벨로고르스크 시의 공업생산 특별 경제구역을 바탕으로 아무르 연안의 대두(大豆) 클러스터 및 기술 핵심지역 조성이 계획되고 있다. ‘벨로고르스크’ 특별 경제구역의 투자사업은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업제품의 고도 가공공장 설립, 친환경제품 출고(콩 가공공장 건설, 통조림 공장 건설)
- 목재 고도 가공공장 설립
- 속성 건축용 자재 및 벽체 패널의 수입품 대체 생산공장 설립(열구조 패널과 발포 폴리스티렌 제품을 생산하는 건축 콤비나트 공사)
- 에너지 절약 LED 등 생산공장 설립(인공 조명 LED 등 생산공장 건설)

아무르 주의 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하여,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전기 에너지를 대규모 수출하는 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에너지 구역 신설이 계획 중에 있다. 러시아연방 내에 총 발전용량이 최대 1만 800MWt인 발전소 건설과 가동, 러시아 및 중국에 교류 및 직류망 조성으로, 대중국 전기 수출량을 연간 최대 600억kWh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2009~20)이 고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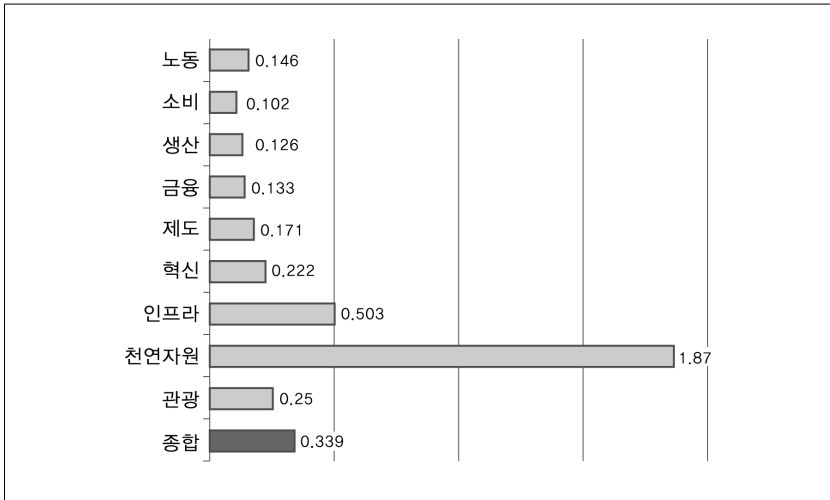
캄차카 주에서 현재 지리적 국제적으로 특화된 유일한 분야는 어업, 양식업, 그리고 어류/해산물 가공과 통조림 제조 및 연관 분야(선박수리, 운송, 항만업, 용기/그물 제조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로 대표되는 어업단지이다. 어업단지 내에서의 경제활동은 이 지역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 마가단 주

마가단 주의 2012년 투자환경은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낮은 등급(3C2)으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 수준에서 마가단 주는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2위를 차지했다. 종합 투자 잠재력은 러시아 평균(=1.00)보다 0.661포인트 더 낮았다. 마가단 주의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이며, 러시아 평균보다 1.84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8). 그 외에 소비 및 생산 잠재력은 러시아 평균보다 각각 9배 및 8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8 마가단 주 2012년 유형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마가단 주의 투자잠재력 기반은 다음의 6개 기본 경제구역에 의해 결정된다.

움수크찬스크 경제구역- 마가단 주와 러시아 전체를 통틀어 은 채굴의 중심지(은 광산 ‘두카트’와 ‘룬너예’). 지역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 채굴이 이루어진다.

중양 콜름스크 경제구역- 사금 광산의 금 채굴 중심지. 또한 광산에서 은과 금 채굴(금 광산 ‘베트렌스크’, 금·은 광산 ‘아가트’), 석탄 채굴(베르

흐네-아르카갈린스크 광상)이 이루어진다. 유용 광물 채굴 이외에도, 중앙 콜림스크 경제구역에는 전력 생산과 분배가 집중되어 있다(콜림스크 수력발전소, 아르카갈린스크 국립 지역발전소).

오몰론스크 경제구역- 금광석 채굴(비르카찬, 쿠바카, 오로치 광상)

프리마가단스크 경제구역- 농업, 어업, 가공업, 전력 생산 및 분배(마가단스크 화력발전소), 채굴장비 제조(마가단스크 기계공장 등), 금 함유 물질 가공(콜림스크 제련공장), 폭발물 제조(연구제조회사 ‘콜름마브즈름 프롬’).

에벤스크 경제구역은 고립되어 있는 구역이며, 금 채굴(소프카 크바르 제바야 광상과 몇몇 소규모 사금 광상들)과 함께 북부 소수 원주민족들이 자연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경제활동(순록 목축업, 어업, 사냥, 채집)을 주로 해왔다. 마가단 주를 경제적 잠재력 평가에 따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① **서부 투자구역**-가장 거대하며, 지리적으로는 수수만-야고딘스크와 텐킨스크 하부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 구역에는 여러 대형 금광석 광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광상들은 야노-콜림스크 금 채굴 지역(추정 매장량: 금 4,750톤)의 일부이다. 그 매장량 중 50%는 이미 채굴되었으며, 매장량은 주로 대형 광상 ‘나탈킨스크’(1,450톤)에 집중되어 있다. 야노-콜림스크 금 채굴 지역에는 14개의 광상이 있는데, 그 중 9개가 마가단 주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사하(야쿠티아) 공화국에 위치해 있다. 마가단 주에 있는 세 가지 광상-‘나탈킨스크’, ‘파블릭’, ‘이구메노프스크’(텔킨스크 군)-에 대한 매장량은 탐사가 완료된 확정적인 것이다.

발전, 특히 ‘포스트레첸스크’ 광상의 시멘트 공장 건설이 예상된다. 공장은 「러시아연방 2030년 교통발전전략」에 따라 계획 중인 야쿠츠크-마가단 철도노선의 바로 옆에 위치할 것이다.

② **북부 투자구역**은 샤마니호-스톨보프스크 금광석·사금지역(추정 매장량: 사금 20톤, 금광석 300톤), 오로엑스크 광상 구역(구리 1,100만 톤, 은 1만 1,600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샤마니호-스톨보프스크 구역에는 금광석을 찾기 위한 지질탐사

(‘듀아멜’ 사 자체 경비로 진행)와 사금 광상에서의 금 채굴(‘T-시멘트’사- 2011년 약 130kg의 금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북부 구역의 구리자원 획득을 위해 오로엑스크 구리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③ **동부 투자구역**은 막대한 금, 은, 구리, 몰리브덴, 납, 아연, 철 추정 매장량과 우라늄, 응집된 석탄이 있는 라소신스크, 오몰론스크와 에벤스크 금광석·사금지역을 포함한다. 중요한 유용 자원 광상까지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콜름-옴수크찬-오몰론-빌리비노-콤포소물스크-아나디르를 연결하는 연방 자동차 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 도로의 마가단 지역 총길이는 그 도로로부터 출발하는 지역 도로의 길이를 포함하여 440km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이곳에서 2015년부터 매년 금 16.7톤, 은 475톤 채굴, 그리고 2020년부터 구리 14만 2,000톤, 철 850만 톤 채굴 및 추가로 아연 4,500톤과 몰리브덴 정광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④ **남부 투자구역**은 동쪽으로는 슈르쿰 갑(岬)과 서쪽으로는 얍스크 군도의 12마일 영해선 남쪽에 위치해 있다. 공식 문서상에는 오흐츠크해의 이 지역을 프리마가단 대륙봉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남부 구역에 위치한 탄화수소 추정 매장량은 50억 톤에 이른다. 탄화수소 이외에도 남부 구역에는 상당한 추정 매장량을 지닌 두 갈탄 광상-‘란콤포스크’와 ‘멜코보드넨스크’가 있다. 노천 채굴이 가능한 멜코보드넨스크 광상의 탐사 매장량은 5억 500만 톤이며, 란콤포스크 광상은 9억 6,500만 톤이다.
- ⑤ **마가단 경제구역**은 주의 중심지인 마가단 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구역의 발전 전망은 국제공항의 지위를 갖춘 마가단 공항과 마가단 항구, 조립공장들 그리고 스포츠 관광업(마르체칸스크 스키장 건설)과 연관되어 있다.

명백한 투자 우선순위는 야노·콜름스크 지역 경제구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수준의 러시아 금 채굴 센터의 설립이다. 이 지역 경제구는 마가단 주와 사하(야쿠티아) 공화국에 걸쳐서 위치해 있다. 이 지역들의 경제를 위해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마가단 주를 위해 가능한 목표로는 금광석 광상의 연간 금 채굴 수준을 2020년까지 80~90톤으로

증가시키는 것; 지하자원 사용자들로부터 얻는 수입을 4.3배 향상시키는 것; 모든 예산에서 세수(稅收)를 100억 루블로 증가시키는 것; 5,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근로자를 포함하여 1만 명 창출; 지역 총생산 연간 345억 루블 달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석유제품에 대한 마가단 내에서의 수요는 러시아연방의 다른 지역들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온전히 충족되고 있다. 만약 복합적인 가공생산 목적(합성 자동차 연료, 연탄, 동력 가스와 기타 많은 중요 가공생산품의 획득)으로 란콥스크와 멜코보드넨스크 갈탄 광상 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사업이 실현된다면 상황은 중기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 광상에 잠재된 전체 자원 매장량은 석탄 27억 톤이다.

장기적으로는 석유제품의 반입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가단 주가 수출주체로 바뀌는 것이 마가단 주에 걸쳐 있는 오호츠크 해 대륙붕(약 50억 톤의 탄화수소 잠재 매장량을 가진 마가단-1,2,3,4구역)과 마가단 주의 내륙지역(석유가스지역으로 추측되는 두 지역: 오몰렙스크와 얄스크·타우이스크)에 있는 탄화수소 자원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사) 사할린 주

사할린 주의 2012년 투자환경은 중간 위험수준의 평균 이하(3B1)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 수준에서 사할린 주는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51위를 차지했다. 종합 투자 잠재력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보다 0.372포인트 더 낮았다. 사할린 주의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이며, 러시아 평균보다 1.15배(그림 3-9)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타 극동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생산, 금융 그리고 인프라에서 충분히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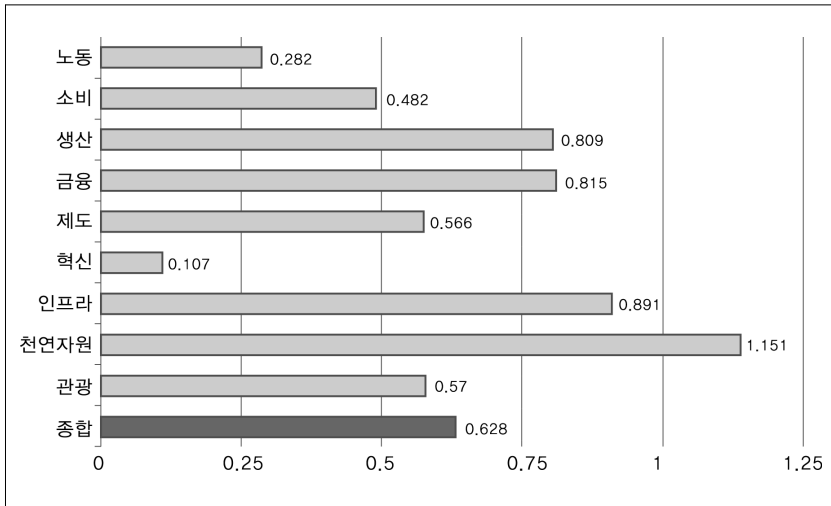
사할린 주의 투자잠재력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세 구역-남부 사할린, 쿠릴 그리고 북부 사할린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남부 사할린 경제구역의 특징은 석유가스화학 클러스터와 생물자원 물류센터 조성, 그리고 사할린 섬 서부 연안의 석탄 수출을 위한 항구 건설이다. 또한 남부 사할린 화력발전소 1기의 기존 시설

을 가스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할린 주의 가스화가 진행될 것이다. 사할린 섬 남부에는 가스화학산업 및 가스기반 발전(發電)사업이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림 3-9 사할린 주 2012년 유형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쿠릴 경제구역의 특징은 생물자원과 휴양시설단지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 극동 수산업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특히 게, 연어, 오징어, 조개류, 해조류의 주요 어장으로서 러시아 및 세계 어업의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류와 해산물의 고도 가공업 개발과 바이오 의약품, 식품, 연료제품, 농업 복합단지와 양식장을 위한 사료, 기술 제품의 생산이 계획되어 있다.

북부 사할린 경제구역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는 원유 채굴사업의 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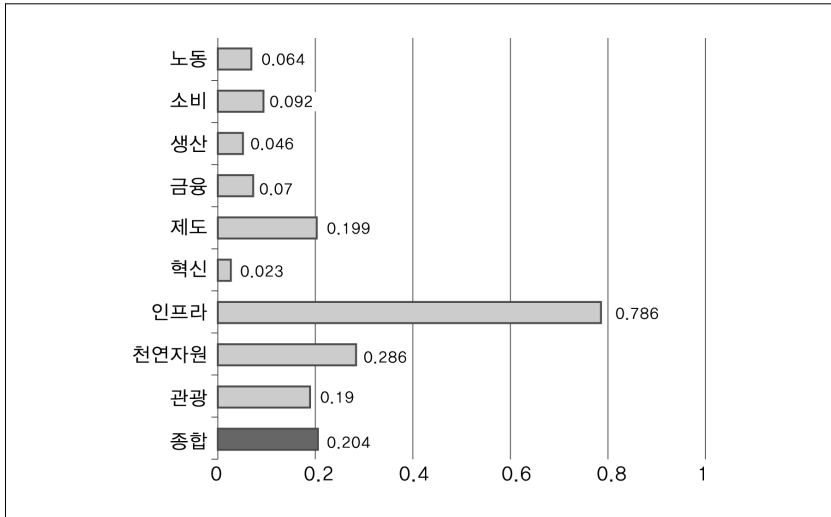
아) 유대인 자치구

유대인 자치구의 2012년 투자환경은 높은 위험수준의 잠재력이 낮은 등급(3C1)으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8위를 차지했다. 종합 투자잠재력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보다 4.4배 낮았다(그림 3-10). 유대인 자치구의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은 인프라 잠재력이다. 금융과 혁신 잠재력 수준은 러시아 평균보다 각각 14.3배, 43.5배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3-10 유대인 자치구 2012년 유형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유대인 자치구의 경제발전 지점은 광업·제철 및 농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임업과 운송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다. 광업·제철 클러스터는 첫 단계에서 오블룬체스크 지역의 경제개발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김칸스크와 수타르스크 철광석 광상의 개발과 채굴 및 그 기반 위에 채광 및 선광 콤비나트, 제철공장 건설이 기본을 이룬다. 철도와 가까운 위치 덕분에, 비슷한 종류의 사업 실행에 필요한 큰 액수의 교통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채광 클러스터 개발은 악짜브리스크 지역에서 선광 공장 건설을 포함한 소유즈 흑연 광상과 남부 힌간스크 망간 광상 개발 사업의 실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니즈네레닌스코에 군과 툰쯔잔 시에 있는 아무르 강을 지나는 철교 건

설과 비로비잔-레닌스크 철도의 재건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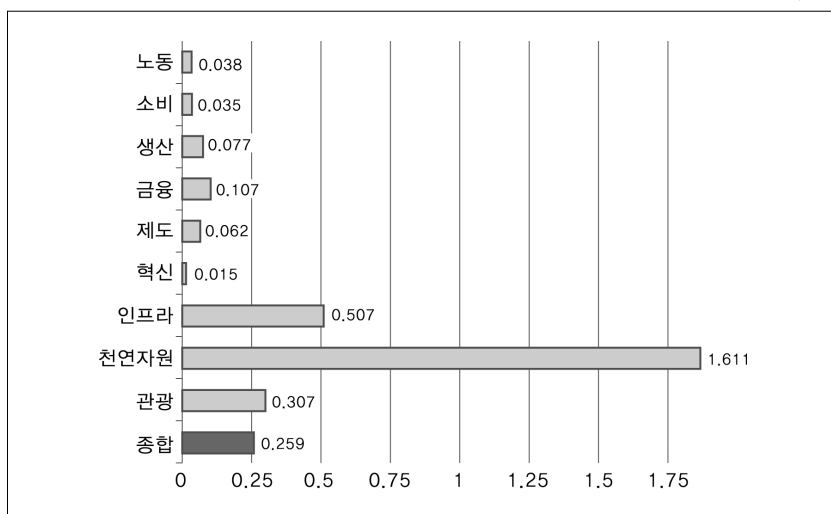
자) 추코트카 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의 2012년 투자환경은 높은 위험수준의 잠재력이 낮은 등급(3C1)으로 평가되었다. 투자잠재력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9위를 차지했다. 종합 투자잠재력 수치는 러시아 평균(=1.00)보다 3.9배 낮았다(그림 3-11). 추코트카 자치구의 총투자잠재력에 기여하는 주요인은 천연자원 잠재력인데, 러시아 평균보다 1.61배 높은 값이다. 그 외 모든 투자잠재력 수준은 러시아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추코트카 자치구의 경제개발전략의 방향은 채굴분야 개발과 성장을 주도하는 두 구역인 아나디르와 차운·빌리빈스크 경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질탐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림 3-11 추코트카 자치구 2012년 투자잠재력(러시아=1.00)

(단위: %)



자료: Expert RA

아나디르 경제구역의 발전에는 베링해 연안지역에 위치한 베링 석탄지역의 석탄 광상, 아나디르와 하티르스크 석유가스지역의 석유와 가스, 상당한 양의 지질탐사활동이 요구되는 몇몇 금광석 광상과 니켈·크롬 자원 획득이 포함된다. 2020년까지 자원 채굴량은 석유 48만~50만 톤과 가스 7,000만 입방미터로 추산된다.

차운·빌리빈스크 경제구역은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가장 산업이 발전한 두 지역, 즉 페벡 시를 중심으로 한 차운스크와 빌리비노 시를 중심으로 한 빌리빈스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운·빌리빈스크 구역의 주도 산업은 광업이다. 이곳에는 러시아의 거대 금 광상들- 마이스크, 쿠폴, 카탈베엠, 드보이네예 등 많은 전망 있는 금광석 지대가 위치해 있다. 구역의 경계에는 러시아의 거대 주석 광상(피르·카카이스키 망상맥)과 구리 광상(페스찬카)이 있다. 2020년까지 금 채굴량은 30~32톤으로 추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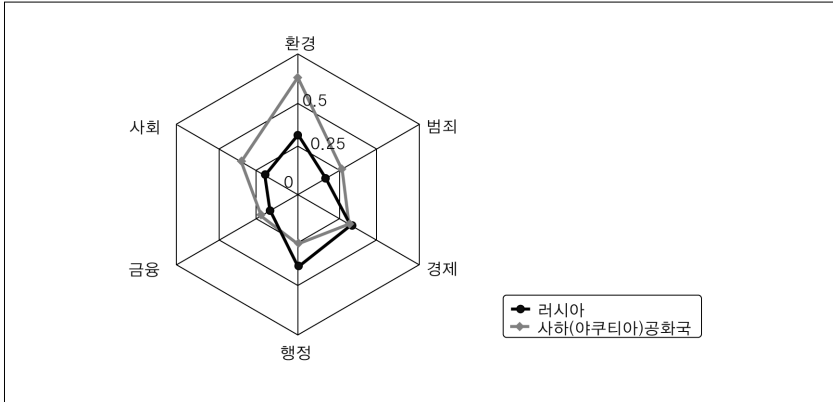
3. 극동 연방 관구 내 투자 위험성

1) 사하(야쿠티아)공화국 투자 위험성

2012년 사하(야쿠티아)공화국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48위를 차지했다. 사하공화국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중간수준(3B1)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낮은 투자 위험요인은 범죄, 가장 높은 요인은 환경이다. 금융안정성지수는 높은 하락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사회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 지수는 높은 하락세다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네 가지 부문(금융, 사회, 환경, 범죄)에서 사하공화국은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행정과 경제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림 3-12 사하(아쿠티아)공화국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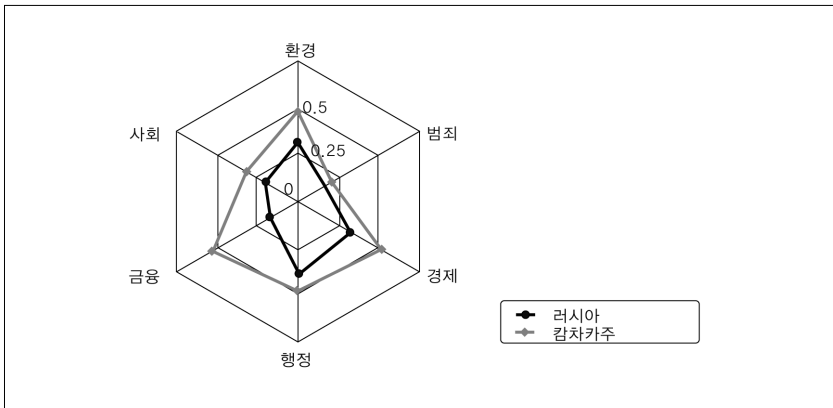


자료: Expert RA

2)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2012년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9위를 차지했다. 캄차카 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높은 수준(3C2)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3). 러시아 평균과 비교하여 모든 위험성 부문에서, 캄차카 주는 평균보다 나쁜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위험요인은 금융과 경제이며, 각각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5위와 76위를 기록했다.

그림 3-13 캄차카 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자료: Expert 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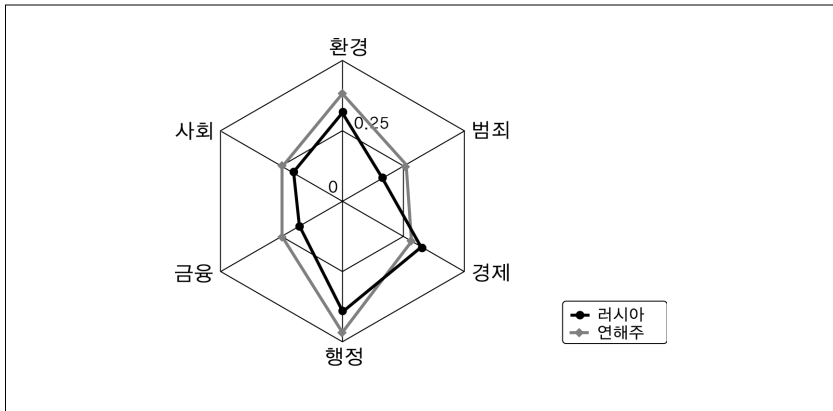
금융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정체, 사회안정성지수는 상승세며,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정체이다.

3) 연해주 투자 위험성

2012년 연해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30위를 차지했다. 연해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중간수준(3B1)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낮은 위험요인은 경제, 가장 높은 요인은 범죄이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정체, 경제안정성지수는 상승세, 사회안정성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다(그림 3-14 참고).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다섯 가지 요인(금융, 사회, 환경, 범죄, 행정)에서 연해주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표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수준이다.

그림 3-14 연해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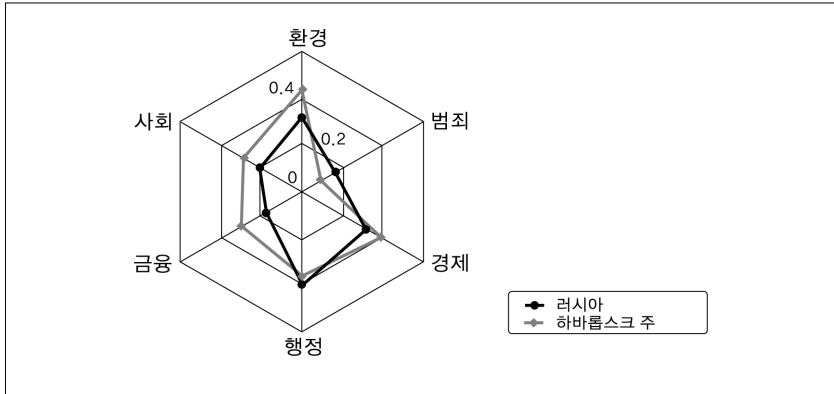
자료: Expert RA

4)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2012년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 하바롭스크 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중간수준(3B1)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낮은 위험요인은 입법, 가장 높은 요인은 범죄이

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 사회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다(그림 3-15).

그림 3-15 하바롭스크 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



자료: Expert RA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세 가지 부문(사회, 환경, 행정)에서 하바롭스크 주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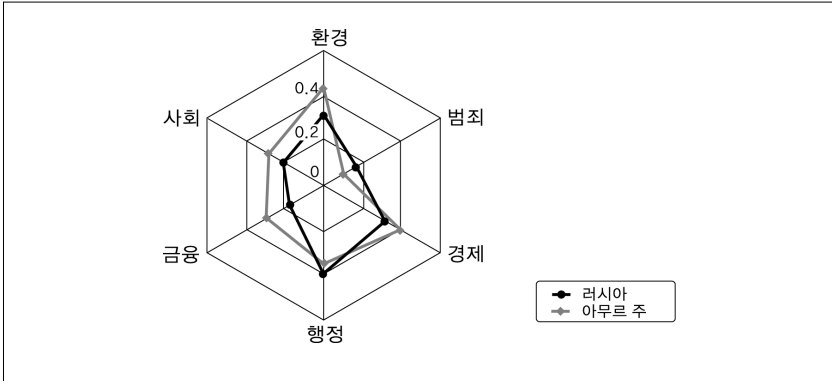
5)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2012년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44위를 차지했다. 아무르 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중간수준(3B1)으로 평가되었다.

금융안정성지수는 하락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정체, 사회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정체이다.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네 가지 부문(금융, 사회, 환경, 경제)에서 아무르 주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와 행정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수준이다. 아무르 주의 가장 열악한 지표는 환경과 금융 위험성이다.

그림 3-16 아무르 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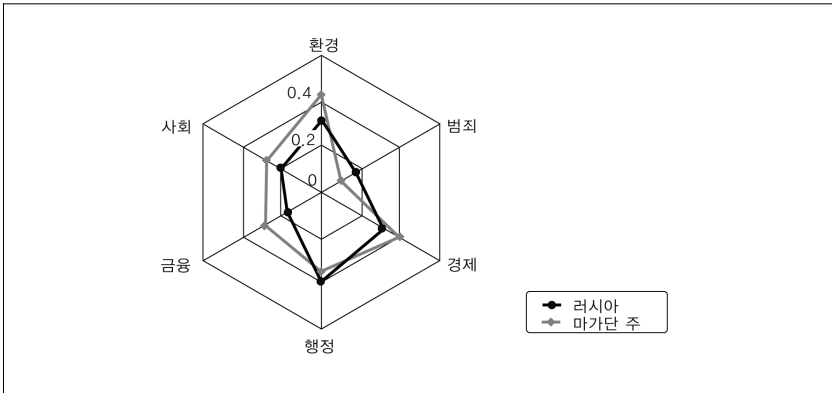


자료: Expert RA

6)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2012년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4위를 차지했다. 마가단 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높은 위험수준(3C2)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7 마가단 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자료: Expert 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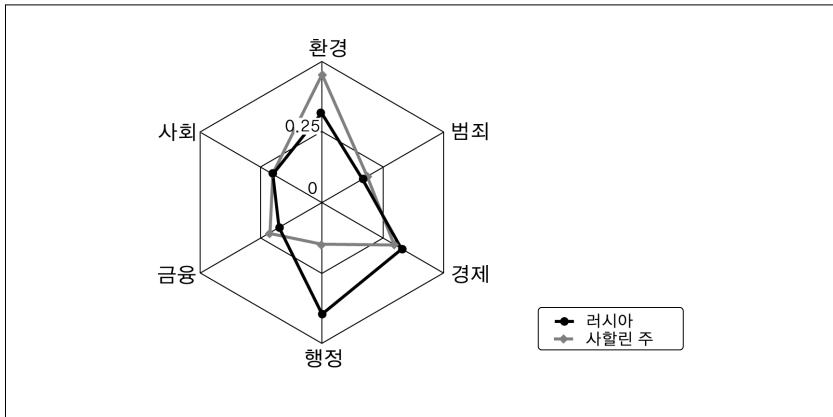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네 가지 부문(금융, 사회, 환경, 경제)에서 마가단 주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를 보

여주고 있다. 범죄와 행정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수준이다. 마가 단 주의 가장 열악한 지표는 환경과 금융 위험성이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상승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 사회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정체이다.

7)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2012년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사할린 주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중간수준(3B1)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8 사할린 주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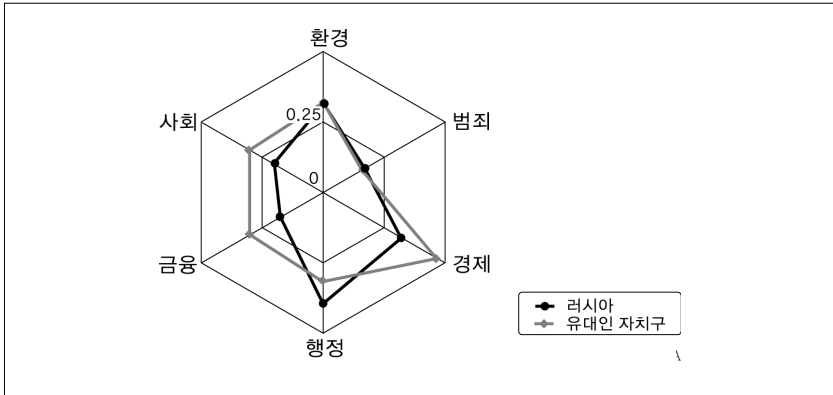
자료: Expert RA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세 가지 부문(사회, 경제, 행정)에서 사할린 주는 러시아 평균보다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사할린 주의 가장 열악한 지표는 환경과 금융 위험성이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중간 하락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중간 상승세, 사회안정성지수는 심각한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정체이다.

8)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2012년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69위를 차지했다. 유대인 자치구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높은 위험수준(3C1)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19).

그림 3-19 유대인 자치구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자료: Expert RA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세 가지 부문(금융, 사회, 경제)에서 유대인 자치구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세 위험성에서 가장 열악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상승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정체, 사회안정성지수는 깊은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정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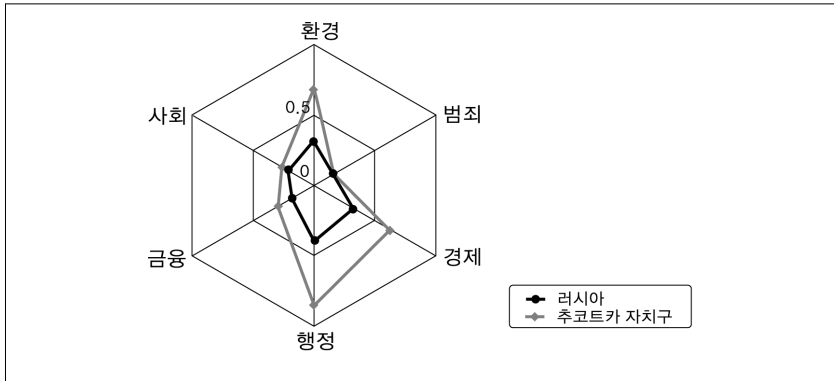
9)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2012년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수준은 러시아 83개 지역 가운데 76위를 차지했다. 추코트카 자치구의 총투자 위험성 수준은 높은 위험수준(3C1)으로 평가되었다.

러시아연방과 비교했을 때 여섯 가지 위험성 중 다섯 가지 부문(금융, 사회, 환경, 경제, 행정)에서 추코트카 자치구는 러시아 평균에 미치지 못

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위험성은 러시아 평균 수준이다.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제 위험성이다. 금융안정성지수는 상승세, 경제안정성지수는 상승세, 사회안정성지수는 깊은 하락세, 종합 위기대처안정성지수는 상승세이다.

그림 3-20 추코트카 자치구 2012년 유형별 투자 위험성(러시아=1.00)



자료: Expert RA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기업 관점

극동 연방 관구의 투자환경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책에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시민단체 오포라(OPORA ROSSII)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러시아 극동의 사업환경은 어떠한가, 어떤 변수들을 통해 그것을 평가하고, 어떤 지표를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경영과 투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척도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대해 6,000명이 넘는 극동지역 기업인들이 답을 주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체계화하고 그래픽으로 달리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특정 지역의 사업과 여건 평가 이외에도 지역들 간 비교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재계의 요구사항들이 지역정부, 연방정부, 지방정부 기관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지역 내 투자환경과 사업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 ① 지역 내 수요조건
- ② 지역경제의 부문구조 특징
- ③ 지역의 기업풍토

처음 두 요인은 ‘기본적인’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에 ‘유산’으로 남겨진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외부 영향을 받기가 가장 힘든 요인이다. 세 번째 요인, 지역의 기업풍토는, 대부분 지역 당국의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고, 기업풍토의 수준이 지역 행정부의 업무효율에 대한 한 가지 평가가 될 수도 있다. 위에 언급한 이유와 처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지역적 특징의 큰 차이로 인해, 우리는 세 번째 지표만을 가지고 투자환경을 분석할 것이다.

지역의 투자환경이란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 내 투자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살펴보는 조건들 전체를 뜻한다. 이것은 일종의 ‘환경’으로, 이 환경이 얼마나 유리한가에 따라 재설립되는 회사의 수와 기존 회사들의 성장 여부가 상당 부분 달려 있다. 투자(사업)환경은 다음의 부분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지역 내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놓은 것과 같다.

- ① 시장접근성 및 경쟁조건
- ② 인적 자원 및 숙련도
- ③ 금융자원
- ④ 인프라
- ⑤ 기술잠재력
- ⑥ 행정적 규제 및 장벽들
- ⑦ 생산자 제도

시장접근성 및 경쟁조건- 제품 판매, 원료/자재/부자재 확보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 또한 기업간 경쟁조건, 독점규제수준과 사법제도 및 판결집행제도의 효율성과 독립성에도 달려 있다.

인적 자원 및 숙련도- 이것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인력 고용 가능성과 인력 숙련도를 말하며, 기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하

도록 해주는 특별 기업 발전프로그램의 유무이다. 지역교육(중등 및 고등 교육)정책 역시도 전반적인 기업 소양과 사업 시작 동기 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자원- 사업의 시작부터 설비와 부지 투자에 이르기까지 회사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금융의 이용 가능성을 통합하는 요인이 금융자원이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성장의 모든 단계와 모든 위험수준에서 기업을 위해 유리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운용도구는 세무정책, 여신제도, 정부 전문기금 운용 그리고 벤처기금 지원이 있다.

인프라- 생산시설, 사무실, 상품전시장소(이용 가능성과 질), 기업용 부지 유무와 이용 가능성, 교통·물류 인프라(운송경로, 화물의 보관과 취급 장소 및 방법), 에너지 인프라, 기타 기업 특화 인프라(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 등)

기술잠재력- 기업의 생산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 수준, 신기술 적용 가능성 및 클러스터의 기술 및 혁신 잠재력

행정적 규제 및 장벽들- 여기에는 안전과 부패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특성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행정장벽이다. 두 번째는 산업분야이다. 각 산업분야마다 자체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정해진 표준 규정집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키기 쉬운 정도가 결정된다.

생산자 제도- 특화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자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위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그와 같은 요인들-지역 내 수요조건과 지역경제 각 부분의 구조적 특징-은 외부 영향을 받기 힘들며, 지역의 지리학적 위치, 천연자원의 존재 유무, 기후조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산업, 경제발전지역과의 접근성 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런 요인들이 투자 매력 면에서 지역에 이론적이고 잠재적인 장점을 제공하는데, 만약 세 번째 요인인 지역적 투자환경이 존재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투자 매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고갈된 지역이 전문적인 관리에 의해 투자의 중심지가 된 사례들은 전 세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투자활동을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들이나 지역과 연방의 최고 책임자들의 소위 '보증' 활동은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법적 기반과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사업들(대리업체, 전문 자문기구, 산업기술단지 등)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은 고위층에 다가가 문제점을 해결할 기회나 보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주체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어서 러시아 극동의 전체 투자환경을 특징짓는 총체적이고 평균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극동지역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발달한 두 지역-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의 투자환경 특성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집한 자료와 설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기업주체들의 극동지역 투자환경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사업 조직, 투자 진행- 절반 이상의 응답자(62%)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질문에서 현 상황과 2012년과의 비교는 현재에 유리하지 않았다. 64%의 응답자가 현 동향에 대해 '더 나쁘거나,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미래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약간 낙관적이다. 65%의 응답자들이 개선을 기대했고, 적어도 악화를 예상하지는 않았다.
- 사업을 위한 부지와 생산시설 이용 가능성- 51%의 응답자가 사업부지를 얻을 가능성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5%는 부지 획득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부지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많은 극동 관구 지역들이 현재 토지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현행 토지 이용계획들이 현대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토지의 기업용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 생산 및 창고용 공간 선정- 46%의 회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극동지역은 러시아 서부지역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데, A급 현대적 창고시설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가장 좋은 상황은 사무실 공간 이용 가능성으로, 61%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송인프라- 러시아와 외국 회사들의 수송인프라에 대한 평가방식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회사들은 종종 한 가지 기준, A지점부터 B지점까지 화물 운송 가능성만으로 평가하고, 좋지 않은 도로 포장상태, 열악한 항공 운송 등과 같은 불쾌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접근방식의 차이를 감안해볼 때, 대부분 응답자들(70%)이 러시아 극동의 수송인프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물류인프라(임시보관창고, 특수 수송·물류 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68%의 응답자들이 물류인프라가 기업요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 상품진열장소 이용 가능성- 단지 23%의 응답자만이 만족하고 있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지역이 러시아 서부지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다.
- 신규 전력 이용 가능성- 64%가 현재 전기요금이 비합리적으로 높고, 사업 투자와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7%의 응답자는 추가적인 전력수급에서 극히 어려움을 느낀다. 전력공급수준은 8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상당 부분 러시아의 중소기업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장소와 신규 전력 이용 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역회사들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전력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기존 전력인프라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 인적 자원- 사업환경과 투자 창출을 위한 조건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숙련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을 찾는 것과 관련하여 극동지역에서 68%의 응답자들이 이 문제를 핵심적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더 많은 수의 77%가 숙련된 근로자 구인문제를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직원 추가교육의 가능성과 수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60% 이상) 응답자들이 충분히 용이하다고 간주했다.
- 금융자원 이용 가능성(높은 대출이자, 대출, 특히 장기대출의 어려움)- 기업 발전상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67%의 응답자들이 이 면에서 상

당한 어려움을 피력했다. 벤처 금융지원에서 지역 내 이용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제로에 가깝다.

- 전체 행정장벽 수준- 71%의 경영자가 행정장벽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중 33%의 회사 경영자들이- 행정장벽이 사업을 ‘숨막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행정장벽에 대한 적응 개념이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사업환경의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특징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정환경 면에서 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외국회사들에 있어 이것은 훨씬 더 힘든 문제이다.
- 조세기관의 업무수준- 8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화된 조세시스템 도입 덕분에 세무 행정문제들로부터 문자적으로 자유롭게 된 점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통합 조세시스템 활용이 극히 적은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은 세무 행정의 악조건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다.
- 관세절차- 대외경제활동을 하는 60%의 회사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감사기관의 업무- 64%의 회사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32%는 법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범죄로부터의 압력에 관한 동일한 질문에 대해 21%가 그러한 압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는데, 이것은 지난 기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개선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 부패- 60%의 사업 대표자들이 부패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 눈에 띄는 것은 27%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를 거부했는데, 아마도 응답자들의 조심성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여러 사업분야에서 문제 수준이 극히 심각하며, 사실상 사업분야의 불가피한 부분이 되었다.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그러한 분야로는, 정부수매기회, 감사 통과, 토지 할당이 있다. 불법자금은 단지 29%의 응답자만이 사용하지 않았다.
- 생산장비의 품질- 68%가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들(80%)은 장비 구매의 이론적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구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다른 문제들(금융자원에 대한 낮은

이용 가능성과 높은 비용, 대여제도의 부족,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 부족 등)이 방해가 된다.

- 연방 산업 규제(표준, 면허 등)- 극동지역 67%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책은 기업과 기업활동 주체가 느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투자 안정성과 사업환경 안정성 평가를 비율과 수치, 계산식으로 표현하고,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위험(행정적 위험, 즉 지역 내 관료주의와 부패수준 등)과 같은 제도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명시된 문제들은 해결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연방 개별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해결방안들이 존재한다.

극동 관구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아직 안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투자자 지원을 위한 경제구역, 산업기술단지, 인프라 등과 같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사업이 온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재 투자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존재하고, 모든 투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적 조치와 투자환경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도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사업 실행은 충분히 효과적이며 안전할 수 있고,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5.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특징

우리는 이미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나름의 고립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악명 높은 러시아적 특성의 본질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보편화된 고정관념을 연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인의 몇 가지 특정한 행동양식에 주의를 돌리는데, 이것은 종종 경제적, 정치적 위험요인과 함께 러시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들 중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진 문화적 고정관념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러시아 협력업체와 사업을 추진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극동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러시아 기업인, 공무원, 혹은 일반 근로자의 수수께끼 같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러시아 문화 전형(典型)에 대한 역사적 측면

이미 두 세기 전부터 러시아의 철학 및 사회학파들은 러시아인들이 서양과 동양 중 어느 쪽의 특성(정신)을 더 나타내는지에 대해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종종 연구가들은 러시아가 동과 서로 동시에 향해 있고 가까워 보이지만 문화적 본질에서 전형적인 러시아인은 어쨌든 평균적인 아시아인보다는 유럽인에 가깝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러시아의 전형은 균형적인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에게서(한국인이나 중국인이 가진) 재미와 같은 근면함이나(일본인이 가진) 한 가지 목표를 향한 인생의 방향성은 찾아볼 수 없다. 삶에 대한 수동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유럽의 실용주의 또한 보통의 러시아인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인이 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하더라도(역사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라는 개념은 19세기와 소비에트 시대에 굳혀졌다), 대개는 흥미 있는 일만 하려고 한다.

러시아 근로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매일 똑같은 일상, 사소한 일, 반복, 단조로움이다. 이런 것들이 ‘보통의’ 유럽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러시아인에게는 낙담과 우울함을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 여기에 사용된 “우울함”이라는 단어조차 전적으로 러시아적인 개념으로, 외국어로 종종 잘못 번역되는 단어이다. 러시아 직원들로 업무를 조직할 때 바로 이런 러시아의 전형적 특성을 기억해야 한다. 이 특성을 비평하지 말고 이용해야 한다. 러시아인은 업무에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급여가 아니라 정서와 감정에(러시아식으로 양심에) 더 호소해야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러시아와 악명 높은 ‘러시안 마인드’의 수수께끼 같고 이해하기 힘든 특성이다. 흥미롭게도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러시아에 대해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 속의 퍼즐”이라고 한 표현은 위대한 러시아 시인 표도르 튜체프의 “머리로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과 일치한다. 따라서 러시아인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러시아 국민성의 어떤 특정한 부분은 형식적인 논리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러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시작해보자. 아마도 러시아인을 겪어본 모든 외국인들은 러시아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러시아 국민성의 주요 특징은 솔직함, 이성, 선의라고 여긴다. 러시아의 동기부여체계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분석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스스로를 가장 의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들은 필요를 표현하고, 관리하고자 하고, 새로운 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사랑과 우정을 원한다. 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호감가지 않는 러시아인의 행동 특징으로는 비관주의, 쉬엄쉬엄 일하는 것, 자기 고립, 쉽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

또 다른 러시아인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는 다음과 같다.

- 러시아인들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 러시아인들은 양보하는 태도를 약함의 표시로 여긴다. 자신의 위치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심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 러시아인들은 상대방이 쉽게 거절하면 그 행동에서 숨은 의도를 느끼고 모든 것을 의심한다.
- 그들은 동양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계약이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결정은 많은 러시아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법이 아니라 대중의 느낌에 의해 결정된다(논

쟁이 되는 사안에는 지지자만큼이나 많은 반대자가 있다).

- 무엇보다도 엄격한 지침을 싫어한다. 항상 ‘정해진 제도를 속이려고’ 한다.
-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시기심도 러시아적 특성 중 하나이다.
- 대화 특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업상 협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양식

러시아인의 자기 인식은 그들의 사업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대표자들의 행동양식을 상호 관계 지향적이면서 표현을 절제하는 것으로 특징짓는다면, 러시아 기업인들은 상호 관계 지향적이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즉 러시아인들은 정해진 문제들의 순서를 바꾸고 대화방향을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다방면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점들은 말 그대로 건너뛰어버린다. 그들의 생각에 협의의 결과는 거의 언제나 눈에 보이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사실, 서명된 계약서, 결정된 의향서, 아니면 반대로 계약 해지와 신규 업체 탐색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할 것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러시아 사업파트너와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측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진퇴양난인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거나, 반대로 개인적 관계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투자 거물 중 한 사람인 중국의 아주 부유한 건축사업가는 몇 년 전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연해주 지도층들의 냉대에 적지 않게 놀랐다. ‘열린 문’ 정책을 표방한 정부관리들이 외국인투자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몇 시간도 내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러시아적 마인드에 대해 익히 들었던 억만장자는 러시아를 떠나버렸다. 그런 냉대의 원인은 주지사 주

변에 이 투자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블라디보스톡의 한 사업가는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생각이 실제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견해가 타당하기도 하다.

사업 협상 시 러시아 민족성과 관련한 외국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러시아인들은 협상 자리에 종종 계약 체결에 충분한 권한이 없는 사람을 내보낸다. (특히 초기 회의에는) 그 시간에 마침 시간이 되는 관리자 중 한 사람이 올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는 어찌됐든 대표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러면 그 때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것이니 말이다.

담화와 언어의 특징

다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할 것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러시아어에서는 “아니오” 라는 단어와 부정사가 들어간 단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 현상은 조사된 언어 원형을 설명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인들을 묘사하는 메타모형은 다른 정형화된 메타모형과 비교하기에 부적절하며, “예”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민족의 메타모형과는 완전히 반대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형적인 일본인은 부정적인 대답도 “예”라는 말로 시작한다. 또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인들 대부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는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와 같은 말들을 작게 웅얼거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러시아인들의 대답은 종종 이렇다. “아니오, 사실 저는...”, “아니오,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니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오, 이걸 보세요...”. 심지어 동의를 표현할 때에도(사실 ‘예’를 말할 때도) 본인들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단어로 자기 말을 시작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니오, 당연히 이렇게 되었어야지요...” 또는 “아

니오, 모두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아니, 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와 같은 말을 한다.

러시아인들은 안 좋은 상황에 닥쳤을 때 “괜찮아요”라는 말을 자주한다. 이 말로 그들은 자신의 (또는 친지의) 실망감이나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며, 갑자기 닥친 문제에 대한 당혹감을 숨기려 한다. 이 “괜찮아요”라는 격려의 표현은 자신의 계획이 소용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능력,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겸허한 평가, 자신의 소극성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완강한 태도를 배척하는 태도, 불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와 같은 민족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어 역시 러시아적 특성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친구’라는 단어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하며, 동의어인 영어단어 friend와도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러시아인들은 학교 동창, 함께 체스 두는 사람, 식당에서 같이 즐거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지인 또는 직장동료를 부를 때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정’이라는 러시아어 단어는 사람들 사이의 훨씬 더 가깝고 믿을 만한 관계, 즉 고백, 형제애, 생활상의 격려를 전제한다. 이 면에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그런 우정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함께 점심을 먹고, 휴일을 함께 보내고, 같이 헬스장에 가고, 더 많이 일을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러시아 공동체의 모습이다.

극동지역 기업 경영의 사회문화적 특징

① 러시아와 외국 경영구조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러시아 회사의 직원과 극동 회사의 직원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동기에 따라 일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처음 볼 때보다 훨씬 더 큰 오해와 난관이 생긴다. 특히 취업정보 포털사이트인 Superjob.ru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절반 정도의 러시아 회사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직원 4명 중 1명은 이 점에 대해 부정적이다. 즉 감시장치는 직원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 경영진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② 러시아인의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해 말할 때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낮으며, 의사결정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 이동비율이 더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극동 연방 관구에는 많은 경제분야에서 우수인재 부족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약 20세기 동안 이 지역으로의 이주는 정부의 강제로 인한 것이었다. 최근 15~20년사이에는 정반대 경향이 관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가까운 러시아 지역이나 해외로 가기 위해 이 지역을 떠나려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③ 고등교육의 질도 우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의 고등교육정책은 점점 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위해 특화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립심, 창의성, 경영실무능력과 같은 필수적인 경영 특성들을 갖추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교육이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아직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Asia Complex Group의 대표이사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장래를 계획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기서는 안정된 수입, 사회보장제도, 연금 및 특혜가 주어진다. 러시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는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 따라서 추산에 의하면 2014~16년 일반회사가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으로의 노동가능 인구 특히 청년층의 대량 유입이 시작될 것이다.

④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인들의 균형잡힌 행동양식은 때때로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상사들에게는 직원들을 위한 표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연말정산 끝내자!” 또는 “일주일만 있으면 휴가다!” 같은 것들이다. 짧게 집중해서 일을 하면 잠시 휴식을 위해 멈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보통의 일과이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서둘러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업무를 완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회사에서 어제 마감일이 끝나버린 일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본다 해도 놀랄 사람은 많지 않다. 주위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다중 활동적인 러시아 직원은 여러 가지 일을 동

시에 그리고 아무 때나 하며, 여러 일이 겹치게 내버려둔다.

⑤ 회사의 평판은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러시아 기업인들과 주변 국가들의 기업인들이 회사의 평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간혹 유사한 경우도 있다. 이 면에서 한 가지 경향은,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내세울수록, 업계에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 애쓰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명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평판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게 해주며, 정직한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적·사업적 위험부담 속에서도 언제나 더 반갑고 더 안심이 되는 일이다.

이 점에서 극동지역의 기업은 세계적인 발전행보를 따르고 있다. 실제로 좋은 평판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한다. 회사가 흔들릴 때에도 고객의 신뢰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해주 소상공인 대표(사립유치원장)는 이렇게 말한다. “고객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위기는 사라지죠. 힘든 시기에 우리 고객들, 즉 부모님들의 신뢰는 우리 유치원이 살아남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해서 극동지역의 모든 사람이 평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근본원인은 대부분의 극동기업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을 것이다. 연해주 기업 컨설턴트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일단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 수익을 올려 일정 수준에 사업을 안정시킨 후 회사를 팔고, 수익은 낮아도 안정된 곳이나 많은 투자를 요하는 수익성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요.” 한 가지 사업에서 돈을 벌고 빠르게 종목을 바꿔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소기업들의 전략이다. 극동지역의 대기업은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좀더 평판지향적이다.

⑥ 극동지역 기업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PR 전략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PR은 평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러시아 환경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맞는 이야기이다. 기업의 평판이 좋을수록 기업의 PR 활동은 더 적극적이다.

그와는 반대로 회사의 평판에 어떤 일로 ‘얼룩’이 생기면 기업의 PR 부서에서도 그것을 지워버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신문사들은 기업에 대해 독자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내용을 신문에 실을 수 있지만 신문의 평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 말해두지만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이 가장 높은 표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러시아는 정반대의 상황인데, 기업의 활동과 홍보(PR)가 양립하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기업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현지 대중매체를 사용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도움을 베푸는 회사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유료광고 장소에 현란한 광고들이 여러 차례 나가고 나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받게 된다.

⑦ 러시아 기업 경영의 사회문화적 특징은 또한 서구식 경영방식이 더 널리 퍼졌음에도 어느 정도 동양의 경영방식을 참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구식 경영방식이 창의성과 업무효율을 요구한다면, 동양식 경영은 철저한 업무 수행과 형식성을 요구한다. 그에 더해 아시아의 회사들에서는 대개 부하직원들에 대한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월급만 준다면 누가 이 회사에서 뒷사람인지 티를 내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서 극동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양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매우 예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직원들은 그런 사고방식의 표현에 기분이 상하는 경향이 있다.

⑧ 동양적 개념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수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직원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사가 고민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사가 책임진다. 이것은 다른 경영심리방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인데, 장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은 많은 수의 인원이 업무에 통합되어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성원 개개인이 경영자의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업무시스템에는 항상 안정된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경영자 한 사람의 실수가 고정적인 업무시스템 전체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⑨ 기업문화의 차이점은 회사와 동료직원들에 대한 직원의 충성심에서

나타난다. 러시아에서 ‘충성심’, ‘대내 홍보’, ‘기업정신’과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15년 전처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자유롭다. 직원이 훌륭한 업무성과를 보여주고, 새로운 구상을 제안하는 것에 더해 그것을 실행해나가고, 자신의 업무속련도를 높여나간다면, 지각하거나 기업문화의 규율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들은 기꺼이 용서가 될 것이다. 동양적 기업 전통은 사내 위계질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직장동료를 가족구성원처럼 여기는 것을 뜻한다. 그에 더하여 모든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후에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급여 액수에서도 반영된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러시아 기업인들에게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일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망투자 대상

1. 에너지

1) 전기에너지

극동지역 전력개발문제는 최근 10년간 부문 내에 누적된 복잡한 문제들과 얽혀 있으며, 지역 내 연료에너지 복합단지 내 여타 다른 부문의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에서도 가장 고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석탄은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평균 비중 중 29.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극동에서는 이 수치가 75%이다. 그리고 이 석탄의 23%를 다른 지역에서 운송해오고 있는 관계로 고체연료 가격이 40%까지 인상되고 있으며, 캄차카 변경 주, 마가단 주, 코랴크 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에서는 60%까지 인상되고 있다. 전기에너지 소비자 가격은 러시아 평균의 1.7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열에너지 효율도 러시아 전역 평균의 2.2배 이상이다.

이와 같이 높은 전기에너지 비용 및 수송비용은 이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공업·농업·사회 부문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가 전기에너지 효율의 차액을 직접 보조해줌으로써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에너지 부문은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과 개별적인 5개의 에너지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은 시베리아 통합에너지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랄 통합에너지시스템 및 러시아 유럽 지

역 통합에너지시스템과도 사실상 격리되어 있다. 동부통합에너지 시스템의 특성은 발전분야에서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이 우세하고(총발전량의 70% 이상을 화력이, 약 30%를 수력이 차지), 주요 발전시설들은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반해 주요 소비지역들은 그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력송전망 또한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부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기에너지 소비 면에서 시읍지역 가구들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점도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의 특징이다.

주식회사 “러시아 동부에너지시스템”(UES of East)(이하 (주)동부에너지시스템)은 주식회사 “러시아 통합에너지시스템(UES of Russia)”의 조직 개편 결과 2008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주)동부에너지시스템과 그 자매회사 및 계열사들은 극동 연방 관구 전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극동지역 전기에너지 부문에서 예전 (주)러시아 통합에너지시스템의 권리와 의무 대부분을 법적으로 승계한 지주회사이다. 이 지주회사에는 (주)극동 배전회사(FDC: Far-Eastern Distribution Company), (주)극동 발전소(FGC: Far-Eastern Generating Company), (주)극동 에너지(FEC: Far-Eastern Energy Company), (주)야쿠티아 에너지, (주)마가단 에너지, (주)캄차카 에너지, (주)사할린 에너지, (주)페레드 비쭈냐야 에네르게티카 등 극동의 에너지 기업과 기타 기업들이 속해 있다.

(주)동부에너지시스템의 주요 사업은 극동 연방 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효율적이고도 질적으로 만족스럽게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관련 사들을 경영하는 것이다. (주)동부에너지시스템 소속 극동 에너지 회사들이 보유한 발전소의 총설비용량은 9,038MWt이며, 열공급량은 1만 7,720Gcal/h의 규모이다. 모든 전압을 망라한 전력망 총연장길이는 9만 6,000km 이상이다.

(주)동부에너지시스템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극동 연방 관구의 면적은 러시아 영토 면적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 관할 권역 안에는 110·220·500kV 전압의 전력망이 통용되고 있으며, 고립된 개별 전력 관할 지역에서는 220kV 이하가 사용된다.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 전력망의 특징은 사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형 발전소와 소비지(아무르 에너지 시스템 및 하바롭스크 에너지 시스템의 서부 지역, 연해주 에너지 시스템의 남부)와의 원거리성으로 인해 전력망 총연장길이가 엄청나다라는 점이다. 격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경우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의 구조 밖에서 가동을 해야 하는 탓에 발전 예비량을 증가시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싼 디젤 발전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도 생기고 있다.

시베리아 통합에너지시스템과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의 동반 가동을 담보하고 격리된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간 송전설비 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220~500kV의 용량과 송전선 총연장길이 3,500km 이상을 갖추는 전력망 인프라를 극동지역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12월 9일 극동 연방 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 빅토르 이사예프의 참석하에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5년까지의 극동 연방 관구 전기에너지 개발 종합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전기에너지 개발프로그램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극동권 개발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는 종합적인 통합문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극동 연방 관구의 현 실태와 지역의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극동 연방 관구 전기에너지 개발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동부에너지시스템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 실현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4,195MW의 신규 발전용량, 1만 4,850km연장의 다양한 전압등급 송전선, 8,295MVA의 변전능력 등이 실용화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화력발전소 설비용량 사용계수를 39%(3,400시간)에서 54%(4,730시간)으로 올려주고, (주)동부에너지시스템의 수력발전소 에너지 출력을 47% 상승시켜 2011년 당시 시간당 86억kW였던 것을 127억kW로까지 올려줄 것이며, 발전을 위한 필

수 추가투입량이 67%에서 33%로 내려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력 예비량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5,890억 루블이다.

현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현행 「2013 극동 및 바이칼호 인근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 연방 관구 내 연방 구성주체들의 특수 목적성 프로그램, 러시아 에너지부의 훈령으로 승인받은 (주)RusHydro, (주)동부에너지시스템·(주)통합에너지시스템의 연방 송전망회사 및 그 외 여타 기업들의 투자프로그램, 현재 기획 중에 있는 「2018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 등이다.

그 외에 전기에너지 부문 발전에 관한 일련의 조치들이 관구 내에서 활동 중인 회사들이 추진하는 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회사는 (주)가스프롬, (주)로스네프찌, (주)트란스네프찌 등이다.

본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수력발전소의 발전 부하량 증가와 화력발전소의 응축작업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극동 에너지시스템 설비의 가동방식을 최적화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효율성이 높은 신규 발전시설을 도입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퇴출시킴으로써 시간당 1kW 생산에 소모되는 연료의 비중을 15% 낮출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9월 2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위원회 회의에서 극동 연방 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와 러시아 극동 개발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극동 연방 관구 전기에너지 개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극동 연방 관구 내 연방 구성 지방정부들의 주지사 및 입법기구 대표자, 러시아 극동 개발부 대표자, 기타 정부부처 대표자, 에너지회사 경영인 등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상의 일부 계획(특히 「2013 연한 극동 및 바이칼호 인근 지역 경제사회 개발」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상의 조치)은 이미 실현되었는데, 그 주된 것이 APEC 정상회담 개최 관련 시설물들이다. 또한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부설작업에 필요한 시설물들도 가동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공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추구예브카-라자바야-

블라디보스톡' 간 500kV 고압선 건설을 완료하고, 남 사할린 제1화력발전소의 제5발전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들의 경우 재원 부재로 그 실행시기가 수년 정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프로젝트들이 외부의 투자 유치를 상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상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베츠키야가반(하바롭스크 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20억 루블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자금은 동부통합에너지시스템에서 투자하기로 했다.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연해주), 사할린 국영지역발전소, 블라고베첸스크 제2 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에 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단지 중국기업들만이 상기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이 발전소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 일부를 확보하여 중국에 재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 전망에서 봤을 때, 극동지역 전기에너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우선시되는 프로젝트 실현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연방정부는 극동의 도로 및 에너지 시스템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 중 잉여이익 총액 3,220억 루블 중 일부를 떼어 배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2012년 10월 23일에 개최된 '2012년, 2013년, 2014년 연방예산 계획 수정'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국가의 자금이 투자되는 주된 방향은 바로 전력망(네트워크) 사업이 되어야 하며, 발전소 현대화 작업은 기업들의 자금지원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의 자금 투자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각종 요율을 인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요율 상승을 억제하는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규제방법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극동지역 기반시설 개발프로젝트 실현에는 연간 1,000억 루블 이상의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또한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기금으로 모이게 될 자금을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전제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개

발부 장관은 유치될 수 있는 자금의 추정액수 규모를 5,000억~6,000억 루블로 추정하였다.

기술적 제약을 해소시키기 위해 2013년에 당장 시작되어야 하는 1차적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야쿠츠크 제2국영지역발전소 건설
- 블라디보스톡 시에 유압터빈공장 건설
-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 건설
- 소비츠키야가반 화력발전소 건설
- 사할린 제2국영지역발전소 건설
- 극동과 연해주 국영지역발전소 및 아무르 주 부레이강 수력발전소간 전력망 건설(500kV 송전선 사용).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잠재적 투자자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동의 에너지 부문 재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방안들 역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특수 목적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만 해왔고, 반면 지방정부는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은 여전히 잠재력이 좋은 시장이지만 수입이나 대러시아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주지 않고 있고, 대외경제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은 투자비용의 원금회수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주)동부에너지시스템의 투자프로그램이 실현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러시아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극동지역에서 여전히 기간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보증인이지만 아직 효율적인 투자를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극동 연방 관구의 지역에너지 공급시스템은 즉각적인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대화 작업은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몇 년 후 지역 내 경제활동과 관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난방과 전력 공급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동부가스프로그래ムの 일환으로 극동지역에 야쿠츠크·캄차카·사할린 가스채굴센터가 설립될 계획이다. 2011년 (주)가스프롬은 현재는 사할린

제1광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나 앞으로 사할린 제3광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될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 수송시스템의 첫 라인을 건설했다. 후속 프로젝트로 ‘야쿠티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 수송시스템(연간 가스 수송용량 320억~350억 m^3 , 연장 4,500km, 예상 가동시기- 2017년 초)의 건설작업이 계획되고 있다. 이 두 가스 수송시스템은 추후 단일 가스 수송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조성은 사할린 주,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구, 하바롭스크 주, 연해주 등에서의 가스연료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캄차카 주의 가스공급문제는 캄차카 반도 서안의 ‘크슈크(Kshuk)’ 및 ‘니즈네-크박칙(Nizhne-Kvakchik)’ 가스 매장지의 개발과 ‘소볼레보-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가스 수송망 건설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 내 가스시설 보급과 관련하여 소규모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현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택에 대한 에너지 공급 비용절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료소비의 근본적인 절감과 전기 및 연료 에너지 생산비용의 절감은 기존 가스보일러와 지역 에너지 공급시스템 장비의 교체·재설비가 이루어져야만 달성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발전설비의 유효작동 계수를 80~85%선까지 올려줄 수 있는 최신 열병합 발전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열병합 발전설비의 도입은 에너지 생산용량을 소비자의 수요에 근접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열에너지 전송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비싼 전력망 연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열병합 발전장치로는 가스터빈 미니 화력발전기, 다른 말로는 열병합 가스터빈장치의 사용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치밀한 기계적 구조, 사용의 단순성, 매우 낮은 진동, 상대적으로 단순한 소음 억제, 낮은 설치비용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동지역과 같은 조건에서 열병합 가스터빈장치는 도시 난방공급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전기에너지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

고효율의 열병합 가스터빈장치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하바롭스크

가스터빈공장 건설에 관한 프로젝트가 마련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발전 설비용량이 0.6MW인 것에서부터 7.5MW인 것까지 열병합 가스터빈장치(가스터빈 미니 화력발전기)를 생산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러시아에는 이러한 생산시설이 없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13억 5,000만 달러이다. 턴키방식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속설비 및 기술을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 일류 은행의 보증으로 일본 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8년 만기 10억 달러의 차관을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하바롭스크 가스터빈공장’ (이하 (주)하바롭스크 가스터빈공장)이 설립되었다. 하바롭스크 주정부는 (주)하바롭스크 가스터빈공장 측에 공장 건설을 위해 시의 북부 산업중심지에 위치한 31.6ha 면적의 부지를 제공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바롭스크 주정부 부처 조직들과 공동으로 ‘하바롭스크 가스터빈공장’ 연구생산 복합단지의 건설프로젝트 실현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하바롭스크 주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산업통상부와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석유와 가스 생산(석유화학, 가스화학, 가공 등)

가)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가스 복합단지

동시베리아(시베리아 대륙 지각의 경계지역 위치)에서 채취 가능한 석유 가스자원은 근본적으로 서시베리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장량은 420억 톤을 넘는 상당한 양이며, 여기에는 103억 톤의 석유와 32조m³의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의 자원탐사율은 아직 6.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동시베리아 석유는 품질이 좋고, 현재 가동 중인 석유화학공장에서 가공하기에 적합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천연가스는 유황성분이 없으며, 특히 에탄성분이 우세하다(에탄- 3.4~6.1%, 프로판- 1.1~1.7%, 부탄- 0.4~1.1%).

극동지역 내에서 석유·가스 매장이 유망한 지역의 총면적은 약 71만

5,000km²이며, 탄화수소자원의 초기 환산량은 육지 매장량 40억 톤, 바다 매장량 190억 톤을 포함한 총 23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극동지역 내에는 북부 사할린 석유가스지대에 위치한 71개 매장지를 포함하여 총 80개의 석유가스 매장지가 개발되어 있다. 사실상 모든 매장지는 육상에 개발되어 있고, 단 8개 매장지가 사할린 연해 대륙붕에 위치해 있다. 중요한 점은 북부 사할린 대륙붕에 있는 6개 대형 매장지에 극동지역 전체 석유 초기 매장량의 65%와 전체 여유 가스 매장량의 85%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동북극해(라브테프(Labtev)해, 동시베리아해, 추코트카 해)는 가장 연구가 적게 이루어진 지역으로 꼽히지만 축적된 모든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발달된 퇴적층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자원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초의 수량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동북극해 지역의 퇴적층에 존재하는 탄화수소자원의 잠재적 수량은 약 200억 톤으로 추정된다.

극동에서 가장 유망한 석유가스 매장지는 사할린 북동부의 대륙붕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우선적인 탐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남 룬스크’, ‘남 키렌스크’, ‘핀긴스크’, ‘북부 아스트라한’ 지역이다.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은 ‘북부 슈밋토프’ 구역 및 ‘동부 아담틴’ 구역의 제3기 중신세와 플라이오세 퇴적층에 위치한 배사면 결합 올가미형 지대이며, 또한 대륙붕 남서부 변경의 신생대 제3기 전반기의 복합적 올가미형 지대에도 석유가스 퇴적물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국가 시장을 향한 석유수송의 합리적 방향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고 동부시베리아 지층에 대한 지질탐사속도와 면허문제, 그리고 탄화수소 자원 채굴량 예측 등을 관장하는 주요 문건은 「동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야쿠티아) 탄화수소자원 매장지의 지질학적 연구 및 활용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규정들은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연방 지하자원청(Rosnedra)의 지도하에 시베리아 지질학·지구물리학·광물자원 학술연구소(SNIGGiMS)에서 작성되었고, 러시아 천연자원부령 제219호(2005년 7월 29일)에 의해 승인되어 현재 실행 중에 있다.

동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석유가스자원 기반을 꾸준히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하지층 할당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지하지층에 대한 면허 취득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지질탐사작업에 관한 내용과 함께 상기된 종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지역에 대한 면허취득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할당받을 수 있는 유망한 200개 이상의 면허지가 현재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할당된 지하지층 속에는 C₂ 범주에 속하는 광물자원의 89%, C₃ 범주에 속하는 석유자원의 43%가 매장되어 있다. 2025년까지 이 모든 지하지층에서 C₁ 범주에 속하는 석유매장량을 5억 톤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할당 대상이 아닌 지하지층의 석유부존 잠재력은 그리 크지 않다. 이들 지층에서는 C₁과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이 1억 3,000만 톤이며 주로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영역에 분포해 있고, C₃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은 약 10억 톤이다. 어쨌든 이 지역들은 장래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에 원료를 공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2025년경까지 미할당 지하지층 구역에서 C₁, C₂, C₃ 범주에 속하는 석유자원 부존량이 3억 5,000만 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D₁ 범주에 속하는 자원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영역에서 부존자원 매장량이 약 9억 톤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베리아 및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석유자원 개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로 지질탐사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개발영역 내 모든 범주의 매장자원을 포함시킨다면 C₁ 범주에 속하는 석유매장량은 2020년경까지 14억~14억 5,000만 톤, 2025년경까지 20억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의 증가는 석유매장지 개발을 겨냥해 계획되고 있는 지질탐사작업의 규모에 의해 상당 부분이 좌우되는데, 이는 가스 및 석유 매장지의 개발이 공통 지질탐사작업의 사이클 안에서 함께 병행되기 때문이다. 가스매장량의 총증가분은(D₁ 범주의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매장량을 개발에 포함시키지 않을 시) 2020년까지 2조 6,300만m³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가 수행된 중심지들의 범위에 속하는 시베리아 대륙 지각 남부지역의 탄화수소 원료 채굴량을 예측할 경우, 매장지 조성 및 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밟는다.

- 제1단계: C₁ 및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을 근거로 베르흐네찬스크, 탈라칸스크, 유루브첸스크, 쿠옴빈스크, 사빈스코·테테린스크, 바투아빈스크 등 주력 매장지를 개발(차얀딘스크 매장지와 코빅틴스크 매장지는 가스 채취 계획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 제2단계: 주력 매장지 외에 C₁ 및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을 근거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망의 주요 라인 및 지선 송유관(스푸프닉 매장지군)에 접해 있는 자원매장지들을 개발
- 제3단계: C₃ 및 D₁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을 근거로 C₁ 및 C₂에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지 조성

2020년까지 주요 매장지에서 C₁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의 총증가분은 17억 톤 이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유루브체노·쿠옴빈 매장지의 5억 9,000만 톤, 소빈스코-테테린스크 매장지의 2억 2,330만 톤, 탈라칸스코·베르흐네찬스크 매장지의 5억 3,410만 톤, 바투아빈스크 매장지의 5,300만 톤이 포함된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m³ 이상의 천연가스(이 중 736억m³는 연구가 이루어진 유망한 주력 매장지에서, 133억m³는 주변 매장지 군에서, 167억m³는 C₃ 매장 자원과 함께) 채굴량을 확보하고 장기간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량이 2조 6,310억m³에 달하는 C₂ 및 C₃ 매장 자원들을 산업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8,550억m³는 주력 매장지에서, 7,324억m³는 주변 매장지 군에서 충당하며, 1조 436억m³는 C₃ 범주에 속하는 자원으로 충당한다(D₁ 범주의 자원매장량은 개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지하자원 활용관리국과의 조율을 거치고 전문적 감정을 통해 승인된 2012~25년간 ‘타스·유랴흐(Taas·Yuryax) 석유가스 채굴’ 지질탐사작업 프로그램은 두 가지 면허, 즉 스레드네바투아빈스크(Srednebotuobinsk) 석유가스 응축물 매장지의 중앙 블록자원 채취에 관한 면허와 쿠룬그스크(Kurungsk) 지구 남부에서 스레드네바투아빈스크

(Srednebotuobinsk)로 이어지는 구역 내의 지질 조사·탐사·채굴에 관한 면허 제공을 내용에 담고 있다. 이 구역에서 지진파 탐사작업을 수행한 후 12개의 신규 유정이 굴착되었다. 가장 1차적인 시설물의 가동이 시작되면 4/4분기에는 채취를 시작할 계획이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굴될 예정인 유정도 25개가 있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탐사된 유정들을 고려할 시 유정의 총개수는 52개에 달한다. 이미 기업들은 2013년에 석유 채굴량을 16만 4,000톤까지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석유 채굴량은 연간 10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할린 주 석유가스 복합단지는 총 78억 톤 규모의 탄화수소 지하자원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중 석유가 38억 톤, (석유가스)응축물이 2억 5,050만 톤, 가스가 3조 3,000만 m^3 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쿠릴열도 대륙붕에 새로운 대형 석유가스 매장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레드네쿠릴스크(SredneKurilsk) 만곡점에 매장된 탄화수소자원의 총량은 3억 8,600만 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할린 매장지의 석유는 물리적 성질 및 탄화수소 성분 면에서 다양함을 특징으로 한다. 경질 원유(64.7%), 약점성 원유(82%), 저유황 원유(98.7%), 약파라핀 원유(70%) 등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원유는 휘발성 석유제품으로 가공하면 그 출력이 높고, 고옥탄 벤진 및 고가 유류로 생산되는 비중이 높으며, 가공과정에서 손실률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할린 주 석유가스 복합단지 발전에 관한 총괄계획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단계로 대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 ‘사할린 제1복합단지’ 및 ‘사할린 제2복합단지’에서 당초의 설비 생산량에 맞게 생산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수출·액화가스 가공·사할린 주·하바롭스크 주·연해주 소비자 수요 등에 충족되는 석유 및 가스가 안정적으로 채굴 및 공급되도록 보장
- ‘사할린 제3복합단지’와 ‘사할린 제7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맞춰 자원 매장지를 개발·채취하는 준비작업 실시
-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항만, 석유저장시설, 수출 및 내수시장용 제품을 발송하는 터미널 건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석유가스산업 기반시설의 통합적 조성

-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구, 하바롭스크 주, 연해주의 각 연료자원 사용비율을 합리화하고, 화력발전소·주거지·에너지가 사용되는 사회적 부문에 걸쳐 폭넓게 가스 사용을 보급
- ‘사할린 제8복합단지’와 ‘사할린 제9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맞춰 자원 매장지를 개발·채취하는 준비작업 실시
- 석유가스 화학공업 발전

현재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고 있다. ‘사할린 제1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맞춰 3개의 해상매장지(알려진 매장량은 석유 3억 700만 톤, 가스 4,850억 m³)가 개발되고 있다. 그 3개 매장지는 차이보, 아담투, 아르쿠티-다기 등이다. 첫 번째 매장지는 연안에서 7km 떨어진 수심 20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지하 1,200m에서 2,900m 지점 사이에 석유 응고물·가스 및 가스 응고침전물을 포함하는 다지층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작업은 해상 시추 플랫폼 ‘아를란’과 지상굴삭장치 ‘야스트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야스트렙’ 굴삭장치는 바로 이 매장지 개발을 위해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주요 석유매장 지층의 복서부를 굴삭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연안에서 11km 이상 떨어진 경사면 유정들이 굴삭되었으며, 이는 굴삭 비용을 절감시켜줄 뿐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환경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해양 시추 플랫폼 ‘아를란’은 매장지의 남서부에서 연중무휴로 유정의 굴삭을 할 수 있도록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제작되었다.

오돕투(Odoptu) 및 아르쿠티·다기(Arkutun·Dagi)는 탄화수소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2050년까지 석유 및 가스 채취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컨소시엄의 계획에 맞추어 장기간 채취를 목적으로 조성된 매장지이다.

‘사할린 제1복합단지’ 프로젝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투자계획상의 기타 세부사항들도 실현되었다. 연간 1,200만 톤의 석유 및 80억m³의 가스를 제조·생산할 수 있는 연안 복합단지, 데 카스트리(De Castries) 마을의 터미널까지 이어지는 직경 500mm의 송유관, 각각 10만m³씩 석유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설비 2기를 갖춘 수출용 석유 발송 터미널, 해저 송유관(5.7km), 송유관 내 자원 반출을 위한 단일 계류지 등이 그것이다. 수출용 석유 발송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이중선체구조의 적재량 10만 톤급

유조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할린 제1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취되는 가스는 하바롭스크 주 소비자들에게 운송됨은 물론, 다시 지층 속으로 역주입되기도 한다.

‘사할린 제2복합단지’ 프로젝트는 오흐츠크(Okhotsk) 해에 위치한 룬스크(Lunsk), 필툰·아스토흐스키(Piltun-Astokhsk) 석유가스 매장지(연안에서 13~20km 거리에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매장지들에 부존된 석유 및 가스 총량은 각각 1억 4,000만 톤과 4,080억 m^3 이다.

1999년부터 ‘비티아즈(Vityaz)’ 석유가스 채굴 복합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이 복합단지는 사할린섬 북동부 연안에서 18.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필툰·아스토흐스키 매장지 내 아스토흐스크 지구에 세워져 있다. 복합단지는 고정형 방빙(얼음에 강한) 시추 플랫폼인 ‘몰리크팍(Molikpak)’, 액체주입용 부양형 석유저장시설(탱커)인 ‘오하(Oxa)’, 2km 연장의 해저 송유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단지에서의 석유 채굴은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시공사인 ‘사할린 에너지’는 룬스크(가스) 및 필툰·아스토흐스키 매장지의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연장길이가 800km에 이르는 석유가스 파이프망 건설이 완료되었고, 960만 톤 규모의 액화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프리고로드 마을 소재)도 시운전에 들어갔다.

지역의 에너지 부문을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 가스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제1화력발전소), 트로쯔키 마을(국영 지역발전소), 티모프스키구, 스미르니호프스키구, 파라나이스키구, 마카로프구, 달린스키구, 코르사코프구 등의 방면으로 분기하는 가스파이프 지선의 건설이 구상되고 있다.

필툰·아스토흐스키 석유가스 매장지 개발을 위해 통합 석유가스 시추 플랫폼인 ‘필툰·아스토흐스키-B’(PA-B)가 사용되고 있다. 이 시추 플랫폼은 연안에서 12km 거리에 수심이 32m인 공해상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시추 플랫폼은 연간 석유 320만 톤과 가스 10억 m^3 를 생산할 수 있다. PA-B 시추 플랫폼에서 채굴된 석유는 해저와 지상의 송유관을 통해 코르사코프구의 프리고로드 마을에 위치한 석유저장터미널로 들어가게 된다.

룬스크 매장지 개발을 위해 연안에서 15km 거리에 수심이 48m인 지점에 'LUN-A' 시추 플랫폼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필요한 기술장비만을 최소한으로 갖춘 굴삭 및 채굴용 플랫폼이다.

석유·가스·응축물의 분배, 액화가스 생산공장으로 운반될 가스를 가공하는 작업은 연안의 통합 기술복합단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복합단지 내 플랫폼에서 가스 액화의 주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플랫폼은 연간 가스 180억m³와 응축물 23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

3개 시추 플랫폼(PA-A, PA-B, LUN-A) 외에도 '사할린 제2복합단지' 프로젝트에 의해 연안 통합기술복합단지(OBTK)가 건설 중이다. 이 단지는 사할린 북동부에 있으며, 'LUN-A' 시추 플랫폼의 해저 가스파이프가 닿는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이 통합기술복합단지의 주된 용도는 룬스크 매장지에서 채취한 가스와 응축물을 가공하여, 그것을 파이프망을 통해 사할린 남부로 보내는 것이다. 필톤·아스토호스키 매장지의 시추 플랫폼에서 채취된 석유와 가스도 이 복합단지에서 사할린 남부로 보내진다. 석유 및 액화가스는 액화가스 공장 계류지 및 석유발송터미널에서 발송된다.

현재 사할린 대륙붕에서는 다음의 지하지층구역에 대한 지질조사 면허가 발효 중에 있다. 베닌 블록('사할린 제3복합단지'), 남 슈미토프스키 지구('사할린 제4복합단지'), 동 슈미토프스키 지구('사할린 제5복합단지'), 경계지구('사할린 제6복합단지') 등. 예상 매장량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2선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들('사할린 제3복합단지', '사할린 제7복합단지')을 고려하면 이 지역은 연간 석유 7,500만 톤 및 가스 404억m³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 및 응축물 채굴에 관한 예측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경제산업생산연구소(IEOPP SO RAN)의 예측에 따르면 동시베리아·태평양 지역과 극동 해양 대륙붕 지역에서의 석유 및 응축물 채굴 총량은 2015년에는 약 760만 톤, 2020년에는 약 1억 1,600만 톤, 2030년에는 1억 5,000만 톤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의 석유 채굴 최대 예상량(1억 5,300만 톤)은 현재까지 탐사된 석유매장량(신규 채굴지역임을 감안한 보장 매장량 최소 기준)의 10%에 달하고 예상 평가 매장량의 7.4%에 해당한다.

가스 채취에 관한 예측

마케팅 및 투자 관련 상황이 좋다면 가스(건성 에너지 가스 및 탄화수소 성분 C₂-C₄를 함유한 지성 가스 지칭) 채취 총량은 동시베리아-태평양 지역과 극동 해양의 대륙붕 지대 가스 및 석유매장지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2015년에는 480억m³를 넘어설 것이며, 2020년에는 약 1,460억m³, 2030년에는 약 2,110억m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가스 채굴 최대 예상량(2,110억m³)은 현재까지 탐사된 가스매장량의 8.4%에 해당하고 총매장량의 6.6%에 해당한다.

단일 프로젝트, 혹은 공동합의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코빅틴스크, 치칸스크, 양가로·렌스키 매장지 개발은 최적의 조건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연방정부의 법령에 따라 ‘로스네프찌’ 사(社)에 지질 조사와 탐사, 탄화수소자원 채취를 목적으로 마가단-제1,2,3지구, 리산스크 지구, 카셰바로프스크 지구 등이 제공되었다. 마가단-제1,2,3지구 내에 존재하는 액상 탄화수소 부존자원의 총량은 석유가 8억 5,000만 톤, 가스가 17억 8,900만m³이다.

마가단 제1지구의 석유 예상 매장량은 3억 4,650만 톤(지질학적 매장량) 혹은 1억 390만 톤(채취 가능 매장량)이며, 가스 예상 매장량은 3,382억m³이다. 마가단 제2지구의 지질학적 석유매장량은 2억 6,300만 톤이며, 채취 가능 매장량은 7,890만 톤이다. 가스의 경우 2,612억m³이 매장되어 있다. 마가단 제3지구의 석유매장량은 1억 350만 톤(지질학적 매장량) 혹은 3,100만 톤(채취 가능 매장량)이며, 가스매장량은 1,055억m³이다. 리산스크 지구에는 지질학적 석유매장량이 4억 7,310만 톤이며, 채취 가능한 매장량은 1억 4,190만 톤이다. 가스의 경우 4,737억m³이 매장되어 있다. 카셰바롭스크 지구의 석유매장량은 2억 8,900만 톤(지질학적

매장량) 혹은 8,660만 톤(채취 가능 매장량)이며, 가스매장량은 3,130억 m³이다.

‘가스프롬’사는 야쿠티아에서 4곳의 자원 매장지를 제공받았다: 그곳은 베르흐네빌류찬스크, 사발로흐·니젤린스크, 스투드네툽그스크, 타스·유라흐스크 등이다. 이들 구역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의 총매장량은 4,630억m³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초 당시 ‘가스프롬’사가 보유하고 있던 가스매장량 총량의 1.5%에 해당한다. ‘가스프롬’은 이들 야쿠티아의 가스매장지 구입을 위해 73억 루블을 지급했다.

‘가스프롬’의 자원기반이 이르쿠츠크 주 코빅틴스크 매장지 개발로 확장됨에 따라 ‘가스프롬’은 이 지역에서의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구체화시키고 있다.

현재 코빅틴스크 매장지는 실험적인 산업개발단계에 있다. 특히 현 단계에서는 이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를 완전하게 수행하고, 이전에 건설되어 채굴되었던 유정들의 잔존 채굴 가능 잠재력을 연구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다.

C₁ 및 C₂ 범주에 속하는 매장지의 가스매장량은 1조 5,000만m³이며, 이 중 채굴 가능한 가스 응축물 매장량은 7,700만 톤이다.

‘가스프롬’은 니즈네·크박친스키 매장지에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5개의 가스 응축물 유정에 대한 굴삭작업을 끝냈다. 이 유정들의 건설 및 연결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 매장지 내의 총유정의 수는 9개가 되며, 이는 당초 계획대로 가스 채취량을 연간 1억 7,500만m³에서 5억 7,500만m³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다.

2012년에 ‘가스프롬’사는 캄차카 주 가스시설 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크숙스크 및 니즈네·크박친스키 가스 응축물 매장지 건설작업을 완료한다. 현재 이 매장지들에서는 기술 및 각종 부대시설들이 건설·설치되고 있으며, 조업 개시를 위한 준비작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에 ‘가스프롬’사는 2개의 가스매장지를 활용함으로써 캄차카 주 소비자들에게 현재 일일 가스공급량보다 두 배가 많은 200만m³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가스 채취량 수준은 대내외 수요, 가격수준, 수

송기간시설의 발달, 지리적 요인, 탐사된 자원의 매장량 및 품질, 자원의 재생산 속도, 세금 및 면허 관련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의 석유가스 지질학·지구물리학 연구소 전문가들은 동시베리아에 석유·가스·석유가스 가공·석유화학·가스화학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광물과 원자재 기반의 재생산 및 확대 등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석유가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600억 달러, 즉 1년에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En⁺ 그룹 이사 평의회 의장인 올레그 데리파스카에 의하면, 동시베리아 자원매장지의 개발, 즉 탄화수소 원료의 채굴·가공에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동시베리아 자원매장지 지역의 수송·물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170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 대아시아·태평양시장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의 발전 전망

동방에너지정책의 실현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 정책의 실현에 있어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정책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수행된다. 또한 더 많은 러시아인과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실행방안들(특히 국가간 에너지 프로젝트)은 많은 자본의 투입을 요하며,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적 에너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국투자 유치 없이 2020~30년 기간 중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아시아·태평양 및 동북아시아로 대량 수출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석유산업의 대외경제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의 방법, 방향, 수출경로 등을 다각화해야 한다. 태평양 방면으로의 수출경로(동시베리아 및 태평양 제2송유관 시스템-스코보로디노-코지미노 간 노선, 중국행 지선-스코보로디노-다칭간 노선, 북부 사할린-콤포스몰스크나야 무래간 노선, 북부 사할린-테 카스트리-사할린 제1복합단지간 노선, 북부 사할린-코르사코프-사할린 제2복합단지간 노선 등)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최종 소비 목적의(가공의 목적이 아닌) 고품질 석유제품 수출은 (주)트란스네프찌의 송유관 망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국경 및 항만(콤소몰스크나 아무레, 하바롭스크, 코지미노 등)과 인접한 원유가공공장을 건설·현대화한다면 가능해진다.

러시아는 곧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다.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에서 액화 천연가스 소비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장되고 있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1,000m³당 350달러에서 600달러 상승하였다.

다)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수송 기반시설

제2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 건설은 초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현재 러시아 국가 지도부 차원에서 이 송유관 시스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석유가 송유관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하바롭스크 및 콤소몰스크에서 조업 중인 2개 원유가공공장의 생산비용이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2009년 11월 '트란스네프찌' 사(社)는 코지민의 항만시설과 제1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에 '기술적 원유'(송유관의 정상운동을 목적으로 내부 압력 유지를 위해 송유관 내에 넣는 물질) 주입을 완료했고, 2009년 12월부터 석유를 유조선으로 전달하여 운송해오고 있다.

아무르 주 영내를 통과하는 제2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 내의 연장 812km 구간에 석유를 채워넣는 작업도 완료되었다.

송유관망을 흐르는 석유는 유대인 자치구 아블루치예에 위치한 제30석유펌프장으로 공급되었다.

송유관 속에 석유를 채워넣는 작업은 구간별로 실시된다. 아무르 강 연안 지역에는 이러한 구간이 5개 있다. 길이 면에서 가장 긴 송유관 구간은 259km로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두 행정구역인 아무르 주와 유대인 자치구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오늘날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에 원유를 채워넣기 위해 동시베리

아 석유 매장지와 송유관을 연결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브트루바쁘라보드스트로이(Sibtruboprovodstroy)’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인수되었으며, 지금은 ‘베르흐네찬스크 석유가스 응축물 매장지-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 간에 부설된 송유관(발주자: ‘베르흐네찬스크 네프찌가즈’ 사(社))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미 ‘스레드네바투아빈스크 매장지-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 간 송유관(발주자: ‘타스-유라흐네프찌가즈다브이차’ 사(社))이 건설되어 시험운영단계에 있다. 길이가 100km인 송유관의 선상부분이 건설되었고, 현재 렌스키 시 지역에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건설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스코보로디노-다칭간 노선을 지나는 ‘러시아-중국’ 송유관을 통한 석유수출의 길이 열렸다. 이 송유관의 총연장은 960km이며, 설비운송능력은 연간 1,500만 톤이다.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 건설은 전도유명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고자 최근 10년간 (주)트란스네프찌 사(社)가 수행한 가장 큰 프로젝트이다. 2013년까지 (주)통합에너지시스템은 이 송유관 시스템을 통해 5,000만 톤의 석유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여건들을 갖출 것이다.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시스템은 2019~20년 사이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래에 극동의 가스운송 기반시설과 야쿠티아의 가스채굴센터가 연결되고 나면, 그 후에 이르쿠츠크 주의 매장지까지 이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코빅틴스크-차얀딘스크’간 가스 파이프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계획의 실행기간은 2016~18년이다. 이런 방식으로 ‘코빅틴스크-차얀딘스크-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간 노선을 따라 ‘시베리아-극동-아시아-태평양지역’간 가스 파이프망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스코보로디노, 블라가베첸스크, 달리니레첸스크 지역을 지나는 중국 방향의 지선이 포함될 것이며, ‘블라디보스톡-평양-서울’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 노선이 한국을 향하게 될 것이다.

코빅틴스크 매장지 개발프로젝트는 코빅타-사얀스크-앙가르스크-이르쿠츠크를 통과하는 연장 550km 이상의 가스 파이프망 및 가스분해공

장, 헬륨제조공장 등의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의 동방가스 프로그램에 발맞추어, 러시아 소비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스 공급 보장, 아시아-태평양국가 수출시장으로의 진출, 차후 전 러시아 통합 가스공급시스템으로의 연결 등을 위해 가스 운송시스템의 건설 및 개발이 구상되고 있다. 이 구상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간 가스 파이프로서, 이는 하바롭스크 주, 연해주, 사할린 주, 유대인 자치구에 가스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으로 이 파이프망에 차얀딘스크 석유가스 응축물 매장지를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2011년 9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제1가스 파이프 라인의 건설이 완료되었다. 준공식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참석한 가운데 블라디보스톡에서 거행되었다. 이 파이프 라인은 초기에 연간 60억 m^3 의 가스를 수송할 것이며, 더욱 발전하면 300억 m^3 까지 수송하게 될 것이다. 이 가스들의 대부분은 해외 송유를 목적으로 한다.

‘가스프롬’은 야쿠티아에서 독자적인 채굴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2014년에는 차얀딘스크 매장지에서 석유 채취를 시작하고, 2016년에는 가스 생산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가스프롬’은 2012~14년에 걸쳐 차얀딘스크 자원 매장지 건설 및 ‘야쿠티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간 가스 파이프 라인과의 미래의 가스 액화공장을 연결시켜주는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등을 위해 4,660억 루블을 지출할 계획이다.

‘시브트루보쁘라보드스트로이(SibTruboProvodStroy)’ 사(社)는 동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코빅타-쥐갈로보’ 간 지하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을 들 수 있다. 또한 캄차카 소재 자원 매장지 개발의 일환으로서 ‘니즈네-크박친스키 가스 응축물 매장지의 제2복합 가스가공설비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의 자동 가스 배분소’까지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 라인이 준공되었다. ‘시브트루보쁘라보드스트로이’ 사에 의해 133km 연장의 파이프 라인 선형 구간, 2개의 가스 배분소, 선형 생산관리기지 등이 건설되었다.

‘가스프롬’사는 캄차카 주 소비자들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볼레프-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간 가스 파이프 라인 노선을 최대한 단기간

에 건설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이 가스 파이프 라인의 연장은 392km이며, 생산능력은 연간 7억 5,000만 m^3 까지 가능하다.

향후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가스 채취센터들을 가스 파이프 망으로 서로 연결하고, 나아가 이들을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 방면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조치를 통해 이 시설들은 서시베리아와 러시아 유럽 지역에 위치한 가스운송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게 된다.

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석유·가스 가공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가스 가공은 도합 3,000만 톤의 원유 가공이 가능한 4개 대형 석유가공공장과 사할린 소재 ‘페트로사흐’ 사(社)의 소형 석유가공공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친스크, 양가르스크, 콤소몰스크의 석유가공공장은 ‘로스네프찌’ 사(社)가, 하바롭스크의 석유가공공장은 ‘알리안스 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석유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대부분(94%)은 서시베리아에서 공급되며, 사할린섬 육상 매장지로부터 공급되는 그리 많지 않은 물량(연간 170만~180만 톤)의 원료는 콤소몰스크 석유가공공장으로 공급된다. 사할린 대륙붕에서 채굴되는 석유는 생산물 분배협정에 따라 전량 수출된다.

‘트란스네프찌’ 사(社)는 제34석유전송소에서 유압펌프장 건설을 시작했으며, 2013년 7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석유전송소에는 10만 톤 규모의 석유저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바롭스크 석유가공공장으로 석유를 분배해줄 수 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Komsomolsk-na-Amure)’로 향하는 지선을 건설하려면 제29석유전송소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 석유 전송소 건설은 2014년 7월에 완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석유가공공장측은 자기 공장까지 오는 가스 파이프 지선을 건설해야 한다.

러시아 최대의 선박 주유회사인 ‘트란스분케르’ 사(社)는 바닌에 위치한 석유가공공장의 생산능력을 사실상 3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공장의 생산품은 전 극동지역 선박의 연료로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 측의 자금 및 외자를 포함하여 50억 루블이 소요되며, 총 2년

반의 기간이면 완료될 것이다.

‘가스프롬’은 러시아연방정부가 승인한 동방 가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가스가공기업·가스화학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의 전도유망한 신규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다. 극동 연방 관구의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 대표 참모들은 자신의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프로젝트 실현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협조할 것이다.

코빅틴스크 매장지 개발프로젝트는 가스분해공장 및 헬륨 제조공장 건설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아르카디 로텐베르그의 ‘내셔널 화학 그룹’은 극동에 몇 개의 가스화학 공장들을 건설하는 계획의 성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 회사는 극동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할 면적 450ha 이상의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형 톤수의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 13~15m 이상의 부동항이 있다는 점도 회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내셔널 화학 그룹’ 측은 극동에서 2017년 3월 1일에 첫 번째 생산물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생산량은 상품용 암모니아가 연 140만 톤, 요소가 520만 톤, 기타 가스화학제품이 100~2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라스 가나가 씨는 “공장 건설 시 외국기업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우리에게 현대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민간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리스크)을 분산시키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내셔널 화학 그룹’은 첫 단계에서 극동에 50만~120만 톤의 비료를 생산하는 대형 요소공장을 세울 구상을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생산량을 연간 최대 300만 톤까지 끌어올리고, 생산품의 70~80%는 수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2012년 5월 22일 하바롭스크 주 주지사 바체슬라프 슈포르트는 주정부 대표자들, 대형 러시아 기업(‘메타프로세스’, ‘내셔널 화학 그룹’) 및 외국 기업(‘코가즈 보스토크’, ‘스미토모 상사’)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스가공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에 2015년부터 가스 5억m³

를 공급하고, 이 공급량을 17억 5,000만 m^3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이미 구상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주정부, ‘가스프롬’, ‘내셔널 화학 그룹’ 간에 가스화학 생산시설 발전프로젝트 실현의사에 관한 삼자간 비망록이 서명되었다.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들과의 양자간 협정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된 단계에 와있다.

주 내에서 광범위한 제품라인을 생산하는 것은 장래성이 있다. 가스화학공장의 생산품 목록에는 메탄올, 광물비료, 디메틸에테르, 프로필렌, 에틸렌 등 기타 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주정부는 기업 입주가 가능한 8개의 유망 부지를 제안하였다. 이는 모두 가스 파이프망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들로써, 울츠크(데 카스트리 마을), 콥소몰스크(콥소몰스크나아무레의 경계선에 위치한 니즈네타보프스크 마을, 실리히노 마을 등), 하바롭스크(야쿠티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 파이프망 연결지점과 까르포프스크 마을), 라조 구(區)(호르 마을), 소베츠키야가반 구(區) 등에 위치한 구역들이다.

2012년 2월 ‘가스프롬’과 ‘메쥬레기온가스’, 기타 주요 에너지 기업들, 하바롭스크 주정부 등의 대표자들은 2030년까지의 예상 가스소비량 합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하바롭스크 주는 매년 약 70억 m^3 의 가스를 공급받게 되며, 이 중 25억 m^3 이상이 가스화학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역 내 가스화학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은 러시아의 ‘내셔널 화학 그룹’, ‘메탄올-아조트 프로세스’, ‘시부르’, ‘에브로힘’, 일본의 ‘스미토모’, ‘미쓰비시’, ‘마루베니’, 한국의 국영기업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업들과 논의되고 있다.

2012년 3월 15일 개최된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주정부 산하 부처간 실무자그룹회의에서는 4개의 석유·가스 가공시설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탐모트 시(市)에 발동기용 연료 생산을 위한 석유가공공장을 건설한다는 (주)투이마다 석유의 프로젝트가 검토되었다.

야쿠티아에서는 기업 건설(입주)에 유망한 최소 2개의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 하나는 차얀딘스크 자원매장지에서 멀지 않은 렌스키 시(市) 구내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우스찌 꾸트-네파-비쨴-렌스키를 연결하는 연장 1,000km 이상의 철도 지선 건설도 포함하고 있다. 철로는 알단에 있으며, 그곳에 가스가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많은 국가조직 심급으로부터 우선적인 프로젝트로 승인받은 「남부 야쿠티아 복합개발」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것이다.

야쿠티아 연료에너지 회사(투자그룹사 ‘숨마 캐피탈’의 석유·가스 부문에 소속)와 덴마크 회사인 Haldor Topsoe A/S 사(社)는 GTL 기술을 적용하여 발동기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 건설에 관한 감정 실시 및 자본과 운영 비용 관련 예비 예산 수립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동시베리아 가스화학 회사’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메탄올 생산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메탄올 관련 프로젝트는 지역 내 가스매장지의 자원에 의존하며, 특히 코빅틴스크, 차얀딘스크의 매장지들과 사할린 대륙붕의 자원들에 의존한다. 이 제품의 주요 소비 타깃은 중국으로 맞춰져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천연가스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천연가스로부터의 메탄올 합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 및 일본의 기업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500만 톤의 메탄올 수출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200만 톤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가스프롬’은 일본의 ‘미쓰이’와 공동으로 암모니아, 메탄올, 헬륨,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나훗카에 가스화학 복합단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브라츠크 자원매장지를 기반으로 메탄올 45만 톤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2012년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테라’ 사(社)와 공동으로 실현될 것이며, 그때 야쿠티아 지역의 프로젝트들도 실현되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공장들의 가동은 2015년 이후에나 시작될 것이다.

‘메타프로세스’ 사(社)는 메탄올을 생산하는 러시아의 대기업과 공동으로 일련의 비전통적인 제품들을 가스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시설 조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전체적인 생산 개요를 보면 지성가스를 향기

(방향성 냄새)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물(벤젠, 톨루엔, 크실렌)과 섞어서 가공하는 방법이 구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탄화수소물들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 여러 가지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연구실에서의 실험을 마친 것이며, 시험적인 산업규모로 중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나간 시(市)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은 2억 6,000만~3억 유로가 될 것이며, 추정되는 비용회수기간은 총 4년이다.

사할린 당국은 섬의 서부 연안 발전프로그램에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동시에 생산하는 가스화학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포함시켰으며, 이 시설의 생산능력은 연간 135만 톤이다. 이 구상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는 '로스게올로기야' 지주회사이다.

전 세계 메탄올 수요량은 4,550만 톤이며, 이 중 1,500만 톤 이상이 포름알데히드로 가공되고 있다. 나머지 수량은 메틸삼차부틸에테르, 초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메틸아민, 규소 유기물 결합체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연료용 파생 메탄올(디메틸 에테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2016~1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액화가스 제조공장 가동을 시작하길 기대하고 있다. '가스프롬'은 '제2사할린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세 번째 천연가스 액화공장의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연해주 행정부와 (주)가스프롬은 극동지역 천연가스 액화생산공장 건설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력의 주요 방향 중에는 가스시설의 자율적인 보급을 위해 액화 천연가스, 압축 천연가스, 액화 탄화수소가스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발동기 연료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톡에 액화 천연가스 공장을 공동 건설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본 경제·통상·산업부 장관인 유키오 에다노와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알렉산드르 노박은 액화 천연가스 공장 건설 협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하였다.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1,000만 톤까지 가능하며, 이는 전년도 일본의 액화 천연가스 총수입량의 10%를 넘는 양이다.

2030년 연한 연해주 개발전략(석유·가스 화학 부문)도 확정되었다. 연

해주 경제는 석유·가스 클러스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관련 계획들의 실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로스네프티’ 사(社)는 러시아 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기획했다. 이 복합단지는 ‘브랑겔’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러시아에는 흔치 않은 석유화학 생산공장이 연해주에서 가동되게 되며, 이 공장은 석유화학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우수한 세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되고 있다. ‘로스네프티’ 사(社)의 석유화학 복합단지는 설계 생산량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연간 1,000만 톤까지의 탄화수소 원료를 가공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실현에 드는 대략적 비용은 50억 달러 이상이다.

마) 결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협력관계 발전전략 개념 및 2050년 연한 극동지역 사회·경제 발전 예측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위임하였다. 이 전략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러시아의 극동과 아시아·태평양국가 간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국가적 프로그램의 차원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부문별 프로그램 차원에서조차 극동으로 다량의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다. 2015년까지 이 지역으로 3조 3,000억 루블 상당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며, 2018년까지 9조 루블의 투자가 더 들어올 것이다.

현재 극동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액은(전체 투자액에서) 약 10%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단 2~3% 정도만이 직접투자이고, 나머지는 포트폴리오 투자이거나 수권자본 투자이다. 가장 큰 외국인투자자는 일본으로, 주로 석유·가스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3) 광물자원

가)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광물자원 기반에 관한 개괄

러시아의 많은 지역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북부와 동부의 발전은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산업 및 야금산업은 대부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지역총생산(GRP) 산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 지역의 강력한 광업·광물 복합단지는 20세기에 탐사된 철금속 및 비철금속 광석, 합금 금속 등을 포함하는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 매장량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향후 발전이 단지 자원공급 지로서의 위상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에 러시아연방정부는 이 지역의 종합적 개발에 관계하는 국가 문건들을 이미 승인하였다.

야금작업에 사용되는 광물자원 기반의 특성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내 합금금속을 포함한 철금속 및 비철금속 광물자원 기반은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내 철 매장량은 100억 톤 이상(러시아 전역 매장량의 11% 해당)이며, 이 지역 내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자원량 역시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 내 철광석의 총자원 잠재력은(그 매장량과 범주 P₁에 속하는 예상 부존자원들의 유무) 200억 톤 이상(대략 전 러시아 매장량의 10% 해당)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부 야쿠티아, 이르쿠츠크 주, 아무르 주의 철광석 지대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철광석의 채굴은 이르쿠츠크 광업지구 내 소량 매장지에 위치한 코르슈노프스크 광업·선광 콤비나트에서만 연간 1,00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앙가라 강 우안에 총매장량 13억 톤 이상의 네룬딘스크·카파예프스크 대형 철광석 매장지가 탐사되어 있는데, 이 매장지들은 지표의 지하와 분리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능성은 남부 야쿠티아와 바이칼호 인근

지역의 치네이스크에 위치한 철광석 매장지들의 개발에 있다.

남부 야쿠티아에서 철금속 야금용 광물자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총 60억 톤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한 유즈노알단스크 및 차로·토킨스크 철광석 지대의 철광석 매장지들과 총 20억 톤이 넘는 매장량을 보유한 유즈노알단스크 코크스 석탄 매장지대이다.

남부 알단스크 구역(11개 매장지)은 BAM(바이칼·아무르 철도망) 철도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알단스크 용기 지역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소(小) 바이칼·아무르 철도망, 아무르·야쿠티아 자동차 도로망이 이 구역을 통과하고 있다. 구내를 통과하는 이 교통망들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발쇼이 네베르 기차역을 탐모트 시(市)와 연결해주고 있으며, 조만간 야쿠츠크와도 연결될 예정이다.

서쪽으로 더 가면 차로·토킨스크 구역(타린나흐스크, 가르키투스크 매장지 및 기타 타린나흐스크 그룹 매장지들이 위치)이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지역에 대부분 자리잡고 있고, 부분적으로 치타주 칼라르스크 구 북쪽에도 걸쳐져 있다. 철광석 지대는 좁은 띠 형태(길이 8~17km)로 바이칼·아무르 철로의 북쪽지역 쪽에 150km 가량 뻗어 있다.

1차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곳들은 차로·토킨스크 구역의 가르키투스크·타린나흐스크 매장지들과 남부 알단스크 구역(총매장량 50억 톤 이상인 6개 매장지가 위치)의 타에쥐나야 그룹 매장지들이다. 철광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규토질 자철광과 자철광 등이며, 철 함유도는 26~53% 사이이다. 주요 채굴방식은 개방형(노천) 채굴이며, 이 방식으로 매장량의 60%를 채굴할 수 있다. 지하갱도를 파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600m이다. 현재 타린나흐스크, 가르키투스크, 디소프스크 매장지 개발에 대한 입찰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즈노알단스크 매장지에서 나는 광석은 선광이 어려우며, 주로 철광석 농축광을 얻는 데 유용하다. 차로·토킨스크 매장지에서 나는 광석의 60% 이상은 선광이 용이해서 액체화된 작은 광물 덩어리를 얻는 심도 있는 가공에 쓰일 수 있다.

남부 야쿠티아에서는 철금속 야금에 필수적이면서 광석은 아닌 원료도 상당량 매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르노예 매장지의 용제용 석회암

(fluxing limestone), 피오네르스크 매장지의 지붕부분에서 채취되는 백운석, 키락 매장지의 내화벽돌용 규암, 이나클린스크 매장지의 고토감람석 재질의 내화물 등이다.

치네이스크 복합 티탄철광 매장지는 치타 주 극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바이칼-아무르 철도와 가깝다. 이는 매장량 및 예상 부존자원들의 규모에서도 보기 드문 매장지이다. 자철광 매장 구역만 하더라도 총매장량이 철 평균 함유량 35% 이상인 철광석으로 15억 톤 이상이다.

아무르 주에서는 평균 약 42%의 철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이 약 4억 톤 매장된 것으로 예상되는 가린스크 철광석 매장지가 탐사되어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매장지의 총자원매장량 중에는 선광을 요하지 않는 광석도 4,440만 톤 매장되어 있으며, 평균 철 함유량은 55.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대인 자치구 내에서는 총매장량이 7억 톤인 힌간스크 철광석 매장지군이 탐사되었다. 이 철광석 지대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8억 톤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매장지의 자원은 단일종 자철광과 자철-적철광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철광석들은 철에서 64.4~75%까지의 농축광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광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소규모의 유즈노힌간스크 망간 매장지, 프레오브라젠스크 복합(베릴륨과 형석) 매장지도 탐사되었다.

지역내 망간 매장량은 1,20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약 5%)을 넘지 않으며, 몇 개의 소규모 광석 매장지에 집중되어 있다. P₁ 범주에 속하는 자원의 예상 매장량은 6,87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약 17%)이다. 이 지역의 자원잠재력 총량은 8,000만 톤 이상(전 러시아 자원잠재력 총량의 11%)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650만 톤이 부존되어 있는 유즈노힌간스크 망간 매장지(할당되지 않은 지하 지층에 위치해 있다.) 외에 이 지역에서는 개발 면허가 발급된 두 개의 망간 매장지가 탐사되었다.

이르쿠츠크 주에서는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 2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니콜라예프스크 산화철망간 광석 매장지 개발 준비가 이루어졌다. 광석의 평균 망간 함유량은 18.1%이며, 평균 인 함유량은 0.22~0.36%이다. 현재

이 매장지에서는 지표면 부분에 있는 자원들에 대한 시험적 규모의 생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연간 생산량은 광석 1,500톤 이하).

남동부 바이칼호 인근지역에서는 잔여 매장량이 80만 톤 미만인 그라모브스크 산화망간 광석 매장지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의 망간 채취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지역의 티타늄 매장량은 상당한 수준으로 1억 1,00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23%)이다. 신뢰할 수 있는 예상 평가 매장량은 2억 2,000만 톤 이상(전 러시아 예상 평가 매장량의 40%)이다. 티타늄에 대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잠재력 총량은 3억 3,000만 톤(티타늄에 대한 전 러시아 자원잠재력 총량의 27%)이다.

아무르 주 서부 및 바이칼호 인근 지역에서는 티타늄 매장지들이 탐사되었으나, 이르쿠츠크 주와 연해주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탐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러시아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렇듯 이 지역 내의 티타늄 광석 채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티타늄 광석의 주요 매장량은 주로 치탄·티타늄 자철광 복합 매장지에 부존되어 있다. 이르쿠츠크 주의 말로타굴스크, 치타 주의 크루치닌스크, 치네이스크 매장지, 아무르 주의 쿠라나흐, 발쇼이세임 매장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광성(기계적 풍화로 형성된 광상) 유형의 티타늄 매장지는 매장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매장지로 대표적인 것은 이르쿠츠크 주의 툴룬스크 매장지, 연해주의 아리아드넨스크 매장지, 캄차카·쿠릴열도·타타르 해협 연안 지대의 사광상 등이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치타 주와 아무르 주의 자원 매장지들(치네이스크, 크루치닌스크, 쿠라나흐스크, 발쇼이세임 매장지 등)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매장지들에는 지역 내 티타늄 매장량의 대부분이 부존되어 있다. 치네이스크 매장지의 광석에는 평균 6.5%의 티타늄이 함유되어 있고, 크루치닌스크 매장지의 경우 이 수치가 8.5%이며, 쿠라나흐스크 매장지의 경우 14%까지 함유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철금속 야금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형석 광석의 매장량이 많다. 이 형석 광석의 매장량은 6,500만 톤 이상(러시아 내 산업적 범주의 매장량의 100% 차지)이다. 이 지역에는 사실상 신뢰성 있게

예상·평가된 모든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다. 형석에 관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자원잠재력 총량은 1억 톤 이상(전 러시아 자원잠재력의 97% 해당)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형석의 채굴은 이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칼호 인근 및 연해주의 주요 형석 매장지들도 탐사되었다. 바이칼호 인근 지역에는 나란스크, 에기틴스크, 우수글린스크, 가르사누이스크, 우르투이스크 등의 매장지가 있으며, 주로 광석의 평균 형석 함유량이 29~56%인 석영·형석이 부존되어 있는 매장지이다. 연해주에는 보즈네센스크에 평균 형석 함유량이 36~40%인 매장지가, 그리고 파그라니츠노에 변성 교대작용을 거친 운모·형석·희귀금속 매장지가 있다. 이 7개 주요 매장지의 총매장량은 4,600만 톤 이상이다.

바이칼호 인근 지역에서는 현재 13개의 형석 매장지 탐사 면허가 발급되어 있으나, 이 중 6곳 이하만이 작업 중이다. 사실상 탐사작업에 포함된 새로운 산업적 매장지들은 없다. 아직 분배되지 않은 지하지층에는 12개의 매장지가 있다. 그리고 치타 주와 부랴티아공화국은 근본적으로 그 양이 매우 부족한 철금속 야금용 천연 코크스 형석 농축광의 유일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권리 주장이 되고 있지 않은 매장지들을 개발하고, 잠열수 타입의 풍부한 신규 형석광을 발견해내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치타 주의 가지무로·자보드스카야, 다라순스카야 광석 지대, 마타고르스키 광석 초점 및 부랴티아공화국의 에기틴스코·다브하르스카야 등 기타 매장지에서 새로운 매장지 탐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연해주 내의 보즈네센스크, 파그라니츠노 매장지(프리한카이스키 광석 지대)에서 형석광 매장량의 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총량은 2,230만 톤이다. 연해주 내의 형석 자원 총잠재력은 2,800만~3,0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야로슬라브스키 광산 콤비나트는 보즈네센스크 및 파그라니츠노 매장지의 단일 노천 채굴장 개발만으로도 전 러시아 형석광 채굴량의 84~87%를 점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주로 보즈네센스크 매장지(연간 광석 생산량 115만 톤)에서 대부분의 채굴량이 산출되고 있고, 여기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파그라니츠노 매장지(연

간 광석 생산량 70만~80만 톤)의 채굴량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야금공업 종류에 쓰이는 농축광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바, 그 대체재를 제조하려는 목적으로 야로슬라브스키 선광 공장에 소입자 부유선광 농축물을 압축·고체화하는 공정라인을 건설하여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내의 비철금속 및 합금용 광물자원 기반의 규모는 상당하여, 주석 자원잠재력의 전부, 텅스텐과 몰리브덴 자원잠재력의 50% 이상, 니오브 자원잠재력의 50%, 구리 자원잠재력의 30% 이상, 폴리메탈(몇 개 이상의 금속을 함께 함유한 광석) 자원잠재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의 텅스텐 매장량은 약 10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60%에 해당)이며, P₁ 범주에 속하는 자원의 예상 매장량은 30만 톤(전 러시아 예상 자원매장량의 75%)으로 이 지역은 동시베리아에서 텅스텐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다. 거의 모든 텅스텐(연 4,300만 톤 이상, 전 러시아 채굴량의 93%) 또한 이곳에서 채굴되고 있다.

탐사된 텅스텐 매장량의 대부분은 주요 매장지에 부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요 매장지의 복합적 광석에는 몰리브덴, 구리, 비스무트, 금, 은 등도 함유되어 있다. 이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는 선광작업이 용이한 텅스텐 광석이며, 3분의 2는 상대적으로 선광작업이 어려운 회중석질 광석이다. 매장지 내 대부분의 광석들은 삼산화 텅스텐(WO₃) 성분을 평균 0.15% 정도만 함유하고 있는 빈약한 것들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캐나다, 한국, 볼리비아, 호주산 광석) 삼산화 텅스텐 함유 광석들은 0.8~1.2%의 삼산화 텅스텐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함유량이 풍부한 광석이 부존된 매장지로 꼽히는 곳은 스키르(skarn) 지질을 가진 바스토크-2, 레르몬토프스크 매장지(연해주 소재, 광석의 삼산화 텅스텐 함유량 1.5~2.6%), 밤·가르혼 매장지(치타 주 소재, 함유량 1.5%), 할타손스크 매장지(부라티아 공화국, 함유량 0.6%) 등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텅스텐 농축광 채굴과 생산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텅스텐 광산 채굴부문은 러시아 산업계의 점증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광물 채굴 생산

시설의 80% 이상은 연해주에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이를 가공하는 공장들은 멀리 서부의 러시아 유럽 및 우랄 지역에 위치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광산 콤비나트들이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채취할 수 있는 매장량은 소진되고 없으며, 또한 예상 매장량의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연해주와 바이칼호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매장지를 탐색하는 작업을 활성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인쿠르스크 및 할타손스크 텅스텐 매장지들(지딘스크 광물 대지 내(Ore Field)에 있는 가장 큰 매장지들이다)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매장지들에 부존된 광석 매장 총량은 40만 톤 이상이며, 텅스텐 함유량 수준은 0.15~0.6%이다.

지역 내 몰리브덴 매장량 또한 약 10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67%)에 달한다. 이 중 신뢰성 있게 예상·추정된 자원량은 23만 8,000톤으로(전 러시아 매장량의 40% 이상) 그 비중이 작다. 몰리브덴에 관한 지역 내 자원잠재력 총량은 120만 톤(전 러시아 자원잠재력 총량의 54%)이며, 몰리브덴 광석 채굴량은 러시아 전역 채굴량의 거의 50%(연간 2,500톤)에 달한다.

모든 주요 매장량은 매장지 주요 기본 광층에서 채굴되는 광석에 부존되어 있으며, 치타 주와 부랴티아공화국 내 6개 매장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사용 면허가 발급되어 있는 중형 규모의 쥐렌스키 및 대형 규모의 부그다인스크 매장지들, 그리고 아직 할당이 안된 아레키투칸스크, 아마난·마키투스크, 사리기친스크, 말라·오이노고르스크 매장지 등이다. 대부분의 매장지에서 나는 광석은 그 품질이 낮고 몰리브덴 평균 함유량이 대체로 0.1%를 넘지 않고 있어, 유사한 해외 매장지의 광석보다 함유량이 2.0~2.5배 정도 낮다. 쥐렌스키 매장지만이 광석의 품질(광석 내 몰리브덴 평균 함유량이 0.1%를 조금 넘는다) 면에서 외국산과 비견될 만하며, 그러한 이유로 매장지 중에 유일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리브덴 채굴은 현재 1991년도 수준의 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몰리브덴 원료의 대다수(70% 이상)는 거의 모두 수출되고 있다. 채굴기업의 활동이 해외시장으로 향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이 원료의 부족분을 수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가까운 장래에 몰리브덴 수요는 연 1만 2,000~1만 3,000톤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강철 생

산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을 전면 중단해서라도 몰리브덴 채굴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국내수요 충족의 목적만을 위한다면 대략 2~3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 수준의 채굴을 보장하려면 쥐리켄스크 매장지 개발의 활성화 외에도 매장량이 풍부하고 광석 품질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그다인스크, 아레키토칸스크 매장지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치타 주와 부라티아공화국 내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질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니오브 매장량에서 세계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량의 오산화 니오브를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생산된 오산화 니오브는 사실상 전량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매년 다른 니오브 제품을 1,000톤 이상 수입하고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니오브 매장량 및 신뢰성 있게 추정된 자원량은 상당히 크며, 전 러시아 매장량의 50% 이상이다. 지역 내에서는 니오브 및 니오브·탄탈 광석이 부존된 대규모 매장지들이 탐사되었다. 치타 주에서는 오산화 니오브를 0.35% 함유한 알칼리 교대작용 지대에 위치한 대규모의 카투긴스크 복합 니오브·탄탈 매장지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르쿠츠크 주에서는 벨라지민스크와 볼셰타그닌스크에서 대규모 탄산염 매장지가 탐사되었으며, 오산화 니오브 평균 함유량이 1% 미만인 파이어클로르 및 콜롬바이트 광석들이 산업적 가치가 있는 매장량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밖에도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는 오산화 니오브 함유량(7% 미만)이 높고 지구상의 희귀원소가 부존되어 있는 독특한 탐토르스크 매장지가 탐사된 바 있다.

석유 및 가스 수송용 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요도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향후 니오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산화 니오브의 세계 시장가격은 예전에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이었고 1kg당 15~20달러 선에서 변동하였으나, 오늘날 그 가격은 이미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현존하고 있는 원재료 기반을 효율적인 복합 광석 가공기술 및 동반 함유 성분 채굴기술을 적용하여 조속히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는 몇 개의 금속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광석(폴리메탈 광석) 자원의 총잠재력이 5,000만 톤(전 러시아 총잠재력의

40% 해당)이며, 이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역 내 납 매장량은 거의 85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44% 이상)이며, 아연 매장량은 3,40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56% 이상)이다. 이 지역은 납 광석 채굴에서도 전 러시아 채굴량의 38% 이상(연간 약 1만 2,000~1만 3,000톤)을 생산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연의 채굴 비중은 전 러시아 채굴량의 약 7%(연간 약 2만~2만 1,000톤) 수준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다. 모든 폴리메탈 광석의 채굴은 연해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부랴티아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대규모인 할라드닌스크, 아조르노예의 황철광·폴리메탈 매장지들이 탐사되었는데, 이들 매장지에는 130만~160만 톤의 납과 770만~1,330만 톤의 아연이 부존되어 있다. 이들 매장지의 폴리메탈 광석 매장량은 전 러시아 매장량의 총 40%가 조금 못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양의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장지에서 채취되는 광석의 품질(납 함유량은 0.6~1.17%, 아연 함유량은 4~6%)은 근본적으로 외국산 유사 광석에 비해 떨어진다. 현재 이들 매장지들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해주에 있는 니콜라예프스크 납·아연 층상(stratiform) 매장지는 근본적으로 규모가 더 작고, 광석들의 광물 함유도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이 매장지는 전 러시아 내 납 광석 채굴량의 40%가 조금 못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납은 국내 수요량의 50%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부족분은 주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납 농축광, 정제납 등을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그 수입량은 연 2만 톤 이상이다. 또한 ‘달폴리메탈’ 광업금속 복합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축광은 동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금속 수입량은 금속 수출량을 두 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자동차 공업의 높은 수요로 인해 아연 가격은 2006년 1월부터 거의 2배 가량 상승하였으며, 머지않아 1톤당 5,00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러시아 아연 산업부문의 주된 문제점은, 주요 아연 채굴지인 우랄지역 구리·황철광 매장지산 광석을 선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채굴량의 절반은 찌꺼기로 처리되어 버려지고 있다.

광석 사용의 복합성 계수는 0.65~0.75이며, 선광작업 시 아연 추출계수는 7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선광작업 후 생성되는 폐기물 속의 아연 평균 함유량은 0.3~1.22%이다.

러시아 국내의 폴리메탈 광석 원료 기반 개발에서의 문제점은 상기 언급한 부랴티아공화국의 대형 폴리메탈 매장지에 대한 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더불어 기존의 구리·아연 광석 선광시설들을 현대화 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구리 자원잠재력은 3,000만 톤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이는 전 러시아 자원잠재력의 25% 이상에 해당한다. 구리 매장량(2,200만 톤을 조금 넘는다)과 P_1 범주에 속하는 구리의 예상 자원매장량(700만 톤 이상)도 대략 이와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잠재력이 이렇게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구리 채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요 구리 매장량은 바이칼·아무르 철도 인근의 치타 주 동북부 우다칸스크 매장지에서 채굴되는 구리를 함유한 사암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 부존된 산업적 범주에 속하는 구리 매장량은 1,440만 톤(전 러시아 매장량의 거의 23% 해당)이며, 광석 내 구리 평균 함유량은 1.56%이다. 현재 이 매장지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적, 지질경제학적 재평가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치타 주 남동부 가지무로·자보드구 광상 지대에 위치한 유망한 비스트린스크 구리·금·은 복합매장지의 개발 준비작업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P_1 범주에 속하는 구리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약 400만 톤이며, 탐사된 매장량은 170만 톤(평균 함유량 1.58%) 이상이다.

러시아 국내 원료 기반에서 큰 문제점은 노릴스크 지역, 우랄 지역, 기타 지역 매장지들의 풍부한 광석들이 계속해서 소진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광물 함유량이 빈약한 구리·반암 광석의 수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발 및 발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현대화된 광산업 복합체가 필요하다. 더불어 바이칼호 인근 지역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우다칸스크 매장지와 비스트린스크 복합매장지의 조속한 개발도 필요하다.

나)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광물·원료 자원잠재력

극동 연방 관구에서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은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이다. 이 지역에는 그 구성과 품질 면에서 독특한 천연자원들이 부존되어 있고, 안티모니의 100%, 다이아몬드의 98%, 주석의 40%, 금의 15%가 채굴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생산의 24%를 점하고 있다. 또한 탐사된 석탄 매장 총량의 47%가 사하공화국에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사하공화국 내 탐사 매장지에 대한 개발면허 할당은 불균형적이어서 무엇보다도 주석 및 안티모니를 생산하는 가공기업들의 입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또한 금, 은, 납, 아연, 니오브, 기타 희귀금속 원소 등이 부존된 대형 매장지의 전면적인 개발까지도 지연시키고 있다.

우라늄: 사하공화국(야쿠티아) 내에 이미 알려진 모든 우라늄 분포지 중에 현대적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주목받을 만한 곳은 야쿠티아 유즈노 알단스크 용기 지대에 위치한 매장지들뿐이다. 나머지 매장지역들은 아직 연구가 지극히 낮은 수준까지만 이루어져 있거나, 산업적 사용이 가능한 우라늄의 매장 전망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지역들이다.

알단스크 용기 지대에서는 40개의 유망한 구역이 존재하며, 이 구역들을 대상으로 예상 매장량이 계산되었다. 구체적인 탐사작업은 엘칸스크 우라늄 광석 지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이 우라늄 광석 지대의 우라늄은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상 기준에 따라 소위 예비 매장지로 분류된 18개 매장지의 잠정 추정 매장량과 현황 외 매장량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들 광석은 우라늄 외에도 금, 바나듐, 몰리브덴, 은 등을 함께 함유하고 있다.

이미 탐사된 우라늄 원료 기반이 있고, 지역 내 신규 매장지 발견 유망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은 우라늄 원료의 거대한 잠재적 생산지로 간주되고 있다. 8개의 우라늄 매장지(엘칸, 엘칸스키 지각 구역, 인제레스나야 구역, 세베르노예 매장지, 드루즈노예 매장지, 니쁘라하지모예 매장지, 룬노예 매장지 등)는 2007년부터 할당된 지하지층에 속해왔으며, 이들 매장지에서는 지하지층 사용자의 자금으로 지질탐사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철광석: 산업적 용도의 매장지 및 철광석 분포지들은 알단스크 철광석 지역 내에 있다. 이 철광석 지역은 그 안에 9개의 철광석 소구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 단 3개 소구역(차로·토킨스키, 유즈노알단스크, 수땀스키 소구역)만이 지질탐사를 통해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는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 14개의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들 매장지에는 산업용 매장량이 총 35억 톤,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이 총 22억 톤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단스크 철광석 지역의 철광석 총잠재력은 189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철광석 매장지들을 산업개발에 활용할 경우 산업용 매장량이 상당량 증대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조소프스크, 타요쥐노, 타린나흐스크, 가르키트스크 매장지들(매장량 현황에서 57% 차지)은 2008년부터 (주)알로사 투자그룹에 지하지층 사용을 위해 인도된 상태이다. 조소프스크, 타요쥐노 매장지들은 바이칼·아무르 철도망의 운행구역 안에 모여 있으며, 이 매장지들을 근방에 위치한 코크스 석탄 매장지들과 연계시킨다면 조만간에 대규모 금속 야금 생산시설을 위한 기반으로 발전될 수 있다.

텅스텐: 야쿠티아 내에 알려져 있는 모든 텅스텐 매장지들과 유망한 광석 분포지들은 북극권 내에 있는데, 공간적으로는 주석 광물화 지대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그 외의 예속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 있는 22개(7개는 주요 매장지, 15개는 자원이 분산 분포되어 있는 사광상 매장지)의 텅스텐 매장지가 검토되고 있다. 텅스텐 매장량의 대부분은 아길키 구리·텅스텐 복합매장지(75%)와 일린타스 텅스텐·주석 매장지(12%) 등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텅스텐은 대부분의 경우 주석 매장지들(주요 매장지 및 사광상 매장지)에 혼재해 있는데 이 지역들에 있는 텅스텐의 매장량은 그리 많지 않다. 개발이 이미 끝난 알랴스키토프 매장지에도 얼마간의 텅스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텅스텐의 예상 자원매장량 측면에서 보면, 야쿠티아는 거대한 텅스텐 매장지역으로 꼽힌다. 텅스텐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공간적으로는 매장량 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매장지의 텅스텐 품질은 충분히 좋은 수준

이다. 삼산화 텅스텐 평균 함유량 면에서 아길킨스크 매장지는 세계 유수의 매장지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매장량 및 예상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텅스텐 채굴 및 텅스텐 농축광 추출작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추르푸니아 매장지산 광석에서 주석과 함께 제한된 수량으로 채굴되고 있는 텅스텐은 주석 농축광으로 추출되고 있다.

구리: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아길킨스크 구리·텅스텐 매장지 및 일린타스크 주석광 매장지의 구리 매장량만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매장지에는 구리가 다른 금속들과 섞여 매장되어 있다. 야쿠티아의 구리 매장량은 전 러시아 구리 매장량 총량에서 2.3% 미만의 비율을 차지한다. 구리의 예상 자원매장량으로만 보았을 때 야쿠티아는 거대한 구리 매장 지역으로 간주되지만, 이 지역의 구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않은 관계로 예상 자원매장량 추정의 신뢰성은 낮다. 따라서 야쿠티아의 구리 매장지가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는 편이다. 그 주요 원인은 광석의 구리 함유량이 충분하지 않고, 지리적·경제적 조건이 불리하며, 구리를 함유한 사암의 분포범위가 좁고 매장 깊이가 깊으며, 지층의 주향에 대한 무기물화 작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다. 구리를 동반 금속원소로 함유하고 있는 복합매장지들의 산업적 의미는 전적으로 그 매장지의 주종을 이루는 금속요소들의 개발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납, 아연: 야쿠티아 내의 납·아연 무기물화 작용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원대와 신생대 사이의 금속 형성시기에도 이 작용이 일어났다. 다수의 납·아연 매장지 및 분포지뿐만 아니라 납과 아연이 동반원소로 함께 매장되어 있는 은, 주석, 금 등의 매장지들도 많은 수가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납·아연 지대 중 하나인 킬라흐스크 금속광 지대에서는 사르다나, 페레발도, 우루이 등 3개 매장지가 탐사되었다. 우안지노·야사친스크 금속광 지대에서는 하타이도흐스크 황철광·폴리메탈 매장지와 그밖에 여러 광석 분포지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위치해 있다. 서베르호얀스크와 남 베르호얀스크 지역에는 그 매장량 가치를 평가받은 프로그노즈, 만가제이스크, 베르호네멘케첸스크 복합매장지가 위치해 있

다. 이 매장지들에서는 납과 아연의 함유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함유 금속원소로서 간주되고 있다(주요 함유 금속은 은이나 주석이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납 87만 4,700톤 분량과 아연 212만 2,800톤 분량을 산업적 매장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매장지들은 지하 지층 사용권이 양도된 상태이다. 납과 아연의 예상 매장자원은 주로 킬라흐스크 금속광 지대의 무기물화 층상(stratiform) 구조 내에 매장되어 있다. 야쿠티아에서는 매장지로부터 동반 금속원소인 납과 아연을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납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석: 현재 알려져 있는 야쿠티아 내 모든 주석 매장지들은 북극권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질경제학적 특징에 따라 세베로 안스키, 야노 아디찬스키, 베르흐네인디기르스키, 유즈노베르흐안스키 등 4개의 대규모 주석지구로 대별되고 있다. 그밖에 탐사를 통해 드러난 징후로 판단했을 때 주요 광상이나 사광상 형태로 주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올라한-타스키 주석지구도 있다.

부분적으로 야쿠티아의 일부 광석지대 및 광석지구는 지질학적 구조 및 무기물화 특성 면에서 볼 때 마가단 주,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영국 등의 주석 함유 지층구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석 무기물화 작용의 규모와 이에 동반되는 주석 사광상 형성규모, 주석 매장형태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야쿠티아와 유사한 경우는 러시아에서나 외국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야쿠티아의 매장지에는 러시아 내 탐사된 주석 총매장량의 41.2%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예상 자원매장량의 43.2%가 매장되어 있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사하공화국(야쿠티아) 내에서 51개 매장지(13개의 주요 매장지와 38개의 사광상 매장지)의 매장량이 검토되고 있으며, 그 중 3개의 주요 매장지와 7개의 사광상 매장지는 예상 매장량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중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검토된 매장량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곳은 주석 매장량의 75.7%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 매장지들이다. 주석은 또한 은·폴리메탈 매장지(프로그노즈, 쿠빨노예 만가제이스크, 베르흐네멘케첸스크 매장지)의 광석에도 동반 금속원소로서 함유

되어 있다. 주석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매장량의 3배 이상을 초과한다.

야쿠티아의 사광상 매장지에는 러시아 지하자원 현황 내 모든 주석 매장량의 80%가 넘는 비중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주로 다양한 성분의 총적토 사광상(티레흐짜흐, 아지노카야, 텐켈리 사광상 매장지 및 세베로·라흐스키 지구 사광상 매장지들)에 주석이 분포해 있다.

사광상에 존재하는 주석 채굴은 추르푸니아, 티레흐짜흐 매장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데푸타트스크 주요 주석 매장지가 지하 지각 사용을 목적으로 ‘데푸타트스크’ 광업 콤비나트로 양도되었다.

안티몬: 안티몬 매장량 전량 및 예상 자원매장량의 주요 분량은 아디차타린스카야 광석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고농축 안티몬 무기물화 작용에 따른 안티몬 성분의 풍부함에서는 러시아 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지대를 찾아볼 수 없다. 그 외에 인알리·데빈스카야, 니즈네·얀스카야, 자파드노·베르호얀스카야, 에게하이스카야 타스·하야흐타흐스카야, 탐포·브룬가딘스카야, 유즈노베르호얀스카야, 시테·다반스카야 광석지대가 개별적인 안티몬의 분포지로 알려져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관련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산업적 범주에 속하는 안티몬 총매장량 17만 3,341톤 및 C_2 범주에 속하는 자원 총매장량 9만 2,610톤이 매장되어 있는 7개의 매장지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중 매장량과 안티몬 함유도 면에서 두 개의 매장지(사릴라흐, 센타찬)가 주목할 만하다. 이 매장지들은 현재 채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며, 사실상 사하공화국에서 유일하게 탐사된 안티몬 매장지들이다. 그 밖에도 안티몬은 금·은·폴리메탈 매장지(큐추스, 베르흐네멘케첸스크, 쿠빨노예 등 매장지들)에서 동반 함유 금속원소로서 발견되기도 한다. 사릴라흐스크, 센타찬스크 매장지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보다도 광석의 품질인데, 이곳에 매장된 광석은 금 함유량이 높으면서 동시에 안티몬 함유량도 20~30%나 된다. 야쿠티아는 러시아 전체 안티몬 예상 자원매장량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안티몬 채굴은 센타찬스크 매장지에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릴라흐스크 매장지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된 채굴량에 따라 작

업이 계속된다면, 탐사된 매장량의 채굴 연한은 그리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릴라흐스크 매장지의 경우 약 10년, 센타찬스크 매장지의 경우 약 18년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래에 완전한 금속 추출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하공화국은 야금 콤비나트 건설계획을 입안하였고,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광물자원 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수은: 수은의 무기물화 작용은 동부 야쿠티아 내에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주요 지역으로 베르호야노·콜림스카야 수은 광석지대를 꼽을 수 있다. 주요한 수은 함유 지층지대로는 우야니노·실렌냐흐스카야, 타스·하야흐타흐스카야, 바스토취노·빨라우스넨스카야, 맘스카야, 니즈네·얀스카야, 탐포·브류가딘스카야 지대와 둘갈라흐스키 광석지구가 있다. 수은 무기물화 작용이 일어난 곳으로는 빨라우스넨스키 지구, 자파드노·베르호얀스키 지구, 아디차·타린스카야 지대, 시페·다반스카야 지대 등 여러 곳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곳의 수은 무기물화 작용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다.

주요 수은 광석 매장지 외에도 수은은 간헐적으로 금, 폴리메탈, 은 광석 매장지에 존재하기도 하나, 이곳에서 수은은 해로운 혼합물로 간주된다. 또한 수은은 가까운 편류상의 사광상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관련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총 3,500톤 이상의 수은 매장량을 보유한 5개 매장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즈베즈다취카 매장지이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매장량 면에서 야쿠티아는 러시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상 자원매장량 면에서 동부 야쿠티아는 대형 수은 매장지역으로 꼽힌다. 예상 자원매장량에 대한 평가는 적색 황화수은 계관석·적색 황화수은 휘안광·적색 황화수은 광석 및 홍적세 사광상을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야쿠티아에서의 수은 채굴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도 없다.

금: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금 매장량은 전 러시아 금 매장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이 채굴되는 주요 지역은 야쿠티아의 동부 남부의 인디기르카강·야냐강·알단강 인근 매장지역이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하고 있는 야쿠티아 내의 금 부존 광물자원 기반은 833개

매장지로 대표되고 있다. 이 중 822개는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현황 내 매장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매장지이며, 이 중에서도 769개는 사광상으로서 현황에서 고려되고 있는 C₁ 및 C₂ 범주에 속하는 자원매장량의 27%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황 내 금 매장량의 73%를 점유하는 60개의 금 광석 주요 매장지가 있으며, 금이 동반 금속원소로서 채굴되는 복합매장지가 2곳, 기술적 매장지가 2곳이 있다. 금 광석의 산업적 매장량은 알라흐·윤스키, 유즈노야쿠트스키, 쿨라르스키, 베르흐네인디기르스키 금 매장지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사광상 매장량은 주로 유즈노야쿠트스키, 베르흐네인디기르스키, 아디찬스키 금 매장지구 등에 위치해 있다. 야쿠티아에서 가장 큰 금 광석 매장지는 네쥐다닌스크, 쿠츄스 매장지들과 알라흐·윤, 발쇼이 쿠라나흐, 니라·탈라흐타흐 지구의 사광상 및 알찬·볼닉 사광상 등이다. 상기 열거한 지역의 매장지 외에도 금 무기물화 작용이 이루어진 장소와 지점이 수천 개 밝혀져 있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예상 자원매장량의 추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서부 야쿠티아 지역의 금 매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이 지역은 산업적인 사광상 및 주요 매장지의 발견에서 유망한 지역이다.

금과 관련하여 할당된 지하지층은 매장지 개수 면에서 27.37%를, 산업적 범주의 매장량 면에서는 7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할당된 지하지층 속에 포함된 금 매장량의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할당된 지하지층에는 산업용 금 매장량의 83.3%를 보유하고 있는 228개의 매장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매장량의 46.4%를 보유한 190개의 금 사광상 매장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금 매장지의 산업적 개발은 고도의 단계에 와있다. 주요 금 매장지의 매장량 중 37.1%에 대해 채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합매장지의 경우 매장량의 1.9%, 사광상 매장지의 경우 매장량의 9.5%에 대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 도상에 있는 광석 매장지군에 속하는 것들로 바드란, 가르부조프스키, 두엣스크, 까나브노예 사말라조프스키, 세베르노예, 타보르노예, 야코쿠트스키 센타찬스크 매장지들이 있다.

야쿠티아에서 탐사된 전체 금 매장량의 22.6%는 국가의 예비 자원매장

지 일부를 구성한다. 전체적으로 현재 사하공화국에 존재하는 자원기반 조건하에서 산업적 범주의 금 매장량 평균 채굴연한은 40년이며, 광석 매장지 사용연한은 50년, 사광상 매장지 사용연한은 25년이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금 채굴산업의 광물자원 기반은 연 25톤 혹은 그 이상의 금속 생산을 유지하는 데에 충분하다. 그리고 자원잠재력에 상응하는 지질탐사 작업과 매장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사하공화국의 원료 자원잠재력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탐사된 야쿠티아의 금 광석 매장량은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무룬타우, 다우기즈타우, 키질랄람사이, 코즈볼락 등 대형 매장지들)이나 수호이 로 그 대형 매장지가 있는 바이칼로·포탐스키 지역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며, 마가단 주(마이스크, 쿠바카, 나탈카, 카랄베엠, 카람켄, 슈콜노예 매장지들 소재)에 비해서는 약간 뒤떨어진다. 야쿠티아의 탐사된 금 광석 매장량은 러시아 내에서 대략 4~6위 정도를 차지한다. 비소를 함유한 단단한 광석 속에 금 광석 매장량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발 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다른 주요 금 광석 매장지역들과 비교해볼 때 야쿠티아의 입지는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금 채굴기업들이 보유한 광물자원 기반의 특징은 금이 여러 개의 소규모 매장지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탐사된 금 매장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생산은 (주)유즈노베르호얀스카야 광산 채굴사(29.9%)와 (주)알단졸로토 광업사(14.6%) 등의 회사들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

2009년의 금 광석 채굴은 (주)알단잘라토 광업회사, (주)자파드나야 광산 채굴회사, (주)실리그다르, (주)졸라따 실리그다라, (주)네룬그리·메탈릭, (주)즈베즈다, (주)사릴라흐·수리마 등의 회사들에 의해 메쥬사포츠노예, 네쥬다닌스크, 타보르노예, 가르부조프스크, 바드란, 사말라조프스크 매장지들과 사릴라흐스크 복합매장지 등에서 이루어졌다.

칼티칸스크, 탄, 말탄, 유르스크, 브린다키티스크, 하틴스크, 크라이네예, 하프타가이·하야, 파르트, 튄구스크, 가가르스크, 삼니젤노예, 레베지노예, 마스타흐, 에미시, 에멜리야노프스크 매장지, 탈랄라흐스키 광석 지구, 피즈쿨뚜르나야 지층 등을 포함한 20개의 금 광석 매장지와 3개의 복

합매장지(아길킨스크, 킴, 일린타스 매장지), 579개의 사광상 매장지 등은 미할당 지하지층에 속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은: 야쿠티아내 은 무기물화 작용이 이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주로 야쿠티아의 동부지역과 북극권이며, 이곳에서는 은 매장지뿐만 아니라 복합매장지들도 집중되어 있다. 야쿠티아내에서 탐사된 은 매장량과 추정된 은 예상 자원매장량은 모두 야노 인디기르스카야 금속 형성지대에 위치한 야노 아디찬스키, 베르흐네인디기르스키, 알라흐·윤스키 지구와 유즈노야쿠트스키 지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관련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전략적으로나 혹은 부수적인 매장지로서 고려되고 있는 매장지들은 프로그노즈, 베르흐네멘케첸스크, 네취다닌스크 쿠라한스크, 일린타스, 아길키, 사릴라흐, 센타찬 매장지 등을 포함한 33개 매장지이다. 은 매장량의 주요 부분은 프로그노즈(43%), 네취다닌스크(19.8%) 매장지들에 분포하며, 이 매장지에서는 은이 주요 금속원소이거나 동반 함유 금속원소이다. 이들 매장지와 함유량, 매장량, 부존자원 면에서 유사한 매장지는 화산 및 하위 화산 지형구조가 발달된 대지(타린스키 광석지구 내 매장지와 광석 분포지)에 있는 금·은 지층계통 매장지들이다. 또한 은 함유량이 그리 높지 않은 다량의 광석들이 쿠츠크스 매장지에 집중되어 있다. 은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매장량을 몇 배 정도 상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야쿠티아 동부지역은 예상되는 은 잠재력의 규모 면에서 희귀한 은 매장지대로 간주되고 있다. 이 자원에 대한 예비 매장량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장지들은 최근 15년 동안에 발견되어 매장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매장지로는 추가적인 탐사활동 진행이 요구되는 야노 아디찬스키 지질경제 구역 내 은 매장지들(스레드네·닐게신스카야, 세베로 티레흐짜흐스카야, 제르베케·닐게신스카야, 탐포·질리닌스카야 지구)이 있다. 사하공화국 내의 은 채굴량이 증가할 전망은 향후 현재 1차적으로는 네취다닌스크 매장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금 광석(은이 동반 금속원소로 포함) 채굴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고, 미개발된 아길킨스크 구리·텅스텐 매장지 및 일린타스크 주석·텅스텐 매장지를 채굴작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신규 은 매장지 혹은

은 함유도가 높은 매장지(프로그노즈, 베르흐네멘케첸스크, 쿠빨노예, 만가제이스크 매장지 등)를 개발 및 채굴하는 작업을 준비할 것인지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백금: 야쿠티아 지역에서 백금은 금·은에 비해 적게 분포되어 있다. 산업적 매장지는 남부 야쿠티아의 쟈프랄노·알단스크 금 분포 지구 내 이나글리 백금 사광상 매장지가 유일하다. 이곳에서는 약간의 백금을 함유한 일련의 백금사들이 발견되었고, 주요 유화물화 암반층 지괴와 연대가 일치하는 소량의 백금 분포지(1톤당 1~2g 함유)도 발견되었다. 현재 개발 중인 매장량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백금 자원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이다. 최근 들어 탄소 흑편암 퇴적층에서 새로운 타입의 백금 무기물화 작용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과 관련하여 동부 야쿠티아의 육성 퇴적물 탄소층에 위치한 금 광석 매장지들(네쥐다닌스크, 큐추스, 바드란, 간·안드레예프스크 등 매장지)이 백금군에 속하는 금속의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매장지의 광석들을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의미를 가질 만한 수준의 응축광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부 야쿠티아 빌류이 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몇 개의 개별 구역 내 지층에서는 백금 함유도(1m³당 0.5g 함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백금 매장지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한다면, 조만간에 백금 채굴을 위한 안정적인 원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금강석: 금강석의 원료 기반은 사하공화국 서부의 야쿠티아 금강석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의 금강석 지대는 90만km² 이상의 면적을 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금강석 매장지로는 말라·바투아빈스키, 달디노·알라키토스키, 무노·툭스스키, 스투드네·마르힌스키, 프리렌스크, 아나바르스크 지구 등을 들 수 있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검토된 금강석 매장량의 대부분은 주요 매장지(93.6%)에 집중되어 있고, 단지 소량의 매장량만이 사광상 매장지(6.4%)에 부존되어 있다.

금강석의 매장량 및 채굴량 면에서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금강석 채취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하공화국의 주요 산업부문이다. 사하공화국 관련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

(2009년 1월 1일)에서는 44개(15개는 주요 매장지, 29개는 사광상 매장지)의 금강석 매장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중 금강석 매장량의 81.7%를 점하고 있는 25개의 매장지가 할당된 지하지층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하공화국의 금강석 채굴산업은 말라·바투아빈스키, 달디노·알라 키트스크 매장지 및 아나바르스키 지구 내 매장지들 등과 같은 주요 매장지 및 사광상 매장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또한 프리렌스크 금광석 지구에서 소량의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당된 지하지층에 속해 있는 주요 매장지로는 미르, 인테르나찌오날나야, 자르니짜 우다츠나야, 아이할, 유빌레이나야, 콤포몰스카야, 뉴르빈스카야, 바투아빈스카야 매장지들이 있고, 사광상 매장지들로는 레보베레쥐나야(이렐라흐 강 중류 위치), 살루르·바스토취나야, 빌라흐, 마르가고르, 마야트, 하라 마스, 탈라흐타흐, 이스톡, 할라말로흐, 53번 개울, 몰라다, 마포르추나 매장지 등이 있으며, 수로 분기점에 분포한 자갈에도 사광상 형태로 금강석이 존재한다. 또한 뉴르빈스카야, 바투아빈스카야 매장지들과 기술적 매장지들(광물 가공 후 발생하는 폐기물 저장소, 광물 찌꺼기를 더미형태로 모아두는 곳, 사광상에 축적된 모래펄 등을 지칭)에도 사광성 매장지가 있다.

생산할 수 있는 금강석 매장량의 18.3%는 국가 소유로 남아 있는데, 이 매장량은 타요쥐나야, 스푸뜨닉, 시티칸스카야, 크라스노프레센스카야, 유빌레이나야(깊은 지점), 노빈까, 자빨랴르나야, 뽀이스코야바 등의 매장지와 말라야 바투오비아 강, 자칸뚜르나야, 피라뽀브이 개울, 구시느이, 에벨라흐, 올라흐·무나, 에네르텍스키 준설 작업장 등의 사광상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금강석 채굴기업인 (주)알로사와 그 자매회사인 (주)알로사·뉴르바가 채굴 및 선광 작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5개의 광업 콤비나트를 가동하여 사하공화국에서 채굴되는 금강석 총량의 96.3%를 채굴하고 있다. (주)니즈네·렌스키, (주)알마직 아나바라 등 다른 지하지층 사용자들이 금강석 총채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이하이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하공화국 내 전체 탐사 매장량의 사용연한은 지금과 같은 채굴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25~30년 사이가 된다. (주)알로사가 보유한 광물자원 기반의 사용연한은 20년 이상이

되지만, 회사의 일부 소부문 사업장에서는 노천 채굴작업을 할 수 있는 매장량의 사용연한이 2~5년 수준인 곳도 있다. 그 외에도 개발에 대규모 자금 지출이 요구되는 우다츠나야, 미르, 아이할 금강석 매장지들의 지하 부분에 원료 기반의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알로사·뉴르바 사가 보유한 매장량의 사용연한은 20년 이상이고, (주)니즈네·렌스키가 보유한 여러 매장지의 사용연한은 14년에서 47년으로 다양하며, (주)알마직 아나바라의 경우는 매장지 사용연한이 13년이다. 현재 주요 매장지들에 상당한 양의 금강석 매장량이 있기는 하나, 생산력이 있는 구역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의 보유 매장량 사용연한과 관련된 문제는 난제 중 하나이다. 말라·바투아빈스키, 달디노·알라키투스키 금강석 지구 내의 금강석 원료 기반은 장기간의 생산작업으로 인해 상당히 고갈되어 있다. 금강석 채굴 회사인 (주)알로사는 주요 매장지들(미르, 아이할, 우다츠나야, 인테르나찌오날나야)에서 노천 채굴의 한계 깊이에 이미 도달했고, 이는 대규모 자금투자가 요구되며 수익성 및 채굴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광업적·지질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하 채굴로 작업 방식을 전환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라·바투아빈스키 및 달디노·알라키투스키 금강석 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광물 자원에 대한 개발기반은 신규 금강석 매장지 개발을 통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야쿠티아 금강석 지대의 장래성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인 편이나 예상 자원 잠재력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흑운모를 함유한 감람암, ‘김버얼라이트’) 지대 경계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며, 이 경계 바깥 지역은 탐사에 어려운 지질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상 자원잠재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술활동 및 지역탐사기술의 개선, 광산 작업 및 굴삭작업의 확대, 금강석 광석의 가격 인상 등이 요구된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시기의 사하공화국내 금강석 지질탐사작업은 순전히 지하지층 사용자의 자금으로만 이루어졌고, 2007년이 되어서야 연방 예산으로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2007~08년간 연방 예산자금으로 수행된 작업을 통해, 금강석 매장 유망지로 평가되던 알레빅스크 용기지에 금강석이 사광상으로 부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희귀금속(니오브 등 지구상 희귀 금속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검토된 야쿠티아 내의 니오브·희귀금속 매장지는 탐토르스키 매장지인 곳이다. 이 매장지는 국가가 예비로 남겨 놓은 매장지이다. 현대의 경제적 조건과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탐토르스키 매장지만이 산업적 사용에 유망한 매장지라고 여겨질 수 있다. 매장지에서 지하자원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부분(부란노이 지구)은 이미 탐사가 되어 러시아연방 국가 지하자원 매장량 위원회에서 그 매장량을 승인받았다. 탐토르스키 매장지는 자원의 매장량, 자원잠재력, 지하자원 함유량, 기술적 특성 등의 면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곳이다. 이 매장지의 산업적 범주에 속하는 오산화 니오브 매장량은 89만 6,600톤이며, 해외매장량의 17.75%에 해당하는 양이다.

실리그다르 매장지의 인회석 광석 속에 동반 함유 금속원소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들도 희귀금속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외에 희귀금속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매장지로 꼽히는 곳은 쿨라르스키 금 지구 내의 희귀금속 및 금 복합 사광상 매장지이다. 현재 야쿠티아에서는 희귀금속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금속 지하자원: 야쿠티아 내에는 많은 종류의 비금속 지하자원 분포지가 알려져 있다. 현재 시멘트 원료, 석고, 건축용 석재, 유색 석재, 불석, 압연 등 건설용 제재가 부존된 여러 매장지들에서 생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회석, 흑연, 질석 매장지들은 산업적 개발에 착수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질학적 가정에 따르면 칼리소금, 석면, 마그네사이트 분포지도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탐사지역 내 분포된 지하자원 매장지들의 산업적 개발은 현재까지도 미미한 수준이다. 주로 사암·자갈 및 사암·자갈·쇄석 혼합물, 건축용 모래 등이 부존된 매장지들이 개발되어왔는데, 이들 제재는 자동차 도로 부설이나 보수, 공장부지의 건축, 콘크리트 및 건축용 혼합용액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매장량의 탐사 및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다수의 매장지들에 대한 개발은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고 있거나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야쿠티아의 지하자원 매장지 및 분포지의 개수는 1,038개이다. 이 중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상에서 탐사되거나 고려되고 있는 매장지는 204개이다.

건설용 제재에 대한 지질탐사작업량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베르카리트·탐모트·야쿠츠크 간 철도노선의 건설, 탈라칸스키 석유 가스 응축물 매장지의 개발, 도로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용 석재, 사암·자갈 원료, 모래 등과 같은 도로 건설 및 건축용 제재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탄 매장지 자원 기반에 관한 전반적 평가

극동지역의 석탄 채굴은 현재 사실상 모든 연방 행정구역 내의 17개 대형 석탄 탄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아무로·제이스키, 아나디르스키, 아르카갈린스키, 베링고프스키, 비키노·우수리스키, 부레인스키, 자파드노·캄차트스키, 지랴스키, 렌스키, 오호트스키, 파르티잔스키, 라즈돌넨스키, 사할린스키, 스투드네·아무르스키, 우글로프스키, 한카이스키, 유즈노야쿠트스키 탄전들이다. 채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12개 지구의 석탄 채굴 총량은 연간 2,500만 톤이며, 이는 전 러시아 석탄 채굴량의 대략 12%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러 평가 결과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석탄과 관련하여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하는 매장량 및 예상 자원매장량은 전 러시아 매장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탄전에 위치한 전통적 매장지들이 2020년까지는 계속해서 주요한 석탄 채굴구역의 지위를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사하공화국에서는 지랴스키, 렌스키, 유즈노야쿠트스키 등 3개의 대형 석탄 탄전이 알려져 있으며, 이 탄전들에서는 석탄 및 갈탄의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매장지들에 부존되어 있는 총매장량은 580억 톤이다.

석탄

야쿠티아 내에서 산업적 규모의 석탄 매장량이 존재하는 유망 지역의 면적은 약 70만km²이다. 이 지역은 렌스키 탄전의 주요 부분, 통구스키 탄전 동부, 유즈노야쿠트스키 탄전, 지란스키 탄전, 사하공화국 북동부의 분산된 개별 매장지들을 포함한다. 야쿠티아에서 발견된 석탄 매장지 및 분포지의 총개수는 900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매장지 및 분포지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수준은 동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관련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는 88개 석탄 매장 지구를 통합한 결과로 나타난 48개의 매장지가 고려되고 있다. 이 매장지들의 현황상 매장량은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00~350m 깊이까지의 지층 매장량을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야쿠티아 내 산업적 범주에 속하는 석탄의 총매장량은 970억 톤이며, C2 범주에 속하는 자원의 총매장량은 460억 톤이다. 석탄의 사용분야는 그 석탄의 규격 성분으로 결정되는데, 야쿠티아산 석탄의 규격 성분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탐사된 석탄 매장량의 주요 부분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나뉜다. 기름 함유(Ж)-31.6%, 코크스용(К)-26.5%, 코크스용 대형(К кокс)-18.9%, 기름 함유 코크스용 대형(КЖ-Кокс)-17.2%, 기름 함유 코크스용(КЖ кокс)-13.4%, 장시간 연소됨(Д)-8.3% 등과 같이 분류된다. 나머지 석탄 매장량은 전체 매장량의 1~3%를 구성하는 다른 규격으로 분류된다. 산업적 총매장량 중에서 석탄은 54.37%를 차지하며, 갈탄의 비중은 45.63%이다. 16개의 매장지(32개 지하지층구역)가 할당된 지하지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 매장지들은 사하공화국 내 총매장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중인 석탄 채굴기업들의 탐사 매장량 사용도는 야쿠티아 전체적으로나 개별 기업적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로 꽤 높은 수준이다. 네룬그리스키 구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곳의 노천 채굴작업 가능 매장량은 2억 톤인데, 이미 채굴된 양을 고려할 때 향후 20년간 생산이 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실행된 지질탐사작업 결과, 네룬그리스키 매장지의 측면 및 지하 지층에 매장된 석탄의 산업적 규모가 확인되었고, 그 외에 실라흐스키 매장지의 석탄 매장에 관한 산업적 매개변수, 구빌그린스카야 및 가남스카야 함몰지의 석탄 매장 사실, 알다카이스카야(베르호네알다카이스카야) 함몰지의 산업적 규모의 석탄 매장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사하공화국의 석탄 채굴산업계는 탐사된 석탄 매장량 전체의 겨우 6.4%만 개발하고 있다. 국가 지하자원 현황 문서에서 고려되는 매장량의 상당량은 하위그룹 'a'에 속해 있는 비축용 매장지(38%), 기타 다른 매장지와 구역(41.5%) 등에 부존되어 있으며, 탐사활동에 유망한 매장지(10.3%)에 부존되어 있는 비중은 근본적으로 더 적다. 탐사 중인 구역에는 매장량의 1.5%가, 하위그룹 'b(6)'에 속한 비축용 매장지에는 매장량의 1.2%가, 건설 중인 채굴장에는 매장량의 1.1%가 부존되어 있다.

연해주

석탄 매장지에 부존된 총매장량은 대략 9억 9,500만 톤이다.

하바롭스크 주

하바롭스크 주에서 석탄 채굴에 유망한 곳은 부레인스키, 스투드네·아무르스키 매장지들과 오호트스키 광물 매장지대의 매장지들이다. 매장지들에 부존된 총매장량은 약 80억 톤이다.

아무르 주

이 지역에서는 라이치힌스키, 아르하로·바구찬스키, 이르카베즈코예 및 스바보드넨스키, 아가진스키 매장지들이 알려져 있으며, 그 총매장량은 1억 4,000만 톤이다.

마가단 주

마가단 주 내에서는 확인된 총매장량이 도합 약 3,000만 톤인 몇 개의 매장지가 알려져 있다.

유대인 자치구

스레드네·아무르스키 석탄 매장지대에 위치한 우수문스크 갈탄 매장지가 있으며, 이 매장지의 예상 자원매장량은 2억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할린 주

사할린 광물 매장지대에 위치한 손쨤프스키 매장지는 주로 노천 채굴에서 유망할 것으로 평가되며, 그 석탄 매장량은 3억 6,4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

자치구 내 주요 매장지의 총매장량은 약 5억 1,300만 톤이다.

캄차카 주

3개 매장지(크루토가로프스키, 티길스키, 카르파브스키)의 총자원매장량은 1억 5,000만 톤 이상이다.

라)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탄 채굴 및 광산 산업의 투자

아시아지역에서 자원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러시아 동부지역의 복합적 발전에서 흔치 않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금의 러시아 동부지역은 정부보조금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거주인구의 대규모 이탈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지하자원 보유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백금류 금속 매장량의 약 90%, 니켈과 구리의 70%, 석탄의 70%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탄화수소 및 광물 자원들이 부존되어 있다. 러시아 내 수력 에너지 자원의 80%가 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활용 잠재력은 엄청나다.

동시베리아는 가장 전도 유망한 소비시장인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대중국 수출품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측면에서 동시베리아를 위협할 경쟁자는 없다.

동시베리아의 거대한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반시설의 발달이 미흡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서는 대형 투자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장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러시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송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대외 수출규모를 확대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것은 1차적으로 철도 및 항만 시설의 발전과 관계되어 있다. 러시아 동부 항구들의 화물통과능력은 연간 1억 2,000만 톤 수준인데, 수출 물동량의 취급능력은 7,000만 톤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철도망에 존재하는 병목구간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러시아 철도공사는 2015년경 병목구간의 연장이 1만 3,300km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부 항구 방향으로 향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화물 통과능력도 그리 크지 않으며, 연간 6,000만 톤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 외에 향후 러시아 내 석탄 채굴업이 발달하고 석탄 수출이 증대되면(2030년까지의 러시아 신에너지전략의 일환) 나라 안의 철도망에 또 다른 병목구간이 생길 것이다.

러시아 철도공사가 동시베리아 내 코크스 석탄 매장지 및 기타 다른 자원매장지들까지 철로를 부설하려면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 내의 장기 투자 자금원의 부재와 잠재적으로 높은 자금 용자 이자율(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10년 만기 자금 용자에 대한 이자율은 중국에서보다 3배가 높은 수준이다) 등의 요인은 수송부문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뿐만 아니라 금속 및 지하 자원 채굴과 관련된 대형 장기 프로젝트의 수행 가능성에도 상당한 제한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발전전략에 따르면, 현재 야쿠티아 경제의 주요 산업부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여건들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주요 산업부문은 금강석, 금, 주석, 석탄, 천연가스 등의 채굴과 다이아몬드 보석 세공 등이다.

금강석 채굴산업은 현재 사하공화국 경제에서 주력 산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야쿠티아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광산 건설(미르, 아이할, 우다츠나이 지구) 작업과 금강석 채굴기술의 현대화는 앞으로 금강석 채굴업의 안정적 조업을 보장해줄 것이며,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해줄 것이다.

사하공화국 정부는 지역경제에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투자전략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사하공화국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각종 표준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투자활동 지원방향 중 하나는 투자인프라의 조성인데, 이는 (주)야쿠티아 벤처회사, 기존 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투자자금, (주)공화국 투자회사, 사하공화국 민관 파트너십 발전센터 등과 같은 지역적 발전기구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를 상대하는 업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투자자에게 원스톱 정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유치청이다. 투자활동을 지원해주는 법적 기반의 형성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사하공화국 내 투자활동에 관한 법」의 개정판이 마련되었으며, 이 법은 투자활동 수행 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투자프로젝트와 관련된 논의 및 의사결정에서 공개성 및 개방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자제도상의 지원 제공, 세제 혜택 혹은 투자에 대한 세금 융자 제공, 국가의 보증 제공, 부동산 부지 제공 시 혜택 제공,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건설에 참여, 정보적·방법론적·조직적 도움의 제공 등이다. 투자환경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투명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하공화국의 민관 파트너십 기반시설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어 승인되었다. 이와 같이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투자정책을 규율하는 전략적 계획의 체계가 형성되어가는 중이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투자전략과 함께 투자 비망록도 작성되었다.

52개의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이 시작되었으며, 이미 사실상 12개 프로

젝트의 시행은 끝났다.

천연자원의 부존량 및 가동 중인 기반시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남부 야쿠티아에서는 이미 석탄, 철광석, 우라늄 광석의 채굴 및 선광 작업과 화학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산업 지구가 형성되고 있다. 야쿠티아 북동부의 클러스터는 비철금속 및 희귀 금속의 채굴과 가공분야에 특화될 것이다. 야쿠티아 중앙부에는 수송 물류 분기점, 과학교육 복합단지 등이 조성될 것이며, 금강석 및 귀금속 생산시설의 개발도 계획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투자에서 유망한 측면도 있다.

마) 국가 정책

2012년 극동 및 바이칼호 인근 지역 발전기금에 관한 공식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 기금의 조성은 대외경제은행 감독 이사회가 승인하였다. 아직까지는 이 기금의 전체적인 작동 메커니즘만이 승인된 상태인데, 이에 따르면 기금의 주요 활동방향은 지역 내 투자활동의 발전에 초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외경제은행은 상업적 재원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미 잠정적으로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준비하였으며, 그 중 주요한 것은 기간시설 관련 프로젝트, 가공산업분야 프로젝트, 광업 콤비나트의 건설 혹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야금산업 프로젝트 등이다.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최소 자금지원액수는 5억 루블이 될 것이다.

극동에서 활동하는 광업회사들은 지하자원 채굴에 대한 세금납부를 면제받거나 다변화된 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채굴비용은 러시아 내 다른 지역에서보다 현저하게 높다. 극동 연방관구 내의 상황이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들간에는 생산활동에 쓰이는 비용 액수가 서로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이따금씩 있다.

극동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우선적 혜택 및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 무엇이든지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극동 개발에 관한 연방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유경제구역을 만들 필요도 있다. 관세율에 변경을 가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장비의 반입 시에는 세율을 0%로 적용하고,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올리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극동의 에너지 및 수송 관련 요율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요율을 러시아 평균 수준으로 묶어 두도록 해야 한다.

투자된 자금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정작업을 가하여 그 중 우선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한 발 앞선 빠른 템포로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반시설들의 건설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며, 생산 수단을 발전시키는 일은 민간자본이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것이 민관 파트너십의 요체인 것이다. 기업들은 도로 건설비용이 자원 매장지 개발 비용보다 5배나 비싼 그런 황량한 곳에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송 및 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너지·연료 자원 및 야금 분야의 프로젝트 실현에는 대규모 자금 투자, 장기간에 걸친 협력, 안정적인 투자환경,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활동 조건 등이 필요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은 투자 전권 대표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먼저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의 개선을 통하여 민간의 투자자금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조건과 촉진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만일 바로 지금 이 문제의 해결책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선언된 많은 투자프로젝트들의 시행기간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극동지역의 모든 사회·경제적 기간시설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극동 연방 관구의 투자환경 개선을 보증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적 장벽의 타개, 선별적인 세제 혜택 제공,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 제공,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적 보조 제공, 외국인투자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기관 설립(행정부에 소속된 기관) 등과 같은 모든 조치들은 극동지역에서 전개되는 외국계 회사 및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바) 투자와 투자프로젝트

미래에 극동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투자프로젝트들은 충분히 많다.

아무르 주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3개의 구역이 조성될 것이다. 바이칼·아무르 철도망과 연결되는 천연자원 구역, 아무르 강 연안의 농업·산업 구역(광업·야금 복합단지의 발전 전망도 있다) 등이 그것이다. 스바보드넨스카야 우주 구역 등이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컴퍼니 그룹은 아무르 주의 쿠라나흐스크 및 가린스크 철광석 매장지와 유대인 자치구의 킴칸코·수타르스크 매장지를 기반으로 광석에서 시작하여 선철(주철)까지 모든 생산주기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광업·선광 복합단지 및 광업·야금 콤비나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설비 생산능력에 도달했을 때의 총추정산출량은 연간 철광석 제품으로 960만 톤이 될 것이다. 아무르 강 연안에 야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는 1,000억 루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수의 국제적 기업들이 광산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심은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증감 상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극동에서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6억 달러에서 99억 달러로 16.5배가 증가하였다. 지난 연도의 실적을 보면 극동 연방 관구는 동일한 지표로 측정해봤을 때 8개 연방 관구 중 4위를 점했다. 주민 1인당 외국인투자액에 관한 상대적 지표로 봤을 때 극동지역은 1,576달러를 기록하여 연방 관구 중 중앙 연방 관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외국인투자액의 93%(93억 달러)의 투자액은 지하 자원 채굴 등 자원개발부문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3,000억 루블의 자금을 지질탐사 및 광물 원료가공기업 설립에 투자할 것이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은 기간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다. 바이칼·아무르 철도의 화물통과능력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동부지역 항만의 작업수행능력을 함께 증대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이칼·아

무르 철도망에 접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은 자원이 생산활동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러시아 동부에 새로운 경제발전지대가 형성되도록 해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실현되었거나 계획 중인 투자프로젝트들의 시행과 대형 화물 발송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 바이칼·아무르 철도로 향하는 화물의 운송량은 2015년경에 5,200만 톤이 될 것이며, 2030년 이전에 1억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바이칼·아무르 철도 연간 화물통과능력은 1,250만 톤이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서는 일본, 한국, 인도, 캐나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합작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합작기업들의 주요 활동 방향은 지하자원(석탄, 금, 석유, 가스 등)의 채굴이다.

- 사하공화국(야쿠티아)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 「남부 야쿠티아의 복합적 개발」 투자프로젝트
 - 각종 산업시설의 설계와 건설
 - 엘칸스크 광업·야금 콤비나트(우라늄 광석의 채굴 및 선광)
 - 남부 야쿠티아 광산·야금 연합(철광석의 채굴 및 가공)으로 분류된 타린나흐스크 및 타요쥐느이 광업·선광 콤비나트
 - 실리그다르스크 광업·화학 복합단지(인산 비료 생산)
 - 이나글린스키 석탄 복합단지(코크스 농축광 생산)
- 서부 야쿠티아 클러스터의 프로젝트
 - 지하 탄광의 건설 및 (주)알로사에 의한 새로운 매장지 개발
- 동부 야쿠티아의 프로젝트
 - ‘베르흐네멘케첸스키’ 납·아연 매장지의 개발
 - 네쥐다닌스키 금 매장지의 개발

남부 야쿠티아의 초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7개의 대형 산업시설물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그것은 1,000MW의 발전량을 가진 칸쿤스카야 수력발전소, 엘칸스크 광업·야금 콤비나트(우라늄 광석의 채굴 및 선광), 남부 야쿠티아 광산·야금 연합(철광석의 채굴 및 가공)으로 분류된 타린나흐스키 및 타요쥐느이 광업·선광 콤비나트, 이나글린스크 석탄 복합단지(코크스 농축광 생산), 실리그다르스크 광업·화학 복합단지(인 함유 광석 채굴 및 인산 비료 생산) 등이다. 이에 필요한 도로 및 에너지 기반시설들

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남부 야쿠티아에는 민관 파트너십의 원칙에 따라 수력발전, 석탄·우라늄·철광석·인회석 등의 채굴 및 가공, 가스화학 생산시설의 건설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형 산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네룬그린스크 구역에 위치한 엘긴스크 매장지 개발은 거대하고 복합적인 지역간·산업부문간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 채굴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수송망, 에너지 관련 시설, 기타 수반되는 기반시설들의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2018년경 엘긴스크 매장지의 석탄 채굴량은 연 1,8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하공화국 북동부의 개발작업은 광산 채굴산업의 주요 중심지(바타가이 마을, 우스찌·나라 마을 등)에 집중될 것이다. 우스찌·얀스크 구역에서는 2015년부터 주석 채굴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6,000톤의 주석을 채굴한다는 두 가지 계획이 고려되고 있다.

경제 현대화의 첫 번째 단계에서 유대인 자치구의 성장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킴카노·수타르스크 철광석 매장지 개발프로젝트와 이 매장지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인 광업·선광 및 야금 콤비나트 건설프로젝트이다.

유대인 자치구에서 실행 중인 우선적 투자프로젝트는 철광석 매장지 개발 및 광업·야금 콤비나트 건설과 관련을 맺고 있는 통합적 생산·수송 구역의 조성에 관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료 생산기반지는 쿠라난스크 및 가린스크 철광석 매장지들(아무르 주), 발쇼이세임에 위치한 일메니타보예 및 마그네티토보예 매장지들(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구의 킴칸스크 및 수타르스크 철광석 매장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영 콘체른 페트로파블롭스크는 아리콤사와 (주)루비콘을 대표 회사로 내세워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현재 「광업·야금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실현에 32억 루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설계 및 탐사 활동에 3억 8,900만 루블이 사용되었다.

유대인 자치구 안에 광업·야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일은 킴칸스크 및 수타르스크 철광석 매장지 개발, 철광석 원료의 가공,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수송 및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등과 연관되어 있다. 킴칸스크 및 수타

르스크 철광석 매장지는 유대인 자치구 아블루첸스크 구에 위치해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와도 가깝다. 킴칸스크 매장지는 철도와 4km 거리에 있으며, 수타르스크 매장지는 26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철도망과 가깝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 실행에 필수적인 수송 기반시설 조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투자액의 절반 가량은 자원매장지의 개발에 투입될 것이며, 나머지 투자 예산은 생산기금이나 가공산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개발작업으로서 구상되고 있는 것은 두 매장지의 동시개발(연간 광석 채굴량 1,650만 톤의 노천 채석장 건설), 매년 광석 1,500만 톤과 철 함유도 65%의 농축광 557만 3,000톤을 가공·생산할 수 있는 킴카노·수타르스크 광업·선광 콤비나트 건설, 그리고 선철을 생산하는 극동 야금 콤비나트의 건설 등이다. 콤비나트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의 총액은 약 229억 루블이며, 극동 야금 콤비나트의 가치는 146억 루블이다.

킴칸스크 및 수타르스크 매장지 외에도 국영 콘체른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의해 유대인 자치구의 아블루첸스크 구에 위치한 카스텐긴스크 철광석 매장지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 매장지의 생산량은 2015년에 설비 생산량 수준으로 증대될 계획이다. 이 매장지의 깊은 지층 속(깊이 600m 까지)에 부존되어 있는 예상 자원매장량은 1993년 1월 1일 현재 1억 톤으로 추정되었고, 2008년에는 지질탐사작업이 시작되었다. 광산 채굴기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은 2013년으로 계획되었다. 2014년에는 광산 채굴기업이 조업에 들어갈 것이며, 2015년에는 이 광산 채굴기업의 생산량이 설비 생산량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극동 야금 콤비나트

킴칸스크, 수타르스크, 카스텐긴스크 매장지들(철의 함유량이 낮고 항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에서 나는 광석과 가린스크 광업·야금 복합단지에서 반입되는 철광석 농축광의 가공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하기 위해 압연강재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선철(연 200만 톤 규모 생산) 등과 같은 고도의 정련제품 생산이 계획되고 있다.

극동 야금 콤비나트의 건설은 광물원료 기반의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판매시장이 될 수 있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다. 극동 내에서는 콤소몰스크나야무레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을 주가공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주)아무르메탈이 콤비나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주)아무르메탈이 운영하는 공장의 현재 생산능력을 고려하면, 광업·야금 복합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주)아무르메탈에서 70만 톤 정도 소비가 가능하다.

유즈노힌간스크 망간 광석 매장지와 사유즈넨스크 흑연 매장지가 가진 잠재력은 유즈노힌간스크 산업지대에 광산·채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산업지대의 발전은 원료자원(망간 및 흑연 매장지) 기반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국제적 교통거점이 근거리의 아무르 제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즈노힌간스크 망간 광석 매장지의 개발은 (주)헤멘-달리니 바스토크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힌간스크 광업·선광 콤비나트의 주석 채굴 재개 프로젝트 및 유즈노힌간스크 망간 원석 매장지의 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유즈넨스크 흑연 매장지를 개발하고 수할석 매장지를 기반으로 하는 금속 마그네슘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광업·채굴 클러스터의 조성작업을 계속하는 것과 주 내에 탄화수소원료 채굴장을 만드는 것 등이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즈노힌간스크 산업지대가 형성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산업지대는 현재 조성 중인 캄칸코·수타르스크 산업·수송지대를 생산량 면에서 능가하게 될 것이다.

4)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극동 연방 관구 내 지역경제에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규모는 2012년 9달의 기간 동안 1.3배가 증가한 113억 2,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극동 연방 관구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결과를 보면, 사할린 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할린 주로 유치된 외국인투자액은 85억 4,100만 달러로, 극동 연방 관구에 들어온 외국인투자 총액의 75.4%를 차지한다. 연해주에 유치된 외국인투자 규모는 5억 3,060만 달러로 2011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극동 연방 관구 내 경제활동분야 중 외국자본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은 지하자원 채굴로서 총 103억 4,200만 달러 규모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는 연방 관구 내 유치된 전체 외자총액의 91.3%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할린 주, 아무르 주,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유대인 자치구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연해주 경제에서는 금융분야 회사에 대해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82%)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 연방 관구에 자금을 투자하는 주요 투자국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67억 6,600만 달러, 룩셈부르크- 12억 5,500만 달러, 키프로스- 9억 5,320만 달러, 일본- 6억 2,430만 달러, 바하마 군도- 6억 80만 달러 등.

주요 문제점들

- 투자환경이 아직은 충분히 좋다고 볼 수 없다.
-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활동여건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 각종 허가문서의 수가 많아 러시아에서 이를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 감독기관들이 조업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화물의 통관수속이 오래 걸린다.
- 러시아 비자 신청 수속이 오래 걸린다.
-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공동자금이 유용·착복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반드시 있어야 할 보호조치가 부재하다.
-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대차대조표에 포함시켜 자본화시키는 회사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 러시아의 특허권 법률은 취약하다.
- 유능한 인적 자본이 부재하며, 기간시설의 제한성이 존재한다.
- 러시아 극동의 프로젝트 실현을 지휘할 수 있는 정상급 경영자가 부족하다.
-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기간시설을 국가에서 조성해주는데, 러시아

에서는 사회적 기간시설 조성을 투자자에게 전가해버린다.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

- 국가정책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
- 극동과 바이칼 지역의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지역을 위한 특수한 세금·통관·인허가 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관 파트너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 투자위험도를 낮추고,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의 국가권력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행정적 지원방법이 지방 법체계 속에서 명시·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 투자환경 개선과정을 관리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조직들을 통합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 현재 기간시설들의 한계를 조속히 극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송 및 전기 에너지 부문이 가장 시급하다.
- 행정적 장벽들을 최소화하고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가 보기에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운영규칙 및 투자 관련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 지역 내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 지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러시아 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야 한다.

투자자 측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 러시아산 천연자원의 채굴 및 수출 관련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국한시키지 않아야 한다.
- 자원탐사작업과 신규 매장지 개발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 혁신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내 매장 지하 자원을 고도로 가공할 수 있는 신규 생산시설 조성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 최신 기술과 현대적 장비를 도입·사용해야 한다.
- 지역의 기술자 인력 및 경영자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러시아 측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 호혜적인 기반에서 선진적 생산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시켜 주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연방 수준에서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기반을 둔 투자 전권 대표 제도가 만들어졌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 제도는 연방 관구 및 러시아연방 각 행정구역 수준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투자 전권 대표의 주요 수행 과제는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부 전권대표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는 미래에 투자자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들을 사전에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 전권 대표는 투자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불완전한 법규로부터 초래된 것이라면, 그 법적 규범의 수정을 위한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가 옴부즈맨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권력기관에 있는 관료들의 불법적 활동 여부를 검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권 대표 행정조직의 지원하에서 전권 대표는 관료들이 투자자들의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주고 이를 타개해주는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투자자로부터 문의를 받게 되면, 전권 대표는 투자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하며, 권리 침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해낸 다음 검토 중인 문제가 행정기구 내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공식 우편서한, 팩스, 전자적인 통신채널 등 편리한 수단을 통해 전권 대표에게 투자이슈들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기간시설의 부족을 포함하여 투자활동상에서 발생하는 불이익(결함)에 대해서는 연방법상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활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투자 전권 대표뿐 만 아니라 국가 입법 및 행정 기관들에게도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2. 농업

1) 개요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이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163만 8,520ha이다. 야쿠티아 영역의 2/5 이상은 북극권 너머에 위치해 있다. 농촌인구 비율은 35.4%이다.

2002년을 시작으로 이 지역의 농촌은 목적지향적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 사하공화국의 전통적 부문들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말의 두수는 13만 4,000두에서 17만 1,000두로 증가했고, 순록 두수는 18만 2,000두에서 19만 6,000두로 증가하였다.

2011년 결산에 따르면 야쿠티아는 극동지역에서 가장 많이 우유를 생산하는 곳이며(18만 5,600톤), 사업장 내 모든 범주에서 뿔 있는 대형 가축의 두수 면에서는 23만 3,600두를 기록했다.

야쿠티아는 농업제품 총생산 면에서 190억 7,729만 루블 상당을 기록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육류 생산(도살된 가축 및 가금류의 생전 무게) 면에서 3만 9,000톤을 기록했다.

하바롭스크 주

농촌 거주인구 비율은 18.2%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60만ha 이다.

역사적으로 하바롭스크 주는 농업으로 특화된 지역은 아니다. 주민 1인당 경지면적은 0.08ha이며, 러시아 평균인 0.72ha와 비교하면 9배나 적다. 토지 개량을 거친 경작지의 비율은 30%이다. 새로운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된 토지를 유지·관리하는 것 모두 많은 비용의 지출이 요구된다.

하바롭스크 주는 역내 수요를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충당하고 있다. 감자의 경우 지역 내 생산이 96.5%를 차지하고 있고, 야채 및 참외류의 경우 37%, 육류 및 육류 제품은 21.1%, 우유 및 유제품은 17.8%, 계란은 81.2%를 역내 생산품으로 충당한다.

연해주

농촌 거주인구의 비율은 24%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115만ha로, 이 중 66만 9,700ha(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 총면적의 58.3% 차지)가 경지이다. 2011년 파종지 면적은 34만 800ha이다.

연해주의 모든 지역에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생산량의 대부분은 남부 및 남서부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참외, 가지, 고추 등 호온성 식물을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종류의 경작 식물재배에 좋은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 육류 및 유제품을 생산하는 축산업, 우리를 사용하는 모피 동물 사육, 사슴(얼룩 반점이 있는) 사육, 양봉업 등도 발달되어 있다.

농업제품 총생산액은 시가로 따졌을 때 최근 6년간 3배 증가하여, 2011년에는 281억 루블을 기록했다. 이는 이 지역 총생산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생산품의 비중은 축산업 제품이 33.4%를, 농업 식물 재배가 66.6%를 차지한다.

연해주는 기후조건 및 지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쌀과 두류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작물들의 파종지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결산에 따르면 연해주는 모든 종류의 육류 생산에서 5만 4,200톤의 생산량을 기록하면서 극동지역 제1의 육류 생산지로 꼽혔다. 또한 연해주에서는 계란 총 3억 2,840만 개, 감자 총 37만 9,800톤, 야채류 총 18만 2,300톤이 생산되었다. 알곡 작물 및 알곡 두류 경작의 수확량(작업 완료 후 측정된 중량)은 1ha당 2,390kg이며, 사업장 내 모든 범주에 속하는 가축 두수를 보면 돼지는 9만 1,600두, 가금류는 428만 9,500두가 사육되고 있다.

아무르 주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은 33.21%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132만 3,000ha이다.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2011년 현재 85만 5,400ha이다.

아무르 주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기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 제품 총 생산량은 2009년부터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 총계에 따르면 약 290억 루블을 기록했다.

극동지역의 농업 생산 가능 토지 총면적의 약 40% 정도가 아무르 주에 위치해 있다. 주요한 농업 부문으로는 농업용 식물 재배 및 축산업이다. 주요 재배 작물은 콩이며, 그 생산 규모는 전 러시아 콩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011년 콩 생산량은 작업 완료 후 무게로 측정했을 때 77만 6천 톤을 기록했고, 이는 1ha당 평균 수확량이 13.8 c/hectar인 조건 하에서 2010년도 생산량보다 44.6% 증가한 수치이다. 2011년 파종지 면적은 다년생 식물을 포함하여 85만 5,380ha이며, 이는 그 전년도에 비해 8.2% 증가한 것이다. 알곡 곡식(가을에 파종하는 호밀 포함) 경작지 면적은 18만 9,300ha이며, 콩이 파종된 토지의 면적은 56만 3,400ha이다. 모든 범주의 경작에 걸쳐 감자가 심어진 토지의 면적은 2만 1,500ha이며, 야채의 경우 4,500ha이다. 가축사료용 작물 경작지 면적은 7만 6,200ha이다.

2011년 총계에 따르면 아무르 주는 33만 8,200톤의 알곡 작물 및 알곡 두류를 수확하여, 이 부문에서는 극동 연방 관구 지역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젖소 1마리당 평균 착유량은 4,837kg을 기록했다. 모든 범주에 속하는 빨 있는 대형 가축의 두수는 9만 5,100두를 기록하여 극동 연방 관구 내 2위를 차지했으며, 농업기업이 보유한 가금류 수는 212만 8,400두를 기록했다.

캄차카 주

농촌 거주인구의 비율은 22.7%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47만 7,200ha이다.

이 지역의 농업구조는 우유, 육류, 가금류, 감자, 야채 등의 생산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캄차카 주는 지역 내 계란, 감자, 야채 등의 수요를 자체 생산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농업 식물 재배업은 축산업에 사용되는 사료 공급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이 지역의 축산업은 낙농 가축 사육, 돼지 사육, 계란 생산을 위한 가금류 사육, 순록 사육 등으로 대표된다.

2011년 총계에 따르면, 캄차카 주의 1ha 면적당 야채류 수확량은 2만 2,800킬로그램을 기록했고, 이 부문에서는 극동지역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1만 5,650kg의 감자 수확량을 기록하여 3위를 차지했다.

마가단 주

농촌 거주주민의 비율은 4.6%이고,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8만 2,900ha이다. 이 중 경작지는 2만 1,500ha이고, 초지의 면적은 3만 3,800ha이며, 방목지의 면적은 2만 5,600ha이다.

농업 생산, 특히 농업용 식물재배에 불리한 극북지역의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마가단 주는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처음으로 농업 생산의 증가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마가단 주는 이미 지역 내 감자 수요의 91.6%, 계란 수요의 60% 이상, 야채 수요의 36.5%를 역내 자체 생산으로 공급하고 있다.

농업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마가단 주 면적의 0.5%를 차지하며, 주로 오희크크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감자와 몇 종류의 야채, 가축 사료용 작물 등이 재배되고 있다.

마가단 주는 농업 생산규모가 영세한 지역에 속하며, 농업 생산량의 80%는 농민들의 농장 생산 및 개인이 운영하는 부차적인 생산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 생산은 농사를 짓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마가단 주의 중심지역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5년 동안 농업부문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모든 전제조건들이 갖춰졌다. 2011년 우유 생산량은 2006년 수준보다 37% 증가했고, 계란 생산량은 11%, 감자 생산량은 29%, 야채 생산량은 45% 증가했다.

사할린 주

농촌 거주주민의 비율은 14%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8만 2,100ha이다. 이 중 경작지는 3만 5,400ha이다.

2011년 농업 생산량은 2010년 대비 104.6%를 기록했다. 가축과 가금류 생산량은 생전 무게를 기준으로 4,200톤, 계란의 개수는 1억 1,010만 개, 감자(모든 범주의 재배 포함) 수확 총량은 9만 6,500톤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야채의 수확 총량은 3만 6,600톤을 기록했다.

농업부문은 사할린 주가 추진하는 사회 및 경제 발전의 우선적 방향 중 하나로서 농업용 식물 재배, 낙농업 및 육류 생산을 포함하는 축산업, 돼지 사육, 계란 생산을 위한 가금류 사육 등을 대표적인 방향으로 꼽을 수 있다.

사할린 주 농업의 특징은 농업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농기계 부품 등의 물질적·기술적 자원의 주요 생산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운송비용을 야기시키고 고비용의 농업 생산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유대인 자치구

농촌 거주주민의 비율은 32.4%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53만 7,000ha이다. 8만 4,000ha의 경작지를 포함하여 20만 7,000ha 넓이의 토지가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유대인 자치구 내 농공업 복합단지는 지역경제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이다. 농업은 육류 및 우유 생산을 위한 가축 생산과 돼지 사육에 특화되어 있다. 아무르 강 계곡에서는 콩과 알곡 작물(보리, 밀, 귀리)이 재배되고 있고, 동부의 비르 강 계곡에서는 야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경지, 초지, 방목지 등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대지 지괴가 위치하고 있다. 가축의 먹이를 자연에서 얻기에 적합한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축 사육, 특히 빨 있는 대형 가축 사육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대인 자치구에서의 콩 생산은 전통적으로 농업용 식물재배의 한 부문

이 되어왔다. 지역 내 콩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자연 및 기후 조건, 인적 및 조직적 잠재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콩 생산량은 2006년 이후로 25% 증가하여, 2011년에는 8만 8,600톤을 기록했다.

추코트카 자치구

농촌 거주주민의 비율은 33.6%이며,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의 면적은 8,600ha이다. 추코트카 자치구의 영역 대부분은 북극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농업 생산량의 95%를 담당하고 있는 순록 사육업이다. 순록 방목지는 추코트카 자치구 토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 야채 재배, 모피용 동물 사육, 가축 사육, 가금류 사육도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추코트카의 전통적 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특수목적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순록 사육업 및 해양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로 농업제품을 생산하는 경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반입해오는 농산물의 비중을 상당 수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2011년 추코트카 자치구에서 생산된 순록 고기의 양은 891.9톤이었으며, 이 중 748.7톤이 판매되었다.

2) 발전 전망

러시아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 작성된 2013~20년 간 국가 농업 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부문들의 발전에 관한 주요 안내 지침 및 방법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국가 프로그램은 러시아연방 식량안보 독트린(기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표범위 안에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설정된 것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 증가 촉진, 농산물 및 식량 시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농업 수익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보장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게 된다면 2020년경에는 농업부문 내 자국산

식량자원 상품들의 비중을 다음에 기술한 수준만큼 높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육류 및 육류 제품- 88.3%, 우유 및 유제품- 90.2%. 아울러 농업분야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적어도 10~15%까지(정부보조금 요소 고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해 그 이전에 결정된 국가의 직접적 지원조치들은 WTO 규정들과 모순되게 되었고, 향후 이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3~20년간 국가프로그램은 농산물 생산자들의 소득 보조, 생산 관련 지표와는 무관한 국가적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지원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있다.

극동 내 모든 행정구역들에서는 최근 들어 2013~20년간 실시되는 일련의 개발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농업지역의 개발, 토지 개량, 가금류 사육, 육류용 가축 사육, 밀을 포함한 각종 곡물 생산 등과 관련되어 있다.

2006~11년간 극동지역 농업부문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수혜액만 해도 6,100만 루블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농업 생산은 22.3% 증대되었다.

극동지역의 기업들은 외국자본과 함께 사업활동을 해본 유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국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현대적 농업기술과 고생산성 농업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사업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하지만 극동의 농산물 자급 수준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육류제품의 경우 자급률은 32%에 머물고 있으며, 유제품은 54%, 계란은 79%, 야채는 9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방 관구 내 주민들에 대한 식량자원의 공급은 주로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의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국가 식량안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시설 및 기술공학적 설비를 발전시켜 농촌마을의 생활수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촌인구가 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며, 극동지역 농업분야에 긴요한 특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유능한 인적 자원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국내외 시장에서 잠재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과 관리 없이는 이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생산부문들을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에 존재하는 불균형들을 타개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 주요 가축들의 두수, 즉 순록 사육, 대규모 마필 사육, 양 사육 등 전통적 가축 사육 부문에서의 가축 두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개별 육류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 투자자금의 유치 없이 이 지역의 농업 발전은 불가능하다.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연방의 각 구성주체들은 투자자 권리보호 및 투자활동 지원메커니즘에 관한 법 제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지방에서 실시 중인 투자 관련 세제 및 재정 지원의 형태를 명시할 것이며, 또한 투자자들의 상황 악화를 막아주는 보장조치도 규정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되었다.

3)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도전과제들

외국인투자를 극동지역 농업부문에 유치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 투자 관련 부지의 선정 및 그 사용에 관한 계약서 체결, 시설물 건축을 위한 초기 인허가 관련 문서의 발급, 신규 시설물의 사용 및 기타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 규제 장벽이 존재하며, 이 모든 일체의 제반과정을 수행하는 데 긴 시간이 소모된다.
-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기술 및 수송 분야 기간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각종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비용이 그 미발달상태로 인해 상당히 높고, 각 지자체들의 포장 도로 보급 수준은 불규칙적인바, 이는 총체적으로 투자활동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다.

- 투자프로젝트 자금 지원시 자금 용자의 이자율이 높고 장기 투자자금의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수준이 낮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정보에 대한 열린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 물류의 발달이 미진하다(범세계적 규모의 물류회사가 부재하며, 물류 기반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화물수송의 양, 신속성, 효율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 연방 주요 자동차 도로상의 교각 및 고가도로의 상태가 불만족스럽다.
- 지역 인구 수의 감소 및 인구통계학적 구조의 퇴보로 야기되는 위협요소가 존재하며,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노동자원문제는 근본적인 제한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농촌지역 인구의 높은 자연 감소율과 농촌 내 사회적 기반시설의 미발달 등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 재교육 시스템의 무기력성은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킬 것이다).
- 생산품의 판매 시장 및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내 지역들간 및 범세계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제한된 수량의 자원들을 놓고 벌어지는 경쟁문제는 더욱 첨예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 및 민간 투자의 유치를 놓고 벌어지는 인근 지역들과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4) 문제점 해결방안

극동의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상황을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 투자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보적 선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다양한 종류의 특혜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리한 행정적 법규법적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시설물 건축을 위한 부지 제공 및

초기 인허가 서류 발급에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 투자를 유치하고 농업 관련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꾀하는 수단으로서 농공업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 농업 관련 기업들에 기계공학적인 기반시설들을 제공하고, 지역의 주요 교통 및 수송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 강도 높은 투자 확대가 필요한 지역, 구역, 부지 등을 선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계공학적인 기반시설 및 수송 관련 기반시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민관 파트너십을 매개로 기업, 국가권력기관, 지자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 농업 관련 기업들을 위해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 및 단일 농업세 액수를 재검토해야 한다.
- 농촌지역의 주택 건설에 대한 국가예산 투자를 늘리고, 농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과 교육·보건·문화 관련 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 곡물시장에 대한 수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극동지역 농공업 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의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미사용되고 있는 농업 생산 가능 토지들을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지역 농산품의 산업적 가공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투자 유치에서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방향은 향후 순혈종 제재(상품)의 교류 및 관련 기술교류에 관한 호혜적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순혈종 가축 사육 및 작물재배분야의 사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분야는 양의 사육, 축산업, 마필 사육, 가금류 사육, 어류 양식, 순혈통 가축의 재생산 등과 관련 합작기업의 설립, 채종산업, 곡물 및 야채 재배산업 등으로 다양하다.

3. 어업

1) 일반적 특성 및 혁신적 유망 프로젝트

극동지역의 어업 발전은 다음과 같은 차별적 경쟁요소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원료 기반의 큰 자원 잠재력
- 현지 기업, 공장 및 창고, 접안 시설의 충분한 보유량
- 경험 많은 어부, 근로자, 관리자 등 전문인력 보유. 양식업에 적합한 청정해안 다수 보유

러시아연방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러시아연방 주체의 예산에 적용되는 세금 면제
- 공공 대출, 보조금 제공 및 예산투자형태로 러시아연방 주체의 예산액을 활용한 금융 지원
- 임대자산에 대한 임대료 감액
- 금액 보증 제공
- 러시아연방 또는 현지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담보
- 외국인투자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지원
- 정보/조직/법률 지원

러시아 극동 유역의 2011년 총어획량(양식 및 취미성 낚시 제외)은 420만 톤을 넘어섰다. 상품성 있는 식용 생선의 총생산량은 480만 톤이었다. 1인당 생선 소비량이 22kg일 때 러시아연방 시장 자급률은 78%에 달하였다.

고도 가공 생선의 자급률은 아직 수출구조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6.5%에 불과하며, 가공 및 완조리된 생선의 비율은 수입구조에서 27.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유치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현대적인 생선가공시설 필요
 - 물류 및 모든 판매와 보관 방법을 포함한 생산-판매 단지 조성
- 어업자원의 기반은 본질적으로 명태와 청어 잡이에 달려있는데, 이 어

종이 총어획량의 70% 가량을 차지한다. 어획목록과 잠재 어획목록에는 대구, 노래미, 가자미, 멸치, 그리고 상품 가치 있는 무척추 동물이 존재한다.

현재 남아 있는 어종 개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시험적 조업 및 가공을 위한 파일럿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기타 어종’ 전체의 보유량은 상당히 크지만, 다양성에 비해 각 어종 자체의 자원량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인 어업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산업동력 개발이 요구된다.

어업자원의 기반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 어업의 주요 자원은, 대구(4만~5만 톤), 가자미(7만~8만 톤), 멸치(4만~5만 톤), 심해 및 해저 오징어(20만~30만 톤) 등으로 조사는 되었지만 모두 포획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극동 개발의 중요 방향은 어업과 양식업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어업계는 기업 자본금을 쇠신할 수 있는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선박, 정비소, 냉동 탱크 등). 지난 10년간 직종이 어업, 양식업인 기업 자본금에 대한 연간 투자액은(실질 가격으로) 30억 루블에서 78억 루블로 2.6배 성장하였지만,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의 성장률은 6.1배였다.

극동지역의 어업은 자본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자적인 투자정책 수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 및 해양 가공단지와 관련하여 앞으로 전망 있는 투자방향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혁신적 습식 사료 생산 설비

이는 생선과 기타 해산물을 가공한 후 잔여물을 발효시켜 종합적인 바이오 기술로 습식 사료를 생산하는 일을 말한다(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수산가공 잔여물의 매입, 보관, 가공 및 마케팅, 그리고 최종 혁신제품(습식 사료)의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효제품은 동물의 절대 성장 및 일일 성장을 크게 증가시켜준다는 사실이 이미 생체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농업에 사용되는 사료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어류 및 그 잔여물로 만든 사료이다.

사료의 품질은 우선적으로 단백질의 함량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10년 동안 어류성 사료 수요가 증가한 것은 어류성 사료 분말에 있는 소화성 단백질이 육류성 분말에 비해 1.4~1.8배 이상, 사료 효모가 주요 곡물성 사료(귀리, 보리, 옥수수)에 비해 8.5~9배 이상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료 활용도는 함유된 아미노산 성분과 칼로리에 따라 달라진다.

「태평양수산업 과학연구센터(TINRO Center)」에 의해 제안된 본 사업은 러시아연방 어업 발전 과학기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농업용 배합사료, 특히 생선분말이 포함된 고품질 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생선분말의 생산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원료 부족 및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생선분말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연안 어업회사들은 생선 가공 잔여물을 이용한 생선분말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표준기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생선을 삶지 않고, 바로 분쇄한 다음 효소와 배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단백질의 효소분해는 저감방식(온도 40~50°C, 시간 30~40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아미노산, 비타민, 생리활성물질 및 성장촉진물질이 최대한 보존된다. 효소의 비활성화와 분말 건조 또한 저감방식(온도 80~85°C)으로 이루어진다.

나) 해양동물 채취와 복합가공회사

이 투자지침은 러시아연방 극동 연안의 해양동물자원을 포획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극동 연안 해양동물 자원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포획되지 않고 있으며, 그 출하 목록 역시 꽤 오래된 것이다. 한편 이 원료는 국제적으로는 고기능 바이오활성 첨

가물, OMEGA-3 캡슐, 고품질 동물용 사료 및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에 사용된다.

이 투자지침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 대형 냉동 트롤 어선과 RS-300급의 조업용 어선 3대가 참여하여(조업기간 150일) 해양동물 및 해저 어종 조업
- 강 하구에서 통발을 사용하는 해양동물 연안 조업
- 특화 기업과 공동으로 특화 상품 출시(고품질 냉압착 지방, 내장으로 만든 바이오 활성 약품, 식당용 급속 냉동 반조리 고급 수출식품 등)
- 기술협력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 참여 가능- 해양동물 가공장비, 통조림 생산장비, 어획도구 및 선박설비, 조업장비 공급

다) 무공해 북해 새우육 가공 기계화 설비 설치

새우는 현대 어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어종이며, 그 가공제품은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이다.

북해 새우 중 대량 어종은 곱사등이 새우이며, 가능한 어획규모는 현재 약 5,000톤에 달한다. 이 새우는 다른 기술 및 영양 면에서 뛰어난 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작고 가공방식이 복잡하여 다른 어종들에 비해 현재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곱사등이 새우 가공 과정을 기계화한다면 새우 조업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투자지침은 북해 새우의 자원량 활용 효율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정지역인 이 조업지역에서 출하된 제품들은 충분히 '유기농'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무공해 새우육은 양식 새우육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제품(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피자, 새우소스, 항공기 승객 식단 등)의 생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투자지침은 현대적인 보관/수송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등급' 제품 시장에 진출 가능한 경험 있는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라) 수생 생물 육성을 통한 양식

이 투자지침은 해삼을 육성 및 가공하고, 다양한 식품과 바이오 약품을 생산하는 양식단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다. 현재 해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어종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해삼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해주 해역에 사는 해삼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고 시장 내 필적할 만한 경쟁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해주 해삼에 대한 중국 불법 수출 및 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국내시장에는 해삼 식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에 유통되는 해삼으로 만든 약품들과 식당용 해삼은 불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들이다.

마) 현대식 생산·판매 회사의 설립

국제적 투자는 고품질의 어류 상품에 대한 현대식 생산·판매 구조를 갖춘 곳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블라디보스톡 시 해안에 있는 현대적 수산시장을 기반으로 생산·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안하는 수산시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일일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 부지
- 소매 및 소규모 도매업체, 그리고 급식업체 등을 위한 ‘신선한’ 고품질 반가공제품 생산능력
- 수산시장 방문객의 수요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요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시장에서 나오는 수산물로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급식업체
- 수산시장 계류장 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3~4척 규모의 소규모 선단
- 시장 자체 물류수요뿐 아니라 고객(외부 소매업자, 중소 도매업자 및 급식업체)의 물류수요까지 처리할 수 있는 냉동차량 단지
- 큰 이동거리 없이 구매하고 싶은 거주민의 수요충족을 위해 도시의 다양한 지역 및 근교 도시 및 소도시에서의 유통망 확보. 이를 위해서는 3~4인의 소규모 상점 설치와 함께 5~6인 규모의 4~5개 급식업체 설립도 필요하다.

바) 철갑상어 양식업 및 완제품 생산

철갑상어 제품에 대한 현재 수요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법 포획물로 만든 제품은 지급능력이 있는 소비자들(중산층 및 중산층에 근접한 집단)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잃고 있는 반면,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 제품 중에는 환경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 투자지침은 루체고르스크(Luchegorsk) 마을의 철갑상어 실험양식장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는 극동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다양한 철갑상어류 및 아무르 지역의 희귀 어류군이 살고 있다. 현재 양식장에서는 연간 약 50톤 규모의 철갑상어가 생산되고 있다. 살아 있는 암컷 철갑상어는 약 100kg의 식용 캐비어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업은 캐비어를 주요 제품으로 만드는 쪽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업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재정적 혁신을 통해 식용 캐비어 연간 생산량이 10톤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재건작업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2) 투자자들의 당면 문제점 및 도전과제들

양식업 기업의 설립에 따른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양식업은 특정한 과학적 기술적 역량이 요구되는 첨단과학 업종이며, 이는 경험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에는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따라서 양식업에 새롭게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경험과 기술적 솔루션, 그리고 일부 제품들(예를 들어 유생에서 나온 치어를 양식주기에 맞춰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업에 원재료로 판매할 수 있는 치어 등)의 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② 기업의 부지 선정은 생물학적, 기술적, 경제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에는 좋은 기후 조건과 양식장 설립에 적합한 수역이 많기 때문에,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장비의 설치 및 공급, 노동력의 공급 및 수용, 에

너지원 및 수자원 연결 등을 위한 비용에 매우 큰 차이가 난다.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역의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장 분야 프로젝트의 위험요소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술적인 위험성: 새롭게 설치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전 시운전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로 인한 예산수익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프로젝트 서류작업과 프로젝트 수행에서의 위험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프로젝트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몇 배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 ③ 프로젝트 결합 제거비용: 이러한 비용은 중간 용량의 트롤선에 초과 용량의 주엔진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한다. 조업 중에 발생하면 안 되는 진동이 발생하여 결국 조업을 중단하고 기존의 주 엔진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 ④ 비숙련 직원에 대한 교육 부족의 위험성: 예를 들어 냉각수 보충을 잊어버린 냉동기계기사의 실수로 인해 약 30톤의 고품질 명란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⑤ 공급 중단 위험성
- ⑥ 경쟁관계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성
- ⑦ 구매자 측의 계약 파기 위험성

이와는 반대로 이 투자분야의 강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생선가공,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저장, 마케팅, 물류 공정의 수직적 통합
- ② 완제품 마케팅 시스템으로 완제품 생산라인의 재분배 및 소비 시장(유럽, 북아프리카, CIS 국가, 러시아연방)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 ③ 해외 투자파트너는 설립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격을 갖춘 훌륭한 참여자이다(왜냐하면 해외 투자파트너들은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회사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시장, 선진기술,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④ 투자 유치 주최국은 EU 면세제도, 국가보조금 및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Vichinai’ 사의 경우 EU 면세혜택을 받았으며, ‘Santa-Bremor’ 사의 경우 국가 보조금 및 특전을 받았다.

4. 임업

1) 일반적 특성

극동의 산림은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필수적인 서식지 형성 및 환경보호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 중 하나이다. 과거나 현재나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형성하고, 산림을 다목적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이다. 연해주, 하바롭스크와 아무르 지역의 산림 및 목재 제조업은 전체 러시아의 목재 수출, 목재 생산, 섬유판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러시아연방 목재 매장량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 중 가장 큰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산림단지 개발, 특히 산림개발사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극동지역 산림의 목재자원 매장량은 205억 m^3 로 추정된다. 그 중에 침엽수림이 171억 m^3 , 견목이 23억 m^3 를 차지한다. 연간 벌목 허용량은(AAC) 8,500만 m^3 이지만, 현재 20%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산림지역으로의 낮은 교통 접근성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산림자원 기반이 다양하고 목재 및 비목재 원료가 충분하여 임업 수요를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극동지역의 숲 전체는 러시아연방 소유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산림에 대한 국가 운영의 문제들을 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MPR Russia)와 연방 산림청(Rusleskhoz)이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연구, 사용, 재생 및 산림 보전분야에서의 공공정책 및 법적 규제를 수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목재가공업 복합단지 활동에 관한 문제들은 러시

아연방 산업통상부(Minprotorg)가 담당하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산림 관련 문제는 특별히 개설된 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숲 사용 승인, 불법 벌목과 화재로부터 산림보호, 그리고 산림복원 등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산림자원 이용은 주로 입찰을 통해 제시된 산림지역에 대한 임대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단 산림취득분야의 우선 투자프로젝트는 예외이다. 우선 투자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입찰 없이 벌목편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투자회수기간 동안 산림지역 임차 비용을 0.5계수로 산정하여 임대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임대기간은 10년부터 49년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2011년 극동지역에서는 원목 1,240만 m^3 , 판지 180만 m^3 가 생산되었다. 목재 수확량 증가는 새로운 산림지역의 개발을 통해 가능한데, 특히 사하, 하바롭스크, 사할린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제한 관세감면혜택효과로 인해 5년 안에 이 지역 목재 수확량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우선투자 프로젝트

극동지역에서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선 개발권을 획득한 산림 개발프로젝트들이 실현되고 있다.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입찰과정 없이 벌목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산림지역에 대한 임대료를 반으로 내려주는 특혜를 부여한다.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연해주

「연해주 지역 발전」(스베틀라야 테르네이스키(Cvetlaya Terneiskiy) 지역, 올가 올리긴스키(Olga Olyginskiy) 지역에 제재소 건설, 추구예프(Chuguev) 지역, 추구예프카(Chuguevka)에 제재소 건설)

아무르 지역

① 아무르 지역 목재가공 복합단지 발전, Zeya 도시에 목재제재소 건설

- 프로젝트 제안자- 유한회사 'AmurForest'
- 투자액- 3억 5,200만 루블
- 건설기간- 2007~13년
- 회수기간- 8.7년
- 재료 소비량- 17만 5,000m³
- 제품 형태 및 생산량: 판지- 10만 5,000m³
펠릿- 3,000톤
목조주택- 50채

② 목재제재소 'Vostochnyi' 건설

- 투자 제안자- 폐쇄회사 'Turanles'
- 투자액- 3억 4,680만 루블
- 건설기간- 2006~15년
- 회수기간- 9년
- 재료 소비량- 116만 8,000m³
- 제품 형태 및 생산량: 판지- 8,000m³
접착접층 목재- 1만 2,000m³
재목- 14만m³
우드 트림- 1만 6,000m³
바닥보드- 1만 5,000m³
가구패널-2,000m³
저층주택 건설- 20채

유대인 자치구

「산림 및 목재가공 인프라구조시설 건설과 현대화」 프로젝트

- 프로젝트 제안자- 유한회사 'Ekoles'
- 투자액- 6억 5,590만 루블
- 건설기간- 2010~14년

- 회수기간- 2.5년
- 재료 소비량- 32만 5,000m³
- 제품 형태 및 생산량: 판지- 7만 2,000m³
 숯- 1만 톤
 활성탄- 9,000톤
 연탄- 3만 2,400톤
 접착접층목재 및 가구용 보드- 20만 7,500m³

3) 임산물 수출동향

극동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시장에 비해서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고 풍부한 원목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 임업단지에서의 수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품은 원목, 1차 가공품 및 고가공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2011년 톱질목재 및 가공목재의 수출은 36%를 차지했다. 가공목재로는 가공 침엽수, 중처리 건목(재목, 접착접층목재, 합판, 마분지판) 등이 있다. 목재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한다. 연해주 수출의 주요 소비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

2011년 이 지역에서의 합작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임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자본 투자기업의 수는 30개 이상이였으며, 이 기업들은 7,000여 명 이상을 고용하였고 거래액수는 100억 루블에 달했다. 국제 투자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예로는 ‘테르네이레스(Terneyles)’(러시아·일본)와 주식회사 WOOD EXPORT(러시아·중국) 등이 있다.

러시아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러시아의 가입 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21일 N 126-FZ 연방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마라케시 협정의 모든 책임을 준수하겠다는 의정서가 비준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추가적인 조건들은 상품과 용역 시장 접근에 대한 양보 및 약속이행 일정에 반영되었다. 특히 러시아연방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 중에는 수출 및 수입 관세, 무역을 왜곡시킬 수 있는 농업보조금 액수, 관세 쿠틀, 수출보조금에 대한 의무들이 포함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최초 및 최종 관세율 및 이들의 매년 감소율이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관세인하가 실행되어야 이행기간도 확정되었다. 시장 접근의 자유화 이행기간은 2~3년이며, 좀 더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는 5~7년이 부여되었다. 현재 극동 연방지역의 목재에 대해서는 [표 4-1]과 같은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표 4-1 극동 연방지역 목재 종류별 적용 수출관세

원목		
가문비나무	25%	15유로 이상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	25%	15유로 이상
전나무과의 낙엽 침엽 교목	25%	15유로 이상
자작나무	7%	-
사시나무	5%	-
은행양 나무	10%	15유로 이상
참나무	20%	15유로 이상
물푸레나무	-	15유로 이상
느릅나무	25%	15유로 이상
목재		
가문비나무	0%	-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	0%	-
전나무과의 낙엽 침엽 교목	0%	-
자작나무	0%	-
사시나무	0%	-
은행양 나무	0%	-
참나무	10%	10유로 이상
물푸레나무	10%	12유로 이상
느릅나무	0%	-
톱밥		
톱밥	5%	-

자료: 저자 작성

4)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 시 문제와 전망

극동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는 주요 문제들로는 극동지역과 러시아 타 지역 또는 더 발전된 러시아 시장과의 절연, 거대한 영토 규모에 비해 열악한 내부 교통망,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인구분포의 비집중성, 농업의 특수성, 높은 노동비, 북극 및 극동 북부지역에 대한 화물운송 확보를 위한 보조금, 그리고 이 지역의 계절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내부적인 구성요소들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들로는 극동지역과 러시아 타 지역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의 높은 운송비용, 극한 자연 기후조건, 고립적으로 운용되는 전력체계 및 에너지원의 높은 비용과 비효율적 구조가 있다. 입업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산림법, 입업단지와 관련된 명확한 정부 정책의 부재
- 산림에 대한 양질의 정보 부족, 산림계획문서들에 대한 준비 부족
- 생산된 임산물의 판매시장 감소
- 지속적으로 변하는 관세법
- 비용 및 세금의 증가(전기료, 운송비 등)
- 입업 및 목재가공산업의 인재 부족
- 낮은 교통인프라구조의 개발수준, 높은 임산물 운송비용
- 입업단지 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지나친 간섭
- 통관, 검역 및 식물위생 증명서와 관련하여 사업체에 대한 과도한 요구
- 높은 수준의 불법 목재 유통

입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 ① 임산물 대외무역 거래구조의 질적 변화. 공급되는 임산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목시장뿐만 아니라 목재의 다운스트림 후가공 제품시장에서도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② 목재 가공에서의 공동 생산. 목재가공공장이 산지와 가까우면 가까

올수록 기업 운영의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등급의 목재 원료 가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전망이 있으며, 현재 이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목재자원은 100만 입방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적층접착목재(가구 보드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 보드(마분지, 섬유판, 중간 조밀도의 섬유판 등), 목재화물운반대, 펄프·제지 산업용으로 쓰일 다양한 펄프(화학 펄프, 열 펄프, 기계 펄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고급 목재(참나무, 물푸레나무, 느릅나무)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의 설립

임업분야에서의 호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협회, 노동조합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연해주 지역에 연해주 임업수출협회가 창설되었다. 러시아 기업, 기관 및 임업수출협회 간의 상호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 협회는 사업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잠재적 파트너의 신뢰성과 지속성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5. 운송과 물류

현재 외국은 물론이고 극동 러시아 지역의 운송 및 물류 분야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hard project)뿐만 아니라 IT기술의 활용을 포함하여 운영환경을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soft project)까지도 포괄하는 다차원적 투자분야로서, 인프라 분야의 폭넓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반하고 있다.

이 분야는 많은 개별적(지역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들은 교통인프라(도로, 항만 등) 개발, 수송활동(다양한 형태 및 수단에 의한 운송), 물류서비스(저장, 운송, 통관 등) 등의 개발 형태 및 분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극동지역은 몇몇 국가(중국, 북한)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거대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항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중요한 해안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 투자공간은 운송활동 및 물류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구조와 그 운영주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문이 포함될 수 있다:

- 운송형태부문: 화물 및 여객 운송, 시내 운송, 시외 운송(교외, 지역간 및 국제간 운송)을 포함한 철도, 자동차(도로 및 교통 수단), 항공, 해운, 수운, 관로 운송
- 물류발전부문: 복잡한 운송형태(통합형태, 멀티형태, 혼합형태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별적 운송형태 및 운송로 차원의 다양한 교통물류부문들이 투자의 예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직통 공급망뿐 아니라 창고사업, 유통사업 및 기타 다른 형태(분야)의 물류 사업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위의 것들은 운송 및 물류 분야의 매우 복잡한 투자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만을 제시한 것이다.

1) 해상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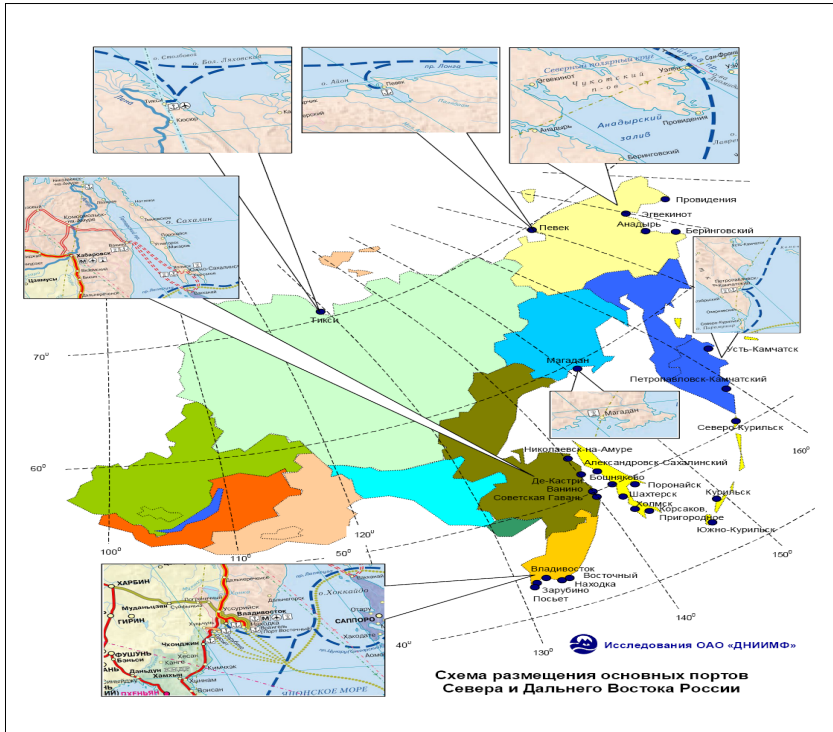
극동지역 해안의 총연장길이는 5,600마일로 주변에 작은 항만시설 및 정박소를 가지고 있는 27개의 항구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항구들 중 25개는 국제운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항구들 중에는 일반항도 있고 특별항도 있다. 추코트카 항구와 동 아르크티카 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구들은 모두 연중 항해가 가능하다. 연해주의 남부 항구로 시베리아횡단열차가 들어오며, 하바롭스크 항구로는 바이칼·아무르 철도가, 그리고 사할린 항구로는 도서내륙철도가 들어온다. 동(東)항에 위치한 석유 운송 전문항인 ‘코즈미노(Kozmino)’항으로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석유관이 들어오며, 프리고라드노예 항구로는 섬으로의 석유관 및 가스관이 들어오고, 데카스트리 석유 항구로는 사할린 석유관이 들어온다. 주요 항구로는 동(東)항, 나훗카 항, 블라디보스톡 항, 포시에트 항, 바닌 항, 프리고로드노예 항이 있다. 극동지역의 주요 항구의 최대 선박 흘수는 16~17.5m이다. 러시아 국내 및 국제 화물 및 여객이 극동지역 항구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데, 14개의 항구가 화물선 및 여객선을 수용할 수 있다. [그림 4-1]은 극동지역의 주요 항구 및 섬의 배치도이다.

극동지역의 항구들에서의 화물 선적 회전율은 증가 일로에 있다. 화물의 경우는 2006년 7,060만 톤이었던 화물 선적량은 2011년 1억 2,690만 톤으로 80%가 급증했다. 선적 상품의 종류는 건조 및 액화 화물을 포함하여 원유,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광석, 목재, 철 금속 및 비철 금속, 기계 및 장비,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 등 매우 광범위하다.

극동지역의 주요 항구시설은 이 지역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상 교통 인프라는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지역에 구축되어 있다.

그림 4-1 러시아 극동 및 북쪽의 주요 항구 배치도



자료: 저자 작성

연해주 지역: 연해주에는 13개의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들은 대부분이 항로에 따라 구별된다. 연해주에는 다음과 같은 항로가 있다.

- 블라디보스톡 항로
- 극동·나훗카 항로
- 하산 항로
- 볼세까멘 항로(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

우리는 연해주의 남쪽 항구뿐 아니라 북쪽 항구의 발전도 주목해야 한다. 범용 무역항구로는 포시에트 항, 블라디보스톡 항, 나훗카 항, 동(東) 항 및 자루비노 항 등이 있다. 이전 어항으로는 블라디보스톡 항, 나훗카 항이 있고, 석유 운송항으로는 블라디보스톡(석유기지 NK ‘Alyans’)과 나훗카 항이 있다. 이전의 목재 운송항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플라스톤, 올라, 스페트라야 항이 있다. ‘루드나야 프리스탄(Rudnaya Pristan)’ 항은 ‘보르(Bor)’와 ‘달폴리메탈(Dal’polimetall)’ 생산연대의 제품 운송을 위한 특별 항이다.

연해주 항구는 극동 항구제도 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 13개의 항구 중 9개가 국가의 철도망과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 및 중국과도 연결되어 있다.

하바롭스크 지역: 하바롭스크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항구가 있다.

- 3개 항구는 해양 무역항(소베츠키야가반 항, 바닌 항, 아무르의 니콜라이 항)
- 2개의 구(舊) 목재 운송항(데카스트리 항, 미스 라자레바 항)
- 1개의 구(舊) 어항(오호트스크 항)

데 카스트리 지역에는 1.5톤 및 12톤 규모 원유 선적능력을 갖춘 2개의 특수 정박 계류소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바롭스크 주의 전체 항구 및 운송지들 중에 소베츠키야가반 항 및 바닌 항만이 국가횡단철도망과 연계되어 있다. 수출입화물은 바닌 항구를 거쳐 처리되고 바닌·홀름스크 간 도선장의 바이칼·아무르 간선철도를 통해 사할린 주로 송출된다. 바닌 항과 소베츠키야가반 항이 포함된 바닌·소베츠키야가반 간 항로는 극동지역의 주요 4개 항로 중 하나이다.

사할린: 사할린에는 다음과 같은 항구가 있다.

- 코르사코프
- 프리고라드노예
- 홀름스크(무역 및 이전 어항)
- 샤흐테르스크
- 우그레고르스크
- 보쉬냐코보
- 알렉산드로프스크·사할린스크
- 크라스노고르스크
- 포로나이스크
- 네벨스크(이전 어항)
- 모스칼보
- 나빌

이 중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구는 코르사코프, 프리고로드, 홀름스크 무역항이다. 코르사코프는 블라디보스톡·코르사코프 컨테이너 항로의 종착지이며, 홀름스크는 사할린의 철도를 내륙과 이어주는 바닌·홀름스크 연락선의 종착지이다. 이 항구들을 통하여 이 지역의 국제화물 운송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사할린 섬 화물의 일부는 수출용 송유관을 섬과 연결해주는 내륙항인 데카스트리 항에서 취급된다. 프리고로드 항에는 원유 및 LNG 선적 터미널이 자리잡고 있다(LNG 공장 포함).

마가단 주, 캄차카, 추코트카, 야쿠티아: 이 지역들의 항구에서는 수급 화물의 연안해운이 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항구로는 마가단 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항, 우스찌·캄차카 항, 아나드리 항, 베링 항, 프로비데니야 항, 에그베키노트 항, 페벡 항, 텍시 항, 그밖의 여러 군소 항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 항구들은 아직 러시아 교통망 및 철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극동 연안의 항구들을 통한 해상운송업의 전망은 많은 부분이 내륙 철도 및 항공망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운송방향과 내륙 운송인프라 발전은 상당 부분 항구 및 항구 교통거점 개발의 전망과 특성에 달려 있다. 발전 전망과 국제 교통망 통합 전망은 주요 항구 교통거점

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주변 항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항구 개발의 주요 참여자로는 민간기업, 연방 국영 단일기업 로스모르포트 사(社), 러시아연방 교통부, 러시아연방 교통감독청(Rostransnadzor), 해운 및 내륙수운 연방 관리국 외 기타 항만업 관련 정부기관들이 있다. 해운 및 내륙수운 연방 관리국은 해운 및 내륙 수운 분야에서 정부자산 관리에 따른 정부서비스 제공 및 법 집행 기능, 교통 복합단지 발전목적으로 해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연방기구이다. 연방 국영기업 로스모르포트 사(社)는 항구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수력시설, 항구용 선박, 안전장치, 기타 항구 인프라 설비와 같은 연방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해항 내 연방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 유지 및 개발을 통하여 러시아 해운 인프라 발전과 러시아 해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업은 러시아연방 해상운송 발전계획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항 및 인근 해역 내 항해 안전 도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구 개발: 항만업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업종이다. 그러나 극동 지역은 신규 터미널 및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만능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항구들은 재개발되어야 하고 설비도 현대화되어야 한다. 항만업의 경쟁력은 많은 부분 항구를 통한 화물운송구도(운송노선)와 항구의 전문성, 그리고 운송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신규 건설을 통한 항만능력의 확충은 민간투자자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건설부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당 지방 당국 및 러시아 교통부와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부지 획득(매입, 임대)과 공용 철도 연결, 전기 및 수도 연결을 위한 기술여건을 갖추는 일이다. 그외에도 사업허가 및 정부심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신규 항만단지 건설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결정된다면, 부지 획득과 기술여건 확보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은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연방 예산을 활용하여 접근 수로, 정박지 준설, 수력시설, 인접 철도 및 도로

와 같은 단지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되거나 사용료가 부과된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공동 건설문제는 언제나 민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선단: 현재 극동 해역에는 해운업, 어업, 선박 유지보수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50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다양한 선적의 선박을 다량(약 2,500척, 총 재화중량 500만 톤 이상) 운용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총 800척의 선박과 총재화 중량 400만 톤 이상의 선단을 소유한 150개의 선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곳 러시아 선단의 평균 연식은 26년 이상이다.

국제화물 운송: 극동 항구와 아태지역 항구들 간에는 현재 총 17개의 항로가 운행 중이며, 그 중 4개는 여객화물선용, 13개는 컨테이너선과 Ro-Ro선용이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타이완, 미국 간에는 정기선을 통해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화물의 상당 부분은 비정기선으로 운송되고 있다.

연안 해운: 이 지역에는 7개의 정기 연안 항로가 운행 중이며, 주로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이 컨테이너 트럭과 범용 건화물선에 실려 사할린, 캄차카, 마가단 주 및 추코트카로 운송된다. 바닌·홀름스크 항로에서는 ‘사할린’ 철도 연락선이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목재화물, 석유제품을 운송한다. 그밖의 연안 해운 화물은 사할린 주와 마가단 주, 캄차카, 추코트카, 야쿠티아로 비정기적으로 운송되고 있다.

여객 수송: 이 해역에 2개의 국제 연안 항로(바닌·홀름스크, 코르사코프·쿠릴트)가 운행 중이며, 극동 항구와 아태지역 항구 간 4개 항로 및 여러 현지 항로가 운행 중이다. 극동의 대형 선사로는 PRISCO(연해주 해운), FESCO(극동 해운) 및 SASCO(사할린 해운)가 있다. PRISCO(연해주 해운)는 러시아 극동의 대형 선사이다. PRISCO사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탱크선 13척, 벌크선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선사의 총재화중량은 127만 톤이고, 선박의 평균 연식은 4년이다. 이 선사는 합작기업형태로 해양 채유 플랫폼과 연안 터미널용 선박(쇄빙 예인선 1척 및 여객선 2척),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수송용 선박 1척을 운행 중이다. 전체 선단은

외국에 선적을 두고 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FESCO(극동 해운)의 선단은 총재화중량이 78만 7,000톤 규모의 52척의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는 쇄빙선, Ro-Ro선, 컨테이너선, 다목적(쇄빙수송)선, 벌크선, 보급선, 범용선(일반 화물 및 목재선)이 있다. 선단의 평균 연식은 24년이며, (가장 큰 부분인) 컨테이너 선단의 평균 연식은 선박수량 기준 16년, 재화총량 기준 11년이다.

2012년 1월 1일 기준 SASCO(사할린 해운)의 선단은 수송선 16척(Ro-Ro선 2척 포함), 철도연락선 4척, 항구에인선 1척으로 총 21척의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박의 평균 연식은 선박수량 기준 28년, 재화중량 기준 29년이다. 선단은 자체 선박과 임대 선박 그리고 자회사, 계열사 소속의 선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극동에서는 유일하게 바난·홀름스크 철도연락선 항로에서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고 있다.

해운업 발전: 어느 선사이든지 극동 항구를 통한 화물과 여객 수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제한사항은 러시아 국적 선박만이 운행 가능한 국내 운송(연안 항해)에만 존재한다. 러시아 국적 선박을 통한 여객 수송과 위험화물 수송은 면허를 필요로 한다. 러시아 해운시장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처럼 개방되어 있으나 항상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형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해운분야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연방 해양 상선법」
- 「러시아연방 해항에 관한」 연방법
- 「국영 및 지자체 단일 기업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는 해운에 관한 대부분의 국제조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2) 내륙 수운

하천 및 항구들. 극동에서 수운이 이루어지는 하천은 아무르 강(하바롭스크 주, 유대인 자치구, 아무르 주), 우수리 강, 압군 강, 마야 강, 툰

구스카 강(하바롭스크 주), 제야 강, 셀렘자 강, 부레야 강(아무르 주), 레나 강, 빌류이 강, 키렝가 강, 비팀 강, 올레크마 강, 알단 강, 인디기르카 강(사하공화국), 콜르마 강(사하공화국, 마가단 주), 아나드리 강(마가단 주)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천은 북극권에서 야쿠티아와 마가단 주의 인구가 적은 지역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운 활용도는 높지 않다.

가장 적극적으로 수운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무르 강과 레나 강 유역이다. 아무르 강 유역에는 가장 큰 항구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계화된 정박시설과 철도 인접성을 갖춘 하바롭스크 항, 콤포스몰스크나아무레 항, 블라고베셴스크 항, 스보보드니 항, 포야르코보 항 등이다. 아무르 강 유역의 총수운항로의 길이는 약 5,000km에 달한다.

레나 강 유역의 수운항로는 약 2,000km이며, 운항제한기간은 130일이다. 이 유역에서 가장 큰 항구로는 오세트로보 항, 야쿠츠크 항, 키렌스키 항, 올레크민스크 항, 한드가 항, 니즈네얀스크 항, 벨로고르스크 항, 즈란카 항 등이 있다. 국제 운송은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 포야르코보, 아무르제트, 파쉬코보, 니즈네레닌스코예, 스코보로지노 검문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단. 대형 수운회사는 ‘아무르 강 기선’사와 ‘렌스크 통합 하천 기선’사가 있다. ‘아무르 강 기선’사는 하바롭스크 주, 아무르 주, 치틴스크 주에 있는 아무르 강과 그 지류 유역에서 활동한다. 그밖에 혼합 형태의 선박이 국제화물과 외국 화주의 화물 운송에 사용된다. 이 선박들은 주로 일본, 중국, 한국 항으로 비정기 운항한다.

‘렌스크 통합 하천 기선’사는 철도 접근성을 갖춘 오세트로보 환적 경유항으로부터 공급받은 화물을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이르쿠츠크 주의 레나 강 유역과 하바롭스크 주의 소규모 하천에 있는 소항들로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 두 회사는 여객 수송을 수행한다.

해운 및 수운 개발을 위한 투자의 특성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즉 극동지역의 수운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운송의 계절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북부 하천(예를 들어 레나 강 등)은 운항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3~6개월)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 하천 수운 개발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하천·해양’ 겸용 또는 예부선 형태의 선박을 제조하여, 하천 운항이 끝나면 해상 항구간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수운분야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연방 국내 수운법」
- 러시아연방 국내 수로 운항 규칙
- 선주, 항해사, 수운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연방 법규, 그리고 해상 성격을 띤 강 하구를 제외한, 수운 목적으로 허용된 국내 수로 상의 선박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연안 설비/항해 표지에 대한 기술 및 조직 요구사항

외국 선박의 러시아 국내 수로 운항을 위한 법적 근거는 해당 정부간 교통 및 수운 협약이다.

3) 철도 수송

러시아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동시베리아의 철도인 바이칼·아무르 철도가 극동지역을 통과한다. 또한 스코보로지노에서 야쿠츠크에 이르는 신규 아무르·야쿠츠크 철도 역시 건설이 끝나가고 있고,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유일한 도서(島嶼) 철도가 사할린 섬에 등장했다.

주요 진행사업 및 시행 예정 사업으로는 콤소몰스크-소베츠키야가반 구간 재건축, 사할린 섬 도서 철도를 러시아 표준 궤간인 1,520mm로 변환하는 사업,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사업, 사할린 섬(교량) 터널 건축, 바이칼·아무르 철도 제2지선 건축 등이 있다.

극동지역에는 기차역 416개소, 국경검문소 2개소(중국 국경의 그로테코보 역 및 북한 국경의 하산 역)가 있다. 철도 운용길이는 6,826.7km이며, 총직원 수는 3만 361명이다. 2011년 승객 수는 원거리 476만 9,000명, 근교 1,150만 4,000명이고, 운송화물은 4,929만 톤이다.

연방 인프라(철도 및 철도역)의 유일한 소유주는 러시아철도공사의 지사인 극동철도이다. 러시아철도공사는 2003년 9월 18일자 러시아연방 정부령 제585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공사 설립은 2001년 5월 18일자 러시아연방 정부령 제384호에 따른 철도 개혁 1단계의 산물이었다. 러시아 철도공사의 설립자이자 단일주주는 러시아연방이다. 러시아연방의 이름으로 주주의 권한은 러시아연방 정부가 수행한다.

철도 운송시장의 특성

철도 수송구조 개혁사업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과제들로는 정부 관리기능과 사업조직의 분산, 통합 철도산업 인프라 및 중앙 배차 관리 유지, 경쟁 강화, 자율적인 화물 및 여객 회사와 철도차량 이용자들에게 철도 수송인프라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성 부여, 철도 수송제도에 대한 투자 매력 증진 등이 있다.

개혁 1단계(예비 단계)는 2001~0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 규제 및 업무관리기능이 분산되었으며, 러시아 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주요 법률 규정이 마련되었다.

개혁 2단계(러시아 철도공사 관리구조 최적화)는 2003~05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 자회사들이 설립되었다.

- 화물 운송
- 교외 승객 수송
- 서비스
- 통신분야 업무
- 철도 연구개발 및 설계

승객 수송 교차보조금이 중단되었고, 화물 및 승객 수송분야의 경쟁 강화를 위한 선행조건을 갖추었다.

개혁 3단계(철도 수송의 경쟁시장 조성 및 성장)는 2006~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다음의 과제가 해결되었다.

- 화물 운송분야 성장

- 화차 대부분(60% 이상)을 민간 소유로 전환
- 원거리 승객 수송을 담당할 연방 여객회사 설립
- 러시아연방 주체의 참여로 근교 여객회사 형성
- 철도 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 자회사의 주식을 민간 소유주에게 판매

현재 국가 수뇌부에 의해 개혁 4단계 실행의 일환으로 철도구조 재편성을 5년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철도 구조개혁사업에 해당 변경 내용이 준비 중이다.

2015년까지 화물철도 운송시장 목표모델을 설정하는 내용이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2011년 1월 승인되었다. 이는 화물 운송부문의 전망 있는 구조와 경쟁발전모델을 결정하고, 이 분야의 발전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재정지원 원칙을 5년 안에 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표모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철도공사의 화물 운송주체 및 인프라 소유주 지위 유지
- 화물철도차량 운영시장 개발
- 지방화물 운송인 협회 구성을 위한 법적·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줌으로써 실험적으로 화물철도 운송분야의 경쟁 강화
- 정부 세율 규제 모델 개선
- 인프라 소유주와 정부 간 계약제도를 법제화하여 인프라 유지 및 현대화를 위한 정기 계약 모델 마련

러시아 철도공사, 그 지사 및 자회사 외에도 극동에서 철도 운송과 철도 서비스를 수행하는 많은 민간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운수그룹사**- 러시아 대형 운수회사로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국내 화물, 경유 및 수출입화물을 러시아, CIS 국가들, 원거리 해외국가들간에 철도, 해상, 또는 복합운행방식으로 운송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석유제품, 석탄, 알루미늄, 컨테이너 등과 같은 다양한 화물 운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자체 소유 차량과 러시아 철도공사 소유 차량을 이용해 운송업무를 수행한다.
- **트란스컨테이너**- 대형 러시아 복합 컨테이너사로서 컨테이너 사업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철도 컨테이너 운송분야에서는 자사 컨테이너에 실린 고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철도차량과 고객사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철도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차량과 컨테이너 임대업을 수행한다. 특별 컨테이너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러시아철도 로지스틱스’ 사(社)–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2010년 11월에 러시아 철도공사 홀딩의 물류 발전과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유인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러시아철도 로지스틱스 사는 러시아 철도공사 홀딩과 기타 공급업체의 모든 서비스 통합을 통해 복합운송시장에서 단일 공급망으로 종합 운송물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예브로십–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 대형 민간 운수회사로 화주에게 복합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소유 철도차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와 경로의 화물 배송과 터미널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 10대 대형 민간철도 운영회사에 속하는 예브로십은 1만 개 이상의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제조회사에 수송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러시아 트로이카’ 사(社)– 러시아 최초의 철도 정기선 운영회사로 복합 철도 운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이다.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고, 주주는 러시아 철도공사(25%+1주), 국가 연기금 “블라고소스토야니에”(25%-1주), FESCO 그룹 계열사인 “극동 해상 기선”사(50%)이다.
- 트란스가란트– 트란스가란트 사(社)는 독립 민간 철도차량 운영회사로 FESCO 그룹 계열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에 25개의 사무실(지사 및 대표부)을 운영하고 있다. 트란스가란트 그룹사는 계열 내 다음과 같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트란스가란트·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내 제철회사들을 위한 철도 운송 수행), ‘텍트란스’(라트비아 액화석유가스 수송), ‘트란스가란·보스톡’(극동 철도에서 자사 열차로 운송), ‘메티즈 트란스’ 그룹사(시베리아 및 극동의 석탄 수송), ‘TG-리징’ 및 ‘TG-Finance’.

이 회사는 철도차량 1만 6,20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93%가 자사

소유 차량이다. 철도차량 중에는 무개화차, 유개화차, 플랫폼과 같은 범용 차량과 석유 및 암모니아 탱크, 피팅 플랫폼, 평판제품 운송 플랫폼, 시멘트차, 광물차, 액화가스 수송탱크와 같은 특별 차량도 포함된다.

철도 수송분야에서 적용되는 국내법으로는, 연방법인 「러시아연방 철도 수송 정관」에 관한 법과 또 다른 연방법인 「러시아연방 철도 수송에 관한」 법이 있다.

철도 수송 정관은 운송인, 승객, 송하인, 수하인, 철도 인프라 및 철도 차량 소유주 간에 발생하는 관계를 규제한다.

철도 수송에 관한 법은 공공철도 운영을 위한 법적, 조직적, 경제적 조건들을 규정해주고, 철도 수송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기업들과 정부기관 및 다른 종류의 수송업체들간 상호작용에 대한 근거, 그리고 비상용 철도 수송분야에서 정부 규제의 근거를 제시해준다.

철도 수송서비스 시장의 주요 부문

- 화물 운송 및 유관 종합 수송·물류 서비스
- 여객 운송(원거리 노선, 고속여객 운송, 경전철을 이용한 근교 여객 운송 등이 있으며, 고속여객 운송부문의 성장이 예상된다)
- 철도 수송의 통신, 연구개발, 설계 분야의 서비스 및 기타 유형의 서비스)

이 분야들은 각자 독특한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 및 여객 운송의 문제점은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신규 철도차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4) 항공 운송

극동지역은 러시아 중심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 수송은 이 지역의 사회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극동지역의 항공 운송은 소속 정부기관과 활동분야에 따라 민간 항공, 경량 항공, 기업 항공, 여가 항공, 소형 항공, 스포츠 항공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극동에는 26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 9개를 통하여 국제 화물 및 여객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민간 비행장 중 6개가 연방용 비행장이다(공항 및 착륙장의 총수는 약 400개). 모든 지역 행정 중심지에는 다양한 국내외 정기여객기 수용이 가능한 인공 활주로를 갖춘 대형 공항들이 있다. 지역적으로 중요한 공항으로는 콤소몰스크나야무레 공항, 아나드르 공항, 출만 공항, 텍시 공항, 오하 공항 등이 있다. 비포장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운행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공항들도 일부 있다.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 일본,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항공로의 일부도 극동지역들을 통과한다.

발전 전망: 비행기·헬리콥터 착륙장의 리노베이션, 항공 관리시스템과 공항설비 개선이 전망 있는 사업들이다. 유망한 사업으로는 야쿠츠크, 아르템(신규 국제공항 건설 완료),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센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팔라나 군, 유즈노사할린스크, 울란·우데와 치타의 공항 재건축 등이 있다. 야쿠츠크에는 네룬그리 시에서 공항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고, 신규 헬리콥터 및 비행기 구입이 계획 중이다. 하바롭스크 주에서는 비행선단 교체와 니콜라예프스크나야무레 시(市)의 활주로 재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르 주에서는 현지 제야 공항, 아르하라 공항, 마그다가치 공항, 스토보드니 공항의 레이더 장비 현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마가단 시에서는 공항이 재건설되고 있고, 사할린 주는 가까운 시기에 조날노에 공항과 오하 공항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치타스크 주에서는 트랜스·바이칼 군에서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형 항공의 비행선단을 현대적 항공기들로 보완하고 있다.

발전 특징: 활주로 및 비행장비들은 국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은 연방 사업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항공 수송 및 공항 서비스는 민간회사의 활동분야이다. 여기서 가장 요구되는 발전방향은 지방 항공노선과 간선 항공노선의 비행선단 교체이다. 모든 지방 항공사들은 대체로 지역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당국 혹은 운송을 수행하는 항공사의 논의주제는 항공장비(비행기, 헬리콥터)의 리스 제공이 될 수 있다.

극동 항공사: ‘블라디보스톡 에어’(블라디보스톡 시(市)), ‘사할린 항공사’(유즈노사할린스크 시(市)), ‘야쿠티아 항공사’(야쿠츠크 시(市)), ‘하바

롭스크 에어라인'(니콜라엡스크나야무레 시(市)), '보스톡 항공사'(하바롭스크 시(市)), 국영 '추코트카 에어'(아나드리 시(市)). 이밖에 극동에는 대형 항공사인 러시아 에어라인 '아에로플로트(Aeroflot)'와 '트란사어로(Transaero)', '시비리(S7 Airlines)' 등이 있다.

항공 운송시장 특성 개요: 현재의 시장 상황은 러시아 항공 수송분야의 합병과 통합과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에 5개의 주요 항공사가 여객 수송의 65% 이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합병과정은 항공 수송시장의 경쟁 강화와 관련이 있다. 2000~11년간 항공 수송시장에서 국내 항공사의 개수는 296개에서 2011년 말 126개로 감소하였다.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최근 3~4년간 시장에서 사라진 항공사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에어라인', '도모데도프스크 에어라인', 'KD 에어', '사마라' 등과 같은 유명 대형 항공사들이 있으며, 그 외에 극동의 대형 항공사인 '달리에어'와 이보다 앞서 대형 극동 항공사인 '마가단 에어라인'도 파산하였다. 비행선단을 높은 연료효율을 가진 현대적인 항공장비로 교체하지 못한 항공사들이 시장 내 입지를 잃고 있는 반면, 신속하게 현대화를 이루어낸 항공사들은 최고의 경쟁력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 운송분야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는

- 러시아 항공법
- 「항공업 발전의 정부 규제에 관한」 연방법
- 승객/화물 항공 운송의 일반 규칙과 승객,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서비스 규정.

항공 수송서비스시장의 주요 부문들은 다음과 같다.

- 공항서비스(간선 및 지방 항공), 착륙장(헬리콥터장)
- 화물 운송 및 화주 서비스
- 여객 운송(국제 및 러시아 국내 간선노선, 기타 국제, 지역간, 지방노선)
- 기타 유형의 서비스, 연구개발, 설계

5) 도로 및 육로 수송

극동지역 포장도로의 지표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일반육로 수송비율은 전체 운송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육로 수송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가장 많은 운송량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캄차카 주에서는 운송의 85%가 육로 수송이며, 마가단 주와 추코트카에서는 약 70%, 야쿠티아에서는 약 40%이다. 자연히 이 지역에서의 여객 운송 또한 버스가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극동의 일반 포장 도로의 총길이는 2010년 말 기준 3만 7,782km이고, 일반 포장 도로의 밀도는 1,000km²당 8km이다.

주요 운행 노선: 극동지역을 통과하는 치타-스코보로지노-스보보드니-비로비잔-하바롭스크 노선에는 연방 자동차 도로인 ‘아무르’가 있다. 이 노선의 길이는 2,097km이고 차도 폭은 7m, 노면 폭은 12m, 추산 통행량은 하루 3,000대, 추산 통행속도 100km/h이다. 야쿠츠크-마가단 노선에는 길이 2,032km이고, 대부분 흙/자갈로 덮인 연방 자동차 도로 ‘콜르마’가 지나고,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노선에는 길이 752km의 연방 자동차 도로 ‘우수리’가 지난다. 하바롭스크에서 우수리스크까지 가는 길의 대부분은 아시아 노선 AH30에 속하고, 우수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는 길은 AH6 노선에 속한다.

극동 관구 2010년 육로 수송 화물량은 1억 3,560만 톤(55억 8,700만 톤 킬로미터)이었으며, 일반버스의 여객운송은 5억 3,670만 명이였다(49억 3,900만 명/킬로미터).

극동지역에는 버스검문소가 5개 있으며(모두 연해주 위치), 그 중 3개소는 다방향 검문소이다.

러시아 연방 내 도로 등급: 「러시아연방 자동차 도로와 도로 활동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는 중요도와 소유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연방 자동차 도로(러시아연방 소유)

- 지역 및 지역간 자동차 도로(러시아연방 주체 소유)
- 지방 자동차 도로(지방, 도시 관구, 마을 소유)
- 사설 도로

자동차 도로는 공공 자동차 도로와 비공공 자동차 도로로 구분된다. 일반 연방 자동차 도로는 다음과 같은 도로를 포함한다.

- ① 인접 국가 수도, 러시아연방 주체의 행정 중심지(수도)와 모스크바 시를 연결하는 도로
- ② 러시아연방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 자동차 도로 목록에 포함되는 도로

참고로 다음의 도로 역시 일반 연방 자동차 도로가 될 수 있다.

- ① 러시아연방 주체의 행정 중심지(수도)들을 연결해주는 도로
- ② 연방 자동차 도로와 연결되고, 국제 교통 요충지 성격을 갖는 연결 도로(해항, 하천항, 공항, 철도역) 및 기타 연방 성격의 도로
- ③ 러시아연방의 행정 중심지를 러시아 연방 수도인 모스크바 시, 인근 해항, 하천항, 공항, 철도역과 연결해주는 공공 자동차 도로가 없는 러시아연방의 행정 중심지를 연결해주는 지선 도로.

공공 자동차 도로의 목록은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유료 도로: 「자동차 도로에 관한」 연방법은 자동차 도로 전체 또는 일부를 유료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도로들은 유료가 될 수 있다.

- ① 컨소시엄 계약에 기초하여 민간 투자자들이 건설한 도로
 - ② 해당 예산액을 사용하여 건설한 연방, 지역, 지방 도로
- 법은 도로의 유료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도로를 유료화할 때는 공공 자동차 도로로 가는 대체 무료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 대체 무료 도로의 길이는 유료 도로의 2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로 건설과 재건축: 러시아 교통전략은 2030년까지 극동지역에 급속 도로망을 개발하는 것이다. 도로 건설 및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거주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자동차 전용 간선망과 그 진입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 전략에는 국제통행로에 속하는 도로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

개발을 통해 극동지역의 경제성장 역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 당국은 유료 자동차 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건설 경험이 적지만, 법적 기반은 유료 도로를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도로 건설을 규제하는 법과 기준을 개선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적용되는 도로 건설기술의 대부분은 오래되었고, 금융기술 측면에서도 전망이 별로 없다. 탈출구는 도로를 신속하고 저렴하면서 수준 높게 건축하도록 해주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혹독한 기후 관련 도로 건설 및 운영여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로 건설장비와 신기술이 러시아 극동 전역에서 필요한 상태이다.

승용차 수: 극동은 도로 밀도가 매우 낮은 반면, 러시아 관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유량을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 평균치를 넘어선 것이다.

시장 특성 개요: 극동지역에서 화물의 육로 수송시장은 지리적으로 분류되며, 전반적으로(수출, 수입, 경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내 및 국제 운송에서) 국제기준에 약간 뒤처져 있다. 버스승객 수송은 이 지역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톡 터미널에서만도 매일 하바롭스크와 중국 노선 2개(하얼빈, 무단장)를 포함한 45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된다. 승객 운송시장은 화물 운송에 비해 정부 관리의 비중이 크다. 관리수단으로는 요금 규제, 노선 및 운행 시간 결정, 국제 운송 조직분야에서 연방 당국과의 협력 등이 있다. 다양한 주체의 운송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승용차, 택시 등을 통한 운송장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송분야에 도입해야 할 신기술을 포함한 개발방식이 현재 요구되고 있다(‘스마트 교통’: 세계 위성항법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 ‘녹색 교통’: 환경 영향이 적은 기술과 교통수단의 도입, 가스연료 전환 등).

여객 육로 운송분야에서 이 지역의 교통정책은 행정수단의 규제하에 있는 민간 우수 회사들을 활용하는 방식과 현대식 터미널 및 정류장 망을 건설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의 운영절차는 지역 행

정당국의 제안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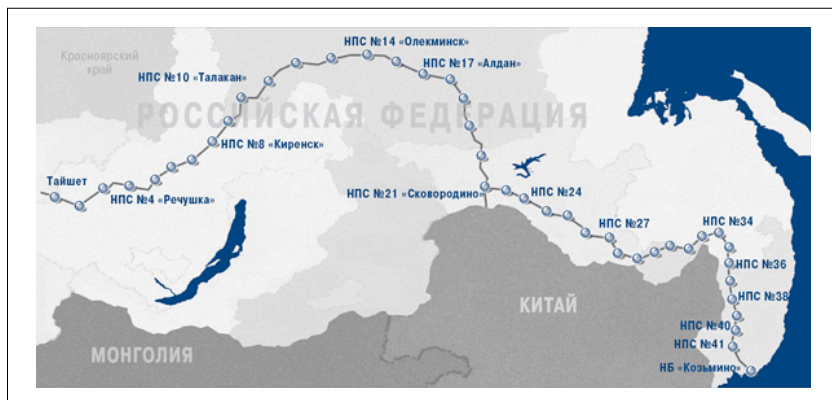
러시아에서의 모든 화물 육로 운송은 민간회사들에 의해 수행되는데, 각각의 회사는 2~3대부터 수백 대에 이르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운송량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차량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적 운송조직 및 물류방식의 도입이다. 특히 이는(차량검문소를 지나 국경을 넘는) 국제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극동 전 지역의 도로상태 및 중량제한 등을 들 수 있다.

6) 관로 수송

극동지역의 관로 수송은 간선 송유관(ESPO) 및 가스관(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으로 대표된다.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은 시베리아 서부 및 동부의 유전과 나훛카 만에 있는 특별 원유 수송항 ‘코지미노’, 그리고 나훛카 근처의 정유공장을 연결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국가 시장공급이 가능해진다. 송유관의 총길이는 4,000km가 넘고, 용량은 최대 8,000만 톤이다. 송유관 운영자는 ‘트란스네프티’ 공사이다. ESPO를 통해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석유는 ESPO라고 불린다. 송유관 건설은 2012년 말로 계획되어 있다.

그림 4-2 ESPO 노선도



스코보로지노·중국 국경 송유관은 ESPO 송유관 시스템의 지선이며, 러시아 석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용도이다. 러시아 부분의 송유관 길이는 63.4km이다. 2010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중국으로의 석유 공급은 2011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

그림 4-3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노선도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 수송망: 이 가스 수송망은 사할린에서 시작하여 네벨스코보 해협을 거쳐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 하바롭스크 시 옆을 통과한 다음, 블라디보스톡에서 끝이 난다. 이 가스관은 복잡한 지진 여건의 지역들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네벨스코보 해협 옆에서는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 유역에 속하는 400개 이상의 하천 장애물과 교차한다. 가스관의 총길이는 1,800km 이상이다. 개발 완료 시 14개소의 압축센터를 갖추어 이를 통해 매년 300억 m^3 의 사할린 가스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스 수송망은 길이 472km의 기존 ‘콤소몰스크나아무레-하바롭스크’ 가스관을 포함한다. ‘사할린-하바롭스

크-블라디보스톡' 가스 수송망의 운영업체는 '가스프롬 트란스가스 톰스크'이다.

관로 수송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은 이제 겨우 만들어지고 있다. 간선 관로와 관로망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러시아연방 내 간선 관로에 관한」 연방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 연방법 채택까지 시장 참가자들은 산업 및 정부기관 문서, 특히 「2013년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내용과 기타 적용 가능한 지침들을 따르고 있다.

6. 인프라 및 건축업

1) 2018년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된 건축사업

극동지역 내 인프라 및 건설업은 주로 연료 에너지 복합단지 및 수송분야에서 인프라 측면의 장애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2018년까지 전망은 스투드네빌류이스크 가스콘덴사이트전·마스타흐·베르게·야쿠츠크에 이르는 세 번째 가스관 건설 실행이다. 이 사업은 야쿠츠크 시와 사하공화국(야쿠티아)의 다른 거주지역들에 대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미르니·순타르·뉴르바에 이르는 고압전선(220kV)과 네룬그린스카야 발전소·니즈니 쿠라나흐·토모트·마이야에 이르는 고압전선(220kV)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하니 변전소에 있는 아무르 혁신 복합단지 건설도 진행 중이다. 데푸타츠키 마을과 즈랴카 마을에 소형 화력발전소 건설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현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8개의 공항이 재건축 중이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내에서 자동차 도로 '알단'(한드가-제바리키-하야), '빌류이'(야쿠츠크-순타르-미르니-우스찌-쿠트-톨룬), '암가'

(야쿠츠크-암가-우스찌-마야-엘디칸-유고레눅-아얀)의 건설이 끝나가고 있다.

「남부 야쿠티아 종합 발전」 사업의 목적은 야쿠티아 남부의 천연자원 잠재력과 알단 강 및 그 지류의 수력자원을 이용하여, 사하공화국(야쿠티아) 내 민관 협력 원칙에 기초한 신규 대형 제조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 제조단지 설립의 특징으로는 원자력(엘콘 우라늄 채굴 및 가공 콤비나트), 석탄(네룬그린, 데니슈, 출마칸 석탄단지에 기초한 사업들), 화학(셀리그다르 광물화학단지와 알단 가스화학단지) 및 제철 클러스터로 통합된 새로운 제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사업은 러시아 극동에서 민관 협력에 의해 실현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해주

전망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280억 루블의 비용이 소요되는 국제수송로 ‘연해주-1’ 개발, 1,380억 루블이 소요되는 국제수송로 ‘연해주-2’ 개발, 70억 루블이 소요되는 슬라반카 마을 내 곡물이송단지 건설, 70억 루블이 소요되는 트로이짜 만 내 곡물터미널 건설, 28억 루블 규모의 슬라반스크 선박수리공장 기반 석탄이송단지 건설, 118억 루블이 소요되는 수호돌 만 북부 석탄터미널 건설, 42억 루블이 소요되는 보스토크 마을 텅스텐 광상 채굴장 건설, 2억 루블이 소요되는 올가 마을 대리석, 미소 방해석, 건축용 모래공장, 890억 루블이 소요되는 조선 복합단지 ‘즈베즈다’ 건설, 170억 루블이 소요되는 현 무암 가공 및 유리 제조단지 건설, 350억 루블이 소요되는 블라디보스톡 시 화력발전소 ‘보스토치나야’ 건설, 4,000억 루블이 소요되는 나훗카 시 석유화학단지 건설, 1,600억 루블이 소요되는 나훗카 시 가스화학공장 건설, 66억 루블이 소요되는 블라디보스톡 시 주거신도시 건설, 블라디보스톡 시(市) 데이터처리센터 건설 및 블라디보스톡·부산(한국) 간 광섬유 매설 프로젝트, 110억 루블 규모의 ‘극동 연방 대학’과 ‘Siemens AG’사 간의 합작사업.

하바롭스크 주

바닌 항과 니콜라옌스크나야무레 항을 연결해주고, 북부지역의 산림 자원 개발 및 수송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동차 도로 리도가-바닌, 셀리히노-니콜라옌스크나야무레, 콥소몰스크나야무레-베료조비-암군-모그디-체그도른, 아얀-넬리칸-유고레눅 건설이 전망있는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아무르스카야 해협을 지나는 교량과 진입로 건설이 시행될 것이다.

수운분야에서는 바닌 항에서 바닌·홀름스크 자동차·철도 연락선 연안 설비의 재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는 사할린 섬과 내륙 간 화물 및 승객 운송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 외에도 현지 공항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으며, 재건축 완료 후에는 공항을 주소유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바닌 항, 소베츠키야가반 항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거점 조성을 위해 항만능력 개발, 항구 인프라 개발, 철도 인프라 확장이 계획 중이다. 거점 조성의 기초가 되는 사업들로는 바닌 항의 무치카 만에서 2,500만 톤 물량의 운송단지 건설과 최대 1,000만 톤 및 1,200만 톤 물량의 석탄 특화 터미널 2개소 건설, 그리고 소베츠키야가반만의 마리야 만에 처리능력이 최대 700만 톤의 철광석 정광 이송단지 건설 등을 위한 기본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의 화물 운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철도 운송능력을 연간 3,000만 톤까지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연간 6,000만 톤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콥소몰스크나야무레-소베츠키야가반 구간의 신규 쿠즈네츠프스크 터널 건설 및 오우네-브소코고르나야 구간 재건축 사업을 통해 오우네-브소코고르나야 우회 철도 구간 건설과 함께, 노보-쿠즈네쵸프스크 신규 터널과 대피선, 터널 일방 진입로, 기술안전장치, 양측선에 1100m 길이의 대피로 2개(우회길이 27.05km, 터널 길이 3.98km, 전체 구간 길이는 10.6km 감소)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아무르 주

부레이스크 수력발전소 침수구역 준비와 관련된 여러 조치들이 마무리 되고, 블라고베센스크 화력발전소 2기 건설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네크 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14개 거주지역에서 자동차 도로 '아무르'(치타-하바롭스크)에 이르는 진입로와 블라고베센스크 시 진입로 및 제야 강 교량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아무르 강 호안 공사 및 블라고베센스크 시 강변도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블라고베센스크 시의 주거공공서비스 체계 효율성 강화 목적으로 북부 거주지역부터 블라고베센스크 시 하수처리장까지 하수도관 교체와 쓰레기처리공장 건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조치들로 인해 이 지역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다.

블라고베센스크 시의 시립병원과 주립 소아병원 외과부 신설, 벨로고르스크 시의 병원 건립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러시아 입원실 기준을 만족시키는 현대적인 종합 입원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린스크 광상 개발 및 원광 생산능력이 연간 700만 톤, 상업적 광석 293만 톤, 용해 펠릿 290만 톤인 광업 선광 콤비나트 건설이 예상된다. 가린스크 광상의 1차 철광석 채굴과 선광뿐 아니라 선철 형태의 완제품 획득도 가능한 통합 제조 복합단지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 기술은 산업적으로 획득한 것이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업체가 활용 중이다. 여러 인프라 설비공사도 계획 중에 있다.

셀렘주 강을 지나는 교량과 가리·페브랄스크 자동차 도로가(비용 36억 4,000만 루블) 건설되면 생산된 제품을 바이칼·아무르 철도, 그 다음 바닌항과 소베츠키야가반 항까지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오고진스크 광상의 석탄 수송도 가능해진다. 셀렘주 강을 지나는 교량 건설 역시 지역 내 및 지역간 화물과 승객 운송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셀렘진스크 지역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닌다.

캄차카 주

현재 소보레프스크 군-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구간의 가스관 건설, 톨마체바 강의 다단식 수력발전소 및 밀리코보-우스찌-캄차츠키 구간의 고압전선(220kV) 설치가 끝나가고 있으며, 현지 수입연료를 대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소형 화력발전소 건설도 예정되어 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시 공항의 활주로 재건사업과 함께 여러 거주지에 교통 접근성을 제공하는 도로 건설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시에 여객선 터미널 건설, 겨울용 도로 건설과 현대화, 임항역 재건축과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지 비행장 활주로 재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캄차카 반도와 내륙 및 사할린 통신망 구축 사업도 예정되어 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시에 주립병원과 아동병원 건립으로 모든 진료과목에서 주민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가단 주

우스찌-스레드네칸스크 수력발전소 1기 건설, 우스찌-스레드네칸스크 수력발전소-두카트 간 고압전선(220kV), 오로투칸-팔라트카-첸트랄나야 간 고압전선(220kV), 첸트랄나야-소콜-팔라트카 간 고압전선(110kV) 설치가 곧 완료될 예정이며, 이는 광물원료분야에서 유망한 사업들을 실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팔라트카-쿨루-넥세칸 구간과 콜르마-옴숙찬-오몰론-빌리비노-콤소몰스크-아나드리 구간 자동차 도로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은 마가단 주의 거주지 교통 접근성 확보와 추코트카 자치구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마가단 해항의 연방 소유 시설(수력시설)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사할린 주

우글레고르스크 군에서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사할린 발전소(2014년까

지 가동 중단)의 교체와 경제발전을 위한 사할린 섬 충전력 증강을 위해 손첵스코에 광상을 활용하는 발전소 건설이 기대되고 있다.

사할린 섬 도로망 발전을 목적으로 남 사할린-오하 자동차 도로(섬 북부와 남부를 잇는 도로망) 건설과(유즈노사할린스크 시와 네벨리스크 항을 연결하는) 오곤키-네벨리스크 자동차 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수운분야에서 바닌·홀름스크 자동차·철도 연락선의 연안 설비 재건축 및 2개의 자동차·철도 연락선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코르사코프 해항, 우글레고르스크 해항의 수력시설 재건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할린 섬의 공공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이사가는 인구를 고려하여 발전 중심지인 돌린스크 시에서 냉온수 공급체계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공서비스시설 종합 재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유대인 자치구

‘아무르’ 연방 자동차 도로와 아무르 강의 항구들, 러시아연방과 중국 국경의 차량검문소 및 여러 거주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자동차 도로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다.

비로비잔 시 근처의 비라 강 호안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개선 및 범람 피해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대인 자치구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금융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킴칸스크 및 수라츠크 철광석 광상 개발, 채굴·선광 콤비나트 건설, 그리고 니즈네레닌스크·통장 지역에서 아무르 강을 지나는 철도 교량을 통한 제품수출을 가능케 할 통합 제조운송지구 조성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이 사업의 제안자는 러시아·영국 회사 ‘피터 함브로 마이닝(Peter Hambro Mining PLC)’이다. 콤비나트 제품 판매가 중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콤비나트의 조성을 위해서는 유대인 자치구 내에 있는 니즈네레닌스크 항 지역에서, 아무르 강을 지나는 니즈네레닌스크(러시아연방)-통장(중국) 간 철도교량 건설이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아무르 강을 지나는 국경 교량 건설은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 교량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로부터 기존 철도지선인 비로비잔-레닌스크를 따라 중국의 푸젠톈진 국영철도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교량은 킴칸·수타르스크 채광·선광 콤비나트의 제품과 아무르 주의 티타늄·자철광 정광 및 기타 정광을 중국에 공급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 교량을 통한 화물 운송 총량은 2013년에 연 2,000~2,500만 톤이 될 것이다.

길이 124km의 비로비잔-레닌스크에 2단계에 걸친 철도지선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량의 온전한 활용은 불가능하다.

1단계에서는 밸러스트 교체와 철로 상부구조 수리 및 아무르 강을 지나 는 교량 접근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2단계에서는 철로 노면 확장과 수리가 계획되어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

쿠파과 마이스코에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압전선을 설치하고, 차운스크 화력발전소, 빌리빈스크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성을 높이며, 아나드리 시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빌리빈스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되지 않았던 용량을 가동하게 해주는 전선 설치공사는 발전소 가동기간 연장 이후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나드리 해항의 연방 소유 설비에 대한 재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추코트카 자치구 내의 빌리비노·아뉴이스크 도로, 콜르마·옴숙찬·오몰론·빌리비노·콤포소몰스크·아나드리 도로 건설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아나드리 지역의 제조거점 개발사업은 오제르노 서부 가스전과 베르흐네텔레카이스크 유전 개발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제르노 서부 가스전과 베르흐네텔레카이스크 유전 개발을 위해서 아나드리·오제르노 서부 가스전·베르흐네텔레카이스크 유전·베링 마을 간 자동차 도로 건설이 필수적이며, 이 도로의 건설은 러시아연방 직접투자 기금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설계 시공회사 개요

극동지역 설계회사의 총수는 대형 설계연구소 및 중소 또는 전문 기업을 포함하여 400여 개 정도인데 각 기업의 설계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 설계회사의 주요 장점은 현지의 설계 기준과 규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극동의 시공회사 숫자는 설계회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회사와 중소 회사를 포함하여 3,000개 정도이다. 전문성도 다양하다. 사할린 회사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사할린-2 등의 사업에 참여한 것은 시공사들의 조직력을 가장 높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APEC 정상회담은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설계 시공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요 시공사와 하청업체 대부분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시공이 끝난 후 귀국하거나 귀향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장 및 거주지 시공, 재건축, 마감공사, 기술공사와 같이 현지 회사들의 일반적인 주문목록에서 현지 시공사들의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국영 '로스네프티' 사(社)는 가까운 시기에 연해주에서 대형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로스네프티' 사(社)는 보통 현지 기업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 공사 이후 시공사들의 전문성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축자재 시장

시멘트와 혼한 건축자재를 제외한 건축자재의 제조는 극동지역에서 발전이 미미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자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건축자재들을 러시아 다른 지역이나 주변 국가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금속은 보통 러시아나 중국 공장에서 들어온다. 시멘트는 극동지역 또는 한국에 위치한 공장에서 가져온다. 벽돌은 현지 공장, 러시아 서부지

역, 한국 등에서 들여온다. 그 외 흔한 자재들은 현지 조달한다. 마감재로는 모두 수입품이며 한국과 러시아 공장에서 제조한 Lafarge와 Terrako 제품이 수요가 있다. 일반 타일과 자기 타일은 중국제와 러시아제가 사용된다. 전기장비는 러시아 회사의 선택 폭이 넓으며, Siemens, ABB, Schneider Electric, Cisco, Perco 등의 제품도 사용된다. 에어컨은 일본의 Daikin, 한국의 LG, 중국의 다양한 브랜드가 사용된다. 중국 집열기로 만들어진 태양의 제품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외벽 재료는 독일제 슈코(Schüco)에서 중국제 알루미늄본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화재안전을 감독하는 정부부서인 러시아 긴급구조부 직원들이 매다는 외벽 재료에 대해 내화성 부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약하자면, 현지 제조회사들이 다양한 제품으로 그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의 모든 주문을 신속히 소화하여 판매하고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동 북부에서 건축공사를 계획한다면 운항 가능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건축공사 및 수행절차

공사 설계, 허가, 시행 절차는 기본적으로 도시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건축활동이 러시아연방과 지방 정부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 및 허가 서류작업과 그 절차를 온전히 규정하는 단일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부지문제를 해결한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연방 또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는 경매와 임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자체의 경매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주로 부지는 2차 시장, 즉 이전에 부지를 매입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서 구입하게 된다. 사업이 국영기업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방부나 군산림청의 부지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주택건축의 임대권에 대한 경매가 진

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매는 모든 연방 토지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주택 건축 개발 기금이 수행한다.

- ② 부지를 획득한 다음에는 설계자들이 사전 설계와 초안 설계를 수행한다. 이는 외벽과 건축물의 전체적인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사전 수리지질학 탐사가 이루어지고, 토양의 특성, 지하수 수위 등을 밝힌다. 이는 공사현장 아래에 버려지고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방공호나 묘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전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 ③ 이후에는 실제 설계가 진행된다. 외국인투자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자국의 설계자를 영입하는 것이다. 러시아 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는 것은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독특한 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는 상세 설계도를 시공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정부의 설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상세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도면 없이는 어떠한 시공사라도 건설에 착수할 수 없다.
- ④ 설계도가 준비되고, 발주자의 동의도 얻으면 공사의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인 상하수도, 전기, 온수 연결을 위한 기술조건서 구비 단계가 시작된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이다. 이 과정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더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개인 발주자가 블라디보스톡에 집을 한 채 짓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설계도 완수했고, 온수연결기술조건도 통과했다. 그런데 온수 공급회사가 온수 연결을 위해서는 공사비와 맞먹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투자자는 돈과 시간을 모두 잃게 된다. 두 번째 경우,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투자자가 온수 공급 문제를 현지 가스보관소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가스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보관소의 가스는 자동차로 실어와서 보충하는데, 이는 당연히 이런 주택을 위한 안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세 번째 경우, 전기 연결조건이 필요한데 해당 지역에는 변전소를 국방부 산하 조직인 ‘오보론에네르고’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 업체로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요건서를 발급

받는 데에만 2년이 걸린다. 전반적으로 기술조건서 획득에는 그만한 비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흔치 않다.

- ⑤ 설계도가 완성되고, 기술조건서도 구비한 후에는 정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다. 최근에는 비정부기관 심사도 법으로 허가된 바 있으나, 아직은 이 기관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설계심사는 복잡한 과정이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실수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발주자에게 이익이다. 이는 건축공사에는 다음의 규칙이 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계단계에서 발견한 실수는 고치는 데 1루블이 필요하다면, 공사단계에서 발견된 실수는 10루블이 필요하며, 사용단계에서 발견한 실수는 100루블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실수를 많이 찾아낼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부심사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거나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⑥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았다면, 그 문서와 다른 문서들을 함께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건축허가와 시공일지, 건축감독관리인의 검사일정을 받게 된다. 이 문서들을 가지고 발주자는 공사에 착수할 시공자를 고용한다. 러시아에서 건축자금 조달방식은 서구 나라들과는 차이가 난다. 러시아에서는 발주자의 돈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발주자가 선금을 주면 시공자가 일을 하고, 선금이 떨어지면, 공사는 중단된다. 이렇게 발주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선금을 내야 한다.
- ⑦ 공사가 종료된 후에 발주자는 건물의 인수증을 작성하고, 등록기관에서 소유권을 확립한 후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 ⑧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후에 발주자는 임대한 부지를 자신의 소유로 구입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공통된 의견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고, 두 번째 경우는 더 낮은 세금을 내면 되지만, 토지를 사는 것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다.

일반적인 공사기간은 면적이 예를 들어 1만~2만 평방미터일 경우에, 설계와 기술조건서를 위해 1.5~2년이 필요하고, 공사에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은 발주자가 협조적이고, 전문 설계자와 시공자가 있다면 단축될 수 있다.

건설 및 시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는 러시아에 등록하고,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서류는 공사시행권이다. 이러한 허가서는 비정부 관리기관에서 발급한다.

러시아에서의 투자 및 건축 활동 관행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지역진출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자는 믿을 만한 동업자, 대개는 정부와 연관된 동업자들을 찾는다. 투자자가 거물일수록 더 능력 있는 로비스트를 찾곤 한다. 이 점에서 한국 대형 회사인 롯데가 노브이 아르바트와 사도보에 콜초 교차로에 롯데플라자 쇼핑센터를 건축함으로써 모스크바 건설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이 회사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어려움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거물급 동업자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를 찾았지만 몇 개월 후 베레조프스키가 러시아를 떠나야 했다. 건축공사는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다 마침내 10년 만에 쇼핑센터가 완공되었다. 2010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스크바 정부는 이미 완공된 롯데플라자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시공자와 마찰이 있다. 2012년에 시청은 한국사람들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8,700평방미터를 초과했다고 통보했다. 모스크바 시는 롯데그룹 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보상금액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제 시 당국은 법원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예는 러시아 규칙들과의 모든 마찰을 피하기란 외국 대기업에 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크지 않은 건물 건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부지 매입 또는 등록에 앞서 발주자는 자원(전기, 수도, 온수) 공급업체에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연결 요청 이전에 사전정보부터 모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지 위치 선정에서는 도시 중심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모든 종류의 건설에는 나름의 요구조건들이 따른다. 공장 건설이라면 그것은 철도,

공항 인접성일 것이다. 사무용 건물이라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중심지에 가까워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라면 우선적으로 마트, 학교, 병원, 유치원까지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해안을 따라 위치한 아름다운 건물들이라도 필수적인 인프라와 가깝지 않다면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다.

업무를 당국과의 친밀도에 의존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작성된 허가문서에 의지하는 것이 더 좋다.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보험은 전문적으로 잘 수행된 업무이다.

첫 건물을 지으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일회성 어려움이고, 어떤 위협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 후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7. 서비스 분야

극동지역들은 천연자원 외에도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투자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아무르 주

아무르 주의 산악 풍경과 수량이 풍부한 강들은 이 지역에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아무르 주의 가장 전망 있는 사업은 친환경 관광사업이다. 이 분야의 관광업 개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무르 주에 위치한 제이스크, 힌간스크, 노르스크 세 곳의 자연보호구역이다.

고대 유물 애호가들에게는 쿤두르(아무르 주)에 있는 공룡 매장지가 흥미로울 수 있다. 1990년대 신규 철도를 건설할 때 이 지역에서 이 전에 알려지지 않은 종류를 포함하여 수천 개 이상의 공룡 뼈가 발견되었다. 다른 유적지로는 약 1만 년 전에 돌에 새겨놓은 아무르 벽화가 있다. 아무르 주에서 20여 개의 고대 암각화 작품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잘 보존된 것은

쉬마노프스크와 마그다가친스크 지역 경계에 위치한 절벽에 그려진 암각화들이다. 고대인들이 사냥, 가족, 종교의식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 곳에서 숭배장소를 장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르 주의 자연과 유적지들은 지구에서 10번 째로 큰 강인 아무르 강의 유람선을 타면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유대인 자치구

이 주에는 '바스타크'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자연보호구역 내에는 10개 이상의 카르스트 동굴이 발견되었다. 동굴학자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장 유명한 동굴로는 늙은 곰 동굴, 깊은 동굴, 양봉 동굴, 통로 동굴, 얼음 동굴 등이 있다.

유대인 자치구에는 치료효과가 있는 온천들이 있다. 특히 쿨리두르 마을에 있는 요양소들이 유명하다. 쿨리두르는 고대 골드족 말로 뜨거운 물을 의미한다. 이곳은 극동지역의 오래된 공식 휴양지이다.

캄차카 주

캄차카 주는 독특한 천연 관광지들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 이곳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코랉스크 및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이 있다. 코랉스크 자연보호구역은 1995년에 선정되었다. 그 면적은 3만 2,715헥타르이며, 그 중 거의 삼분의 일이 오호츠크 해 수역이다.

코랉스크와는 달리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곳 중 하나이다. 이곳에는 12개의 활화산과 유명한 우존 사화산이 있다. 고리모양의 우존산 분화구는 직경이 약 10km이며, 지질학적 미생물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곳이다. 캄차카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클류체프스카야 솜카의 높이는 해발 4,750m이다. 이 화산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고 캄차카 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다. 화산들의 웅장한 경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의 관광지 중 하나는 간혈온천 계곡인 넓이 약 2km, 길이 4m 가량의 화산 협곡이다. 그곳에는 약 20개의 대형 간혈온천

외에 많은 온천들이 있으며 때때로 끓는 물(95°C 이상)이나 증기가 솟아 오른다. 매 10~12분마다 솟아오르는 간헐온천들도 있으며, 4~5시간에 한 번씩 배출되는 온천들도 있다. 1993년부터 이 협곡은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다.

캄차카에는 온천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온천장은 이 지역의 혹독한 겨울에도 1년 내내 노천에서 개방된다. 가장 유명한 온천욕장들은 파라툰카에 있다. 이곳에는 요양소들도 위치해 있다.

캄차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는 크로노츠크 호수이다. 이 호수에는 담수종 홍연어와 산 곤들매기 고유종 세 종이 살고 있다. 이 독특한 생태계는 관찰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자연보호구역은 현재 관광객들에게 개방 중이다.

마가단 주

마가단 주는 매머드의 나라로 불린다. 죽은 매머드의 수가 워낙 많아서 로마제국시대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수백 년 동안 상업적인 매머드의 엄니 채굴이 이루어졌다. 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에서 해마다 2만 쌍의 엄니가 발굴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또 다른 추산에 의하면 엄니 채굴은 연간 수천 톤 이상에 이르렀다.

약 35년 전에 콜르마에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학자들을 고심에 빠지게 하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바로 잘 보존된 매머드 새끼가 발견된 것이다. 일본학자들은 매머드를 복제하자고까지 제안하고 있다.

나가예바 만의 해항은 마가단 시와 마가단 주 전체로 들어오는 주요 화물을 수용한다. 이 해항의 역할은 마가단 시에 야쿠츠크 시에서 오는 철도가 놓인다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사하공화국(야쿠티아)

야쿠티아는 광물자원의 보고라고 불리운다. 서부 야쿠티아의 다이아몬드 광장과 알단 강, 인디기르카 강, 야나 강 유역의 금 광장은 매우 유명하

다. 사하공화국은 천연 광물자원이 풍부한데, 러시아 전체 다이아몬드 채굴량의 90%, 금 채굴량의 40%가 이곳에서 채굴되고 있다. 야쿠티아를 종종 다이아몬드 주라고 부르는데, 알로사(러시아 사하 다이아몬드) 사는 전세계 다이아몬드의 약 1/4을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야쿠티아의 다이아몬드는 전문가들로부터 그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

야쿠티아의 자랑이자 주요 수원은 레나 강이다. 레나 강변에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길고 두 번째로 큰 야쿠츠크 삼각주가 위치해 있다. 여름에 관광객들은 이곳의 편안한 유람선에 매료된다.

관광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렌스키 기둥’ 자연공원이다. 이 독특한 자연현상은 장대한 레나 강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이 기둥들의 괴이한 모양 속에서 주랑, 탑, 아치, 사원, 톱니모양 벽을 발견할 수 있다.

야쿠티아 민족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것은 사슴썰매 경주이다. 사슴은 야쿠티아인들에게 옷이자, 음식이자, 교통수단인데, 이제는 스포츠와 오락의 도구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사슴을 이용한 다채로운 스포츠 경주의 애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할린 주

이곳은 남북으로 900km 이상 뻗어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 섬을 포함하는 도서지역이다. 섬들은 기기묘묘한 절벽 풍경과 독특한 자연조건으로 관광객을 유인했다. 캄차카처럼 이 지역 섬들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화산들이 펼쳐져 있다. 사할린 섬에는 진흙 활화산이 있는 세 군데의 지역이 몰려있는데, 이곳에서는 치료용으로도 진흙을 사용할 수 있다. 물고기가 풍부한 연안에는 많은 대형 해양동물들이 살고 있다. 사할린 주에는 많은 치료용 온천들도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요양소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다이빙 애호가들은 국제 다이빙 기지가 될 전망이 있는 ‘모네론 섬’에 가보고 싶을 것이다. 사할린 주의 가장 전망 있는 국제관광사업은 여러 섬들을 방문하는 유람선 관광이다.

하바롭스크 주

현대적인 관광의 관점에서 볼 때 하바롭스크 주는 아직 개발이 부족하지만, 모든 관광서비스가 제공되는 중심지들도 일부 존재한다. 휴양지들은 주로 하바롭스크와 콤포몰스크나아무레 주위에 집중되어 있다.

아무르 강은 가장 많은 자연, 문화, 역사 관광지들이 집중된 관광 중심지이다.

관광객들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아무르 강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역사, 문화, 전통과도 마주치게 된다.

하바롭스크 주에서만 길이가 6m, 무게가 1,000kg에 달하는 칼루가(철갑상어류)를 잡을 수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 세계 낚시인 협회 등급에 따른 타이멘, 쿤자와 같은 종류의 물고기 낚시의 공식 세계기록이 존재한다.

추코트카 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는 서쪽으로 콜르마 하류와 추코트카 반도의 데쥐네바곶 사이의 육지와 브란젤랴, 아이온, 아라캄체첸, 라트마노바, 게랄다 등의 섬들에 자리잡고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 내에는 국경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국경청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착민족의 전통문화 애호가라면 러시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우엘렌 마을에 끌릴 것이다. 여기서는 현대 추치족과 에스키모인들의 일상과 전통 가업인 바다 어로를 볼 수 있으며, 진짜 바다코끼리의 뼈, 가죽, 털과 고래수염으로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기념품도 살 수 있는 박물관과 뼈를 조각하는 작업실을 구경할 수 있다.

연해주

연해주는 관광 발전 전망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는 연해주의 풍부한 자연관광지뿐 아니라 가장 유리한 기후와 더 발전된 교통인프라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연해주에는 ‘연해주 도박장’ 혁신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사업의 대부분에서 투자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위한 기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도박장 근처에는 해수욕장으로 적합한 미개발 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다.

연해주의 전망 있는 사업으로는 말 관광과 경마 산업도 들 수 있다. 말 관광 및 경마 산업 발전과 그를 기초로 한 대중 오락산업 개발은 아태지역 인접 국가들과 러시아 인접 지역들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가 있다.

말을 활용한 업종 개발에서 명마 육성을 빼놓을 수 없다. 종마업은 말의 품종을 개량하고 신품종을 개발하며 종마를 육성하는 일이다. 연해주에는 명마를 육성하는 종마장이 몇 군데 있다. 연해주의 대규모 종마업은 아직 구상 중에 있으며, 연해주 기업인들은 아태지역 국가들로 말을 수출하고 싶어한다.

연해주의 경쟁력 있는 관광사업으로 순례와 종교관광을 들 수도 있다. 현재 러시아로의 순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국 성지로의 순례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이다. 순례는 성지로 알려진 장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장소에는 수도원, 사원, 산/강/호수/숲/동굴과 같은 자연물이 포함될 수 있다. 순례는 특정 축일과 날짜를 맞추어 하는 경우가 많다.

연해주에서 종교 관련 경제활동의 성장은 주민들에게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기록자료에 따르면 혁명 이전에 연해주에는 150개의 사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80개 가량의 사원과 수도원만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건축 기념물로는 포크롭스크 대성당과 기적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다.

2013년에 블라디보스톡 시 중심지에서는 시민의 기부로 건립되는 극동에서 가장 큰 정교회 대성당 건물 건축이 완료될 것이다.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성당은 그 높이가 67m가 될 것이며, 건물은 0.7ha 면적으로 중앙광장 옆에 위치할 것이다.

2012년 연해주에서는 정교회의 기념물인 마르포·마린스크 자비로운 여성교회 건물의 복원이 시작되었다.

종교 관광객들의 방문장소는 수도원과 사원뿐 아니라 독특한 자연장소, 산, 강, 호수, 치료 온천, 숲, 동굴도 될 수 있는데, 연해주에는 그러한 장소가 많이 있다. 수백 개의 전설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피단 산이 특히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

독특한 자연경관과 함께 생태관광 발전잠재력도 높다. 특별 보호구역의 면적은 연해주 전체의 약 14%에 달한다. 이곳에는 특별 자연보호구역이 집중되어 있는데, 12개의 자연보호구역과 2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1개의 자연공원이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300개 이상의 자연 관광지가 존재한다. 역사와 민족 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만날 수 있는 문화적 민속 거주지역들도 있다. 연해주 강 유역에는 30여 개의 아름다운 폭포가 흐른다.

연해주는 동물계 및 식물계의 풍부함과 다양성에서 러시아에서 필적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는 연해주의 좋은 지리학적 위치와 빙하기 때 지표면을 뒤덮은 얼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곳에는 호랑이, 표범, 얼룩 무늬 사슴, 히말라야 곰, 산양, 극동 붉은 사슴, 사향 노루, 노루, 너구리, 흑담비, 우수리스크 고양이, 여우, 수달 등 82종의 많은 포유류가 살고 있다. 연해주의 조류는 특히 매우 다양하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조류는 458종이며, 그 중 많은 새들이 다양한 등급의 멸종위기종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멸종위기종에 포함된 모든 희귀 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연해주의 숲과 해안과 호수 및 강들에 서식하고 있다.

연해주 식물계에는 250종 가량의 나무, 관목, 덩굴을 포함한 2,000여 종 이상의 희귀 종들이 발견된다. 이끼류도 매우 다양하다. 연해주 식물계에는 많은 귀한 약초, 연구용 및 식용 나물, 많은 잔류종과 고유종들이 존재한다.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 200개의 식물 종이 위협에 처해 있는 다양한 등급의 희귀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

많은 나무들 중에서는 엄나무를 언급할 수 있다. 이 나무에는 날카롭고 단단한 가지들이 있는데, 극동의 두릅나무과 나무들 중에는 가장 큰 가지들이다. 타이가인들이 이 나무를 '악마의 나무'라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섬들에서는 1억 4,000만 년 전에 쥐라기시대에 살았고 공룡과 한 시대를 살았던 주목나무들도 볼 수 있다. 진달래 역시 고대종이다. 학

자들은 현대 진달래의 조상이 5,000만 년 전 온난기후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코마로바 연꽃은 러시아 극동 남부에 널리 퍼져 있는, 특히 아름다운 수생식물이다. 인삼은 가장 유명한 동양의학의 약용 식물이다. 수천 년 동안 인삼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고 노인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생태 관광객들 중에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뿐 아니라 극한관광에서 감정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타이가의 외딴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연해주는 래프팅 애호가들에게도 좋은 곳이다. 래프팅은 흥미진진한 모험이며, 감정 고조와 물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승리를 맛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단결심을 강화시켜주지만 물놀이 기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연해주에는 약 1,500개의 강과 3,000개의 호수가 있다. 가장 큰 강은 우수리 강으로, 강의 풍부한 물은 험준한 산을 둘러싸 흐르고 있다. 뗏목을 타고 가다보면 독특한 우수리 남부 타이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래프팅 관광객들은 케마 강과 그곳의 수많은 급류를 더 좋아한다. 래프팅 애호가들에게 아르무 강을 따라 뗏목 타기도 권해볼 만하다. 연해주의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는 밀로그라도프카 강이다. 강이 흐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상류의 거대한 폭포와 중간에 많은 급류들을 만드는 바위들을 볼 수 있다.

연해주 포트르 대제 만에는 러시아 유일의 해상보호구역이 있다. 이 구역은 1975년에 동해 대륙붕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해상보호구역의 면적은 6만 4,360ha이며(그 중 6만 3,000ha가 해상), 8개의 섬들이 포함된다. 구역은 동부, 서부, 남부의 세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부(해상 면적 4,500ha, 연안면적 700ha)에는 림스카·코르사코프 군도(볼쇼이 펠리스, 마트베예바, 데 리브로나, 길텐브란트타, 두르노보)가 포함된다. 서부(해상 면적 300ha)는 크랍 반도 남쪽 해안의 포시예타 만에 위치해 있다. 남부(해상 면적 1만 5,000ha, 육지면적 200ha)는 포시예타 만의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푸루젤리마, 베리, 팔쉬비 섬들을 포함한다. 보호구역의 식물은 800여 종의 해조류이다. 동물계는 250여 종의 어류와 수많은 무척추동물들이 있다. 극동 해상보호구역 설립의 기본 목적은 조

업용 및 희귀종,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해상 동식물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다. 림스키·코르사코프 군도는 완전 보호지대이며, 포시예타 만과 무루겔리마 섬은 해삼, 가리비, 대형 굴의 양식지이고, 포포바 섬은 해양 자연보호 박물관이다.

섬들은 특별한 역사적·미학적·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해상보호구역의 자랑거리이다. 해상 보호구역에는 총면적 1,100ha의 11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섬들로는 불쇼이 펠리스, 푸루겔리마, 그리고 면적이 거의 400ha에 달하는 스테니나 섬 등이 있다. 독특한 색채를 내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해상보호구역의 섬들에는 희귀 동물들도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해양 동식물들은 과학자들의 관찰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들은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내놓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지역들은 거의 연중 내내 다수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매력적이다. 이곳에서의 관광사업들을 정확히 평가한다면, 직접적인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의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해주에는 특정 스포츠에 대한 큰 전문성 없이도 국제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만한 지역들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강에서의 뗏목 경주 연습장 조성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8. IT 및 통신 부문

러시아의 IT 산업 발전은 연방 차원에서도 지역 차원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세계 선진국들이(정보기술에 근거한) 자국 경제발전에서 5세대 기술개발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높은 과학기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4세대 기술개발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산업구조를 통해 독자적이고 집중적인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유사한 수준의 동반자와 하루

빨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혁신 개발연구소들이 설립되고 있다. 관련 인프라에는 벤처기업, 기금, 회사들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정부벤처기금은 혁신사업에 투자하는 기업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PWC의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사분기 동안 IT 기술투자는 계약횟수(90건) 및 총금액에(4억 8,500만 달러)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보기술(IT) 부문이 러시아 혁신기술사업에서 가장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IT 부문 벤처 계약횟수는(2012년 3사분기와 2011년 같은 기간에) 나란히 성장했다. 2011년에는 90건, 그 중 89건이, 2012년 3사분기에는 90건, 그 중 86건이 비용을 공개했다.

한편 IT 부문 회사에 대한 벤처 투자의 총액은 2011년 같은 기간 1억 8,370만 달러에 비해 2012년 9개월 동안 4억 8,500만 달러로 1년 동안 2.5배 이상 성장하였다.

극동에는 또한 최근 몇 년간 정보기술교육 강화와 이 분야의 젊은 기업인 지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2012년 9월 Microsoft 사(社)와 극동 연방대학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통해 Microsoft 사(社)는 현대 정보기술 발전과 이 분야의 학생 및 강사들의 지식수준 확대를 목표로 하는 IT 연구소를 대학 내에 설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9. 중공업 부문

중공업 부문의 주요 근거지는 다음과 같은 극동지방의 대도시들이다.

극동지역 기계제조분야에서 특화된 주요 분야는 조선과 선박수리이다. 다수의 조선회사들이 아무르 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아무르 강 상류에는 스테텐스크 조선소가 위치해(스테텐스크에서 서쪽 12km 지점에 있는 코쿠이 부락에 위치) 있다. (주)스테텐스 조선소는 주로 소형 선박(인망어선, 연안 경비정 등)을 제조하고 있다. 하류의 블라고베첸스크 시(市)에는 더 큰 규모의 조선소가 위치해 있다. 블라고베첸스크의 조선소 명칭은 10월 혁명 조선소(October Revolution Shipyard)로 해양예인선과 소형 인망

어선을 건조하고 있다.

아무르 강 중하류지역에는 극동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조선기업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다. 하바롭스크 시(市) 내에는 (주)아무르 케이블 공장(Amur Cable Plant, JSC), (주)하바롭스크 조선소(Khabarovsk Shipbuilding Plant, OJSC), 키로프 조선소(Kirov Shipyard), (주)극동 조선기술 연구소(Far Eastern Research Institute of Shipbuilding Technology, JSC), (주)달디젤 공장(Daldiesel, JSC), (주)에네르고마쉬 공장(Energomash, JSC), (주)고리키 공장(Gorky's factory, JSC) 등의 시설들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부문으로는 화물선 크레인, 특수 크레인, 부두 크레인을, 단정호이스트 부문에서는 화물양중용 경량 / 중중량 / 고중량 단정호이스트, 어업화물용 경량 / 고중량 전동 단정호이스트를 제조하고 있고, 선박용 식수 설비, 담수화설비, 디젤발전기용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시(市)의 공장들에서는 해군용 함정(dynamically supported craft 포함)이 건조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민간선박이 만들어지고 있다. 콤소몰스크나우무르 시(市)에는 극동 최대 규모인 (주)아무르 조선소(Amur Shipbuilding Plant, JSC)가 자리잡고 있다. 이 조선소는 배수량 2만 5,000톤급의 군용 / 민간용 선박과 함정을 건조하기 위한 제조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및 디젤 추진 잠수함, 민간 수송함, 사할린 대륙붕 석유가스자원 채취시설을 건조할 수 있다. 아무르 강 하류의 니콜라예프스크나아무르 시(市)에서는 니콜라예프 조선소(Nikolaev Shipyard, OJSC)가 1960년부터 2000년까지 가동된 바 있다.

극동 연방 관구 남부의 블라디보스톡 시(市)는 러연방 해군과 극동지역 연안수비대용 소형 함정(어뢰정, 미사일고속정, 소해정) 및 민간 해운시설을 건조하기 위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상기 조선소에서는 1960년대부터 400척 이상의 어업용 선박이 건조되었으며, 그 중에는 수출용으로 건조된 선박도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자재를 사용한 20~30m 크기의 요트와 쌍동선 제조 주문도 수행하고 있다.

극동에서 선박수리부문은 원래 극동의 첫 중공업 산업으로 출발했다. 이는 대양자원(어업, 해운 등) 채취와 관련해 제조능력이 발전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블라디보스톡에 최초로 선박수리회사가 생긴 시기는 1887년으

로, 이때 ‘균형’의 선박수리를 위한 최초의 정비소들이 생겨났다.

현재 주요한 선박수리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 곳은 블라디보스톡 시(市) 중심에 클러스터가 있는 연해주이다. 시내에는 수개의 학교들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연방국립대학교가 있고 대학 내에 조선과 선박수리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분과가 있다. 연해주 중앙설계센터(Primorsk Central Design Bureau)와 같은 해당 분야의 설계기관들도 존재한다. 블라디보스톡에는 조선과 선박수리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장비제조, 수산물 가공설비, 공구 및 무선장치 공장 등 이 부문을 위한 설비 생산산업 또한 집중되어 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에는 선박수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45개가 있다. 이 중 군용은 물론 민간 선박을 정비하고 있는 대규모 선박수리회사는 6개가 있다. 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선박수리센터 달자보트(Dalzavod Ship Repair Center, JSC). 블라디보스톡 시. 주요 업태: 선박수리
- ② 즈베즈다-DSME(Zvezda DSME, LLC). 볼쇼이 카멘 시의 대형 선박 건조용 조선소 건설프로젝트 수행
- ③ 국영 통합기업 ‘블라디보스톡 조선소’(State Unitary Enterprise “Vladivostok shipyard”). 해군 함정 수리
- ④ (주)블라디보스톡 트롤 냉동 선대기지(Vladivostok Base of Trawling and Reefer Fleet, JSC). 선박수리 및 유지보수
- ⑤ 블라디보스톡 5월 1일 해항(Vladivostok seaport Pervomaisk, LLC). 선박수리 및 유지보수.
- ⑥ (주)블라디보스톡 선박수리공장(Vladivostok ship-repairing yard, JSC). 선박수리(예인선, 벌크선, 냉동선, 정박), 각 구성품(기계장치, 주문제작품, 선체의장품, 선박수리작업 기계화 설비, 선박용 디젤 교체 / 리빌트 및 수리부속품, 보조장치).

블라디보스톡에서 멀지 않은 볼쇼이 카멘 시에는 수송선을 수리하는 (주)슬라반스크(Slavyansk) 선박수리공장과 (주)즈베즈다(Zvezda) 극동 공장이 있다.

블라디보스톡의 기업 중에는 선박수리기업에 장치, 공구 및 무선장치의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공장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유압장

치, 전기계기, 전화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바랏(Varyag, JSC), 해양 장비, 용접기, 가전제품, 차량경보기, 수중전기펌프 등을 생산하는 (주)이즈무르드(Izumrud, JSC), (주)달프리보르(Dalpribor, JSC), 어업선박에 필요한 장비제조, 선박건조 및 수리, 냉장설비제조, 산업설비수리를 수행하는 (주)달테흐르브젠트르(Daltekhrybtsentr, JSC), 건조 중인 선박과 수리중인 선박의 전기작업 및 무선장비설치를 담당하는 (주)엘렉트로라디오아프토마티카(Elektroradioavtomatika, JSC) 등이 있다. 아르세니예프 시에는 조선사와 선박수리사에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 철근공장 아스콜드(Askold Joint Stock Co., Far East Fittings Plant)가 있다.

현재 ‘극동 조선 및 선박수리 센터’(FESRC: Far Eastern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Center)를 설립하는 사업이 실현되고 있다. 현재 국영 지주회사인 통합조선공사(USC: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본 센터의 설립에 관한령은 2007년 3월에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극동 조선 및 선박수리 센터는 지역의 대형 핵심기업들을 통합하고 있으며, 캄차카, 하바롭스크,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 연방 관구의 조선소와 수리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는 조선수리단지의 연구 및 생산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자원 확보를 위한 선박건조와 해양장비 제작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생산자원 및 재원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센터를 구성하여 극동의 이익을 꾀하고 있는 8개의 조선사 및 선박수리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선박수리센터 달자보트(Dalzavod Ship Repair Center, JSC). 블라디보스톡 市. (주)제178 적기 노동훈장 선박수리소(178th Ship Repair Yard of the Order of the Red Banner of Labor, JSC)와 (주)달자보트가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 ② 즈베즈다·DSME(Zvezda DSME, LLC). 블라디보스톡 시. 연해주 불쇼이 카멘市 남부 연안의 조선소 건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
- ③ (주)보스토크·라플스(Vostok-Raffles, JSC). 블라디보스톡 시. 싱가포르 회사인 CIMC Raffles Offshore와의 합자회사로 석유가스산업용 설비를 제조

- ④ (주)제92 적기 노동훈장 선박수리소(92th Ship Repair Yard of the Order of the Red Banner of Labor, JSC). 블라디보스톡 시. 주요 업태: 태평양함대 군함 수리
- ⑤ (주)즈베즈다 극동 공장(Far Eastern Plant “Zvezda”, OJSC). 불쇼이 연해주 카멘 시. 태평양함대 잠수함 수리 전문
- ⑥ (주)하바롭스크 선박수리공장(Krasnoyarsk ship repairing yard, OJSC). 하바롭스크 시. 해군 함정(동적지지정 포함) 및 다양한 종류의 민간선박 건조 전문.
- ⑦ (주)아무르 조선소(Amur Shipbuilding Plant, JSC). 하바롭스크 지구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 2만 5,000톤급 군용/민간 선박 건조
- ⑧ (주)동북수리센터(North-East Repair Center, JSC). 캄차카 지구 빌류친스크 시. 러시아 동북지역 해군의 무기와 군사장비 보수 및 폐기 전문

종합해보면 상기 회사들은 국방력 제고를 위한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때 규모상 두 번째로 큰 선박수리 중심지는 소비에트카야가반 시(하바롭스크 지구)였다. 오랜 세월 동안 선박수리가 시의 주요 경제활동이었고 북수리소(북부선박수리공장)와 제1수리소(해군성 제1선박수리소) 두 개의 대규모 선박수리소가 가동되었다. 1980년대에는 군사목적 우선의 조선회사 건립을 위한 일련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전자제품공장도 포함)이 착수되었으나 소련의 붕괴와 그 여파에 따른 위기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다. 2002년도에는 1990년대 초 설립된 (주)북부선박수리공장이 파산을 선언했다. 2008년부터 소비에트카야가반은 항구형 특별 경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 구역의 개념은 소비에트카야가반의 해항지역에 선박수리 중심지를 다시 조성하는 것이다.

러시아연방 극동 북쪽의 운송 및 어업지역 근방에서도 선박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할린의 코르사코프 시, 홀름스크 시, 네벨스크 시에는 소형 선박수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고, 캄차카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시에는 5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선박수리 클러스터가 있으며, 빌류친스크 시에는 한 개의 수리회사가 있다. 캄차카 지구의 선박수리 회사들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해 기술정비, 유지보수, 중기보수, 예방정비, 긴급정비, 입거수리, 어업설비의 현대화 및 교체를 수행하고 있다. 캄차카 지구의 유력한 선박수리회사로는 (주)동북수리센터(North-East Repair Center, JSC, 빌류친스크 시), (주)페트로파블롭스크 조선소(Petropavlovsk Shipyard, JSC), 달렘마쉬(Dalremmash, JSC),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선박수리공장(PetropavlovskKamchatsky Ship Repair Yard, CJSC), 수도렘세르비스(Sudoremservice, CJSC), SP-Konstruktsiya(LLC with foreign investments “SP-Konstruktsiya”) 등이 있다. 마가단 시에는 항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선박을 수리하는 마가단 수리공장이 위치해 있다.

극동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다. 극동에서 항공기 제작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市)(하바롭스크 지구)와 아르세니예프 市(연해주)에 집중되고 있다. 가까운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항공기제작연합체에서는 전투기인 Su(수호이)- 27, Su-30, Su-33, Su-35, PAK FA(미래 전술 전투기)와 그 개량형들이 제작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민간 항공사업으로 Su-80, SA-20P(수륙양용), Be(베리예프)-103가 생산되었다. 중거리 여객기인 수호이 슈퍼제트 100의 동체부분과 날개를 생산하여 수호이 민간항공(Company Sukhoi Civil Aircraft)에 납품하고 있다. JSC Sukhoi-KnAAPO는 소비재로 ‘코스모스’ 자전거, 강운항 전용 소형 선박인 ‘아무르’, 행글라이더를 생산한 바 있다. 아르세니예프의 항공기 제작사인 ‘프로그레스’는 군용헬기인 카모프 아쿨라(Ka-50)와 카모프 알리가토르(Ka-52)를 생산하고 있으며, 스포츠용 항공기 및 기타 소형 비행기와 헬기도 제작하고 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는 중공업의 중심지이고 하바롭스크 市는 에너지설비제조공업의 중심지이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시(광구용 장비제작 전문인 아무르 메탈리스트 공장 소재)와, 마가단 시에서는 금속공업 발전과 소비의 중심지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에서 금속제조장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가단 수리공장은 광산용 중장비와 그 부속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동에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해 경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9년에는 Sollers 社가 달자보트 광장에서 오프로드 전용인 쌍용자동차의 UAZ Patriot, 이수주(Isuzu) 화물차 및 소형 버스 Fiat Ducato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했다. 비로비잔에는 콤파인 및 기타 농업용 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공장이 세워졌다. 이와 더불어 다양과 차량과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소형 수리소들이 사실상 모든 도시에서 구체적인 수요자로부터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다.

10. 은행 부문

은행 부문의 특징

극동 연방 관구 내 은행 부문의 기관 구성은 2012년 12월 1일 기준 독립은행 23개, 지사 123개, 지점 1,823개로 이루어져 있다. 연해주는 은행 지사 및 지점 숫자상 역내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 규모(정관자본 5억~10억 루블)의 은행들이 아무르 주(2개)와 사하공화국(야쿠티아)(2개) 그리고 캅차카 지구(1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사할린 주에서 영업 중인 1개 은행은 정관자본 3억~5억 루블 규모의 금융기관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 대부분의(73.9%) 정관자본 규모는 3억 루블대를 유지하고 있다.

극동에서 외국인이 정관자본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5개이다(러시아 전체는 239개).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5개 은행 모두 러시아 은행 포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극동에서 현재 영업 중인 은행들의 자산집중률은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산규모가 가장 큰 5개 은행에 극동은행들의 자산 83.2%가 모이고 있다(러시아 전체는 50.9%).

외국인투자 금융기관과 외국은행의 지사 설립 및 활동에 관한 조건은 1990년 12월 2일 발효된 은행과 은행의 활동에 관한 연방법 제395-1호(개정판)에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의 은행 시스템에서의 외국인자본 참여 가능 규모(쿼터)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의로 러시아연방 의회가 발의한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된 쿼터는 러시아연방 내 등록된 금융기관들의 전체 정관자본 대비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의 정관자본에서 비거주자(외국인)가 보유할 수 있는 총자본액 및 외국은행의 지사 자본 비율이다.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 외국은행이 지사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 가능성을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WTO 가입 시 러시아는 외국은행의 러시아연방 내 지사 개설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수하였다.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오직 자회사격 조직과 대표소를 통해서만 활동이 허락된다. 현재 은행 부문으로의 외국인투자는 정관자본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러시아에서의 쿼터는 1993년부터 정해지기 시작했고 당시 외국자본이 러시아 은행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12%였다).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의 자회사격 조직의 주설립자 및 참여자는 등록지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서도 동일한 해당 외국은행이어야 한다.

만일 비거주자(외국인)의 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정관자본 증자와 비거주자의 이익을 위한 주식(지분) 분리공개(carve-out)가 러시아연방 은행 시스템에서의 외국자본 참여 쿼터 상한선을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러시아중앙은행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외국금융기관의 본국이 러시아가 투자한 은행과 러시아 은행의 지사에 대해 그 설립과 활동에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연방정부의 승인하에 해당 외국인투자 금융기관과 외국은행의 지사에 대해 은행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러시아중앙은행은 2002년 7월 10일 발효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Bank of Russia)에 관한 법 제86-F3호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금융기관과 외국은행의 지사에 대하여 재무보고, 경영진 구성 현황 및 은행이 수행하는 영업활동목록을 제출할 시 그 규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러시아연방의 2015년까지의 은행부문 발전전략(2011년 4월 5일 러시아

연방 의회 및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성명 제1472p-P13호)에 따르면 현재의 은행 부문 발전단계에서는 외국은행의 지사 개설을 허용하지 않은 채로 거주자(내국인)와 동등한 규칙으로 거주자(내국인) 금융기관으로의 정관자본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외국자본 투자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예전에는 외국인투자로 재설립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정관자본의 액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러시아인 참여 은행에 비해 두 배 높게 적용). 현재 러시아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건은 철회된 상태이다. 재설립되는 은행의 정관자본 규모는 3억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금융기관에의 참여는 러시아연방 내에 외국인 투자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정관자본에 있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연방 은행 시스템에서의 외국인 참여 쿼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의 사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 외국인 참여 금융기관의 설립
- 비거주자(또는 다수의 비거주자)의 재원에 의한 금융기관 정관자본 증액
- 비거주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주식(지분) 분리 공개(carve-out)

외국인투자로 재설립되는 금융기관의 등록 시 특이사항

외국인투자자 있는 금융기관의 국가 등록 시 특이사항은 1997년 4월 23일 발효된 러시아중앙은행의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등록 시 특이사항에 관한 규정 제437호(개정판)에 확정되어 있다. 이때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이라 함은 정관자본에서의 지분율과는 관계없이 정관자본이 비거주자(외국인)의 재원 참여로 형성된 거주자(내국인) 금융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전허가**(이하 “허가”)를 러시아중앙은행이 내주고 있다는 사실로, 거주자(내국인) 금융기관 설립에 비거주자임이 명확한 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러시아 은행권에서의 외국자본 참여쿼터의 수준은 비거주자 기

관의 재무상태와 업계 평판, 신청서 제출순서가 고려되어 정해진다.

러시아중앙은행은 외국인투자자의 해당 국가가 러시아연방 은행권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물론 러시아연방과 해당 국가의 쌍방간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중앙은행은 여하의 국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관세와 관련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비거주자인 설립자로부터의 러시아연방 은행권으로의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또는 비거주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거주자의 투자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해 통제할 수 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설립자는 러시아중앙은행 본사(금융기관 영업 면허 발급 및 재무건전화 담당부)에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금융기관의 설립자가 될 비거주자(법인은 정식 명칭, 자연인은 성명), 소재지, 법적 지위(자연인은 국적), 각 비거주자의 정확한 정관자본 참여규모(금액과 비율로 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자(내국인) 금융기관의 설립 시 그 정관자본 10% 이상을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 법인의 설립자에 관한 정보(소재지 및 업체에 관한 개요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외국인투자금융기관 설립자 주총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비거주자 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다.

- ①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② 해당 법인의 권한 있는 기구가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금융기관 정관자본 참여에 관해 내린 결의서
- ③ 법인의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또는 등본)
- ④ 감사보고에 의해 증빙된 지난 3년간의 대차대조표
- ⑤ 러시아연방 내의 금융기관 정관자본 참여에 대해 비거주자의 등록지 국가 담당기관이¹⁾ 발행한 서면승인서 또는 그러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외국인 자연인의 경우에는 국제적 은행 상관례에 따라 일류 외환은행이 해당 자연인의

1) 중앙은행, 재무부 또는 그러한 승인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

지급능력(정관자본에서 본인 지분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발급해준 확인서를 첨부한다. 러시아중앙은행은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정관자본으로의 비거주자 참여에 대한(외국은행의 **자회사격** 금융기관(거주자)은 **예외**로 함) 허가는 러시아중앙은행의 **통지서(letter of information)** 형태로 발급된다.

외국은행의 자회사격 금융기관(거주자) 정관자본으로의 비거주자 참여에 대한 허가는 해당 금융기관 설립자와 러시아중앙은행이 체결한 의향서(protocol of intentions)의 형태로 발급된다. 이때 주지할 점은 주설립자가 소재한 국가의 관할 기관과 러시아중앙은행 간 서로 감사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관자본에서 압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이유로, 또는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또는 기타의 형태로 자회사격 금융기관의 결의를 통제할 수 있는 외국은행은 해당 **자회사격 금융기관의 주설립자**로 간주된다.

허가(의향서)는 취득일(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후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설립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는 해당 금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러시아중앙은행 관할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① 금융기관 국가 등록 및 은행영업을 위한 면허발급 신청서(상시 활동하여 연락 가능한 금융기관의 업무기구 주소(소재지)를 신청서에 명시)
- ② 설립 약정(원본 또는 공증 사본)(연방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정관(원본 또는 공증 사본)
- ④ 금융기관 설립자(참여자)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정관에 대한 결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 결의서, 금융기관 대표자 및 회계 총책임자의 후보자 목록
- ⑤ 금융기관 등록세(4,000루블) 및 은행영업을 위한 면허발급세(설립 은행 정관자본액의 0.1%이되 50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다)의 납부를 증빙하는 서류
- ⑥ 설립자(법인)의 재무제표가 사실임을 증빙하는 감사보고서

- ⑦ 설립자(법인)가 금융기관의 정관자본에 투자한 재원의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
- ⑧ 금융기관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 정/부, 지사 대표/부대표, 회계 책임자 정/부 후보자들의 고등 법률/경제 교육 이수 여부(학위 사본 또는 그 대체서류 제출)와 금융기관의 부서 또는 은행업무 수행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기타 하위부서 관리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경우 관리경력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묻는 설문지, 상기 인사의 범죄경력을 묻는 설문지
- ⑨ 1인 업무수행 조직체 대표 및 계좌 개설 없이 금전의 이체 및 그와 관련된 기타 은행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계책임자 후보자들에 대한 설문지. 상기 설문은 후보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며, 러시아중앙은행의 규정이 정한 다음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직무와 관련된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학위 사본 또는 그 대체서류 제출)
- 범죄경력 여부

상기 서류 외에도 **외국법인**은 추가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금융기관 설립 참여에 관한 또는 지사 개설에 관한 결의서
 - ② 법인의 등록을 증빙하는 서류 및 감사보고에 의해 증빙된 과거 3년간의 대차대조표
 - ③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금융기관 설립 참여 또는 지사 개설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국가 담당 관리기관이 발행한 서면승인서(해당 외국법인의 거주국가 법령이 그러한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외국법인**은 주요(국제적 은행 상관례에 따른다) 외환은행이 해당 법인의 지급능력을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상기 서류들에는 또한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러시아중앙은행의 허가서 사본이 첨부된다.

러시아중앙은행이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설립에 대한 허가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설립자에게는 거부사유가 통지된다.

만일 금융기관의 1인 업무수행 조직체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외국국적자이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집단업무수행 조직체는 그 구성원이 50% 이상 러시아연방의 국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중앙은행의 은행감독위는 집단업무수행 조직체 내에서의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및 러시아 국민의 구성비를 상기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의 집단업무수행 조직체의 대표 또는 회계책임자의 직위에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가 후보자가 되는 경우 해당자의 자격증명서류로 러시아연방 교육과학부가 발급해준 증명서, 관할 러시아연방 이민청이 해당자의 이름으로 교부하는 근로권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가 모두 외국국적이거나 무국적자인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의 러시아어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연방 국민의 근로자 수는 외국인투자 금융기관의 전체 근로자 중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 후 러시아중앙은행에 제출한다. 러시아연방과 비거주자·설립자(참여자)가 소재한 국가가 조인한 국제조약에서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가 러시아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투자자를 위한 정보

1990년대 말 러시아중앙은행은 기업 모니터링을 위한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경제환경, 투자활성도, 기업의 재정상태 변화에 대한 설문문을 통해 기업의 총체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획득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상기 프로젝트는 러시아연방 전체에 걸쳐 실시되고 있고, 대형 기관과 조직을 크게 갖춘 기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 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 모니터링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의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지고 있다.

모니터링의 기본 취지는 기업환경의 변화, 투자부문의 활성화 변화,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수요 변화 등에 대한 독

립적인 평가를 조직의 대표자들로부터 직접 얻기 위함이다. 기업모니터링의 커다란 이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개별 정보가 러시아의 특성에 맞는 경제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각 부문별 그리고 나라살림 전반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직접적 평가, 기업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기평가, 리스크/수요 평가, 주문량/비축자본/유동자산 확보 수준 평가, 외부요인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수준 평가, 투자활동을 유발시키는 요인 평가 등). 이러한 자료는 연방통계청의 대체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투자자를 위한 분석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 역점을 둘 것은, 기업모니터링이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앙케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기적인 선별 관찰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경제환경에 관한 설문:** 경제시황 변화, 기업의 경제상태 변화, 그러한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 기업의 기대 등의 평가를 위한 정보획득 목적
- **투자에 관한 설문:** 기업의 투자요인과 투자활동형태, 기업의 투자자금 원천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 **재무에 관한 설문:** 기업의 재무상태를 규정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 **금융서비스 수요에 관한 설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업 수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만족도 평가를 위한 정보획득 목적

경제환경에 관한 기업설문은 매월 실시되며 나머지 설문은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설문분석에 기초하여 러시아중앙은행은 ‘시황 전망’, ‘투자 전망’, ‘금융 전망’ 및 ‘비금융권 기업의 금융서비스 수요 전망’ 같은 분석자료를 작성한다.

‘시황 전망’에서 제공되는 정보

- 중요 트렌드에 관한 총체적 평가
- 현 상황 평가
- 생산요인의 변화 및 영향

- 기대수준

‘투자 전망’에서 제공되는 정보

- 주요 트렌드
- 투자자산의 움직임
- 생산력 활용도
- 생산증가를 저해하는 요소
-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그 동기
- 기업 재무상태의 변화 전망

‘금융 전망’에서 제공되는 정보

- 주요 트렌드
- 기업활동과 관련된 현재의 여건이 고려된 기업전략
- 부문별 자산구조
- 자본의 집중 및 중앙화
- 자본구조
- 자본의 전체적인 움직임
- 고정자본
- 유동자본
- 자기자본
- 차입자본
- 기업의 자기금융
- 유동자본의 형성
- 차입
- 회계상태
- 투자활동
- 자금순환
- 유동성 상태
- 수익성

‘비금융권 기업의 금융서비스 수요 전망’에서 제공되는 정보

- 전박적인 특성
- 금융기관 제공 서비스 수요도 및 서비스 만족도
- 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변화를 주는 요인의 영향
- 금융기관 선택기준
- 금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그 결정요인들
- 금융서비스 종류별 예상되는 소비 및 수요 변화
- 금융서비스 종류별 기대
- 중요 금융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수요 변화 및 향후 변화 전망

상기 분석자료들은 스톨리핀 센터에 위치한 비정부 평생직업교육기관 「태평양 학술연구 교육컨설팅 센터(Pacific Scientific-Research, Educational and Consulting Centre)」에 문의하여 받아볼 수 있다(참고자료 참고).

11. 금융 부문

1) 러시아연방에서의 기업 설립 또는 인수를 통한 투자 매력도

러시아 기업들은 기본투자승수(投資乘數) 면에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금융시장은 부당하게 평가절하된 경향이 있다.

러시아 경제규모는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빈번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2012년 말 러시아 주식시장의 자본화 지수는 싱가포르나 타이완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2 주식시장 자본화 부문의 아태지역 대비 러시아 금융시장 비교표 (단위: 백만 달러)

주식시장	주식시장 자본
도쿄 증권거래소(Tokyo SE Group)	3 334 918,8
홍콩 증권거래소(Hong Kong Exchanges)	2 714 201,7
상하이 증권거래소(Shanghai SE)	2 219 896,8
호주 증권거래소(Australian SE)	1 349 206,1
뭄바이 증권거래소(Bombay SE)	1 238 847,9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 (National Stock Exchange India)	1 213 899,2
한국 거래소(Korea Exchange)	1 132 057,9
선전 증권거래소(Shenzhen SE)	982 089,6
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거래소/러시아 증권거래소 (MICEX/RTS)	779 390,2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746 147,7
대만 증권거래소(Taiwan SE)	719 904,5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454 632,3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ndonesia SE)	424 492,0
태국 증권거래소(Thailand SE)	364 274,0
필리핀 증권거래소(Philippine SE)	227 605,8
오사카 증권거래소(Osaka Securities Exchange)	203 1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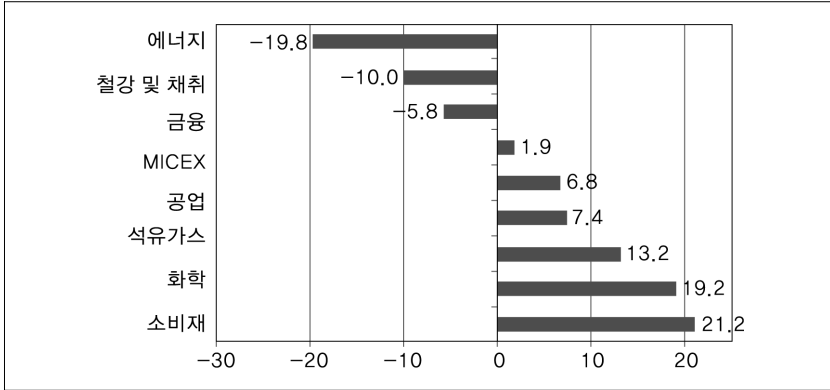
주: 2012년 12월 1일 기준

자료: 세계거래소연맹(WFE) 공식사이트, <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한 해 전 러시아 주식시장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시장을 합친 것보다 그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12년 러시아 주식 상장이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림 4-4 12월 MICEX(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거래소) 집계 부문별 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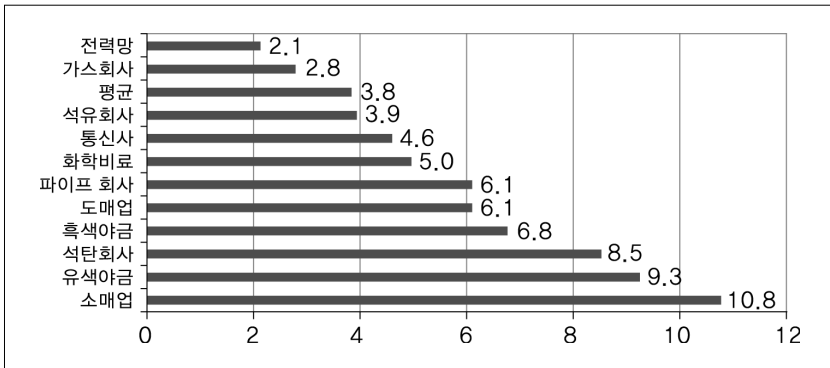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최소 지수범위대에서 거래하고 있다.

수입과 기업의 인수가격을 비교하면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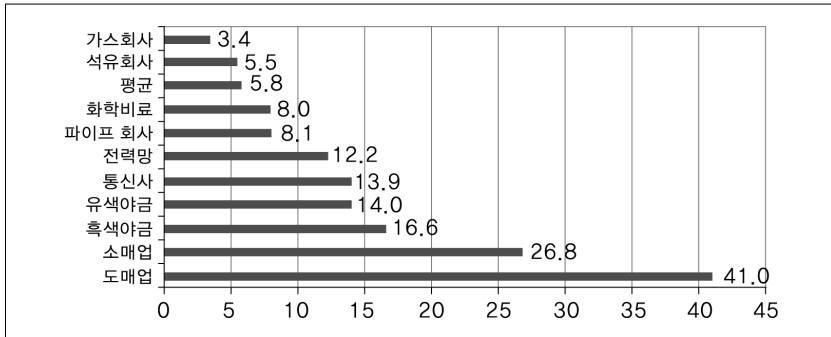
[그림 4-5]에서 보이듯 기업가치(EV) 대비 영업력 배수(EBITDA)가 평균 3.8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2012년 EV/EBITDA(기업가치/영업력 배수)(잠정수치)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대형 기업들의 주식(지분)투자 자본회수기간이 평균 6년을 넘지 않고 있다.

그림 4-6 P/E12(잠정수치)



[그림 4-6]에 시장 주당가와 1주당 기업이 얻는 연소득의 비율을 보면 석유기업주로의 투자 배당이나 다른 방법으로 5.5년 만에 보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료생산주 매수 시 8년 후 투자회수가 가능하여 어떤 경우라도 두 자릿수 연소득률을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의 가장 유동성 있는 발행주 다수가 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거래소(MICEX)나 러시아 증권거래소(RTS)뿐만 아니라 LSE, NYSE, NASDAQ 같은 해외 증권거래소에서도 상장되고 있다.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그림 4-6]의 주식(지분) 가격과 현금흐름 간의 비례지수는 예전의 수준에 가깝게 되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2) 러시아 기업 매수 관련 일반 현황

러시아연방의 모든 기업형태 중 가장 선호되는 부류는 영리조합(commercial partnership)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비공개회사)와 주식회사(공개회사)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매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에서는 투자목적의 주식회사 인수 또는 설립의 주요 측면을 다루고 있다.

잠재적인 사업파트너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 제46조는 “주주명부관리

자는 주주 또는 차명주주의 요구시 유가증권이 아닌 등본을 발행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39-F3호에 따르면 주식이라 함은 등록된 무증서증권(registered uncertificated security)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어떠한 증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에 대한 권리를 굳히는 것은 증권예탁기관 또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위탁계좌의 대변기입을 통해 가능하다.

가) 상장회사. 주주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주식회사라 함은 정관자본이 일정 수의 주식으로 분리되어 그 주식이 주식회사 참여자(주주)의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수반권리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영리조직을 일컫는다.

주식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는 연방법에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 제208-F3호(1995년 12월 26일 발효, 2012년 7월 28일 개정)
- 증권시장에 관한 연방법 제39-F3호(1996년 4월 22일 발효, 2012년 7월 28일 개정)

공개주식회사는 발행주에 대해 공모할 수 있고 러시아연방의 법과 기타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권리를 갖는다. 공개주식회사는 발행주에 대해 사모(私募)를 할 수 있되, 사모의 실사가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해 제한되거나 러시아연방의 법령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사모를 할 수 없다.

설립자 또는 사전에 정해진 자들에게만 주식이 분배되는 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발행주에 대해 공모를 할 수 없고 다른 형태로도 일반대중에게 주식의 취득을 제안할 수 없다.

비공개주식회사의 주주 수는 50인을 넘을 수 없다.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1년 이내에 공개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의 수가 상기 법조항이 정한 기준 아래로 줄어들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는 재판을 통해 청산조치된다.

비공개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정관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주식회사의 다른 주주가 매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수를 제3자에게 제시되는 주식가로 취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 비공개주식회사는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가 매도하려는 주식에 대해 주주가 본인의 우선취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를 주식회사가 우선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주식- 발행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그 소유주(주주)가 배당금 형태로 주식회사 이익의 일부를 받을 권리,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 주식회사 청산 후 잔존하게 될 재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확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주지할 점은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이 해당 주식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최소 보유해야 할 재산규모의 하한선이 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보통주의 액면가는 동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보통주를 공모하는데, 한 가지 또는 수 가지의 우선주도 내놓을 수 있다. 우선주의 액면가는 정관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주식회사 설립 시 그 회사의 전체 주식은 이미 설립자들간에 배분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은 등록증권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보통주 각각은 주주(소유주)에게 동일한 크기의 권리를 부여한다. 보통주 주주(소유주)는 법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그 권한 내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보통주 주주(소유주)는 배당받을 권리, 회사 청산 시 회사 재산 일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선주 주주(소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배당금 또는 주식회사 청산 시 모든 종류의 우선주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청산가치)이 명시되어야 한다. 배당금과 청산금의 규모는 정액으로 정해지거나 우선주 액면가 대비 비율로 정해진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과 청산금의 규모도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상기와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배당금의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우선주 소유주는 보통주 소유주와 동등하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주식회사의 정관이 배당금의 규모가 각각 따로 정해진 두 가지 이상의 우선주를 허용하는 경우, 정관에는 각각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이 청산금의 규모가 각각 따로 정해진 두 가지 이상의 우선주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관에는 각각의 우선주에 대한 청산금 지급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정관에서 정해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특정 우선주의 배당금은 누적되어 정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되는 것으로(누적 우선주) 주식회사 정관에 정할 수 있다. 만일 정관에 그러한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우선주는 누적 우선주가 아닌것으로 간주된다.

우선주 주주(소유주)는 주식회사의 재조직 및 청산에 관한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의 수정 및 추가가 우선주 주주(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안건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로는 지급순위가 우선인 주주(소유주)가 보유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또는 청산금 규모를 정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우선주 주주(소유주)에게 배당금 또는 청산금 지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 규모가 정관에 정해진 우선주 주주(소유주)는(단 누적 우선주 주주(소유주)는 예외로 한다)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부결되었거나 일부만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해당 연례 주주총회 다음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참여하여 그 권한 내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우선주 주주(소유주)의 주주총회 참여 권리는 해당 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상실된다.

누적 우선주 주주(소유주)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 전액 지급이 가결되었어야 하나 부결되거나 일부만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연례 주주총회 다음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참여하여 그 권한 내

의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누적 우선주 주주(소유주)의 주주총회 참여 권리는 해당주에 대한 누적 배당금 지급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상실된다.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한 규모(단 정관자본의 5%를 넘지 않는다)의 예비금을 조성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예비금은 정관이 정한 규모가 누적될 때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성된다. 연간 의무공제규모는 정관에 정하되, 정관에서 정해진 최종 누적금액이 되기 전까지는 순이익의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예비금은 회사의 손실을 메우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이거나 다른 재원이 부재한 경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예비금은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관한 법은 배당금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정관자본 전액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이 정한 기준만큼 매수되어야 할 주식 전체가 매수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일 배당금 지급이 도산의 위험을 조성할 경우 주식배당금 지급을 의결(공포)할 권리가 없다.

비공개회사의 주주가 매도하는 주식 인수 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 발행주에 대해 인수 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주식 병합 시 주주는 온전한 수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게 되고 주식의 분할이 일어나게 된다(이하 '단주(端株)'라 한다).

단주는 해당 유형의 주식이 주주(소유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온전한 주식 1주에서 해당 단주가 차지하는 부분만큼 그 주주(소유주)에게 부여한다. 배당주의 전체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반영할 때 모든 단주는 총합으로 나타낸다. 만일 이러한 결과로 분수(分數)가 나오는 경우 정관상의 배당주 수는 분수로 표시된다. 단주는 온전한 주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어느 한 주주가 동일한 종류의 단주를 두 주 이상 인수하는 경우 해당 주는 해당 단주를 총합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온전한 한 주 또는 단주가 된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배당주) 수, 액면가 및 해당 주식이 부여하는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인수 및 매도한 주식과 주식회사에 관한 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그 소유권이 주식회사로 양도된 주식은 해당 주식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배당된 주식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식회사가 기 배당된(공모된) 주식에 더해 추가로 배당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액면가, 종류, 해당 주식이 부여하는 권리를 명시할 수 있다. 주식회사 정관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주식회사는 추가로 주식을 배당할 수 없다. 정관에는 또한 공모된 주식의 배당 절차 및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배당한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해당 주식이 부여하는 권리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나) 러시아연방에서의 주식 발행 및 주식회사의 설립과 등록

주식의 발행, 액면가 변경은 정관자본 규모의 변경을 초래한다. 주식액면가의 상향조정에 의한 주식회사 정관자본의 증액 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된다. 주식의 추가발행에 의한 정관자본의 증액 결정은 정관상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감사회)를 통해 결의된다.

연방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분증권의 발행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나뉜다.

- 지분증권 배당에 대해 결의
- 지분증권 발행(추가 발행) 결의 승인
- 지분증권 발행(추가 발행)의 국가 등록
- 지분증권 배당
- 지분증권 발행(추가 발행) 결과보고의 국가 등록 또는 등록기관에 결과 통지

추가 발행주는 주식회사의 정관이 정한 수만큼 공모된 주식 수를 초과해 배당될 수 없다. 주식의 추가 발행에 의한 정관자본 증액에 관한 사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수 있으며, 이때 정관자본 증액을 위해 필요했던 해당 공모주에 관한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거나 공모주식 관련 조항의 변경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식의 추가 배당에 의한 정관자본 증액 결의 시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 공모숫자 범위 내에서 추가 배당되는 보통주 및 모든 종류의 우선주 수

- 배당방법
- 모집방식으로 추가 배당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발행가 산정방법(인수 우선권을 갖는 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배당주의 발행가액 및 발행가 산정방법 포함)
- 모집방식으로 추가 배당되는 주식가의 지급형식
- 기타 배당조건

주식 및 주식회사가 발행 가능한 기타 유가증권은 몇 가지 방법으로 배당할 수 있다.

- ① 주주간 분배 및 차환
- ② 공개모집 또는 비공개모집(사모)에 의한 배당. 주식회사의 정관과 러시아연방 법령에 의해 공개주식회사의 사모에 의한 배당은 금지된다. 비공개주식회사는 차환 가능한 주식과 기타 유가증권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일반대중에게 그 인수를 제안할 수 없다.

주식회사는 정관상 정해진 경우 정관자본 감액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전체 배당 주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주 일부를 인수하는 식으로 해당 회사가 배당한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만일 거래될 잔존 주식의 총액면가가 ‘주식회사에 관한 법’이 정한 최소 보유 정관자본액보다 적을 경우 주식회사는 전체 주식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주 일부를 인수하는 식의 정관자본 감액을 결의할 수 없다.

배당주 일부를 인수하여 전체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의 정관자본 감액을 의제로 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회사가 인수한 주식은 인수될 당시 소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의 정관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 인수 시 해당 주식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주식 인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주식 인수는 ‘주식회사에 관한 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는 배당된 주식을 병합(consolidation of shares)할 수 있고, 그 결과 두 주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이 동일한 종류의 신주 1개로 차환된다. 이때 정관에는 회사가 배당 및 공모한 해당 종류

의 주식 액면가 및 그 수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는 배당한 주식을 단주로 분할할 수 있고, 그 결과 1개의 주식이 동일한 종류의 두 주 또는 그 이상의 수로 차환된다. 이때 정관에는 회사가 배당 및 공모한 해당 종류의 주식 액면가 및 그 수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에 의한 주식의 매수는 이사회(감사회)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되 그 가격이 시장가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외부의 감정평가인이 정해야 한다. 이때 감정평가는 주식의 평가 및 매수 요구를 촉발한 회사의 행위 결과 발생한 주식가의 변동은 감안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식과 주식형태의 재산은 정관자본 내에서 죽어 있는 재원을 담보물로 사용하거나 유통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고 회사가 매수할 수도 있으며, 다른 복잡한 금융구도에도 참여 가능한 유동성 높은 수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방법이 된다.

예를 들면 연례 주주총회 참여권이 있는 주주명부의 마감일 바로 전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자사주 매입(buy-back)을 행할 수 있다. 매수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배당수익이 발표되는 경우 주가가 급속도로 회복되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주식은 매입가에 옵션가를 더한 가격으로 유통시장에 되팔릴 것이고 배당금 지급 여파에 따른 유동성 누수현상도 덜할 것이다.

그밖에도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정한 기간 중 자본환원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투자자와 채권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대형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차환 가능한 채권의 발행은 현재 가장 저렴한 자본차입방법이 되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를 회사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로 보장받기 때문에 비주식회사의 입장에서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회사가 자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용자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다) 정보의 공개 및 투자자·주주의 정보획득권

주식회사는 회계서류와 집단집행체의 회의에서 발생한 결의서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서류의 열람권이 있는 자가

요구한 경우 상기 서류를 사본으로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당해 사본을 제공하면서 주식회사가 징수하는 요금은 서류의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서류제공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증권시장을 관리하는 연방 집행기구(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 연방금융시장관리청)가 정한 법령을 따른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주주의 경영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보유 분쟁 관련 판결문을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소송제기에 대한 문건 및 소송청구 또는 기존 청구건의 근거나 청구대상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중재재판소 결정 포함). 주식회사는 주주가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가 주식회사의 집행기구가 위치한 공간에서 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요구할 시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공개주식회사는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연차결산보고서, 결산재무제표
- 증권안내서(러시아연방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
- 현행 연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한 주주총회 개최 통지서
- 증권시장 담당 연방 행정기관(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이 정한 기타 정보 채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공개 배당 시 주식회사(비공개주식회사 포함)의 의무적 정보공개는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이 정한 규모와 절차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러시아연방 증권법에 의거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러시아연방 증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 또는 제공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증권시장 담당 연방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결의는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소유주) 의결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되는 것으로 한다.

주식회사는 관계인(affiliated person) 명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러시아연방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그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자의 기준은 러시아연방법이 정한 조건에 따른다.

주식회사의 관계인은 주식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에 대해 서면(보유주식 수, 종류 명시)으로 회사에 통지해

야 할 의무가 있다.

관계인의 귀책사유로 주식회사에 상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결과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회사에 대해 발생한 손해규모만큼의 책임을 지게 된다.

라) 주식회사의 경영기구 및 주주·투자자의 권리보호

주식회사의 총괄적 경영기구는 주주총회이다. 주주총회는 그 권한으로 회사기능에 관련된 핵심사안, 경영 실행기구의 선발, 대규모 거래 및 특수 관계인간 거래 승인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각 종류별 공모주식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감사회)는 회사활동과 관계되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단 법적으로 주주총회로 그 권한이 이전된 사안은 예외로 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소유주)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감사회)의 기능으로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정관은 주주총회 개최 및 의제 승인 등의 사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기구에 대해 명시해두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감사회) 회원들에게는 그 의무수행기간 동안 보수 및 이사회(감사회) 회원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보수 및 보상금의 액수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투자기금 이사회(감사회)의 배타적 권한으로는 법이 정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 외에도 수탁, 등록, 평가, 감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관리회사와의 계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이사회(감사회)는 또한 그 권한으로 주식회사의 우선활동방향을 정할 수 있고, 기 배당된 주식의 허용하는 한도 내의 숫자와 종류의 주식을 추가 배당하는 방법으로 정관자본의 증액을 결정할 수 있고,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채권과 기타 가능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결정할 수 있다.

대규모 거래라 함은 주식회사의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 전체 자산 장부가치의 25% 이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 양도 또는 양도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는 한 개의 거래(차용, 대출, 저당, 담보 포함) 또는 수 개의 상호 연관된 거래를 일컫는다. 단 주식회사의 통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행해지는 거래, 모집(매도)을 통한 보통주의 배당과 관련된 거래, 보통주로 차환 가능한 지분증권의 배당과 관련된 거래, 연방법에 따라 주식회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거래는 예외로 한다.

주식회사 자산 장부가치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양도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해당 재산의 가치는 재무제표상 가치로 처리되며, 취득 시에는 취득가로 처리된다.

전체 자산 장부가치의 25~50%에 상당하는 재산이 거래되는 대규모 거래의 승인은 이사회(감사회) 전체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며 탈퇴회원의 의결권은 반영되지 아니한다.

대규모 거래 결정에 대한 이사회(감사회)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감사회)는 해당 거래의 결정을 주주총회에 이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 거래 승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소유주) 의결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게 되면 이루어진다.

전체 자산 장부가치의 50%를 넘는 재산이 거래되는 대규모 거래의 승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소유주) 의결수 3/4 이상의 찬성을 득하게 되면 이루어진다.

이사회(감사회), 주식회사의 1인 업무수행 조직체의 기능을 하는 자(경영조직 또는 경영자 포함), 관계인(affiliated person)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주의 20% 이상을 보유한 집단업무수행 조직체의 구성원 또는 주주, 주식회사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줄 권리가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차용, 대출, 저당, 담보 포함)는 주식회사에 관한 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의 거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해관계인)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친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양부모, 양자 및(또는) 그 관계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이다.

- 해당 거래에서 이익을 수취하거나 거래를 중계 또는 대표하는 측인 경우

- 해당 거래에서 이익을 수취하거나 거래를 중계 또는 대표하는 법인 주식(지분)의 20% 이상을 보유(당사자 개인이 각각 또는 모두 합쳐)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거래에서 이익을 수취하거나 거래를 중계 또는 대표하는 법인의 경영기구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의 경영기구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
- 주식회사 정관에서 정해진 기타의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해당 거래 실시 전 반드시 이사회(감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의결권 주주(소유주)의 수가 1,000명 이하인 주식회사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감사회)에서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수가 정관에서 정해진 이사회(감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결정은 주주총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결권 주주(소유주)의 수가 1,000명이 넘는 주식회사에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감사회)에서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감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이해관계인이거나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해당 거래의 승인은 주주총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사회(감사회)의 구성원 중 현재 그리고 전년도 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인정한다.

- 주식회사의 1인 업무수행 조직체의 기능을 하는 자(경영자 포함), 집단업무수행 조직체의 구성원, 주식회사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영기구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
- 주식회사, 해당 주식회사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영기구에서 직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당사자,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친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양부모, 양자
- 주식회사의 관계인(이사회(감사회) 구성원은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승인은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가 없는 모든 의결권주 주주(소유주)가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

성하여 이루어진다.

- 장부상 가치(취득재산의 매도가)가 주식회사의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상 전체 자산 장부가치의 2% 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한 개의 거래 또는 수 개의 상호연관된 거래
- 주식회사에 의해 기 배당된 보통주 및 기 배당되었던 유가증권에서 차환될 수 있는 보통주 전체에서 2% 이상을 구성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도로 이루어지는 한 개의 거래 또는 수 개의 상호 연관된 거래
- 주식회사에 의해 기 배당된 보통주 및 기 배당되었던 유가증권에서 차환될 수 있는 보통주 전체에서 2% 이상을 구성하는 보통주로 차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이루어지는 한 개의 거래 또는 수 개의 상호 연관된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조건이 과거 주식회사와 현재의 관계인과 동일한 관계인과의 사이에 통상적 영업활동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거래조건과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상기 예외사항은 관계인이 과거 관계인과 동일한 자라고 인정된 때부터 차기연도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의 기간 중 이루어진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주식회사의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주주총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감사인)를 선출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회(감사인)에게는 임무수행기간 동안 보수 및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회계감사인을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개인 또는 회계회사)은 회사와 감사인 간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러시아 연방이 정한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무활동과 영업활동을 감사한다. 감사인의 용역금액은 이사회(감사회)가 정한다.

감사위원회(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은 재무활동과 영업활동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내용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식회사의 회계보고서 및 기타 재무서류가 담고 있는 자료의 진정성 여부

- 회계기록체계와 재무제표의 제출이 러시아연방의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재무활동과 영업활동 중 러시아연방 법령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주식회사 재무관리의 특징은 주식회사의 활동, 증권 발행과 유통, 기업 분쟁을 다루는 법령이 회사에서의 주주 참여가 효율적이고 위험하지 않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주주의 편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은 각각의 권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주주총회, 이사회 그리고 1인 업무수행 조직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중요한 재무사안의 결정, 대규모 거래 및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의 승인이 최대한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거대 기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의무적 감사와 재산에 대한 제3자의 감정 평가는 재무활동과 영업활동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준다.

3) 러시아연방에서의 채무증권과 채무지분으로의 차환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채권과 기타 유가증권을 이사회(감사회)의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유가증권은 채권으로 그 소유주가 채무액(액면가 또는 액면가와 이자)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빙해준다. 채권 발행에 관한 결의서에는 채권의 형태, 상환기한, 기타 상환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채권 발행은 정관자본 납입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만 허용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전체의 액면가는 정관자본의 규모 또는 채권 발행을 목적으로 제3자가 주식회사에 제공한 자금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자가 제공한 자금이 없는 경우 채권 발행은 주식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후 과거 2년간의 결산재무제표가 안정적이라고 확인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기 제한사항은 담보저당채권 발행과 「유가증권에 관한 연방법」이 정한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는 일시상환채권과 특정 기간 내의 분할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상환은 채권 발행에 대한 결의서가 정한 바에 따라 현금 형태 또는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보유한 특정 재산이 담보된 채권 또는 채권 발행을 목적으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재산이 담보된 채권 및 무담보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기명채권 또는 무기명채권이 될 수 있다. 기명채권 발행 시 주식회사는 소유주 명부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망실된 기명채권은 주식회사가 합리적인 금액을 치러 재발행한다. 망실채권 소유주의 권리회복은 러시아연방 절차법이 정한 절차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회사는 그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때 채권 발행에 대한 결의서에는 상환금액과 조기상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의 발행에는 국가등록, 세금납부, 정보공개 등 비용과 불편함의 연속이 따른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계약당사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어음과 같은 미발행 유가증권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러시아연방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어음은 발행인(보통어음) 또는 어음에 표기된 다른 어음수취인(환어음)에게는 어음에 정해진 기한 도래 시 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어떠한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하여 회사를 인수하는 대신 형식상 본인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는 재무구조를 만들 수 있고 경영자 측이 복잡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목적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배당세를 더 높게 책정하는 차별적 관행과 금융, 보험, 기타 특수기관이 비거주자에 의해 인수되는 것에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공모주 수를 증가시키는 결정 채택. 공모주 자체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발행권리를 보장하는 역할만 수행.

- ②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의 보통주로 차환 가능한 채권 또는 어음을 취득. 투자자의 요구 시 해당 채권 또는 어음을 정관자본으로 포함시키는 계약 체결
- ③ 필요시 투자자는 기업의 신주 매수대금으로 채무증권을 납입하여 회사의 법적인 소유자가 된다.

러시아 금융시장은 놀랍게 성장하여 상품 및 용역의 어음결제, 채무스와프, 거래소 상장, 저당, 사업지분의 매매 등 어떠한 금융거래도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에서의 기업인수작업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이 책의 금융 부문을 담당한 저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4) 파생금융상품과 시장 진입 시 파생금융상품의 이용

이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러시아의 금융시장은 충분히 성장한 상태이다. 러시아 시장의 주요 상품에는 금융선물, 스톡옵션, 주식예탁증서 등이 있다.

표 4-3 각국 증권거래소별 주식 선물 연간 거래량 비교

거래소	2012년	
	주식선물	스톡옵션
	연간 거래량(액면 거래가 기준, 백만 달러)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	724,609.00	276,862.00
MICEX/RTS	84,557.70	2,253.90
한국 거래소	48,487.70	NA
TAIFEX(대만선물거래소)	11,748.80	275.7
호주 증권거래소(파생상품거래)	5,640.90	295,379.00
뭄바이 증권거래소	1,070.40	119.7
홍콩 증권거래소	931.3	124,619.00

자료: 세계거래소연맹

주식 선물거래량으로 볼 때 MICEX(모스크바 외환 및 증권거래소)와 RTS(러시아 증권거래소)가 합병해 탄생한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한국과 호주의 거래소를 앞지르고 있다.

주가지수선물 거래량으로도 러시아 시장은 아태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상품의 거래장이 그 규모 면에서는 물론 거래활성도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이다. 투자자는 여유자금을 해당 금융상품에 일시적으로 넣어두어도 되겠다.

그밖에도 러시아 장에서는 통화, 석유, 석유제품, 귀금속, 공업용 금속, 이자율, 기타 기초자산 등에 대한 선물과 옵션도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 증권시장법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에 속하며, 러시아 장은 기존의 다른 아시아 장에서보다 거래하기가 훨씬 좋은 편이다.

표 4-4 각 국 증권거래소별 주가지수선물 연간 거래량 비교

거래소	주가지수선물 연간거래량 (액면 거래가 기준, 백만 달러)
한국 거래소	6,649,110.00
홍콩 증권거래소	3,698,080.00
오사카 증권거래소	3,308,040.00
TAIFEX(대만선물거래소)	1,407,850.00
도쿄 증권거래소	1,274,970.00
호주 시드니선물거래소(파생상품거래)	959,758.00
MICEX/RTS	897,345.00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	501,456.00
뭄바이 증권거래소	138,213.00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49,859.20
호주 증권거래소(파생상품거래)	3,103.50

자료: 세계거래소연맹

증권을 통해 러시아에서 사업을 열기 꺼려 하는 투자자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설립용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러시아예탁증서(Russian Depository

Receipts)로 기명식 무증서증권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명목가치를 갖지 않는다.
- 일정 수의 외국 발행 주식이나 채권(제시된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해준다.
- 러시아예탁증서의 소유주가 예탁증서를 그에 상응하는 수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줄 것을 예탁증서 발행인에게 요구할 권리와 해당 유가증권에서 비롯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용역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해준다.

그러므로 새로 세워지는 회사의 모든 주식 100%를 가령, 한국이나 일본장에 내놓고 러시아에서는 적당한 수의 예탁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는 본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편리한 점이 있으며 세금 면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러시아 회사를 소유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도 루블화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예탁증서의 발행기간은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러시아예탁증서 발행(러시아예탁증서 안내서(prospectus))에 대한 국가 등록은 연방 금융시장관리청(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또한 투자자는 ‘거래소 채권(exchange-traded bond)’과 같은 러시아 시장의 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이 특별한 유가증권은 그 금융상품적 내용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어음(commercial paper)’과 매우 유사하다.

거래소 채권(exchange-traded bond) - 3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발행절차가 간소화된 유가증권으로 광범위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오직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 증권거래소에서 공개모집방식으로 배당된다.

거래소 채권의 발행인은 영리조합(commercial partnership), 국영기업 또는 국제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거래소 채권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소의 상장목록에 해당 발행인의 주식 또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가능하다.

거래소 채권의 발행인은 3년 이상 존재하며 과거 2회연년도의 승인된 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소 채권은 그 소유주에게 액면가 또는 액면가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을 권리 외에 다른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의무이행기간은 거래소 채권의 상장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 금융시장에는 투자금액의 전체(또는 일부)를 방어한 경우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화 금융상품(structured financial products)이 널리 퍼진 바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상품은 세심한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무 면에서 보면 거래장 내의 거래행위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보증인 자격으로 나서고 있고,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어떠한 것이든 투자자 본인이 공포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러시아에서의 성공적인 투자사업 조건과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할 전문가

가) 러시아 극동시장의 높은 투자 가능성

러시아의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극동시장은 아태지역의 이웃국가들과 끈끈한 무역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극동지역의 대아시아 무역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발전해온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러시아에서의 투자가 그 가치가 높고 경쟁력과 장점이 있는 데도 아시아의 투자자 중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이는 현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우선 짚어보아야 할 것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그 예로 2012년 연해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5.4%(예측치)를 넘었고, 같은 기간 중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예측자료에 의하면 6.1%에 이르고 있다.

거의 디플레이션 상태의 경제인 일본, 독일 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투자자는 그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가격이 공장 준공시점이 될 즈음 하락하지 않으리란 확신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업계획의 이행도 위험에 처해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러시아 극동에서는 투자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2008~09

년의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자연독점서비스재에 대한 요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덕에 가격상승이 지속될 수 있었다. 더욱이 극동지역의 가격상승은 항상 러시아 전체 평균을 앞지르고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자본 유치비용의 변화 가능성이 적은 국가투자 및 민관투자 사업들이다. 연해주에는 이미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프로젝트들이 쌓여 있는 상태로 그 중에는 조선소 클러스터 발전프로젝트, 블라디보스톡 25만 명 규모 주거단지 조성, 블라디보스톡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나훗카 석유화학공장 조성, 운송인프라 현대화 등의 프로젝트가 있다. 국가와 연계된 프로젝트의 참여는 시장여건의 부정적인 변화나 수요감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뒤집어서 보면 시장금리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은행간 단기자금시장의 높은 이율은 대출금리를 높게 만들고 있다. 실효금리 11~12% 이하로 은행대출을 받는 프로젝트는 드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싼 자금원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 비해 눈에 띄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한다.

표 4-5 모스크바 통화시장에서 루블화 예금의 기간별 이율

기간	이율
MosPrime 금리- 1주	6.63%
MosPrime 금리- 1개월	6.79%
MosPrime 금리- 2개월	7.19%
MosPrime 금리- 3개월	7.50%
MosPrime 금리- 6개월	7.67%

나)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효율성 평가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러시아 극동의 통화가격은 인접 아시아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다. 이는 극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자사업에 좋은 가능성을 조성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

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몇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루블은 충분히 안정적인 통화로, 러시아의 통화 관련 법이 자유로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는 중기적인 차원에서 금융위기가 예상될 만한 근거가 없다.

[표 4-6]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위기 전의 수준보다 현저히 증가했고, 화폐용 금 보유액은 거의 5배 증가했다. 따라서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를 위한 편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통화리스크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증권이나 주식만을 인수할 것이 아니라 구조화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4-6 러시아연방 대외준비금 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일자	대외준비금 보유액	구분	
		외환보유액	화폐용 금
2007.11.01	446,961	436,007	10,954
2009.11.01	434,435	414,028	20,407
2010.11.01	497,082	463,767	33,315
2012.11.01	526,766	475,260	51,505

주: 대차대조표 작성 시작일 기준 월 보유액

투자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증권시장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는 금융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이런 구조화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

투자자가 특정 사업프로젝트에 채권자로 나서는 경우, 예를 들면 고정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설비와 기술을 공급했다면, 루블화 표기 어음과 달러 또는 유로화 선물과 결합된 단일한 유가증권 형태의 구조화 금융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루블화의 환율이 어떻게 되든 투자자의 매월 달러화 수익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투자자가 사업에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위해 만들어진 유가증권은 주식 자체 또는 고정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에 더해 통화(달러, 유로, 엔, 위안)옵션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에

들어간 투자자의 자본증대는 루블화의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옵션에 대해서는 정액료를 지급해야 한다. 옵션 매수는 환위험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출처가 러시아인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과 사업을 합의할 경우 러시아 은행들과 국가기관들이 자금조달사업에 대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는 것이 수익성 지수로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총당가능비율이 있다.

순현재가치(NPV)지수는 사업의 계획된 수준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사업모델에 적용된 할인율(discount rate)에도 크게 좌지우지된다. 은행의 스코어링 모델은 순현재가치가 긍정적인 사업에만 투자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사업계획에 표시된 할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내부수익률(IRR)은 인플레이션의 한계수준 또는 사업이 감내할 수 있는 자금 유치를 위한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만일 이 비율이 10% 미만이라면 출처가 러시아인 자금조달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총당가능비율은 모든 은행이자와 대출비용 대비 월소득 비율이다. 이 비율이 140%를 넘어야 은행이 쉽게 사업에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유동성 비율이 괜찮은 수치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유동성 비율은 식 (4-1)과 같이 계산하며,

$$\frac{\text{자금}}{\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text{식 (4-1)}$$

기준상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당좌 비율(quick ratio)은 식 (4-2)와 같이 계산하며,

$$\frac{\text{자금} + \text{미수금}}{\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text{식 (4-2)}$$

100~120%가 되어야 한다.

현재 유동성 비율(지급능력비율)은 식 (4-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rac{\text{자금+미수금}}{\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text{식 (4-3)}$$

150% 이상이 이상적이다.

투자자가 높은 수준의 금융전문가집단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러시아에서 사업 진행 시 가끔은 러시아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회계사: 상장회사(공개주식회사)의 정규 회계보고 인증 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재산을 통한 신규 설립회사의 정관자본 납입 시 재산을 회사의 정관자본으로 포함시킬 때, 기업의 연차보고서 관련 서류 준비 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보험사: 대부분의 기업활동에는 개인책임보험과 기타 위험담보보험의 부보를 요한다. 회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의무가입 개인책임보험이 적용된다. 대출, 화물운송, 통관 등의 몇몇 경우에도 보험이 요구된다.

금융상담사: '증권안내서'(prospectus, 자유판매 주식의 발행 전 작성하는 서류) 준비 시 딜러 또는 브로커 활동에 대한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본 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러시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훌륭한 투자 가능성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벤처사업에 대한 무위험투자이다. 가령 1,000만 달러를 투자하면 성공할 경우 자본금이 3배로(3,000만 달러) 불고 실패하면 90%의 손실을 가져와 100만 달러만 남을 수 있는 벤처사업에 자금조달의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치자. 이때 투자자는 1억 달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억 달러의 90%는 연리 10%로 위험부담이 없는 채권에 넣어두고, 나머지 10% 또는 1,000만 달러는 본인의 투자사업에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도 여전히 1억 달러가 되돌아오게 된다(채권으로 9,9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고 벤처사업에

서 100만 달러가 남기 때문이다). 성공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1억 2,900만 달러(9,900만 달러+3,000만 달러)로 커지는 것이다. 국채수익률이 몇 배나 낮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투자자본 일부를 벤처사업으로 돌리는 행태가 보편화되어 있다.

6) 감시기관, 자율규제기구,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러시아연방에서 사업체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시 투자자는 세무당국의 당연한 통제 외에도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특수기관에 의한 통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로스인포름모니터링(러시아 정보모니터링)은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연방 집행기관이다. 이상 기관은 의무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즉 정보제공을 수행하는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행해지는 거래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연방의 법령에 의거하여 제공된 정보를 조사한다.

은행, 금융사, 보험사에서는 자체 감사활동이 행해진다. 즉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행해지는 의무적 감시대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범죄수법으로 얻은 소득의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는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행해지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거래를 행하는 조직의 활동을 통제한다.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거래를 행하는 조직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고객’, 그리고 자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시 대행계약, 위임계약, 커미션계약, 신탁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행위가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수익자’도 관리대상이 된다.

관리의 첫 단계는 신원확인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객, 그 대리인,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수립하고 원본서류 및(또는) 공증사본

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또한 상기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이퍼 또는 기타 정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령 및 구축한다. 투자자가 반드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조직간 현금결제가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금결제가 가능한 한도는 3,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에 상당하는 루블이다. 러시아에서 외환 현금결제는 불가하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은행을 통해 발생하는 어떠한 대규모 결제라도 필요한 경우, 거래 양 당사자간 해당 거래를 행하기 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금전 지급이 발생하는 거래가 탈세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은행은 감시기관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자금이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선금/차용/대행 계약 등 상품의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기타 어떠한 계약도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벌금이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진다.

주식회사의 활동과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관리는 연방 금융시장 관리청 (FFMS: Federal Financial Markets Service)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ed organization), 미소금융사 (microfinance company), 연금기금 및 보험기관의 활동을 관리한다.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은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면허,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직 근로자에 대한 자격,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 집단의 1인 업무수행 조직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의 경력에 관한 요구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 기관은 러시아연방에 등록된 발행인이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최초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에 대한 승인절차를 수립 및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구조를 고안할 시 투자자는 본인의 계획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에 문의할 수 있다.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은 당해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고 그 유형을 규정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명시된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의 주요 의무를 알아두는 것도 투자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 ① 제공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의무. 단 유가증권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 ② 증권 발행인,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그러한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기구에 정보제공을 의뢰할 시 의뢰하는 정보를 받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
- ③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그러한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기구의 서류 등록 신청 시, 상기 연방법에 따라 등록을 필해야 하고 상기 연방 법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등록할 의무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등록 거부를 통지할 의무
- ④ 연방 금융시장관리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제기한 문의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타당한 답변을 제공할 의무

투자자는 사업체의 인수 또는 설립을 위한 금융파트너를 선정할 때 후자의 관련 면허뿐만 아니라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전문 증권인들에 의해 설립되며, 전문 증권인들이 전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증권시장에서의 에티켓 기준 준수, 증권 소유주 및 자율규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전문 증권인의 기타 고객들의 이익보호, 증권시장에서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증권거래규칙과 기준 확립 등의 역할을 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자율규제기구에 회원으로 가입된 전문 증권인의 활동 결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상펀드나 기타 기금을 조성할 권리가 있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밖에도 투자자는 본인의 브로커 또는 금융상담사의 행위(또는 무행위)에 대한 민원을 자율규제기구(SRO)에 제출하여 본인의 권리 일체를 보호할 수 있다.

7) 사업체 인수·설립 시 가장 빈번한 실수와 위반사항 및 그에 따른 책임

러시아의 법과 비즈니스 관행은 자주 외국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쾌감을 안겨주곤 한다.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몇 가지 상황을 묘사했다.

장외선물거래나 옵션거래와 똑같이 상품가격이 사전에 미리 정해지고 거래의 목적은 미래의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선물환거래(forward contract)가 러시아에서는 절대적으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선물환거래는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만일 외국인투자자가 루블화로 6개월 기한 도래 달러화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업수익의 안전한 송환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달러화 환율이 심하게 변동해서 계약상대가 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위의 예처럼 불이행 리스크가 없는 거래소에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대체방안으로 은행 보증을 받거나 시 또는 지방 권력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투자자는 매우 까다로운 주식발행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서류상 100만 루블을 넘는 규모의 '손해'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실수가 있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투자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 인수 시 투자자는 앞서 자세히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정보공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 시 최소 20만 루블이라는 지나치게 과도한 벌금을 물게 된다.

배당금 지급 시 또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몇몇 경우 발행인은 납세관리인의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배당금이나 기타 소득 수혜자의 세금분을 공제하여 세금으로 납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세관리인의 의무 불이행 시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회계용역을 이용하더라도 국가기관의 제재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회계회사의 지명도는 세무기관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음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진행 시 염두해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행정적인 사항이다.

-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래는 반드시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 해외송금 시 거래허가서(deal passport)를 자주 작성하게 된다.
- 투자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승소판결이 투자자의 자동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음은 사업 진행 시 회계적인 측면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다.

- ① 러시아에서는 감가상각이 수익세(profit tax)에 대한 과세기준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 ② 러시아의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실제로 거주자(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13%에 더해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사회기금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30%가 더 추가된다. 여기에 더해 법은 상당히 긴 유급휴가와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추가임금까지 규정해놓고 있다.
- ③ 외국인투자자들은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보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에 매번 갈 때마다 비용과 노력을 소비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받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투자자는 러시아와 해당 협정이 체결된 본국에서의 등록 증명서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자가 납세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일체의 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④ 통상적으로 자선활동은 적절한 세제혜택을 수반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번 자르기 전에 일곱 번은 재라”는 러시아 속담이 정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투자자는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어떠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자율규제기구나 국가기관에 전문상담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12. 의료 부문

러시아 극동의 보건복지

러시아연방 전체는 물론 극동의 보건체계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특성은 소연방 시절, 즉 1991년까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국가운영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가 보건부 및 그 하위기구를 통해 이 분야의 계획, 예산편성 및 관리기능을 수행했다. 체제전환 후 수년이 흘렀고 당국에 의해 시행된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러시아의 보건체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되는 극동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극동의 주민과 보건인식

극동 연방 관구의 인구밀집도는 러시아연방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주민의 상당 부분이 관구 또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도시(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블라고베센스크 등)에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극동 주민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개를 통해 ‘좋은’ 전문 의료인을 접해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건에 대한 사회인식이 보건을 마치 국가의 어떤 사회적 지원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병원을 가긴 가는데 치료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입원실에 누워 있기 위한 목적으로들 가는 것이다.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에서 최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수액주사이다. 반면 수술의 난이도는 소요된 시간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런 상황에 기인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본인의 건강에 쏟는 관심이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 연방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진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예방검진에 의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편이다. 그 결과 치료 불가능한 뒤늦은 시기에서야 병을 발견하곤 한다.

러시아에서 의료서비스를 찾게끔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일시적 근로능

력 상실 확인서'(진단서)라 하여, 근로지에서 이탈할 수 있고 사회기금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있다. 진료기관을 찾을 때 환자는 치료기간 중 비용을 국가가 내줄 것이고 근로지 이탈에 타당한 사유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자연스럽게 한다.

최근에는 관광산업과 의료관광이 발전한 것과 관련해 진료와 치료를 해외에서 받는 환자 부류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대개 여행사나 의료관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는 사실상 국가의 치료비 지원이나 근로지 이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러시아 보건부로부터 해외치료소견서를 받는 절차가 길고 복잡한데다가, 주민 대부분이 제대로 절차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건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까지 부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의료서비스비의 책정 시 대부분의 입원시설 또는 종합병원이 서비스 수준으로 환자의 대기 여부, 개인실 입원 여부, 추가 진료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감안하지만 의료술 자체를 감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이외에도 진행 중인 치료의 질에 대한 전문가 평가(전문가의 2차 소견)체제도 사실상 부재하고 있고 법적으로 의료기록을 수령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약품을 구하는 주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야간 입원시설 또는 주간진료 종합병원에서 치료 시에는 의무가입 의료보험을 통해서, 외래진료 시에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구할 수 있다(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에서 희망 의약품을 고를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

두 번째는 본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의약품 광고는 물론 약을 처방해주는 의료인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하는 광고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본인의 치료에서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생동안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 수 있는 환자도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의 수령은 병이 심해진 기간에만 이루어진다.

환자의 법적인 권리와 진료기관의 형태(개인, 관)와 관계없이 해당 진료기관의 법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도 극히 낮은 편이다. 그 결과 저질 의료 서비스에 대해 법원에 고소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인구동향과 질병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인구가 그 숫자나 수명으로나 남성인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여성 평균 수명: 73.1세, 남성 평균 수명: 59.2세).

주요 사망원인은 전 세계적인 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주로 세 가지 원인에 의한다. 심혈관계 질환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암질환이 두 번째, 사고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연령기의 질병은 호흡기 질환이 첫 번째, 외상과 중독이 두 번째, 소화기 질환이 세 번째로 많다.

주지할 점은 2012년 러시아 전체의 출생율이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률을 넘어섰지만 극동지역은 여전히 예전의 부정적인 인구동향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제도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국가 예방진료 기관 네트워크, 개인 병원, 관청 내(군, 철도 등) 자체 의료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또 사할린에는 국제단체(iSOSinternational)가 참여하는 몇몇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어서 대개 이런 기구의 활동은 기구의 자체(내부적)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보건시스템은 응급처치(응급처치소, 외상구급처치소)에서 전문 의료센터(심장, 종양 수술센터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연방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무료’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보건시스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안이 매년 채택되고 있고 결의안은 의료서

비스의 종류와 규모, 시행 예산의 출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목록 등을 정하고 있다.

국가보장프로그램의 비용 역시 해마다 책정되어 법으로 승인되고 있다. 국가보건의사업의 주요 자금원은 의무가입 의료보험기금, 각 행정구역별(연방, 지역 또는 지자체) 예산, 유료 의료서비스 수익금의 세 가지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예산과 의료보험기금에서 나온 재원은 필요한 자금의 80%를 충당하고 있다. 부족한 자금은 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로 충당한다. 의료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의료설비 구매나 대손충당금 항목으로 잡힌 예산이 투입된다.

한 가지 긍정적인 상황은 '보건의 현대화'라는 연방 프로그램 덕분에 일반단과의원과 종합병원들이 고정자산을 상당 부분 개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보건의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적으로나 보건위생 면에서나 현대의 의료기준에 부합하는 건물과 시설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국가시설 자체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얻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받는 유료 서비스비는 오직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의료체계는 주로 작은 규모의 외래진료병원과 진단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체계에서 가장 발전된 부문은 치과, 진단원(연구소 및 기능성 진단원 포함),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동양의학과 등이다. 민간 의료 시장에는 국가의료시스템과는 달리 고객 위주의 마인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구매자로 여겨지고 의료기업의 주요 목적 역시 최대한의 이윤을 얻는데 있다. 그 결과 환자는 본인에게 최소로 행해져야 할 검사와 의료행위의 수준을 결정하기가 힘들어 진다. 최근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병원이 의무가입 의료보험제도의 요율과 규정에 따라 영업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국가보장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관련 면허와 등록을 필한 외국인 병원이 의무가입 의료보험제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의 관청 내 자체 의료시설은 해당 관청이나 기업이 예산을 제공해주고 있고(국방성, 가스프롬 등), 물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제법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단점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의료비가 낮은 관계로 대개 의료보험제도 밖에서 기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클리닉과의 합자기업

현재 이런 형태의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역시 극동지역에 위치한 외국인이나 서구기업 내에서 별도의 의료보험에 확보된 근로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본국 송환을 위한 응급처치나 기업체와의 계약에 근거한 예방검진 활동을 하고 있다.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관련 학위와 자격증을 보유한 러시아인 의료진이고 외국인 전문가는 경영부문에서 일하거나 감사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연방 내 의료교육 및 외국인 의료진의 활동

러시아연방의 의료교육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러시아의 고등의료교육기간은 6년으로, 졸업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인턴(1년)과 레지던트(2년) 형태의 전문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등의료교육기간은 3~4년이며, 이수 후 종사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의료보조사, 간호사, 연구보조사, 치공사 등이 있다.

모든 의료인은 전공에 따른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학위 취득 이후 5년에 1회 이상 연장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진료시설에 해당 인력이 취업할 때 뿐만 아니라 진료시설이 의료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국인 전문가는 본인의 학위를 러시아연방 내에서 공증해야 하며 전공에 따른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바와 같이 5년에 한 번 연장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교육 이수를 증빙하는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자의 의료활동은 불법이며 금지되어 있다.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본 사항은 국가간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운영시설에 의료 지원을 요청한 경우 외국인에 대해 무료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병원 측에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부문에 책정된 예산으로 보상된다.

또한 응급처치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진료 의뢰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환자가 보험에 부보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의료시설 인프라는 외국인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극히 적은 수의 의료인만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통역사나 영사관의 담당의사 또는 보험사 대리인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활동에 대한 면허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서의 의료활동에 대한 면허발급업무는 「면허에 관한 연방법」과 보건부 및 Rospotrebnadzor(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를 위한 연방 감시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면허대상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
- ② 해당 시설이 보건위생규정에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를 위한 연방 감시청’ 산하 기관들이 발급한 결정서
- ③ 의료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러시아연방 보건부가 정한 의료서비스 절차와 기준에 따른 의료설비에 관한 정보

면허의 발급은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를 위한 연방 감시청’ 또는 러시아연방의 보건담당 행정기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면허의 교부 또는 거부 의사 통지기간은 30일이다.

러시아와 외국의 보건시스템 협력 시 추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

공동기업 설립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체를 위한 범주와 체계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영보건시설과 일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시설공간의 소유주가 해당 수준에 상응하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의료기관 자체는 해당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간시설의 의료인은 국영시설의 경우와 달리 연금과 같은 특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외국인 의사를 위한 공식적인 의료행위 간소화 절차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관광의 경우

환자의 외국 의료관광 전후의 검사 및 치료 체계가 부재하거나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로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간 의료정보 전달을 위한 공조시스템이 부재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치료요법이 나라별로 다른 경우의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고, 환자가 외국의 병원에 체류하는 기간 중 '일시적 근로능력 상실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의료문서의 적절한 번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외국의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

이런 문제들은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 차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에서 조정 가능하다.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자의 교훈 및 경험

1. 칼루가 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성공사

도입

“칼루가 주의 예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 중심지를 창조하고, 선진기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칼루가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투자자와의 협력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

“칼루가 주의 책임자들은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러시아연방 총리(2009)

칼루가 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낙후된 지역부터 최적의 조건을 지닌 지역까지 모든 지역에서 각종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 지역은 수출용 유용 광물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스크바와 인접하다는 장점만을 내세워 투자 유치를 최고의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식, 목적, 전략이 없는 투자를 위한 투자는 성공을 위해 분투하는 일관성 있는 팀이 없을 경우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칼루가 주에서는 국제적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 투

자정책의 주요 도구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세제혜택, 효율적인 발전연구소와 산업공단이었다.

선별적인 접근은 이 지역 경제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칼루가 주에서는 자동차, 제약 및 운송·물류 단지들이 대단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발전의 주요 추진력이 되고 있으며, 이 분야로 국내외 자본들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 이미 생산분야에서는 칼루가의 ‘전통적인’ 역내기업들이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많은 전문화된 교육센터들이 설립되고 있고 연구기관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칼루가 지역은 어느 한두 개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주 정부는 동등한 수준에서 건자재 생산분야, 목재산업단지, 관광사업,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분야들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실현되었다.

또한 신경제를 육성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였다. 최우선과제는 연구개발 지원과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었다. 칼루가 주에는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단지 형성을 위한 조건들이 마련되었으며 혁신기업 지원 인프라도 이루어졌다.

현재 칼루가 주는 산업발전속도와 가공산업 성장지수에서 러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는 러시아 내 3위, 러시아연방 중앙 관구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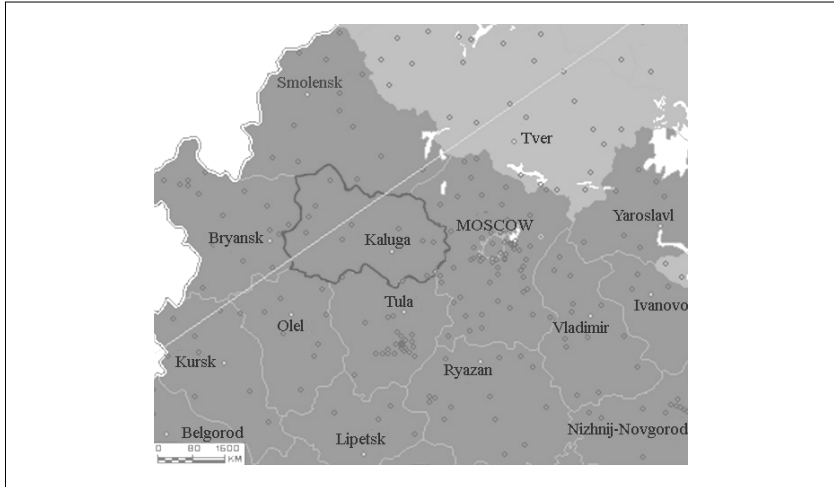
개요

칼루가 주는 러시아연방 중부지역의 최대 인구밀집지역이고 북동쪽으로는 모스크바 주와 접하는 거대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칼루가 주로부터 반경 150km 이내에 약 2,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 인구는 100만 명이 넘는다. 가장 큰 도시인 칼루가(지역행정 중심지)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오브닌스크는 주의 북쪽지역에 있다. 주의 전체 면적은 약 3만km²이며 이는 일부 유럽의 한 국가와 견줄 만한 면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민의 실질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타

몇몇 지역들과는 달리 이 지역은 이렇다 할 유용 광물 산지가 없으며 총생산의 대부분은 가공산업과 교통이다.

그림 5-1 칼루가 주 주변 지역 인구 분포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칼루가 주는 새로운 산업화의 리더로서 새롭고도 우수한 경제성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신경제지역이다. 일인당 투자액은 러시아에서는 2위, 러시아연방 중부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칼루가 주의 일인당 산업생산량은 5위이다. 러시아연방 중부지역에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고 임금수준도 가장 높다.

칼루가 주의 경제는 고도의 과학·혁신적인 잠재력,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경영방식과 전통적인 농촌산업의 전문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칼루가 주의 사회경제 발전은 기업의 적극적인 산업활동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 투자활동 촉진을 통한 내수 수요 확대가 특징이다.

이 지역의 경제는 오랫동안 산업제 생산과 농업제품 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 두 부문은 칼루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이 부문들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전체 지역생산의 40% 이상이다.

칼루가 주는 가공생산이 주를 이루는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산업단지의 기반은 기계제조업이다. 칼루가 주 산업단지에서는 2,5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약 300개에 이르며 전체 산업생산의 약 90%를 차지한다. 산업단지에는 11만 6,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산업단지의 2009년 기준 기업순위를 보면 새로운 기업들인 유한회사 '폭스바겐 루스'(승용차 생산), 유한회사 '삼성전자 루스 칼루가'(TV 생산)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생산품목들을 확대하면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철도기계산업은 상당한 발전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주식회사 칼루가 공장 '렘뿌찌마슈', 주식회사 칼루가뿌찌마슈, 주식회사 류지노브스끼이 열수송건설 공장, 주식회사 칼루가 차량 제조공장은 기관차, 철도교통용 차량 및 설비 생산과 철도교통 관련 수리업무를 하고 있다.

전자통신산업과 장치제조업도 이 지역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주요 기업은 연방정부 단일기업 '칼루가 전신 기기 공장', 장비제조업체 '시그날', 칼루가 장비설치업체 '타이폰', 연방정부 단일기업 '칼루가 기기' 등이 있다.

주식회사 칼루가 터빈공장은 증기기관 설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이며, 주식회사 바스호트는 레이저 의료기기 및 에너지절약기기들을 생산한다.

주요 금속가공공장은 유한회사 아그리소브가스(금속 파이프와 금속 구조물 및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 유한회사 루끼 루스(철제 구조물, 건물, 컨테이너형 건물, 벽 패널 및 담장 생산), 주식회사 키로프 공장(증기보일러, 주철, 금속 및 아크릴 욕조 생산)이다.

칼루가 주의 기계산업단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산업파크와 산업지대 내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자동차단지를 구축하는 것과 현재 운영 중인 외국기업들(폭스바겐 그룹 루스, 볼보 바스톡, 유한회사 PCMA 루스, 삼성전자 루스 칼루가)의 제품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정책

러시아의 많은 주들 중에서도 칼루가 주는 실제로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낮은 투자리스크, 세계혜택 및 지원금제도, 자연적인 독점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세율, 주정부기관들의 행정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칼루가 주 경제에 축적된 긍정적인 영향들과 주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정책은 이 지역경제로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산업단지 설립은 인프라시설이 구비된 편리한 산업설비공간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교통, 엔지니어링 및 사회 인프라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균등한 산업설비 정착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역경제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인프라 발전의 가속화, 주택 및 사회환경 건설 활성화, 운송교통의 발전을 가져왔다.

‘칼루가 테크노파크’의 미션은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디어에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대화, 첨단기술사업 지원 인프라의 체계적인 발전,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최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위한 호혜적인 조건들을 보장한다.

현재 칼루가 주의 지역에서는 6개의 산업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그라브제보’, ‘칼루가-유그’, ‘로스바’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폭스바겐, 푸조·시트로엥·미쓰비시, 볼보 트럭 등이 자리잡고 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는 ‘Gestamp-Ceverstal-Kaluga’, ‘Benteler Automotive’와 ‘Magna’가 있다.

산업파크의 주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산업시설 건축부지 총면적: 2,600ha이며 이 중 1,200ha 이상이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어 있다.
- 예상 신규 일자리 수: 26,000개
- 2012년까지 예상되는 직접투자금액: 65억 달러
- 칼루가 주의 파크 개발비용: 3억 3,000만 달러

- 단지 내 인프라: 가스, 전기, 수도, 하수
- 물동량: 연 600만 톤

그림 5-2 산업단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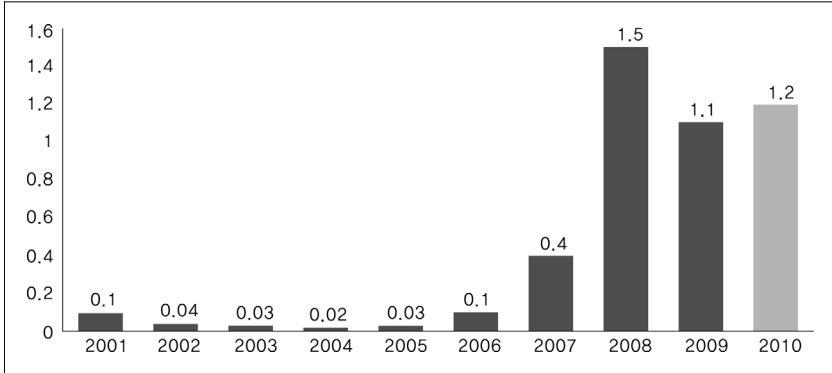


경제다양화를 지향하고 있는 칼루가 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방향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전략과제는 제약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칼루가 주에는 이미 이 분야의 국제적인 대규모 외국 제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Hemofarm, Berlin-Chemie, Novo Nordisk. 또한 핵의학과 관련된 새로운 단지 설립에 대해서도 활발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 주에는 러시아와 외국의 대규모 회사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향후 3만 3,000개의 추가 창출이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2005~09년)에만 지역경제에 1,900억 루블(약 64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3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림 5-3 칼루가 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

(단위: 십억 달러)



칼루가의 혁신적인 잠재력

칼루가 주에는 정보 사회 및 혁신개발부가 설립되어 단일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며, 혁신활동 주체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차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중소기업의 발전분야에서 정부정책 수행을 보장하고 있다.

칼루가 주에서의 혁신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인 주요 규정에는 「칼루가 주의 혁신활동주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한 법」(2002년 7월 4일자 134-O3), 주정부 프로그램 「2005~10년간 칼루가 주의 혁신활동 발전계획」(2006년 9월 26일자 칼루가 주 법령, 121-O3), 「칼루가 주 혁신 발전개념에 관한 주정부 법령」(2007년 11월 21일자 302호), 「칼루가 주의 혁신활동주체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통한 보조금 제공 승인절차에 관한 주정부 법령」(2008년 5월 2일자 183호) 등이 있으며, 「2011~13년 칼루가 주의 혁신시스템 종합발전계획」도 입안되어 승인되었다.

학문연구자료 규모에서 보면 칼루가 주는 러시아연방 중부지역에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주 다음으로 세 번째이며 학문적인 잠재력 수준에서는 네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기타 등급에서도 칼루가 주는 84개의 발전되고 혁신적인 주 중에서 20위권 안에 든다. 현재 칼루가 주의 혁신적인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원자력에너지, 전기절약기술, 전자기기, 제약, 항공기술, 레이저 및 광섬유 전자, 무선통신장비,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높은 기술적인 성과와 과학집약적인 생산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칼루가 주에는 혁신적인 인프라의 기본 요소들이 마련되었다(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망, 혁신적인 기술센터들, 벤처펀드, 기술이전 망 등).

그러나 아직도 칼루가 주에서 상호 협력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과학과 교육은 기초 연구분야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사업은 경험 있는 조직적인 연구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은 산업생산 면에서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과학지향적이고 높은 기술력을 갖춘 회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은 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정책의 세 가지 주요 방향 중 첫째는 혁신적인 인프라 발전인데, 이것의 목적은 자본화이다. 둘째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보조금제도, 벤처금융 제공, 정부보증 제공이다. 셋째는 현재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칼루가 주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진 인적자원 확보이다.

혁신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발전

칼루가 주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인 인프라(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술이전을 위한 망, 혁신·기술센터들, 장비 및 설비 통합이용센터들, 벤처펀드 등 기타) 구축과 발전에 대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그 첫 결과들이 선을 보였다. 정부지원하에 설립된 5개의 비즈니스·인큐베이터(대학포함)에 경쟁방식을 통해 28개의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200개 이상의 고소득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작업이 실질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빈스끼 과학기술센터 부속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중 한 개에만 지난 3년 동안 주, 연방 및 시의 예산으로 900만 루블이 투입되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납입 세금은 860만 루블에 달하며 이는 투입된 비용이 거의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내에는 장비 및 설비 공동사용센터들도 설립되었다. 이런 센터들은 초보자들이나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소규모 혁신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와 유사한 센터들이 대학 등에도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프로그램 「러시아연방 고급기술분야 테크노파크 설립」(2006년 3월 10일 러시아연방 정부 승인 №328-p)에 따라 칼루가 주는 오브닌스크 시에 고급기술분야의 테크노파크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성격의 업무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소규모의 제조 및 연구 혁신기업들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소규모 혁신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새로운 방식 중 하나는 시장에서 기술지향적인 상품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담당자들은 톨루, 라잔, 모스크바, 브란스크, 타타르스탄 공화국, 유바스쿨라(핀란드)에 진출하였으며 그 지역에서만 60여 개의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상담장에서는 200여 건의 미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품 공급과 신기술의 과제 해결을 위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매년 칼루가 주에서는 「지적소유권-지역혁신적 발전의 기초」라는 주제의 회의와 세미나가 개최된다. 여기에는 러시아연방 지적소유권 국립 연구소(모스크바 소재)의 대표자들, 지적소유권 평가 법률회사들, 혁신기업들, 칼루가 주정부 및 러시아연방 기타 지역의 기관들이 참여한다.

칼루가 주에는 특별한 리스크가 있는 투자(벤처투자)를 위한 투자펀드 「칼루가 주 과학기술분야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지역 벤처펀드」가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저축과 투자'의 관할하에 설립되었다. 이 펀드는 2010년 11월에 2억 8,000만 루블 규모로 설립되었다. 지역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정보화와 벤처펀드 지원프로젝트 선정절차를 알릴 목적으로 지역 벤처기업들의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1월부터 칼루가 시에 관리회사의 대표부가 만들어졌다. 주식회사 '저축과 투자' 지역대표 사무실은 벤처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문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칼루가 주에는 2010년에 주식회사 혁신 발전 대행사-칼루가 주의 산업단지 발전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설립자는 주정부였다. 이 대행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역의 혁신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벤처 투자 유치와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다.

칼루가 주의 이러한 혁신적인 제도들의 발전은 칼루가 주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과학기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며 고도의 기술제품들을 생산, 대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이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속도에 전반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혁신프로그램의 두 번째 추진방향은 소규모 혁신기업들의 사업 상업화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다. 「칼루가 주의 혁신활동주체들에 대한 주정부 예산을 통한 보조금 제공 절차 승인에 관한 주정부 결정」(2008년 5월 2일자 183호)에 따라 주정부 예산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과학기술과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19개의 신생 소규모 혁신회사들과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았다. 이들의 업무분야는 의약품, 설비 및 서비스, 신건축 및 나노소재 개발, 정보화 기술, 전자, 농업, 환경 등 기타 분야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5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추가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1년 이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33개의 소규모 혁신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신에너지 절약장비, 고효율 식품첨가제, 소프트웨어 제품, 신소재, 전자기기, 석유가공장비 등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2010년에는 또한 9개의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입찰경쟁을 통해 혁신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유치했던 채무에 대한 이자감면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지원은 15가지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했고 추가적으로 일자리 보존과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보조금 명목의 예산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원을 받는 대상은 시장에서 투명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양심적인 납세자이어야 한다. 2008~10년 동안 주정부 예산이나 연방정부에서 유치한 자금에서 은행대출이자 보조금으로 2,210만 루블이 지출되었다. 예산에서 지원되는 1루블은 같은 기간 동안 칼루가 주의 기업들에 제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대출로 환산 시 평균 7.6루블의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지원을 받은 혁신업체는 약 80개였으며 그 중 70개는 소규모 기업이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수십 개의 신기술들이 개발되었고 40개 이상의 특허도 받았으며, 50개 이상의 과학연구실험이 수행되었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의 소규모 젊은 기업

들이 「청년과학혁신대회」, 「교통자동제어시스템」과 같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혁신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혁신프로그램 추진의 세 번째 방향은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이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칼루가 주의 대학 4~6학년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관리방법과 운영에 대한 수업과 실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업기획서 작성, 프로젝트 재무평가,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에 대한 방법들을 익히게 되고,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방법들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신생 소규모 혁신기업들의 설립과 칼루가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핀란드 회사인 '테크노폴리스'와 공동으로 '테크노폴리스' 콘셉트를 이용한 테크노파크와 비즈니스인큐베이터 관리"라는 테마로 모스크바 주재 핀란드 대사관에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졌다. 이 행사 참여자들은 칼루가 주의 테크노파크와 비즈니스인큐베이터의 관리자들이었다. PBK와 공동으로 매년 벤처투자를 위한 혁신적 제안 구상방안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컨설팅 세미나도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벤처 투자지역 및 연방의 가능성과 칼루가 주의 혁신기업들을 위한 벤처 지원에 필요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준비 등 제 문제들이 논의된다. 일련의 프로젝트들은 벤처를 지원하는 사업기획서를 통해 검토된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과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망 있는 혁신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칼루가 주 최고 청년 프로젝트」 대회가 매년 개최된다. 칼루가 주의 혁신적이고 활동적인 지역이미지 형성과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유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2010년 5월 650명 이상이 참가한 오브닌스크 혁신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연방정부 기관들, 타타르스탄 공화국, 톱스크, 꾸르스까, 뻬젠 및 기타 주들, 러시아와 외국의 대기업들, 학문센터들의 대표자들과 다음과 같은 발전연구소의 임원들이 참여했다: 과학기술 분야 소기업 발전 추진 펀드, 러시아 벤처회사, 국영공사 로스나노테크, 엔젤 투자연합회, 러시아 신생 대학교, 러시아연방 정부 부속 국민경제아

카데미, 고등교육기관, 각 주의 대표 기업들, 투자기업 및 펀드들, 은행연합회 대표자들.

- 오브닌스크 시에서 러시아 경제의 현대화와 기술발전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인 메드베제브가 진행하였다.

칼루가 주와 국영공사인 ‘나노기술 러시아 공사’와의 상호 협력은 지역 경제의 혁신적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 되었다. 주 정부 대표자들은 칼루가 주의 나노기술 발전을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과 함께 투자활동분야에서 주요 업무노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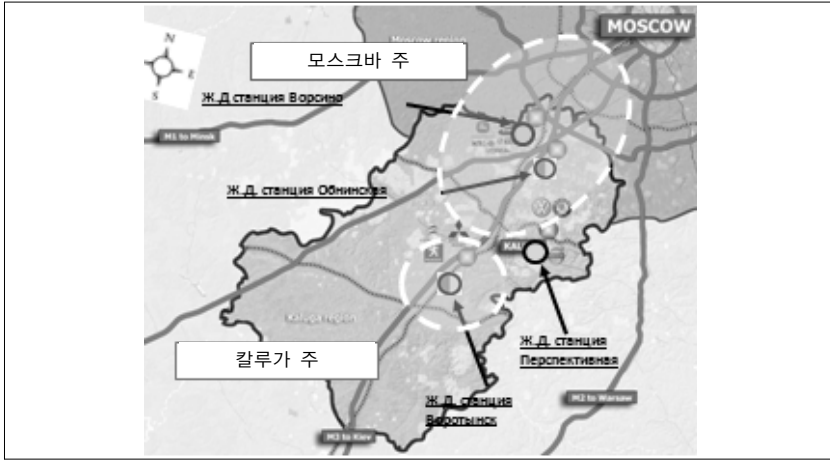
이렇게 칼루가 주는 훌륭한 지역발전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의 근간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대기업들이 칼루가 주에 투자를 하는가? 칼루가 주의 전략들은 왜 현실성이 있는가?

칼루가 주의 다섯 가지 투자가치

①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인프라

- 발전된 도로망: 끼예프 노선(우크라이나 방향), 칼루가 노선(벨라루시 방향), 대규모 콘크리트 순환도로(모스크바 주)
- 발전된 철도 교통: 대모스크바 순환철도, 모스크바·키예브 철도.
-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터미널 서비스망. 모스크바 지역의 인접성, 러시아연방 중부지역들과의 연계성
- 산업파크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산업 집중
- 교통과 물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특히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그림 5-4 칼루가 주 교통 인프라



② 발전된 노동시장

주의 인구는 1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나 칼루가 주의 주변 100km 이내에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브닌스크 시에 학문 연구소와 발전된 대학들이 존재한다(28개 대학 3만 9,000명의 대학생, 26개 특수교육기관 1만 4,000명의 대학생, 자동차산업 전문 기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에서 매년 2,000명 배출).

③ 투자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 5-1 투자자에 대한 칼루가 주 행정지원의 특징

절차의 신속성	행정적인 지원
관료주의 없음	투명한 법제도 시스템
무제한	하청업체 선정의 자유
상호 배제 없음	통합된 프로젝트 팀
인프라 리스크 없음	필요한 모든 인프라 구축, 경계지역의 통신 구축.
추가 지출 없음	예상치 못한 지출 없음
중개자 없음	

④ 현행 투자 지원 메커니즘

자원과 원칙

- 산업단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
- 물류 및 엔지니어링 인프라의 선진적인 발전
- 발전연구소를 통한 파이낸싱 및 지원: 칼루가 주 발전공사, 지역발전 대행사
- A-Park: 중소 자동차산업기업 및 물류회사의 새로운 가능성

표 5-2 투자규모별 세제 혜택

투자 규모(십억 루블)	자산세 0% 기간(년) (무혜택 시 2.2%)	수익세 15.5% 기간(년) (무혜택 시 20%)
0.1~0.3	1	1
0.3~0.5	2	
0.5~1	3	2
1~2		3
>2		4

⑤ 전문적인 투자 유치팀 운영

2. 성공사례: ‘하바롭스크공항’ 사(社)와 ‘인천국제공항’ 사(社)의 협력

하바롭스크공항과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간의 협력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협력은 양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였는데, 하바롭스크 공항은 공항 인프라의 설계, 개발, 운영에 필수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은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양사의 첫 번째 협력프로젝트는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의 대규모 발전계획(마스터플랜)의 작성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사의 협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스터플랜 작성결과 한국기업은 하바롭스크 공항 개발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공항 개발프로젝트 실행에 참여할 목적으로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10%를 사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극동지역 공항 인프라 발전을 위해 다른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는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SC 하바롭스크공항 사(社)는 하바롭스크 국제항공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하바롭스크 공항은 이용 승객 수가 해당 지역 내 1위를 차지하는, 극동에 위치한 가장 큰 공항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190만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2만 7,000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하바롭스크 공항은 러연방 극동지역의 유일한 민영공항이다. 하바롭스크공항 사의 운영은 Konstantin Basyuk이 대표로 있는 ‘KOMACS’에서 맡고 있다.

하바롭스크 공항은 발전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공항은 3,500×45m, 4,000×60m 규모의 평행한 두 개의 이착륙장을 구비하고 있다. 이 공항에서는 가장 작은 모델에서부터 AN-124, 보잉-747에 이르는 ‘중량급’ 항공기의 이착륙이 24시간 가능하다.

하바롭스크 공항은 어떠한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 착륙이 가능한 ICAO 카테고리II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공항은 비행 및 공항 인프라 시설물의 화재방지시스템에 대한(높은) 9등급 자격과 수색, 사고·구출에 관한 자격도 갖춘 극동 소재 유일한 항공사이자 러시아 5대 대표 공항 중 하나이다.

2009~10년 사업운영 결과 하바롭스크 공항은 ‘공항’ 협회가 매년 선발하는 ‘CIS 국가 우수 공항’에 선정되었으며, ‘연간 승객 수 100만 명 돌파 공항’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 사업결과 하바롭스크는 ‘CIS 국가 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어 ‘역동적으로 약진하는 공항’으로 명명되었으며, JSC ‘하바롭스크 공항’은 ‘극동지역 올해의 기업’ 국가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 사(社)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국영기업으로 한국의 가장 큰 공항이자 수도권 서울로 통하는 항공 관문이다.

2012년 운영결과 인천공항은 약 3,9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25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공항은 동남아 주요 환승 공항이며, 세계의 가장 훌륭한 공항 중 하나로 간주된다. 최근 7년간(2005~12년) 국제항공위원회는 이 공항을 승객 서비스 질 분야에서 가장 좋은 공항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항공회사 및 공항서비스의 품질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영향력 있는 영국의 컨설팅 회사 Skytrax로부터 별 3개 등급을 받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이다.

양사의 첫 번째 협력 단계로 하바롭스크 공항 마스터 플랜 작성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하바롭스크 공항이 2006년 민영화된 이후, 공항단지의 보수와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단지 개발협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항 운영 및 건설 분야, 승객 및 화물운송 서비스 분야에 큰 경험이 있는 파트너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공항 인프라 개발계획 작성 목적은 하바롭스크 공항을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의 주요 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하바롭스크 공항이 극동지역과 러시아 전 지역 운송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시절 극동과 소련방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항공기 운행은 하바롭스크 공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항의 잠재력은 연간 350만 명을 운송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993년 결과 기준).

하바롭스크 공항 개발 대규모 계획(마스터플랜) 고안에 대한 입찰 건은 2009년도에 공시되었다. 입찰은 여러 세계적인 항공 컨설팅 기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럽, 미국, 아시아, 러시아의 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의가 들어왔다. 제안을 해온 기관들 중 창이 국제공항(싱가포르)과 인천국제공항 두 기업이 물망에 올랐다. 한국 전문가들은 하바롭스크 공항 장기 개발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준비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바롭스크 공항 마스터 플랜 작성에 대한 계약은 2009년 말에 체결되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에 2년이 소요되었다.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한국기업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 인천국제공항사 외에도 대우엔지니어링(현 POSCO엔지니어링), 한국교통연구원(KOTI), 공항디자인, 설계, 건축 전문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Heerim Architects&Planners Co)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국가기관 주요 부처의 대표들도 러시아 측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하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진행 중 공항 인프라에 대한 정밀분석을 하였으며, 극동 및 러시아연방의 항공운송시장, 주요 경향과 발전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바롭스크 공항 항공운송 수요 예측에 대한 분석 결과 2030년경 공항 이용 승객 총수는 대략 연간 400만 명, 화물운송량은 연간 7만 4,000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하바롭스크 공항 미래 인프라 계획의 주요 변수로 활용되었다.

공항 인프라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이 정해졌다. 인접지역을 포함한 공항 단지 전체가 개발 유망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계획의 일환으로 이착륙 지역, 승객/화물 서비스 지역, 생산지역, 연료 및 주유 지역, 항공기 기술 서비스 지역, 비항공 사업개발지역, 상업지역으로 단지 전체를 구분하였다. 하바롭스크공항을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첨단공항으로 만들고자 각각의 개발지역을 위한 과제 및 행사 목록이 작성되었다.

희림종합건설사사무소와 협력하여 하바롭스크 공항 국제선/국내선을 통합한 승객터미널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이는 항공 운송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하바롭스크 공항의 지속적인 터미널 확장을 고려한 것이었다. 공항 인프라 개발계획안 중 한국 전문가들은 비항공 사업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비항공 사업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AirCity 컨셉). 마스터플랜 일환으로 공항인접지역에 숙박·비즈니스 시설 및 컨벤션 센터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공항들은 다양한 비항공분야 사업개발을 통한 수익확대를 꾀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공항들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분야를 확대할 목적으로 다양한 상업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효율적인 공항 인접지역을 이용함으로써 비항공산업을 통해 총수입의 60% 이상을 창출한다. 인천공항은 비항공산업 개발분야를 이끄는 리더 중 하나로 공

항단지와 그 주변에 여러 면세상점들, 호텔, 스파시설, 한국문화센터, 식물원, 심지어 골프장까지 구비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공항 인접 지역에 AirCity를 조성하는 것은 공항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업수익을 높일 수 있게 한다. 항공기 기술 서비스 지역, 상업지역, 비항공사업지역의 개발은 하바롭스크 공항을 지역의 주요 경제센터로 변모시킬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사는 하바롭스크 공항이 러시아 극동의 주요 항공 교통로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미래의 성공적인 공항기능 수행, 공항 발전, 인천공항과 유사한 공항으로서의 창조 가능성을 확신했다.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공항 개발프로젝트 실행의 재정 적절성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높은 투자 가치가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업무 진행을 통해 2011년 초에 전략적 협력 및 파트너십에 관한 양자간 MOU가 체결되었다. 양자는 인천국제공항사가 JSC 하바롭스크 공항사의 주식 10%를 매수할 것과 하바롭스크 공항 기술자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현대적인 기술유치, 투자유치, 업무능력 향상과 한국 전문가와의 경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기타 협력사업 실행 등을 방안으로 하는 향후 하바롭스크 공항 개발프로젝트의 협력사업에 동의하였다.

양자간의 협력이 하바롭스크 공항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업무협력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양사는 2011년 친선 축구 경기를 개최하였다. 경기는 2:0으로 하바롭스크 공항 측이 승리했으며, 경기 전후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다졌다.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관계에 관심이 있는 한국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유주로서 JSC 하바롭스크 공항사 주식투자를 승인했다. 2011년 7월 4일 모스크바에서 JSC 하바롭스크 항공 주식 10% 매

수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은 대단한 반향을 불러왔으며, 러시아 및 한국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인천국제공항사의 주식 구매는 러시아 지방 항공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사는 항공기업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JSC 하바롭스크 공항 이사회에 가입하였다.

2011년 10월, 제5회 정기극동경제포럼에서 이미 전권을 지닌 파트너로서 양사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작성된 하바롭스크 개발협력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2012년 모스크바에서 인천국제공항사의 사장이 참석한 하바롭스크 항공사의 첫 번째 주주회의가 열렸다. 양사는 하바롭스크 공항 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향후 협력방향과 러시아연방 및 한국 내 공항 분야에서 여타 협력을 위한 상호 파트너십의 확대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사는 승객서비스, 항공사 업무, 공항발전기술 문제의 해결 부분, 공항 발전프로젝트의 진행부분에서 첨단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하바롭스크 공항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파견한 두 명의 전문가들이(해외투자유치부장, 항공마케팅부장) 하바롭스크 공항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다.

투자유치부장은 하바롭스크 공항 발전프로그램의 실행 차원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투자프로젝트의 개발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201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하바롭스크 주 무역/경제/투자 잠재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바롭스크 공항 프로젝트가 미래의 한국 투자자들에게 소개되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기업가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련의 한국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은 해당 프로젝트 참여와 JSC 하바롭스크 공항사와의 협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투자 상담결과 투자연구소, 주요 은행, 항공회사, 건설기관들을 비롯한 주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항공마케팅부장의 주요 업무는 한국도시들과 협력하여 하바롭스크 공항의 항공운송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JSC 하바롭스크 공항사와 인천국제공항사는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간 이용 승객 수의 증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아태지역의 통합을 목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간의 항

공 운송 교류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사업 및 관광 여행자 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실제로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형 한국 항공사인 대한항공(Korean Airlines)과 하바롭스크 공항 신규 노선 취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공항사와의 협력 논의를 위해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대한항공 사업 사절단이 다녀갔다. 하바롭스크 시(市)와 주(州)로의 시장진출을 위해 한국관광업체 인 하나투어의 방문도 이루어졌다.

3년간의 양사 협력결과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양사의 협력 강화 덕분에 하바롭스크 공항의 발전은 마스터플랜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항 이용 승객 수의 양적 증가는 공항 인프라 개발문제를 보다 침체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새로운 하바롭스크 공항 여객터미널 설계가 준비되고 있다. 상급 언급한 발전가속도를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에 지정한 터미널 인프라의 주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계획상 하바롭스크 공항의 신규 여객터미널 건설프로젝트 설계가 2013년에 완료될 것이며, 2017년에는 하바롭스크공항사와 인천국제공항사의 협력으로 극동지역 승객들은 하바롭스크 공항의 새롭고 현대적인 터미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 인접지역에의 AirCity 건설 개발 관련 업무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양사는 러시아 극동지역 다른 공항들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공항을 기반으로 하여 페트로파블롭스 캅차츠키 공항,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마가단 공항 등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공항 지분을 통합하는 극동공항홀딩 설립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각 기업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회사가 참여하는 단일 극동공항홀딩 설립은 러시아 극동공항들의 운영 및 발전분야에 첨단기술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공항 인프라의 전반적인 발전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잠재력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양자의 관계 발전을 위한 투자 결정 시 양사는 경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러한공동위원회의 상시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다.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사 프로젝트들은 러시아 및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공항 회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국 관계의 발전도 가져오고 있다.

양국의 국가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하바롭스크공항사와 인천국제공항사의 협력은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을 위한 기동성 및 접근성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에 활기를 주며, 급격히 성장해가고 있는 아태지역으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의 공항기능 및 건설 분야의 첨단기술을 급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얻고 있다.

부록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진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1)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여기에 투자처가 있다

라리사 쥐론키나 (경제지 『극동 캐피털』 편집장)

이 글은 학술적인 글이라기보다는 극동지역 소재 모든 주(州)들과 중소 도시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한 언론인의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경제지 『극동 캐피털』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정확한 수치들이 인용되었음을 밝혀둔다. 지역발전에 대해 응답한 인물들은 여러 주의 주지사들, 극동지역 소재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전권기관의 인사들, 그리고 최근에 조직된 러시아연방 극동지역발전부의 인사들이며, 위 인사들의 조언을 인용하고자 한다.

극동지역 경제인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발행되어온 경제지 『극동 캐피털』은 전 극동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정보제공 저널로, 사하공화국(야쿠치아), 캄차카 주,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아무르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유대인자치구, 추코트카 자치구 등을 다룬다.

최근 이 지역 경제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사업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가 국경을 막 개방하였을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이 두려움과 위험 요소를 안고 극동에 진출하면서 투자자본을 잃었던 것은 이미 오랜 과거의 일이다. 다양한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의 지방 정부들은 현재 새로운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극동지역의 행정 주체들은 도처에 투자자들의 업

무를 돕는 특별기관을 설치하고, 투자자들의 사업 플랜이 극동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역 선정 및 구역 조성을 돕고,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각 연방 주체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지역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별한 웹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방의 법률 관련 개선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극동지역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진보적인 결정을 포함하여 투자표준 및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략개발부'(특별히 투자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와 협력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에 극동지역 소재 러시아연방 대통령전권 대표 산하에 외국인투자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대기업의 임원들, 외교관들, 지역 내 연방권력을 대표하는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얼마 전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역에 자신의 투자전권 대표자를 임명하였다. 이 대표자의 업무는 극동지역에서의 투자 관련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지역 및 연방정부에 그들의 결정사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을 지원 하는 과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는 러시아의 사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들을 실행시켜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았다. 지난 세기 말 러시아는 급작스럽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생산기관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변화의 동력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료, 전력공급 등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느리고 비쌌고, 관료적이었으며, 모든 사업의 말단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고위공무원의 사리사욕이 자리잡고 있었다. 러시아, 그중에서도 극동지역에서 생산시설 설립을 위해 자본투자를 계획했던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극동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는 광대한 거리와 불충분한 운송시스템이다. 더욱이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나야무레)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장은 매우 적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연방 주체 중 가장 큰 지역인 사하공화국(야쿠치아)은 운송에 있어 가장 복잡한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극동지역의 대부분은 단절된 에너지 공급 시스템, 즉 러시아의 중앙 에너지시스템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모든 여건들은 결국 비용의 증가로 귀결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비용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투자자들은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확보해야만 한다.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러한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더해져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게 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회수를 장기화시키고, 유용광물 산지의 매력을 상당 수준 떨어뜨린다. 둘째, 생존을 위한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극동지역의 기후에 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극동지역에서는 난방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며, 이는 생산 경제력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추코트카 지역에는 난방을 연중 하루도 쉴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셋째, 노동 잠재력의 약화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극동은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모든 정황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을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용광물(오늘날 자원은 가장 매력적인 요소다) 산지 개발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러시아시장 투자에 대한 위협을 대부분 감수하게 한다.

가) 투자: 현재와 미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5년까지 3조 루블, 그리고 2025년까지는 9조 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극동지역 러시아연방대통령 전권대리인 극동개발부 장관 빅토르 이사예프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것이다. 점진적으로 이 지역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향후 사할린의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1.8조 루블 이상), 극동지역 가스 기반 시스템 건설(약 6,750억 루블), ‘보스토니치’ 우주선 발사장 건설(프로젝트 비용 251억 루블)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30년까지 약 1.1조 루블

이 북위도(北緯度)의 도로 현대화와 바이칼-아무르 철도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 속에는 국가 재정 외에도 거대 산업기업(러시아 철도청, 가스프롬, 로스네프찌 등)들과 금, 석탄, 철광석 등을 채굴하는 민영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2013년부터 마가단 주 연안에서 석유가스 채굴을 위한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향후 러시아 동부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투자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려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으로 들어오는 투자규모가 이 지역 및 지역 사업환경에 대한 매력적인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동지역 투자전권대표인 알렉산드르 레빈탈은 2011년 결산자료에서 극동에 대한 투자가 1조 루블 이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연방 전 투자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극동 거주자 1인당 투자규모가 러시아 타지역 거주자의 것보다 2배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주요 투자자로는 우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가스프롬’, ‘트랜스네프티(Transneft)’, ‘러시아 철도청’과 같은 거대 국영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석유관, 가스관, 도로, 에너지 설비) 구축에 대한 결정이 연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가장 빈약한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의 제조시설 현대화를 위해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자발적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그나마 그들의 투자는 주로 자원분야(석유가스, 귀금속, 석탄 채굴)에 집중되어 있다. 몇몇 개인투자자들은 임산 및 수산업분야에 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예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극동 캐피털』

2012년 8월호에서 투자 전권대표인 알렉산드르 레빈탈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였다. ‘2011년 극동에 대한 총투자 금액은 99억 달러로 중앙연방지구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투자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는 일인당 약 1,600달러(러시아연방 평균은 일인당 1,333달러)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 지역 외국인투자 금액의 대부분(약 70%)은 사할린의 석유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극동 경제에 투자된 외국인투자자들의 비율에서 사할린 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앞서 보인 지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전체적으로 인당 450달러라는 수치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는 인당 100달러 이하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

나) 러시아정부의 동기

최근 극동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동시베리아와 태평양간 파이프라인 연결사업’인데, 2012년 말에 두 번째 석유 파이프라인 공사가 착공되었다(ESPO-2). 연방정부는 이 지역에 풍부한 탄화수소 원료의 판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에서뿐만 아니라, 석유가스관 통과지역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生長點)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오랫동안 금강석 채굴에만 머물러 있던 사하공화국(야쿠티아) 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연해주의 신규 석유항 ‘코즈미노(Kozmino)’의 건설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JSC) ‘로스네프티(Rosneft)’가 남부지역에서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화된 석유가스화학 클러스터(cluster) ‘동부 석유화학 콤비나트(VNKH)’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참여하는 두 번째로 큰 사업은 ‘동부 가스 프로그램(Vostochnaya Gazovaya Programma)’이라 불리는 가스프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2012년 말 야쿠츠크 가스센터 건설 및 야쿠츠크-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사할린과 야쿠티아에 각각 가스센터가 들어설 예

정이다. 사할린은 이미 연해주를 연결(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 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 지역들이 안고 있는 ‘연료에너지 콤플렉스’(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에서는 ‘연료에너지 사이클’이라 불린다)의 연료 불균형 문제와 지방의 가스공급이라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한다. 이 지역들은 해당 분야에서 현재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동부 가스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이 지역 가스 부문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야쿠츠크 가스센터의 설립이다. 야쿠츠크-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사는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시설 건축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연해주 주정부와 가스프롬은 이미 하산스크 지방에 대규모의 액화천연가스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선정하였다. 가스프롬은 또한 아무르 주 벨로고르스크 시(市)에 헬륨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광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직전에 가스프롬은 헬륨공장을 위해 선정한 부지를 다른 투자자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프롬 회장 알렉세이 밀러는 가스프롬은 가스 생산에만 집중할 것이며, 가공시설의 건축은 다른 개인 건설투자자들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시베리아 및 극동의 가스 매장지 이용을 위해 북한을 관통하여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사업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몇몇 공장들도 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장 거대한 투자자들 중 하나가 에너지 분야에 뛰어 들었다. 주식회사(JSC) ‘극동 에너지 관리사(社)’는 극동 에너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750억 루블 이상을 투자하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가 극동 에너지 분야의 주요 투자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면서, 연방정부는 루스기드로(RusHydro) 사(社)(극동의 에너지 자산을 통합하고 있는 홀딩 컴퍼니: 동방 에너지시스템 러시아 주식회사(JSC)의 메인 주주)의 1,100억 루블 상당의 추가 유가증권에 관한 결정을 수용하였다. 2012년 11월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분야에 속하는 네 가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즉 소베츠키카

야가반(Sovetskaya Gavan) 시(市) ‘연료에너지 사이클’ 건설(이의 건설 없이는 소비에트카야가반의 특별 항만구역 개발은 불가능하다), ‘사할린 국립 지방 에너지발전소-2’(GRES-2) 건설, ‘야쿠츠크 국립 지방 에너지발전소-2’ 건설, 블라고베셴스크 ‘연료에너지 사이클’ 건설 프로젝트의 착수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이 해제되었다.

운송 분야에서도 강력한 프로젝트 진행이 계획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운송 인프라가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몇 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에 있어서 운수산업의 발전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중에서도 특히 철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러시아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컨테이너 운수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현대화와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빠른 속도의 또다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부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바이칼-아무르 에너지간선’ 건설과 관련된 특별한 테마인데, 이로 인해 간선 인접지역에 보존된 현지의 풍부한 유용광물을 보다 경쟁력 있는 조건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교통 분기점인 소비에트카야가반 시(市)의 항구 수용능력 개발로 인해 줄어든 철도의 통행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 ‘바이칼-아무르 에너지간선’은 약 1,250만 톤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문 수요는 약 1억 톤에 이른다. 거대 도로망으로 이어져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남부 철도노선 건설과제가 국가 차원에서 속고되고 있다.

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고 훨씬 더 자본집약적인 운송 프로젝트는 야쿠츠크에 있는 레나 강을 통해 자동차와 기차가 함께 다니는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의사결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2013년 초에 프로젝트 사전 준비에 대한 입찰 예정이었다). 그리고 아직 먼 미래의 일이지만 사할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 프로젝트도 사할린 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

역의 자동차도로 보급률 지표는 전 러시아 지표보다 거의 5배 가량 낮은 1km²당 6.6km이다. 열악한 자동차도로망 문제가 이 지역의 새로운 공장 건설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연방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연방정부가 에너지 및 도로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민관협력사업의 영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유료 자동차도로 구역 건설에 대한 허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블라디보스톡-나훗카 간 새로운 고속도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건설해야만 하는(이것 없이는 나훗카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연해주 행정부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최근 이 지역에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 진출 대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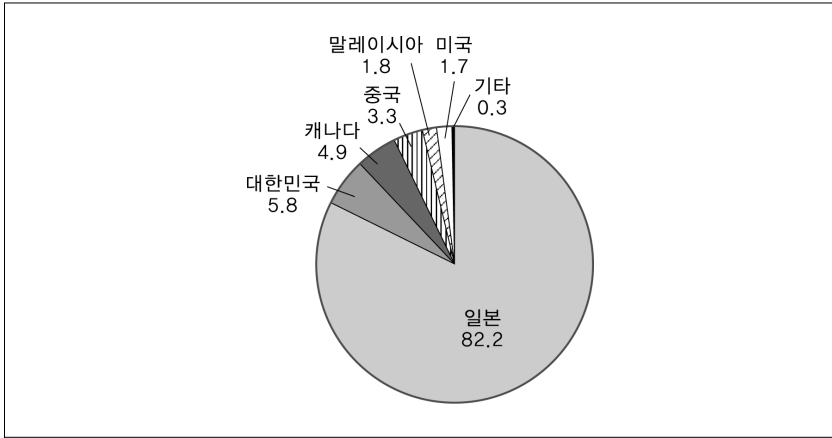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직전에 『극동 캐피털』은 아태지역 경제협력 국가의 투자자들이 극동 발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향후 어떠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APEC 국가들의 투자금액은 총외국인 투자금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극동에서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업은 유용광물 채굴(총액의 93.4%)로 조사되었다. 개별 APEC 국가들의 극동지역 투자액은 [부록 그림 1~2]와 같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는 해안에서 발견되는 탄화수소의 개발에 관한 ‘사할린-1’, ‘사할린-2’를 들 수 있다. APEC 국가들은 탄화수소 이외에도 금, 은, 망간, 안티몬, 우라늄, 석탄과 같은 유용광물 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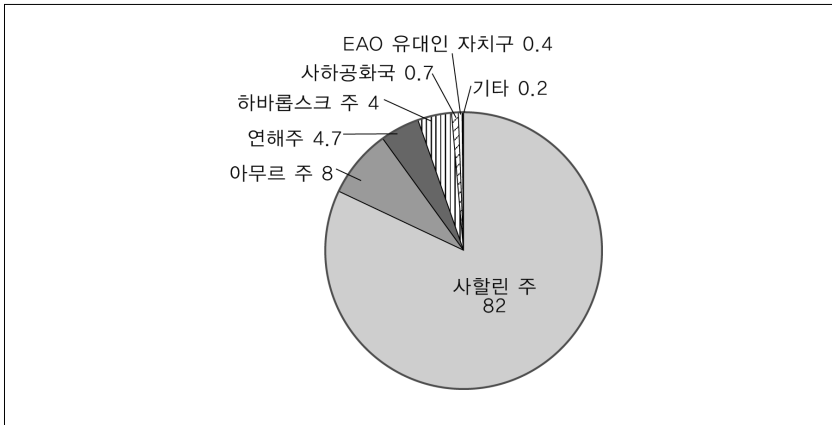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2011년 APEC 국가별 극동 투자규모

(단위: %)



부록 그림 2 2011년 극동지역별 APEC 국가들의 투자규모

(단위: %)



최근 극동지역에서는 산림 분야에서 일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들 모두 국가차원에서 우선적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극동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임업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분야의

선진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하바롭스크 주에서는 극동지역 최초로 말레이시아 자본 참여('Rimbunan Hidzhau' 사(社))에 의해 건축용 MDF 제조공장이 설립되어 2011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프로젝트에서 계획한 정격 용량 목표치는 2013년에 달성될 전망이다. 최근 연해주에서는 목재 가공 프로젝트 홀딩 'Terneyles'가 일본의 스미모토 사(社)와의 협력 속에 성공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 이 일본 투자회사는 투자 이외에도 연해주 목재가공 기업의 일본 내 판로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극동의 산림자원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극동과 동시베리아, 그리고 중국 북동지역에서의 목재가공 분야 협력과 관련된 10개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18년). 중국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시(市)에 위치한 목재가공 콤비나트 주식회사(JSC) Leseksport 사(社)를 들 수 있다.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실무 정상회담에서는 러·중 투자 펀드와 목재회사 'Russia Forest Products(RFP)' (하바롭스크) 간 공동출자 허가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에서 알려진 투자금액만 해도 2억 달러를 상회하지만, 투자금액보다 더 큰 의의는 이 지역에 사모(私募)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는 데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APEC 국가, 그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자동차 조립공장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말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자동차 조립공장 프로젝트가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공장 '솔레스 극동'은 한국기업 쌍용의 SUV 자동차를 생산하였다. 2012년에는 블라디보스톡 공장에 마쯔다의 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섰으며, 조만간 일본 자동차업체의 리더인 도요타도 진입할 예정이고, 혼다 역시 진출할 가망이 있다.

공동투자프로젝트는 조선업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JSC) '연합조선사(社)'는 '대우조선해양'과 함께 공동으로 연해주 볼쇼이카멘 시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여기서는 LNG 선과 유조선, 그리고 러시아 산업을 위한 유전시설을 건조(建造)할 예정이다. APEC 국가들과의 극동 투자 협력 중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경쟁력

있는 항공기를 생산하는 항공산업인데, 하바롭스크 주 ‘콤포몰스크나아무레 유리가가린 항공 생산 연합(КХААПО)’사(社)에서 항공기 ‘Superjet 100’을 대량으로 생산한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APEC 국가들과의 극동 신규 협력 분야로는 농업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 인근 국가들에게 친환경적인 원료와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세계 농업 시장의 상황 악화, 유전자조작 식료품, 전체적인 식료품 수출 감소(일본의 밀 수입 수요만 하더라도 6백만 톤에 달한다) 등과 같은 주제로 이 분야의 협상을 진행해볼 수 있다.

2) 21세기 초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방향과 극동 투자자들의 고려사항

빅토리 라린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장)

신규 지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과 발전전망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많은 잠재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러시아, 특히 정치·문화, 사회 상황, 관료주의적 풍속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러시아 동부 지역들이 어느 정도 방만하고 조잡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래의 정치적 계산에 밝거나 거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일부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춥고 광활한 시베리아에서 행운을 찾고 있다.

21세기 상반기에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투자전망이 어둡다고 보는 비판적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러시아의 미래, 1917년 2월 혁명 이후 극동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동부 지방의 미래에 대한 일부 암울한 전망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은 반드시 ‘태평양 러시아’로 명명되어야 한다.

가) 동쪽을 향하는 크레믈린, 그리고 글로벌 공간에서의 ‘태평양 러시아’

국가는 대내외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을 향해 나아가

기 마련인데, 1992년과 2013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사회 구조 및 경제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차이는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실수를 질책할 수도 있고, 수단 및 방법의 선택과 중간 결과에 대해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 과연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중간희생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최근 10년 사이 러시아는 많은 분야에서 소비에트 붕괴 직후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강대국으로서의 본연의 입지를 되찾았다. 최근의 입지 강화는 과거 소비에트 시기처럼 군사,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가 아니라 경제, 사회 발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국제 분업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로의 편입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 크레믈린에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러시아와 그 밖의 세계 - 러시아 2020’을 진단한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주요 과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아 구 소련의 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모든 안전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고, 무역 부문에 있어서도 양적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미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다른 모든 강대국들의 주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NATO, EU와 함께 유럽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둥 중 하나가 되어야 하며, 유럽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주요 공급자이자 유럽의 상품 및 투자의 주요 시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북극 자원의 채굴과 이용에 있어 선두 주자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UN, IMF, WTO, G-20 및 향후 조직될 수 있는 다른 국제기구들을 포함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모든 주요 기관들에서 충분한 권리를 가진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계 에너지 동력의 핵심적인 주체이자 석유가스 분야와 평화적인 원자력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²⁾

러시아는 예로부터 서구와의 원만한 유대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전문

2) Graham, Thomas(2012), *Россия и остальной мир - Россия-2020: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 под ред. М. Липман и Н. Петрова ; Моск. Центр Карнеги. — М.: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РОССПЭН), С. 30.

가들은 러시아가 향후 10년 이내에 필수적인 투자의 일부를 중국 및 다른 비서구권 국가로부터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경제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들을 서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³⁾

하지만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동방으로 방향전환을 감행했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진행된 대단히 이론적인 차원의 것이지만, 본질적이며 원칙적인 것이었다. 2006년 12월 20일 러시아연방 안전보장위원회는 극동지역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발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기저에는 러시아의 국가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지역 상황에 대한 평가가 깔려 있다. 러시아연방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역의 생산과 경제개발 정책 구조에서 주민 감소와 심각한 불균형, 전(全) 러시아 경제·정보·교통 공간의 느슨한 결속력, 경쟁력 있는 천연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아태지역에서 우리의 정치·경제적 상황, 국가의 안전(어떠한 과장도 없이, 대체적으로 러시아 국가 전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반복되었던 이러한 상황은 극동지역의 순차적인 ‘구원’을 위한 본질적인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었다.

현대의 위협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왜 이러한 위협들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전적으로 지지하도록 요구하는가? 이것은 러시아의 미래와 관계된 문제다. 질문의 요지는 러시아가 이 지역을 러시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국가의 현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전망에 즈음한 2012년 11월 29일 국가 최고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양질의 역동적인 발전에 힘입어서만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지역이 효과적인 자가발전을 하고, 강한 러시아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인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3) Graham, Thomas(2012), C. 33.

지역에서 급진적이고 확고한 개발을 이룩하여야만 하며, 이는 우리 세대의 역사적 소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트랜스-바이칼과 극동지역을 경제 리더로 성장시키고, 이곳에서 성장과 개발의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 조성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⁴⁾

그러한 방식을 통해 러시아는 미래에 태평양 지역에서 성공적인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방식과 비전통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다. 21세기 상반기 극동 개발은 아태지역과 동부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대한 관심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추진하는 태평양 정책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아태지역 및 세계의 정치·경제로 러시아가 통합되는 정도는 극동지역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태평양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참여의 방안이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러시아는 당면한 일부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 태평양 인근이 매우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가 단일한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발전과 거주자들의 성격, 그리고 러시아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나) ‘태평양 러시아’ 지역의 역사,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의미

전통적으로 ‘러시아 태평양’ 연안을 특징 지워왔던 요소이자 오늘날에 러시아의 중심, 이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 간의 동등한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는 이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주변성이다. 오랜 역사에 걸쳐 지속되어온 이러한 주변성으로 인해 이 지역은(프리아무르와 연해주를 제외하고) 집단적 이주와 정착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지대로 남게 되었다.

4) <http://www.kremlin.ru/news/16990>

역사적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동아시아의 핵심국가인 중국,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리아무르가 러시아 관할 아래로 편입되고 러시아인들의 프리아무르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태평양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태도를 변화시켰고 중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만주로의 자국민 이주 금지를 해제하고 러시아인들의 남부 진출을 막을 완충지대를 조성하게끔 만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할린에 러시아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홋카이도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태평양 연안은 러시아인들의 영토확장의 유일한 경계선이 되었다. 슬라브인의 기원지인 러시아 유럽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문명은 이 지역에 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경제적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군사·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경계선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이곳으로 대량 이주한 것은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원된 것이었다. 이후 극동은 슬라브적인 기틀 아래 유럽과 동부 아시아 문명 간의 상호모순과 상호교류가 교차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요소들의 영향에 힘입어 극동의 천연자원에 대한 군사 전략적인 평가는 러시아의 실리와 필요성의 측면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있어 극동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첫째, 전략적 위협의 근원지이자 고조된 정치적 갈등지가 되었다. 군사·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이곳은 항상 러시아의 취약한 지역이었다. 러시아인은 시베리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달리, 극동 개척 단계에서 웅대한 지성을 소유하고 발달된 국가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개화된 문명의 대표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이 지역인들과 이질적이라는 사실과 인접 국가들이 지닌 강력한 지배력을 인지하면서 이들이 체감하는 외부적인 위협성은 더욱 증가되었다. 극동인들은 예전부터 주변을 둘러싼 정치적인 적개심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색적인 국가들을 접하면서 살아왔고, 오늘도 신변에 따른 외부적인 위협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냉전의 종

식과 함께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지만, 러시아에 있어 태평양 경계에 대한 전략적 의미는 더욱 강조되었다.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대한 논쟁, 프리아무르(외만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영토 문제, 연해주 남부 지역에서 통일한국과의 문제, 타이완과 한반도의 문제, 기타 많은 암초들이 극동 연안과 해양경제수역 문제들 내에 감추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이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에 대한 크레믈린의 전략적 평가이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 측면에서는 경제발전과 군사적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서도 행해진 식민지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천연자원 개발을 목표로 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한 채굴 방식의 최정점은 19~20세기와 20~21세기의 과도기에 있었다.

셋째, 동서간 문화적 상호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태평양 연안지역을 보유하면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문명과 경계를 갖는 유일한 유럽국가가 되었으며, 이 둘을 서로 직접 연결하는 광활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넷째, 거주민 중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조직화된 이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극동에 거주하는 수많은 슬라브인에게 있어 이 지역은 마치 임시 피난처 또는 ‘제2의 고향’으로 자리한다. 특히 기아와 빈곤, 그리고 소비에트의 탄압의 희생양이 되어 강제로 이곳으로 유입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역사적 뿌리가 있는 고향’인 러시아의 중심부와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갔으며, 그러한 경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극동을 대하는 그들의 인식은 러시아 유럽 지역, 심지어는 시베리아 거주민들의 관점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150여년 간 태평양 연안을 지배해 왔지만 아직도 러시아는 이 지역을 완전한 러시아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 이질적인 문화와 정치적인 주변 환경, 전제정치와 소비에트 시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 특히 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와 소비에트의 군사전략적 관심들로 인해 이 지역을 유럽 러시아의 천연자원의 보고와 군사 전초기지라고 규정함에 따라 이 지역의 정치, 사회경제, 문화적 발전의 성격이

규정지어졌다.

오늘날에도 태평양 연안은 러시아에 있어 아시아를 향한 관문이자 자연적인 영토확장의 경계이며, 심리적·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동시에 극동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특히 동부아시아 경제공동체로 편입되고 있다.

다) ‘태평양 러시아’의 아태지역 접근성

‘태평양 러시아’는 주변 국제 관계 시스템을 가장 빠르게 통합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경제·정치·인문 관계로 인해 극동지역과 아태지역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소련시절 견고한 철의장막 지역과는 달리 90년대의 러시아와 동아시아 간의 일련의 과정들은 특히 아시아 경제·정치·행정, 인문 분야에서 극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아태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은 서너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경제 부문이다. 재화, 자본, 노동력의 흐름이라는 표준적인 기준에서 볼 때 몇몇 분야에서 경제적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성장이다. 21세기 첫 10년 동안 극동지역의 대외 무역량은 28억 달러에서 344억 달러까지 12배 성장하였으며, 이 중 70% 이상이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의 안정적인 교역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20년간 이들 3개국은 미국과 함께 극동지역의 정치·사회·경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1990년대에 러시아 유럽 지역, 중앙아시아지역과 극동지역의 경제 관계가 재정립되었으며, 중국의 야채·과일·의류·신발 시장에, 한국의 건설자재와 생활가전에, 그리고 일본 자동차시장으로 극동지역의 편입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각 지역은 각각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지역의 삶에 대한 외국의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영향은 지리적 위치, 그들의 경제 발전의 구조와 수준, 정치인들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르다. 아무르 주와 유대인자치구는 90%가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에너지자원과 수산물의 수출에 있어 사할린과

캄차카 지역의 주요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이다.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주의 대외관계는 보다 세분화되었지만, 그중 일본, 중국, 한국과의 교역이 지배적이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극동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공식적인 집계만으로 매년 13만~14만 명에 이르고 있다) 8~9만 명이 중국인이며, 북한과 베트남 노동자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투자협력은 대체로 사할린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어 있어, 이 지역에는 석유와 가스 채굴에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역 내 경제·정치 부문에서 러시아의 위상 확대이다. 이는 다양한(극동 주들과 외국 이웃간의 양자 협의, 다양한 지역 기관/연합 참여 등) 지역들간의 접촉, 다수의 자매도시 및 자매지역 결연, 국경지역을 따라서 배치된 다양한 연방기관들(국경, 권리보호, 자연보호기관 등)의 상호작용, 외향적으로는 경제행사(노상시장, 포럼 등)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대규모 지역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극동지역이 국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은 외교이다. 해당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톡 소재(총영사 혹은 명예영사가 대표로 있는) 18개 외국기관들을 비롯한 약 30개의 외국 영사관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인문 부문이다. 해당 분야는 드물게 다루어지고 결과산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분야는 다양한 과학, 교육 문화 교류를 포함한다. 극동지역에서는 매년 수십 종류의 국제포럼, 컨퍼런스,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수천 명의 중국, 일본, 한국 유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주(州) 차원에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외국과의 우호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개인적인 교류 확대도 인문적 상호작용의 주요 현상이다. 극동인들에게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은 세계로 향하는 창과 휴양지이며, 한국과 싱가포르를 저렴하지는 않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남부지역 주민 3명 중 1명은 중국을 방문해 보았으며, 6명 중 1명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태평양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통합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러시아정부의 여러 결정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중에는 극동지역의 전반적인 신속한 경제 발전에 관한 2006년 12월 20일자

러연방 안전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연방 프로그램 ‘극동지역 및 트랜스-바이칼 지역 개발’의 강화 버전, ‘아태지역 러시아의 지정학적 약진’을 목적으로 하는 201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전략, 2050년을 목표로 한 유사 문서의 연구와 같은 시도들이 포함된다.

‘태평양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한 주요 사건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였다. 해당 포럼의 진행은 태평양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의 굳은 결단을 세계에 보여주고, 연해주 지역의 수도를 국제 경제인문 협력 센터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 밖에도 ‘태평양 러시아’ 지역이 21세기 전반기 아태지역의 국제협력과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주체로 부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21세기 초 아태지역, 동아시아,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극동지역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러시아 측면에서), 지역적(동아시아와 아태지역 측면에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태평양 러시아’의 첫 번째로 중요한 기능은 안정화이다. 이 지역이 보유한 거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잠재력은 이미 그 자체로 러시아 중앙정부에게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대화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일정 정도의 담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21세기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의 이러한 잠재력은 이웃 국가들에게도 경제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활력의 원천과 자유로운 활동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 기능은 러시아 및 일부 유럽지역 경제를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로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이다. 극동지역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경제적 진출을 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2008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의 콘셉트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아태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하지는 모스크바 측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지역에 러시아의 참여’를 굳건히 하자는 데 있었다. 인접 국가에 있어서 이것은 유럽지역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문명 기능이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문화와 경계를 공유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광대한 자연지리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1930~80년대를 제외하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추코트카에서 중국, 한국의 국경에 다다른 유라시아 동북지역은 다문화 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으며, 17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역 토착민들(나나이족, 니브히족, 웅겔족 등)과 이웃 국가(중국, 일본, 한국), 주민들과 슬라브인의 상호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태평양 러시아’의 문화 환경이 매우 특수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태평양 러시아’에서는 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며 동양문화와 전통에 대한 거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극동 남부지역 소재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은 극동인들이 동부아시아 국가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 중 40%가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일본을 꼽았으며, 경제협력 관계 발전이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 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는 지역안보확보 기능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태평양 러시아’는 전쟁과 정치적 위협의 원천은 아니었다. 유즈노꾸릴스크 열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영토분쟁에 휩쓸린 적이 없다. 극동지역의 러시아군(軍) 감소는 지역의 생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지역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러시아는 어떠한 영토에 대해서도 종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지역 안정, 안보, 국제협력 발전을 조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 ‘태평양 러시아’ 개발 전략의 가능성과 문제점

저자는 ‘태평양 러시아’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정치 프로젝트라고 확신한다. 극동의 지정학적 역할과 그 중요성은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사회, 경제, 민주화 발전의 실패는 해당 지역의 보존을 원하는 러시아정부에 경제적 부담과 사상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투자 실패로 인해 그 지역의 전체 가치가 하락했다. 따라서 동부 아시아, 아태지역에서 러시아 정책의 우선순위 및 극동지역 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1)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이익 보전과 동부 국경지대의 국가안보 보장, 2) 극동지역의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등을 비롯, 국가 전체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아태지역의 거대 경제 및 정치 잠재력의 이데올로기, 방법, 메커니즘 형성, 3) ‘러시아 태평양’ 연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극동지역을 러시아 생태보고로 유지.

이러한 전략들은 목표, 필요성,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첫째, ‘태평양 러시아’ 개발과 관련한 러시아의 목표는 1)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을 유지하고 유라시아 및 태평양 국가로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영토를 보전하는 것, 2)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 위치 확보를 위한 강력한 기반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전략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 중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평양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국가 구성체로서 동부지역 보존의 필요성을 국가 지도층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외국과의 경제적 근접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조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 지역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 농공업의 낮은 경쟁력과 열악한 투자 환경(군은 인식)에 대해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러시아정부와 기업, 그리고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이 기존 환경에 대해 불평만 한다면 이러한 전략들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치·경제·문화 여건이 러시아에서 자연스럽게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 접목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들은 방해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은 정치, 사회, 문화이다.

첫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에서도 특히 소비에트 시대를 아직 계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약 이를 피하기 어렵다면 이용해야 한다. 현대 세계에서 경제와 정치의 독립

성을 믿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권력과의 우호적인 관계, 권력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을 위한 유용한 결정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는 아직 외국인투자자들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소연방 시절부터 외국인의 존재는 경제적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노인들과 중년층의 머릿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두려움은 서양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기업을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게 한다.

셋째, 극동지역에서는 유럽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태평양 러시아' 주민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적응 수준이 비교적 높다. 이러한 특징은 러시아 유럽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 주민에 비해서 이 지역 주민에게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설문 결과는 극동지역 주민들이 동아시아 문화와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럽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문화는 많은 측면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웃에 관한 러시아인의 사고는 그들과의 빈번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극동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중국, 한국, 일본과 비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유럽적 본성, 독특한 사고방식, 심리 유형,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

3) 극동 러시아 진출방안

이양구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

가) 극동 러시아 진출 20년 평가

한국이 극동 러시아에 처음 진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한국은 극동지역의 제1 교역대상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규모는 크게 증가한

데 반해 투자규모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현대호텔, 솔리스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패사례도 적지 않다. 영농기업 진출은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나훗카 산업공단 프로젝트는 추진도 해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한다. 2013년 1월 준공된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 공장이 그래도 극동지역 제조업분야의 좋은 투자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계룡건설이 하바롭스크에 주상복합 건설을 1차 마친 데 이어 2차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인천공항이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10% 인수를 토대로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로 극동 러시아 지역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2012년 5월 집권과 더불어 추진된 극동 러시아 개발과 이를 토대로 한 아시아-태평양 진출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한국의 극동 러시아 진출은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 이제 지난 20년의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20년을 바라보고 극동 진출 전략을 새로이 짜야할 시기다. 왜 극동 러시아 지역인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여년 전 한국은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프로젝트에 여러 차례 참여 제의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오늘날 사할린 대륙붕광구에서 대규모 석유가스가 본격 생산되고 있음을 본다면, 극동 러시아는 현재뿐만 아니라 보다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출해야 할 곳이다. 지금도 이러한 기회는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나) 극동 러시아의 중요성

극동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자원 및 물류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며, 앞으로 에너지, 식량자원, 수자원과 같은 미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북극해 개발이나 북극항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10~20년을 관통하는 메가트랜드는 최소한 4가지가 있는데, 극동 러시아는 이 세기적 메가트랜드에 잘 편승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미래자원으로 부상할 FEW(FOOD, ENERGY, WATER)이다.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은 2030년에 각각 35%, 50%, 40%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둘째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에 따라 극동시베리아와 같은 혹한지역의 자원개발과 주거여건이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북극항로 이용 문제와 자원개발 문제가 본격 부상하고 있다.

셋째는 G2의 부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구조가 부상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경제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입지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의 역할도 커질 것이다.

넷째는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남북관계는 극동 러시아에 최대 빅뱅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 변수이다. 철도연결, 가스관 연결, 전력망 연결과 같은 초대형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한반도와 극동 러시아가 일일생활권이자 단일경제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극동 러시아는 이 네 가지 메가트랜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지경학적, 지정학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 성공적 진출의 전제조건

① 협력의 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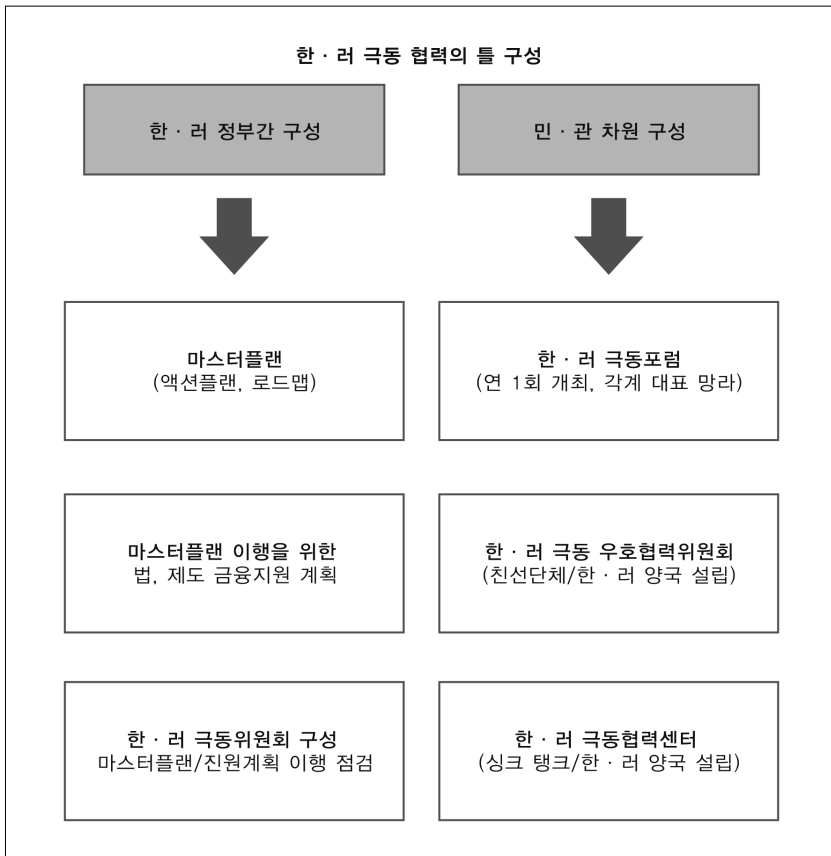
한·러 정부 차원에서는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극동 러시아 간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극동 러시아 투자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러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

하여 두 개의 마스터플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극동포럼이 정례화되어야 한다. 극동포럼은 한·러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방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한·러 극동협력위원회’도 구성되어 민간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탄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러 극동협력 싱크 탱크’를 발족하는 것이다. 싱크 탱크는 정부와 민간에 협력전략과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부록 그림 3 한·러 극동 협력의 틀 구성



② 상호이해를 통한 신뢰구축

한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조성되어야 한다.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진정한 신뢰가 생긴다. 신뢰를 토대로 한 비즈니스는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비즈니스와 질적으로 다르고 더 지속성이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비즈니스 이해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더 큰 이해문제가 나타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파트너십은 깨지기 쉽다.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에 기반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정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③ 재외공관과의 협력강화

극동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현장 방문 시 재외공관(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은 듯하다. KOTRA는 방문하더라도 재외공관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재외공관의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공관에서 특별히 들을 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작용한다. 그러나 신규진출 기업이든 기존출 기업의 대표단이든 재외공관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세일즈 외교'를 표방하면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모두 기업 지원활동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대외관계적 리스크 요인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훈, 현재의 추세,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이러한 네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통합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수평적 통합 관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제를 동시에 아울러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수직적 통합 관점). 물론 말과 같이 쉬운 일은 아니나, 최소한 공관의 역할이 그렇다.

그리고 공관은 주재국 정부와 각계 인사를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관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비즈니스 어젠다를 가지고 있으면 주재국 정부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즉 공관으로서는 주재국과 보다 자주 접촉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해를 반영할 기회가 생겨서 좋다. 본국에서 많은 고위급 인사가 수시로 공관을 방문한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기업의 어젠다를 반영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부간 고위급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공관은 일의 성격에 있어 KOTRA와 차별화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공관과 기업 간의 협력이 기업 진출, 특히 신규 기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극동 러시아 진출방법

① PPP(민관 파트너십)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PPP의 특징은 민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일종의 소방수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선제적이 아닌, 사후에 대응하는 형식이었다. 때로는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PPP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② EBRD(유럽개발은행)의 참여

극동 러시아에 진출할 때는 투자보장방안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다. 러시아 최대 투자자인 EBRD는 인적 네트워크, 노하우, 정보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EBRD의 프로젝트 참여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프로젝트 비용의 25% 직접투자자와 투자자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 프로젝트의 신뢰와 권위를 높일 수 있다.

③ 국제 컨설팅기관이나 법률회사의 활용

극동 러시아의 투자 장애요인은 투명성 문제다. 파트너 기업과 CEO에 대한 검증,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파악은 물론 러시아 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러시아 법체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종종 법과 법 사이에 상충되는 규정도 있다. 진출 기업들은 이런 다양한 검증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타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수준의 검증 및 사업 타당성 타진 작업에는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 법률회사, 회계법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비록 일정 부분 컨설팅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투자 보장조치이기도 하다.

④ 사업 타당성 조사방식의 다양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투자진출에 앞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방법과 접촉기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들 하는 것처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기업이나 한국정부 기관 위주로 접촉을 한다면 큰 부분을 놓칠 수 있다. 따라서 현지기업 및 현지기관과의 접촉이 필수다. 또한 러시아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 전문 법률회사와 함께 러시아 법률회사의 자문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내법과 러시아법이 상이한 만큼 러시아 법률회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문도 필요하다. 이는 현지 러시아기업의 문화, 경영상태, 평판, 프로젝트 평가에 대해 현지 은행이 상당한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률회사에만 의지하거나 현지 법률관계자를 최소한으로 참여시켜 투자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⑤ 윈-윈 스킴(scheme) 제시

최고의 협상은 51:49의 구도라는 원칙이 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찬가지이다. 상호 윈윈하는 비즈니스 구도를 제시하고 이를 지켜갈 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해서 일방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면 이는 반드시 후유증을 동반한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도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⑥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전개

최고의 투자보장은 그 기업에 대한 현지 평가라고 여겨진다. 러시아에서는 법적인 보장도 안전하지 않다. 실제 러시아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적인 보장을 받고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기업의 현지 CSR 활동은 현지주민과 지방정부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게 좋은 평판을 쌓게 한다. 정치적인 보장이 법적인 보장보다 더 확실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성공한 투자기업들이 공통적으로 CSR을 적극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⑦ 4대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적 접근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정치적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 대외관계 리스크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다고 한다. 정치적 리스크는 정권교체 또는 정변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적 리스크는 투자환경, 기업문화, 고용법 등에 관계된 것이다. 사회적 리스크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개방적인지, 우호적인지에 관한 사안이다. 대외관계 리스크는 특정 국가를 선호 또는 기피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투자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보면 리스크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인맥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 실패에만 집착한다면, 현재 투자환경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 특히 투자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극동 러시아는 현재보다 다가오는 미래가 더 희망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⑧ M&A

극동 러시아에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원진출 분야에는 지분 참여를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중국은 지분 참여를 통한 자원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분 참여는 자본만 확보되면 경영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카자흐스탄의 세계적인 구리광산 운영을 맡은 삼성이 경영정상화를 통해 세계 5위의 구리광산으로 발전시킨 것은 이러한 투자진출 방법의 좋은 사례이다. 특히 생산광구에서의 지분

참여는 검토해볼 만하다. 생산광구는 당장 수입이 나오는 곳이다. 경영과 신규투자를 잘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분 참여를 통해 현지사정에 익숙해지면 더 큰 투자나 다른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⑨ 투자 성공요소에 입각한 진출전략 수립

EBRD에서 극동 러시아에서 성공한 투자모델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업종과 지리적 위치는 달랐지만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투자 성공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다. 둘째, CSR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 셋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하였다.

흔히들 중요한 결정은 연방정부에서 한다고 한다. 물론 사실이고 연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 리더십의 지지, 실무진의 이해와 협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연방정부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만 상대하려 하거나 리더십만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현지 리더십의 지지는 연방 리더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방과 리더십을 대상으로 하는 top-down 방식과 지방과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bottom-up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현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방 리더십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다. 주지사는 수시로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연방 리더십을 접촉할 수 있고, 연방 리더십도 수시로 지방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 리더십의 인식이 중요하다.

CSR은 현지인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실제 추코트카에서 금광에 진출한 캐나다 기업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추가로 금광을 분양받았고, 금광에 대한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는 CSR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해야 한다. 현지인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현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진출은 자칫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지기업이 할 수 없는 차별화된 경

쟁력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투자환경이 갑자기 개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극동 러시아의 잠재력을 소홀히할 수도 없다. 중장기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기회도 살리고 리스크에도 대비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예로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영농기업은 10여년 간의 꾸준한 투자 결과 현재 현지사회에서 좋은 평판도 받고 있고 사업도 안정화되고 있다.

⑩ 성공모델 발굴

패키지딜 방식: 대규모 에너지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마가단에는 철광석 20억 톤이 매장된 초대형 광구뿐만 아니라 초대형 석탄광구도 있지만, 인프라 미비로 개발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패키지딜 방식은 투자자가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자본이 수반되는 만큼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합작투자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사전 타당성조사: 대규모 자원개발이나 항만, 산업공단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가급적 정부간 공동(또는 기업 참여 하에 실시)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참여하여 보다 상세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최소한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보다 엄선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에 제시하면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분참여 모델: 인천공항과 하바롭스크 공항 간에 지분 참여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분 참여를 넘어 인천공항 모델을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공모델의 확산: 극동 러시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대화이다. 공항, 항만, 병원 등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항만 또는 공항, 병원에서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면 이를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 극동 투자의 고려사항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미래 가치를 보고 진출해야 한다. 펀드매니저들에 따르면 큰 규모의 투자결정 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가치’라고 한다. 즉 회사의 리더십과 장래성을 비중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 수익성과 함께 극동 러시아의 미래 전망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듯하다. 단기적으로 극동 러시아의 투자환경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WTO에 가입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극동개발과 아시아-태평양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4대 메가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최대 빅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 외에 인적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과학기술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동원되면 러시아는 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상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상대를 믿어주는 만큼 상대도 반응해주는 이치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은 극동 러시아에 20여년 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쉽사리 파트너를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다. 우정과 신뢰와 같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셋째,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극동 러시아에 대한 가능성만 갖고 진출할 수는 없다. 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두 번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내심과 도전정신, 그리고 진정성도 있어야 한다. 극동 러시아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우리가 진출해야 할 시장이다.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다시 한 번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2. 러시아 극동지역 정보

1) 연해주 지방

연해주의 발전 속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의 지표에 비견할 만하다. 최근 6년 간의(2006~11년) 지역 총생산은 1.6배(비교 수치) 증가했으며, 고정자본 투자액은 4.7배, 제조업 1.6배, 연해주 대외 무역량은 1.2배 증가했다.

2011년 투자액은 2,784억 루블(2010년 대비 121.3%)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 총생산 중 투자 비율은 52% 이상이었다. 투자의 대부분은 민간 자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이 자금은 신규 특화 클러스터와 연해주의 기존 경제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투자되었다. 고정자본 투자액 중 예산외 자금의 비중은 2011년에 65% 수준에 달했다.

연해주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러시아 지역들 중 하나이며, 상당한 투자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분석기관 『Expert RA』의 평가에 따르면 연해주는 83개 러시아 연방 지역들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브스』지의 평가에 따르면, 2011년 결산 결과, 사업하기 가장 좋은 러시아 지역 평가에서 연해주 지방이 극동 관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러시아에서는 (30개 평가 지역 중) 18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의 『러시아에서의 기업경영-2012』 자료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이 소유권 등록에서 3위, 기업 경영 편의성에서 15위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7위, 모스크바보다 15위 더 높은 순위이다.

연해주의 투자 및 사업 선호도는 ‘로스네프찌’, ‘트란스네프찌’, ‘가스프롬’, ‘솔레르스(SOLLERS)’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의 존재로 증명된다.

연해주에는 2천 개 이상의 외국회사와 외국합작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는 SIEMENS(독일), Yantai Raffles(싱가포르), 니코메드 제약(노르웨이), 쌍용, Sumotori 테크노홀딩, 롯데, 현대(한국), SKF(스웨덴), 마쯔다, 코마츠(일본) 등과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대표 사무실이 있다.

연해주 내에는 19개 영사관이 있다. 연해주 지방 대외무역은 세계 84개

국과 진행 중이다. 2011년 연해주 대외 무역량은 미화 80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전년대비 1.2배 증가했다. 연해주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 경제의 비율은 90%를 상회한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량의 87%는 이 지역의 4대 강국인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한다. 중요 투자자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다. 연해주 경제 내 외국인투자 금액은 약 미화 6억 달러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사업들

러시아회사 SOLLERS 와 한국회사 쌍용은 자동차 제조에 합의하였으며, 2009년 12월 블라디보스톡 시에서 SUV 조립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쌍용, 마쯔다, 도요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대형 자동차 제조단지의 총 생산량은 연간 10만 대이며, 근로자는 853명이다. 향후 2,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전망이다. 현대 중공업은 ‘연방 통합전력 배전회사’와 합작하여 연해주에 전기기계 제조공장 건설을 완료 중에 있다. 2010년 8월 현대 중공업과 ‘연방 단일전력 배전회사’, 그리고 연해주 정부 사이에 공장 건설 사업 실현에 관한 3자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2012년 12월 공장 가동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것은 연해주에서 해외 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이고 신속한 사업의 분명한 사례이다.

신규 공장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2012년 9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톡 시의 에너지 및 통신 산업 대학은 신규 공장에 필요한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 중공업 공장 건설사업은 전체 진행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대식 공장을 위한 인력 공급도 받고 있다. 이 점은 신규 현대식 공장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방안이 연해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연해주의 투자 선호 경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과 탄화수소 원료 고도 가공과 수송 클러스터 사업이다. 차후 수년간 연해주와 극동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분야 중 하나는 석유가스화학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이다(2010년 미화 3조 달러). 세계 화학제품 수요의 40%를 형성하는

아태지역 시장에 대한 연해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연해주 지방은 아태지역의 거대 무역중심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로스네프티’ 사(社)는 연해주에 95% 이상의 고도 가공과 연간 최대 1천만 톤의 처리 능력을 지닌,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를 건설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미화 58억 달러이다. 사업 실현을 위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2012년 9월 APEC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가스프롬’ 사(社)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과 블라디보스톡 시에 가스액화공장을 건설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LNG 공장의 건설은 국내 시장과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 액화가스를 공급하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라도 천연가스를 해운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단기 전망으로는 가스화학단지의 건설이 있다. 클러스터 사업들은 연해주 전체 경제발전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간소화된 자재와 의료 및 일상 제품 중에서 플라스틱, 건축자재, 제조보조장비의 고부가 제품을 적용한다면 소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방향은 경쟁력 있는 물류 시설을 갖춘 수송체계의 발전이다. 유럽-아시아-아메리카 방향으로 향하는 해로와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연해주 지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과 러시아의 수송-물류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연해주는 넓은 교통로를 발전시키고, 국제 대형 허브를 조성하여, 국제 경유지를 유치하고, 환적항 및 복합운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트로이쯔 만의 해항 지구에 항만 특별 구역을 조성하는 안이 검토 준비 중에 있다. 그러한 구역은 연해주와 글로벌 수송체계와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현대적인 인프라와 연해주 내 외국 상품 경유를 단순화하는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연해주의 수송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른 발전 선호 분야는 자동차 클러스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클러스터의 주요 참여자는 극동의 자동차 제조 업체인 ‘솔레르스·극동’ 자동차 공장이다. 단기적으로는 APEC 국가들로의 수출 전망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발전 전망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연

해주로 유치할 촉진제로서 제조분야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혁신 클러스터 발전. 연해주는 제약, 의학, 정보통신 기술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사업 실행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해주를 극동에서 러시아의 혁신적 변화를 보여주는 국제적 중심지로 만들 것이며, 첨단기술산업 발전과 혁신 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다.

종양 치료의 새로운 방법 개발을 위한 극동관구 기반의 핵의학 병원 건립 사업, 생체실험센터, 첨단 연구센터 그리고 양자이온 치료센터 건립이 계획 중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연해주는 한국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적인 사업에는 친환경 생산에 중점을 둔 농업혁신 발전사업들이 있다. 아태 국가들에 수출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될 전망인 녹색 기술 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분야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대 중공업은 콩, 옥수수, 곡물 재배와 생산을 위해 ‘현대 호롤 아그로’사와 ‘현대 미하일로프카 아그로’사를 설립했다. 재배업과 사육업의 향후 발전, 신종 작물 윤작 도입, 그리고 자체 농산품의 가공을 위한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략적인 우선순위 방향: 관광업의 발전

‘2012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구축된 인프라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공간을 이루며, 블라디보스톡에 국제회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일류 기업들을 유치할 가능성을 추가로 열어주었다. 블라디보스톡을 전시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장(場)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핵심적인 전시장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지정함으로써, 카지노 단지 ‘연해주’를 기반으로 통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조성, 루스키 섬에 관광레크리에이션 형태의 특별 경제구역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업 부문인 MICE 관광업(회의, 포상, 컨벤션, 이벤트와 전시) 발전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과제는 세계적 수준의 휴양 인프라 구축하고 관광업 및 환대산업 규모를 4~5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10년 이내 관광객 유입은 통합 유흥구역인 연해주의 자원 활용을 포함하여, 1천만~1천 2백만 명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투자자를 위해 공개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 글로벌 게임자산관리사 ‘텔라웨어’, 미국
- 나가콜프 사(社), 케이맨 제도
- 다이아몬드 포춘 홀딩스 유한회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연해주에 대한 투자 결정자들을 위한 사업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 관광업, 사업 관광 포함
- 탄화수소원료 고도 가공 및 수송 클러스터
- 자동차 클러스터, 선박 및 항공기 제조
- 정보 기술, 바이오 의학, 제약을 포함하는 혁신 클러스터
- 녹색산업의 발전.

사업에 유리한 여건과 투자환경 조성이 연해주의 핵심 과제이다. 매력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수준의 특별 조치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른 요인들, 현대적인 인프라, 지역의 인적 잠재력, 편리한 물류체계가 필수적이다.

연해주 지방은 이 점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강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아태 지역의 경제 중심지에 위치한 세계적 경제 강국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한 아태 지역 사업에 대한 러시아 회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해주 중심지 블라디보스톡 시의 1,000km 반경 내에 4억 1,4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도시에 약 3억 명). 이곳은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갖춘 유일한 도시이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주변에는 같은 반경 내의 인구가 1억 명이 되지 않는다. 이 면적(1,000km 반경) 내의 매년 지역 총 생산은 미화 6조 6천억 달러이다. 이것은 세계 총생산의 9.5%에 해당한다.

둘째, APEC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구축된 현대적 인프라가 있다. 이것은 에너지 산업, 수송, 공공 시설 부문 시설들이다. 국제적인 수송로를 형성하는 새로운 자동차 고속도로들이 만들어졌다. 블라디보스톡 공항을 기반으로 극동 복합수송 물류센터·허브가 설립되었다.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간선 가스관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부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도 완공되고 있다. 단기 계획들로는 연해주의 가스화, 열 병합 발전, 가스 고도처리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있다.

여기 열려진 모든 사업의 목적은 투자자들의 인프라 비용 절감이다.

새로운 경제적 도전 과제들은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를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 연해주 지방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바로 이곳에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5개 연방 대학들 중 하나가 위치해 있다. 투자자들의 고급인력 수요를 만족시키고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며, 러시아의 국제 과학기술 발전을 확장시키는 최신 연구교육단지는 사실상 독특한 자원이다. 이곳에서 2025년까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 국가들로부터 온 약 5만 명의 대학생들이 교육받을 것이며, 최상의 교수진과 전 세계의 일류 학자들이 강의하게 될 것이다.

투자활동 증진을 위한 핵심과제들 중 하나는 행정장벽 철폐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과 합작으로 자치 비영리 조직 ‘연해주 투자유치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업무는 연해주에서 실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투자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각 투자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연방전략사업청의 대표부가 개설되었는데, APEC 정상회담에서 이 대표부와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업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예를 들면, 건설, 전력 연결, 통관 수속, 대외무역 거래, 사업등록, 세무회계와 같은 분야의 행정절차 ‘로드맵’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연해주 지방에 제시되고 있다.

2012년에는 법 규정의 규제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규제 영향력 평가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활동, 시장기구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새로운 법률 규정을

평가하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평가로 인해 부지 제공, 공공서비스 신청, 심사 시행 등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기타 과정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인프라관련 지원이 생겨나고 있다. 첫째로, 수출 지향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해주 기업가들을 위한 ‘현대 정보 마당’이라는 특별 센터가 만들어졌다. 그 같은 센터는 연해주의 외국 협력업체들에게 기술 및 장비 공급을 포함하여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투자자들을 위한 몇몇 무역특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별 경제구역 방식이 있다. 현재 루스키 섬에 관광·휴양 형태의 특별 구역 조성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을 연해주로 유치하는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형태의 항만 구역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 구역의 지위는 구역 입주자들이 행정 장벽 감소와 인프라 비용 면제, 자유관세방식, 특별 조세를 통해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연해주의 경쟁력 있는 강점들, 기술과 인프라 가능성, 상당한 자원 잠재력은 연해주를 신뢰할 만하고 유망한 사업 파트너로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연해주 지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러시아를 통합하는 핵심 주체이며,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협력 강화와 합작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열린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바롭스크 지방

- 총 면적: 787천km²(러시아 면적의 4.5%)
- 인구: 1,342.5천 명(도시 인구 비중 82%)
- 인구밀도: 1.7명(km²당)
- 영토 면적: 남쪽에서 북쪽까지 1,780km/ 서쪽에서 동쪽까지 750km.
- 시간대: 9, 모스크바와의 시차-7시간.
- 기후: 문순형 기후
- 지방 중심 도시: 하바롭스크(극동연방구 수도)

부록 그림 4 하바롭스크 지방 지도



노동자원

경제활동인구: 78만 4천 명(인구의 약 58%), 경제활동인구의 27% 이상이 전문 고등교육 학력자, 42% 이상이 중등교육 학력자, 12% 이상이 중등 일반교육 학력자, 약 8%는 초등교육 학력자이다. 인구의 28% 이상은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주의 평균 임금은 28,000루블(어업분야 종사자는 15,000루블부터, 가공공업 종사자는 38,000루블부터, 금융 분야는 45,000루블부터)이다.

학문 및 교육

하바롭스크 지방에는 7개의 학술연구소, 12개의 국립 과학아카데미, 연간 17,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31개의 고등교육기관, 27개의 전문 교육기관(연간 약 6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이 있다.

학술기관

하바롭스크의 대규모 학술기관은 하바롭스크 학술기관을 대표하는 러시아 과학기술원 극동분과이다. 하바롭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 과학기술원 극동분과 연구기관들이 있다.

- 컴퓨터 센터
- 하바롭스크 과학센터 재료연구소
- 광업연구소
- 수질 환경문제 연구소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과의 지역문제 분석연구소
- 코시긴 지질 지구물리학 연구소
- 연방국립 임업과학연구소
- 경제연구소

천연자원

생물자원

- 변방 토지자원-7,870만 헥타르(hectare)
- 농업적 토지이용-6,655백 헥타르
- 산림면적-5,100만 헥타르
- 산림밀도-러시아 산림의 6%
- 1년간 계획된 벌목량-2,040만m²

수자원

21만 개의 강(58만 4천km). 아무르 강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강 중의 하나이다(4,440km).

유용광물

- 석유, 가스자원 5억 톤
- 광물산업용 매장량: 백만 톤

- 연료탄 추정자원: 4백만 톤
- 갈탄: 7백만 톤
- 명반석 추정자원: 인광석 총자원량 9천만 톤
- 복합광 추정자원: 약 1천억~1,300억 톤. 철광석: 80억 톤 이상
- 망간광석: 3천만 톤
- 금 매장지: 러시아 내 9곳. 24곳 주요 금 매장지 중 8곳은 현재 개발 중, 352곳의 사금매장지

휴양자원

하바롭스크 주에는 주요한 휴양자원이 있다. 전체면적 중 19개의 야생 동물보호구역은 31,000km². 7개의 보호구역(1,711천km² 이상)

또한 하바롭스크 주에는 아닌스키와 톨닌스키 미네랄 온천이 있다. 하바롭스크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플라워호수’를 포함 6개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

두세-알린 산맥, 콘데르 산맥, 아무르 스톨비(Amurr Stolby), 오호츠크 해의 군도(연방정부의 주요 야생동물보호구역), 카르스트 동굴 산볼리와 그 외 다른 관광자원들도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 150개의 역사기념비들, 404개의 도시건설 및 건축 기념비들, 16개의 장대한 예술 기념비들, 4개의 조경 건축 기념비 등 780여 개의 고고학적 기념물(비)들이 있다.

또한 6개의 극단, 1개의 필하모니, 16개의 박물관, 5개의 문화 휴식공원, 식물원과 동물원이 있다.

민족지적 관광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다음과 같다.

- 시카치 알란이라는 흑룡강 하루 알타이족 마을 근처에 위치한 암각화, 발론호수, 키야와 수크파이 강변, 5월의 강
- 절벽
- 요새
- ‘수추’ 섬의 고고학적 기념비들

하바롭스크 주 삶의 고유한 영역은 이 지역 토착민들의 독특하고 자주

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는 2만 3천 명의 소수북방 토착 지역민들이 살고 있다(전체 인구의 1.5%). 비치하, 시카치 알란 등 9개 전통문화센터는 방문자들에게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 그림 5 교통 인프라와 연결망



하바롭스크 주는 러시아 극동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중요한 교통의 요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바롭스크 주는 철도, 항공, 해상, 도로, 통신, 교통 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지역 화물운송의 역할이 증대되어 최근 몇 년 간 교통 인프라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하바롭스크 주에서는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 항구와 연해주 항구를 연결하는 두 개의 독자적인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 철도가 역동적인 국제적 동-서 교통회랑으로서 유럽 및 러시아 지역을 아태지역과 연결해준다. 2020년까지 BAM 철도를 이용한 물류량을 1억 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012~15년 동안 하바롭스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불쇼이 우수리스크 섬에 러시아-중국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새로운 화물 및 여객 검문

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하바롭스크 주의 내륙 해상교통망은 남쪽방향과 중국의 북쪽, 타타르해협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해상연결망을 통해 화물 및 여객을 공급해준다. 규모가 큰 강 항구들이 하바롭스크와 아무르의 콤포스콜스크 시에 위치해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 대규모의 국제해상항구인 바닌, 소련의 가반, 데 카스트리가 있으며, 등급별로 17개의 비행장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극동지역 정보공급의 중심지이로서, 국제 통신망 중계교환국이 위치해 극동지역 및 동시베리아지역에 대한 통신망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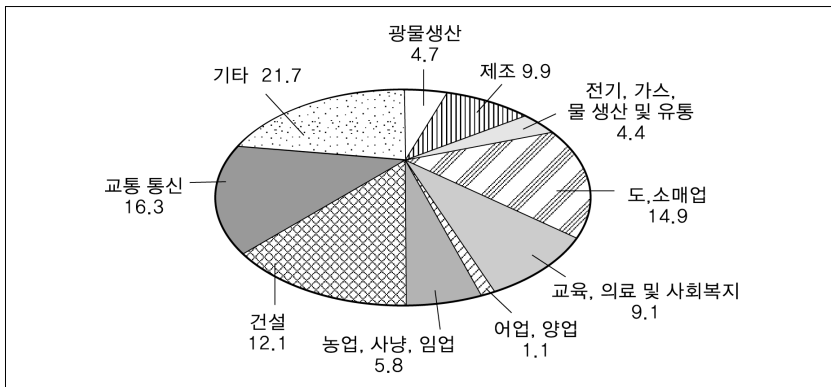
하바롭스크 주의 지역간, 도시간, 국가간 통신연결서비스는 5개의 통신사, 4개의 이동통신사, 인터넷, 36개의 인터넷, IP·전화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경제

하바롭스크 주의 경제는 다각적이며, 발전되고 다양화된 철도교통 운임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바롭스크 주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하나인 하바롭스크 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은 러시아 내에서 16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부록 그림 6 2011년 하바롭스크 주의 지역 내 총생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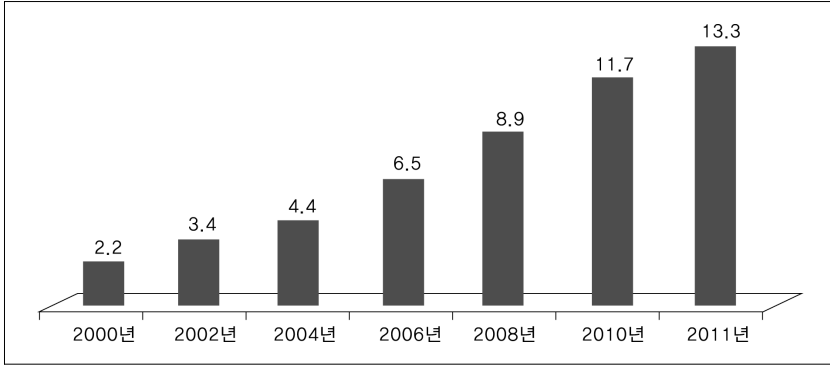
(단위: %)



제조업 부문의 산업생산 비중은 60% 이상이다.

부록 그림 7 하바롭스크 주의 지역 내 총생산(GRP)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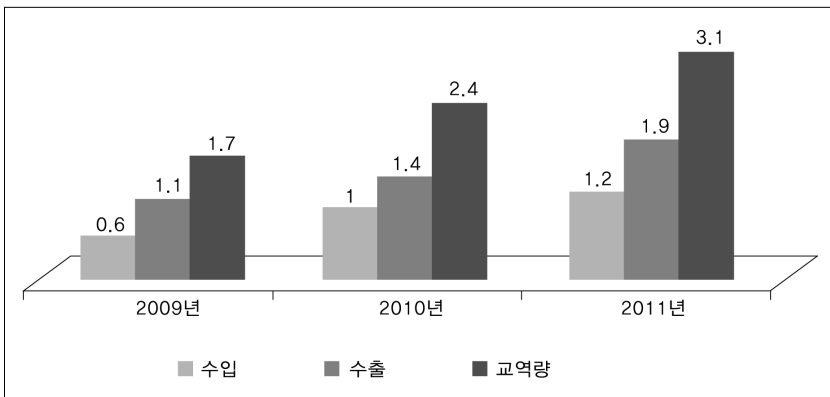


대외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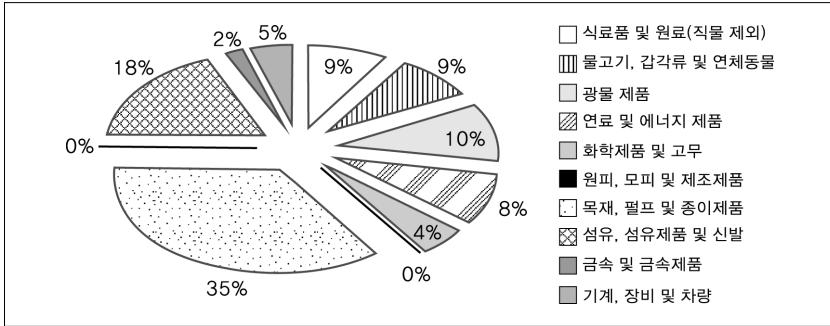
하바롭스크 주는 러시아 영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공간에서 가장 잘 통합된 지역 중의 하나이다. 2011년 대외무역량은 2010년보다 28%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했다. 목재 및 식료품 가공(수출의 35%), 금속 및 금속제품(18%)이 수출의 우위를 차지한다.

부록 그림 8 하바롭스크 주 대외무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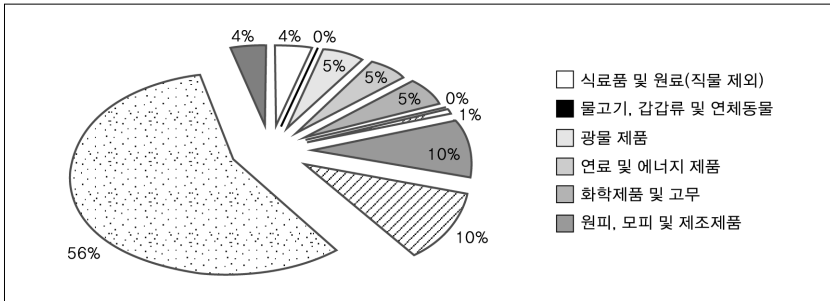
(단위: 10억 달러)



부록 그림 9 수출품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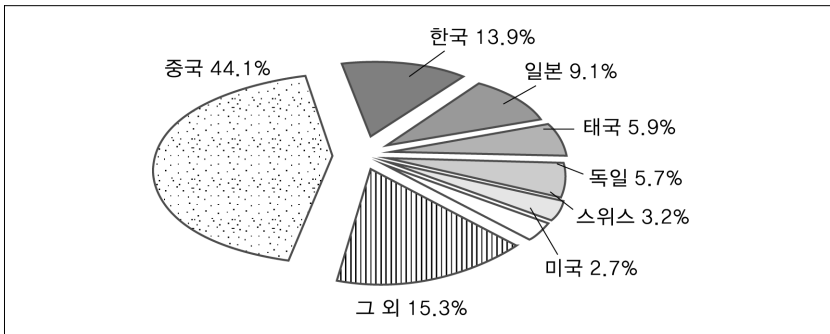


부록 그림 10 하바롭스크 주의 주요 수입품목-기계, 장비 및 운송장비(총수입의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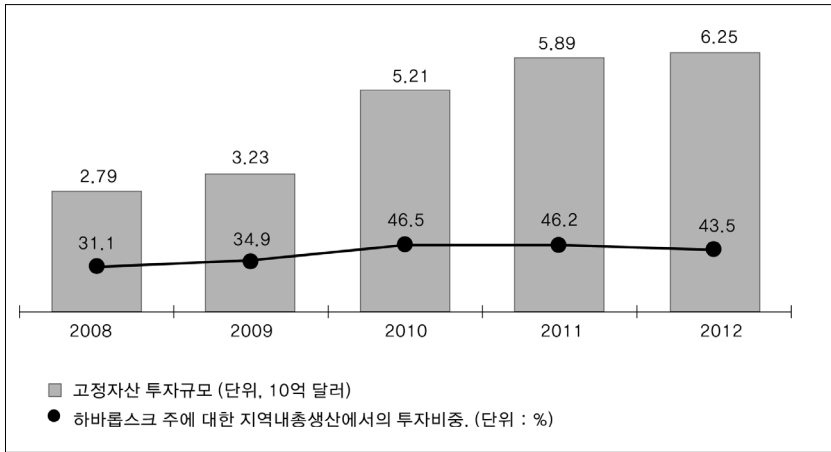


2011년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44%), 한국(14%), 일본(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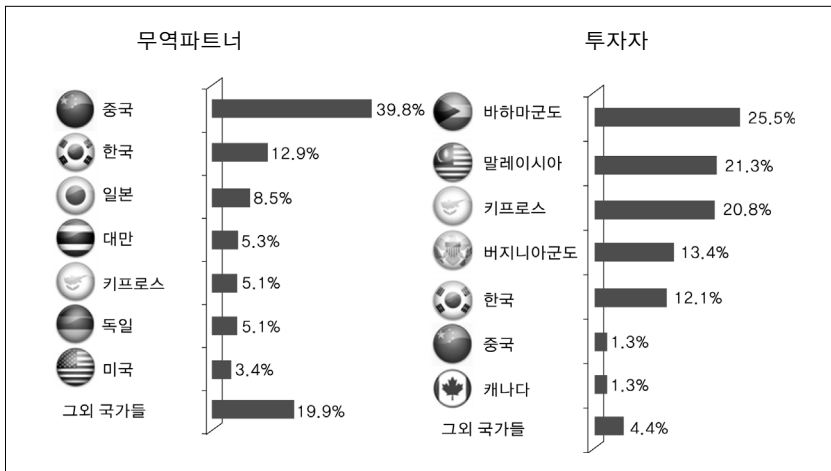
부록 그림 11 2011년 교역국가별 대외무역 비중



부록 그림 12 연도별 고정자산 투자액의 변화



부록 그림 13 2011년 교역국가별 무역파트너 및 투자자 비중



경제의 주요 분야

하바롭스크 주 경제의 핵심은 산업단지를 포함한 다양화된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은 극동지역에서 석유, 철강 및 압연제품의 유일한 생산지역이다. 주요 산업은 에너지 단지(생산의 25.7%), 공학단지(약 21%), 광업(13%), 식품생산(약 10%), 금속제조(9.8%), 정제(9.7%)이다.

연료 및 에너지회사

하바롭스크 지역은 극동연방지구에서 사실상 원유가공처리로 특화되어 있는데 전력의 약 20%, 석탄생산의 8%를 포함하여 열에너지의 30%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바롭스크 주 지역의 전기 및 열 에너지의 주요 제조사로는 전력 2,289.9MW와 열에너지 6,521.4Gcal/h를 생산하는 JSC ‘하바롭스크 제너레이션’, 자회사 ‘극동 제너레이팅’ 사(社)가 있다. 2011년 에너지시스템의 에너지원을 통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열에너지의 70~97%가 생산되었으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은 7억KWh였다.

하바롭스크 주에서의 석유 정제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로는 석유회사로 유명한 ‘로스네프찌’, ‘하바롭스크 정제회사’, 그리고 트란스분케르-바니노(TRANSBUNKER-VANINO)가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 있는 두 개의 석유정제공장은 근본적인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90% 이상으로 석유정제율을 높이며, 생산품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유럽표준인 ‘Euro-5’를 충족시키는 석유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급은 액화천연가스의 형태로 공급된다. 하바롭스크 주의 가스 유통회사로는 ‘하바롭스크 주 가스’가 대표적이다. 하바롭스크 주의 가스 송유관 길이는 1,500km 이상이며, 15개 지역의 주민들에게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현재 건설 중인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가스 송유관의 길이는 약 1,700km(하바롭스크 주까지의 길이는 1,000km)이다. 현재 건설 중인 주요 석유 송유관은 하바롭스크와 콥소몰스크 석유정제공장이 참여하고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 구간의 송유관이다.

야쿠티아 지역에서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스송유관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석유, 가스송유관 철도가 지나는 하바롭스크 주 지역에는 석유화학 설비 발전을 위한 기회가 열려 있다.

하바롭스크 주의 탄광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업은 JSC ‘우랄우곡(Urgalugol, 2004년부터 (주)시베리아 석탄에너지)’이다. 이 회사는 하바

롭스크 주의 베르흐네부레인스크 지역에서 탄광산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오흐츠크 지역의 마레칸스크 갈탄매장지에서도 채굴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석탄 채굴 규모는 하바롭스크 주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3배가 넘는 양이다.

기계공학, 금속가공

하바롭스크 지역경제의 주력이 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항공기협회(Komsomolsk-on-Amur Aircraft Production Association)’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항공기산업이라 할 수 있다. 착공 중인 현대적 전투 항공 허브 SU-35s에서는 제5세대 전투기의 시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승객용 여객기의 생산은 SSJ-100가 최초이다. 시스템과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 유수의 30여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참여하여 국제협력에 부합하는 조건의 고품질 수출용 제품생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요 조선소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위치한 ‘아무르 조선소’와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하바롭스크 조선소’이다. 선박수리 전문회사인 ‘선박수리 회사 No.1’은 ‘소베츠키야가반’이라는 도시에 있으며, 선박용품 및 장비 제조업체인 ‘고리끼 하바롭스크 공장’은 하바롭스크 시에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서 전자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회사는 “달랜에르고메쉬(DalenErgoMash)”로 하바롭스크 시에 위치해 있다.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위치한 아무르 철강(Amur Metal) 사(社)’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평판 압연철강 제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전기야금 회사로 연간 215만 톤 가량의 강철을 수용하고 있다.

임업

임업은 이 지역 경제의 최우선 산업 중 하나이다. 수확의 대부분은 132개의 회사가 승인된 약 1,160만 입방미터 산림지역에서 장기 임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도적인 목재 및 종이제조업 회사로는 ‘DALLESPROM’, ‘SHELEKHOVSKY LPKH’, ‘ARKAIM’, ‘Business Marketing’으로, 이들 제조상품의 9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 국가로는 중국,

일본, 한국이 있다.

목공예를 겨냥한 목재산업은 상당한 양의 투자로 인해 통나무 가공량이 35%에서 2013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바롭스크 주 내에는 극동지역 전체의 1/10 가량의 금, 플라티늄의 2/5, 구리의 1/2, 주석의 20% 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하바롭스크 주의 금 채굴 규모는 러시아 내에서 7위, 극동 연방 지구 내에서는 5위를 차지한다. 플라티늄 채굴은 산업 현대화 과정의 촉진으로 극동 연방지구 내에서 1위, 러시아 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합금 매장지인 알바지노에서 새로운 광산채굴기업이 개발진행 중이며, 아무르스크 도시에서는 연간 5.5톤에 달하는 금합금 생산이 최신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습식제련공정 플랜트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금융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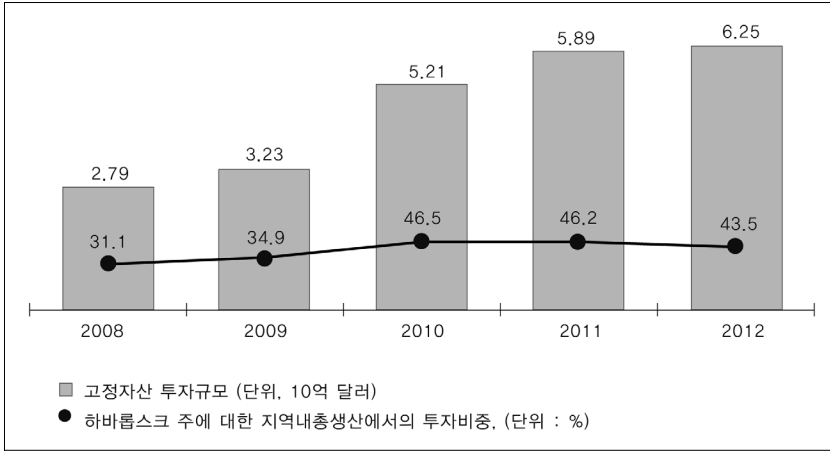
하바롭스크 주에는 33개의 신용기관(4개의 지역상업은행과 28개의 신용기관 자사들), 35개의 보험사(7개의 지역 보험회사와 그외 러시아연방의 28개 보험회사 지사들)이 있다.

투자환경과 기획

신용평가기관인 <Expert RA>에 따르면 하바롭스크 주는 2010년과 2011년 1년 사이 24단계(68위 → 44위)나 투자위험이 감소하여 러시아연방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투자위험이 감소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Forbes* 잡지 평가에서 하바롭스크는 2010년 러시아에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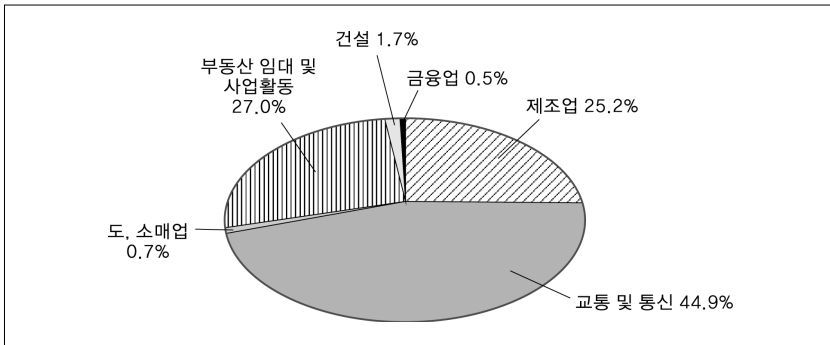
부록 그림 14 하바롭스크 주에서의 고정자산 투자 추이

(단위: %)



하바롭스크 주에서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국가 전체 평균을 웃돌며, 지역총생산 대비 투자 수준 또한 4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하바롭스크 주에 투자된 외국인투자 총액은 약 20억 700만 달러이다.

부록 그림 15 2011년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외국인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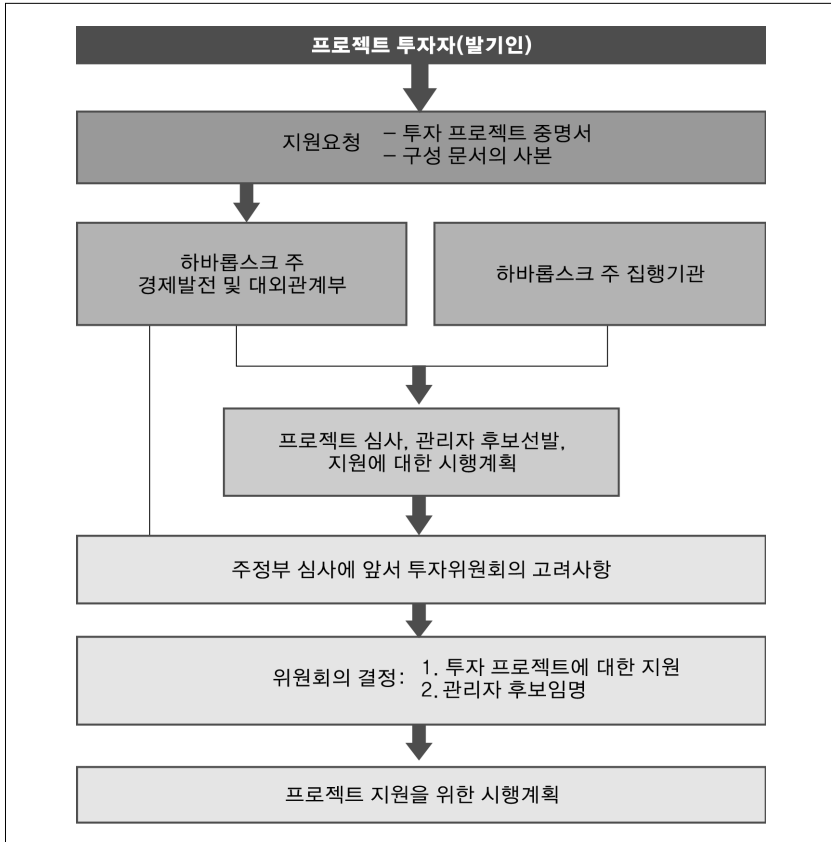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하바롭스크 주에는 626개의 외국인투자 기업이 운영 중이며, 그 중 321개 기업은 100% 외국자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밖에 290개의 합작회사, 15개의 외국자회사들이 있다. 또한 31개

의 외국기업 대표부와 2개의 외국기업 대표부 지사가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로 수행되고 있는 그 밖의 사업들로는 건설, 무역 및 서비스, 물류, 광물채굴 사업 등이 있다.

하바롭스크 주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제 투자 경험에 기초한 종합적인 투자 촉진 조치를 취하며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부록 그림 16 투자활동의 조직적 지원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은 연방정부가 계획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 컨설팅, 지원, 관할 관청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해외 프로젝트 지원, 행정적 장애의 제거 등이 있다.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토지임대에 대한 혜택, 법률 및 재산에 대한 국가적 보장, 투자활동 주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하바롭스크 주에는 국가보증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10년 넘게 주 정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와 대외경제위원회, 하바롭스크 주지사 직속의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된 지역프로젝트인 ‘바닌-소베츠키야가반 교통 및 산업 허브, 볼쇼이 우수리스크 섬, 항공교통 허브’의 실행은 민관 합동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민관협력은 비용 보상, 리스크 분담, 의무와 보상의 분담 조건으로 인프라와 공공 부문 프로젝트를 민관이 공동으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하바롭스크 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투자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음 4개 지역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 하바롭스크 대도시 교통 물류허브 및 발전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센터의 조성.
- 극동 에너지 허브 내의 우랄지역 최대 석탄매장지에 기반을 둔 베르흐네부레인스크 산업허브 형성.
- 산업지역 ‘콤포몰스크-아무르스크-솔네츠키’에서는 항공, 선박, 석유정제, 철강제조, 비철강제품 채굴, 그리고 목재 및 목제품 생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은 기반시설과 물류성과가 탁월한 지역이다.
- 바닌-소베츠키야-가반 교통산업 허브. 이곳에는 유명한 금융산업 그룹인 JSC ‘Meche’, JSC ‘시베리아 석탄에너지 회사’, LLC ‘베이직 엘리먼트 회사’, CJSC ‘페트로파블롭스크 투자신탁회사’, LLC ‘사하(야쿠티아) 선박회사’ 등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회사들은 BAM (Baikal-Amur Mainline) 지역과 바닌 항과 소베츠키야가반 항구 터미널지역에서 이미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항구경제 자유구역

소비에트 가반 항구지역에 특별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이유는 선박 수리센터,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뿐만 아니라 식수 재사용과 생물자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항구경제자유구역’은 1949년도 소비에트연방의 동쪽 걸프만지역에 조성되었다.

소비에트연방 가반 항구는 소비에트연방 만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17개의 항구정박지와 정박시설이 있다. 수로의 깊이는 30m이고, 모든 정박지의 길이는 2,598m(높이 475m, 깊이 9.5m), 정박지의 최대 깊이는 10.5m이다.

이는 현존하는 373개의 항만시설 가운데 선박 적재 총량의 5만 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향후 발전가능성에 따라 30만 톤까지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경제구역에서 허용가능한 활동들:

- ① 항구 및 물류서비스(저장창고, 포장, 선별 및 분류)
- ② 선박 및 장비공급
- ③ 제조, 수리, 유지 및 선박 현대화
- ④ 수생물자원
- ⑤ 단순조립 및 기계가동
- ⑥ 주식거래 및 도매업
- ⑦ 항구 특별경제구역 기반시설의 지원활동
- ⑧ 생산 활동

소비에트연방 가반 지역의 신뢰성 있는 운영기관에 서류지 등록을 한 상업기관은 경제특구지역의 대표공사가 될 수 있다. 경제특구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국가적 특혜를 얻으려는 투자자는 대표공사 지위를 획득해야만 한다. 회사의 자본 중 외국자본에 대한 분담률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경제특구지역의 대표공사는 특별경제구역 영토 밖에서 대표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부록 표 1 경제특구 지역의 대표공사를 위한 세금혜택

세금 종류	세금혜택 후	세금혜택 전
기업 이익세	15.5%	20%
기업 재산세	0%	2.2%
교통세	0%	차량 종류에 따른 세금을 적용 토지세
토지세	0%	1.5%
부가세	0%	10%, 18%

경제특구지역 내의 토지는 계약규정에 따라 임시소유 및 임대의 형태로 주어지며, 임차인들은 이 지역 내의 토지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본 양에 따라 임대료가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경제특구지역에는 관세자유지역이 존재한다. 관세 자유무역의 관세법 하에 경제특구지역으로 운반된 상품들은 투자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수출할 때에는 이러한 관세법 적용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지역의 대표공사는 단일회사를 제외하고 상업 기구가 될 수도 있다.

3) 사할린 주

사할린 주는 러시아에서 섬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가스, 광물, 수생물자원, 산림자원, 일반광물 등등)과 휴양 자원 및 치료 목적의 미네랄 온천 등이 유명하다.
- 특히 질과 양 면에서 특별한 이곳의 생물자원들은 러시아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사할린-쿠릴 일대 수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어업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사할린 주의 주요 제품 수출지역은 근접해 있는 아태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할린 주정부는 5년에 걸쳐 산업부문 별 평준화 발전, 각 경제 분야별 지원과 사회복지를 위해 크게 힘써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 경제

발전의 전략적 발전을 계획하는 조직에 의해 진행되며 경제발전을 위한 현실적 적용 방법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정책 실행은 다음과 같다.

- 법 규제의 개선
- 경제부문별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목표달성관리(MBO) 적용
-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주와 연방정부의 국채 집중화
-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 회사들의 지역기반시설(전기) 부분적 비용지출 예산 조정과 세금혜택을 통한 투자사업 활성화
- 국제적 경제 현안 장소(전시회, 포럼, 회의 등)에서 이 지역 투자 잠재력 적극 홍보

사할린 주에서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31일 No.16-30 「사할린 주에서의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투자계획우선권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할린 주의 장기목표 프로그램인 「2011~18년 사할린 주의 투자가능성 확대 및 발전」은 2011년 11월 9일 No.455번으로 사할린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사할린 지역의 경제에서 투자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사할린 주의 지역기반시설, 교육, 공중위생, 문화, 스포츠 시설의 건설 및 현대화를 위한 민관협력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4월 17일 발효된 사할린 주정부의 법령 No.179 「사할린 주의 고정 국유재산의 건설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촉진 대책에 관하여」
- 2011년 11월 26일 발효된 사할린 주정부의 법령 No.567 「연방법(양허계약) 실행 대책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 사할린 주 행정부에 의한 법령 No.573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할린 지역 투자활동에 대한 위원회 창설에 관하여」로 인해 투자활동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위원회는 사할린 주정부 주도하의 심의회로서 기능하며, 사할린 지역에서의 민관협력인 PPP의 발전방향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와 투자활동 주체들이 공동계획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투자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장벽들 및 조건 창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에서의 허가절차와 관련한 사할린 주 경쟁촉진 프로그램 및 특별조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할린 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조치들은 사할린 주에서의 투자활동과 현존하는 시설의 현대화뿐 아니라 이미 경제적·사회적 발전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혁신적, 지식집약형 산업에 대한 매력을 늘려 줄 안정적인 플랫폼 마련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투자분야 전망에 대한 평가:

- ① 양식업. 사할린 주의 수생 생물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해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요 충족을 위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인공번식을 통한 개체수 증가를 모색하고 있다.
- ② 석탄 수출을 위한 항구 인프라 조성.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광산업 부문 기반시설은 낙후되었다. 그렇기에 사할린 항구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는 양질의 광산업분야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③ 사할린 지역의 탄화수소 고급정제조직. 사할린 주는 연료의 연 소비량이 80만 톤에 달한다. 그렇지만 아직 석유정제 제품은 없다. 사할린 주에서의 석유정제 공장 건설은 내수 소비진작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인 캄차트카와 마가단 주에까지도 출하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건설자재 산업. 2017년 말까지 사할린 주는 170만m²에 달하는 주택 건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건설자재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 ⑤ 광산 분야. 사할린의 북부지역은 지하수법으로 생산되는 역청탄 채굴이 이루어진다. 이 분야에 대한 시장가격은 다른 광물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이 분야의 유망 프로젝트는 므가친스키 광물 매장지 개발사업이다.
- ⑥ 도로공사프로젝트와 양허계약, 운영계약,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서비스의 실현. 사회시설(유치원, 스포츠 시설)의 건설비용은 2015~2025년간 투자자에게 명시된 조건하에 지역예산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 ⑦ 관광 개발. 사할린의 ‘고르니 보즈두흐’라는 스포츠 관광단지(STC)는 러시아 스키 관광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제2의 도약기로 발전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올림픽 선수단 준비를 위한 스키 리조트의 개발이 요구된다.
- ⑧ 승객 수송을 위한 항만개발. 육로수송로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만수송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명무실해진 기금조성 사업을 재육성하여 연방과 주정부 프로그램 펀드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극동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법 규정에 대한 연구: 상거래법 분야에서의 주요 법과 규제; 러시아 회사에서의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양자협정 시스템; 세금 혜택; 환율규제 및 환율통제; 수입과 수출문제; 인적 자원; 노동법의 요구사항; 외국인 노동자들의 채용.

4) 마가단 주

마가단 주는 러시아연방 북동지역에 위치해 있다. 북서 경계지역은 사하(야쿠티아)공화국과 접해 있고, 서쪽 경계지역은 하바롭스크 주, 북쪽 지역과 북동 지역은 추코프스크 자치구 그리고 동쪽 지역은 캄차카 주와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오호츠크해와 접하고 있다.

마가단 주는 러시아연방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지역 중 하나임과 동시에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2013년은 마가단 주 탄생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산업개발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28년에 시작되었다.

오호츠크해의 해안 섬 지역은 46만 2,400m²이다. 2012년 초 이 지역의 인구는 15만 4,500명이었다. 이 지역의 행정중심 도시는 마가단이다. 고위도에 있는 이 지역은 광범위하고 독특한 산계에 위치하며 오호츠크해와도 가까운데 이 모든 것들이 기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 지역 주요 수종은 삼나무와 낙엽송이다. 이 지역에는 매우 다양한 동

물들이 살고 있다. 스포츠 사냥 대상동물들은 큰뿔 야생양, 불곰, 큰사슴, 북부 야생 사슴, 늑대, 오소리 등이다.

오호츠크해의 북부수역은 가장 생물자원이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다. 오호츠크해에는 전 러시아 지역 어획량의 1/5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태평양 연어, 동태, 대구, 가자미(25여종 이상), 청어, 은어, 넙치 등 30여종이 넘는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곳에는 바다게, 새우, 낙지 등 풍부한 동물군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엔 어느 곳이나 다양한 종의 바다표범과 산호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은 이 지역의 기초산업 중 하나이며, 수산제품은 러시아 내수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항공서비스는 러시아 마가단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야나디리, 케페르빔(Кемервеем), 야쿠츠크, 이르쿠츠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나다르 도시들까지 연결한다.

2010년 3월 11일 No.1241-03 마가단지역의 법적 승인을 받아 2025년까지 사회경제적 발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지역의 기초적인 산업은 무엇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이다. 마가단 주는 잠재적 광물 자원이 많은 지역 10위에 랭크되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의 주요 종류로는 귀금속, 비금속, 화석연료가 있다. 러시아에서 확인된 매장 광물자원에는 11% 이상의 사금, 15% 이상의 광맥금, 50% 이상의 은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지역 천연자원의 가치는 1조 6,70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귀금속의 가치는 전체 광물 자원의 3%에 달하는 517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러한 광물자원 매장지는 에너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이 이 지역의 두 번째 우선산업이다.

마가단 지역에 있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 지역 에너지 소비량을 100% 충족시키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의 95%는 콜름스크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에너지 비용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발전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14개의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사하공

화국(야쿠티아)과 마가단 주 경계에 위치해 있는 야노·콜름스크 금광 개발 사업이다. 추정되는 금 매장량은 4,750톤이며 그 중 50%는 이미 매장량이 확인되었다. 천연자원의 1/3은 나탈린스크 금매장지역 내에 있으며 ‘Matrosov Mine’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 개발준비가 완료되고, 2014년도부터는 마가단 주 연간 금채굴 양에 필적하는 13톤 이상의 금채굴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매장지에서의 연간 귀금속 채굴량으로 볼 때 연간 약 30톤 이상의 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노·콜름스크 금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의 설립 및 교통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 500MW의 우스트·스레드네칸스크 수력발전소 건설이 2018년도에 개시될 예정이다.
- 고압전선 제작이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 팔라트카-쿨루-넥시칸을 잇는 도로 재건설 작업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연방정부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이러한 개선책들은 연방프로그램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마가단 주의 광산업 전망은 다른 산지 개발과도 연관되어 있다. Dukat은 풍부한 은 매장지로 유명하다.

아라예크스크(Oroekskaya) 지역에는 구리 1,100만 톤, 은 16,500톤, 납 55만 톤, 아연 70만 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호츠크해의 프리마가단 지역은 45억 톤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멜카보드닌스크 지역에는 5억 490만 톤 규모의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 광물자원 개발은 생산라인 다양화 원칙으로 인해 이 지역 영토 내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마가단 주 기술혁신 발전 시나리오에 명시되어 있다. 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은 건설사업, 어업, 제조업, 관광업 분야 등이다.

마가단 주에는 법률 행위, 세금 혜택 및 특혜 그리고 지역의 정부기관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아우르는 유리한 투자시스템이

존재한다.

잠재적 투자자와의 회의 중 마가단 주 주지사는 “우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리한 투자환경 및 사업환경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예로, 마가단 주에 세금혜택과 관세가 자유로운 특별 경제구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1999년 5월 31일자 연방법 No.104-FZ 「마가단 주의 특별경제구역에 관하여」라는 특별경제구역 제도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380개의 사업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에는 세금혜택과 관세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제도는 오로지 특별경제구역에서의 사업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러시아 연방법이 명시하는 법률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기업가들은 SEZ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허가를 위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SEZ 참여회사들은 마가단 주 영토 내 고정자산의 적어도 75%를 소유해야 한다. SEZ의 세금법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SEZ 참여회사들의 수입세가 면제된다. 특혜는 오직 마가단 주의 제조분야와 사회분야의 발전 영역에 투자한 회사들의 이윤에만 적용된다.

상품시장과 합리적인 가격의 질 좋은 상품 보급을 위해 SEZ 국경의 특별 법규정 아래 관세법 특혜를 주어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로 부과 및 기타 경제적 규제 없이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허가하고 있다.

SEZ에서 100% 생산된 제품들이나 충분한 과정을 거친 수입 상품들은 러시아 연방에서 수출할 때 관세의무나 그 밖에 모든 발생료를 면제받으며, 러시아 연방의 관세지역으로 들어온 수입상품들은 모두 러시아 상품으로 취급된다.

SEZ 참여 회사들은 첨단기기 구입을 할 때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원가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첨단기기의 구입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 캄차카 주

- 지리적 위치: 캄차카 주는 캄차카 반도뿐만 아니라 카만도르스크와 카라긴스크 섬과 인접해 있다.
- 총면적: 464,3천km²(러시아 면적의 2.8%)
- 인구: 320,2천 명(도시인구 비중 82%)
- 인구밀도: 0.7명(1km²당)-2011년 1월 1일 조사
- 캄차카 인구의 평균나이: 37세(35세-남성인구, 39세-여성인구)
캄차카 반도의 인구는 2년 동안 러시아 평균 인구수에 못 미치고 있다.
- 행정중심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 구성: 11개의 지방 군, 3개의 도시관구, 5개의 도시마을, 49개의 농촌 마을을 포함한 총 68개의 자치구로 구성.
- 기후: 순한 대륙성 기후, 연간 강수량 2,000mm/년(쌓이는 눈 높이는 2.5~3m), 혹독한 추위가 지속되는 기간은 140일간이다.

부록 그림 17 캄차카 주 지도



- 자연적 특성: 캄차카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곳에는 1,000여개가 넘는 화산이 존재하며 그 중 29개는 활화산이다. 연간 계속되는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는 산정상에서 만들어지는 무수히 많은 시냇물과 강으로 인해 캄차카의 중요 자원인 태평양 연어가 풍부하다. 오호츠크해, 베링해 그리고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프리캄차카는 세계 해안지역 중 그 어떤 곳보다 풍부한 수산업을 자랑하며, 150만 톤 이상의 수산물 자원이 인공이 아닌 천연적으로 재생산되는 곳이다.
- 노동자원: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만 3천 명이며, 지역인구수는 18만 8,100명이라고 집계되었다. 예상전망에 따르면 지역인구 수는 대체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한다. 월평균 임금은 2011년 3만 9천 루블이다(호텔경영분야 및 외식업분야는 2만 2천 루블부터, 금융중개업 분야는 7만 3천 루블까지).

학문과 교육

캄차카 주에는 고등전문교육 시스템으로 9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그 중 6개는 다른 지역의 분교다. 그 외 7개의 학문연구기관이 존재한다.

- 연방국가 단일기획연구소 캄차카 어업 및 해양학 연구소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과 지질학 연구소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과 화산학 및 지진학 연구소
- 국립 학술기관인 캄차카 농업과학연구소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과 우주물리학 및 무선전파보급 연구소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과 지리학 태평양 연구소의 캄차카 분과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지구물리학 분야 캄차카 분과. 학문적 지원이나 혁신기반시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연방국립투자 교육기관 고등전문교육(Federal State Budg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인 캄차카 비투스 베링 국립대학(Kamchatka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Vitus Bering)의 분과로 비영리기관인 ‘캄차카 지역 연합’의 학술과학센터.
- 연방국립투자 교육기관 고등전문교육(Federal State Budg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인 캄차카 비투스 베링 국립대학(Kamchatka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Vitus Bering)의 분과로 있는 지구물리학, 지질학, 생태학 연구기관의 통합수학 시뮬레이션실험 연구실.

- 연방국립투자 교육기관 고등전문교육(Federal State Budgetary Educational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인 ‘캄차카 국립 기술 대학’ 내에는 혁신적 부문으로 ‘과학기술단지’, 학술연구센터, 혁신영리회사 ‘EkoBioTeh’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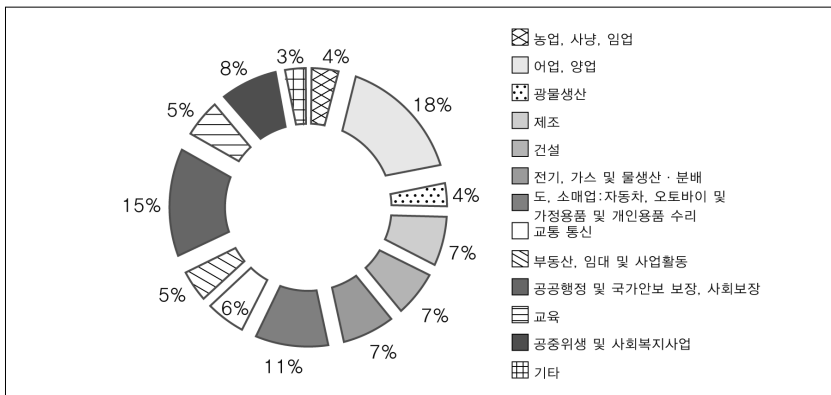
캄차카의 고등교육기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설되었다.

- 고등전문 국립교육대학교인 ‘비투스 베링 캄차카 국립대학교’의 하나인 연구혁신센터 LLC ‘GEO Consulting’.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Economic Development Ministry)의 전 러시아 대외무역 아카데미(The Russian Academy for Foreign Trade) 연방국립투자 교육기관 드미트로프 지점 내의 LLC ‘혁신개발센터’

경제발전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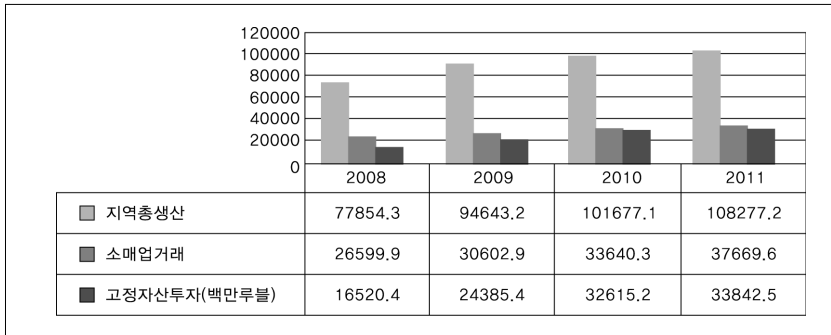
통계에 따르면 캄차카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극동 연방지역 내에서 5위이다.

부록 그림 18 2011년 지역 총생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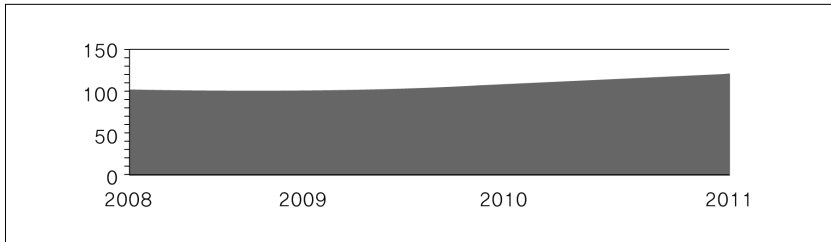
지역 총생산에 들어가는 이 지역의 주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다. 어업, 공공행정 및 국가안보 보장, 도소매업,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 건설업, 제조업, 전력생산 및 유통, 가스 및 물공급, 교통 통신 등 열거한 모든 경제 활동 분야는 캄차카 주 지역 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부록 그림 19 2008~2011년 캄차카 주 경제 발전지표



부록 그림 20 전년도 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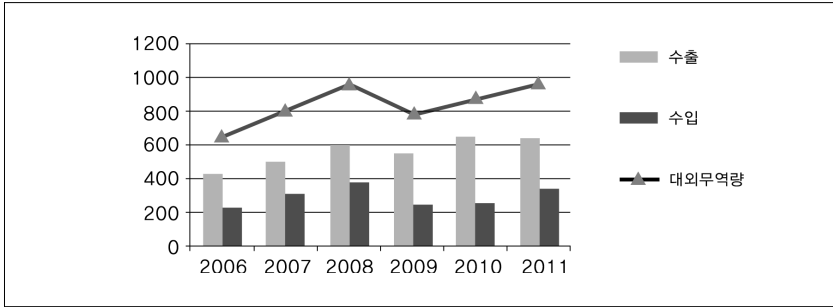
(단위: %)



대외무역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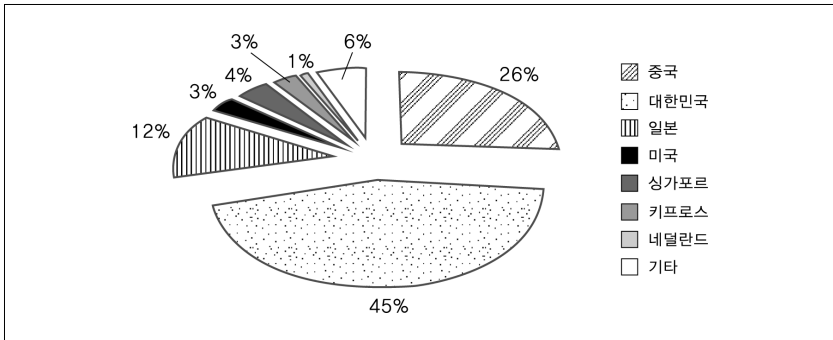
2011년도 한해 캄차카 주의 대외무역거래는 9억 5,9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6억 2,720만 달러, 수입은 3억 3,260만 달러(134.9%)를 차지했다.

부록 그림 21 대외무역거래의 변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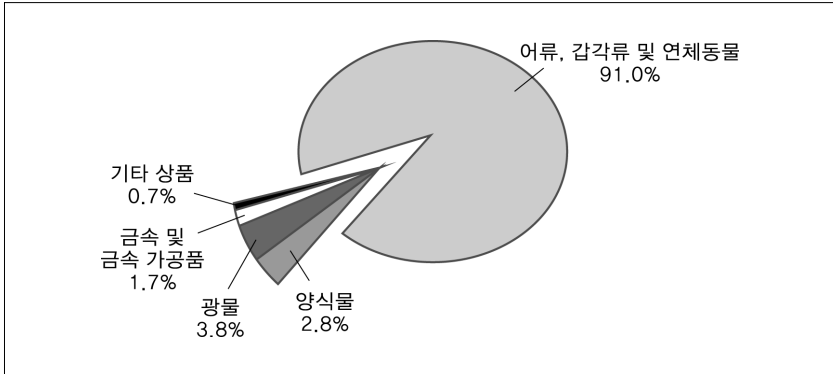
캄차카의 기업과 기관들의 대외무역거래는 총 77개국과 이루어지는데, 그 중 7개 국가는 CIS 국가들이다. 최근 몇 년간 주요 거래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부록 그림 22 2011년 캄차카 주 국가별 대외무역량



2011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은 6억 2,72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산업 구조는 수산물, 광물, 잔류 식품 폐기물 산업, 철금속, 육류가공식품, 생선 및 갑각류, 선박, 보트 및 부유물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91%의 비중을 지닌 수산물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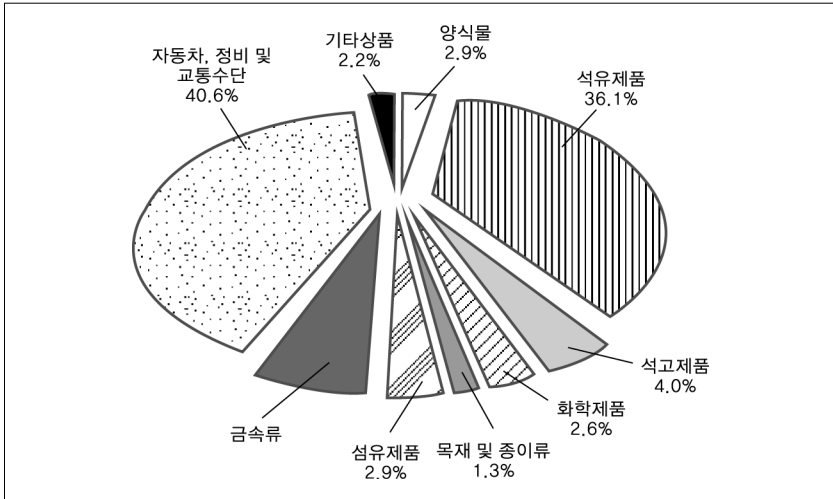
부록 그림 23 2011년 총액 대비 수출상품 구성비율



캄차카 수산물의 주요 수입국가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국인 중국, 한국, 일본이다.

2011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은 3억 3,2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상품에는 석유제품(36.1%), 선박, 보트 및 부유물 산업(21.4%), 자동차, 기계 부품(40.6%) 등이 있다

부록 그림 24 2011년 캄차카 수입품 구성 비율



교통 인프라

캄차카는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러시아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 중 하나이다. 철로가 놓여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부터의 거리가 1,700~2,500km에 달한다. 해상, 항공, 도로 운송 그리고 시작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데 이는 각 운송 수단이 독특한 교통 틈새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 운송은 캄차카 반도의 지역과 마을들 그리고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시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의 가용 자동차 도로의 길이는 1,885km이며, 연방 관할의 도로는 38km이다. 해상운송은 캄차카에서 대외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주요방식으로, 주(州) 화물 운송량의 83%를 차지한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항구는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시와 자동차 도로로 연결된 지역으로의 화물 운송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무역항에서는 매년 100만 톤의 화물이 유통되고(기술적인 가능성에서 볼 때 400만 톤을 운송할 수 있다), 어업항에서는 약 6만 톤이 유통된다. 벌크 화물의 운송량은 연간 약 75만 톤에 이른다.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항구는 블라디보스톡-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라인의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기술적인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항구이다.

오늘날 해상 운송 발전방향은 극동의 북극지역에 현대적인 운송 시스템 구축, 현대화된 항구 인프라 구축, 국제운송 교류를 위해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체크 포인트 설립을 통해 북쪽의 해로를 운송에 활용하는 것이다.

복잡한 산악 지형, 캄차카 지역간 그리고 주의 중심부와 거주지역들간의 거리 및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항공 운송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캄차카 지역의 항공운송 시스템은 연방 산하 공항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와 캄차카 주에 산재해 있는 지역 항공사들의 공항들 즉, 오제르노프스키, 오쏘르, 소볼레보, 티길, 우스트·하이류조보, 우스트·캄차스크, 니콜스꼬예, 툴리치키, 빨라나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모든 정규 노선과 전세기 운행은 주로 세 개의 지역 항공사에 의해 운영된다(두 개는 국영 항공사이며, 하나는 민영이다). 이들 회사의 항공기 기종은 YK-40, AN-26, L-410, AN-28 이다. 항공 활동 업무와 예약

노선에는 헬리콥터 MI-8T, MI-8MTV가 사용된다.

주요 공항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는 중량이 큰 1등급의 항공기를 착륙시킬 수 있으며, 국제 및 국내 정기 노선 운행이 가능한 캄차카 유일의 공항이다.

통신

발전 지표를 지배적으로 결정하는 통신 서비스는 해당 부문의 주요활동에서 총 수익의 52% 이상을 차지하는 모바일(핸드폰) 통신과, 해당 분야 기업들의 수익 구조에서 16.5%를 차지하는 전화 통신(시내, 시외, 국제 전화 네트워크)이다.

휴대폰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의 공급자로는 ‘Vypel-Communication’, ‘MTS’, ‘Megafon’, ‘Rostelecom’, ‘Tele2’ 5개 사가 있다. 해마다 개통되는 모바일 폰(핸드폰)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말 주민 수 1,000명당 사용 중인 핸드폰 수는 1,647.7개에 이른다.

지방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거기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캄차카 주 전화 네트워크의 디지털화가 83%에 달했다.

캄차카 주의 우편 서비스는 111개의 상설 우체국이 연방체신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62개는 지역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산업 잠재력

① 생명자원 복합단지

어업 부문은 캄차카 산업 구조의 주요 요소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어류 포획과 가공, 수산자원의 보호와 양식 이외에도, 어업 부문은 일련의 보조 부문, 서비스 부문, 생산 및 사회 인프라 연구소의 활동을 포괄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선박 수리, 건설, 운송, 포장재 및 어획도구의 생산을 들 수 있다.

캄차카 주에 속한 해양 수역은 극동지역 내 가장 큰 어획 지역이다. 캄

차카 주 해양 경계는 다음 5개의 어류 포획 지역을 포함한다: 자빠드노-베링고보모르스크 구역, 카라긴스크와 페트로파블롭스크-코만도르스크 하부 구역, 보스토치노-캄차트카 구역, 자빠드노-캄차카 하부 구역, 오호츠크해의 캄차트스코-쿠릴스크 구역

캄차카 주에 속해 있는 어획 구역에서는 5종류의 태평양 연어와 40여 종의 어류가 포획된다. 캄차카 주의 거의 모든 강들은 태평양 연어 및 기타 어종의 산란지로서 수산업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캄차카 주 강과 바다에서는 연간 150만 톤 이상의 해양생물 자원이 포획되고 있다. 이는 120만 톤의 어류(바다 물고기), 20~25만 톤의 무척추 태평양산 연어, 1만 5천 톤의 게, 3만 톤의 해조류를 포함한다. 수산업은 캄차카의 도시와 마을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여기에 종사하며(수산업 종사 주민 수는 평균 1만 7천 명), 주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다. 또한 해당 주와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생태적 청결을 유지하고 양질의 어류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캄차카는 극동지역 주체와 러연방 주체들 중 해양 생물자원의 획득과 수산물 가공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2011년 해양 생물자원의 포획량은 지난 20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01만 8천 톤으로 2010년에 비해 9%나 성장한 것이었다. 캄차카 주의 어류 포획량은 대략 극동 수산업의 36%, 러시아연방 수산업의 24%를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통조림 제품을 포함하여 82만 6천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었다.

오늘날 캄차카 주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400개 이상이며, 이 중 230개 회사가 수산 생물 자원의 포획에 종사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어선으로, 500개 이상의 대·중·소 선박과 약 270개의 소형쾌속정이 사용되고 있다. 캄차카 주 전체에 운송용, 보조용, 기타 용도의 선박 1,700정이 존재한다.

주(州) 지역의 산업활동을 주도하고, 대규모의 어류 포획과 가공을 위한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으로는 'Rybolovetzkyi Kolkhoz im Lenina', JSC 'Akros', JSC 'Okeanrybflot', JSC 'Koryakryba', 유한책임회사 'Polluks', JSC 'Kamchatimpeks', JSC 'Kamchatrybprom', 러시아

유한책임회사 'Luntos', JSC 'Blaf'가 있다.

190개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연중 혹은 시즌 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7개 업체가 수산물 통조림 생산을 하고 있다. 모든 공장들을 합한 일일 총 생산량은 수산물 1만 1천 톤, 통조림 80만 개, 수산물 보관용기 10만 톤에 이른다. 오늘날 어업 부문 생산량의 비중은 캄차카 산업 전체의 50% 이상이다. 가공 및 서비스를 포함한 자체 생산 출하량은 연간 300억 루블이다. 캄차카 주 기업들은 매년 통조림 제품을 포함한 식용 수산물 70만 톤 이상을 생산한다. 생산된 수산물의 일부는 극동 인접 국가들로 수출된다. 수산업은 캄차카 주 수출 비중의 86%를 차지한다.

2011년 국제 수산물 시장에 약 50개의 캄차카 수산업 기업이 진출하였다. 매년 캄차카는 약 28만 톤의 수산물을 대외 시장에 내놓는다. 운영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25만 톤의 어류와 수산물 가공제품이 지역 기업들에 의해 국외로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냉동어류, 냉동 갑각류와 연체동물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미국이 캄차카 주 기업들이 수출한 물품의 주요 소비자이다.

또한 캄차카는 국내시장에도 수산물을 공급한다. 제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칼리닌그라드 주, 무르만스크 주, 라잔스크 주, 탐보프 주, 모스크바 주, 칼루가 주, 보로네쉬 주, 로스토프 주, 사마라 주, 니즈네고로드 주, 키로프 주, 스페들롭스크 주, 첼랴빈스크 주, 케메로프 주, 노보시비리스크 주, 이르쿠츠크 주, 마가단 주, 사할린 주, 크라스노다르 주, 알타이 주, 크라스노야르 주,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에 공급되고 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시에 소재한 아바친스크 항만에는 대형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4개의 기업-유한책임회사 'KMP_Kholod' (6,500톤), 유한책임회사 'Optima-N'(6,000톤), 유한책임회사 'Galeas' (5,000톤), JSC 'Akros'(2,000톤)-이 있다.

캄차카에는 태평양 연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공부화와 양식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캄차카 주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양식이 연방 정부 기관 'Sevvostrybvo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연어, 홍연어, 시베리아 연어, 은연어 5종의 연어 양식을 하고 있으며, 말킨스크 연어생산공장, 빠라톤스크 연어 실험 및 생산 공장, 빌류이스크 연어생산공장,

연어생산공장 'Ozerki', 연어생산공장 'Ketkino', 그리고 시베리안 연어 양식을 하는 민영기업 'Faleron'이 참여하고 있다.

② 수산업 복합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연방정부의 지원은 연방목적프로그램 「2009~2014년간 어업 콤플렉스 천연 잠재력 개발과 이용 효율 개선」,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러시아연방 전반적인 어업 콤플렉스 발전을 정의하는 전략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정부의 지원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 2015년까지 캄차카 주 어업 콤플렉스 발전 전략
- 주정부 장기목적 프로그램 「2013~15년 캄차카 주 어업 콤플렉스 발전」
- 2010~2015년 캄차카 주 경쟁력 개발 프로그램
-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정부 장기목적 프로그램 「2013~2015년 캄차카 주 중소기업 육성」
- 어업 콤플렉스가 캄차카 주 우선 발전 방향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2025년까지 캄차카 주 사회·경제 발전 전략

③ 천연자원 복합단지

광물·원자재 부문 발전은 지역 내 풍부한 천연자원 잠재력 즉, 유용 광물, 유색 및 흑색 광물, 비금속 광물 매장지를 조건으로 한다. 육지의 탄화수소 매장 잠재력은 석유로 환산 시 14억 톤으로 평가되며, 이 중 추출량은 석유 1억 5천 톤, 가스 8천억 m^3 이다. 캄차카 주 연안에 인접한 대륙붕 지역에는 잠재적인 탄화수소 매장지가 존재한다. 캄차카 주의 7개 산지에는 석탄 2억 7,5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매장 예상량은 60억 톤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토탄 산지 106개가 탐사되었다.

캄차카 주에 소재한 국가등록 금광만도 63개가 있으며, 그 중 11개가 금맥이며, 52개는 사금 매장지이다. 2012년 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캄차카 주에는 206,680.9kg의 금이 남아 있다. 400개 이상의 금광지역과 광물 산지가 조사되었다. 2006년에 아긴스크 광산에서 금 채굴산업이 시

작되었으며, 같은 광산에서 2011년에 첫 번째 금 채굴이 이루어졌다. 2011년 한 해 동안 3,033.44Kg의 금이 채굴되었으며, 이후 금 채굴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캄차카 주에는 5개의 백금합금 산지가 있으며, 이 중 4개가 사금산지(이 중 2개는 상용 불가능)이며, 1개가 금맥이다(샤누츠 구리·니켈 광산). 사금 산지에는 등록된 매장량의 54.5%가 집중되어 있다.

캄차카의 대규모 중간 결정질(Crystalline Core-Area) 코발트·구리·니켈 집중 산지의 니켈과 코발트의 예상 매장량은 각각 350만 톤, 4만 4천 톤에 이른다. 샤누치와 같은 일부 산지들은 7%에 이르는 높은 니켈 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전 선광(選鑛) 작업 없이 가공을 가능케 한다. 힘-키르간스크 광맥은 구리·반암(Porphyry, 斑岩) 형태의 산지 발견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몇몇 평가에 따르면, 지리적인 경계(일본, 남부 쿠릴지역) 지역에 광물산지가 추정되는 만큼, 이 지역들에서 희귀광물 산지의 발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캄차카 지역에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건설 원자재가 확보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원자재 생산이 가능한 채굴 가능 산지는 78개에 달하고 있다.

캄차카에는 상당량의 자원과, 다양한 형태의 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캄차카 주에는 온천수로 이용 가능한 지하온천이 16개가 존재하는데, 그 용량은 카테고리 A+B+C₁가 74,933m³/일, 카테고리 C₂가 9,150m³/일이며, 증기 물 혼합물의 경우 카테고리 A+B가 16,100톤/일, 카테고리 C₁이 31,216톤/일, 카테고리 C₂가 60,640톤/일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의 경계들에서 일부 상업용을 제외하고(유용 성분 제외), 모든 종류의 지하수, 즉 온천수(천연 증기, 증기·물 혼합물 포함), 생수(식용 및 공업용), 온천 및 광천수를 산업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무뜨노브스크와 빠우젯스크 산지에는 지열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용량은 각각 62MW, 12MW이다. 지열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7개의 마을과 일련의 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이 들어서 있다. 온천수는 양식장에서 연어를 부화시키기 위한 생산과정에도 사용된다.

천연온천자원은 그 다양함과 풍부함 면에서 세계의 다른 명승지와 비교

할 만하다. 말킨스크 탄산수 산지에서는 약수 및 생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당 주에서는 치료용 진흙 산지도 개발되었다.

캄차카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3만 9,000개의 강과 개울, 11만 1,000개의 크고 작은 호수, 총면적이 약 1,000km²에 달하는 414개의 빙원이 존재한다.

산림자원은 4,420만 헥타르에 걸쳐 있으며, 캄차카 주 면적의 95.2%를 차지한다. 돌자작나무, 흰자작나무, 눈잣나무, 작은오리나무, 쿠릴스크(캄차카) 낙엽송, 가문비나무, 사시나무, 포플러나무와 같은 품종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④ 천연자원 콤플렉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연방정부 차원 지원 시스템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 지질탐사 초기 단계에서의 재정 지원
- 북방의 연료 공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전력에너지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2025년까지 캄차카 주에서 광물 및 원료 자원의 채굴과 가공에 대한 개발 전략」
- 주정부 장기목적프로그램 「2013~2017년 캄차카 주 광물 및 원료 자원 개발 및 이용」

⑤ 연료·에너지 복합단지

캄차카 지하에는 천연가스, 석탄, 갈탄, 광천수, 온천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

연구 평가 결과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비축량은 하나의 중간 크기 산지와 오호츠크크·서부·캄차카 석유가스 지역 콜빠꼬프 석유가스 지역의 세 개의 소규모 산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총 예상 매장 규모는 226억m³에 이른다. 전 러시아 석유, 가스, 지질탐사 학술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륙붕 지역을 제외한 캄차카의 천연가스와 액화 탄화수소 자원은 각각

7,190억m³톤과 924m³톤에 이른다.

캄차카 주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전력에너지 요구량을 전적으로 만족시킨다. 현재 전력 및 난방의 주요 생산자는 'Kamchatskenergo'(자회사 '캄차카 남부 에너지 네트워크(Yuznyie Electriccheskie Seti Kamchatki)'이며, 자회사 '까무날나야 에네르게찌까(Kommunalaya Energetika)'와 지점들, 캄차카 주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Geoterm', 'CamGEK', '캄차카 전력 네트워크(Kamchatckie Electriccheskie Seti)', 국영기업 'Kamchatskburgeotermiya', 'Koryakenergo'가 있다.

지역 에너지 개발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지역의 연료와 재생 에너지원 이용 비중을 늘리고, 전력 및 난방에너지 생산 비용을 줄이며, 2020년까지 러시아 평균 수준까지 지역의 요금 수준을 낮추고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2010년 12월 1일 톨마체보 강에 수력발전소-2가 가동되었다.

캄차카 주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경질 액상탄화수소(Gas Condensate) 산지인 소볼렙스크 지역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시에 이르는 가스관 건설이 2010년 9월에 완료되었다(길이 392km, 직경 530mm, 연간 공급량 7억 5천만m³). 캄차카 난방에너지발전소-2는 중유를 가스로 대체하였다.

에너지에 대한 사회·경제 지원 방안은 다음을 포함한다.

- 러시아연방 요금정책국에서 연료·에너지 콤플렉스 기업들을 위해 잔유(殘油) 및 석탄 운송에 특별 철도 운송요금 책정
- 캄차카 주 에너지 대상물의 가스 공급 및 현대화
- 러연방 요금정책국이 캄차카 소비자들에게 천연가스 비용에 대한 혜택 부여
- 주정부 예산으로 전력 및 난방 에너지, 공공 요금, 천연가스 이용 요금에 보조금 지급
- 캄차카 주 소비자들에게 특정 품목에 대한 요금 혜택 부여(주정부 예산을 사용한 보조금 지급)
- 특정 국영기업('가스프롬', 'RosAtom', 'ES Bostoka')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보조금 지급

⑥ 관광·레크리에이션 잠재력

캄차카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보고 지역이다.

캄차카는 화산 지대로 29개의 활화산과 약 300여개의 사화산과 휴화산, 2,500여개 이상의 분석구(Cone)가 있다. 유라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산들이 있는 동부 화산 구릉지대는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꼽을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지점은 클류체프 화산 정상으로 해발 4,750m다.

캄차트가의 6개 자연 지대는 ‘캄차카의 화산들’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캄차카 주 영토의 약 14.5% 이상이 특별 보호를 받고 있다. 캄차카 주에는 3개의 국립공원(크로노츠 국립 생물보호지역, 코만도르 국립 자연생물보호지역, 코랴크 국립생물보호지역, 1개의 연방 산하 보호림 ‘유즈노 캄차트스키’)을 포함하여 6개 연방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 2개의 요양-리조트 지역(리조트 ‘Paratunka’, ‘Malkinskie Mineralnie vody’), 4개의 지방 산하 자연공원(‘Nalychevo’ ‘Bystrinsky’ ‘UzhnoKamchatsky’ ‘Kluchevskoy’), 22개의 지방 보호림, 116개의 지방 및 지역 보호구역(natural sanctuary), 4개의 특별 지역 자연보호구역(자연공원 ‘블루 호수(Golubie Ozera)’, 동부 툰드라 및 소볼렙스키 보호림 포함)이 있다.

온천 및 광천수 지역, 화산, 빙하, 유명한 간헐천 계곡(Dolina gaizerov), 다양한 식물 및 동물군, 독특한 북방 소수 민족들의 문화는 환경 및 민속 관광, 학문관광 개발, 낚시 및 사냥, 스키, 등산, 해양 관광 및 크루즈 여행을 위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캄차카 관광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풍부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상설 휴가 프로그램에서 사냥, 낚시 프로그램, 승마, 조류 여행, 아마차 만을 따라 운행하는 크루즈, 다이빙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독점 관광에까지 매우 다양하다. 관광 루트는 선호도를 고려하여 준비된다. 캄차카 관광 목록에는 트레킹과 도보 관광을 위한 화산지대 및 산정 등반, 계곡 및 평평한 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플로팅(Floating)과 레프팅, 스포츠와 취미를 동반한 낚시, 익스트림 스키 관광, 헬리콥터를 이용한 화산지대에서의 하강(heli-ski)과 스키 투어, 다이빙, 그리고 자연,

식물군, 동물군 관찰 및 조류 및 동물 투어와 같은 에코투어, 포토 사파리, 코만도르와 쿠릴 섬에서의 유람 및 해양 탐험, 활화산 주변 비행 등이 포함된다.

캄차카는 낚시꾼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무지개 송어, 다양한 종류의 태평양 연어(일부는 15~40kg에 달함)가 물고기 모형낚시와 플라잉 낚시로 잡힌다. 사냥꾼들에게 최고의 사냥감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큰 갈색 곰이다. 이에 못지 않은 다른 사냥감들로는 큰 뿔양, 고라니, 살췍이, 나무 뇌조, 거위와 자고가 있다.

캄차카 주에는 전세계에 알려진 모든 종류의 광천 약수와 생수가 있다. 최근 캄차카 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돌리나 가이제로프(Dolina Gaizerov, 간헐천 계곡), 날리체프 자연공원, 쿠릴 호수, 그리고 호두킨스크, 톨로크, 말킨스크 온천, 주파노프 강 및 오팔라 강, 사냥지 및 스포츠 낚시터 등에는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캠핑장, 쉼터, 주차시설, 사냥 캠프 및 로지(lodge) 있다.

국제 및 국내 관광 시장의 현대적인 개발 흐름을 고려할 때, 캄차카 지방이 상당한 경쟁 우위(관광 매력 인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주요한 인자들로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다.

- 아태 지역과의 인접성(떠오르는 시장들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 유리한 생태환경 조건
-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 보유
- 다양한 관광-레크리에이션 자원 보유
- 양질의 인적 자원(주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캄차카는 오랜기간 동안 꾸준히 외국 관광객들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 휴양, 레크리에이션, 레저를 목적으로 1만 2,000명의 사람들이 캄차카 주를 방문하였다. 일본 시장의 잠재력만 하더라도 3백만 명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총시장 잠재력은 1,5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활동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들의 수요 증가는 캄차카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수요 구조의 변화는 캄차카 주의 관광 전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레크리에이션과 휴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 수 증가는 캄차카를 커다란 관광-레크리에이션 잠재력을 지

닌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증가를 의미한다.

⑦ 캄차카 주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연방 차원에서 관광발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은 다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목적프로그램 「러시아 연방 국내 관광 개발(2011~18년)」
- 연방목적프로그램의 인프라기반시설은 관광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시설물들이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전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방목적프로그램은 「러연방 운송시스템 발전(2010~15년)」,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이다. 지방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광사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 주정부 장기 개발 프로그램 「2013~15년 캄차카 주 중소기업 개발」(캄차카 주에서 관광사업분야 업무 및 관광 인프라 기반 시설 창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급)
- 캄차카 주 정부에 의한 관광-레크리에이션 클러스터 ‘Paratunka’ 설립. 해당 클러스터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관광 분야(단체 숙박 시설, 음식 및 관련 서비스) 투자의 개별 주체들을 위한 일련의 기능·조직·재정적 상호협력 프로젝트와 필수적인 인프라의 확보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⑧ 농공 복합단지

해당 주에는 25개의 다양한 민영 농기업, 78개의 식품가공산업, 417개의 농장, 6,600개의 개인농장이 있다. 캄차카 주의 농작물 재배는 농업생산의 핵심이며,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의 일부는 가축용 사료로 사용된다. 2011년 전체 농업 생산물 중 농작물 생산은 55.2%에 달했다.

캄차카 주의 축산업에는 유용종(乳用種), 양돈, 양계업,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는 소수 원주민들의 전통 분야인 순록 방목업이 있다. 축산 생산물은 농업 총생산물의 44.8%를 이룬다. 2011년 22,900헥타르의 농지는

목초지가 19,100헥타르, 감자 작물 2,900헥타르, 야채 700헥타르, 곡물 200헥타르로 구분된다. 농업 총생산량은 2011년 56억 20만 루블에 이르며, 그중에서 농산품은 30억 928만 루블, 축산물이 25억 740만 루블에 해당한다.

캄차카 주의 농업생산 발전 및 식품 확보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 투자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다.

- 소코치 마을에 연 1만 2천 마리가 수용되는 현대적인 양돈시설 건설
- 600마리의 젖소를 기를 수 있는 현대적 기술을 보유한 가축사육 단지 건설

2013년 국영 단일 농업기업 ‘Pionerskoe’는 ‘캄차카 육계(broiler) 생산 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거주민들에 의한 고품질의 냉장 가공육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⑨ 캄차카 주 농공업 단지에 대한 국가 지원

연방의 지원정책

- 러시아 연방 요금정책국에서 캄차카 주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천연가스 할인 혜택 적용
- 농업 발전을 위한 은행 대출 95%에 대한 연방 예산 보조
- 러시아 생산업체가 식품 및 식품 가공 산업 분야 기술 획득에 사용한 비용을 50%까지 보조, 또한 농업 기업이 기술 획득에 사용한 비용을 50%까지 보조

주(州) 예산 비용 지원

- 농업 발전을 위한 은행 대출 5%에 대한 지방 예산 보조. 이는 모든 민간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 전력 및 난방에너지, 공공서비스, 천연가스 요금에 대한 지방 예산 차원의 보조
- 주정부 장기 목적 프로그램 「2013~2017년 캄차카 주 농업 발전 및

농산품, 원료 및 식료품 시장 조정」

- 주정부 장기 목적 프로그램 「2012~2014년 캄차카 주 식품 가공 산업 발전」
- 주정부 장기 목적 프로그램 「2013~2015년 캄차카 주 중소기업 개발」
- 프로젝트 제안 후, 30만 루블까지 수령을 요청할 수 있는 소기업 발전 펀드를 통한 소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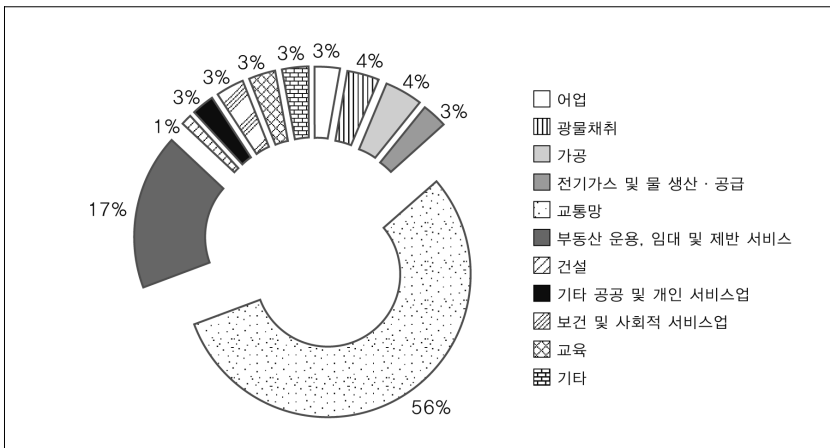
투자정책

캄차카 주 정부는 지역의 투자 유치를 향상시키고, 기업 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캄차카 주에서는 유리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캄차카 주 입법부는 공공 영역에 대한 개별 기관이 소유한 자산과, 사회 보장 및 발전, 천연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예산 기관들, 또한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와 관련된 선박 수리, 혹은 5억 루블 이상의 금액으로 축산업 및 농작물을 재배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낮아진 이율은 주로(총수익의 70% 이상) 어류 및 해산물 가공, 농산품 가공 및 보관을 하는 기관들을 위한 주거설비에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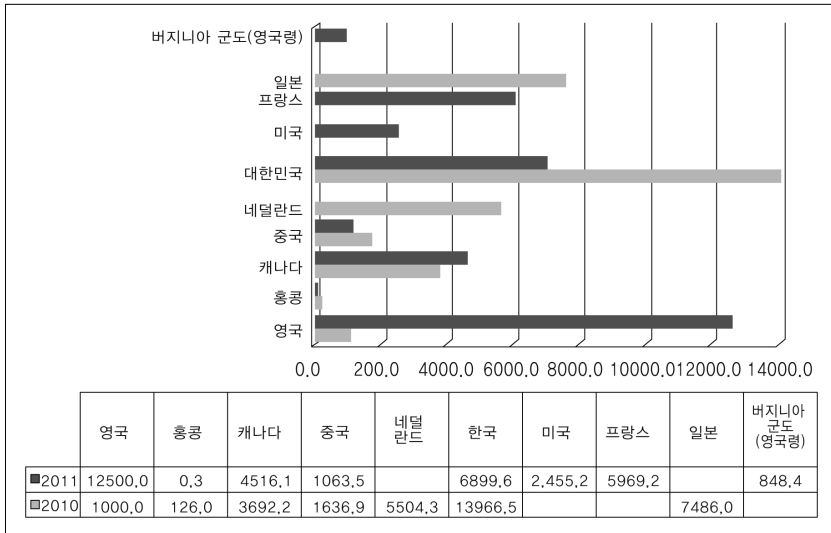
부록 그림 25 2011년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자본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계 혜택은 국가 실업교육 시스템 운영기관의 졸업생들과 졸업 후 첫 2년 동안 중등 전문 및 고등 교육기관 졸업생들을 고용한 기관들, 특별 단체, 문화기관, 입주자협회, 장기 투자 대출을 하는 법인 및 개인, 특히 이러한 대출을 통해 수익을 이룬 법인과 개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

부록 그림 26 캄차카 주에 대한 국가별 투자

(단위: 1,000USD)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단순 과세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세율을 15%에서 10%까지 낮췄다.

차량 과세는 아래 나타난 러시아 연방 세금 규정 비율을 따르는데, 그 중에서도 기업에 의해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한 세율은 34%, 화물차는 48%, 기타 압축공기와 무한궤도식 차량과 기계장치를 갖는 것은 32%를 초과하지 않는다.

캄차카 주 투자 활동 개선과 투자 업무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 목적으로 2008년 9월 22일부로 캄차카 주 법령 No.129 「캄차카 주 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발효되었다. 해당 법령은 캄차카 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및 비재정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은 손익분기점이 7년 이하인 주요 국가자원 투자 프

로젝트들에 주어진다. 2025년까지 캄차카 주 사회·경제 발전 전략의 주요 방향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통합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예산, 경제, 사회적 전 측면의 효율성), 이 지역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의료보험 프로젝트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지원정책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

- 러연방 캄차카 법률에 따라 주(州) 예산에 등록된 부문에서 투자가들에게 세제 혜택 지원
- 러연방 캄차카 법률에 따라,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캄차카 주 정부가 투자가들에게 자금 상황을 보장
- 러연방 투자 펀드의 자본으로 재정공동지원(co-financing)을 요청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경쟁에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캄차카 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러연방 예산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러시아 신용 기관들에서 유치한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의 상황에 주 정부의 예산으로 보조금 제공

비재정 지원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 양허계약(concessionary agreement) 체결
- 투자 프로젝트 구현에 투자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정부기관, 신용 기관, 기업연합들에게 청원과 간청을 하는 것
- 캄차카 주정부 관련 실행 기관들의 대표자들 중에서 예산외 재정지원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협력에 대해(투자 활동 조정자) 캄차카가 주 투자 및 기업부의 제안에 대한 관리자 지칭
- 투자 활동 및 투자 프로젝트 시장 질문에 관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 캄차카 주 경제 투자 유치를 위한 러시아 국내 및 국제 전시회, 포럼, 프레젠테이션, 국제회의 참석
- 캄차카 경제 투자 유치를 위한 러시아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촉진
-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특히 투자 프로젝트, 투자 아이디어, 투자 플랫폼에 관련된 정보 기반 구축
- 방법론적 조직적 지원

이미 5년 전부터 캄차카 주에는 투자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 캄차카 주 투자정책 구현을 위한 방향 정립 및 정책 목적 형성
- 캄차카 주 투자정책 구현을 위해 캄차카 주 정부기관, 캄차카 주 정부 러연방 기관들의 지역 기관, 캄차카 주 지자체의 지방 정부 기관, 투자 활동 주체 기업과 조직들의 업무 활동 조정
- 투자 인프라 기반 시설 개발 협력
- 캄차카 주 투자 활동 분야의 열린 정보공간 형성
- 캄차카 주 경쟁력 우위 강화 보조
- 공공·민영 협력 메커니즘 개발 촉진
- 캄차카 주 투자 유치 향상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 캄차카 주 투자 프로젝트 구현 시 행정 및 기타 장벽 극복 지원
- 캄차카 주 경제 및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시 우선 순위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검토

투자위원회의 틀 내에서 생물 자원, 광물 자원, 관광 시설, 건축, 대소 규모 에너지, 농업단지,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분야별 그룹과 비즈니스 발전에 대한 유리한 여건 마련, 행정 장벽 제거, 투자 활동 정부 지원과 관련된 개별 노동자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잠재 투자자들과 함께 업무 편성을 위해 캄차카 주 국가 자치 기구 ‘캄차카 전시 센터’를 기반으로 2012년 1월에 투자 유치 센터가 설립되었다. 극동에서 민간 프로젝트와 투자 전권대표와의 상호관계, 특히 투자자들과 캄차카 주 행정부와와의 상호 관계, 그리고 투자자들과 캄차카 주 지자체 기관들과의 상호 관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정되었다.

투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 분야에서 캄차카 주 행정부의 중요한 업무는 공공-민영 파트너십의 발전이다. 2012년 10월 9일 캄차카 주 국영-민영 협력에 관한 캄차카 주 법령 No.133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국영-민간 파트너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

- 양허 계약(concession agreement)
- 자본 투자의 형태로 투자 활동을 계획하는 형태
- 예산 대출, 보조금 및 정부 보증 제공

- 정부의 특혜 제공
- 공공-민영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
- 연방 법률과 캄차카 주 법률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

2013년 공공-민간 파트너십 원칙 속에서 캄차카 주 정부에 의해 이행되는 캄차카 주 투자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캄차카 주 투자 펀드 설립이 계획되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의 문서화, 운송·에너지·기술·인프라의 건설 및 보수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 자금 프로젝트 문서의 개발

2013년 1월 29일 캄차카 주 법령 No.26-RP에 의해 주식회사(JSC) ‘캄차카 주 개발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비영리 자치단체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전략 주도 에이전트’ 설립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캄차카 주정부와 비즈니스 협력체는 캄차카 주에 ‘지역 내 유리한 투자환경 마련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부 기관들의 활동 표준’과 비영리 자치단체 ‘전략 주도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위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상기의 표준 도입을 위해 2020년까지 캄차카 주의 투자 선언문과 투자전략 프로젝트들이 고안되었다.

러시아 및 국제시장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캄차카 주 투자대상 목록이 작성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자 목록은 총투자액이 970억 루블 이상으로 평가되는 159개의 투자대상을 포함한다. 해당 목록 자료는 캄차카 주 공식 사이트 ‘투자’ 부문과 ‘캄차카 주 투자 포털’(invest.kamchatka.gov.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아무르 주

아무르 주정부 투자정책 「2025년 목표 아무르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전략목표는 투자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호적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당국과 비즈니스 간 투자대상 및 그 우선순위의 합의를 통한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및 새로운 생산 동력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매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투자유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아무르 주정부의 투자정책 과제:

- 연방기관, 국영기업, 발전기구와 상호협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 사업, 연방급 단위과제별, 부문별 투자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
- 투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투자자 지원
 - 투자 인프라 발전
 - 투자 가능한 인프라 조성
 - 투자 발의 및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특히 우선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 이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투자사업 실행 시 대출비용 감소
 - 국가 보증, 세제 혜택, 일부 비용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
- 효과적인 새 투자 메커니즘 도입: 민관협력, BOT방식, 연방 또는 지역 수준의 경제지대

상기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투자 규모는 2011년 1,230억 루블 수준에서 2017년까지 2,190억 루블까지 증대되고, 외국인투자 규모는 2011년 4억 8,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까지 7억 8,100만 달러로 증대되며, 공적자금 비율은 2011년 8% 수준에서 2017년까지 37.6%(연방 예산 35% 포함) 수준으로 증대되고, 은행대출 비율은 2011년 0.8% 수준에서 2017년까지 9%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르 주의 투자환경

아무르 주는 자연환경과 기후, 지리 조건, 그리고 기타 여러 요소에 의해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다.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인접하여 긴밀한 경제관계 및 생산적 협력이 가능하다. 지역의 광물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할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적합한 비옥한 토질도 갖추고 있다. 아무르 주는 제야(Zeya) 수력발전소, 부레야(Bureya) 수력발전소 및 여러 개의 열병합 발전소 등 기존 전력기지

덕분에 충분한 전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평가 기관인 Expert-RA의 2010~11년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무르 주는 투자순위로 3B2(inconsiderable potential-moderate risk)를 받은 바 있다.

투자위험도 종합 순위에서는 1년만에 65위에서 12단계를 건너뛰어 53위로 향상되었다. 또한 몇몇 부분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난 해 동안 아무르 주의 투자 리스크 6개 요소 중 3개 지수가 개선되었다. 또한 범죄 경중에 따른 범죄 수준과 테러활동 등의 위험성이 반영된 지역의 범죄위험도 측면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도의 감소는 해당 부문에서 아무르 주의 순위가 1년만에 15단계나 상승해 41위에서 26위가 되는 데 기여했다. 경영 위험도 면에서는 38단계 상승해 75위에서 37위가 되어 투자운용 체계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으로의 투자유입도 면에서는(5년간 지역총생산(GRP)으로의 투자량) 아무르 주가 8위를 차지했다.

아무르 주의 투자 잠재력은 67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문은 천연자원 잠재력으로 29위를 차지했다. 아무르 주는 노동력, 사회간접자본, 혁신 부문에서도 상향 조정되었다. 금융과 관광 부문은 변함없이 201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르 주는 1인당 최대 투자지수 측면에서 러시아연방 전체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르 주는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의 개선, 국가지원의 외형적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 실시 등의 종합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아무르 주에서 취해진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 2009년과 2010년 동안 신용평가 기관들과 연방의 각 부처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2009년 아무르 주는 지역경제 투자유치 평가에서 세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신용평가 기관 Expert-RA로부터 ‘연방 관구 최소 투자리스크 상’, 지역경제발전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로부터 ‘위기조건 하 지역경제 투자매력 유지상’, ‘투자엔젤상’). 2010년에는 지역경제발전부로부터 ‘지역경제 투자매력 유지’ 부문 3급 상을 수여 받았다.

아무르 주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및 아무르 주의 투

자매력도 향상을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2013년 목표 투자하기 좋은 아무르 주 지역환경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주정부의 입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러시아인과 합작기업들은 물론 외국인 회사의 직접투자가 성공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외국의 대형 투자자들의 아무르 주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아무르 주의 법적 기반:

- ① 아무르 주 법 제374-03호 「아무르 주에서의 투자 활동」(2007. 9. 5)
- ② 아무르 주 법 제379-03호 「아무르 주에서의 민관협력」(2010. 9. 6)
- ③ 아무르 주 법 제67-03호 「아무르 주 국가보증 제공 절차」(2008. 6. 30)
- ④ 아무르 주 법 제365-03호 「아무르 주에서의 혁신 활동」(2007. 8. 31)
- ⑤ 아무르 주 법 제201-03호 「지방세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방식 제 공을 위한 근거 보완 및 기타 조건의 제정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제 도 시행을 위한 기타 근거와 조건」(2009. 5. 13)
- ⑥ 아무르 주 법 제389-03호 「지방예산 편입 예정 단체 부과 이윤세의 인하율」(2010. 10. 4)
- ⑦ 아무르 주 법 제266-03호 「아무르 주 지역 단체보유 재산세」(2003. 11. 28)
- ⑧ 아무르 주 법 제368-03호 「아무르 주 예산절차」(2007. 8 .31)
- ⑨ 아무르 주 법 제259-03호 「아무르 주에서의 도시건설활동 규제」(2006. 12 .5)
- ⑩ 아무르 주 법 제66-03호 「아무르 주 지역 내 경제특혜 지대」(2012. 6. 27)

아무르 주 지역 내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 형태

① 세제 혜택:

- 투자사업 수행기업에 대한 단체 부과 이윤세 4%로 인하
- 투자사업 수행기업에 대한 단체 보유 재산세 면제
- 지방세 연기 및 분할 납부
- 아무르 주 지역 내 우선순위 편성 투자사업 수행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② 국가 보증:

- 아무르 주 사업체가 주요 생산활동 수행 목적으로 유치하는 대출금에 대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제품(작업, 용역) 생산량 증대 조건으로 보증
- 투자사업실행 목적 대출금 보증
- 연방 및 주 예산이 투입된 특수목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대출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

③ 주 예산에 의한 보조금 지원:

- 대출이자 일부 보조금 지원
- 전기사용료 실비 일부 보조금 지원
- 공업제품 생산비 일부 보조금 지원
- 아무르 주 외 지역에서의 제품 판매비 일부 보조금 지원 및 기타 보조금

④ 법인 정관(준비) 자본에 지분 참여

⑤ 주 소유 부지, 건물, 시설물의 특혜조건 임대

아무르 주 성공 프로젝트 사례

2011년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1,232억 루블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매력있는 부문은 운송·통신으로 52.5%를, 유용광물 채취가 16.2%, 전력·가스·물 생산 및 공급이 12%를 차지했다.

2011년 아무르 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은 4억 8,300만 달러에 이른다. 싸이프러스(68.7%), 캐나다(14.4%), 영국(12%), 중국(4.2%), 케이맨 제도(0.6%), 홍콩(0.1%) 등 6개국이 2011년 아무르 주에 투자했다.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이 된 부문은 유용광물 채취로 38.7%를 차지했으며, 부동산 거래가 39.9%, 건설이 16.9%를 차지했다.

지역 내 외국인투자금 축적액이 가장 큰 사업체로는 ‘말로미르 광산(Malomyr mining, OJSC)’(싸이프러스 투자), ‘베레지토브 광산(Berezitovy rudnik, LLC)’(캐나다), ‘알빈 광산(Albysky rudnik, LLC)’(싸이프러스), ‘알록민스크 광산(Olyokminsky rudnik, LLC)’(싸이프러스), ‘가린스

크 광산 콤비나트(Garinsky Mining & Metallurgical Complex, LLC)'(싸이프러스), '포크로프스크 광산(Pokrovsky Rudnik, OJSC)'(영국), '루도 페르스펙티바(Rudoperspektiva, LLC)'(싸이프러스), '코볼도 금광회사(Gold mine company 'Koboldo', OJSC)'(영국), '올가(Olga, LLC)'(싸이프러스) 등을 들 수 있다.

2008~11년 기간 중 운송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1차 동시베리아-태평양 구간 송유관
-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석유펌프 스테이션(oil pump station)
- 스코보로디노 스테이션 내 석유충전소 철도 연결
- 스코보로디노-중국국경 간 수출용 송유관(스코보로디노-다칭(大慶) 및 좌린다(스코보로디노)-모허(漠河))
- 울락-엘가 구간 철도
- 아무르 자동차 도로와 그 진입로(우루샤, 울루치이, 우슈문, 막다가치, 스바보드니 시(市)) 및 인터체인지(예카테리노슬라브카)
- 블라고베첸스크 공항(시간당 수용 가능여객: 300명)
- 툰다-마레브이 구간 자동차 도로 18km 지점 '길류이 강' 교량

2008~11년 동안 유용광물 채취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쿠라나흐스크 티탄철광의 알록민스크 광산 콤비나트
- 피오네르 광맥의 금 추출 공장
- 말로미르 광맥의 금 추출 공장
- 알빈 광맥의 금 추출 공장

2008~11년 동안 에너지 부문에서 이루어진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부레야 수력발전소 건설
- 니쭈네-부레야 수력발전소 건설
- 제야 수력발전소-아무르국경 간 1차 500KV 고압선로
- 자비틴스크 시 10.04KV 고압선로 재부설
- 세제바야 변전소(110KV) 재건축

- 코블도 변전소(110KV) 재건축
- 스토이바 변전소(110KV) 재건축

7) 유대인 자치구

유대인 자치구의 투자여건

유대인 자치구의 면적은 3만 6천km²이고, 17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연방관구 지역 중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지역 총생산량이 5% 이상을 유지하였고 공업과 농업,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높은 투자활성도를 보이고 있어 지난 5년간 기간시설 투자가 2.7배 증가하였다.

유대인 자치구의 투자매력 요인으로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 발달된 교통 인프라, 풍부한 천연자원은 물론 아태지역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유대인 자치구는 태평양 연안과 역내 주요 경제협력 대상에 접근해 있고, 아무르 강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보유하고 있다. 아무르 강은 유대인 자치구 남부지역을 블라고베첸스크와 하바롭스크 등 극동 남부의 인접 도시들과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송화강(松花江)과 그 지류를 통해 중국 헤이룽장성의 여러 도시들(자무쓰, 하얼빈 등)과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이다. 유대인 자치구는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고 있어 서유럽과 중동에서 아태지역 국가로 이어지는 최단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대인 자치구는 극동연방관구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했다. 지역 간, 국가 간 운송로가 유대인 자치구를 지나고 있으며, 유대인 자치구의 통과지점들, 그중에서도 특히 니쑤네레닌스크를 통과하는 화물과 여객운송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동차 도로의 밀집도면에서 유대인 자치구는 극동지역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치타-하바롭스크 구간을 잇는 연방급 자동차 도로 ‘아무르’가 유대인 자치구 교통 골격의 중요 요소이다. 자치구 남부 지역

에는 수로에 의한 운송이 발달되어 있다.

기후조건상 유대인 자치구는 극동지역 중 산림, 식물 재배 및 각종 농작물 재배의 발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속한다.

유대인 자치구의 식물군은 수백 가지인데, 그중 양봉용 식물이 200여 가지, 약초가 300여 가지에 이른다. 침엽수림 지대는 과일, 버섯, 견과류가 풍성하다. 야생채집을 통해 재료를 수확·가공하여 영양보충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물군도 다양해 59종의 야생 포유류가 있다.

유용광물의 매장량과 함유량, 집중도 면에서 유대인 자치구는 러시아 영토 중 가장 풍부한 지역에 속한다. 유대인 자치구에는 석탄, 철, 망간, 주석, 금, 흑연, 활석, 수화석 등(20종 이상)의 거대 매장지가 있다.

유대인 자치구에는 상당한 양의 현무암이 매장되어 있고 채취가 용이하여 현무암섬유를 기반으로 한 고효율 건축자재 및 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다. 벽돌용 점토, 팽창성 점토, 모래잡석 혼합토, 건축 외장석, 시멘트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위한 원료가 매장되어 있어 자치구의 건설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자치구의 생산 잠재력은 건축자재, 니트웨어, 전자제품, 가구, 목재 가공품 등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치구의 발전은 기존의 생산 기반을 발전시키는 물론 신규 기업들의 설립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중기적인 측면에서 유대인 자치구의 최대 발전 가능성은 광산클러스터, 농업단지 및 교통 인프라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유대인 자치구 지역 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주요 투자 프로젝트

유대인 자치구 지역에는 김칸과 수타르 철광석매장지 개발(가공단지 건설 포함) 및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니쭈네레닌스크, 통장(通江) 지역의 아무르 강을 지나는 철도와 교량을 통해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까지 단지의 연중 생산능력을 1차 원료는 1,725만 톤까지, 2차 농축 원료는 83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철광석 가공단지의 제품 후속 가공공정을 위해 2015년부터 ‘극동 철광석

콤비나트' 건설을 착수할 예정이고, 이 콤비나트는 일본회사가 개발한 최신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러시아 제1의 단지가 될 것이다. 철광석 콤비나트는 농축원료를 기반으로 250만 톤의 직접환원철(directreduced iron)을 생산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도유망한 사업으로는 소유즈 흑연 매장지와 '남(南) 횡간 망간석 매장지의 개발 및 채굴(농축공장 건설 포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기존 자동차 도로망의 현대화는 현재 자치구 지역 내에 위치한 통행지점들의 국제적 운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 중심부로부터 니쭈네레닌스크, 아무르제트, 파식코보 등의 통행지점까지의 도로 재건이 2018년까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 내 각 거주지역 간 자동차도로의 아스콘 포장 공사도 계획되어 있다.

비로비찬-레닌스크 구간 철도 재건축과 함께 거주지점인 니쭈네레닌스크와 중국 통장(通江)을 이어주는 아무르 강을 가로지르는 철도교량의 건설이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교량 건설은 새로운 국제 운송루트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2천만 톤 이상의 대외무역 화물운송이 가능할 것이다. 상기 프로젝트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실행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최우선시되고 있는 부문은 농업이다. 농업은 자치구의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주로 발전되고 있다.

목축용 자연초지, 자연방목장 및 건초지가 있어 목축업 발전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자치구 내에 대규모 목축단지나 소규모 낙농 육우농장 조성이 가능하다.

자치구에서는 콩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다. 연중 콩 수확량은 7만~10만 톤에 이른다. 현재의 수확량은 향후 콩으로 된 고품질의 제품을 현대적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콩 가공단지는 노동력과 단지 구성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및 진입로가 갖춰져 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의 접근이 용이한 비로비찬 시의 산업지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0만 톤 이상의 콩이 가

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한 주요 제품으로는 프로테인 고함량 콩 농축단백질, 레시틴, 당분 고함량 당밀, 콩기름 등이 있다.

임업부문은 목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대인 자치구 중 니주네레닌스크 및 파시코보 부락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자원 공동 채취 및 이용을 위한 러·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목재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완제품으로는 바닥재용 쪽마루와 합판, 가구, 그 외 다른 제품들이 있다.

주요 판매 시장으로는 러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과 극동지역의 국가 들도 포함된다.

유대인 자치구에서는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층주택의 수요가 가장 높은 편이다. 주택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알렉산 드로프 파크’라는 프로젝트가 자치구의 스미도비치 구역 내 프리아무르스 키 도시형 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 프로젝트를 통해 700여 개 부지에 개인 건축이 이루어지고 전체 부지에 공공 인프라와 시설이 모두 갖추어 질 것이다.

당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공공 인프라망 확보 에 20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이코노미급 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들도 구입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내놓아 중산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유대인 자치구의 투자정책

유대인 자치구의 투자정책은 러시아와 외국의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자치구가 경제·사회적으로 발전되기 위한 방향을 취 하고 있다.

자치구에서의 투자활동을 규제하는 법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유대인 자치구의 투자활동을 다루는 법으로는 자치구 법 제880-03호 「유대인 자치구에서 자본투입 형태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지원」(2010. 12. 22)이 있다. 상기 법은 자치구 내 투자활동의 우선 방향과

국가지원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다.

- ① 자치구에 의한 국가보증 제공
- ② 지방세 혜택 제공
- ③ 단체 부과 이윤세율을 자치구 법 기준에 따라 인하
- ④ 투자사업 수행 목적의 은행대출 및 임차이자 일부의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자치구 예산 투입)

자치 정부 시행령 제35-PP호 「유대인 자치구 내 투자활동에 대한 국가 지원」(2010. 2. 9)에 의해 유대인 자치정부 지원을 위한 투자사업 경쟁방식 선정절차, 사업선정 기준 및 국가지원 제공 방법이 정해졌을뿐만 아니라 자치구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사업 수행 목적의 은행대출 및 임차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가 정해졌다.

투자사업 수행을 위한 자치구의 국가보증은 자치구 법 제366-03 「유대인 자치구 국가보증 제공 절차」(2008. 4. 23)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유대인 자치 정부는 지역 내 민관협력 체계를 발전시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유대인 자치구 법 제47-03호 「유대인 자치구 및 그 하위 자치체의 민관협력 사업 참여」(2012. 3. 28)가 채택되었고, 당해 법을 실행하기 위한 자치정부 시행령 제537-PP호(2012. 10. 16)에 의해 민관협력 사업 실행을 위한 결의 절차 및 민관협력 사업협약 체결권 취득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가 정해졌다.

유대인 자치구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유대인 자치구 공식 국가 포털 사이트(www.eao.ru)에서 제공되고 있다.

8) 추코트카 자치구

자세한 사항은 추코트카 자치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chukotka.org/>)에 게재되어 있다.

3.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1) 연해주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계획	실제-건축서류
	개발 사업							
1	주식회사 'Nash Dom-연해주' 종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연해주' 건설	종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연해주에 외국인 관광과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55 500,0	2012	2022	6.4	완료	연구 중
2	주식회사 '알렉산드르 하우스' 신도시 '발쇼이 블라디보스톡' 건설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극동지역으로의 러시아 인구 유인	920 000,0	2012	2020	심사 중		
3	유한회사 '달타-바스톡' 신설 지역 솔네치나야 건설	주택건설 개발협력	22 900,0	2011	2018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4	주식회사 '테크노홀딩 수모토리' 스포츠 복합단지 '연해주의 고리'	자동차, 오토바이와 관련한 다양한 스포츠행사 진행, 관광센터와 구동의 스포츠 수도로서 연해주 개발을 위한 행사 개최	7 300,0	2011	2016		완료	완료

빈 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계획	실제-건설서류
5	리시아 경제개발부, 연해주정부, 블라디보스톡 시정부, 주식회사 '경제특구청' 특별경제구역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인프라 조성	'리시아' 섬의 휴양 및 관광 잠재력 개발, 연해주지역의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인프라 조성 및 2012 APEC 정상회담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예산지출, 블라디보스톡의 일자리 창출 확보	36 000,0 (예정)	2010	2013 (예정)	심사 중		
6	주식회사 '극동 조선, 선박수리 센터' 주식회사 '연합 조선사' 178개의 공장과 달자보드 부지 재개발	골든혼의 북쪽 해안에 휴양 오락 구역 조성	5 800,0	2011	2012			
7	주식회사 '알렉산드르 하우스' 트로이차 만에 테크노파크 조성	무역과 서비스산업, 경공업, 자동차조립, 목공예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구역 조성	140 000,0	2012	2016	심사 중		
8	자동차 클러스터 유한회사 '솔레스-극동' 극동지역에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간 십만 대 규모의 자동차생산 복합단지 조성	11 800,0	2009	2015		완료	완료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 계획	실제- 건설서류
	석유 가스 및 에너지							
9	주식회사 '극동 에너지 시스템' 우수리스크 화력발전소 건설	연해주 남쪽의 전력부족 해결, 고위험지역 상황개선, 전기수 요 충족	계획안 총액	2012	2016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10	유한회사 '베르쿠트' 친문 석탄처리 복합단지 건설	250만 톤(1단계)~850만 톤(2단 계)의 대형화물 처리용 항만터 미널 건설	5 300,0	2013	2015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11	주식회사 '가스프롬' 천연가스 액화처리 공장 건설	천연가스 가공산업 발전, 항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태평양지 역 국가에 수출	250 000,0	2013	2018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12	주식회사 '국영 화학 그룹' 가스화학 단지 건설	국내외 시장에서 가스화학 제품 생산을 통해 연해주의 지역 총생 산 증가	계획안 총액	2012	2017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13	석유회사 '로스토프제' 석유화학 단지 건설	연해주에 고부가가치를 갖는 세 계적인 수준의 석유화학 제품 생 산을 위한 현대적인 생산기지 형 성. 재가공도를 82~85%까지 향 상시킴. 아태 지역에 수출	173 200,0	2011	2017	12,8	연구 중	연구 중

번 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계획	실제-건설서류
14	유한회사 '극동 에너지 시스템' 동부 화력발전소 건설	연해주 남부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N-1의 이행, 고위험지역 상 황개진), 블라디보스톡 시의 전력난 증가 대처	10 200,0	2011	2014	십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운송 복합단지							
15	주식회사 '프로그레스' 해외 여객 운송과 기타 여객운송을 위한 KA-62의 상업적 이용	육로와 해로를 통한 여객과 화물의 수송, 국제화물, VIP와 기업 화물 수송, 의료나 특수작전을 위한 구조작업에 참여	8 800,0	2014	2025	십사 중		
16	그룹사 '아크바-리수르식' 복합운송 '아스타피에프 터미널'의 현대화(벌크화물 운송)	2030년까지 아태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추가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석탄산업 발전	2 300,0	2012	2015	십사 중		
17	유한회사 '베르쿠트' 슬라반스끼 만에 곡물, 컨테이너 화물 복합단지 건설	철도를 통한 곡물화물 육로수송, 건조가 필요한 경우 창고에 단기 보관, 해상운송	1 900,0	2014	2020	십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18	주식회사 '알렉산드르 하우스' 국제화물복합단지 '프로이프' 건설	기존 항구를 해운, 철도, 도로교통 수단을 이용한 상품의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수준으로 확장	29 096,1	2013	2015	십사 중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 계획	실제- 건설서류
19	유한회사 '연합 곡물회사'와 '숨 마' 그룹 극동 곡물 터미널 건설	아태 지역 국가로 시베리아의 고 급 곡물 수출, 주변국의 농산물 수요에 따른 수송 시스템 구축	7 300,0	2012	2017	심사 중		
20	유한회사 관리회사 '베르쿠트' 슬라반스키 조선소 항만시설에 연간 최대 9백만 톤 규모의 벌크 화물(석탄)용 복합단지 건설	아태 지역 국가들로 석탄 수출 확보	4 800,0	2014	2020	심사 중		
21	주식회사 '무역항 뱀시에프' 연간 7백만 톤 규모의 석탄운송 전문 복합단지 건설	아태 지역 국가들로 석탄 수출 확보	3 000 이상	2008	2012	심사 중		
22	러시아 교통부 '동부' 항구 지역에 연간 120만 TEU 처리가 가능한 항구 인접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센터 건설	수출입, 경유, 연안무역 컨테이 너 화물의 처리와 관련한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위한 복합단지 제공	2 700,0	2014	2020			
23	주식회사 '블라디보스톡의 해상 무역항' 물류 복합단지 '남해연안 터미널' 건설, 규모는 연간 1,190만 톤	러시아의 대외무역 회전율과 중국 의 동북지역, 남한과 북한, 일본으 로의 화물과 여객의 국제 운송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 물류 복합단지 조성	18 600,0	2015	2020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 계획	실제- 건설서류
24	유한회사 'DCSS' 조선소 '즈보즈다' 건설	경쟁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선박 과 특수 해상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식 조선 복합단지 건설	111 000,0	2012	2019	심사 중	연구 중	연구 중
25	유한회사 '달타-동부 1' 블라디보스톡-나홋카 구간 도로 를 통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프리 모리에'까지 건설, 국제공항-통 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프리모리 에' 간 도로 건설	통합 엔터테인먼트 구역 '프리모 리에' 조성과 관련한 투자프 로젝트 진행 범위에서 교통 인 프라 건설	15 000,0	2013	2016	심사 중		
	농업단지							
26	그룹사 '젤론니에 리스터야' 회기적인 농업단지 '푸른 잎' 건설	러시아 전 지역에 도입이 가능한 완전한 폐쇄순환 우수 생산) 기 술의 도입과 개발,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 틴달(John Tyndall)의 혁신적인 간헐별균법에 기초한 경쟁력 있 는 유제품 출시.	4 700,0	2012	2015	8	연구 중	연구 중

5) 가축을 기르는 것부터 우유의 생산까지의 과정.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 계획	실제- 건설서류
		러시아와 주변국의 우유시장 진출. 연해주의 가축 수 증가						
27	유한회사 '그린 아그로' 산업적인 유가공이 가능한 착유 용 가축 1,800마리 수용 규모의 축산 복합단지 건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품질의 상품 생산. 로킬 가공생선의 해외 분유시장 의존도 감소	2 000,0	2009	2014			
28	유한회사 '연해주 제당(프리모르 스키 사하르)' 유한회사 '연해주 설탕' 개편 혁신활동의 개발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 이전	8 100,0	2011	2016			
29	연해주 통신부 러시아 섬에 첨단기술의 테크노 파크	경제 첨단기술 부문의 벤처 프로 젝트 실행과 혁신기업 지원, 경 제 첨단기술 부문의 발전 가속화 를 위해 재정적·인적 자원의 집 중지역 형성	3 700,0	2012	2014	2014	심사 중	
30	유기화학 태평양 연구소, 해양생 물 연구소 해양생명과학 파크	극동 학술아카데미의 새로운 학 술적 성과에 따른 극동 해양생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재생산	5 000,0	2012	2020			

번호	주관사,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 비용 (백만 루블)	실행 기간		투자회수 기간(년)	프로젝트 존재 여부	
				시작	종결		사업- 계획	실제- 건설서류
31	‘오스트로브노이’ - 해안지역의 토지와 수역 복합관리 시스템 극동 학술이카테미의 화학 연구소 액체 방사성폐기물(원자력 발전소 등), 폐수와 식수의 정수를 위한 나노구조의 고성능 흡착제 생산	(혹은 복제), 양식, 가공에 기반한 지식집약적 첨단기술 분야 산업을 형성;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를 과학기반 시스템으로 전환 새로운 현상과 독특한 성질의 나노 물질과 나노구조 개체의 특징과 구조에 대한 기본개념 개발, 나노물질과 나노기술 분야의 혁신활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물질을 얻기 위한 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	1 400,0	2012	2017			
32	유한회사 ‘그라니짜’, 유한회사 ‘투자개발센터’ 현무암을 원료로 하는 폴리머 합성물질 생산시설 건설	지속적인 현무암 섬유 생산을 위한 공장단지 건설과 이를 원료로 한 소비재 생산	7 900,0	2010	2015			
33	유한회사 ‘트란스엔지니어링’ 연해주에 경공업 테크노파크 건설	가장 수요가 많은 경공업 제품군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생산단지 건설	8 700,0	2012	2015			

2) 하바롭스크 주

섬유생산 공장

프로젝트의 목적	천연 현무암제품 생산공장 건설
생산계획(설비 용량)	현무암 로빙(섬유), 단섬유, 현무암 고밀도 바닥재, 현무암 섬유, 현무암 플라스틱파이프, 현무암 강화 메쉬(mesh) 연간 5,000톤
재무 지표	총액: 8억 5천만 루블 투자 필요액: 8억 5천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3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 마무리 기술 테스트 완료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Alternative materials and technology'
담당자, 관리자	니키티닌 니콜라이 이바노비치(Nikitin Nicolai Ivanovich)
연락처 정보	유한회사 'Alternative materials and technology' 아무르스크 시 콤소몰스키 대로, 55-103(우편번호: 682645) e-mail: nicitin55n@gmail.com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나노기술을 적용한 하바롭스크 시 가스터빈 생산시설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목적	사용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나노코팅된 가스터빈 블레이드(날/날개)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계획(설비 용량)	연간 15,000개의 날

재무 지표	총액: 10억 루블 투자 필요액: 6억 4천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4년 비용회수 기간: 7.4년
프로젝트 현황	기술 및 설계문서 작성 중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주식회사 'Dalenergomash'
담당자, 관리자	카뉴셰프 올렉 블라지미로비치(Konyushev Oleg Vladimirovich)
연락처 정보	주식회사 'Dalenergomash' 하바롭스크 시 레닌그라드스 까야 가, 28(우: 680013) 전화: +7(4212) 381-501 팩스: +7(4212) 381-500 e-mail: zavod@dalenergomash.ru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네끄라소프 양돈 복합단지 재건

프로젝트의 목적	I단계-생산량 증가와 운영비용 감소를 위한 기존시설 현대화 II단계-자체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돼지 사육, 연구 센터
생산계획(설비 용량)	I단계-모든 리모델링 단계 완료 시 돼지 9,900톤; 사료 공급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200톤 추가 생산 가능 II단계-모든의 개채 수는 1,300~1,600마리
재무 지표	I단계 총액: 6억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2억 5,75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3년 비용회수 기간: 8년

	II단계 총액: 6억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4억 4천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4년 비용회수 기간: 8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와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완료됨. 가스 설비 완료, 사료 가공시설 운영준비 완료. 2012년 사료저장 창고 재건축과 새로운 장비 구입 계획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주식회사 '아그로 에네그로'
담당자, 관리자	Stepanov Vladislav Viktorovich
연락처 정보	주식회사 '아그로에네르고' 680505, 하바롭스크 주, 하바롭스크, 라키프 마을, 프로이즈보드스트벤니 프로예즈드 전화번호: +7(4212) 59-08-33 팩스: +7(4212) 59-08-33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주석생산지 뿌라보우르미스끼 개발을 위한 광산-석탄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목적	주석광석 채굴 및 가공회사 설립
생산계획(설비 용량)	연간 3,000톤의 주석
재무 지표	총액: 27억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25억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5년 비용회수 기간: 9년

프로젝트 현황	지질탐사 완료, 국가 매장량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 완료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쁘라바우르미스꼬예'
담당자, 관리자	Abramov Nikolay Pavlovich
연락처 정보	<p>유한회사 '쁘라보우르미스꼬예' 하바롭스크 주, 솔네츠노이 마을, 레닌 가, 27번지 전화: +7(42146) 22-9-73 팩스: +7(42146) 22-9-73 e-mail: urmi2009@mail.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소베츠키야가반(항구) 시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목적	바닌-소베트-가반 시의 교통 및 산업중심지에서 증가하는 전기에너지와 화력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줄어들고 있는 지역 발전소 '마이스끼'의 발전량을 대체
생산계획(설비 용량)	120Mw, 200Gcal/h
재무 지표	총액: 194억 6,050만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159억 5,91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6년 비용회수 기간: 13.3년
프로젝트 현황	개발 후 설계 시공서류를 정부 관계자에게 송부. 토지 분할 수행됨. 2012년 건설부지 정지작업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주식회사 '에네르게티체스끼예 시스테미 바스토까'
담당자, 관리자	Tolstoguzov Sergey Nikolaevich
연락처 정보	<p>주식회사 '에네르게티체스끼예 시스테미 보스토까' 모스크바, 오브라즈쑤프 가(街), 21, A(우: 127018) 전화: +7(495) 287-67-01 팩스: +7(495) 287-67-02</p> <p>하바롭스크 주 레닌그랏스까야 가(街), 46(우: 680021) 전화: +7(4212) 26-44-03 팩스: +7(4212) 26-44-17 e-mail: raoesv@raoesv.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하바롭스크 주 소베트-가반 만에 철광석 정광의 환적을 위한 해상터미널

프로젝트의 목적	소베츠키야가반의 항구 특별경제구역에 전문 환적 복합 단지 건설
생산계획(설비 용량)	연간 벌크화물 712만 톤 환적 가능 연간 1,200만 톤까지 증가 가능
재무 지표	총액: 49억 3,400만 루블 필요한 투자 금액: 34억 5,400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6년 비용회수 기간: 10년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조사 완료, 45.5ha의 부지 할당 완료, 기술적 조건 획득과 설계, 견적서류 작성과 감정은 2012년으로 계획됨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소베츠키야가반 해상 무역항'
담당자, 관리자	Maslovskij Dmitrij Georgievich
연락처 정보	<p>유한회사 '소베츠키야가반 해상무역항' 씨벳스까야 가반 시 페르보마이스까야 가(街) 48A(우: 682818) 전화: +7(42138) 41-888 e-mail: maslovsky-d@petropavlovsk-io.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야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하바롭스크 공항 장기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바롭스크 (신)공항의 현대화와 종합개발 2.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지역의 주요공항(하바) 형성 3. 하바롭스크 (신)공항 지역에 비행공 사업 개발
생산계획(설비 용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0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여객 수송, 2030년까지 4백만 명의 여객 수송 2. 2020년까지 연간 5만 톤의 화물 수송, 2030년까지 74,000톤의 화물 수송
재무 지표	<p>총액: 166억 5,890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88억 8,18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030년까지</p>
프로젝트 현황	설계 서류 작업과 조사작업 진행 중, 새로운 여객 터미널 건설과 설계 서류작업을 위한 계약기관 입찰이 공지됨, 상업활동 개발 지역의 부지 이용과 시설물 배치에 관한 건축 및 계획 컨셉 작업 중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융자
프로젝트 시행	주식회사 '하바롭스크 공항'
담당자, 관리자	Alekseev Boris Georgievich

연락처 정보	<p>주식회사 ‘하바롭스크 공항’ 하바롭스크 시, 마트베예프스꼬에 쏘쎬, 28b(우: 680031) 전화: +7(4212) 263-661 팩스: +7(4212) 263-661 e-mail: office@airkhv.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	--

스키 리조트 ‘홀도미’ 개발

프로젝트의 목적	관광, 스포츠, 휴양을 위한 연중무휴 최신 스포츠·관광 센터 조성
생산계획(설비 용량)	수용 능력-2,700명/일 구성: 스키 슬로프 6개, 곤돌라 2대, 100명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VIP 별관 6채, 장비대여소, 1,000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
재무 지표	총액: 3억 9,330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2억 5,54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년 비용회수 기간: 8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 완료, 설계서류 준비 중, 현재 복합단지 는 다음과 같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총 길이 8.55km의 스키 슬로프 8개, 곤돌라 3라인, 커티지 4채, 주차장 2곳, 관리 및 생활시설: 개별 보일러실, 물탱크, 송전선-6kW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엑스트림 세르비스’
담당자, 관리자	Ten Emile Semionovich
연락처 정보	유한회사 ‘Extreme Service’

	<p>682711, 하바롭스크 주, пгт. Солнечный, а/я 135 전화: +7(42146) 2-35-35 팩스: +7(42146) 2-37-89 e-mail: holdomi@mail.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	---

아무르 대로-뿌쉬킨 가 종합상가

프로젝트의 목적	20,350 제곱미터의 종합상가 건설
생산계획(설비 용량)	구성: - 250대 수용 가능한 지하 주차장 2개 층 - 3층 상가 - 문화·오락 센터 - 관리사무소
재무 지표	총액: 12억 루블 필요한 투자 금액: 10억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3년 비용회수 기간: 7년
프로젝트 현황	기술·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계획초안 완료,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가 받음, 부지 배당 완료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중양 식품 시장'
담당자, 관리자	Ushakova Svetlana Viktorovna
연락처 정보	유한회사 '중양 식품 시장' 하바롭스크 시, 레프 딸스또이 가(街), 19 전화: +7(4212) 32-86-14 팩스: +7(4212) 76-43-55

	<p>e-mail: priem@rynokdv.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	--

연간 20만 톤 용량의 전기로 공장

프로젝트의 목적	철금속 부스러기를 강철로 재가공
생산계획(설비 용량)	연간 20만 톤
재정 지표	총액: 18억 80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012~14 비용회수 기간: 5.1년
프로젝트 현황	토지 준비 완료, 이탈리아와 생산라인 구매계약 체결, 이탈리아 측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 중, 건설 설계에 대한 계약 체결됨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토렉스'
담당자, 관리자	Sorokodum Stanislav Valer'evich
연락처 정보	<p>유한회사 '토렉스'</p> <p>하바롭스크 시, 세지샷 렛 악짜브라 대로, 12(우: 680015) 전화/팩스: +7(4212)51-34-93 amurriva@mail.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목조주택 건설용 목재(토막목재)와 부자재 생산

프로젝트의 목적	고품질의 목조주택 건설용 목재와 부자재 판매를 위한 목재 가공단지 조성
생산계획(설비 용량)	연간 75,000 제곱미터의 목재
재무 지표	총액: 12억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10억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년 비용회수 기간: 3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와 기술·경제 타당성 조사 완료, 토지 30ha 획득 완료, 필수 엔지니어 인프라 조성완료, 설비를 위한 건물(제재소, 건조실, 보일러실, 조립식 건조실, 단면으로 만들어진 반제품 생산라인) 완공. 305,000 제곱미터 면적의 산림지역을 기업에 연간 임대 형식으로 제공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로스-데베'
담당자, 관리자	Stepanenko Valery Mihailovich
연락처 정보	유한회사 '로스-데베'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 코스콥스까야 가(街), 9(우: 680000) 전화: +7(4212) 31-42-60 팩스: +7(4212) 31-42-54 e-mail: rosdvtrade@email.kht.ru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강 유람선 건설

프로젝트의 목적	'아무르-바뉘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무르 강의 유람선 노선 개발
----------	---------------------------------------

생산계획(설비 용량)	86명 정원의 현대식 인체공학적 유람선
재무 지표	총액: 8억 4천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8억 4천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년 비용회수 기간: 10.5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와 계획초안 완료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
프로젝트 시행	하바롭스크 주 문화부
담당자, 관리자	Fedocov Alekcandr Vyacheslavovich
연락처 정보	하바롭스크 주 문화부 하바롭스크 시, 프룬제가(街), 61(우: 680000) 전화: +7(4212) 32-79-55, 32-97-15 팩스: +7(4212) 32-72-80 e-mail: tur@adm.khv.ru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예바야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지역간 경제협력 센터

프로젝트의 목적	현대식 다목적 전시 복합단지 조성
생산계획(설비 용량)	복합단지 구성: - 건물 총면적 23,715제곱미터 - 5,396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홀 2개 - 키퍼런스룸(341m ²) - 사무실, 상점 - 야외 전시공간 1,800m ² - 370대 수용 규모 주차장 - 64대 수용 규모 주차장

재무 지표	총액: 12억 4,720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12억 4,720만 루블 비용회수 기간: 6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 완료, 필요한 허가 및 심사 완료, 부지구비 완료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 시행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담당자, 관리자	장관-Kalashnikov Viktor Dmitrievich
연락처 정보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야무르스카야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

하바롭스크 시의 주택 및 행정-호텔 복합단지

프로젝트의 목적	행정-호텔, 주거 복합단지 건설
생산계획(설비용량)	복합단지 구성: -총 주거 면적 20,148.6m ² -총 행정-호텔 단지 면적 16,220m ² -주차장 2곳(각 135대 수용, 80대 수용 가능) -레스토랑, 카페, 바 등 총 220개소
재무 지표	총액: 13억 2,500만 루블 필요한 투자금액: 13억 2,500만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2년 비용회수 기간: 2.6년
프로젝트 현황	사업계획서, 계획초안 완료, 토지 소유 중, 본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지역건설 중 도시건설 계획에 포함됨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확보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프로젝트 시행	유한회사 '스프로이뿌즈세르비스'
담당자, 관리자	Sherbatuk Alexandr Valentinovich

연락처 정보	<p>유한회사 ‘스뜨로이뿌쯔세르비스’ 하바롭스크 시, 뿌로믹슬렌나야 가(街), 23(우: 680009) 전화: +7(4212) 27-71-62, 61-09-37, 24-45-77 팩스: +7(4212) 27-71-81 e-mail: spservis@bk.ru, www.stroyputservis.ru</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	--

하바롭스크 시의 도로 ‘바스포츠니 아브호드’(도로 ‘우수리’에서 도로 ‘보스톡’ 까지)

프로젝트의 목적	하바롭스크 시의 중심가 주변의 교통 흐름 재분배
생산계획(설비용량)	거리 28.5km
재무 지표	총액: 190억 루블 공사 및 프로젝트 수행 기간: 4년
프로젝트 현황	2012년 프로젝트 견적서류의 마무리까지 기술적 문제 해결 될 것.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투자유치 작업이 진행 중
인프라와 원자재 확보	공급 완료
참여 형태	직접투자자와 용자, 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 시행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 대외관계부
담당자, 관리자	Kalashnikov Viktor Dmitrievich
연락처 정보	<p>하바롭스크 주 산업교통부 680000, 하바롭스크 시, 칼 막스 로, 56 전화: +7(4212) 37-87-35 팩스: +7(4212) 37-87-37</p> <p>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대외관계부, 투자관할부서 무라비에바아무르스까바 가(街), 19(우: 680000) 전화: +7(4212) 32-50-26, 30-63-83 팩스: +7(4212) 31-55-94 e-mail: int@adm.khv.ru, vnesh2@adm.khv.ru</p>

3) 사할린 주

№ п/п	프로젝트명 발주	프로젝트 장소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생산 용량	실행 기간	비용 (백만 달러)	자금 출처			고용 창출	사할린 주 정부 측 책임자(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 자산	개인 투자	유치 예산 투자		
에너지										
1.	토탄 채굴 및 가공 생산단지 확대 유한회사 '테라-토르포'	지방자치조직 '티몹스끼 자치 구'	연료용 토탄 pillet 생산 시설 조성 규모: 연간 50만 톤	2011~ 12	12,6	-	12,6	-	45	사할린 주 에너지, 주택 및 공공서비스부 남사할린 시, 키를막스 가, 16 (693000) 전화: +7 (4242) 469-271, +7 (4242) 469-191, 팩스: +7 (4242) 434-840 E-mail: up_com@adm.sakalin.ru
교통										
2.	공항 '남사할린' 건설 사할린 주정부 주식회사 '남사할린 공항'	호무토보 마을 자치구 '남사할 린시'	공항 규모 확대,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맞춰 민간 항공기의 유지보수 보장 규모: 시간당 1,250대 통 과	2012~ 16	89,0	-	89,0	-	40,0	사할린 주 도로교통부 남사할린 시 키무니스티체스 키 데로, 32 (693011) 전화: +7 (4242) 469-317 팩스: -7(4242) 469-367

No n/n	프로젝트명 발주	프로젝트 장소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생산 용량	실행 기간	비용, (백만 달러)	자금 출처			고용 창출	사할린 주 정부 측 책임자(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 자산	유치 개인 투자	예산 투자		
3.	손짜프스키 탄광에서 이즐메띠예바 지역의 항구를 있는 교통물류 단지 건설 유한회사 '사할린 우랄'	우글레고르스크 자치지역의 이 즐메띠예바 탄 광	원료 수출 확대를 위해 우 글레고르스크의 탄광을 기반으로 사할린섬의 서 부 해안가에 석탄 물류단 지 조성 규모: 출하 터미널을 갖춘 심해항구 500PM (DTW 선박 10만 톤), 연간 5백만 톤 화물-컨베이어 벨트 14km	2011~ 16	444,8	97,4	347,4	-	1500	E-mail: dptrans@adm.sakhalin.ru 사할린 주 도로교통부 남사할린 시 커뮤니스티체스 키 데로, 32 (693011) 전화: +7 (4242) 469-317 팩스: -7(4242) 469-367 E-mail: dp_trans@adm.sakhalin.ru
인업 단지										
4.	목재기공 생산단지 유한회사 '비즈니스- 마케팅'	자치구 '노글린 스키', '오힌스 끼', '알렉산드 롭스키 사할린 스키 지역', '스	환경적 잠재력과 숲의 생 태를 보존하는, 수직 통합 구조의 경쟁력 있는 현대 식 복합 목재기공 기업 실 업, 프로젝트 규모는 연간	2012~ 18	195	3,2	185,3	6,5	700	사할린 주 산림, 수렵부 남사할린 시, 베로스뻬프 미 라, 107 (693000) 전화: +7 (4242) 469-560 팩스: +7 (4242) 467-159

№ п/п	프로젝트명 발주	프로젝트 장소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생산 용량	실행 기간	비용, (백만 달러)	자금 출처			고용 창출	사할린 주 정부 측 책임자(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 자산	유치	개인 예산 투자 투자		
		미르니호 프 스키, '픽몌스시 자치구'	74~75만 세계콤포미터의 침엽수(낙엽송, 전나무)를 생산하는 1백만ha에 달함. 목재가공 생산 규모는 연간 톤으로 절단한 목재 20만 세계콤포미터와 기술 톤 밤 370만 세계콤포미터							E-mail: dp_stroy@adm.sakhalin.ru
어업단지										
5.	해양생물공원 조성 사할린 주정부 유한회사 '루프 2009'	아니브스끼 자치구, 홀름스끼 자치구, 베벨스끼 자치구, 유즈노 쿠릴스끼 자치구	해양문화의 발전 및 해양 생물 가공단지와 유사생산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첨단기술 지역 건설 규모: - 연간 치어(해삼, 가리비) 1,000만 톤 생산을 위한 연안단지 - 해양자원 개발: 연간	2012~ 19	97,4	-	90,2	7,2	318	사할린 주 수산부 남사할린 시, 푸릴스끼야 가, 44 (693000) 전화: +7 (4242) 722-746, 팩스: +7 (4242) 723-991

No n/n	프로젝트명 발주	프로젝트 장소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생산 용량	실행 기간	비용, (백만 달러)	자금 출처			고용 창출	사할린 주 정부 측 책임자(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기업 자산	유치 투자	개인 예산 투자		
			32톤의 말린 해삼, 연 간 300톤 규모의 가리 비 살							
농업										
6.	농작물 재배, 보관 및 가공을 위한 현대식 단지 건설 주식회사 '소브호즈 자 레치노예'	끄라스나고르스크 시, 포마린스끼 저치구	본 프로젝트는 농작물 재 배, 보관 및 가공을 위한 현대식 단지의 건설을 검 토 중 규모: - 3천 톤 규모의 야채 보 관실 - 3천 톤 규모의 감자 보 관실 - 2ha의 온실 단지 - 연간 120만 개 통조림 생산	2012~ 13	13,3	0,7	8,4	4,2	77	사할린 주 농업, 연료, 식품 부 남사할린 시, 뽀로스펙트 미 라, 107 (693000) 전화 +7 (4242) 467-251 팩스 +7 (4242) 467-253 E-mail: up_agro@adm.sakhalin.ru

4) 마가단 주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I. 유용광물의 채굴				
1.	로썬신스끼 유망지역에서의 지질탐사, 금 채굴	<p>로썬신스끼 유망지역에 금 매장량 확인을 위한 지질탐사 준비와 수행, 이후 채굴사업 시작. 카테고리 R3에 따른 예상 매장량은 금 415톤 로썬신스끼 지역에 근 5년간 활발한 조사가 진행 중. 기업들이 몇 개의 유망한 구역을 확인하고, 매장량 확인 작업후 조사 진행 중.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10년. 투자자와의 협력형태는 특정 라이선스 틀 안에서 지질탐사에 투자하는 대신 개발 회사의 고정 지분을 받는 파트너 형식일 것으로 예상됨. 지질조사에 추가 투자함으로써 지분을 확대할 수 있음.</p>	<p>38억 루블 혹은 12억 5천만 달러</p>	<p>'OVOCA GOLD (RUSSIA) LTD' 모스크바 지사 대표자: Golovanov Kiril Andreevich 전화: +7 495 916 60 29 팩스: +7 495 916 60 28 E-mail: kirill.golovanov@ovocagold.com; info@ovocagold.com http://www.ovocagold.com 마가단 시: 주식회사 '블룬' 주소: 러시아 마가단 주 마가단 시, 뻬르비마이스까야 가, 33번지, B동 7F, (685000) 전화: +7 4132 644 563</p>
2.	갈탄 생산지 란팜스끼, 벨코보드닌스끼의 산업발전	<p>생산지의 자원기반은 노천채굴 - 14억 7천만 톤 - 하의 저장량에 의해 보장됨 잠재 매장량은 23억 5천만 톤.</p>	<p>17억 3천만 루블 혹은 5억 6,900만 달러</p>	<p>마가단 주정부 천연자원 부서 부서장: Mitkin Vladimir Ivanovich 주소: 마가단 주, 마가단 시, 뻬르베파</p>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p>본 프로젝트는 통해 연료용가스, 미네랄왁스, 흡산염, 연료 브리켓, 합성 액체연료(가솔린, 디젤연료) 생산을 위한 석탄 가공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p> <p>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2015~25년</p> <p>2009년에 마가단 주 정부와 갈탄 생산지 란콤포스키, 멜코보드닌스끼의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검토 중 중구의 광업공사와 2009년 10월 11일 을 기점으로 양해각서 체결</p> <p>본 프로젝트는 2010년 12월 배경에서 마가단 주의 프레젠테이션 기간 중 제안됨.</p>		<p>르스까야 가, 14번지 (685000)</p> <p>전화: +7 4132 643 252.</p> <p>전화 / 팩스: +7 4132 607 191.</p> <p>E-mail: nedra_dep@maglan.ru</p> <p>http://www.magadan.ru/ru/oiv/2-44-14.html</p>
3.	오로웁스키 유망지역에서의 지질탐사와 구리매장량 확인	<p>오로웁스키 유망지역의 총추정자원:</p> <p>카테고리 1:</p> <p>광석-250만 톤</p> <p>구리-1,600톤(평균 함량 0.65%)</p> <p>카테고리 2:</p> <p>광석-3,400만 톤</p> <p>구리-311,000톤(0.76~1.98%)</p> <p>납-24만 톤(0.42~0.62%)</p>	<p>15억 7천만 루블 혹은 5억 1,600만 달러</p>	<p>마가단 주정부 친연자원 부서</p> <p>부서장: Mitkin Vladimir Ivanovich</p> <p>주소: 마가단 주, 마가단 시, 벨로레파</p> <p>르스까야 가, 14번지 (685000)</p> <p>전화: +7 4132 643 252.</p> <p>전화 / 팩스: +7 4132 607 191.</p> <p>E-mail: nedra_dep@maglan.ru</p> <p>http://www.magadan.ru/ru/oiv/2</p>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p>아연-36만 5,000톤(0.46~0.81%), 은-1,664톤(134g/t) 카테고리 3: 광석-5억 8,450만 톤 구리-609만 톤(0.76~3.3%) 납-81만 5,000 톤(0.42%) 아연-34만 5,000톤(0.46%) 은-10,000톤(134 g/t) 오로욕스키 유망지역의 총추정 매장량은 구리 1백 14만 톤, 은 11,600톤에 달함. 프로젝트 금액 규모-157억 루블 본 프로젝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광산-선탄공장 건설, 오로욕스키 금속자원 매장지역의 구리광석 채굴-4억 7,720억 달러(147억 루블) - 오로욕스키의 구리 제련소 건설(마기단 구리 제련 콤비나트)-3,250만 달러(10억 루블) 프로젝트 진행기간-2019~25년 2011년 제22회 하얼빈 국제시장의 틀에서 마기단 주와 중국사업가의 만남이 성사되었음. 이</p>		-44-14.html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p>간단한 프로젝트 설명</p> <p>만남의 결과에 따라 오로옥스키 유망지역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 국제 비철금속 엔지니어-건설회사와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는 채광산업 분야의 광물자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최신 개발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 마가단 주 채광회사가 연구하는 저장공간 분야에서의 협력과 오로옥스키 유망지역의 구리광석 개발산업권에 주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p>		

II. Туризм

4.	<p>체 린턴 섬에 국제 관광 센터 건설</p>	<p>본 프로젝트는 연중무휴의 관광휴양센터를 여름스포츠 캠프시설을 기반으로 만쭈유씨 하리 우스포와 쉼 린턴 섬 연안에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p> <p>센터(콤플렉스)는 휴양 프로그램을 통한 휴식과 사진관광에서부터 스쿠버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전망은 매우 밝음.</p> <p>프로젝트 진행기간-12년</p> <p>여름스포츠 캠프시설은 지방정부의 재산임. 공</p>	<p>10억 루블 혹은 3천만 달러</p>	<p>마가단 주 야고드닌스키 지방정부 정부의 장: Fiodor Ivanovich 주소: 마가단 주, 야고드닌스키 지역, 야고드노에 마을, 스펠르찌브나야 가, 6 (686230) 전화: +7 41343 22858 팩스: +7 41343 22042 E-mail: yagodnoe@regadm, magadan, ru</p>
----	----------------------------	---	-------------------------	---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동이용·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녹지의 사용 거부 가능성이 있음.		
III. 인프라				
5.	마가단 시에 폐기물 처리 공장 건설	<p>본 프로젝트는 현재 생활 고형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용되는 2.9ha의 부지에 폐기물처리 공장 건설을 제안함. 매립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관리소 - 쓰레기 컨테이너 수리 건물 - 기술적 급수장(우물) - 바이오 및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로 - 수은함유 기구 처리 (디머큐리) 시설 <p>마가단 시의 중앙 전력공급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음.</p> <p>투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혜가 주어짐.</p> <p>공장 건설 기간 동안 임대료 면제</p> <p>토지관련 세금 감면</p> <p>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지원</p> <p>예상되는 규모는 연간 생활 고형폐기물 십만 톤</p>	<p>3억 8,030만 루블 혹은 1,250만 달러</p>	<p>마가단 시 시정부 마가단 시 시장: Pecheniy Vladimir Petrovich 주소: 마가단 주, 마가단 시, 고리폼스까바 광장, 1 (685000) 전화: +7 4132 625 048 팩스: +7 4132 625 047 E-mail: meria@cityadm, magadan, ru http://www.cityadm, magadan, ru/</p>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IV. 수산업				
6.	<p>마기단 시로 의약품, 화장품, 육류, 가죽, 모피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의 정밀가공, 물개 사냥을 위한 공동조직 조성</p>	<p>본 프로젝트는 오호츠크해와 베링해협에서 물개, 청어, 대구/명태, 연어 선박조업 조직을 포함함.</p> <p>프로젝트의 목적: 해양 포유생물의 안전한 가공, 폐기물 없는 생산, 가죽과 모피생산; 식품 생산, 의료 및 의약품 생산을 위하여 생물학적으로 순수한 원료 생산</p> <p>기대 결과: 매년 안정적으로 해양 생물 20,000 마리 가공, 식용-육류 250톤 생산, 다진 뼈와 고기 400톤, 순수한 의약품 지방 200톤. 모피 12,000 조각, 가죽 8,000 조각,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 80톤</p> <p>해양생물로 얻는 원료에 대한 기술서류완료, 해양생물의 수확과 제품생산을 위한 연안의 가공 시설 모듈 설립 완료, 해양생물 연안 포획을 위한 인프라 완료, 해양생물로 만든 첫 제품 BAD 'Tuleno' 출시 완료.</p> <p>두 번째 단계에서 해양생물 지방을 캡슐화하는 생산라인 구비를 위해 투자금의 1%를 사용할</p>	<p>18.3억 루블 또는 6천만 달러</p>	<p>(주) 'OceanBioEcoProduct' 대표: 자벨린 안드레이 알렉세예비치 E-mail: http://www.morzver.ru 마기단 주 정부의 임업관리부 관리 대표: 푸티브킨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주소: 고리키 거리, House, 6 마기단 시 마기단 주 러시아 685000 전화: +7 4132 607 694. 팩스: +7 4132 627 683. E-mail: putivkin@regadm.magadan.ru</p>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p>예정.</p> <p>세 번째 단계에서 바다표범 포획을 위한 냉동선박 건조를 위해 투자금의 99%를 사용할 예정.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유한회사 '아게인비오에코쁘라독트'의 대표는 제22회 허얼빈 국제 시장에 마가단 주의 사절단으로 참가하기로 했음. 외국 사업가들과의 협상 결과, '아게인비오에코쁘라독트'와 중국의 투자회사 'Greenfield' 간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함.</p> <p>투자회사 'Greenfield' 측은 오토츠크해 해양생물의 포획과 가공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장비와 선원을 포함한 선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합의했음.</p> <p>또 다른 중국 파트너 회사로부터 해양생물 제품의 생산을 위한 과학공원 설립 범주 안에서 헤이룽장성의 공업단지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음. 그러나 현재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았음.</p> <p>2008년부터 러시아 해양 포유류의 육류 수입을 금지한다는 중국의 방침이 본 프로젝트의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마가단 주정부는 물</p>		

번호	프로젝트명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	필요한 투자금액	프로젝트 발주
		론 러시아 농산물검역국(농업감시국)도 계속적으로 본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중임.		
V. 농업				
7.	농장용 시베리아순록의 녹용과 기타 상품의 조달	북에벤스키 지역에 있는 시 단위 농업기업 '이르브찬'의 시베리아순록 개체 수는 2013년 초 17,100마리임. 건조녹용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나란-마르스키 시베리아순록 방목 연구센터의 기술을 이용해 녹용의 보존이 가능했음. 시베리아순록 제품의 판매와 조달 조직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염건조방식을 통한 보존 시설이 없음.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자와 협력함으로써 투자자는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는 대신 시베리아순록 상품의 일정량을 보장받게 됨. 현재 농업기업은 500kg의 건조 녹용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있음.	15억 루블 혹은 5만 달러	시 단위 농업기업 '이르브찬' 대표: Hanchalan Anatoliy Prokop'evich 주소: 마가단 주, 북에벤스키 지역, 에벤스크 마을, 미라 가, 1 전화: +7 413 48 229 05 E-mail: irbychan@mail.ru 마가단 주정부 식품 및 농업위원회 위원장: Dinla Vera Ivanovna 주소: 마가단 주, 마가단 시, 삌로레파르스카야 가, 14 (685000) 전화: +7 4132 620 658. 전화/팩스: +7 4132 624 616. 홈페이지: http://www.magadan.ru/ru/oiv/2-44-6.html

5) 캄차카 지방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주력 및 공동기주 복합단지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목적: 1.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주와 엘리자보시에 최근의 환경적 요구에 맞추어 폐수정화를 위한 현대식 엔지니어 시스템 설립 2. 캄차카 주의 환경보존 3.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주와 엘리자보시에 최근의 환경보존을 위한 현대식 엔지니어 시스템을 확립	프로젝트 총금액-134억 3,57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134억 3,570만 루블이 포함됨.	도시경제위원회의 대표로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주정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 주의 시단위 기업 '페트로파블로프스키 보도까날'	15년
주파노프스키 수력발전소의 캐스케이드(cascade) 건설	강과 조수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 이용을 통한 캄차카 주의 종합개발 프로젝트는 다음 3가지를 포함함. 1) 수력발전소-1 댐-높이 116m, 침수 면적 13,600ha, 보강-용량-111MW, 설비용량-270MW, 전력생산-10억 9,600만 kWh	프로젝트 총금액-380억 루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1) 수력발전소-제1댐-251억 루블 2) 수력발전소-제2댐-84억 루블 3) 수력발전소-제3댐-51억 루블		17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p>2) 수력발전소-2 댐-높이 99m, 침수 면적-2,450ha, 보강 용량-34MW, 설비용량-90MW, 전력생산-3억 9,400만 kWh</p> <p>3) 수력발전소-3 댐-높이 88m, 보강 용량 23MW, 설비 용량- 55MW, 전력생산-2억 4천만kWh</p>	총 386억 루블의 투자를 필요로 함		

임업 복합단지 투자 프로젝트

과립연료(펠릿) 생산을 위한 목재가공 공장 건설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확보, 수출용 과립연료 공급 보장, 주택건설 시행, 고품질의 톱으로 톱 목재 생산 확대, 제재소와 목재공급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가공에 참여	프로젝트 총액-8억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7억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마르고비듬 라스베트'	10년
캄차카 주에 목재원료 가공 단지 조성	목재의 조달과 정밀 가공을 위한 현대식 생산시설 건설 목재 폐기물을 포함하여 통나무, 제재용재, 펄프용재 가공을 위한 복합단지가 목표임.	프로젝트 총금액-24억 7,6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24억 7,600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캄차카 빠네르니 자보드'	7.1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관광 단지 투자 프로젝트				
다음 지역을 기반으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제 스키 리조트 건설: 모로즈나야-세들로 산; 아바친스카야 화산 지역; 또 벨로브이 산맥; 페트로프스카야 소프카	최신 호텔단지, 슬로프와 리프트, 관련 인프라 건설 잠재적인 관광객 수는 2025년까지 110,000명으로 평가됨.	총프로젝트 금액 -256억 2,100만 루블 여기에 인프라 비용 60억 4,000만 루블, 상업시설 비용 195억 8,100만 루블이 포함됨.	감차카 주정부	1.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제 스키 리조트 '모로즈나야-세들로' 건설-10년 2.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제 스키 리조트 '포벨로비산 맥' 건설-12년 3. 사계절 이용 가능한 국제 스키 리조트 '페트로프스카야 소프카' 건설-6,4년
어린이 및 청소년 보건(오양) 센터'알티예빠루싸' 건설	다기능 연중무휴의 어린이 및 청소년 보건센터 '알티예빠루싸'와 토폴리 산	총투자금액-20억 6,300만 루블	유한회사'알티예빠루싸'	5~7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p>백을 이용한 스키 리조트 건설 본 프로젝트는 스포츠 선수들의 치료를 위한 진단과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세개의 단지를 설립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및 청소년 보건센터 <알리예빠 루싸>; 2. 포뿔리 산맥 스키 리조트 3. 교통 및 기술 인프라 	여기에 필요한 투자금액 20억 6,300만 루블이 포함됨		
관광-오락 클러스터 '파라툰카' 조성	<p>관광-오락 클러스터 <파라툰카> (360ha) 크기의 부지는 엘리조프스키 지역의 위생 보호구역 II 와 III의 경계에 위치함)는 관광분야의 대규모 건설의 개별 개체에 대한 기능적, 조직적, 금전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최대 투자 프로젝트가 될 것임</p>	프로젝트 총금액-26억 3,840만 루블(잠재적인 건설투자자에 의해 제안될 상업시설 건설비용은 제외), 인프라 비용 5억 7,54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비용인 26억 3,840만 루블이 포함됨.	캄차카 주 정부	5년
말긴스키 산지의 휴양 (오락)지역 건설	<p>독특한 말긴스키 산지 지역 복원 및 생태 균형 유지. 프로젝트의 시행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영향을 줄여줄 것임.</p>	프로젝트 총금액-5억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4억 2,500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아끄바리 우스'	7.5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나치킨스크' 휴양단지 재건 및 현대화	치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체유희활동까지 할 수 있는 자율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존을 갖춘 800명 수용가능한 <나치킨스크> 휴양단지 재건 및 현대화	프로젝트 총금액-15억 3,2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 15억 3,200만 루블이 포함됨.	'나치킨스키 요양원'	6, 8년
'오제로보로빈노에스베틀로예' 스포츠관광단지	국제표준의 계절 스포츠 생체 리조트 단지 건설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및 관광 유형 개발. 국제, 국내 지역 지방 및 시 대항 대회 진행. 건강한 생활습관 추구. 스포츠 단지에서 어린이 및 각종 스포츠 선수들 양성. 포함시설: 워터파크, 호텔, 보트, 양국 및 스포츠단지.	프로젝트 총금액-6억 루블. 여기에 필요 투자자금 6억 루블이 포함됨.	(주) 'RealAbsolut'	12년
'웰레노프스키에 오제르크' 스파센터 건설 및 개발	레크리에이션 및 의료예방 휴양구역 건설 및 교통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 포함 시설: 1. 스파센터; 2. 하수 처리장; 3. 120실 규모 객실 호텔; 4. 온실 단지.	프로젝트 총금액-5억 루블. 여기에 투자자금 5억 루블이 포함됨.	(주) '자레치노예'	5년
'파루스' 호텔단지 건설	166개 객실을 갖춘 유럽 수준의 호텔 단지 건설. 호텔산업 분야의 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총금액-7억 8,570만 루블, 여기에 필요한 투	(주) '키노이그라'	10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단지 내 포함 시설: 주거 및 행정 건물, 공공시설, 80개의 주차 공간.	자금액인 7억 8,570만 루블이 포함됨.		
광물원료 복합단지 투자 프로젝트				
장기 광물원료 단지 형성을 위한 교통-에너지 인프라 건설	컴차카 주에 광물원료단지 형성을 위해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에너지-교통 인프라 건설, 발하츠스키, 쾨르츠프스키, 아메피스트피 채굴 및 선풍컴비나트 건설	프로젝트 총투자 금액-120억 루블, 여기에 필요한 두 자금액인 120억 루블이 포함됨.	관리회사 '인페르 미네랄스 매니지먼트'	5년
컴차카 주의 금속광물 생산지 오제르노프스키에 광물의 채굴 및 가공을 위한 채굴-제련 콤비나트	광물지역의 종합탐사, 두 줄을 통해 연간 10톤의 금까지 생산가능한 채굴-제련 콤비나트의 구축	49억 3,150만 루블, 여기에 필요한 투자금액 인 31억 3,150만 루블이 포함됨.	주식회사 '시베리아 고르노메탈루리기에 스키 알리안스' (주식회사 '씨그마')	8년
천연 열수 분해를 통해 나노화된 규소이산화물을 얻기 위한 생산시설 건설	이산화규소의 줄과 나노결정과 천연 냉매를 기반으로 하는 납감차가 무프로스키 생산지에 있는 지열발전소에서 위 물질의 유도체 획득 기술 설계는 수용성 매질의 막 농축(분리)의 단계와 이산화규소의 안정적인 졸의 획득을 포함하고 있음.	프로젝트 총금액-9억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 인 9억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나노쉴리 카'	3년
천연 제올라이트 생산지인 야고딘스키의 산업적 개발	산업, 농업, 환경의 분야에서 폭넓은 사용을 위해 컴차카 주의 야고딘스키에서	프로젝트 금액-7천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액인	컴차카 주 정부-컴차카 주의 천연자원	-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생물자원 복합단지 투자 프로젝트				
갑차카 주, 가라긴스키 지역, 이비슈까 마을에 일일 완제품 280톤 규모의 첨단 기술 공장 설립	프로젝트의 정밀 가공과 국내의 시장에 고 품질의 저렴한 수산물 공급 확대	프로젝트 총금액 8억 5,59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5억 4천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바스토즈 니 베렉'	5.2년
갑차카 주, 우수트-볼셰베즈끼 지역, 오제르노프스키 마을, 주식회사 '오제르노프스키 RK3 no.55' 구역에 생산통조림 공장 건설과 현대화	연안/내륙에 위치한 가공 생산 공장의 건설과 현대화, 정밀가공한 제품 생산량 확대	프로젝트 총금액 11억 8,4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9억 3,650만 루블이 포함됨.	주식회사 '오제르노프스키 RK3 no.55'	4.25년
갑차카 주, 가라긴스키 지역, 하이랄강변에 위치한 일일 170톤 생산가능한 첨단 생산 기공 복합단지의 현대화 (정밀 가공, 생산폐기물의 가공, 냉동건조 다시마 생산 공장의 적절한 분배를 동반)	회사의 육상 설비 현대화와 확대; 정밀가공 기술 개발, 생산 폐기물 가공 기술 도입; 품질향상과 제품의 생산면위 확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3억 8,820만 루블, 여기에 필요한 투자금액인 2억 4,050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꼬랴모레 베로독트'	6.25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김차카 주, 소블레프스키 지역, 오블루고비나 강에 위치한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수산물 가공 기지의 재건과 현대화	시장의 수요와 필요한 자원의 획득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단기적, 장기적 경제 활동 계획, 해산물 가공 규모 확대와 효율성 개선, 김차카 주와 기타 러시아 지역의 수요를 고품질의 상품으로 충족	프로젝트 총투자금액-1억 7,18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 1억 2,500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김차프도 레베로독프'	1.75년
'루스까야' 만에 있는 김차카의 시베리아 천연 식수	연간 300만 톤 규모의 루스까야 만에서 발생하는 깨끗한 지하수 식수를 물 이동 선박을 이용해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 부두 건설	프로젝트 총비용-14억 1,4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 14억 1,400만 루블이 포함됨.	유한회사 '루스까야 보드'	3.9년
농업-식품 단지 투자 프로젝트				
베리프스키 생산지의 열수를 이용한 온실 단지 건설	온실야채 생산회사 설립-베리프스키 생산지의 열수를 활용한 온실 건설, 생산량-야채와 녹색작물 2,000톤.	프로젝트 총금액-13억 8,770만 루블, 여기에는 13억 8,770만 루블이 포함됨.	김차카 주 정부-김차카 주의 농업, 식품 및 가공산업부	5.6년
김차카 주의 야생식품	야생열매, 양치식품, 버섯, 뿌리식물의 수확, 냉동, 저장 및 가공을 위한 기술 단지 건설	프로젝트 총금액-1억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비용인 9천만 루블이 포함됨.	주식회사 '베프로빠 블로프스키 흘레보곰 비나트'	-
새로운 냉동 브로일러 생산 시설을 도입하여 김차카 주의 농업 및 식품 본부 <베오스프예>	김차카 주의 계란 수요 충족, 냉동 브로일러 고기 생산 및 판매, 규모는 연간 1,000톤	프로젝트 총금액-5억 1,4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5억 1,400만 루블이 포함됨.	김차카 주의 농업 및 식품 본부 '베오네르 스프예'	8.7년

투자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필요한 투자 금액	프로젝트 시행	비용회수 기간
네르스꼬예> 생산시설 현대화		블이 포함됨		
캄차카 주 엘리조프스키 지역의 나고르니 마을 농업 지역 종합 개발	캄차카 주 농업 분야의 생산, 혁신, 기타 기업 활동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지 건설	프로젝트 총금액-15억 8,800만 루블, 여기에는 필요한 투자금액인 15억 8,800만 루블이 포함됨.	주식회사 '아그로테 크 홀딩스'	8년

6) 아무르 주

№	분야	프로젝트 명칭 (1~10까지의 지역 프로젝트 중 선별)	단기		장기
			중기	진행기간	
1.	교통	제야강에서 블라고베첸스꼬 시를 잇는 도로교량 건설	1~2년	3~5년	5~10년
2.	물류	아무르 주에 교통-물류 단지 건설		2012~2016	
3.	농업	돼지 농장에 연간 58,200마리의 돼지 생산 조직 (유한회사 '아무린 베스트프로덕트')		2012~2016	
		노동 마을 삐로그레스에 아채와 모종 재배를 위한 온실단지 건설	2013~2015	2012~2015	

№	분야	프로젝트 명칭 (1~10까지의 지역 프로젝트 중 선택)	단기		중기		장기
			진행기간				
			1~2년	3~5년	5~10년		
4.	현대기술	제약물질 Antioxidantatapholin과 다우르 낙엽송으로 만든 다당류 arabinogalactan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의 출하량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공장 건설 (주식회사 '아메티스')				2013~2018	
		LED 램프 생산 공장 건설			2013~2015		
		태양전지, 초고용량 축전지 생산공장 건설				2013~2018	
		유리공장 건설			2013~2016		
		석회암 생산지인 차고안스끼에 시멘트공장 건설			2013~2016		
5.	지식산업 (의료, 교육)	블라고베첸스크에 메디컬 진단 센터 건설			2013~2016		
		블라고베첸스크에 1,500명 수용 가능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2013~2016		
6.	환경	의료 및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			2013~2016		
		쓰레기 소각공장 건설 (일반 폐기물)			2013~2016		
7.	인프라 개발	벨로고르스크 산업 생산유형의 특별경제구역 조성				2012~2022	
		'이그나찌예프스카야 우짜지바'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인프라 건설				2012~2018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휴양지 '졸로따야 밀라' 설계 및 착공					2013~2019

7) 유대인 자치구

유대인 자치구에 제안된 투자프로젝트와 투자제안 목록, 투자처 목록은 유대인 자치구 정부의 공식 인터넷 포털 (<http://www.eao.ru>)의 '경제/투자사업/투자 프로젝트 및 제안'란에 게재되어 있다.

8) 추코트카 자치구

자세한 정보는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의 공식 인터넷 포털 (<http://www.chukotka.org>)에 게재되어 있다.

9) 연방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트

가) 투자 프로젝트 '획기적인 습식 동물사료 생산라인'

해당 프로젝트는 생선과 기타 수산물로부터 나오는 찌꺼기를 발효하여 바이오 생산 기관에 습식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형태의 발효 식품 생산은 가축 사료의 추가를 통해 절대적인 질량과 일일평균 질량의 현저한 증대를 보장한다. 이는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의 해양연구소 전문가들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증명되었다. 실험 결과들은 기존의 배합사료 혼합물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습식 사료 생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배합사료와 단백질의 소화에 드는 가축 기업의 지출이 감소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의 어업 발전을 위한 기술과학산업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프로젝트의 기획자는 '환태평양 어업 및 대양 과학 센터'이다. 러시아 연방의 농가를 위한 사료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는 요구는 어분을 포함하고 있는 효과가 높은 사료이다. 어분의 생산은 다양한 이유로 줄어들고 있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생선의 부족, 어분생산에 있어서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이 있다. 따라서 생선 찌꺼기로 만들어지는 어분의 생산은 연안어업 생산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종류의

생선 찌꺼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괄 작업을 위한 콤팩트한 생산라인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직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처리 시설을 통해서만 사료 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획기적인 사료 생산방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활용한 어분제조 방식과 비교 분석을 시행했다.

부록 표 2 습식 사료와 어분의 생산에서 주요 지표 비교(완제품 1kg 기준)

№ п/п	지표	어분		습식 사료	
		I	II	I	II
1	완제품의 원가(루블/kg)	32.5	56.3	6.2	14.5
2	완제품의 수율(원료 대비 %)	16%	16%	45%	45%
3	완제품내 단백질 함량(%)	60%	60%	25%	25%
4	단백질 1kg 당 비용(루블)	54.2	93.8	24.8	58.0
5	완제품의 출하가격(루블/kg)	40 이상	42	11.5	17.5
6	1kg의 단백질 출하가격(루블)	70.0	70.0	45.9	70.0
7	판매 수익성(%)	18.0%	-27.2%	36.7%	13.7%

주: 계산은 EXW 조건⁶⁾에서 도매가격을 이용, I 은 원재료 비용(생선과 수산물 가공으로 얻어진 폐기물) 불포함, II는 포함

자료: 저자 작성

생선 폐기물로 사료 첨가물을 생산하는 기관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국내 농업 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료 첨가물 내수 시장은 연평균 30~35%에 이르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독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가축과 가금류의 체중 증가를 위한 첨가물 시장이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이 분야의 성장속도는 연 40%에 달한다.

농업에서 사용되는 사료 중 가장 좋은 품질로 평가받는 것이 생선과 생선 찌꺼기로 만드는 사료이다. 사료의 품질은 무엇보다도 사료 안에 들어

6)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있는 단백질의 양과 유용성에 달려있다. 최근 10년간 생선으로 만들어진 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생선으로 만들어진 사료 분말에 고기나 뼈를 재료로 만든 사료에 비해 1.4~1.8배 이상의 소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일반 곡물 사료(귀리, 보리, 옥수수)에 비해 사료 효소가 8.5~9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사료 이용의 효율성은 아미노산의 구성과 열량에 달려 있다.

생화학적인 방법은 생선을 삶지 않고, 분쇄하여 효소와 섞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술과는 차별화된다. 단백질의 효소 가수분해는 부드러운(안정된) 환경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40~50°C에서 30~40분 동안 일어난다. 이 결과 모든 아미노산과 비타민, 생물학적인 활성물질, 성장촉진 물질 등이 가축에게 흡수되기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저장된다. 효소의 비활성화와 분말의 건조 또한 안정된 환경(온도 80~85°C)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발효된 어분에는 중요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 지방, 지방산과 상당량의 비타민(특히 비타민B군), 다량원소와 미량원소인 칼슘, 인, 세슘, 마그네슘, 칼륨, 철, 아연, 구리 등이 생명체에 흡수되기 쉬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원료를 발효약제로 가공하게 되면 뼈에서 얇은 조직이 분리된다. 뼈를 분리한 후에는 발효된 원료를 원심분리하여 밀도있는 침전물 부분(사료용 반죽)과 액체(발효액), 그리고 지방으로 분리시킨다. 분리된 뼈는 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미네랄-단백질 분말로 만든다.

바이오 기술은 기타 손실 없이 생선 찌꺼기의 합리적인 재처리를 가능하게 만든다. 사료와 함께 발효된 어분을 얻은 실험군은 일반적인 어분을 얻은 대조군에 비해 간과 혈장에서 더욱 낮은 티오바비투르산 수치와 더욱 높은 불포화 지방산 수치와 알파토코페롤 수치를 보여주었다.

바이오 기술은 아마도 해안가에서뿐 아니라 선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바이오 기술은 활용되지 않는 수상생물(예를 들면, 중심해수층 어류)과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생선 찌꺼기와 같은 비활용 폐기물에서 사료로서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지는 완제품의 출하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축산물과 수산물 생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부록 표 3 생산라인의 주요 경제·기술 지수

항목	수치
공정시간(싸이클 타임), 분	60
가공원료의 생산성, 톤/공정	1
가공원료의 생산성, 톤/일	20
가공원료의 생산성, 톤/월	440
완제품의 수율, 원료대비 %	45
완제품의 생산성, 톤/월	198
필요인원, 명	2
담수 비용, 루블/월(22루블/평방미터, 부가세 불포함)	1,085
사업 비용, 루블/월	10,000
공장 비용, 루블/월	6,000

자료: 저자 작성

기본 원료로써 극동지역에서 잡히는 대부분의 생선들의 가공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쾰치, 청어, 연어, 캄발라(넙치, 가자미의 일종), 명태를 비롯한 시장성이 높은 어류는 전부 가능하다. 완제품의 킬로당 원가는 6.2루블이다(또는 원료 구입의 경우 14.5루블/kg).

부록 표 4 습식 사료와 어분의 생산에 있어서 완제품과 단백질 물질 원가 비교

(단위: 루블, kg)

번호	지표	어분		습식 사료 제품	
		I	II	I	II
1	완제품 원가(루블/kg)	32.5	56.3	6.2	14.5
4	단백질 1kg당 비용(루블)	54.2	93.8	24.8	58.0

주: I은 원재료 비용(생선과 수산물 가공으로 얻어진 폐기물)은 불포함, II는 포함.

자료: 저자 작성

나) 투자 프로젝트 「추코트카 자치구 지역에 바다짐승 생산 및 가공 복합 단지 조성」

본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고용수준과 노동력 수준을 향상시켜줄 것이다.

부록 표 5 추코트카 자치구 지역 바다짐승 생산 및 가공복합단지 조성 프로젝트 개요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환태평양 어업 및 대양 과학센터
투자 프로젝트명	바다짐승 포획 및 가공 복합단지 조성
투자 진행 장소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에 필요한 금액	8,003만 루블
투자 형태	바다짐승 가공과 통조림, 낚시장비, 선박용품, 어업 장비의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
비용 회수 기간	1~2년(프로젝트와 인력 교육기간의 결과에 달려 있음)
수익성(%)	16~20%(초기 단계), 수익성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제품 생산이 시작되면 더욱 커질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① 프로젝트 실행 방향

프로젝트의 입안과 실행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이 있다.

- 포획과 처리가 가능한 대형 냉동 트롤어선과 추가로 RS-300급에 해당하는 선박을 이용한 바다짐승과 심해 수산물 조업 조성(어업 기간: 150일)
- 강 어귀에서 그물망을 사용한 바다짐승 연안 조업 조성
- 기존의 제품을 출시한 경험이 있는 ‘환태평양 어업 및 대양 과학센터’의 기술 계열사와 같은 전문 기업들과 공동으로 특수제품(냉각 압착 방식으로 얻은 고품질의 지방과 장기에서 추출한 생물학적 활성약제, 레스토랑 납품을 위해 급속냉동시킨 수출용 최고급 육류 반가공품 등) 출시

세번째 방안을 위해서는 처음의 두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서 바다짐승 가공에 필요한 장비와 통조림 생산 장비, 낚시기구, 선박시설, 조업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해야 한다.

② 매출 전망

위에 언급한 프로젝트 이행의 세가지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매출이 예상된다.

부록 표 6 연간 제품 매출 예상규모

제품명	양, 톤 또는 단위	가격, 루블/톤 또는 단위	총계(루블)
1	2	3	4

1. 선박조업 수확제품의 판매량

바다짐승으로부터 획득량*			
손질 가죽(개당)	9,500	2,000.00	19,000,000.00
식이지방(톤)	70.4	108,000.00	7,603,200.00
기각류의 냉동 고기(톤)	71.2	75,000.00	5,340,000.00
냉동 내장(톤)	28.9	75,000.00	2,167,500.00
통조림 사료	89.55	75,000.00	6,716,250.00
프로젝트 이행의 총수익			40,826,950.00
심해생물 포획량			
캠발라(가자미, 넙치일종)(WR) ⁷⁾	877.5	27,000.00	14,215,500.00
북해산 대구(WR)	731.25	24,000.00	10,530,000.00
명태(HG) ⁸⁾	585	31,050.00	10,898,550.00
대구(HG)	585	85,000.00	29,835,000.00
프로젝트 이행 시 총수익			65,479,050.00

2. 바다짐승의 연안조업에서 얻어지는 제품의 판매량

손질 가죽(개당)	950	2,000	1,900,000
식이지방(톤)	7.04	30,000	211,200
기각류의 냉동 고기(톤)	7.12	50,000	356,000
냉동 내장(톤)	2.89	75,000	216,750
통조림 사료	8,955	75,000	671,625
프로젝트 이행 시 총수익			3,355,575

7) WR(Whole or Round Fish): 잡힌 그대로의 손질 안 된 생선

8) HG(Headed and Gutted): 머리와 내장이 손질된 생선

부록 표 6 계속

제품명	양, 톤 또는 단위	가격, 루블/톤 또는 단위	총계(루블)
3. 전문기업과의 공동작업을 통한 제품 판매량			
냉동 다진 고기, 뼈	8.96	10,000	89,500
해조류를 전체의 15%를 첨가하여 뼈와 고기를 다져 얻은 분말	4.10	25,000	102,500
대두 20%를 첨가한 강화 육골로 만든 건조밀가루	5.20	20,000	104,000
동물용 통조림 (강아지, 고양이)	8.96	75,000	671,625
지방	7.04	60,000	422,400
생물학적 활성물질	0.02	15,000	300,000
프로젝트 이행 시 총수익			1,690,525

주: * 1,000마리 분의 완제품 출하
자료: 저자 작성

③ 필요 투자액

필요한 투자액은 총 8,002만 9,680루블이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원은 은행의 대출과 일반대출, 파트너가 있다.

④ 프로젝트의 효율성

위에 언급한 대로 프로젝트 이행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효율성의 지수로 나타난다.

- 바다 짐승과 심해 생물의 포획과 처리가 가능한 선박을 이용한 바다짐승과 심해 생물 조업: 총 지출액은 77,386,321루블, 판매액은 106,306,000루블, 순 이익은 21,978,956루블로 예상됨. 따라서 수익성은 21%.

- 연안 조업: 총 지출은 2,643,359루블, 판매액은 3,355,575루블, 순이익은 541,284루블로, 수익성은 16%.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는 방안은 세 번째일 것이다.

다) '험피 새우 순살가공 라인 설립' 투자 프로젝트

이행자: 연방정부 단일기업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TINRO-Center)

• 개발에 대한 개략적 소개(참신한 점, 우월한 점, 경제적 효과성)

새우는 현대 어업에서 가장 인기있는 어종 중 하나다. 새우를 원료로 하는 제품은 비싼 식품 중 하나로 꼽힌다.

험피 새우는 북부 어류종 대량으로 잡히는 품종에 속하며, 최근에는 약 5천 톤 정도가 잡히고 있다. 작은 크기의 경우 가공이 어려워 타 어종에 비해 경쟁성이 떨어진다. 간혹 기술이나 영양지표에 따라서 경쟁성을 갖기도 한다. 험피 새우 가공 과정 기계화를 통해 새우 조업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의 본질은 하루에 10톤 가량의 원료로써 생산할 수 있는 기계화된 라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가 더욱 작은 새우(크릴새우 같은 새우)를 식품으로 가공법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 라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릴새우의 가공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라인의 경우 크릴새우 비축량을 이용하기 위한 산업에서 널리 쓰인다.

① 유사한 것들과 비교

새우의 선별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가공원리는 유체역학적인 가공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사한 방법은 없다.

② 제품 활용 분야

앞에서 제안된 라인은 바다와 연안이라는 두가지 안으로 발전될 수 있다. 중형 저인망(트롤) 냉동 어선 같은 선박에서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라인은 반드시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생산라인을 컨테이너에 배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 지적소유권 대상 목록

순수한 고기를 얻는 원칙은 저작권 인증서(№738217 МКИ А22С 24/02,1979; № 982213 МКИ А22С 29/02 1981.)에 보장된다.

현 단계(사업계획이 있고, 시장조사가 되어 있으며, 실험이나 경험에서

언은 사례들이 존재하고, 시험생산이 가능한)에서의 개발보장: 현재까지 연구 및 개발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R&D 단계에서 설계문서도 작성되었고,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계획도 마무리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요구되는 투자는 25만 달러에 달한다. 비용회수기간은 3년이다.

라) 투자 프로젝트: 수산물 양식 생산시설 건설

이행자: 연방정부 단일기업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

① 프로젝트 설명

해조류 모종 수확을 위해 고안되었다가 미완공된 채 남겨진 복합단지의 건물과 시설을 프로젝트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단지는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의 관리하에 있다. 근해수역은 '태평양수산업 과학연구센터'의 연구용으로 활용된다. 이 수역은 오래전부터 해삼과 가리비를 비롯한 현재는 소량만 존재한다고 알려진 기타 무척추 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이런 류의 생물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문적인 조합(전문 부서)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형성하는 공장식 양식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전문 조합의 1,444m² 규모로 어린 해삼 생산을 위해 쓰이는 부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 생산규모는 1,120만개의 어린 해삼을 다루는 정도이다. 어린 해삼의 일부는 자사의 양식을 담당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된다. 나머지는 연안 수역에서 상품용 해삼을 얻기 위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② 유사한 것들과 비교

현재 해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품목 중 하나이다. 해삼 양식은 중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해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삼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들과 그 품질에서 차이를 가지므로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이 때문에 중국 내 불법 유통시키기 위한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③ 제품활용분야

해삼은 대개 다양한 형태의 고급 식품의 재료로 반가공되어 건조된 형태로 이용된다. 내장을 제거한 살 부분과 내장으로 만든 약제가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해삼으로 만들어진 식품은 없다. 해삼으로 만든 약제와 레스토랑의 메뉴는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다.

‘태평양수산업 과학연구센터’는 수역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건물을 갖춘 2헥타르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어린 해삼을 양식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장비는 파악된 상태이다. 생산능력에 대한 계산과 설비명세서(금액)가 남아 있다. 어린 해삼을 얻기 위한 지침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필요한 투자는 프로젝트 비용 6,030만 루블이다.

④ 개발 비용 회수기간

어린 해삼을 상품으로 수확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매출은 매년 330만 루블에 달할 것이다. 해삼을 수확하는 데 드는 비용회수기간은 64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내부수익률은 27.7%이다.

마) ‘루체고르스크 마을 철갑상어 양식장 시설 설립’ 투자 프로젝트

① 일반 정보

- 기획 기업: 연방국가 단일기업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
- 프로젝트명: 루체고르스크 마을 철갑상어 양식장 시설 설립
- 프로젝트 진행 장소: 연해주, 루체고르스크 마을
- 분야: 어업생산, 양어
- 투자 금액: 1억 2천만 루블
- 투자 형태: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와의 조인트벤처(합작투자)를 목적으로 장비와 재료, 기술을 제공하는 것

② 프로젝트 설명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는 루체고르스크 마을에 철갑상어와 고급 담수어의 양어를 위한 실험양식장(실험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양식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어 과학 연구소의 일부이다. 이곳은 극동에서는 유일하게 다양한 종류의 철갑상어와 아무르의 어류상중 기타 희귀종의 치어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의 실질적인 역할은 철갑상어와 관련있다. 높은 온도에서 개발기술에 따라 자연상태 보다 6~10년 빠르게 철갑상어를 이용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양식장에서는 연간 50톤의 철갑상어를 생산하고 있다.

철갑상어의 암컷은 일생 동안 100kg의 캐비어(Black Cavier)를 낳는다. 양식장의 현대화는 캐비어를 주요 제품으로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편과 양식장의 재료와 기술의 기반을 쇠신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은 연간 10톤의 캐비어를 얻는 것이다.

투자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연방과 해외에 철갑상어와 캐비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 건설
- 내수시장으로의 상품 판매와 상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기업 설립
- 급속냉동 식품을 포함하여 완제품 출시와 원료 가공을 위한 기업 설립에 필요한 조건의 사전 준비
- 러시아 연방의 극동지역에 있는 양어 기업의 제품인증과 기업인증을 담당할 지원센터 설립,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재교육

③ 투자자를 위한 재무 제안서

프로젝트의 발기인은 장비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조인트 벤처의 공동설립자 권리를 위해 재원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 투자액은 1억 2천만 루블이며, 비용회수기간은 96개월로 평가된다. 내부 수익률은 26%이다.

A. 기업 소개

A1.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의 최근 활동 개요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는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연방의 어업을 주도하는 과학 생산기관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과학연구 분과들과 연구(조사)합대의 기지, 해양생물 원재료를 가공하는 실험 생산시설, 양식장이 있다. 이 기업은 생존이 가능한 유용 해양 무척추 생물의 새끼를 공장식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과 유용 해양 무척추생물의 새끼를 얻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해양생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철갑상어 양식에 종사하는 회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는 계획하고 있는 규모의 양식장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건물과 시설 또한 갖추고 있다. 연구 인력들은 2002년부터 철갑상어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물과 그 생물들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연구와 생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상품은 내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A2. 투자 산업 개요

계절과 상관없이 산란기의 무리들을 처리하기 위한 인공부화-양식 복합단지의 확장, 생활 및 생산연구 공간 건설, 생선제품의 출시량을 연간 100~120톤까지 증가시키고 매년 10톤의 캐비어를 얻음으로써 가동 중인 양식장의 철갑상어 양식라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A3. 상품, 소비자, 시장

현재 철갑상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러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중산층과 중산층에 가까운 인구층)의 밀렵 제품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하락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높은 품질을 갖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태평양수산업과학

연구센터'의 설립에 참여하고, 식품, 기술품, 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의 생산에서 수준 높은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최종제품의 개발과 출시, 판매에 대한 최근 경향을 탐색함으로써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4. 기업 설립의 장점과 단점, 위기와 기회

기업설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의 파일럿 성격: 현대양식 철갑상어 생산시설은 첨단기술로 행해지며, 이 시설의 건설과 운영(가동)은 일정한 과학기술 능력('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가 갖춘 것과 같은)을 요구한다. 이 능력은 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 있는 비핵심 기업들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경험과 기술적인 해결능력, 상품의 몇 가지 종류(예를 들면, 유충으로부터 치어로 양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생산 사이클을 가진 기업에 원료로서 팔릴 수 있는 치어)는 새로운 양식회사의 설립, 혹은 다양한 기술적인 사이클을 갖춘 기업의 시스템 내 생산 협력의 범위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철갑상어 양식 기업 설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 소재에 적당한 장소의 선택은 반드시 생물학적, 기술적, 경제적인 요구사항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생산시설을 설립하기에 좋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이 많은 연해주에 자리를 잡는다면, 거주와 장비 배달, 노동력확보와 물과 에너지원에 대한 계약과 같은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는 위에 언급된 효율적인 선택의 요구사항에 대부분이 부합되는 부지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A5. 기업의 조직구조와 재무 기록

조직구조는 형성 단계에 있으나 재무 기록은 없다.

B. 기업의 향후 활동 개요

B1. 프로젝트의 전략

프로젝트의 개발과 시행은 두가지 종류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다음 항목의 제품 출시를 위한 효율적인 현대식 철갑상어 양식장의 설립한다.

- 철갑상어 알(식용 캐비어)
- 철갑상어 수정란
- 개인적 필요나 양식을 위한 철갑상어 치어 생산
- 상품용 생선과 생선 가공식품의 생산
- 이런 방식으로 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식용, 기술용 및 약품용 원료의 공급처를 만든다.

해당기업에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업망을 만들고 특별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신생기업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내외 대중매체에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회사를 만들 것도 권장하고 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회사는 출시되는 상품의 환경적 상업적 고유성에 대한 보증으로 ‘태평양수산산업과학연구센터’의 상표뿐 아니라 대형협력사의 상표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의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번식용 암컷의 유지관리 및 상품 생선 양식을 위한 폰툰⁹⁾ 라인의 확대
- 인공부화-양식 복합단지 확장
- 생산시설 건설
- 부대시설 건설
- 사료생산량 증가

양식량의 확대 기간은 대략 3년 정도로 예상되고, 생산 복합단지 건설은 약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 폰툰(Pontoon):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바다 위에 인공적으로 설치해놓은 부선.

B2. 식용캐비어의 판매 전망

식용 캐비어의 생산을 위한 상품용 생선을 수출용 가격에 맞추어 매년 다음과 같은 규모(톤)로 양식할 계획이다.

부록 표 7 식용캐비어용 생선 양식 계획

(단위: 톤)

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캐비어	3.46	4.5	7	9	11	12

자료: 저자 작성

C. 필요한 투자

C1. 프로젝트의 총 예상비용

철갑상어의 양식과 가공을 위한 생산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매년 상품용 생선 100~120톤, 캐비어 10톤에 달하는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공부화-양식 복합단지, 정수장치, 부대시설, 1억 2천만 루블에 달하는 투자금액의 조달이 필요하다.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는 기업의 설립을 위해 총 1억 4천만 루블의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과 노하우를 투자하고 있다.

C2. 자금의 활용

기업의 계획안에 따르면 투자 재원을 다음 분야로 할당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준비와 합의
- 장비의 구매와 배송
- 재료의 구입과 건설-설치 작업수행
- 초기에 필요한 양식재료의 구입과 정착
- 조직의 공통 경비

C3. 제안된 자본구조

유치금액: 1억 2천만 루블

‘태평양수산산업과학연구센터’의 투자금액: 1억 4천만 루블

C4. 자금조달의 방법과 조건

투자에 1억 2천만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당한 형태는 루블이나 달러로 받는 용자(차관)이나, 장비와 운영자본을 직접 조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C5. 프로젝트 효율성

순수의 평가에 따르면 투자 금액은 5년내 완전히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회수 기간 96개월

할인회수 기간 109개월

(각 안에 따른) 수익성 지수(루블) 1.15~1.25

내부수익률 26%

바) 어시장 조성 프로젝트

어시장 조성을 위해 제안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하루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 공간
- 공공급식 기업이나 소매, 소규모 도매를 위한 신선코너의 품질 좋은 반가공식품을 출시하기 위한 생산시설
- 시장의 복합단지 방문객과 주변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급식 사업활동. 시장 제품으로 만든 음식을 기반으로 구성된 메뉴
- 시장 복합단지의 부두에 기반을 두고(혹은 정박하며) 연안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3~4척의 작은 어선
- 시장과 시장고객(시장 복합단지 밖에 있는 소매점과 중소 도매업자, 공공식당 운영기업)간의 물류를 담당하는 냉동차를 위한 주차장
- 이동성이 낮은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의 다양한 지역

과 인근 도시와 도심화된 마을의 판매망은 종업원 3~4명 규모의 크지 않은 상점과 종업원 5~6명 규모의 공공급식 기업 4~5개로 예상된다.

투자 요구사항

프로젝트 진행에서 첫 해에 고정자본과 운영자금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부록 표 8 고정자본 투자비용

투자	수	비용	계
부지 매입과 복합단지 건설	1	90,000,000	90,000,000
양식장 설치(/설비)	2	1,240,000	2,480,000
상점 설치	3	1,437,000	4,311,000
식당(레스토랑) 설치	2	2,246,000	4,492,000
판매공간 설비	1	4,500,000	4,500,000
냉동설비	33	300,000	9,900,000
소형 예인망어선 구입	3	47,000,000	141,000,000
냉동 운송기구 구입	3	800,000	2,400,000
계			259,083,0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9 인력계획

명칭	수	급여	계
양식장 직원	8	18,000	144,000
상점 직원	9	18,000	162,000
식당 직원	12	20,000	240,000
시장 직원	35	18,000	630,000
기술 직원	10	22,000	220,000
선박 직원	21	35,000	735,000
계	95		2,131,000

자료: 저자 작성

부록 표 10 손익계산서

(단위: 루블)

항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매출액	7,236,773	85,743,646	121,472,971	123,762,712
순매출액	7,236,773	85,743,646	121,472,971	123,762,712
재료 및 부대 비용	751,571	2,254,714	2,254,714	2,254,714
직접 비용 총액	751,571	2,254,714	2,254,714	2,254,714
매출 총이익	6,485,202	83,488,931	119,218,256	121,507,998
법인세	2,073,280	4,041,266	3,420,651	2,800,036
관리비	50,847,458	50,847,458	50,847,458	50,847,458
관리요원 급여	28,625,160	28,625,160	28,625,160	28,625,160
고정비용 총액	79,472,618	79,472,618	79,472,618	79,472,618
상환액	12,499,183	25,955,053	25,955,053	25,955,053
비생산비용 총액	12,499,183	25,955,053	25,955,053	25,955,053
기타 비용	1,737,163	3,482,800	3,482,800	3,482,800
전분기 손실		89,297,043	29,462,805	
세전 이익	-89,297,043	-29,462,805	6,887,135	9,797,491
세후 이익				9,797,491
소득세				1,959,498
순이익	-89,297,043	-29,462,805	6,887,135	7,837,993
총매출액	123,762,712	123,762,712	123,762,712	123,762,712
순매출액	123,762,712	123,762,712	123,762,712	123,762,712
재료 및 부대 비용	2,254,714	2,254,714	2,254,714	1,503,143
직접 비용 총액	2,254,714	2,254,714	2,254,714	1,503,143
매출 총이익	121,507,998	121,507,998	121,507,998	122,259,569
법인세	2,179,421	1,633,161	1,471,138	1,366,312
관리비	50,847,458	50,847,458	50,847,458	50,847,458
관리요원 급여	28,625,160	28,625,160	28,625,160	28,625,160
고정비용 총액	79,472,618	79,472,618	79,472,618	79,472,618
상환액	25,955,053	14,350,759	2,666,667	2,666,667
비생산비용 총액	25,955,053	14,350,759	2,666,667	2,666,667
기타 비용		3,482,800	1,745,637	

부록 표 10 계속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분기 손실				
세전 이익	10,418,106	24,305,823	37,897,576	38,753,973
세후 이익	10,418,106	24,305,823	37,897,576	38,753,973
소득세	2,083,621	4,861,165	7,579,515	7,750,795
순이익	8,334,485	19,444,659	30,318,061	31,003,178

자료: 저자 작성

4. 외국 및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규모확대 저해 요인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1) 서문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보고서는 2011년 말 블라디보스톡 소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블라디보스톡 소재 한국기업과 외국 외교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무역공사와 한국외교통상부에서 출판한 러시아 투자환경에 관한 자료들을 참조했다.

연구 결과 및 반응

외국 외교 대표들과 블라디보스톡 소재 외국(자본) 참여 기업들은 극동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승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와 러시아의 WTO 가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극동이 러시아 지역 협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동시에 외국 외교 대표들과 기업인들은 러시아 지도층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러연방 지도층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였는데 이는 2011년 러연방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10가지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투자환경 개선 프로젝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1. 러시아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고 해당 주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2.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것
3. 투자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
4. 외국인투자 및 여타 위원회를 구성할 것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정부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사한 노력은 순차적이고 항시적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2) 외국인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가) 공통적인 원인

외국인투자자 지원 부재

- 잠정적인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 공동 비즈니스 상담 및 여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부재
- 극동에는 현재까지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가 없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 외국인투자 자금 보호 시스템의 불완전성
 - 분쟁 발생 시 기업은 법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나, 대부분의 경우에 패소한다.
- 건설에 투자한 자본 및 기타 자본 회수 보장 부재
-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 업무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의 부족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

법률

- 국경인접지역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한
 -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공장, 거주지, 기타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린다.
- 복잡한 법률 시스템, 법률간 상호 부적합성, 잦은 법률 변경

통관 절차

미국, 독일, 영국은 3%만을 검사하는 데 반해 (러시아에서는) 44%의 화물을 세관에서 검사한다. 제품 수출에는 8개의 서류가, 수입에는 13개의 서류가 요구되는데 이는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문서의 2배가 넘는 분량이다. 외국기업의 0.5%만이 단순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신고물품 가액이 러시아 세관 책정 금액과 상이할 경우 세관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러시아 세무 공무원의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허가 승인

- 적절한 기관에서 기업설립 허가를 받는 절차
 -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회사 등록에 관한 증명서들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많은 기타 서류들이 요구된다.

건설 승인 획득 절차

일부 농산물 관련 기업은 미곡분쇄 설비 혹은 일정기간 농산물 저장을 위한 병커 사일로 건설 허가를 기다리는 단계에 있다.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낭비되는 시간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며, 이는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

외국인의 러연방 출입국

- 노동허가증 및 노동비자 취득의 어려움

- 만약 신청서의 기한이 이전 해에 끝난 경우, 일을 시작하려고 한 연도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 2회의 행정 위반이 있는 경우 초청장 및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다
-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 비자 취득 시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교통경찰들이 외국인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 운전면허와 자동차 등록증이 비자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비자 재등록 시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를 매번 재발급받아야 한다.

나)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이 겪는 문제들

농업

수출허가 획득과정의 복잡성

- ‘Unize’사는 약용식물 ‘큰잎 황금(黄芩, skullcap arrowhead)’을 수출하려고 하지만 3단계의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수년간 제품 수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 한국으로 건초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농림감독부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양자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서에 대한 서명이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다.

농업 보조금 지급

- 주(州) 행정당국이 농업 보조금 지급규정에 관해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농업 보조금 수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의한 농지 구입 제한
 - 농지 구입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의 지분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농업 투자 확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 장비 수입

많은 경우 농기구가 전쟁물자로 분리되어 세관통과가 불가능하거나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러시아에 없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품질증명서를 제시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장시간이 소요된다.
- 폭발물이 의심되는 혼합비료의 수입 시 절차상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건설

건설업과 관련하여 외국계 기업은 독자적인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러시아 하청 기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주거공간 혹은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배관, 하수도, 전력공급, 도로 건설 등 기타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특정 기관으로부터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며 비용 예측도 어렵다.

- 유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서비스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 * 한국에 적용된 건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 한국에서는 (주거시설, 공장, 기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지정하는 즉시 해당 혹은 여타 대상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배관, 하수도, 전력공급, 여타 인프라를 구비한다.
- 현재 러시아에서는 토지 용도 지정 후에 건설주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운송

극동지역에는 대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부족하며, 철도를 따라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운송비 증가를 가져온다.

다) 개선과 제안

단기 과제

투자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 실시

극동지역 소재 러시아연방 대통령 전권 기관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정확한 분석과 문제 해결을 목표로 상황을 연구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단일 서비스 센터의 설립

연방의 각 주체는 투자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발급,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연방의 각 주체는 정부 산하에 외국인투자자들과 지역기업(투자자들)간 분쟁 발생 시 법정 재판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의 활동

(외국인 사업가, 외교기관의 대표자, 지역관청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자문위원회 회의를 월 1회 혹은 분기별 1회 개최를 검토해야 한다.

장기 과제

외국 전문가들의 컨설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경험 교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과거 고위관직에 있었던 공무원들, 사업가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개발연구원이 상황을 분석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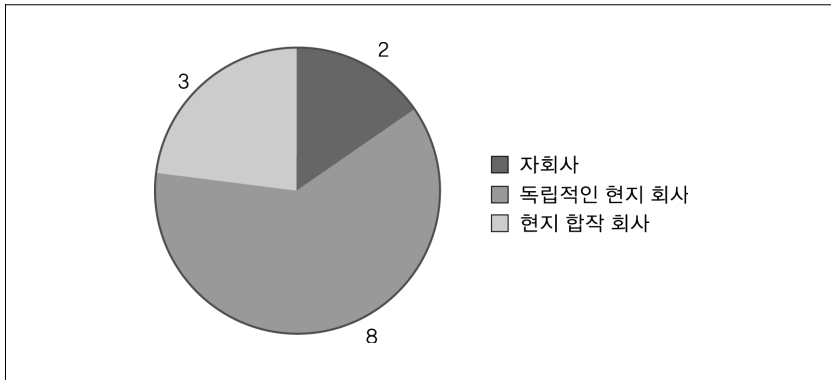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한 외국기업의 2012년 말 설문조사 결과)

I. 참여기업 정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한 13개의 외국(중국)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여기업 중 소속지역 분류에 따르면 독립적인 현지기업이(8개 회사, 62%) 대다수를, 기업 규모에 의하면 중국의 중소기업이(10개 회사, 77%)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 9개 회사(69%)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부록 그림 27, 28, 2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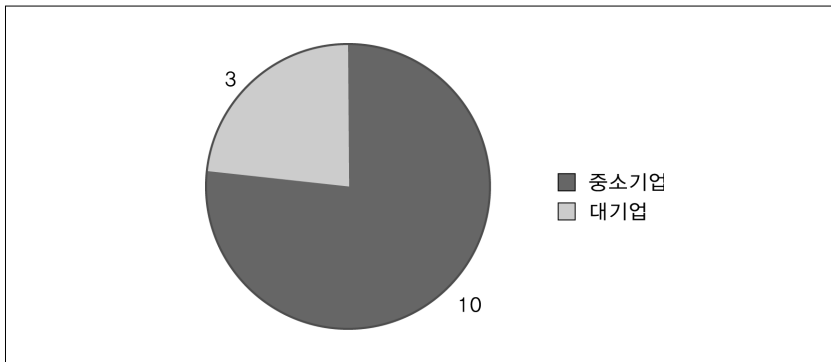
부록 그림 27 비즈니스 소속지역에 따른 설문참여 기업의 구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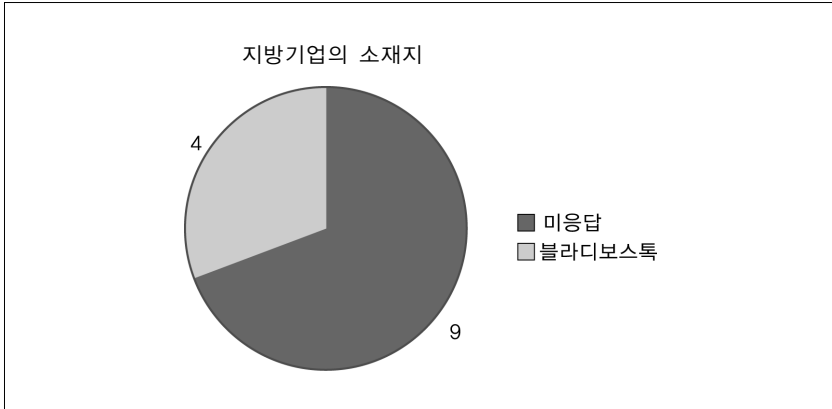
부록 그림 28 기업 형태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의 구분

(단위: 개)



부록 그림 29 본사 소재지에 따른 설문응답 기업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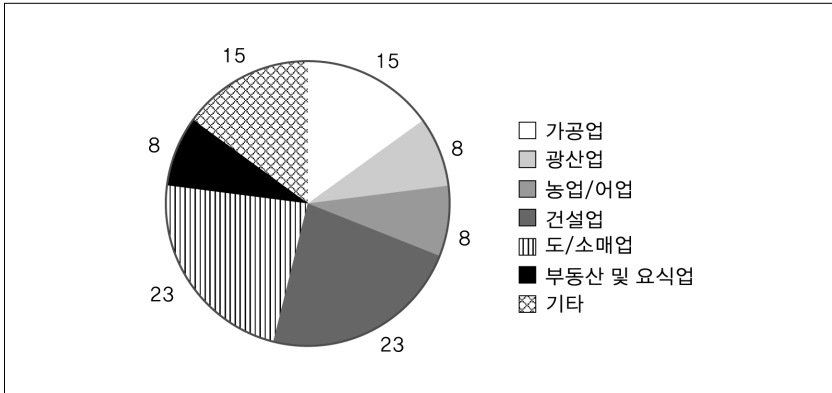
(단위: 개)



비즈니스 분야별로는 설문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도/소매업, 가공업 특히 벌목, 목재가공업(각각 23%, 15%)에 종사하며, 광산업, 농수산업이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8%), 기타 건설업,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부록 그림 30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분야별 설문 참여기업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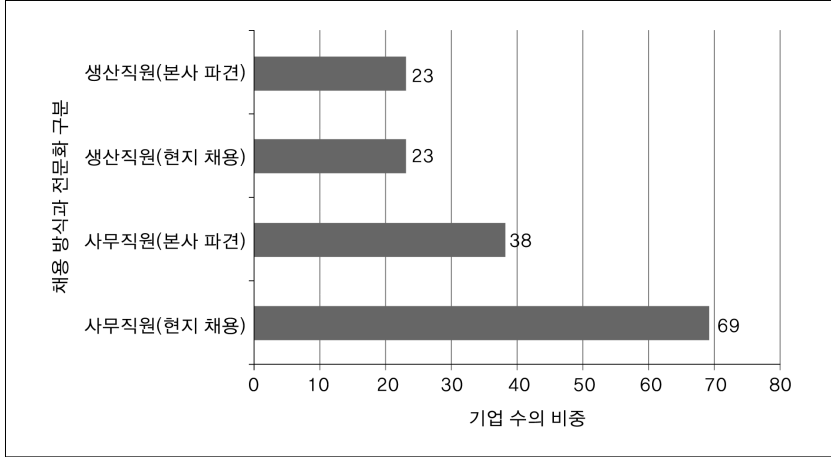


직원 수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설문 참여기업의 대다수인 46%가 소기업, 8%가 중견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6%가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참여기업들을 비즈니스 규모별로 나누는 것은 불가

능하다. [부록 그림 2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설문응답 기업들은 사무직원(69%)과 생산직원(23%)에 현지인력을 채용했다.

부록 그림 31 직원 채용 방식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의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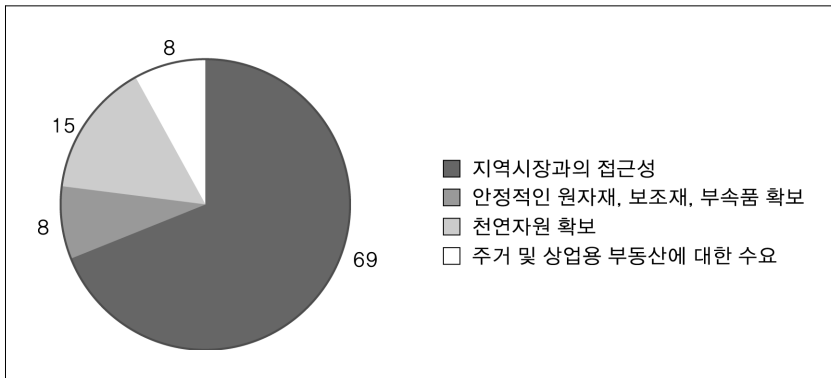


II. 회사 설립 동기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동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설문 참여기업은 지역시장과의 접근성을 주요 동기로 꼽았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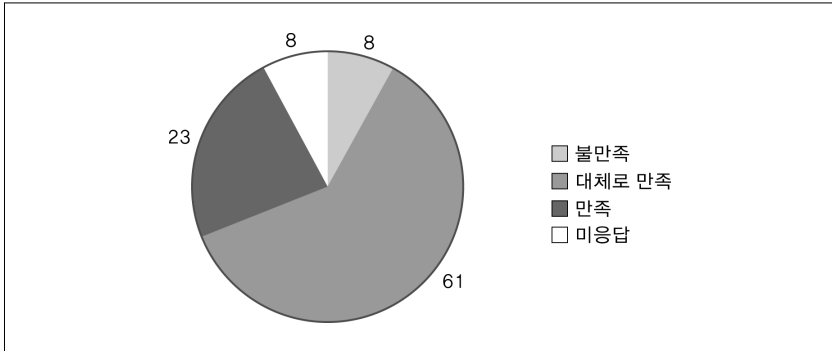
부록 그림 32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동기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의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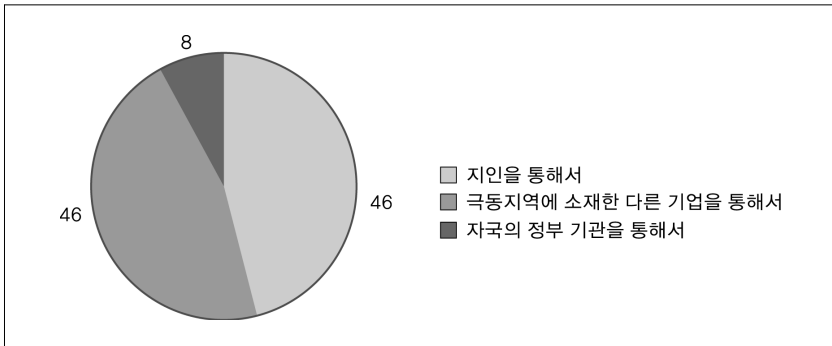
그리고 절대다수의 설문 참여기업이 극동지역에서의 회사 설립과 자신의 판매 실적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84%, 부록 그림 33 참고).

부록 그림 33 극동지역에서의 사업 시작 및 판매실적 만족도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의 구분 (단위: %)



설문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자신들의 기존 경험과 이미 러시아 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험 및 제안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국의 정부기관, 컨설팅 회사, 현지 러시아 기관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혹은 전혀 러시아 내 사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제공의 원천이 되지 못하였다(부록 그림 34에서와 같이 자국의 정부기관 및 러시아 현지 기관은 각각 8%, 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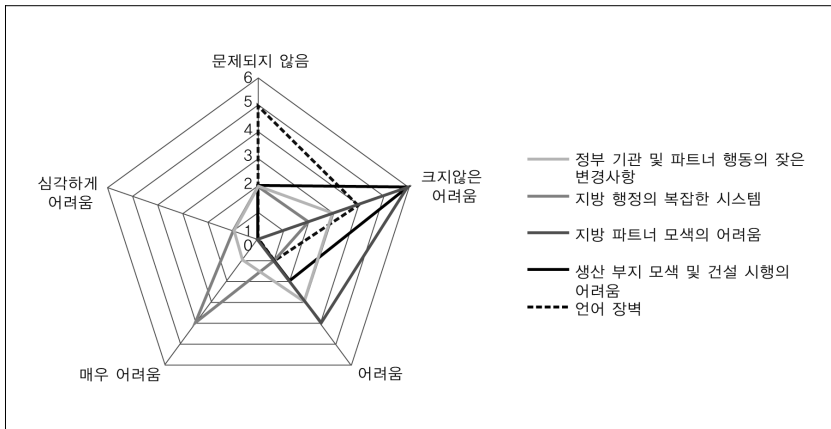
부록 그림 34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 시작 시 설문 응답기업이 이용한 정보 제공처 (단위: %)



외국기업이 러시아 극동지역 시장 진출 시 부딪치는 가장 큰 난관은 지역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이다. 설문 참여기업은 대수롭지 않은 어려움으로 지역 파트너와 생산부지의 모색, 건설의 시행 등을 꼽았으며, 언어장벽은 외국기업 현지시장 진출의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부록 그림 35 참고).

부록 그림 35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전 설문 참여기업이 경험한 어려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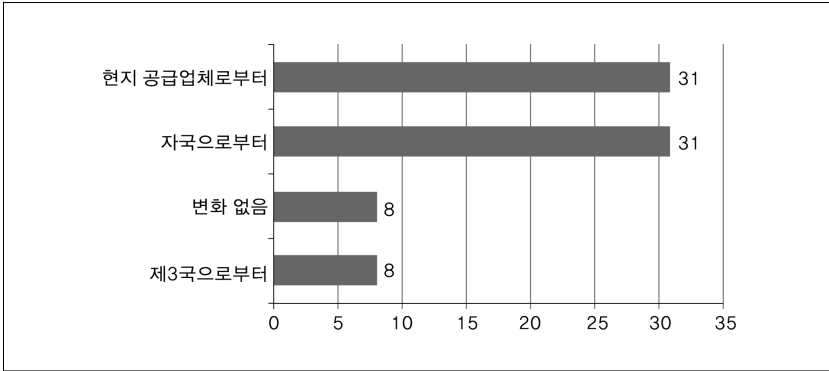


III. 구매 구조/원자재 확보

제조업체를 위한 원자재 구매 확대와 다른 기업을 위한 물품구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기업들은 현지 및 자국업체로부터 동일한 수준인 31%를 각각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록 그림 36 참고).

부록 그림 36 최근 회사에 필요한 자재 주요 공급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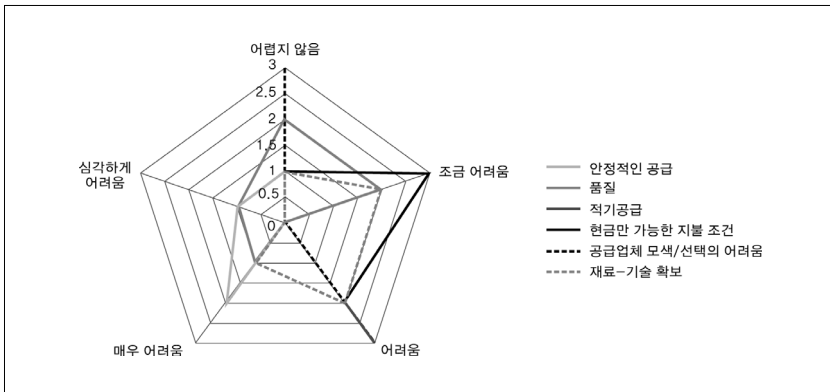
(단위: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원자재 및 보조자재 구매 시 외국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원자재와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확보의 문제이다. 설문 참여기업은 ‘어려움’, ‘조금 어려움’ 항목으로 적기 공급의 준수, 지불 조건을 꼽았다(부록 그림 37 참고).

부록 그림 37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모든 제품의) 원자재/부속자재 구매 시 설문 참여기업이 겪었던 어려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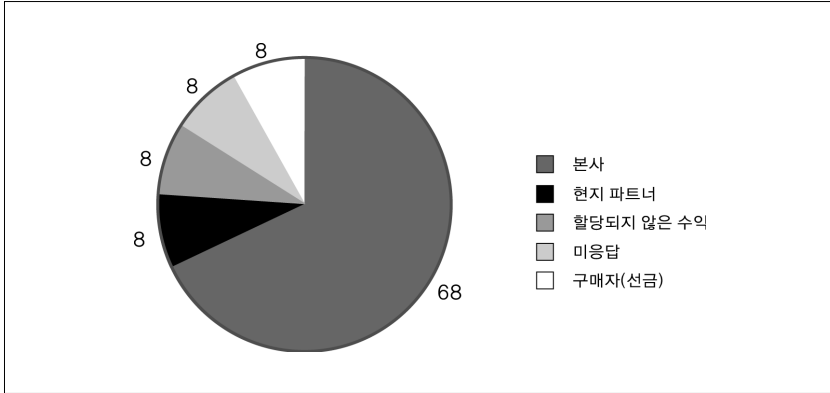
IV. 재정

러시아 극동지역의 설문응답 외국기업 대부분이 본사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68%). 현지 파트너, 기업의 불특정한 수입, 구매자 및 고객으로부터

티의 선분이 동일한 수준의 재정원으로 자리한다(각 8%).

부록 그림 38 재정원에 관한 설문 참여기업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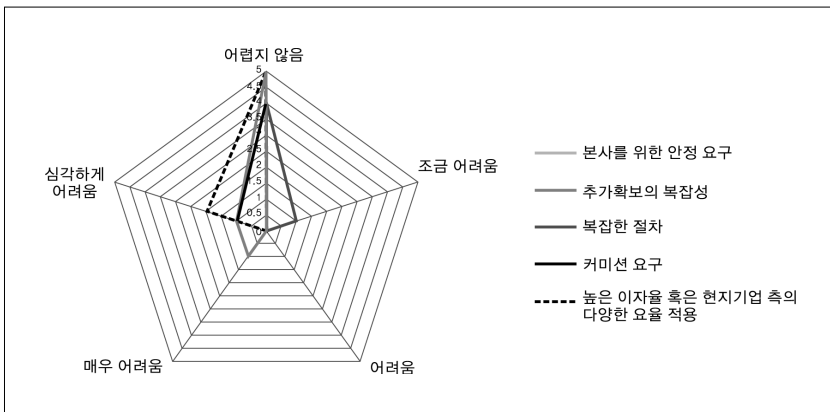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참여기업은 재정 확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커미션 요구와 높은 이자율 혹은 다양한 이자율 적용을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설문 참여기업들은 재정확보에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부록 그림 39 참고).

부록 그림 39 극동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위한 재정확보 시 설문 참여기업이 경험한 어려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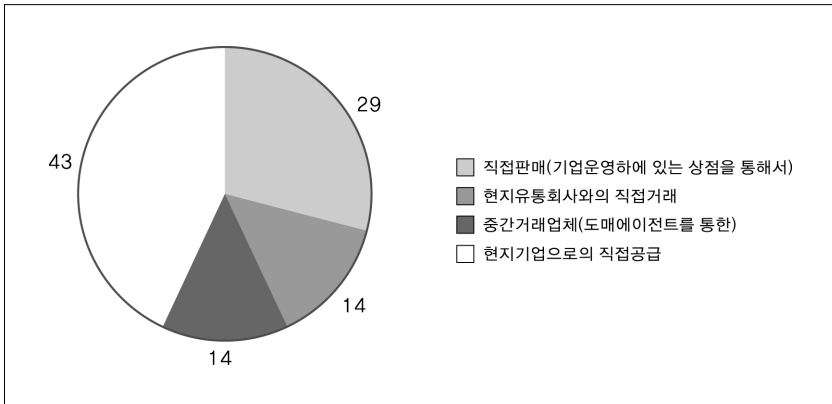


V. 판매, 사업 활동, 마케팅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설문 참여기업의 62%가 사업의 주요 경쟁자로 현지회사를 지목했다. 설문 참여기업의 23%는 그들의 브랜드 인지 수준이 '높거나'(15%) '충분히 높은 것'으로(8%) 밝혔다.

설문 참여기업의 31%는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현지시장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13개의 설문 참여기업 중 7개 회사만이 응답했다(54%). 응답한 회사 중 43%가 현지회사로 직접공급을, 29%가 (설문 참여기업의 운영 하에 있는 상점을 통한) 직접판매를, 14%가 현지유통회사와 (도매 에이전트를 통한) 중간거래상을 주요 판매채널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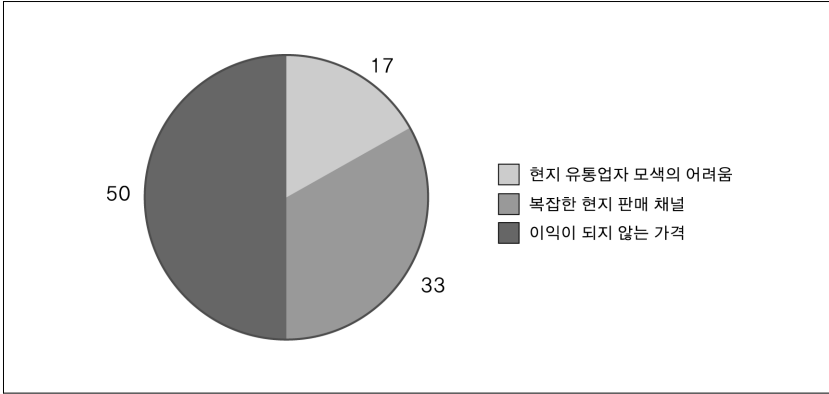
부록 그림 40 현지시장에서 설문 참여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주요 판매채널 (단위: %)



[부록 그림 41]에서는 설문 참여기업이(13개 회사 중 6개 사, 46%) 현지시장에서 제품 생산 시 부딪치는 두 가지 주요 문제점으로 부적절한 가격(50%), 복잡한 현지 거래 채널(33%)을 들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지 유통업자 모색의 어려움(17%)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록 그림 41 설문 응답기업이 현지시장에서 판매 시 경험하는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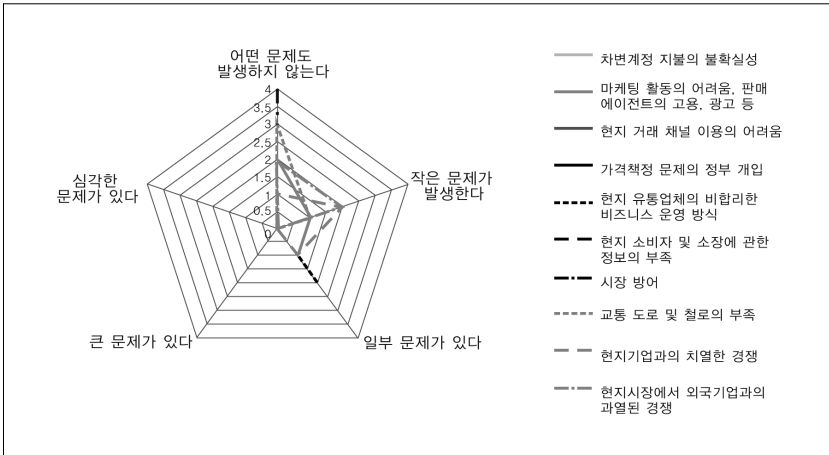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응답기업들은 현지시장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순위별로 [부록 그림 42]에서 제시하고 있다.

부록 그림 42 현지시장에서 판매 시 설문 참여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단위: 개)



‘큰 문제’, ‘심각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 ‘일부 문제가 된다’, ‘작은 문제다’로 현지 거래채널 이용의 어려움, 현지 유통업자의 불합리한 사업 진행 방식(각 2회 언급), 현지 소비자 및 시장에 관한 정보의 부족(2

회 언급)을 각각 지적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현지시장 판매 시 별도로 언급한 문제들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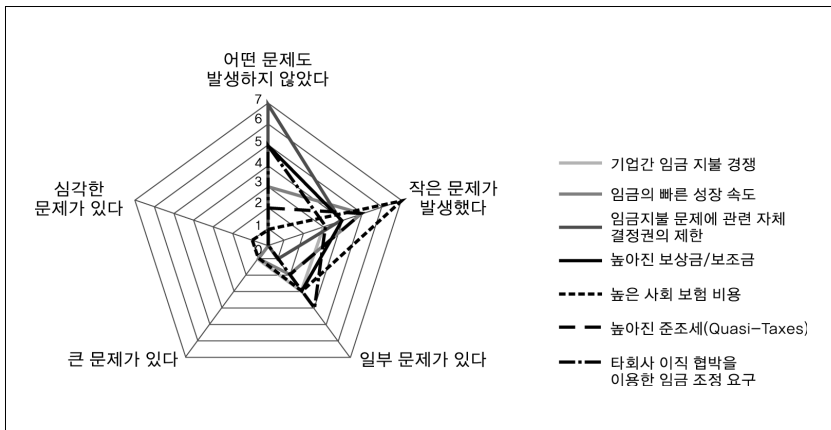
VI. 채용문제 및 임금 지불 조정

극동 소재 외국기업들은 지불과 관련하여 ‘크거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았다.

설문 참여기업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업간 임금 지불 경쟁, 높은 임금상승률 등을 들었으며, 이는 대체로 거시경제적 성격을 띠며 시장 흐름에 따른 문제이다. 기업들은 임금지불 문제의 자체적인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외국기업이 직면하는 ‘작은 문제’로는 높아진 사회보장 및 보험 비용을 들었다(부록 그림 43 참고).

부록 그림 43 임금문제 조정 시 설문 참여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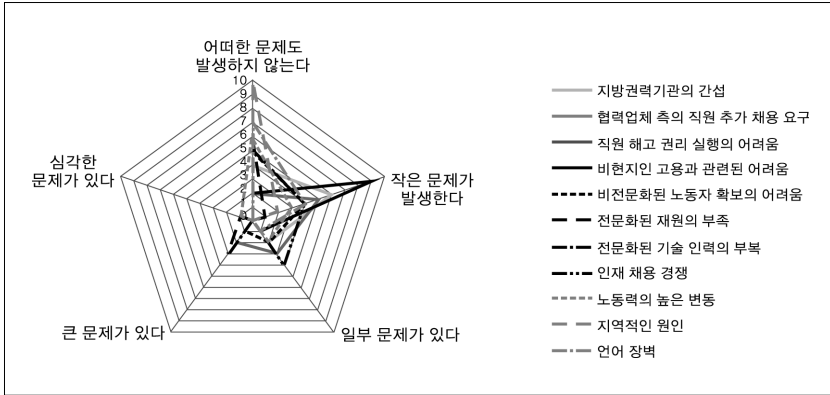
(단위: 개)



직원채용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3번에 걸쳐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로도 드러났다.

부록 그림 44 직원채용 조정 시 설문 참여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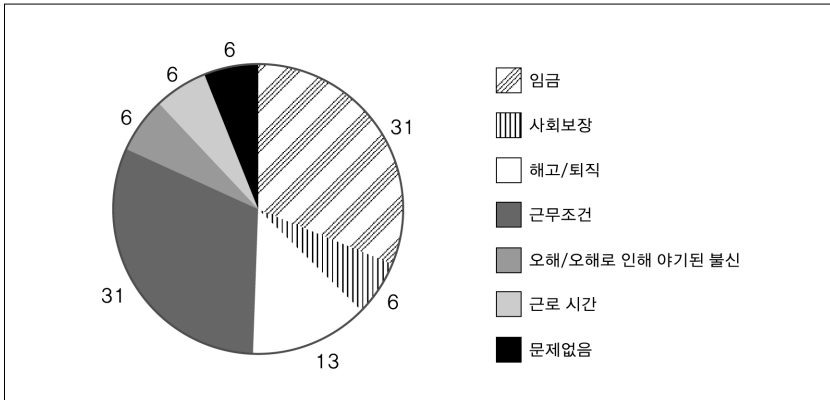


VII. 직원관리

사내에서 발생하는 노동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설문 응답기업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31%), 해고와 퇴직(13%), 사회 보장, 오해/오해로 야기된 불신, 그리고 근로시간(6%)을 꼽았다.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6%에 이르렀다(부록 그림 45 참고).

부록 그림 45 사내 발생하는 노동갈등의 두 가지 주요 요인 및 기타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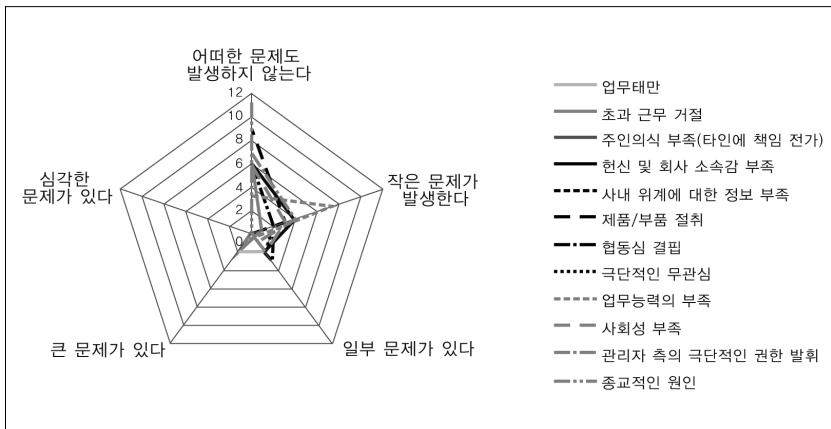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응답기업들이 현지 생산직원 관리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업무에 무관심한 태도, 초과근무 회피(2회 언급), 협동심 부족(3회 언급), 업무태만과 타인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극단적인 무관심(2회 언급), 사내 위계질서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1회 언급)를 언급하고 있다. [부록 그림 46]은 순위에 언급된 사항들이 사내에서 대체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록 그림 46 설문 응답기업이 현지생산업체 직원관리 분야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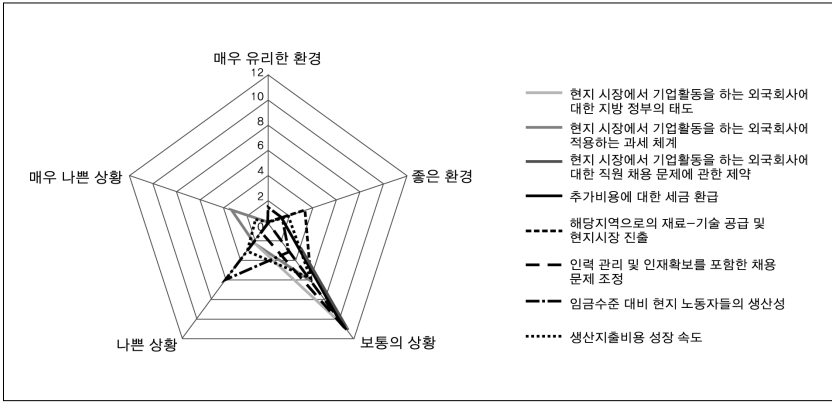


VIII. 해당지역의 경제상황

러시아 극동지역의 시장상황을 특징지을 때 설문 응답기업들은 지역 내 자신의 경제활동 경험에 기초하여 모든 업무활동에 대해 대체로 ‘보통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부록 그림 47a, 47b 참고). ‘매우 나쁨’이란 평가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와 현지 자본 조달 조건에 해당되었으며 (3, 4회 언급), ‘나쁨’이란 평가는 임금수준 대비 현지노동인력의 생산성, 현지 재정 조건 및 인프라 조건(각 6, 4, 4회 언급); ‘좋다’는 평가는 해당 지역으로의 재료-기술 공급, 현지시장 진출, 관리자에 대한 현지 인력의 태도, 노동조합의 활동 항목에 내려졌다(부록 그림 47a, 47b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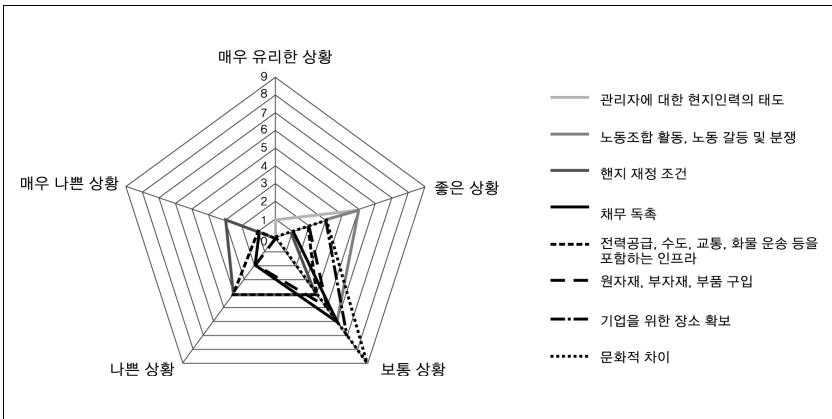
부록 그림 47a 지역 경제활동 경험에서 살피본 러시아 극동시장 상황에 관해 언급된 문제점

(단위: 개)



부록 그림 47b 지역 경제활동 경험에서 살피본 러시아 극동시장 상황에 관해 언급된 문제점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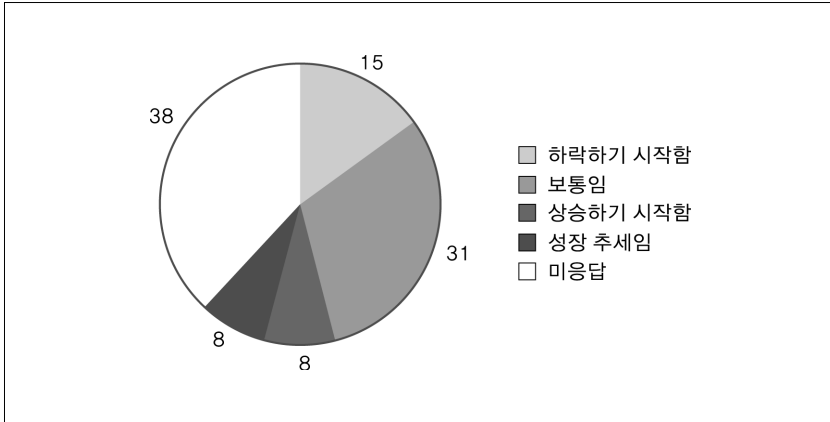


IX. 기업 활동의 효율성 및 발전 전망

설문 응답기업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판매와 순수익이 보통으로 평가되며(31%), 이는 [부록 그림 48]와 [부록 그림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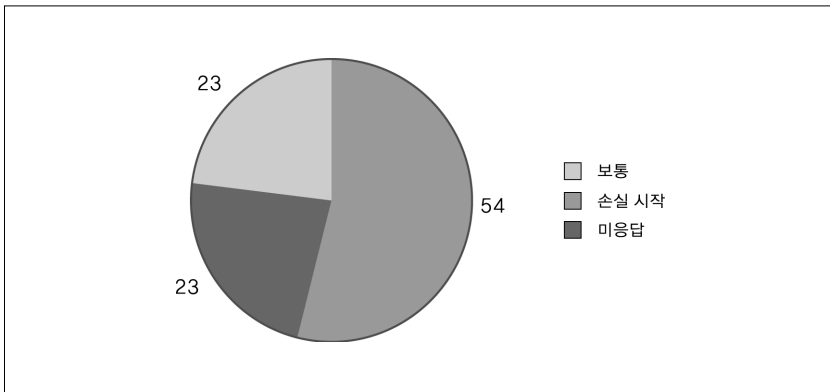
부록 그림 48 설문 응답기업의 판매실적 수준

(단위: %)



부록 그림 49 설문 응답기업의 순수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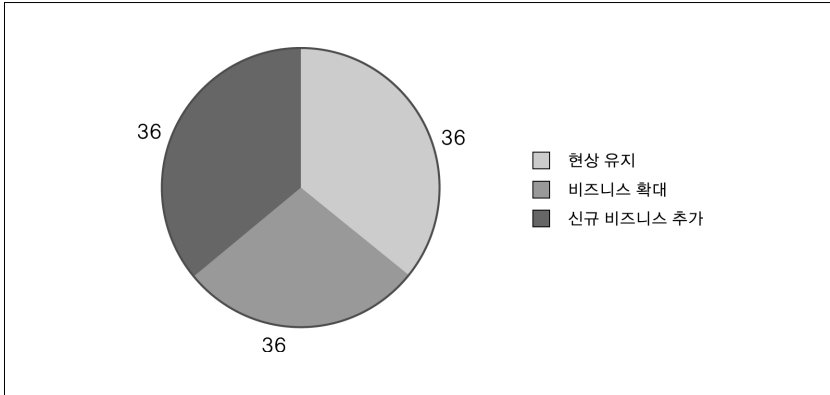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응답기업들은 발전 방향 측면에서 현상 유지와 신규 사업의 추가를 각각 36%, 사업의 확장을 26% 대로 보고 있다(부록 그림 50 참고).

부록 그림 50 설문 응답기업들이 본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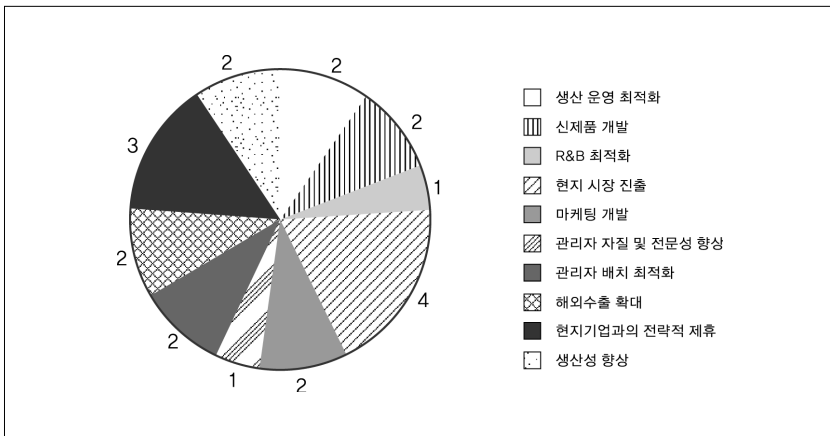
(단위: %)



설문지에 첨부된 사업 전략에서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현지 시장 진출(4회)과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3회)를 선택하였다. 나머지 모든 사업 전략들은 [부록 그림 51]에 있는 것과 같이 구분된다.

부록 그림 51 설문 응답기업이 선정한 두 가지 주요 사업 전략 외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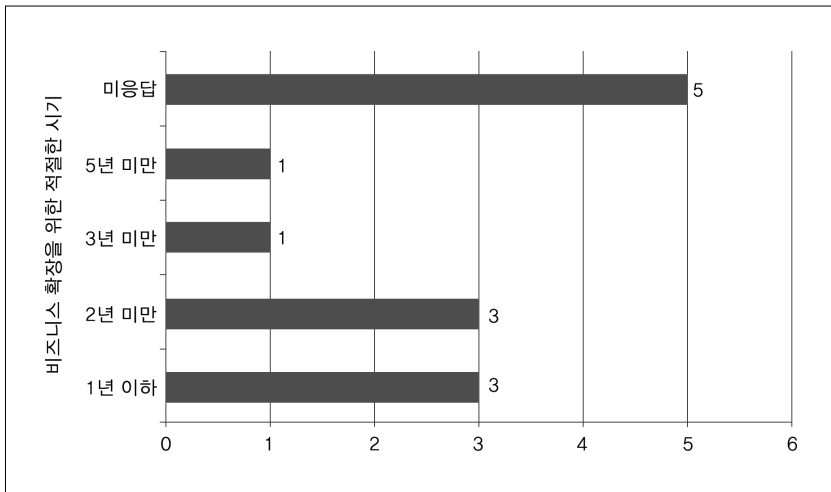
주요 제품 가격 상향 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기업 중 6개 기업만이 응답하였으며(46%), '중간 가격', '현 가격대 유지', '높은 가격'이라는 각각의 항목에 2표를 던졌다.

설문 응답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 정착을 위해 극동에서 전망있는 지역들로 블라디보스톡, 캄차카, 비로비드잔, 사할린을 꼽았다. 이들 지역은 한 표씩을 얻었다. 해당 지역 사업 발전을 위한 투자 의향에 관한 질문들에서 3개 응답기업이(23%) 부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였다.

사업 확장과 정착을 위한 보다 적합한 시기로 설문 응답기업들의 62%가 1~2년을 예상하였고, 이는 응답한 전체의견의 75%에 해당한다(부록 그림 52 참고).

부록 그림 52 사업 확장 및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기

(단위: 개)



어떤 사업 업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망한가에 관한 질문에서 설문 응답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1년 미만: 원자재 구입(1개 답변)과 건축(2개 답변)
- 1년 이상 5년 미만: 부동산(1개 답변)과 가축 사육(1개 답변)
- 5년 이상: 어류 및 해산물 가공업(1개 답변), 물류산업(1개 답변)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할 경우 각각의 카테고리에서(가공업, 서비스업, 기술분야, 천연자원 확보 및 이용 등) 어떤 유형의 사업이 전도 유망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서비스 분야라는 답변이 4개 채택되었다. 나머지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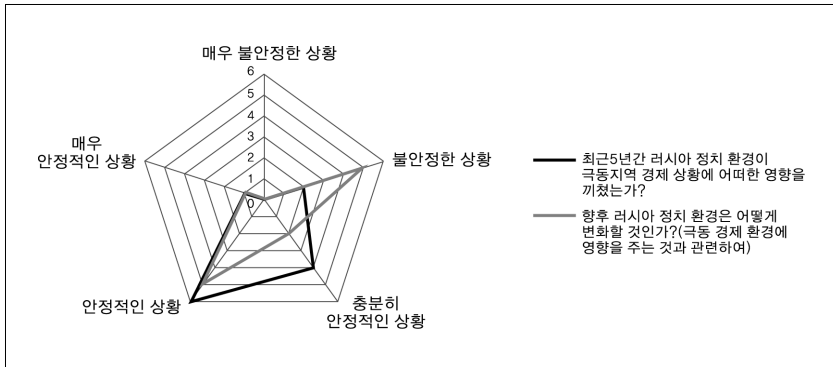
답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천연자원 이용에 관한 사업을 조직할 의향이 있는
 나에 대한 질문에는 세 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 중 한 응답기업
 은 ‘유용광물이 있다는 조건’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나머지 응답기업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였다.

X.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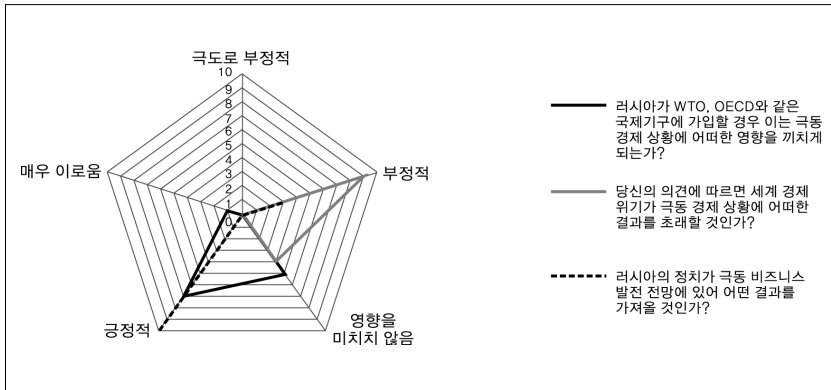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설문 응답기업
 들은 최근 5년간 지역경제에 대한 러시아 정치환경을 ‘안정적’이거나 ‘충분
 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향후 러시아 정치상황이 극동
 지역 경제상황에 영향을 준다는 맥락에서 [부록 그림 53a]에서처럼 극동지
 역의 경제상황은 ‘안정’과 ‘불안정’의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부록 그림 53a 러시아 정치 상황이 과거와 미래 극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



설문 응답기업들은 러시아가 WTO 와 OECD 와 같은 일련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극동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지방을 위한 국가정책의 긍정적 결과로 간주된다. 설문 응답기업들은 지역 경제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로 세계 경제위기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부록 그림 53b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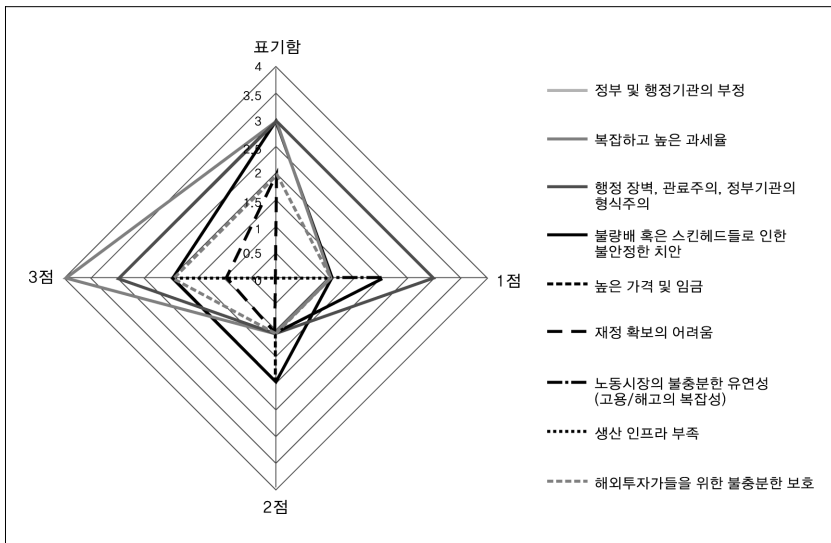
부록 그림 53b 러시아 극동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3등급으로 구분한 도표로 설문 응답기업들에게 극동지역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평가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 결과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3점) 복잡하고 높은 과세율, 행정 장벽,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불충분한 보호, 높은 가격과 임금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54 러시아 극동지역 내 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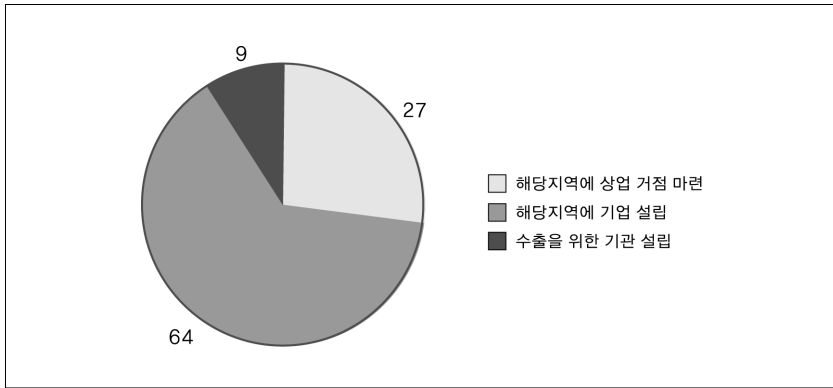
(단위: 개)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들은 ‘상황을 수용하고’, ‘이익을 떼어내 뇌물을 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극동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기업들은(64%) 해당지역에 아래와 같은 기업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사의 위치 이전(移轉) 안(案)에 대해서는 어느 한 응답기업도 제안하지 않았다(부록 그림 55 참고).

부록 그림 55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희망하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응답기업들의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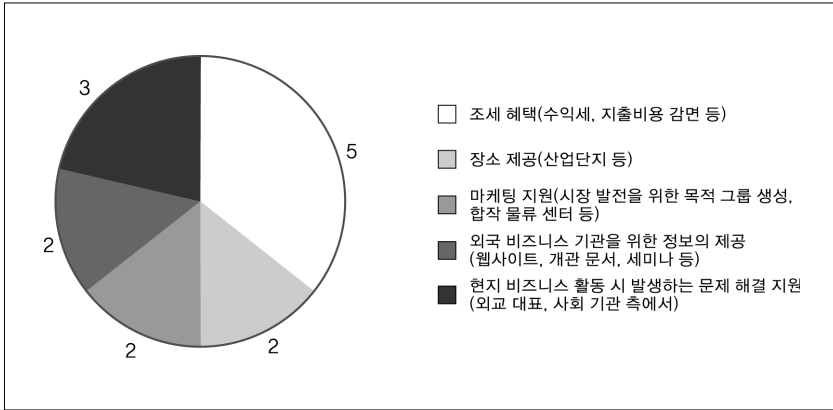


XI. 정부의 대책과 요구

설문응답기관들은 해외시장 진출 시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보다 일반적인 지원 방법으로 세금혜택(5회 언급), 외국기업들의 현지 사업 업무상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차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3회 언급)을 꼽았다. [부록 그림 56]에 나타난 나머지 다른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는 각각 2회씩 언급하였다. 재정 지원(현지 채용 및 기타 지원), 잠재 인력 개발 지원(교육 프로그램 등), 외교적 지원(투자 협상, 이중과세 면제에 관한 동의, 국가간 협약 및 기타), 컨설팅 서비스(외국인 투자자들과 관계된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컨설팅 서비스, 중/소기업의 지원 등)와 같은 사항들은 어느 한 설문 응답기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부록 그림 56 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혹은 공공기관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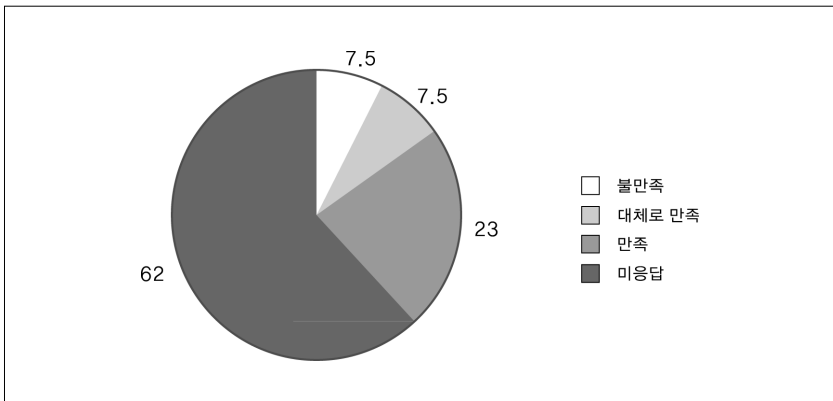
(단위: 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부록 그림 5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응답기업들 중 8개 기업이 (62%) 답변하지 않았으며, 4개 기업이(약 31%) ‘만족’,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한 개 회사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7.5%).

부록 그림 57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요청한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의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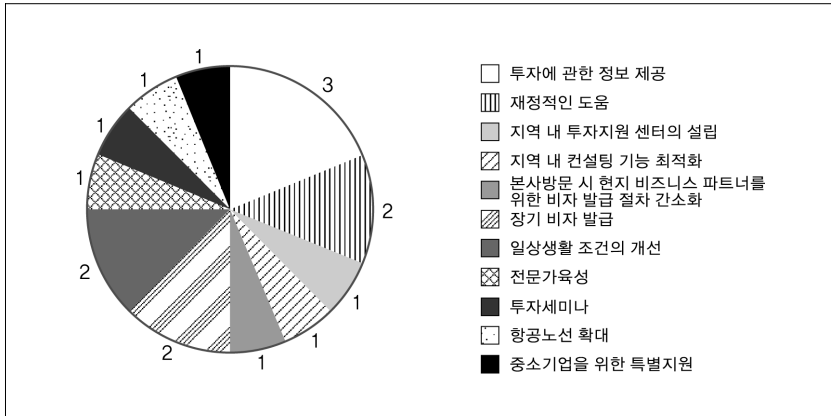
(단위: %)



기업의 본국 정부 및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의 지원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설문 응답기업들은 투자정보 제공(3회 언급), 재정적인 지원, 장기 비자 발급 및 거주조건 개선(각 2회 언급)을 주로 선택하였다. 응답기업들이 선택한 다른 대책들은 [부록 그림 58]에서와 같이 1회 언급을 초과하지 않았다.

부록 그림 58 외국 사업체를 위해 정부 및 국가기관들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사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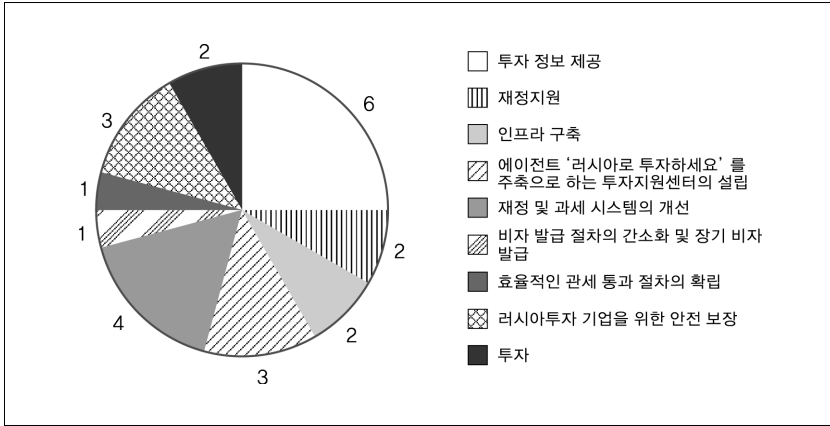
(단위: 개)



러시아 극동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이 러시아정부에 제안하고자 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항은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6회 언급), 재정 및 세금 시스템의 개선(4회 언급), 러시아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안전보장, ‘러시아에 투자하세요’라는 에이전트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 지원 센터의 설립(3회 언급)이었다. 나머지 언급된 의견들은 [부록 그림 59]에 나타나 있다.

부록 그림 59 투자 유치를 위해 러시아정부에 제안하는 의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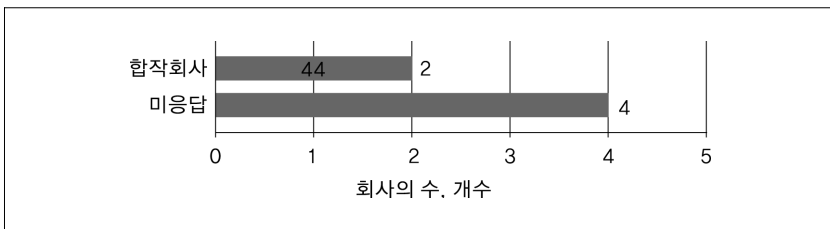
(단위: 개)



2012년 말 진행된 극동지역 러시아 기업 설문조사 결과

연방극동지역에 소재한 50개의 러시아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참여 기업들은 러시아 기업이며(44개 기업, 88%), 4%만이 합작 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부록 그림 60). 설문 조사 참여기업의 절대다수는 소규모 사업체이다(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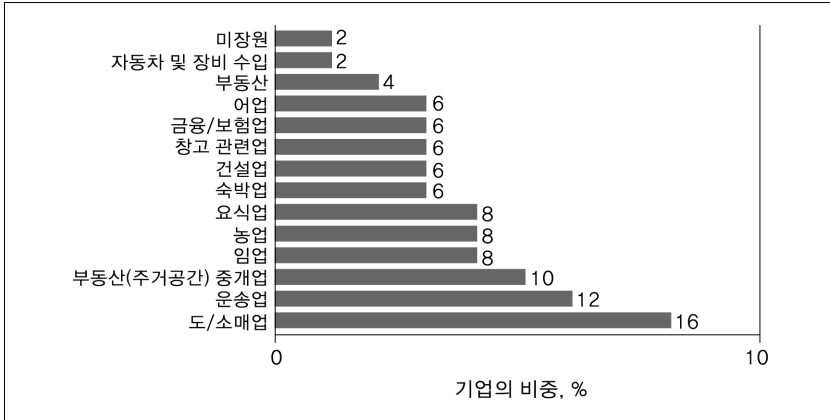
부록 그림 60 사업 진행 지역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의 분류



사업 분야별로 나누면 도소매업(16%), 운송업(12%), 부동산 중개업(10%)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 설문 참여기업은 [부록 그림 61]에서와 같이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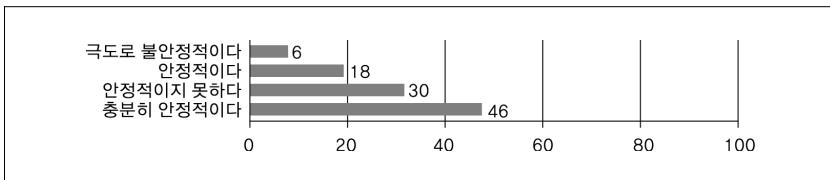
부록 그림 61 사업 중사 분야에 따른 설문 참여기업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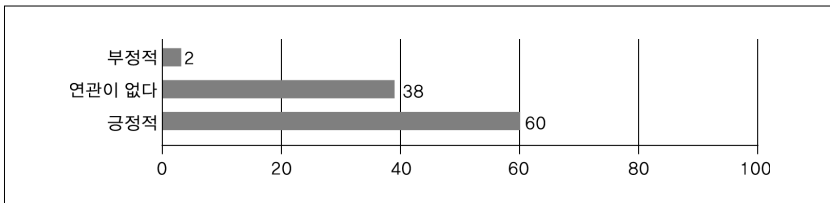


설문 참여기업들은 사업 외부 환경 요인과 관련된 러시아 정치 환경이 극동지역 경제 상황에 ‘안정적’이거나 ‘충분히 안정적’으로(64%)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록 그림 62 참고). 향후 러연방 정부의 정치 추이는 극동 지역 사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60%, 부록 그림 63 참고), 1년에서(설문 참여기업의 30%) 3년까지(설문 참여기업의 24%) 사업 발전 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그림 64 참고).

부록 그림 62 러시아 정치 환경이 최근5년간 극동지역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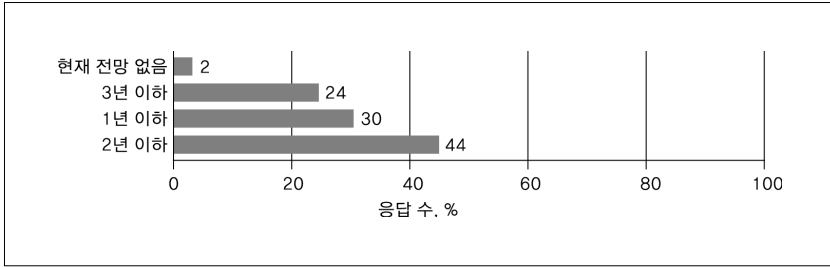


부록 그림 63 극동지역 사업 성장 전망에 대한 향후 러시아정부 정책의 추이 (단위: %)



부록 그림 64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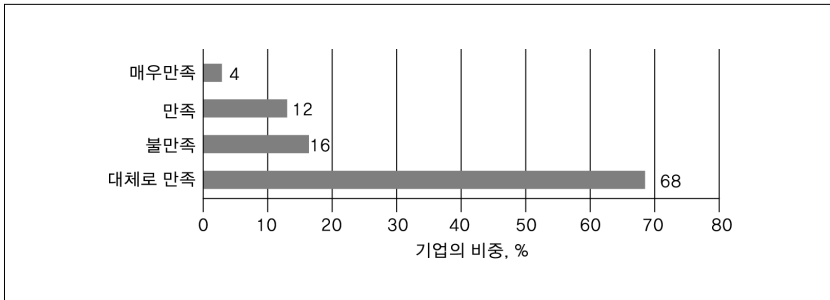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참여기업의 84%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자신들의 경제지표에는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62%가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조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였다(부록 그림 65, 6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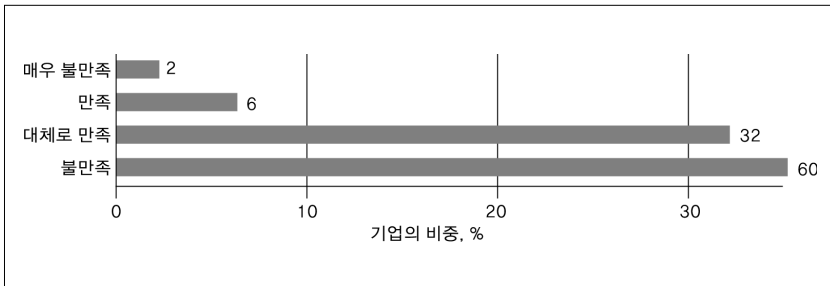
부록 그림 65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활동지수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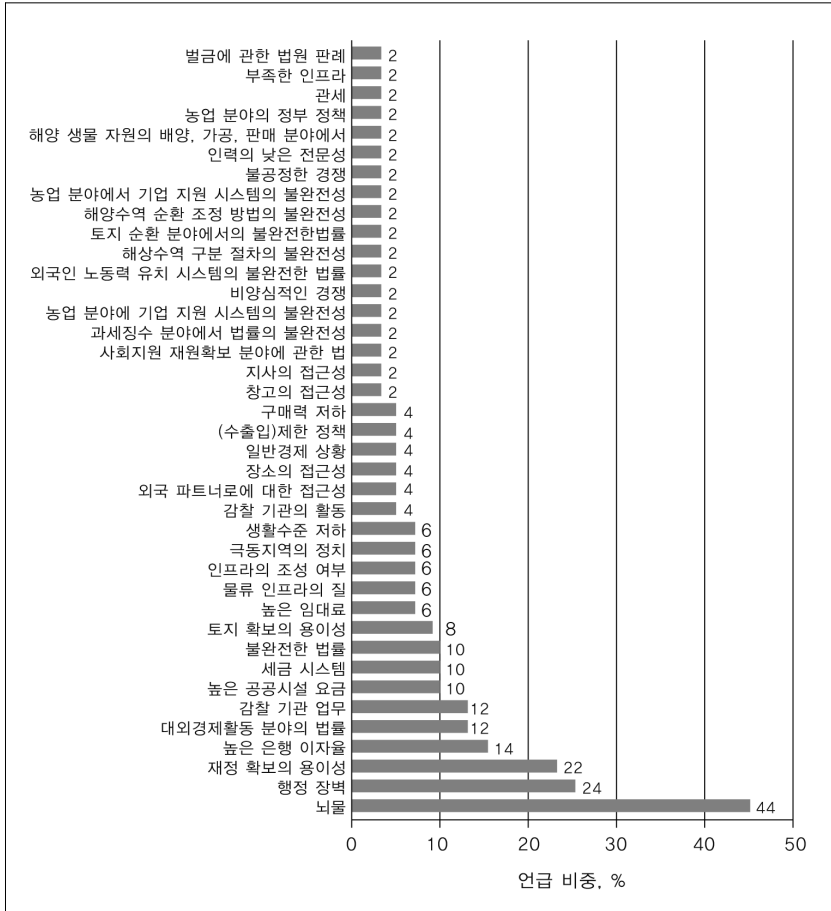
부록 그림 66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업을 위한 조건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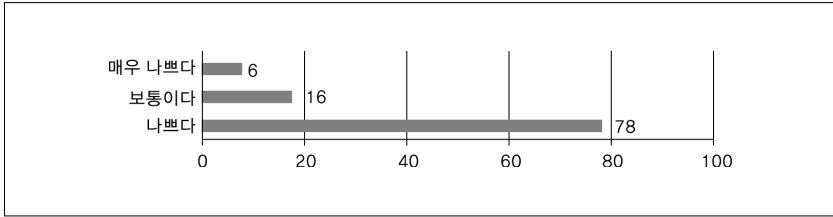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설문 참여기업들은 뇌물(44%), 불충분한 재정 확보 및 높은 은행 이자율(36%), 행정 장벽(24%)을 들었다. 기타 원인은 [부록 그림 67]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 그림 67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설문 참여기업의 사업 시작 혹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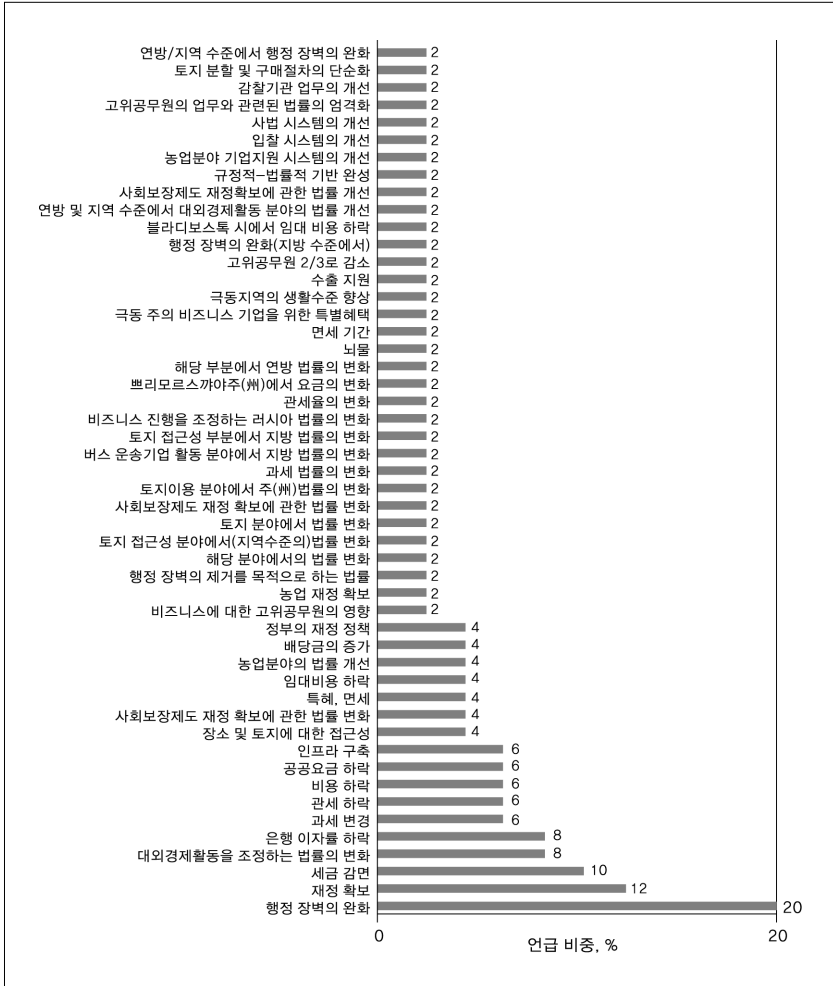


대부분의 설문 참여기업들이(84%)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 시스템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지적하고 싶다.

부록 그림 68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러시아 기업에 적용되는 과세 시스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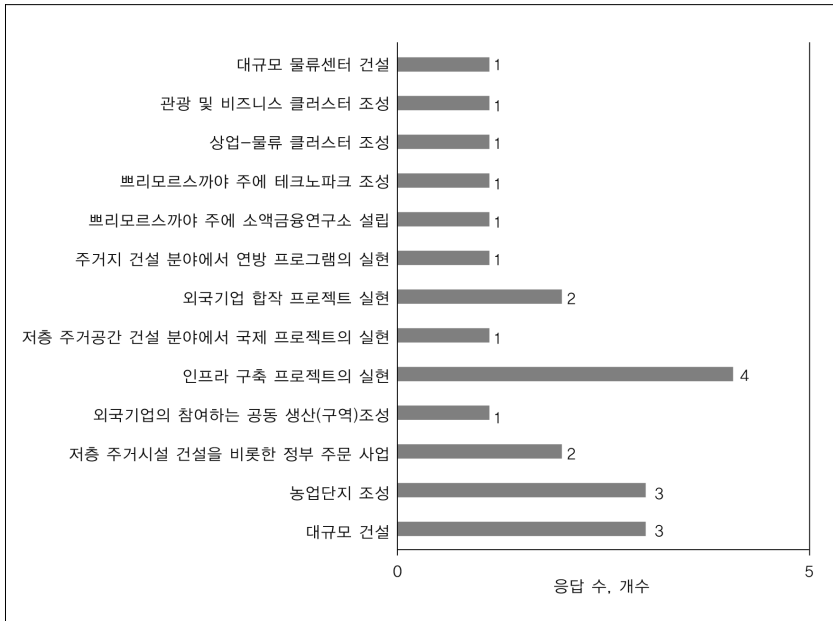
부록 그림 69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러시아 법률 변화 (단위: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당신 기업의 사업 확대를 이끌 수 있는 러시아 법률 변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 설문 참여기업들은 자신의 활동분야에 따라 답변하였는데, 이 중 가장 일반적인 답변으로 행정장벽의 완화(20%), 자본 확보(12%), 과세 감면(10%)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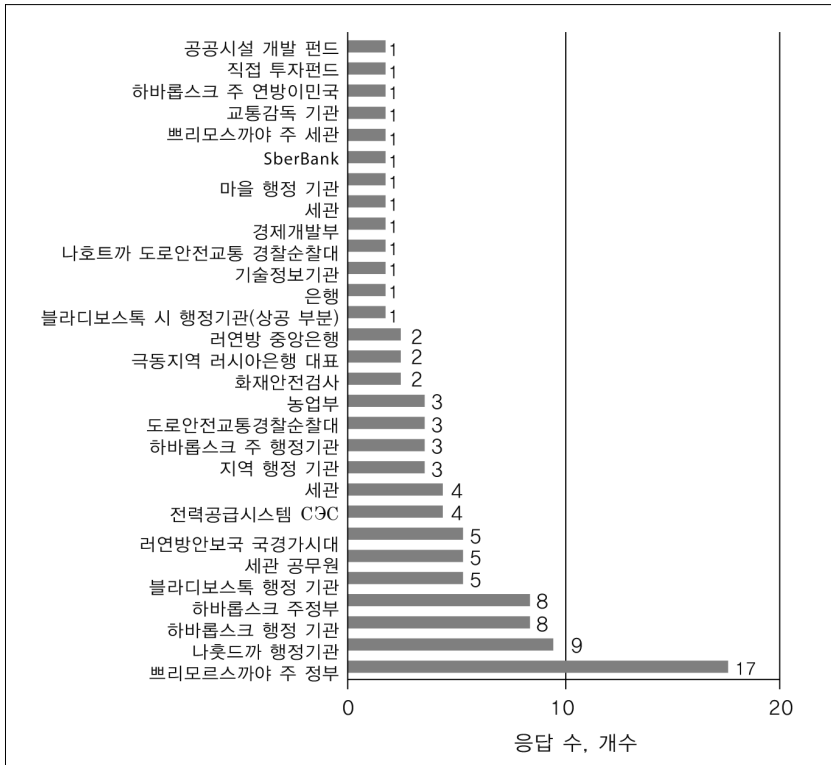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응답기업의 사업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양하게 언급되었다(부록 그림 70 참고).

부록 그림 70 설문 참여기업이 언급한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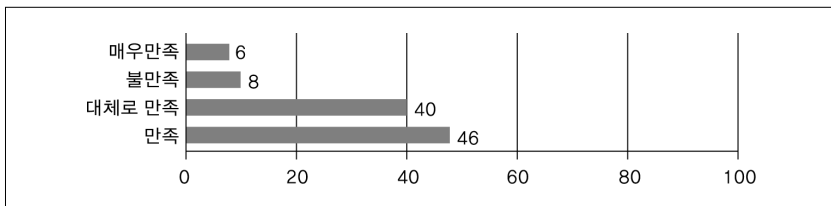


응답기업은 사업진행과정에서 극동지역의 다양한 행정기관 및 여타 기관과 협력하였는데, 이 중 극동지역 주(州) 행정기관과 지방교육 기관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부록 그림 71 참고).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92%) 이러한 협력관계에 대체로 만족하였다(부록 그림 72 참고).

부록 그림 71 설문 응답기업이 지역 내 사업 진행/확대 시 협력한 극동지역의 행정 및 각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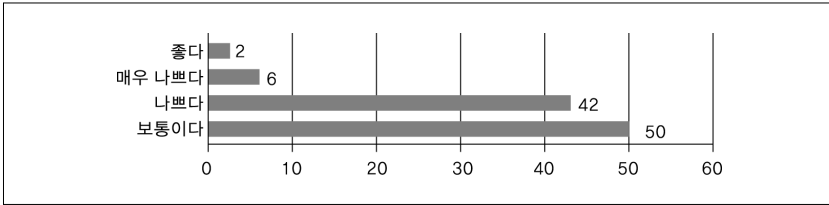
부록 그림 72 설문 응답기업이 사업 구축 및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얻은 극동지역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지방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내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어졌다. 응답기업의 48%는 ‘나쁘다’, ‘매우 나쁘다’ 에, 나머지 52%는 ‘보통이다’, ‘좋다’고 평가하였다(부록 그림 73 참고).

부록 그림 73 지방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내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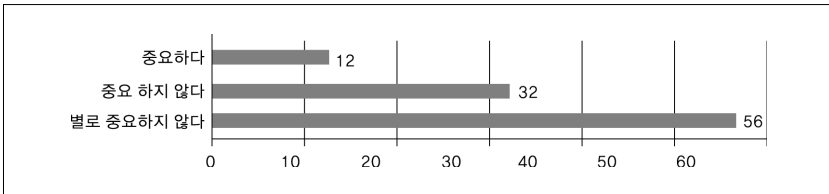
(단위: %)



설문 응답기업의 88%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파트너들에 대한 업무진행 특성과 문화에 대한 몰이해가 아태지역 국가 중소기업과의 업무협력관계의 적극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부록 그림 74 참고).

부록 그림 74 아태지역 파트너와의 업무 진행 특수성 및 사업 관행에 대한 몰이해가 아태지역 파트너들과의 업무협력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정도

(단위: %)



필자 소개

러시아 측 편집장

- Latkin A.P. 국립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국제비즈니스 경제연구소 소장

집필자

- 국립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대학 집필진
 - Latkin A. P., Nosovsky V.S., Osipov V.A., Kozlov L.E., Sandomirov A.A., Stepuleva L.F., Glukhomanova A.A., Shumik E.G., Vasilenko M.E., Kazakova B.A., Kuz'micheva I. A., Martyshenko N.S., Jurchenko N.A.
- Erokhin, Aleksei 「Ernst & Young」 극동지부장
- Korchagin P.G. 연해주 임업 및 목재 수출 협회 회장
- Krivelevich M.E.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상임연구원, 극동연방대학 부교수
- Kushnarev V.A. 러시아 중소기업 중앙협회 「OPORA Russia(Опоры России)」 연해주지부 자문위원
- Kuznetsov V.V. 블라디보스톡 국립의과대학 국제관계 부총장
- Larin V.L.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장
- Matvienko N.N. 극동연방대학 아태지역 경제개발 및 러시아통합 극동센터 연구원
- Novoseltsev E.M. 극동함대 과학연구소(ДНИИМФ) 부소장

- Pokrovsky B.I.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TINRO) 교수
- Rusin, Johnathan 국제법률회사 「Rusin & Vekki(Русин и Векки)」 운영 파트너
- Savinov I.V. 러시아 중소기업 중앙협회 「OPORA Russia (Опоры России)」 연해주지부 지부장
- Stoddart, Gevin 「Moor Stivens CIS」 자문위원
- Svetlov I.B. 극동 연료·에너지단지 전략연구센터 소장
- Semenova T.U. 주식회사 「하바롭스크 공항」 이사회 이사, 「운영그룹 KOMAKS」 전략개발부 부사장
- Tersky M.V.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경제 및 세계문제연구소장
- Fedorenko S.V. 연해주 건축가 연합(Альянс строителей Приморья) 대표
- Holosha M.V. 극동합대 과학연구소(ДНИИМФ) 교통개발본부 본부장
- Zhironkina L.L. 월간 경제지 “극동 캐피탈(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апитал)” 편집장

집필 참여 기관

-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사할린 주, 마가단 주, 캄차카 주, 아무르 주, 유대인 자치구 행정 기관들
- 혁신농업단지 주식회사 「Green Leaves(Зеленые листья)」
- 「Moor Stivens Vladivostok(Мoor Стивенс Владивосток)」
-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국제법률회사 「Rusin & Vekki(Русин и Векки)」
- 주식회사 「Sverbank Russia(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연해주 지사 №8635
- 「Soft Line(Софт Лайн)」社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연해주 본사

참고자료

1. 참고문헌

- Graham, Thomas. 2012. Россия и остальной мир – Россия–2020: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 под ред. М. Липман и Н. Петрова; Моск. Центр Карнеги. — М.: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РОССПЭН).
- Ларин В.Л., Ларина Л.Л. 2011. Окружающий мир глазам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эволюция взглядов 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на рубеже XX–XXI веков – Владивосток: Дальнаука.
- Mueller, Katja and Bradshaw, Michael J. 2006. “OPTIMIRUS. Simulating Population Change in the Russian Far Eas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2, pp. 105–125.

<http://www.kremlin.ru/news/16990>

<http://www.world-exchanges.org/statistics>: 세계거래소연맹(WFE) 공식 사이트

2. 주요 참조처 정보

1) 극동지역전반 안내

- 홈페이지: <http://www.dfo.gov.ru>
- E-mail: invest@dfo.gov.ru

2)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극동지역 행정부서

- 사하공화국(야쿠티아): <http://sakha.gov.ru/node/4610>
- 연해주 지방: <http://www.primorsky.ru/authorities/executive-agencies/departments/economics/>
- 캄차카 지방: <http://invest.kamchatka.gov.ru/>
- 하바롭스크 지방: <http://gov.khabkrai.ru/invest2.nsf/pages/ru/invest.htm>

- 아무르 주: <http://www.amurobl.ru/wps/portal/Main/ekonomy>
- 마가단 주: <http://www.magadan.ru/ru/government/Economy/investpolicy.html>
- 사할린 주: <http://mininvest.admsakhalin.ru/>
- 유대인 자치구: <http://eao.ru/?p=158>
- 추코트카 자치: http://chukotka.org/power/investment_projects/invest_coal/

3) 주정부기관 연락처

① 연해주

- 연해주 경제국:
 - Tel: (423) 2-209-234, Fax: 2-209-288
 - E-mail: depeconomy@primorsky.ru
 - Director: Dubinin Nikolay Aleksandrovich
- 대외경제활동 및 투자부:
 - Tel: (423) 2-208-336, 2-205-473
 - E-mail: prim_invest@primorsky.ru
 - 부서장: Shuvalov Christina Petrovna
- (비영리협회) 투자유치협회
 - Tel: (924) 737-44-44
 - Director: Aksenov Andrey Anatolyevich
- 연해주 투자 포탈
 - 홈페이지: www.invest.primorsky.ru
- 연해주 임업 및 목재 수출 협회 (PALEX, ПАЛЭК)
 - Tel: (423) 294-82-30
 - E-mail: palexexpo@yandex.ru
 - 홈페이지: <http://primpalex.ru/>
 - 정관에 명시된 주요 목적: 연해주 산림 부문의 효율적인 발전, 사업 활동 코디네이션, 산림 관련 기업 지원, 협회 회원의 권리 및 권익 보호
 - PALEX에는 연해주 임업분야의 경제활동에 전략적으로 주요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러시아 연해주 목재 생산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회원 기업: JSC Terneyles, JSC Les Export, JSC Dallesprom, JSC Primorskiye Lesopromyshlenniki, JSC Afina DV, JSC Sergeevsky Logging Enterprise, JSC Primtorginvest, JSC Chuguyevsky Wood-processing Company, JSC Dalnerechensky lesokombinat, JSC Primorsky lesokombinat, JSC Stroysservice, JSC PRIMF-les, JSC Roshchinsky Complex Logging Enterprise, Pavlenko A. P. SP., JSC Yappi, JSC Orion, JSC Seaside Mining

- and Processing Works, JSC Gefest, JSC Terminal, JSC Trans, JSC AVA-TRACK, JSC Infra 등)
- 태평양 과학연구 및 교육컨설팅 센터(Pacific Research and Educational Consulting Center)
 - 주소: Russia, 690090, Vladivostok, Pologaya St., 36
 - Tel: 7(914) 731-16-50, Tel/Fax: 8(423) 240-00-85
 - E-mail: stolypin-nic@mail.ru
 - 홈페이지: [http:// www. pcarc.ru](http://www.pcarc.ru)

② 하바롭스크 주

- 하바롭스크 주지사
 - 주소: Khabarovsk, K. Marx St., 56
 - Tel: 7(4212) 32-51-21, Fax: 7(4212) 32-87-56
 - E-mail: econ@adm.khv.ru
 - 홈페이지: <http://www.adm.khv.ru>
- 하바롭스크 주 입법 의회
 - 주소: Khabarovsk, Muravyeva-Amurskogo St. 19
 - Tel: 7(4212) 32-75-69
 - E-mail: admin@duma.khv.ru
 - 홈페이지: <http://www.duma.khv.ru>
- 하바롭스크 주 경제개발 및 대외관계부(部)
 - 주소: Khabarovsk, Muravyeva-Amurskogo St. 19
 - Tel: 7(4212) 32-97-39, Fax: 7(4212) 32-41-53
 - E-mail: econ@adm.khv.ru
- 하바롭스크 주 해외투자유치부
 - 주소: Khabarovsk, st. of Frunze 70
 - Tel: 7(4212) 32-50-26, 30-63-83, Fax: 7(4212)32-51-27
 - E-mail: int@adm.khv.ru
 - 홈페이지: www.fipa.khv.ru
- 대외경제협력관리국, 주(州) 경제개발 및 대외관계부의 투자관리국
 - 주소: Khabarovsk, st. of Frunze 70
 - Tel: 7(4212) 32-50-26, 30-63-83, Fax: 7(4212)32-51-27
 - E-mail: int@adm.khv.ru
- 하바롭스크 주 지역 개발부
 - 주소: Khabarovsk, Lenin St., 15
 - Tel: 7(4212) 45-29-05, 45-27-09, Fax: 7 (4212) 45-29-05
 - E-mail: office@arr.khv.ru
- 하바롭스크 주 천연자원부
 - 주소: Khabarovsk, K. Marx St., 56

- Tel/Fax: 7(4212) 32-50-80
- E-mail: priroda@adm.khv.ru
- 하바롭스크 주 천연자원부 산하 어업위원회
 - 주소: Khabarovsk, Zaparin St. 76
 - Tel/Fax: 7(4212) 32-99-61, 32-66-95
- 하바롭스크 주 재산권 관계부(部)
 - 주소: Khabarovsk, Zaparin St. 76
 - Tel: 7(4212) 32-40-85
 - E-mail: kanc@adm.khv.ru
- 하바롭스크 주 건설부
 - 주소: Khabarovsk, Muravyeva-Amurskogo St., 32
 - Tel/Fax: 7(4212) 32-83-69
 - E-mail: mail@mstr.khv.ru
- 리연방정부 산하 하바롭스크 주 정부 상설 대표부
 - 주소: Moscow, Novy Arbat St., 19, k2029 (127025)
 - Tel: (495) 697-82-07, 697-41-28, Fax: (495) 697-73-63
 - E-mail: info@khabkrai-moscow.ru
- 하바롭스크 주 소재 외무부 대표부
 - Khabarovsk, Shevchenko St., 20
 - Tel: 7(4212) 32-86-06, Fax: 7(4212) 32-63-19
 - E-mail: olga@mid.kht.ru
-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하바롭스크 주 지점
 - 주소: Khabarovsk, Muravyeva-Amurskogo St., 42
 - Tel: 7(4212) 32-46-23, 32-64-04, Fax: 7(4212) 78-31-71
- 러시아연방 세무국 하바롭스크 주 지점
 - 주소: Khabarovsk, Dzerzhinskogo St. 41
 - Tel: 7(4212) 29-23-01, Fax: 7(4212)29-23-05
 - E-mail: u27@r27.nalog.ru
- 러시아기술감독(Rostekhnadzor) 극동 운영국
 - 주소: Khabarovsk, Zaparin St 76
 - Tel/Fax: 7(4212) 32-45-26, E-mail: postmaster@ggtn.khv.ru
- 하바롭스크 주, 유대인 자치구, 사할린 주 가축검역 및 식물위생 연방 관리 운영국
 - 주소: Khabarovsk, Lenin St., 18-a
 - Tel: 7(4212) 75-05-40, Fax: 7(4212) 75-05-41
 - E-mail: rsnkhab@vth.ru
- 정부 통계청 하바롭스크 주 위원회
 - 주소: Khabarovsk, Frunze St., 69

- Tel: 7(4212) 32-92-54, Fax: 7(4212)32-66-91
- E-mail: khcsm@pop.redcom.ru
- 연방통계청 하바롭스크 주 지사
 - 주소: Khabarovsk, st. of Frunze, 69
 - Tel: 7(4212) 32-50-86, 32-92-54, 32-72-44
 - E-mail: khabstat@mail.kht.ru, khabstat@rambler.ru
- 연방이민국 하바롭스크 주 지점
 - 주소: Khabarovsk, Soyuznaya St., 64
 - Tel: 7(4212) 32-63-31, Fax: 7(4212) 52-09-03
 - E-mail: migraciya@mail.kht.ru
- 하바롭스크 세관
 - 주소: Khabarovsk, Charles Marx St., 94 a
 - Tel: 7(4212) 41-14-00, 41-14-10, Fax: 7(4212) 41-14-06
 - E-mail: www.khv.ru/customs

③ 사할린 주

- 해당 정보는 사할린 주 정부의 공식 인터넷 포털 사이트(www.adm.sakhalin.ru)에 제공되어있다.

④ 마가단 주

- 마가단주 임시 주지사 대행 Pechenyi Vladimir Petrovitch
 - 주소: 685000, Magadan, st. Gorky, 6
 - Tel: 7(4132) 623-134, Fax: 7(4132) 607-807
 - E-mail: secchif@regadm.magadan.ru
 - 홈페이지: <http://www.magadan.ru>
- 제1 부주지사 Karpenko Nikolay Borisovich
 - 역할: 투자활동, 광물채굴 관련 경제 업무, 대외경제활동 관련 행정업무 담당
 - 주소: 685000 Magadan, st. Gorky d.6, office 400
 - Tel: 7(4132) 625-005, 7(4132) 623-257, Fax: 7(4132) 607-917
 - E-mail: karpenko@regadm.magadan.ru; vasilyeva@regadm.magadan.ru
- 마가단 주 경제 위원회 의장 Penievsky Irina Stanislavovna
 - 업무: 지역 투자 환경 개선, 지역 대외 경제 관계 증진, 중소기업 개발
 - 주소: 685000, Magadan, st. of Gorky, 6, office. 410
 - Tel: 7(4132) 623-171, Fax: 7(4132) 626-208
 - E-mail: penievskaya@regadm.magadan.ru
 - 홈페이지: <http://www.magadan.ru>; www.magfer.ru
- 마가단주 천연자원 행정국 국장 Mitkin Vladimir Ivano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4

- Tel: 7(4132) 643-252, Tel/Fax: 7(4132) 607-191
- E-mail: nedra_dep@maglan.ru
- 마가단 주 탐사(채굴)권리 운영국장 Mikhaylov Sergey Boriso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1
 - Tel: 7(4132) 609-866, 7(4132) 609-858, Fax: 7(4132) 622-090
 - E-mail: magadan@rosnedra.com
- 마가단 주 정부 체육·스포츠·관광 위원회 의장 Gerasimchuk Alexander Vasilye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4
 - Tel/Fax: 7(4132) 622-025
 - E-mail: magadansport@mail.ru
- 국영기관 «특별경제지구» 기관장 Grebenyuk Sergey Nikolae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4
 - Tel: 7(4132) 201-777, Tel/Fax: 7(4132) 200-241
 - E-mail: sez1@maglan.ru; sez@maglan.ru
- 기업발전협력 마가단 지방 펀드 전무이사 Lipinsky Alexey Viktoro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4
 - Tel/Fax: 7(4132) 609-828
 - e-mail: luten@maglan.ru
- 마가단 시장 Pecheniy Vladimir Petrovitch
 - 주소: 685000, Magadan, st. of Gorky, 1
 - Tel: 7(4132) 625-047, 대표전화: 7(4132) 625-048; 7(4132) 625-050
 - Fax: 7(4132) 625-047
 - E-mail: meria@cityadm.magadan.ru
- 연방이민국 마가단 주 지점 부서장 Avgustova Jeanne Viktorovna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39, building 2
 - Tel: 7(4132) 652-081; 7(4132) 696-312
 - 24시간 안내 Tel/Fax: 7(4132) 623-078
 - E-mail: fms_magadan@maglan.ru
 - 홈페이지: <http://www.fms-magadan.ru/>
- 마가단 세관장 Gridnev Vitaly Anatolyevich
 - 주소: 685007, Magadan, Shandor Shimich St., 6/1
 - Tel/Fax: 7(4132) 607-362
 - E-mail: magtam10706@mail.ru
 - 홈페이지: <http://www.customs.ru/>
- 마가단 주 러시아농업감독국(Rosselkhoznadzor) 국장 Sinopalnikov Sergey Mikhaylovich
 - 주소: 685030, Magadan, Promyshlenny Proezd, 7

- Tel: 7(4132) 622-421
- E-mail: rsn@maglan.ru
- 연방 세무관리국 마가단 주 지점 국장 Dmitriyenko Yury Pavlovich
 - 주소: 685000, Magadan, Proletarskaya St., 12
 - 안내: 7(4132) 625-374, 언론대변인: 7(4132) 626-08,
자동응답전화: 7(4132) 625-107
 - Fax: 7(4132) 629-982
 - E-mail: u49@r49.nalog.ru
 - 홈페이지: <http://www.r49.nalog.ru>

⑤ 캄차카 주

- 캄차카 주 주지사 Ilyukhin Vladimir Ivanovich
 - 주소: 683040, Kamchatka Kray, Petropavlovsk-Kamchatsky, Lenin Square 1
 - Tel: 7(4152) 412-091, Fax: 7(4152) 423-503
 - E-mail: 41region@kamgov.ru
- 캄차카 주 경제개발·기업·무역부
 - 장관: Panchenko Elena Alekseevna
 - 주소: 683040, Petropavlovsk-Kamchatsky, Lenin Square 1
 - Tel: 7(4152) 425-680, Fax: 7(4152) 425-680
 - E-mail: econ@kamgov.ru
- 캄차카 주 천연자원 및 생태부
 - 장관: Semikolennykh Andrey Alekseevich
 - 주소: 683003, Petropavlovsk-Kamchatsky, Leningradskaya St. 118
 - Tel: 7(4152) 420-174, Fax: 7(4152) 201-206
 - E-mail: priroda@kamgov.ru
- 캄차카 주 어업부
 - 장관 임시권한대행, 캄차카 정부 부의회장: Galitsyn Vladimir
 - 주소: 683040, Petropavlovsk-Kamchatsky, Lenin Square, 1
 - Tel: 7(4152) 421-037, Fax: 7(4152) 420-955
 - E-mail: fish@kamgov.ru
- 캄차카 주 공공시설 및 에너지부
 - 장관: Kondratyev Sergey Borisovich
 - 주소: 683040, Petropavlovsk-Kamchatsky, Lenin Square, 1
 - Tel: 7(4152) 420-142, Fax: 7(4152) 420-142
 - E-mail: tek1@kamgov.ru
- 캄차카 주 건설부
 - 장관: Rudov Victor Genrikhovich
 - 주소: 683000, Petropavlovsk-Kamchatsky, Sovetskaya St., 35

- Tel: 7(4152) 460-503, Fax: 7(4152) 460-503
- E-mail: ministroy@kamgov.ru
- 캄차카 주 재산권 및 토지 관계부
 - 장관: Vydorov Boris Ivanovich
 - 주소: 683032, Petropavlovsk-Kamchatsky, Pogranichnaya St., 19
 - Tel: 7(4152) 426-198, Fax: 7(4152) 426-198
 - E-mail: MinGosim@kamgov.ru
- 캄차카 주 교통 및 도로건설부
 - 장관: Zubar Yury Nikolaevich
 - 주소: 683032, Petropavlovsk-Kamchatsky, Pogranichnaya St., 14a
 - Tel: 7(4152) 426-127, Fax: 7(4152) 426-127
 - E-mail: Transport_agency@mail.ru

⑥ 아무르 주

- 해당정보는 아무르 주정부기관 공식 인터넷 포탈 (www.amurobl.ru)에 제공되어 있다.

⑦ 유대인 자치구

- 유대인 자치구 주정부
 - 주소: 679016, EAO, Birobidzhan, 60-letiya USSR Avenue, 18
 - Fax: 4-07-25, E-mail: gov@eao.ru
- 유대인 자치구(EAO) 경제 운영국
 - 국관: Sokolova Galina Valeryevna
 - Tel: (42622) 2-01-56
 - E-mail: econ@post.eao.ru

⑧ 추코트카 자치구

- 해당정보는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기관의 공식 인터넷 포탈(<http://www.chukotka.org/>)에 제공되어 있다.

4) 극동지역 신용 기관

① 연해주

- 스베르방크 (Sberbank of Russia)
 - 오피스 №8635/0174
 - 개인고객 서비스 및 법인 긴급 지불 업무
 - Okeansky Avenue 18, Tel: (423)2608910
 - 오피스 №8635/0177
 - 국제협력/투자신용/법인회계 관련 업무
 - Okeansky Avenue 18, Tel: (423)2432363

- JSC «Dalnevostochny Bank (Far East Bank)»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1월 20일
 - 정부등록번호: 1022500000786
 - 은행식별코드(BIK): 040507705
 - 실 주소지: 690990, Vladivostok, Verkhneportovaya St., 27-a
 - Tel: (423) 2-516-400, 2-516-408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은행 업무 실행에 관한 일반적인 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dv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4 (유즈노-사할릴스크 시, 하바롭스크 시, 이르쿠츠크 시, 크라스노야르스크 시), 지점-35; 영업 오피스-5;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1
 - 은행카드 발급, 세관카드, 유가증권, VISA International 카드 발급, MasterCard Int 카드 발급
- 공동출자상업은행 «Primorie(Приморье)»
 - 기업 등록 일자: 1994년 7월 27일
 - 정부등록번호: 1022500000566
 - 은행식별코드 (BIK): 040507795
 - 실 주소지: 690990, Vladivostok, Svetlanskaya St., 47
 - Tel: (423) 2-221-255, 2-225-587
 - 허가증: 은행업무 실행에 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prim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 15;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3
 - International 은행카드발급, 세관카드, 세금납부시스템, MasterCard Int., VISA International 카드발급, DINERS CLUB, JCB International 카드발급
- 주식회사 연해주 사회상업은행 «Primsotzbank (Примсоц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4년 3월 4일
 - 정부등록번호: 1022500001061
 - 은행식별코드 (BIK): 040507803
 - 실 주소지: 690106, Vladivostok, Partizansky Avenue, 44
 - Tel: (423) 2-421-407, 2-422-060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pskb.ru>
 - 지사 및 지점: 지사-9 (우수리스크시,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카시,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옴스크, 이르쿠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첼라

- 빈스크, 예까찌린부르그), 지점-38;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3
- 은행카드발급, 세관카드, 세금납부시스템, MasterCard Int., VISA International, Golden Crown, Golden Colos 카드 발급
 - **주식회사(JSC) 상업은행 «SAMMIT-BANK (САММИТ-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89년 4월 26일
 - 정부등록번호: 1022500001930
 - 은행식별코드 (BIK): 040518780
 - 실 주소지: 692806, . Bolshoy Kamen, Gagarin St., 37
 - Tel: (42335) 554-92, 544-64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kbsammit.ru>
 - 지사 및 지점: 지사-2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지점-1, 영업 오피스-2,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1
 - AutoCard 신용카드 발급 (Bolshoy Kamen)
 - **비공개 주식회사 (JSC) «Dalta Bank (ДАЛТА-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89년 7월 31일
 - 정부등록번호: 1032500000532
 - 은행식별코드 (BIK): 040507713
 - 실 주소지: 690003, Vladivostok, Stanyukovich St., 3
 - Tel: (423) 2-607-248, 2-607-272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dalta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2,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4
 - Golden Crown(Золотая Корона) 송금 시스템 및 신용 카드 발급
 - **유한책임주식회사 «Primorsky Territorial Commercial Bank (Приморский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коммерческий 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88년 11월 10일
 - 정부등록번호: 1022500001325
 - 은행식별코드 (BIK): 040507717
 - 실 주소지: 690091, Vladivostok, Admiral Fokin St., 25
 - Tel: (423) 2-269-831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ptkb.ru>
- 지사 및 지점: 지사-4
- 세관카드, MasterCard Int. 발급

② 하바롭스크 주

- 주식회사(JSC) «NOMOS-REGIO BANK (НОМОС-РЕГИО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0월 22일
 - 정부등록번호: 1022700000047
 - 은행식별코드 (BIK): 040813737
 - 실 주소지: 680000, Khabarovsk, Amursky Boulevard, 18
 - Tel: (4212) 302-697, 324-794
 - 허가: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nomos-regio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4, 영업 오피스-3,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1
 - 통합계산시스템, 세관카드, 세금지불시스템, VISA International 카드 발급
- 주식회사 (JSC) «Royal Credit Bank (Роял Кредит 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1월 14일
 - 정부등록번호: 1022700000685
 - 은행식별코드 (BIK): 040825773
 - 실 주소지: 681000, Komsomolsk-on-Amur, Partizanskaya St., 15
 - Tel: (4217) 559-499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royal-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1 (블라디보스톡), 지점-11, 영업 오피스-14
 - MasterCard Int. 카드 발급
- 주식회사(JSC)상업은행 «Ussuri (Уссури)»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0월 26일
 - 정부등록번호: 1022700002654
 - 은행식별코드 (BIK): 040813700
 - 실 주소지: 680013, Khabarovsk, Charles Marx St., 96 A
 - Tel: (4212) 450-701, 455-384
 - 허가: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ussury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 5; 영업 오피스-3
- VISA International 카드발급, 통합계산시스템, MasterCard Int.카드발급

③ 사할린 주

- 주식회사(JSC) «Tikhookeansky Vneshtorgbank (Тихоокеанский Внешторг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1년 2월 20일
 - 정부등록번호: 1026500000031
 - 은행식별코드 (BIK): 046401728
 - 실 주소지: 693020, Yuzhno-Sakhalinsk, Kommunistichesky Avenue, 76
 - Tel: (4242) 492-601, 492-608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tvtb.ru>
 - 지점 및 지사: 영업 오피스-20,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7
 -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정산 및 카드 발급
- 비공개 주식회사(JSC) 상업은행 «Kholmsk (Холмс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0월 17일
 - 정부등록번호: 1026500000141
 - 은행식별코드 (BIK): 046423716
 - 실 주소지: 694620, Holmsk, Pobedy St., 16
 - Tel: (42433) 661-84, 661-90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kholmsk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3, 영업 오피스-1
 - MasterCard Int.,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정산 시스템 및 카드발급 업무
- 비공개 주식회사(JSC) 상업은행 «Dolinsk (Долинс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1월 21일
 - 정부등록번호: 1026500538240
 - 은행식별코드 (BIK): 046401727
 - 실 주소지: 693007, Yuzhno-Sakhalinsk, Mira Ave., 119-a
 - Tel: (4242) 723-683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bankdolinsk.ru>
- 지사 및 지점: 지점-2, 영업 오피스-1
- MasterCard Int., American Express, VISA International 정산 시스템 및 카드 발급
- 유한책임주식회사 «Ohabank (Оха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2월 10일
 - 정부등록번호: 1026500000317
 - 은행식별코드 (BIK): 046401724
 - 실 주소지: 693020, Yuzhno-Sakhalinsk, Amurskaya St., 53
 - Tel: (4242) 499-761, 499-781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유한책임주식회사 은행 «ITURUP (ИТУРУП)»
 - 기업 등록 일자: 1993년 6월 18일
 - 정부등록번호: 1026500002286
 - 은행식별코드 (BIK): 046401772
 - 실 주소지: 693000, Yuzhno-Sakhalinsk, Kommunisticheskyy Avenue, 32
 - Tel: (4242) 727-312, 727-520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지사 및 지점: 지사-1 (쿠릴스크市), 지점-1
 - VISA International, Union Card 정산 시스템 및 카드 발급, 통합 정산 시스템

④ 아무르 주

- 주식회사(JSC) «Bostochny Express Bank (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1년 5월 12일
 - 정부등록번호: 1022800000112
 - 은행식별코드 (BIK): 041012718
 - 실 주소지: 675000, Blagoveshchensk per. Svyatitelya Innokentiya, 1
 - Tel: (4162) 224-300
 - 허가증: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express-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8 (하바롭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니즈니 노브고로드, 로스토프 나 도누, 예카제린부르크, 스타브로폴), 지점-324, 영업 오피스-1390
-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정산 시스템 및 카드발급,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카드발급, 통합정산시스템, China UnionPay 카드발급
- 주식회사(JSC) «Asiatsko-Tikhookeansky Bank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2년 2월 14일
 - 정부등록번호: 1022800000079
 - 은행식별코드 (BIK): 041012765
 - 실 주소지: 675000, Blagoveshchensk, Amurskaya St., 225
 - Tel: (4162) 220-401, 220-404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atb.ru>
 - 지사 및 지점: 지사-5 (올란우데, 모스크바,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스키, 마가단, 예카제린부르크), 지점-64, 영업 오피스-202,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3
 -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정산시스템 및 카드발급, 통합정산시스템

⑤ 캄차카 주

- 주식회사(JSC) 캄차카 상업 농업은행 «KAMCHATKOMAGRO PROMBANK (КАМЧАТКОМАГРОПРОМ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0월 22일
 - 정부등록번호: 1024100000077
 - 은행식별코드 (BIK): 043002711
 - 실 주소지: 683024, Petropavlovsk-Kamchatsky, 50 Let Oktyabrya Ave, 5
 - Tel: (4152) 233-231, 260-270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kkapb.ru>
 - 지사 및 지점: 지사-2 (엘리조보시, 오제르노프스키 준도시형마을), 지점-6
 -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정산시스템 및 카드발급
- 주식회사(JSC) 상업은행 «MUNITZIPALY KAMCHATPROFIT BANK

(Муниципальный Камчатпрофит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2년 9월 4일
- 정부등록번호: 1024100000165
- 은행식별코드 (BIK): 043002717
- 실 주소지: 683032, Petropavlovsk-Kamchatsky, Pogranichnaya St., 19
- Tel: (4152) 411-164, 469-209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profit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3 (빌류친스크,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지점-9, 대리점-1
- MasterCard Int. 정산시스템 및 카드발급

• 주식회사(JSC) «Solid Bank (Солид 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1년 1월 4일
- 정부등록번호: 1024100000121
- 은행식별코드 (BIK): 043002708
- 실 주소지: 683024, Petropavlovsk-Kamchatsky, Lukashevskogo St., 11
- Tel: (4152) 266-720, 266-726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solid-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사-6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카잔, 알메찌예프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우파), 지점-15, 영업 오피스-4
- MasterCard Int. 정산시스템 및 카드발급, 통합정산시스템

⑥ 사하 공화국(야쿠티아)

• 주식회사(JSC) 상업은행 «Almazэриэн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3년 12월 6일
- 정부등록번호: 1031403918138
- 은행식별코드 (BIK): 049805770
- 실 주소지: 677000, Yakutsk, Lenin Avenue, 1
- Tel: (4112) 343-662, 421-876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al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점-13, 영업 오피스-5,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1,

대리점 - 2

- 교통카드,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카드발급
- 주식회사(JSC) «Aldanzolotobank (Алданзолото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1월 21일
 - 정부등록번호: 1021400001040
 - 은행식별코드 (BIK): 049853792
 - 실 주소지: 678900, Aldan, to st. is 10 years of Yakutia, 31-a
 - Tel: (41145) 356-62, 359-82
 - 허가증: 루블화/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업무 (개인 예금 예치 업무 제외), 개인의 루블화/외화 예치 업무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azbank.ru>
 - 지사 및 지점: 신용-출납 오피스-1
 - 통합러시아지불시스템(ORPS) 적용 및 카드발급,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카드발급
- 주식회사(JSC) 은행 «Taatta (Таатта)»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12월 20일
 - 정부등록번호: 1021400000380
 - 은행식별코드 (BIK): 049805709
 - 실 주소지: 677000, Yakutsk, Lenin Avenue, 1
 - Tel: (4112) 346-003, 365-520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taatta.ru>
 - 지사 및 지점: 지사-1 (칸스크市), 지점-3, 영업 오피스-1, 신용-출납 오피스-2,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2
 - VISA International, MasterCard Int., DINERS CLUB, JCB International 정산시스템 및 카드발급
- 유한책임회사 네룬그리스크 상업은행 «Neryungribank (Нерюнгрибанк)»
 - 기업 등록 일자: 1990년 3월 29일
 - 정부등록번호: 1021400001292
 - 은행식별코드 (BIK): 049849762
 - 실 주소지: 678960, Neryungri, Druzhby Narodov Avenue, 29/4
 - Tel: (41147) 407-07, 432-32
 - 허가증: 예금유치 및 귀금속 보관 허가, 은행업무에 대한 일반허가
 - 예금보험제도 가입 여부: 가입
 - 홈페이지: <http://www.nerungribank.ru>

- 지사 및 지점: 지점-3, 출납구가 없는 영업 오피스- 1
- MasterCard Int., Golden Crown (Золотая Корона) 정산 시스템 및 카드발급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Investment Guide of the Russian Far East

발행일 | 2013.11.07

발행인 | 이일형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 02-3460-1114

편집·인쇄 | 한디자인 (02-2269-9917)

등록 |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0101-6 93320 정가: 20,000원